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① 2.③ 3.④ 4.④ 5.① 6.① 7.④ 8.② 9.② 10.④
11.② 12.③ 13.④ 14.④ 15.⑤ 16.② 17.⑤ 18.② 19.③ 20.③
21.⑤ 22.① 23.③ 24.⑤ 25.① 26.③ 27.⑤ 28.⑤ 29.③ 30.③
31.④ 32.① 33.⑤ 34.① 35.⑤ 36.⑤ 37.⑤ 38.② 39.② 40.①
41.④ 42.③ 43.④ 44.③ 45.② 46.③ 47.④ 48.④ 49.① 50.②
51.② 52.② 53.⑤ 54.① 55.③ 56.① 57.④ 58.③ 59.⑤ 60.③

[듣기 대본]

1번. 이제 강의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날씨가 더워졌죠? 여름철 안전사고에 주의할 때입니다.

오늘은 수상 안전과 관련된 인명 구조 기술을 배워 보겠습니다. 우선 실습에 앞서 인명 구조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죠. 그림을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슴잡이 기술입니다. 이 그림에서 구조원은 자신의 한쪽 팔로 익수자, 즉 물에 빠진 사람의 가슴을 감싸며 익수자의 반대쪽 겨드랑이를 잡고 있습니다. 주로 익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익수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구조원은 익수자와 몸을 수평 상태로 유지하며 자신의 한쪽 손으로 익수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 구조원은 익수자의 겨드랑이를 밑에서 위로 잡아야 합니다. 이 방법을 한쪽 겨드랑이 끌기라 합니다.

이번 그림은 두 겨드랑이 끌기 기술입니다. 익수자의 위치가 물 속에 있을 경우 구조원이 익수자의 두 겨드랑이를 각각 잡고 익수자를 수면 위로 밀어 올린 다음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죠. 구조원이 자신의 한쪽 손으로 익수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휘젓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손목 끌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2번. 이번에는 '새 은행권 발행'에 대한 뉴스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 :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는 새 은행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발행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부장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자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먼저 새 은행권을 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자 : 최근 들어 위조 지폐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캐너와 컴퓨터를 이용한 위조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위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으로는 최첨단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은행권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위폐 방지를 위해 도안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나라가 많은데, 2002년 이후 45개국에서 100종의 새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앵커 : 새 은행권에서 바뀌게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관계자 : 우선 위폐 방지를 위해 최첨단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규격은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축소하여 사용상의 편리를 도모하며, 도안은 밝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여 예술적 세련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도안 인물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새 은행권 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앞으로 발행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자 : 위폐 문제가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새 은행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오천 원권이 발행되며, 그 다음 해에 천 원권과 만 원권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이번에는 대학생 간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답지까지 다 들은 후에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축하해. 한 번에 취직됐다며? 대단하다.

여 : 대단하긴 뭘.

남 : 나한테도 비결 좀 가르쳐 줘. 내일 면접 보러 가거든.

여 : 그래? 당연한 얘기지만 공손하고 솔직한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 그러면서도 자기 삶의 자세를 당당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어.

남 : 음, 간단할 거 같진 않은데. 한번 예를 들어 줘 봐.

여 : 지난 번 면접관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1학년 때 학점이 유난히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뭘니까?” 그때 난 좀 난처했어.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내 삶의 자세를 드러낼 수 있는 대답을 찾아냈지.

남 : 그래? 뭐라 그랬는데?

여 : “제가 그때 고민이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

남 : 야, 대단한데. 그래 이제 좀 알 거 같다.

여 : 그러면, 비슷한 질문을 할 테니까, 내가 한 것처럼 대답해 봐. (잠시 후 목소리를 면접관처럼 바꾸어서) “어쩌다 졸업이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자, 이제 예상되는 남학생의 답변을 들려 드립니다.

<첫째 답변입니다.> 예? 글썄요. 으음, 현재의 저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돈을 좀 벌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부는 열심히 못 했습니다만…….

<셋째 답변입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넷째 답변입니다.> 학비를 버느라고 졸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인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다섯째 답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은 앞으로 저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4번.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의 초가집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초가집 하면 아마도 전통, 자연, 환경 등과 같은 말들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초가집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벗짚, 소나무, 진흙 등 자연의 재료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여 초가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가집은 그 배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살기에 편안한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초가집의 지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짚은 가벼워서 기둥에 압력을 적게 줍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눈이 녹아도 짚의 결을 따라 물방울이 흘러내려 잘 새지 않습니다. 짚을 받쳐 주는 것은 소나무 기둥인데, 그 속에는 썩지 않는 송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송진이 소나무 속을 잘 썩지 않게 만들어, 초가집을 오랫동안 지탱하게 해 줍니다.

우리 선조들은 복잡한 계산을 통해 지붕이나 기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원리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나면, 자연이 알아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진흙벽에서도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과 6번!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박사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박사님, 오늘은 청취자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사람은 왜 잠을 잘까?', '몇 시간이나 자는 것이 적당할까?', '낮잠을 자는 것이 좋은가?', '불면증일 경우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사람은 왜 잠을 잘까요?

박사 : 잠을 자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우리 몸에 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다양한 활동으로 몸에 피로가 쌓이면 이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자야 한다는 거지요.

진행자 : 예. 그럼, 몇 시간 자는 것이 적당할까요?

박사 : 사람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인의 수면 주기를 고려할 때, 여덟에서 아홉 시간은 자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자면 수면 리듬이 깨져 피곤해집니다. 또한 잠을 적게 자는 것도 해롭지만 불규칙하게 자는 것이 더 해롭습니다.

진행자 : 예. 그리고 낮잠을 많이 자서 걱정이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낮잠을 자는 것이 좋은가요?

박사 : 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밤잠이 부족한 사람은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입시 준비로 잠이 부족한 수험생은 부족한 수면량을 낮에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휴일에 몰아 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에도 평소처럼 자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다음 질문인데요.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 : 불면증이란 잠이 아예 잘 안 오거나 잠자리가 불편해 자주 깨는 증상입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늘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를 보충하려고 하죠. 하지만 낮잠을 많이 자게 되면 밤에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행자 :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박사 : 음,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집니다. 그럴 경우 허기를 잘 느끼고 많이 먹게 돼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멍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지나치게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진행자 :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해설]

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네 가지 인명 구조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제로, 익수자를 중심으로 구조원의 위치, 사용하는 팔, 익수자와 접촉하는 부위 등 주로 구조원의 자세를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슴을 감싸며 익수자의 반대쪽 겨드랑이를 잡고’ 혹은 ‘익수자와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며 자신의 한쪽 손으로 익수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두 겨드랑이를 잡고’, ‘한쪽 손으로 익수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휘젓기를 반복’ 등이 정답과 관련된 정보가 된다.

2. 추론적 사고(청취자의 반응 추리)

정답해설 : 방송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에 대해 청취자는 의문을 품게 된다. 새 은행권의 규격과 도안, 도안 인물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 위폐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위폐 방지를 위한 외국의 노력 등은 지문을 통해 언급되었으나 왜 오천원이 천 원권이나 만 원권보다 먼저 발행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청취자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3. 창의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남학생은 여학생으로부터 듣게 된 면접의 요령에 따라 대답을 하게 된다. 여학생이 강조한 면접 요령의 핵심은 ‘공손하고 솔직하게 말하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졸업이 왜 늦어졌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솔직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따라 나와야 하는 것이다. 제시된 대답 중에 졸업이 늦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둘째 답변과 넷째 답변인데, 둘째 답변은 자기 변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바람직한 대답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발표 학생은 초가집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자연의 원리를 따르며 살아갔던 선조들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 선조들의 지혜란 자연 재료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자연이 알아서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방식을 고수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복잡한 계산 없이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이다. 발표 학생은 초가집의 지붕과 진흙벽 등을 살펴보며 바로 그런 선인들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

5.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박사의 설명을 통해 잠에 대한 정보들을 얻은 후, 그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묻고 있다. 답지의 내용들은 새롭게 얻은 정보를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에 적용해본 것들인데, ①은 ‘낮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불면증이 걸렸다.’고 파악한 것이므로 제시된 정보의 내용과 어긋난다. 이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

이 잠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낮잠을 자주 자려고 하고 그로 인해 밤잠이 없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는 내용을 잘못 받아들인 결과이다.

6.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진행자는 대담의 앞부분에서 청취자들의 질문을 나열하였고,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조목조목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담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대담자의 말을 요약한다거나 설명을 덧붙이는 행위 없이 청취자들의 질문을 전문가에게 던져서 궁극적으로 청취자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7. 창의적 사고(조건에 맞는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는 사물 B가 A에 대해 갖는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벽돌’과 ‘담’은 ‘이해 관계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그 갈등의 조정과 해소’라는 의미 관계로 연결될 수 없다. ‘벽돌’은 ‘담’을 구성하는 요소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창의적 사고(조건에 맞게 계획하기)

정답해설 : 글의 과제는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의 초점은 고장을 빛낸 인물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 인물의 생가와 관련한 진술이 글 속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초점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동시에 생가의 보존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 역시 적절한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인물의 생가를 찾아서라는 제목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인물의 자취를 느낄 수 있게 서술함으로써 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③ 시각적 자료를 첨부하는 것과 관련된다. ④ 관광객을 예상 독자로 설정한 것과 관련된다. ⑤ 내용을 흥미롭게 진술하면서 인간적 면모가 드러나게 한다는 조건과 관련된다.

9. 추론적 사고(자료의 활용을 통한 논지 생성)

정답해설 : <보기>의 자료 중에서 (가)는 계층 간 소득 격차에 따른 의료 서비스 격차를, (나)는 정부가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을, (다)는 중증 질환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진료 부담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는 소득 하위 계층 즉 빈곤층과 관련된 자료라는 점에서, (가)와 (다)는 ‘의료비’와 관련된 자료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나)와 (다)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자료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자료를 모두 활용한다면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와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논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담은 진술이 ②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만 해당한다. ③ (가)와 (나)에만 해당한다. ④ 장기 계획이

라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나)의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⑤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나)에서 제시된 시행해야 할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논지라고 볼 수 없다.

10. 창의적 사고(조건에 맞게 글 쓰기)

정답해설 : 분필을 ‘나’로 설정한 것은 1인칭 서술자로 설정한다는 조건을, ‘딱딱’이라는 표현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한다는 조건을, 아픔도 있지만 앓의 기쁨을 전한다는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 방향으로 반전시킨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지우개가 1인칭 서술자로 설정되지 않고 진술의 대상-내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존재-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전체 진술이 모두 긍정적으로 진술되어 내용이 반전된다고 할 수 없다.

③ ⑤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진술되고 있다.

11. 비판적 사고(문장 및 문단 수준에서의 퇴고)

정답해설 : ㉠의 앞 부분에 진술된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서 미리 보기는 했지만’으로 되어 있다. ‘-지만’은 ‘-지마는’의 준말로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미리 보고 상상했던 그림’과 ‘실제로 본 그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반대되었다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상했던 것만큼’으로 고치게 되면 앞의 진술과 문맥적으로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12. 비판적 사고(개요의 작성과 수정)

정답해설 : 개요 <가>에서 ‘2. 해양 개발의 필요성’의 하위 항목에 설정된 ‘가. 청정 대체 에너지원 확보’를 고려하면 해양 개발의 필요성은 ‘해양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시한 의견은 이를 ㉢ 즉, ‘가, 해양 오염 방지, 나. 관련 법안 마련’으로 대체하자고 한다. 그러나 ‘가. 해양 오염 방지’는 기존의 항목인 ‘가. 청정 대체 에너지원 확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고, ‘나. 관련 법안 마련’은 해양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된 항목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3-나.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을 위한 과제’와 관련하여 그 하위 항목으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13. 어휘·어법(높임법의 올바른 이해)

정답 해설 : ‘요’는 존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미로서 존대의 의미를 담고자 할 때 쓰인다. 단어가 지니고 있는 뜻을 바꾸지는 않으면서 존대의 의미를 추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주로 문장의 종결 어미에 붙어서 쓰이지만 문장의 중간에

도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한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요’가 빠지면 존대의 의미가 달라질 뿐 문장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요’가 붙는다고 해서 기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⑤ ‘요’는 부사어나 연결 어미 뒤에, 그리고 종결 어미 뒤에 붙는다.

14. 어휘·어법(국어 사전 만들기)

정답 해설 : <보기>에 제시된 ‘듣고’의 의미를 파악하여 ㉠과 ㉡ 이외에 어떤 뜻을 ㉢에 추가해야 하는지 찾아내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문장 중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어떤 내용을 전달받다’는 의미로 ㉡에 해당하고, 네 번째, 여섯 번째 문장은 ‘감각 기간을 통해 소리를 알아차린다’는 의미로 ㉠에 해당한다.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농담으로 받아들이다’, ‘고깝게 받아들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추가되어야 할 ㉢의 의미로는 ③이 가장 적합하다.

[15-19]현대시

작품해설

(가) 김기림, ‘바다와 나비’ : 이 시에서 ‘흰나비’는 시적 화자가 변용된 모습이다. 연약한 ‘흰나비’는 순진하게도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오인하여 ‘바다’로 향했다가 쓴맛을 보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여기서 ‘바다’가 냉혹한 현실 세계, 또는 삭막한 근대 문명을 상징한다면, 그 피해자인 ‘흰나비’는 낭만적 꿈을 간직한 순수한 인간형, 좀더 구체화하면 거대하고 삭막한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 주제 : 냉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

(나) 최승호, ‘북어’ : 이 시는 식료품 가게에 비참한 형상으로 진열되어 있는 북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도시민의 나약한 삶을 투영시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자신과 초라한 북어의 처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즉, 이 시에서 북어는 단순한 소재의 차원을 넘어 화자의 모습을 반영한 시적 대상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주제]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삶에 대한 반성

(다) 오장환, ‘고향 앞에서’ : 이 시에서 화자는 고향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현실적인 귀향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영원한 정신의 안식처인 고향을 상실한 데서 오는 회한과 애상감, 그리고 그리움은 절절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식민지 치하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지 못하는 한, 눈앞에 실재하는 고향 역시 과거 속의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정서적 상황을 시인은 독특한 감각적 표현에 담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잃어버린 고향 앞에서 느끼는 향수(鄉愁)

15. 추론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3연에서는 냉혹한 현실을 상징하는 거대한 바다의 무서움을 비로소 알게 된 ‘흰나비’의 좌절감을 그리고 있는데, ‘흰나비’와 ‘새파란 초생달’의 색채 대비를 통해 절망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적 화자 스스로 부당한 세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북어의 처지와 다를 바 없다고 느끼는 데서 생기는 자괴와 자책의 심정을 청각적 심상을 빌어 표현하고 있다. (다)에서도 귀향에 대한 소망을 청각과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세 시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여운을 남기면서 시상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의 경우, 냉혹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 삶의 반성에 해당하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③ 세 시와 어울리지 않는 진술이다. ④ (가)의 경우, 낭만적 꿈을 좌절당한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비’에 투영되어 있다.

16. 추론적 사고(발상의 과정 추리)

정답해설 : ‘청무우밭’은 생명성을 지닌 공간이고, ‘바다’는 무생명성을 상징하므로 둘은 대립적 공간이지만, 색채의 유사성으로 인해 ‘흰나비’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3연에서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겹쳐지면서 ‘바다(= 물결)’에 절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시각의 촉각화(⇒공감각적 표현)가 일어나고 있다.

[오답피하기] ‘공주’는 연약한 ‘나비’의 이미지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대한 ‘물결’과 맞서고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꽃이 피지 않아서’에서의 ‘꽃’은 ‘청무우밭’이라는 소재에서 연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 비판적 사고(시어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북어’는 할 말을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병어리처럼 살아가는 가여운 소시민을 의미하는데, 꿩꿩어진 ‘대가리’, 자갈처럼 딱딱하게 굳은 ‘혀’, 짜부러진 ‘눈’, 뻗뻗한 ‘지느러미’는 모두 초라한 북어의 일부로서 ‘북어’와 동일시되고 있는데 반해, 커다랗게 벌린 ‘입’은 할 말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나머지와 이질적인 속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18. 추론적 사고(시어의 의미와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우선 시적 화자는 고향을 떠난 상태에서, 고향이 있어도 현실적인 귀향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고 상실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존재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화자에게, ‘주인집 늙은이’나 ‘행인’, 떠돌이 ‘장꾼들’ 등은 화자

가 떠난 동안에 있었던, 화자가 모르는 고향의 소식이나 정취를 들려 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의 처지와 결코 같다고 할 수 없다.

19. 추론적 사고(화자의 태도 추리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흰나비’가 ‘그 곳’에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 곳’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세계인 줄로 착각한 결과였다. 다시 말해서 ‘흰나비’가 ‘그 곳’에 갔다가 겪은 것은 긍정적 상황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받은 채 절망을 안고 돌아와야 하는 부정적 상황이었다. 따라서 (다)의 화자가 ‘그 곳’을 희망의 공간으로 파악한 것은 잘못이다.

[20-23] 생활,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에 대한 인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를 문화론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하면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나 관리가 아닌 지지와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쓴이는 청소년 문화를 성인 문화에 대해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나서, 청소년 문화의 독자성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소개한 다음, ‘길거리 문화’를 예로 들어 청소년도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의 필요성

[구성] 1문단 - 청소년 문화에 대한 두 가지 견해

2문단 - 청소년 문화의 독자성에 대한 견해 차이와 그 원인

3문단 -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의 의미

4문단 - 특별한 목적 없이 길거리로 나서는 청소년들

5문단 - 청소년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이유

6문단 -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접근의 필요성

20. 추론적 사고(글쓴이의 견해 추리)

정답해설 : 글쓴이는 청소년 문화를 계도 대상으로 보는 성인들이 많다는 것을 언급하고 나서, 청소년 문화의 독자성에 대한 논란을 소개한 다음, ‘길거리 문화’를 예로 들어 독자적인 청소년 문화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를 계도의 대상이 아니라 지지와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길거리 문화의 형성을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연관시켜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관련된 생각이다. ② 5문단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관련된 생각이다. ④ 3~4문단에 나타난 내용과 관련된 생각이다. ⑤ 1문단에 나타난 내용과 관련된 생각이다.

21. 어휘·어법(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앞뒤 어구는 문맥상 ‘청소년 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이러한 견해 차이’로 해석되므로, ㉠은 ‘어떤 사물을 행동이나 관심의 대상으로 삼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됨됨이만 놓고 보면’도 ‘됨됨이를 대상으로 삼아 생각해 보면’으로 풀이되므로, 밑줄 친 ‘놓고’의 문맥적 의미가 ㉠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아니하다.’ ㉡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람이나 짐승을 내보내다.’ ㉢ ‘주되는 음식에 다른 것을 섞어 한 음식으로 만듦다.’ ㉣ ‘걱정이나 근심, 긴장 따위를 잊거나 풀어 없애다.’

22. 추론적 사고(전제의 추론)

정답해설 : ㉠은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상황은, ‘문화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상황이다.

[오답피하기] ㉡에는 문화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든지, 세대를 이어 계승된다든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문화 창조와 사회 정책의 관계에 대한 단서도 나타나 있지 않다.

23.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추리)

정답해설 : 글쓴이는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나 관리가 아닌 지지와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길거리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에서도 청소년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길거리 문화를 성인 문화가 아닌 청소년 고유의 문화로 본 이 글의 논지에 어긋난다. ㉡ 길거리 문화를 청소년의 독자적인 문화로 본 이 글의 논지에 어긋난다. ㉣ 길거리 문화를 불완전한 문화로 보지 않고 독자적인 청소년 문화로 인정한 이 글의 논지에 어긋난다. ㉤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에 대해 지지와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글의 논지에 어긋난다.

[24-27] 고전소설, 작자 미상, ‘서동지전’

지문해설 : 서동지전은 우화적 기법을 통해 인간 삶에 나타난 사필귀정의 모습을 드러낸 작품이다. 동물로 형상화된 인물들을 통해 선량한 타인을 모함하여 곤경에 빠뜨리는 인간 세상의 부정적인 세태를 고발하고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잘못을 범한 자를 가려내고, 다시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삶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권선징악(勸善懲惡)

24. 비판적 사고(작품의 서술상 특징 이해)

정답해설 : 지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드러나 있다. 하나는 백호산군이 다람쥐의 말을 듣고 오소리와 너구리 형제로 하여금 서대쥐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오소리와 너구리가 서대쥐의 집에 찾아가 백호산군의 명령을 전하면서 서대쥐에게 음식을 대접받고 황금을 받는 장면이다. 두 장면에서 오소리는 각기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백호산군의 명령을 받은 후에 오소리는 너구리에게 서대쥐가 교만하여 자신을 무시한다고 말하면서 분풀이해야 한다고 베틀지만 서대쥐의 대접을 받은 후에 분노했던 마음이 진정되어 서대쥐에게 서대쥐를 고소한 다람쥐를 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전개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등과 같이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하여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평을 하는 부분이 있다. ②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쥐 집으로 가는 오소리와 너구리의 모습, 오소리와 너구리를 달래기 위해 노력하는 서대쥐와 장자쥐 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회상 형식으로 진술되지도 않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부분도 없다. ④ 비장감이란 슬픔과 장엄함을 동시에 느끼는 감정이므로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25. 사실적 사고(사건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서대쥐는 오소리와 너구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후하게 대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은 정성이라고 말하면서 마련한 황금을 준다. 따라서 오소리와 너구리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려고 한 서대쥐가 대접이 소홀하여 부끄럽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② 소장 양쪽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에 결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③ 기왕 뇌물을 받으려면 툭툭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성인도 권도하는 것, 즉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때가 있다고 하면서 오소리에게 두 번 살펴 달라 부탁하고 있다. ⑤ 서대쥐를 잡아 자신과 너구리를 괘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6. 추론적 사고(인물의 의도 파악)

정답해설 : ㉠은 너구리의 말인데 너구리는 오직 서대쥐의 재물에 관심을 갖고 뇌물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에 나타난 ‘전례’는 오소리가 앞에서 언급하는데, 소송당한 쪽의 전례를 말하면서 수백 냥이 아니면 놓아주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재물과 관련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27. 추론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제시된 지문에서 재판은 백호산군이 담당하고 있다. 백호산군은 소송을 제기한 다람쥐만이 아니라 소송을 당한 서대쥐도 불리 사정을 들은 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백성을 괴롭히는 불합리한 재판 제도를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백호산군이 따지는 절차는 잘잘못을 제대로 가리기 위한 공정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너구리는 서대쥐로부터 재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노한 척 하며 말하고 있다. ② 오소리와 너구리가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쥐의 집인 토굴 밖에서 큰 소리로 서대쥐를 부르며 나올 것을 독촉하고 있다. ③ 우화적 기법을 활용하여 인간 세상의 모습과 인간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황금 스무 냥을 주어 오소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대쥐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28-32] 예술, '분청사기의 형성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실용적인 목적에서 사용된 분청사기가 어떻게 예술성을 갖게 되었는가를 분청사기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고려말에 이르기까지는 국가에서 도자의 생산과 유통을 관리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것이 상감청자였다. 하지만 14세 후반 고려 왕조가 쇠운을 맞게 되자 도공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민요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상감청자의 전통 위에 서 있지만 새로운 분장 기법을 시도한 분청사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서민층들에게까지 생활 용기로 사용되었던 분청사기가 왕실이나 관에서도 사용하게 됨으로써 분청사기 밑에 장명을 쓰게 하는 조처가 내려져 도자 생산의 질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분청사기는 기능적이면서도 심미적인 조형미를 갖게 된 것이다.

[주제] 분청 사기가 예술성을 갖게 된 배경

[구성] 1문단 - 분청사기의 특징

2문단 - 분청사기에 대한 의문

3문단 - 상감청자의 생산과 유통

4문단 - 민요의 등장과 상감청자의 쇠퇴

5문단 - 분청사기의 탄생 배경

6문단 - 분청사기의 유통과 생산

28.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분청사기는 고려 왕조가 쇠퇴한 가운데 민요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상감청자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새로운 도자 양식으로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청사기가 상감청자보다 뛰어난 기법을 획득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분장 기법들을 사용한 것뿐이다.

[오답피하기] ① 분청사기는 실용적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예술적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②상감청자가 관요에서 만들어진데 비해 분청사기는 민요에서 만들어졌다. ③ 왕실이나 관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국가가 품질 관리를 하기도 했다. ④서민들의 생활 용기뿐 아니라 왕실이나 관에서도 사용하였다.

29. 비판적 사고(논리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실용적 목적에서 사용되었던 분청사기가 어떻게 예술적 조형미를 획득하게 되었는가를 분청사기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살펴 보고 있다. 특히 분청사기가 어떻게 해서 예술성을 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진 뒤에 통시적 관점에서 이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가설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필자의 관점은 나타나 있지 않고 사실대로 기술한 설명문이다. ④상감청자와 분청사기를 비교한 글이 아니라, 분청사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밝힌 글이다. ⑤통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비판도 나타나 있지 않다.

30. 추론적 사고(내용 삽입하기)

정답해설 : 앞의 문장에 대해서 보충하는 뒷받침 문장을 추가하는 문제로 앞의 문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의 앞에는 국가의 철저한 감독 아래 도공들은 독점적 생산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신분의 구속과 규제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의 감독이 도공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정적으로도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국가의 간섭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는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약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독이 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①분청사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짝게 비지떡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②‘화룡점정’은 ‘무슨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앞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④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기보다는 살길을 찾아 전국으로 흩어진 것이다. ⑤‘절치부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의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분하다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찾은 것이다.

31. 어휘, 어법(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의미는 ‘세상에 알려진 평판이나 명성’을 뜻한다. ④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로서의 이름을 뜻한다. 나머지는 모두 세상에 알려진 명성이나 평판을 의미한다.

32. 추론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분청사기 밑에 장인의 이름을 쓰게 함으로써 도자 생산의 질 관리를 가

능하게 하였고, 아울러 도공들에게 독특한 장인 정신을 발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개인의 창작 욕구를 위축시켰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예술적 조형미를 분청사기가 가질 수 있도록 촉진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피하기] ②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이름을 내걸고 만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④자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영터리로 만들 수가 없었다. ⑤도자의 품질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33-36] 사회, '공론장의 필요성'

지문해설 : 이 글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공론장의 필요성과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의 바른 역할

33. 비판적 사고(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1문단에서 공론장의 개념을 제시한 후, 이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3, 4문단에서는 이 중에서 비판적 의견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진정한 공론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결국 글쓴이가 3, 4문단에서 비판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한 것은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오답피하기] ①상반된 견해가 있다고는 했지만, 이 글은 주로 비판적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두 견해를 절충하기보다 비판적 입장에 동조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34. 추론적 사고(생략된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진정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다수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특정한 집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론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는 다수의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특정 입장만 홍보하면서도 겉으로는 이것이 전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말한다. 이는 결국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35.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의 추리)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중을 수동적인 방관자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은 방송사가 의도한 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대중들의 자유로운 토론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토론 프로그램이 진정한 공론장으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6.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제시)

정답해설 : A에서 설명한 공론장의 핵심은 개개인의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결국은 이렇게 형성된 여론이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을 찾아야 한다. ‘토론회에서 협의된 의견’이라는 데에서 첫째 조건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데서 둘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의사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전파와 전파 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다. ②아래로부터 위로의 상향식 의견 수렴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정책이 전달되고 있다. ③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 전문가와의 대담이 제시되었다. ④의견 수렴 과정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

[37-41] 기술, ‘트리즈의 개념과 적용 사례’

해설 : 이 글은 창의적 문제 해결의 이론인 트리즈를 소개한 글이다. 우수한 특허는 모두 모순을 극복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의 유형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기술적 모순이란 두 개의 기술적 변수의 값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말하고, 물리적 모순이란 하나의 변수가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가지게 됨으로써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모순들은 발명의 이론인 트리즈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비행기의 속도에 관한 기술적 모순인 출력과 무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와, 비행기의 공기 저항에 관한 물리적 모순인 마찰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주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

[구성] 1문단 - 발명에 있어서의 모순의 문제

2문단 - 기술적 모순의 개념과 사례

3문단 - 기술적 모순을 해결한 구체적 사례

4문단 - 물리적 모순의 개념과 사례

5문단 - 물리적 모순을 해결한 구체적 사례

6문단 -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

37. 추론적 사고 (세부적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기술적 모순이건 물리적 모순이건 하나의 기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어느 것이 더 복잡한 기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한 이 글의 정보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 든 예로는 기술적 모순은 비행기 엔진과 관련되어 있고, 물리적 모순은 비행기 바퀴와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반드시 이것이 둘 사이의 복잡한 기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기술적 모순이나 물리적 모순을 쉽게 알아낼 수 없다고 하였다. ② 40가지 발명의 원리에서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③기술적 모순의 바탕에 물리적 모순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④비행기의 바퀴의 경우 이착륙시에는 필요하지만 비행 중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 때는 바퀴를 동체에 집어넣는다.

38.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A] 는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을 발전시킬 경우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를 든 것이다. 즉 비행기의 속도를 높이려면 출력을 올려야 하지만 출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엔진의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진다.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하면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비행기의 속도에 있어서 출력을 높이는 것과 엔진의 무게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엔진 출력이라는 변수와 엔진 무게라는 변수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모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39.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비행기에 복합 재료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 무게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의 무게가 늘어나서 속도가 떨어지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에 의한 분리는 비행기의 바퀴를 이착륙할 때와 비행할 때의 시간에 따라 달리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행기 바퀴로 인한 공기 저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비행기의 바퀴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기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의 결과는 무게의 감소가 되고, ㉡의 결과는 공기 저항의 감소가 된다.

[오답피하기] 바퀴의 제거는 ㉡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라 ㉠의 구체적 행위이기 때문에 ㉠은 답이 되지 않는다.

40. 창의적 사고(홍보 문구의 작성)

정답해설 : 위 글을 근거로 하여 발명 동아리 회원 모집의 홍보 문구를 만들려면 위 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발명의 원리인 트리즈는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때 과학은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발명은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 모순을 극복하는 원

리가 트리즈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41. 어휘 어법(개념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그 하위어와 그 단어가 추상화된 단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는 길의 하위어이고, ㉡는 길을 추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방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가 된다. 악몽은 길몽 등과 함께 꿈의 하위어가 되고, ‘꿈’은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추상화시킨 실현하고 싶은 소망을 뜻한다.

[오답피하기] ㉠동해는 하위어가 되지만 ‘바다’가 추상화가 되지 않았다. ㉡손가락은 손의 하위어가 아니라 손의 일부이다. ㉢해바라기는 하위어가 되지만 이는 꽃에 대한 하위어일 뿐 ‘씨앗’에 대한 하위어가 아니다. ㉤남풍은 ‘바람’의 하위어이지만 ‘나의 바람’의 ‘바람’은 ‘바라다’에서 온 말로 전혀 다른 말이다.

[42-45] 인문 ‘남녀의 성차(性差)와 평등 문제’

지문해설 : 이 글은 남녀간의 성차(性差)에 대한 기존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글쓴이의 주장의 핵심은 남녀 성차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만약에 그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차이는 오직 평균적이기에 남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 남녀의 성차별에 대한 비판적 인식

42. 사실적 사고(글의 핵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핵심은 남녀의 성차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다. 비록 성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글쓴이는 이 차가 오직 평균적이기에 사람을 남녀로서가 아니라 개별체로 보고 개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반대한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논쟁의 핵심이 아니다.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도 글쓴이는 차별을 반대함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성별의 차이의 원인은 남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 것이고, 만약 남녀의 차이가 있고 원인이 밝혀진다면 하더라도 이것이 남녀간의 차별을 옹호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했다.

43. 비판적 사고(문단의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라)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논지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글쓴이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즉, 이는 성차가 오직 평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이고, 이로부터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44.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의 추리)

정답해설 : ㉠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볼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남녀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속된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속된 집단이란 남자 또는 여자로 뭉뚱그려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피하기]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인격에 대한 차별과 평등이 아니라 ‘남녀의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정답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어 함정의 요소가 강하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과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평등은 본문에서보다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본문에서는 ‘남녀의 차별’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평등이란 남녀간의 성차,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 성인과 미성년의 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 등 그 범주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45. 어휘, 어법(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거론: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기 위하여 말함.(행락철을 맞아 자연보호 문제를 거론하다.) ㉡입증: 증거를 내세워 증명함.(알리바이를 입증하다.) ㉢설명: 어떤 일의 내용이나 이유의 따위를 알기 쉽게 밝혀서 말함.(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보아라.) ㉣주장: 자기의 학설이나 의견 따위를 굳이 내세움.

[46-50] 현대소설,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전쟁 체험 세대인 ‘형’과 미체험 세대인 동생(‘나’)을 내세워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서로 다른 아픔을 안고 사는 형제의 이야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형은 6.25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여 전쟁의 기억에서 오는 뚜렷한 실체가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동생은 환부(患部)다운 환부를 갖고 있지 않은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형’은 6.25때 동료를 과실 치사(過失致死)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인데 반해, 동생인 ‘나’는 형과 같은 절실한 체험적 아픔도 없으면서 무기력하게 자신을 포기한 채 자신의 힘으로는 아픔의 실체를 찾아낼 수 없다는 까닭모를 패배감에 젖어 있는 존재이다. ‘형’은 소설 쓰기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만, ‘나’는 애인도 없고 그림도 못 그리는 무기력 속에서 ‘병신과 머저리’로서의 삶을 영위한다. 결국 ‘나’는 형처럼 구체적인 갈등 속에서 외부와 싸우기보다는 수동적인 관조 속에서 현실을 회피하는 가운데 삶의 의욕과 소망마저도 상실한 채 살아간다. 결국 ‘나’는 비인간적인 산업화의 진행으로 인해 삶의 의욕과 희망을 상실한 현대인의 내면적 아픔을

형상화한 인물인 셈이다. 이청준의 소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작품 역시 당대의 역사적 의미나 이념적 성격을 문제삼기보다는 인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실존적 의미를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는 작품인 셈이다.

[주제] 삶의 방식이 다른 두 형제의 서로 다른 아픔과 그 극복 의지

46. 비판적 사고(작품에 대한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이 작품은 ‘형’과 ‘나’가 겪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형’은 소설 쓰기를 통해, ‘나’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아픔을 치유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내면 심리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며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① ‘형’의 소설 이야기와 ‘나’의 그림 이야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④ 이 글에는 ‘나’의 서술 부분과 ‘형’의 대화 부분에서 줄표와 줄임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작중 상황에 대한 서술자(‘나’)와 인물(‘형’)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⑤ 앞부분에는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이 나타나 있고, 뒷부분에는 인물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가 나타나 있다.

47. 사실적 사고(사건의 순서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는 형이 소설을 쓰는 내용과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서로 연관이 없는 듯한 두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 형이 소설을 쓰기 전날 나의 화실에 불쑥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아 두 행위는 연관이 있으며 두 인물의 심리적 상태와도 연관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한다면 먼저 동생인 내가 헤인과 헤어진 후(ㄴ), 이전부터 갈망해 오던 인간의 근원에 대한 그림의 충동을 내가 새삼 느껴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ㄷ) 하지만 윤곽만을 떠 놓은 상태였을 때, 형이 나의 화실을 방문했고(ㄹ), 바로 다음날 형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ㄱ)

48. 추론적 사고(어구의 문맥적 의미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에서 ‘형’과 같은 절실한 체험이 없는 ‘나’는 인간의 원형적 얼굴을 그려 내려고 하지만 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에서 ‘얼굴의 윤곽만 떠’ 놓았다는 것은 그림에 근원적이고 절실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49. 추론적 사고(발화의 의도 파악)

정답해설 : [A]의 진술은 동생의 그림을 본 형의 반응일 뿐 동생의 예술적 견해가 집약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동생은 자신의 예술적 견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동생의 그림은 어떤 얼굴에 대한 강한 예감이 있었지만 그 구체적 모습과 만날 수 없었기에 외곽선만 떠 놓고 고심하고 있는 중이었다. 따라서 동생의 그

림 속에 동생의 예술적 견해가 집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피하기] 형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새로 탄생한 인간의 눈과 입은 좀더 독이 흐르는 쪽이어야 할 것 같다는 진술인데 이는 형이 동생의 그림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얼굴 모습을 말한 것으로, 모호한 삶의 태도를 버리고 자기 삶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갖기 원하는 형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선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진술인데 이는 어떤 얼굴을 강하게 예감하고 긴장한 선으로 얼굴의 외곽선을 그렸다는 동생의 심리 상태와 부합하는 진술이다. 따라서 형은 동생의 심리 상태를 간파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은, 분명한 모습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긴장만 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찾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림에서 형이 찾아낸 ‘의미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0. 어휘·어법(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문제해설 : 이 글에서 ‘치다’는 ‘어떤 대상이 흔들려서 물결 같은 것이 일다’는 뜻으로 쓰인데 비해 <보기>에서 ‘치다’는 ‘비, 눈, 번개, 물결, 바람 따위가 세차게 뿌리거나 움직이다’의 의미로 쓰였다.

[51-54] 과학, ‘과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

지문해설 : 논리실증주의 관점에서 실시한 연어의 회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학 철학적 관점이 과학적 지식의 생성에 미치는 역할을 설명한 글이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가설과 비교하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과학 이론과 같은 과학적 지식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연어의 회귀성 연구를 통해 알아 본 과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

51.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6문단에서 필자는 의문스러운 현상의 해석을 위해서 우선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사전 지식에 기초하여 감정적 설명을 창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전 지식 즉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없다면 새로운 과학적 가설을 생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경 지식은 과학적 가설 생성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1문단에서 과학적 지식의 생성은 과학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6문단에서 가설 설정, 실험, 관찰, 비교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의 사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생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6문단에서 현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문스러운 현상에 직면할 때 과학자들이 과학적 탐구 과정을 시작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⑤2~5문단에서 연어의 회귀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6문단에서 가설이 지지되기까지 가설 생성, 자료 수집과 비교 등 검증의 과정이 순

환적으로 반복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52. 창의적 사고(시각적 자료로 전환하여 표현하기)

정답해설 : 연어의 포획 및 방류와 관련된 3문단을 보면 연어들을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보다 하류인 담수에 방류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포크와 이사과 하천은 서로 만나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하며 방류 지점은 만나는 지점보다 하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류 지점은 바다가 아닌 담수 지점이어야 한다. 따라서 ②가 가장 적절한 그림이 된다.

53. 비판적 사고(유사한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과학적 지식의 생성 그리고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찰과 실험 등 경험적 검증 가능성의 적용 여부이다. <보기>에는 00이론이 검증이 가능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으므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라면 00이론에 대해서 실험과 관찰이 불가능한 비과학적 이론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54. 추론적 사고(적절한 자료와 연결하기)

정답해설 : 현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문스러운 현상은 연어가 자신이 방류된 곳으로 회귀하는 현상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품게 되는 의문과 관련되는 것이지 인디언의 사고 방식과는 관련이 없다. 인디언들은 연어의 회귀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과학적인 의문을 품지 않는다. 따라서 인디언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적 배경을 취제한 내용은 과학적 지식을 생성하는 최초의 계기로 작용하는 ㉠과 관련하여 제시될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사전 지식이 바로 뱀장어의 후각 가설이고 잠정적 설명이 바로 연어의 회귀성을 후각 가설을 적용한 설명이다. ㉢ ㉣ ‘검증 방법’을 생각한 것은 가설에 따라 연어를 대상으로 실행하려고 한 실험 및 관찰 계획에 해당하고 ‘자료 수집’은 이에 따라 연어를 대상으로 실제 실행한 내용들을 기록 및 녹화한 것에 해당한다. ㉤ ‘이것’은 실제 연어의 재포획하면서 얻은 실험 결과이고 ‘잠정적 설명으로부터 연역된 결과’는 연어의 회귀성을 후각 가설로 미리 설명한 예상된 결과이므로 이를 비교하면 그 가설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실험 결과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55-60] 고전시가, 수필 복합

작품해설

(가)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봄밤의 정취에 취해 잠 못 드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조이다. ‘이화’, ‘월백’,

‘은한’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자아내는 분위기에 ‘자규’의 소리를 통한 청각적 이미지까지 가미하며 자신의 애절한 춘심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봄밤의 애상적 정취

(나) 사설시조, ‘귀뚜리 저 귀뚜리~’

가을 밤에 임과 이별한 여인이 자신의 외로움을 귀뚜라미에 감정 이입하여 노래하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화자는 잠을 깨운 귀뚜라미를 원망하면서도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아는 것은 귀뚜라미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외로움

(다) 윤오영,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

글쓰는 작가와 독자가 글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이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이 바로 그런 글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작가는 독자를 위하여 여과된 감정과 사색이 드러나는 글을 쓰고, 독자는 행간의 의미까지 깊이 있게 읽어 내게 되면 작가와 독자는 글을 매개로 하여 행복한 만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주제] 좋은 글의 의미

55. 창의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봄날 밤의 애상을 노래하고 있는 (가)와 독수공방의 외로운 처지를 노래하고 있는 (나)는 혼자 있는 화자의 모습을 쉽게 떠오르게 한다. (나)는 ‘귀뚜리’를 반복함으로써 외로운 자신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고, (다)는 ‘~싶다.’의 형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세 작품은 모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느낀 감성을 바탕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나)가 ‘귀뚜리’나 (다)의 제재들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활용된 것은 아니다.

56. 비판적 사고(작품에 대한 접근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①은 외재적 접근 방법인데 반해 그 외의 답지들은 작품만을 가지고 충실하게 접근하고 있는 내재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작품 속에 나오는 ‘이화’, ‘월백’ 등의 소재를 ‘군주에 대한 시인의 마음 상태’로 연결짓는 것은 작품 외에 시인의 생각까지 고려한 접근 방법이 된다.

57. 추론적 사고(소재의 시적 기능 추리)

정답해설 : ‘자규’와 ‘귀뚜리’가 지니고 있는 시적 기능은 화자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

런 소재들은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긴 하지만 화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8. 추론적 사고(시적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㉔는 님을 그리워하며 겨우 든 잠을 깨우는 귀뚜리에 대한 원망이 들어 있는 표현이고, ㉕는 자기 자신에게 귀뚜리에 대해 생겨난 원망하는 마음을 털어내 버리고 마음을 진정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59. 비판적 사고(글의 취지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핵심은 작가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답지들 중에서 ‘소통’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야 한다. ㉑는 옛날의 작가와 오늘날의 작가가 사용하는 소재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작가와 독자의 소통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60. 창의적 사고(인접 영역에의 적용 및 감상)

정답해설 : A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모양이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것이다. 선비의 맑은 향기를 ‘난’으로, 여인의 빙옥 같은 심정을 ‘매화’로, 장부의 기개를 ‘대[竹]’로 나타내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탈속의 정신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배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을 제시했다는 ㉑의 내용이 이와 유사한 관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③ 2.① 3.③ 4.② 5.⑤ 6.① 7.④ 8.⑤ 9.④ 10.⑤
11.① 12.② 13.④ 14.④ 15.⑤ 16.③ 17.⑤ 18.⑤ 19.① 20.③
21.③ 22.⑤ 23.③ 24.① 25.③ 26.③ 27.④ 28.⑤ 29.③ 30.②
31.③ 32.④ 33.② 34.① 35.③ 36.④ 37.④ 38.② 39.① 40.②
41.① 42.④ 43.② 44.⑤ 45.① 46.③ 47.⑤ 48.③ 49.⑤ 50.⑤
51.④ 52.② 53.④ 54.② 55.② 56.① 57.④ 58.④ 59.② 60.③

[듣기 대본]

1. 이제 우리 건축에 관한 교양 강좌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을 보면, 건물을 지면으로부터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단이라고 해요. 기단은 지면의 습기를 막아 주고, 햇빛이 잘 들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주죠.

기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단은 재료와 형태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며 알아보까요? ('딸깍' 하는 프레젠테이션 소리)

이 그림을 보시죠. 이것은 '장대석기단'이라 하는데, 도로 경계석과 같이 일정한 길이로 가공한 돌을 가로로 층층이 쌓아 만든 기단입니다. 조선 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기단으로,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사이)

다음 그림은 '토축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을 다져 쌓았는데, 진흙에 작은 돌이나 기와 조각을 섞어 견고성을 높였습니다. 일반 살림집에서 많이 사용되었죠. (사이)

이번에 보여 드리는 것은 '자연석기단'이라 합니다.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이를 맞춰 쌓은 것입니다. 주로 작은 규모의 살림집에 사용되었지만, 가끔은 규모가 큰 건물에서도 볼 수 있죠. (사이)

다음 그림은 '가구식기단'입니다. 기단을 만들 때 목조 가구를 짜듯이 만들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지면에 긴 화강석을 가로로 놓고 그 위에 몇 개의 돌기둥을 세웠죠. 그 다음 넓은 판석으로 기둥들 사이를 막은 후에, 다시 그 위에 화강석을 얹어서 만들었습니다.

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강사는 기단의 역할을 설명한 다음 기단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이 되는 정보는 도로 경계석처럼 가공된 돌을 사용한 것(장대석 기단)과, 진흙 속에 작은 돌이나 기와 조각을 섞은 것(토축 기단),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맞춰 쌓은 것(자연석 기단), 그리고 몇 개의 돌기둥을 쌓은 것(가구식 기단) 등이다. 이

렇게 제시된 세부 정보를 선택지의 그림에 적용시켜 보면 ①은 토축 기단, ②는 장대석 기단, ④는 자연석 기단, ⑤는 가구식 기단이므로, ③은 제시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 ③

2. 이번에는 수업에서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효과음)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 소리

이 소리는 성덕대왕신종 소리입니다. 흔히 에밀레종이라고 하지요. 1998년 이 종의 성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종에서 유향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유향은 타종 시에 종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여 분산시킨다고 합니다.

이 종의 뚜껑 부분에는 음관이라 해서 대나무 모양의 관이 있습니다. 이 음관은 중국 종이나 일본 종에는 없는 우리나라 종만의 특징이죠. 음관은 종의 내부와 연결되어 있어서 종을 쳤을 때 최초로 들리는 ‘짱’ 하는 충격음을 종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최초의 충격음은 300Hz의 고주파여서 우리 귀에 거슬리는데, 그 소리가 음관을 통해서 빠르게 종 밖으로 빠져나가지요. 그리고 나면 64Hz 부근의 다른 소리들이 서로 간섭해 강약을 반복하는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 귀에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여운이 남게 됩니다.

성덕대왕신종에는 종소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장치가 더 있습니다. 이 종은 몸통을 3등분하였을 때 위에서 아래쪽으로 2/3가 되는 지점이 가장 볼록한데, 바로 여기에 ‘당좌’라 해서 종을 때리는 타격점을 연꽃 모양으로 조각해 놓았습니다. 이곳을 타격했을 때 종소리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2.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학생의 발표를 통해 알게 되는 몇 개의 핵심 정보로 발표의 핵심 주제를 파악해내는 문제이다. 학생은 성덕대왕 신종의 유향 성분은 종을 칠 때의 충격을 흡수한다고 했고, 또 외국의 종에는 없는 음관이 있어 귀에 거슬리는 소리들을 빠져나가게 해준다고 발표했다. 또한 종의 아래쪽에 당좌가 있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타격점을 제시해준다고 하였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면, 학생이 발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덕대왕 신종의 ‘과학성’임을 알 수 있다. [답]①

3. 이번에는 ‘인체’에 대한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몸에 있는 뼈는 그 개수가 대략 200개쯤 됩니다. 신생아 때에는 300개가 넘지만, 자라면서 그 수가 줄어드지요.

뼈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인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형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팔과 다리의 뼈는 굵고, 손목이나 발목뼈는 짧습니다. 신경이 지나는 곳의 뼈에는 홈이 파져 있습니다.

뼈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도 뼈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뼈

는 제 기능을 충실히 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데, 뼈의 강도는 같은 무게의 철근 기둥보다도 더 강합니다.

뼈를 구성하는 성분은 다양합니다. 특히 인체 내 칼슘의 99%와 인의 90%가 뼈속에 있는데, 뼈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인의 비율이 적절해야 합니다. 1:2 정도가 이상적이지요.

뼈를 구성하는 성분의 균형이 깨져서 밀도가 낮아지면 뼈는 부러질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을 뼈영성증 또는 골다공증이라고 부르지요. 무리한 다이어트로 몸무게를 줄일 경우에도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뼈영성증을 예방하려면 생선, 우유, 미역과 같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고, 햇볕을 자주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해야 합니다. 반면 소금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1주일에 최소 3일, 한 번에 20~30분씩은 걷는 것이 좋습니다.

3.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강연을 통해 인체의 뼈에 대한 정보들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반응들이 적절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답지의 내용들은 강연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에 적용해본 것들인데, 강연에서 뼈의 성장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뼈영성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기능에 따라 굵은 뼈와 짧은 뼈, 그리고 흠이 파져 있는 뼈가 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④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이 뼈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⑤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 부러질 위험성이 크다는 데서 알 수 있다.

4.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 실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특정한 행동을 통제하는 실험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 인간의 심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자: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는 말입니다. 행동 통제 실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자: 그렇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있겠지요. 제한된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단순화한다면, 인지는 물론 감정이나 욕망까지도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이는 밝혀졌습니다.

여자: 아니지요. 어떻게 인간과 동물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동물과 같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인간은 문화에 따라서도 그 심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동양인과 서양인은 그 문화의 차이만큼이나 생각의 틀이 다릅니다. 서양식 사고방식에서 나온 실험 심리학으로 동양인의 심리를 짚 수는 없습니다.

남자: 글썽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인간의 기본 특성은 같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실험 심리학이 인간 심리의 핵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추론적 사고(토론의 쟁점 파악)

정답해설 : 이 토론에서 남자는 인간의 특정한 행동을 통제하여 실험을 하면 인간의 심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자는 인간의 심리는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 통제 실험을 통해서도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두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토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는 쟁점은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다. [답] ②

[5~6] 이번에는 나눔 경영에 대한 라디오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는 ‘나눔며 살자’는 운동이 아름답게 퍼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나눔경영본부의 대표이신 네모그룹의 김나눔 회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대담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는 일도 바쁘실 텐데 ‘나눔 운동’까지 실천하고 계신데요. 회장이 생각하시는 ‘나눔 운동’, ‘나눔 경영’이라는 게 무엇인지요?

대담자: 네, 우선 나눔이란 말 그대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지요. 경영의 차원에서는 기업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되돌려 준다는 취지입니다.

진행자: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면 사원 복지에는 관심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 혹시 사원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대담자: 하하, 그럴 리가요. 오히려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도 우리 회사의 여직원 봉사 활동 모임에서 시작한 걸요. 매월 두 차례씩 주로 무의탁 노인 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것이 지금처럼 확대되었지요.

진행자: 예,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차원의 봉사 활동이 보편화된 것은 아닌데, 혹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담자 : 아, 예……. 솔직히 물론 그런 면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기업도 이윤만 추구하는 경영 태도를 버리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겠지요. 기업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진행자 :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서 ‘나눔 경영’을 실천하신다는 거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대담자 : 우리 회사에서는 회사 이익의 3%를 적립하여 ‘나눔복지재단’이라는 공익 법인을 만들어 본격적인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청소년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캠페인이라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대담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청소년들의 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운동입니다. 나누며 살아야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워 봉사를 실천하게 하자는 운동이지요. 우리 회사에서는 이 운동을 위해 올해부터 기업의 복지 분야 예산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진행자 : 아- 네. 기업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습니다. 아무튼 기업이 우리 이웃과 사회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 평가)

정답해설 :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눔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자와 대담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진행자는 대담자에게 다소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도 질문으로 던지고 있고, 주로 사회적 분위기와 결부시킨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다. 또 대담자의 답변 내용 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유도하기도 한다. 대담자는 진행자가 묻는 질문 내용에 맞춰 자신의 소신대로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⑤가 말하기 방식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6.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나눔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업의 회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곧 사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진행자와 대담자는 나눔 경영의 개념, 취지, 직원들의 반응, 진정한 목적,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모든 정보가 ‘나눔 운동’을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답] ①

[7-14] 쓰기, 어휘·어법

7.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제목의 선정)

정답해설 : <보기>의 자료1은 효라는 한자에서 자식을 의미하는 부분인 ‘자’가 땀을 흘리며 흔들리고 있는 표현을 통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효도가 쉽지 않음을 알려준다. 자료2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3은 자식이라는 이유로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이 세 자료로부터 노인을 봉양하는 효도의 문제가 자식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제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답] ④

8. 비판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제시된 자료는 정부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으며 높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 취업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정책보다 장애인 스스로 취업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는 자료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다. [답] ⑤

9. 논리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개요의 수정)

정답해설 : 자료 ㄱ은 사이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 ㄱ에서는 ‘인터넷상의 익명성 해소’ 즉 ‘인터넷 실명제’를 지정한 후 이러한 방법으로는 인터넷상의 인권 침해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답] ④

10. 창의적 사고(조건에 따른 글쓰기)

정답해설 : ‘내 힘을 남용하면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라는 표현은 지나침에 대한 경계를, 신용카드를 마치 말하는 사람처럼 만들어 ‘나’로 표현한 것은 의인화의 기법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의 표현은 대조의 표현 기법을 각각 드러내주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상에 대한 경계와 대조의 표현 기법만이 보인다. ② 대조의 표현 기법이 보이지 않는다. ③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만이 보이고 있다. ④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지 않다.

11. 논리적 사고(뒷받침 문장의 생성)

정답해설 : [A]는 앞문장의 논지를 보강하는 뒷받침 문장이다. 그러므로 앞문장의 주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앞문장은 자연 개발에 대해 개발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며 개발의 과정에서 자연의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을 위해 자연 개발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 환경의 훼손은 어쩔

수 없다는 ①의 진술이 [A]의 뒷받침 문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의 앞문장에서 말하는 손실은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라 자연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다.

12. 비판적 사고(고쳐 쓰기 방안)

정답해설 : ㉠의 주어는 생략된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의 서술어는 ‘생기다’의 활용어인 ‘생길지’이다. 그러므로 ㉡의 방안이 잘못된 것이다. [답] ㉡

13. 어휘·어법의 이해(조사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두 말을 연결시켜 주는 조사 ‘와/과’는 앞말의 의미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과), 없느냐(와)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 [답] ④

14. 어휘·어법의 이해(어휘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보기> 내용의 핵심은 단어의 의미는 단어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선지의 단어들이 놓인 구조는 다르다. 그러므로 의미의 차이가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④에서 앞의 ‘간섭하기’나 뒤의 ‘간섭하는’은 모두 ‘남의 일에 참견함’의 의미로 쓰였다. ‘간섭하다’의 다른 의미로는 ‘음파나 광파 등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그 둘이 겹쳐져서 서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현상’이 있으나 ④에서는 이러한 의미로는 쓰이지 않았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앞의 ‘밝다’는 ‘잘 알아서 막힘이 없다’의 의미이며, 뒤의 ‘밝다’는 ‘빛이 환하다’의 의미이다. ② 앞의 ‘갔다’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의 의미이고, 뒤의 ‘간다’는 ‘이해가 된다’의 의미이다. ③ 앞의 ‘깨지고’는 ‘운동 경기에서 참패를 당하다. 지다’의 의미이고, 뒤의 ‘깨진’은 ‘약속, 예정, 기대 따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틀어지다’의 의미이다. ⑤ 앞의 ‘기울이는’은 ‘마음, 힘 따위를 쏠리게 하다’의 의미이고, 뒤의 ‘기울이는’은 ‘기울게 하다’의 의미이다.

[15-21]현대시, 고전시가 복합

(가) 정철, ‘사미인곡’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수능에 이미 출제되었던 작품으로 송강이 50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물러난 4년간 전남 창평으로 내려가 우거(寓居)하며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우리말 구사가 뛰어나며 세련된 표현으로 속편인 ‘속미인곡’과 함께 가사문학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임금을 연모하는 연군지사인 이 노래는 임금을 사모하는 신하의 정성을, 한 여인이 그 남편을 생이별하고 그리워하는 연모의 정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춘, 하, 추,冬の 계절적 변화에 따라 사무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외로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경은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결같음을 볼 수 있다.

[주제] 연군의 정

(나) 박재삼, '수정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계승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박재삼 시인의 대표작으로, 소설 '춘향전'에서 소재를 취하여 춘향의 마음을 그리움과 한의 정서로 형상화하고 있다. 전체가 2연으로 된 산문시로 춘향을 '우물집'으로, 입을 '바람'으로 표현하여 입을 그리워하면서도 순수한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춘향의 내면을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1연에서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정화수', '아침', '신선한' 등의 물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2연에서 이러한 춘향의 입에 대한 그리움을 일렁임으로 표현하여 비애의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고 있다.

[주제] 입에 대한 그리움

(다)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 너'이지만, 화자는 오히려 '너'에 대한 기다림을 설레는 기대감과 행복하고 충만한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렇게 만남의 시간이 될 미래와, 기다림의 시간인 현재에 대하여 다 같이 축복을 내리고 있다. 오히려 화자는 '너'를 만나게 될 미래보다는 그 미래를 기다리는 현재를 더 행복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현재라는 시간은 화자에게 있어서 '너'가 멀고 먼 곳에서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며, 또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라는 마지막 행에 나타나듯이, 이런 생각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화자가 '너'와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주제]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의 설레는 기대감

15.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겨울과 봄을 맞이하여 자신의 정성이 담긴 '매화, 옷'을 보내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화자는 사랑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지 못하기에 이렇게라도 입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려 하는 것이다. (나)의 1연에서 춘향이는 정화수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입을 기다리며, 2연에서는 푸른 산, 언덕들을 바라보며 바람같이 떠나간 입을 기다리며 그리움에 잠겨 있다. (다)의 화자는 너를 너무나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너는 쉽게 오지 않기에 결국 화자는 너에게 가기로 했다. 세 작품 모두에서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답] ⑤

16. 추론적 사고(함축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서 시적 화자는 멀리서 임금이 있는 궁궐을 그리워하며 빨리

돌아가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궁궐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슬픔은 두 견재의 울음이나 대나무의 찢어짐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화자의 시름이 머 리털이 하얗게 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에서 시름 많은 화자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눈 속에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났다는 것이다. 이 매화는 화자의 마음을 담아내는 소재이다. ② 달이 베개 근처에 비치는 것으로 화자는 달을 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④ 금자로 재어서라는 뜻으로 임의 옷을 지어내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17. 추론적 사고(시상 전개 과정의 파악)

정답해설 : 시적 화자는 봄이 오자 ‘가뜩이나 냉담’한 현실이 극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동풍이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낸 것처럼 자신에게도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매화 가지를 꺾어 임에게 보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여름이 되자 ‘새 잎이 나고 녹음’이 우거진 것을 보며 화자는 또한 기대감을 가진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어 임의 부재를 느끼고 있지만, 화자는 임의 옷을 지어 보냄으로써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해 내고자 한다. [답] ⑤

18.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나)의 1연에서는 ‘정화수, 우물집, 청청한’ 등 깨끗한 물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는 임을 기다리는 춘향이의 순수한 사랑을 물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에서 말하는 ‘바람’은 바람같이 떠나간 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록 임은 바람같이 떠나갔지만, 바람은 어련히 올 따름이라 하여 재회에 대한 믿음을 담아내고 있다. [답] ⑤

19. 비판적 사고(바뀌 쓰기의 효과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는 4·4조, 4음보의 율격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다. 또한 ‘갈까 부다, 쉬어 넘는, 어쩔거나’ 등의 반복, 그리고 ‘바람도 쉬어 넘고~다 쉬어 넘는’ 등의 관용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임을 보고 싶고 임을 따라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물의 이미지로 살짝 감추어 놓음으로써 감정 표현의 절제가 이루어졌다. 물론 ‘~였을레, ~을까나’의 반복으로 율격이 드러나긴 하지만 <보기>에 비해 강화된 것은 아니다. [답] ①

20.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의 1연에서는 ‘정화수, 물방울, 물냄새 창창한’의 물의 연속적인 이미지들의 변형과 ‘~였을레’의 반복을 통해, (다)에서는 ‘오다, 가다’, ‘너였다가, 너일 것

이었다가’ 등을 중심으로 한 변형과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④ (가)는 춘향전의 내용을 차용하여 시적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1. 비판적 사고(시구의 기능 평가)

정답해설 : B에 비추어 A를 평가한다고 했다. 이는 B에 드러난 근거를 통해 A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A를 기준으로 볼 때, A이전에는 너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다. 즉, 수동적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A 이후에는 너를 기다리며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즉, 화자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너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무리 기다려도 너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화자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이다. [답] ③

[22-25] 인문, ‘규장각의 특징과 변모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정조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규장각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규장각의 창설과 변모 과정, 그리고 담당했던 업무와 관리들의 권한 등 규장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문(文)을 숭상한 정조의 의지로 인해 활성화된 규장각은 정조의 생존 동안에는 왕정 체제의 중심 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정조의 사후에는 권한의 많은 부분이 철회되면서 도서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로만 남게 되었다.

[주제] 규장각의 기능과 그 변모 과정

22. 사실적 사고(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본문에 제시된 규장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답지의 항목과 연결시켜 본다. 규장각의 위치, 창설 목적, 변모 과정, 관리들의 권한 등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규장각의 장서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둘째 단락의 ‘창덕궁 후원의 연지 북쪽 언덕에 이층 건물을 새로 짓도록 하여’란 구절에 나와 있다. ② 첫째 단락의 ‘왕실 도서관 겸 학술 연구 기관으로 출발하여’에서 확인된다. ③ 셋째 단락의 ‘원래 규장각은 국왕 관련 자료들을 봉안하는 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정조가 직접 정사를 주재하면서부터 정치적 선도 기구로 일신되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셋째 단락의 끝에 ‘이들은 일반 정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비행을 저지른 관원을 탄핵하는 권한도 가졌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추론적 사고(자료의 활용과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내용에는 혁신 정치와 인선 방식의 개선을 지향하는

정조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항목은 ㉞와 ㉟라고 할 수 있다. ㉞는 왕의 최측근 조직을 일원화한다는 내용이고 ㉟는 이들 근시직으로 하여금 과거 시험과 젊은 문신들을 뽑는 시험을 주관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인선 방식을 개선하고 혁신 정치를 이루려는 정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답] ㉟

24. 비판적 사고(설명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본문에 쓰인 설명 방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내용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된다. 규장각의 제학 이하 관리가 6인이라는 것, 규장각의 장서 규모가 8만여 권이라는 것, 정조가 5종 100만 자 가량의 활자를 만들었다는 것 등이 모두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또 ‘자신의 왕위, 즉 국왕으로서의 위엄’이라든가 ‘근시직, 즉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관직’, 또는 ‘조선 시대 정부 인쇄소라고 할 수 있는 교서관’ 등에서처럼 어려운 용어를 풀어 쓰는 설명 방식으로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답] ㉠

25. 어휘·어법의 이해

정답해설 : 원래 ‘빠져나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제한된 환경이나 경계의 밖으로 나가다.’이지만, 본문에서 ㉡은 ‘(사람, 물건, 정보 등을)빠들리다, 유출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은 ㉢이다. [답] ㉢

[오답피하기] ㉠ ‘(다른 데로) 벗어나다, 탈출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 ‘밖으로 나가다’의 뜻으로 쓰였다. ㉣ ‘정신이나 기운이 줄거나 없어져 버리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벗어나다’는 의미로 쓰였다.

[26-30] 기술,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경쟁’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존 기술과 새로운 경쟁 기술의 변화 과정을 S 곡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기존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기술은 초기에는 비록 미미한 영향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기존 기술을 따라잡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주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시각 자료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주제] 기존 기술에서 새로운 기술로의 대체 과정을 설명하는 S곡선 이론

26. 사실적 사고(세부적 내용의 확인)

정답해설 : 경쟁 기술은 가격을 높여서 기존 기술과 경쟁할 수는 없다. 경쟁 기술은 공정을 개선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원가 즉 가격을 점차로 떨어뜨리면서 기존의 기술을 따라잡게 되는 것이다. [답] ㉢

27. 추론적 사고(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중심 화제는 기존의 기술이 경쟁 기술에 의해 서서히 밀려나는 과정을 S 곡선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함에 있어 글쓴이는 경쟁 기술이 기존 기술을 따라 잡아 이를 넘어서는 과정을 필름,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구체적 사례와 S곡선의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답] ④

28. 추론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는 기존 기술인 가스등이 기술 개발을 통해 이전보다 기술의 수준과 경쟁력이 상승되었다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지문의 내용대로라면 가스등 기술은 전기등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밀려나야 하지만, 기술 혁신으로 인해 수익성이 증대되었기에 더 오랫동안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스등의 이익 창출 및 경쟁력이 상승되는 방향으로 즉, 위쪽으로 이동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 [답] ⑤

29.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T2의 시점은 새로운 경쟁 기술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경쟁 기술이 기존 기술의 수준과 원가를 모두 따라잡는 시점이다. 둘 사이의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은 처음에 무시되던 경쟁 기술이 차츰차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순간이라 하겠다. 그래프 상에서 볼 때는 T1을 지나면서 급격히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부분이라 하겠다. [답] ③

30. 어휘·어법의 이해(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파악)

정답해설 : ㉠은 지문에서 보조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보조 동사란 앞에 나오는 동사 즉 본동사의 뜻에 일정한 의미를 덧붙여주는 기능을 하는 동사이다. 그러나 ‘시험 문제를 내다’라는 표현에서 ‘내다’는 보조 동사가 아니라 ‘문제 따위가 출제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본동사이다. [답] ②

[31-35] 고전소설 - 김만중, ‘사씨남정기’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수능에 한 번 출제되었던 기출 작품으로 ‘구운몽’과 더불어 김만중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김만중이 살았던 당대의 숙종과 인현왕후, 그리고 장희빈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지었다는 한글 소설로서, 후처(後妻)의 모략으로 전처(前妻)를 내쫓지만 마침내 후처의 간계를 깨닫고 다시 전처를 맞아들인다는 이야기이다. 가정 소설의 전형적인 작품으로 후대의 여성 독자층의 요구와 기호에 맞추어 처첩 간의 갈등, 축첩(蓄妾)으로 인한 가정 내의 비극이 소설의 중요한 소재로 채택되고 그것들의 복잡한 얽힘은 장편 소설의 기틀을 보여 준다. 제시된 부분은 유한림 집에서 사씨를 맞아들이기 위해 매파를 보내는 장면이다.

[주제] 처첩(妻妾) 간의 갈등과 사씨(謝氏)의 고행

31. 사실적 사고(작품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유공은 자기의 아들인 유한림과 사급사 부인의 딸이 혼인할 수 있도록 주파를 보내어 그 뜻을 전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급사 부인의 딸은 상대편의 마음을 오해하여 혼인을 거부한다. 하지만 사급사의 딸은 지현의 말을 듣고 오해를 풀고 한림과 혼인하게 된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현재와 과거의 장면이 교차되고 있지 않다. ② 전기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선과 악이 대립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혼인 문제를 둘러싼 인물들의 심리가 드러나 있을 뿐, 환상적인 장면 묘사가 드러나 있지 않다.

32. 사실적 사고(작품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혼인 당사자인 소저가 혼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혼인 당사자인 소저가 직접 혼인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주파가 소저의 자태를 칭찬하며 경솔하게 혼인을 권유하고 있지만, (나)에서 지현은 신중하게 혼인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② (가)에서 주파가 유공 가문의 부귀와 한림의 문체와 풍류가 빼어남을 내세우고 있으나, (나)에서 지현은 사급사의 청명과 직절을 거론하며 그의 성덕을 말하고 있다. ③ (가)에서 사급사 부인이 주파를 맞이하고 있으나, (나)에서 유모가 지현을 맞이하고 있다. ⑤ (가)에서 소저가 상대편 집안을 오해하여 혼인을 거부하지만, (나)에서는 그 오해가 풀리고 소저가 한림과 혼인하게 된다.

33.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사급사의 부인은 주파에게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딸이 한림과 혼인할 수 없는 근거를 말한 뒤에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상대방에게 요점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③ 익살과 기지를 섞어 말하기보다는 진지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 ④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혼인할 수 없는 근거를 말하고 있다. ⑤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딸이 처한 상황을 근거로 말하고 있다.

34. 어휘·어법의 이해(한자성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사급사 부인은 주파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음을 뜻하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 적절하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오불관언은 남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간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이르는 말. ③ 삼고초려는 어떤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그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여

러 번 찾아가 간절하게 청하는 일. ④ 노심초사는 근심하면서 속을 태우는 것을 뜻함. ⑤ 유구무언은 입은 있으나 말을 없다는 뜻으로 변명이나 항변할 말이 없음을 뜻함.

35. 추론적 사고(인물의 성격 추리)

정답해설 : 사급사 부인의 딸이 혼인을 거부한 이유는 주파가 자신의 색만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성덕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현은 사급사의 청명과 직절을 거론하며 그의 성덕을 칭찬하고 있다. ㉠은 바로 사급사의 성품을 칭찬하는 내용이다. ㉢ 추위에 굴하지 않고 꽃을 피우는 국화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답] ㉢

[오답피하기] ㉠ 세상에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자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36-39] 사회, '경제학과 심리학의 상관 관계'

지문해설 : 이 글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학과 심리학 사이의 상관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케인스는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카네만은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의사 결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주제] 경제학에 끼친 심리학의 영향

36.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3문단의 첫문장에서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즉,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답] ㉣

[오답피하기] ㉠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한 사람은 카네만이 아니라 케인스이다. ㉡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보듯이 케인스는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은 주관적 추론의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지적했지, 이를 시정했다는 진술은 없다. ㉤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였지만, 카네만은 인간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7. 추론적 사고(생략된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에 들어갈 내용은 케인스가 강조한 생각이다. 즉, 그는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의 합리성을 갖추기보다 때로는 직관에, 때로는 충동에 좌우된다고 했다. 즉,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가가 기업 투자를 함에 있어 이자율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동물적 본능이라는 직관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 자연스럽다. [답] ㉣

[오답피하기] ㉡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직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 함정의 요소가 있다. 하지만 이 진술은 직관이 많은 것을 하긴 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오히려 직관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 시장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38.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제시)

정답해설 : ㉠은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국 심각한 오류를 낼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다. ㉡처럼 실제로는 위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중 매체에는 이러한 소식보다 교통사고 소식이 더 많이 언급되다 보니,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답] ㉡

[오답피하기] ㉠ ㉠대로 판단한다면 앞면이 연이어 나왔기에 다음에도 앞면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39. 논리적 사고(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해설 : A나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득과 손실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기댓값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요, 기댓값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기댓값과는 다르게 때로는 위험을 기피하고 때로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위험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답] ㉠

[40-43] 언어, ‘언어와 인간 심리의 상관성’

지문해설 : 이 글은 먼저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인식하는 인간의 심리 구조가 언어 표현에 반영된다는 점을 언급한 후, ‘사은유’를 예로 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다음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 사이에 상응 관계가 있다는 점을 단수 개념과 복수 개념을 예로 들어 밝히고 있다. 이어서 언어 표현은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언어가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말의 ‘푸르다’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밝히고 있다.

[주제] 인간의 심리와 언어 표현의 관계

40.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첫째 문단의 처음 두 문장(인간의 심리 구조가 언어 표현에 반영된다), 셋째 문단의 첫 문장(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다), 넷째 문단의 첫 문장(언어 표현은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글은 전체적으로 ‘언어와 인간의 심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알 수 있다. [답] ②

41. 추론적 사고(논지에 맞는 사례 찾기)

정답해설 : [A]는 대부분의 ‘사은유(死隱喩)’가 신체 일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바늘귀’의 경우 바늘에서 실을 꿰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는 인간의 신체의 일부인 ‘귀’를 빌려 사물을 표현한 예이다. 하지만 ‘입방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신체의 일부와 관련된 의미(입방아 : 남의 일에 대해 이리쿵저리쿵 방정맞게 입을 놀리는 일)를 표현하기 위해 ‘방아’라는 사물을 빌려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바늘귀’와 같은 예로 볼 수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신체의 일부인 ‘허리’를 빌려서 ‘하고 있는 말의 중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③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빌려서 ‘상에 붙어서 그 상을 받치는 다리’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④ 신체의 일부인 ‘목’을 빌려서 ‘병의 아가리 아래쪽의 잘록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⑤ 신체의 일부인 ‘코’를 빌려서 ‘머신의 앞쪽 끝에 뽀족하게 위로 치켜 올라간 부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B]의 논지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은 표현도 단순하게 나타나고, 복잡한 개념은 표현도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사람’에 ‘들’을 붙여 복수 개념을 표현하지만, 그 반대로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에 어떤 형태소를 붙여 단수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④번처럼 동사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하는 경우는 개념이나 표현이 활용하기 전보다 더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B]의 논지를 보장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단수 개념인 ‘너, 저’에 ‘-회’가 붙어 복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② 양수사 ‘셋, 넷’은 개념이나 표현이 단순한 데 비해, 서수사인 ‘셋째, 넷째’는 개념이나 표현이 모두 복잡하다. ③ 높임말 ‘사장님, 과장님’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사말 ‘사장, 과장’에 비해 개념이나 표현이 더 복잡하다. ⑤

피동사 ‘보이다, 먹이다’는 능동사 ‘보다’, ‘먹다’에 비해 개념이나 표현이 더 복잡하다.

43. 논리적 사고(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앞문장이 주장(결론)에 해당하고 뒷문장이 근거(전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뒷문장에 나타난 근거가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 경험적 사례이고, 앞문장에 제시된 주장은 그 사례로부터 잠정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므로 ㉠은 귀납적 추론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뒤의 사례에 의해 앞의 잠정적 주장이 뒷받침된다. ㉡번도 뒷문장에 나타난 ‘운동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체내에 활성 산소가 축적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진술이 경우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경험적 사례에 해당하고, 그 사례가 앞문장에 제시된 ‘운동이 언제나 건강에 이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잠정적 주장을 뒷받침하므로 귀납적 추론에 해당한다. [답] ㉡

[오답피하기] ㉠ 뒷문장에 나타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긴장과 두려움으로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미 증명된 일반적 진리에 해당하며, 앞문장에 있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뒷문장의 일반적 진리로부터 연역해낸 확정적 진술이다. ㉢ 뒷문장에 나타난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대전제)’와 ‘인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소전제)’는 명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일반적 진리에 해당하고, 앞문장에 있는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결론)’는 명제는 뒷문장의 일반적 진리로부터 연역해낸 확정적 진술이다. ㉣ 뒷문장에 있는 ‘우리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로 이루어지고, 이 두 세계는 서로 대응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명제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반적 진리에 해당하고, 앞문장에 있는 ‘언어가 갖는 현실의 창조와 사람됨의 창조, 이 두 기능은 불가분의 필연적인 보충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뒤에 있는 일반적 진리로부터 이끌어낸 확정적 주장이다. ㉤ 뒷문장에 있는 ‘속담의 일차적 기능이 비유에 있지만 비유만으로 모든 기능을 끝마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근거로 하여, 앞문장에 제시된 ‘속담은 화용론적 부차 기능이 생생한 역할을 할 때 속담으로 쓰인 효과를 완성시킨다’는 확정적 주장을 이끌어낸 것이다.

[44-48] 현대소설 - 연상섭, ‘만세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3·1 운동 직전의 동경과 서울을 배경으로 당대의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발표될 당시의 제목은 ‘묘지’였다. ‘묘지’라는 제목에는 식민지하의 조선의 현실을 바로 공동묘지로 인식한 작가 의식이 드러나 있다. 결국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지식인 주인공인 ‘나’의 ‘동경 - 서울 - 동경’으로 이어지는 여로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서 회의적인 주인공 ‘나’는 현실을 도피함으로써 결국 작가의 현실 인식이 투철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제시된 부분은 ‘나’가 서울로 오는 길에 일본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민족의 현실에 대해 자각하는 장면이다.

[주제]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

44.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설명)

정답해설 : 주어진 장면은 서술자인 ‘나’가 옥탕에서 보고 듣게 된 어떤 위인과 시골 촌뜨기의 대화 장면과 그 대화를 통해 ‘나’가 새롭게 느끼고 인식하게 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주로 서술자의 관찰 사실 그리고 이를 통해 판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⑤

45. 비판적 사고(인물에 대한 평가와 근거 찾기)

정답해설 : 시골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한다. 그러나 그 방법의 타당성이나 현실 가능성을 판단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밀천이 들지 않도록 면해 줄 수 있고 양복을 입은 그럴 듯한 모습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그저 마음이 혹한 것이다. 따라서 시골자는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어수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골자가 그의 말에 솔깃하기는 하지만 그의 부하가 되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가 마치 시골자가 그의 부하가 된 듯이 시골자를 대한다고 했다. ③ 그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④ 그는 시골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골자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⑤ 옥객을 의식해서 말을 멈추는 사람은 그이다.

46. 비판적 사고(작품에 대한 감상)

정답해설 : 사건을 서술하는 ‘나’는 ‘시골자’와 ‘그’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 조선의 현실과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나’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조선의 비참한 현실과 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던 자신의 삶에 반성이다. 그러나 자기 삶의 허위의식에 대한 의심과 반성은 담담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진술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윤리 의식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현실과 유리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답] ③

47. 추론적 사고(인물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나’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려는 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과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고, 별 관련이 없이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품은 삶의 목표들과 현실과의 유리되어 있음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⑤

48. 어휘·어법의 이해(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기색’은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 또는 어떠한 행동이나 현상 따위가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눈치나 낌새를 의미하는 단어로 낮춤말이 아니다. [답] ③

[49-52] 희곡 - 이근삼, ‘원고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어떤 배경이나 특수한 심리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원고지’라는 제목이 상징적으로 암시하듯 매일매일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일상사 중의 한 토막을 다루어 현대인의 삶을 풍자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근엄한 대학 교수와 그 가정의 이중성을,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소극(笑劇)의 형식으로 처리하여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성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아이러니컬하게 보여 주고 있다. 특정한 사건의 전개나 갈등이 없이 하나의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하는 이 작품의 수법은 20세기의 새로운 연극인 부조리극의 대표적 형식이다. 이 작품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다든가 무의미한 대사가 반복되는 것은 일상적 삶의 무의미함, 무가치함을 반영한다. 또한, 거대한 조직 사회 속에서 개인의 위치가 축소되고, 인간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주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비극적 현대인에 대한 풍자

49.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교수와 천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다음에 감독관이 등장하고 있다. 천사와 대립하는 인물은 감독관이 아니라 교수이다. 따라서 천사와 감독관이 대립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철쇄’는 일상생활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교수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 ② 무대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으로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③ 교수, 장녀, 감독관, 천사 등과 같은 보통 명사를 사용하여 익명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장녀 (관객들에게)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 신문을 읽어 드립니다’에서 장녀는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50.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천사와 교수가 대화를 진행할수록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있을 뿐, 천사는 교수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교수가 천사에게 내 꿈을 도로 찾아 달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②, ③ 교수가 천사에게 ‘왜 나를 버렸어요?’라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으며, 꿈과 정열을 잃어버린 책임을 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④ 사고(思考)와 사고(事故)를 연결시켜 언어유희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있다.

51.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B]에서 장녀가 읽어주는 신문 기사는 서로 별개의 사건들이며, 서로 긴밀한 인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과장되게 나열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② ‘꿈쩍도 해라.’에서 정보 전달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③ 두 살 난 애가 아버지를 죽이고, 지프차가 동대문을 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등의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⑤ 짧은 문장을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대사의 속도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52. 추론적 사고(인물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희곡의 대사에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①은 단지 자연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교수에게 원고를 쓰라고 강요하는 태도에서 감독관의 위압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피곤한 아버지를 위하는 척하는 태도에서 장녀의 성격을 추리할 수 있다. ④ 아버지를 배려하는 척하는 태도에서 장녀의 성격을 추리할 수 있다. ⑤ 무작정 주어진 신문을 번역하려는 모습에서 교수의 성격을 추리할 수 있다.

[53-56] 과학 - (가) ‘과학에서의 역사적 질문’, (나) ‘과학에서의 역사적 서술’

지문해설 : (가) 생물학을 비롯한 다른 과학 분야와는 달리 물리학은 ‘역사적 질문’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즉 물리학에서는 하나의 법칙이 규명되면 그것으로 의문의 과정을 일단락 짓고 또다시 그 법칙의 형성 배경이나 역사적인 변모 과정 등으로 의문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과학과 물리학을 가르는 차이점인 것이다.

[주제] (가) 역사적 질문에 대한 다른 과학 분야와 물리학의 차이점

(나) 생물학자는 특수한 사건에 대해 역사적 서술을 구성하여 답한다. 물론 이것이 고전 과학 철학자에게는 비판이 대상이 되지만, 최근에는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유일하게 타당한 방법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서술’은 추론이 주된 방법이기에 때문에 논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반증의 위험성에도 늘 노출되어 있다.

[주제] 과학에서 역사적 서술의 타당성과 가치

53.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가)의 첫째 문단 중반부를 보면, 지질학의 경우에 산의 생성 과정, 지구 자체의 생성 과정, 더 나아가 은하계의 기원까지 알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질학에서는 은하계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첫째 문단 넷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둘째 문단에서 일부 과학 철학자는 인과 법칙적 설명을 수용하지 않지만, 최근의 과학철학자들은 그것을 수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54. 추론적 사고(필자의 관점 추리)

정답해설 : (나)의 첫째 문단을 보면, 생물학자가 특수한 사건에 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할 때 보편적 법칙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학자는 보편적 법칙으로 특수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 ②번 진술은 (나)의 필자의 관점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둘째 문단에서 물리학자가 ‘역사적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첫째 문단에 언급된 생물학자의 특수한 문제(왜 구대륙에는 별새가 없는가?)와 (가)의 첫째 문단에 언급된 생물학자의 ‘역사적 질문(지구 위에 그런 생물들이 왜 존재하는가?)’은 결국 같은 성격의 질문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첫째 문단에서 생물학의 특수한 문제에 관해 답할 때 보편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고, (나)의 둘째 문단에서 ‘역사적 서술’이라는 접근 방법으로 타당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첫째 문단에 보면 ‘역사적 질문’이 결국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5. 비판적 사고(외부 자료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의 타당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는 공통 멸망 이후 포유류가 번성한 이유에 대한 생물학계의 설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역사적 서술’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다. 하지만 (나)의 필자가 셋째 문단에서 ‘역사적 서술’이 ‘진실’이라는 것을 단언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이 생물학계에서 가장 훌륭한 설명이긴 해도 반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의 셋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역사적 서술’은 반증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의 둘째 문단에 보면 고전 과학철학자들은 ‘역사적 서술’을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첫째 문단에 보면 포유류의 번성은 생물학계의 특수한 사건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특수한 사건은 보편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특수한 경우의 관찰 사실을 설명할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셋째 문단에서 추론은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학자의 배경과 경험에 의존하기 쉽다고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첫째 문단에서 특수한 문제와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사실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6.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에서 언급한 ‘역사적 서술’의 접근은 (나)의 첫째 문단에서 언급한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역사적 서술’이 필요한 특수한 문제들은 (가)의 첫째 문단과 (나)의 첫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별의 구성 물질’에 대한 것은 찾을 수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⑤는 (가)의 첫째 문단에 언급되어 있고, ④는 (나)의 첫째 문단에 언급되어 있다.

[57-60] 예술, ‘우리 전통 가곡의 장단과 가창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우리 가곡의 장단과 가창 방식을 소개한 글이다. 우리 가곡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 레퍼토리는 무한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가곡이 한 가지 선율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시조시를 얹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가곡을 부를 때 연창 형식을 취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무대의 조건상 이를 경험하기 어렵다. 가곡의 장단에는 16박과 10박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10점으로 장단을 친다. 우리 가곡은 서양 음악에 비해 느리고, 한문구를 사용하며 모음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인내하며 감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감흥에 젖게 된다.

[주제] 장단과 가창 방식에 나타난 우리 전통 가곡의 특징

57. 사실적 사고 (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우리 가곡은 41곡이지만 레퍼토리가 무한할 수 있는 이유를 가창 방식에서 찾고 있으며 가곡의 장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 화제는 장단과 가창 방식으로 본 가곡의 특징이 적절하다. [답]④

58.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셋째 단락의 내용으로 보아 그림의 칸 수가 박의 수가 되고 장단의 기본 형태 수가 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장단은 3점 5박이다. 또한 넷째 단락을 보면 ‘음악의 빠르기는 특징 음표 하나를 1분에 지정하는 수만큼 연주하라는 것이다. 빠르기가 20이라면 1박은 3초가 소용되고, 30박이라면 1박은 2초가 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고 <보기>의 ‘1칸 60 빠르기’라는 단서로 미루어 연주 시간은 5초임을 알 수 있다. [답] ④

59. 추론적 사고(독자의 반응 추리하기)

정답해설 : 넷째 단락과 다섯째 단락으로 보아, 가곡의 느낌, 한문구의 사용, 모음 변화 등의 이유로 가곡은 가사의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첫째 단락에서 레퍼토리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노래에 가사를 바꿔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③ 첫째 단락에서 가곡의 가사가 시조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식자층이 많이 향유했음을 알 수 있

다. ④ 마지막 단락에서 가곡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⑤ 둘째 단락에서 가곡을 실제 부를 때에 연창 방식을 사용하지만 오늘날 무대의 조건상 연창 형식을 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0. 어휘·어법의 이해(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주어진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보통 빠르기가 90-110 정도인 서양 음악과 비교하면 가곡은 너무 느리다.’에서 ‘느리다’는 서양 음악에 비해 우리 가곡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뜻하다. 그런데 ‘더디다’는 어떤 움직임이나 일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다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느리다’를 대체하여 쓸 수 없다. [답] ③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해설

[정답] 홀수형 기준

1.⑤ 2.① 3.① 4.② 5.④ 6.② 7.③ 8.④ 9.② 10.①
11.④ 12.④ 13.④ 14.③ 15.② 16.④ 17.⑤ 18.① 19.② 20.②
21.② 22.③ 23.① 24.④ 25.③ 26.④ 27.① 28.⑤ 29.⑤ 30.②
31.③ 32.④ 33.⑤ 34.⑤ 35.③ 36.⑤ 37.③ 38.① 39.④ 40.②
41.② 42.⑤ 43.① 44.⑤ 45.④ 46.③ 47.① 48.② 49.③ 50.④
51.① 52.② 53.⑤ 54.③ 55.② 56.③ 57.③ 58.⑤ 59.④ 60.②

[1-6] 듣기

1. 이제 과학 수업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사 : 여러분, 오늘은 기상 현상 중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
까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빗방울의 모양입니다. 빗방울은 어떤 모양일까요?

학생 1(남) : 선생님, 길쭉할 것 같은데요.

학생 2(여) : 저는 낙하산 모양일 것 같아요.

학생 3(남) : 글썽요. 제 생각에는 길쭉한 밤톨 모양일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그리
잖아요.

교사 : 다양한 대답이 나오네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빗방울의 초기 모양부터 알
아보죠. 빗방울의 초기 모양은 축구공 같은 구형인데,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낙
하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의 저항을
더 받겠죠. 그럼, 빗방울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휴지) 빗방울은 공기의 저
항 때문에 아랫부분이 납작한 반구 모양이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빗방울의 아
랫부분이 납작해질수록 빗방울의 표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
게 되겠어요? (휴지) 공기의 저항은 더욱 커지게 되고 빗방울의 모양은 더 납
작해지겠죠. 결국 납작해진 빗방울은 공기의 저항 때문에 작은 빗방울들로 나
누어집니다. 이제 빗방울의 모양을 아시겠죠?

1. 사실적 사고(시각 자료의 순서 배열)

정답해설 : 빗방울의 모양을 설명하는 선생님의 말을 잘 따라들으면서 빗방울의 모
양을 찾아가야 한다. 먼저 초기의 빗방울 모양은 축구공 모양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ㄱ이 되고, 다음에 저항을 받아 아랫부분이 납작한 반구가 된다고 했으니까 ㄷ이
되고, 더욱 납작해진다고 했으니까 ㄹ이 되며 마지막으로 작은 빗방울로 나누어진

다고 했으니까 비의 모양이 된다. [답] ⑤

2. 이번에는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인물 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숙종·영조 때의 거문고 연주자 김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김성기는 본래 궁궐에서 활을 만들던 사람이었으나, 음률을 좋아하는 천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문고를 배웠습니다. 거문고 연주에 뛰어난 기량을 보인 그는 매우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 명성을 더욱 높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비파와 통소를 연주하는 솜씨도 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는 ‘남시하며 숨어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은(釣隱)’이라는 호를 짓고, 강가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며 살았습니다. 김성기는 바람이 고요하고 달빛이 밝은 밤이면, 배를 저어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 통소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깨끗했던지 강가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떠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재주가 빼어나더라도 재주를 팔지 않고서는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지체 높은 이들의 잔칫집에 불려 다녔지만,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자신의 재주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얽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짓으로 역모를 고발하여 대단한 권세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잔치를 벌이다 취흥이 올라 김성기를 불렀으나, 김성기는 병을 핑계 삼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불려도 방에 드러누워 꿈쩍하지 않자 화가 난 권세가는 역정을 벌컥 냈습니다.

권세가 : (화를 내며) 만약 오지 않으면 내 장차 그 놈을 크게 벌하리라.

이 말을 들은 김성기는 말을 전한 사람에게 비파를 집어 던지며, 꾸짖었습니다.

김성기 : (준엄한 목소리로) 돌아가 그자에게 고하여라. 내 나이 칠십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소리도 모르는 자가 고발은 잘한다 하니, 나도 고발하여 죽여 보라고 일러라.

이 일이 있은 후 김성기는 더더욱 도성에 들어가는 발걸음을 끊고, 남 앞에서 연주하는 일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라디오 인물 열전,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추론적 사고(인물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방송에서 소개하는 인물에 대해 청취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방송에 언급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김성기라는 인물은 통소를 잘 붙였지만 함부로 자신의 재주를 팔지 않았다는 말에서 이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즉, 재주가 있지만 예술가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화는 거짓으로 역모를 고발하여 권세가가 된 사람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꼴꼴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그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새로운 곡을 만들기는 했으나 통념을 벗어나는 독특한 연주법은 나오지 않는다. ③ 자기 수양을 통한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④ 부족한 재능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

3.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저거 봐 저거. 저 사람들 애완건을 데리고 와서는 배설물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네. 공원에 애완건을 데리고 나올 때는 비닐봉투라도 가져 와야 하는 거 아냐?

여학생 : 그러게 말이야.

남학생 :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인데, 참 불쌍사납네. 가서 한마디 좀 해야겠다.

여학생 : 그만둬, 애. 싸움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남학생 : 그게 아니지. 우리가 모두 이용하는 공원인데 자기 생각만 하면 곤란하잖아. 저런 모습이 바로 이기주의 아닐까?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어떻게 다 말로 하겠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잖아. 서로 돕고 배려하며 조화롭게 사는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

여학생 : 제법이네!

남학생 : 저기 지는 해를 봐. 저 해가 지면 곧 달이 뜨지 않겠니? 또 달이 지면 해가 뜰 것이고……. 얼마나 조화로운 모습이니? 저 해와 달이야말로 서로 도우며 공존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저런 자연에서 공존의 지혜를 배워야 해.

여학생 : 뭐, 해와 달? 그게 어떻게 이기주의가 극복된 공존의 모습이니?

남학생 : 잘 생각해 봐. 음~. 저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봐. 봄이 되면 잎이 다시 돋고, 여름이 되면 또 무성해지겠지? 그것도 서로 다른 계절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모습이잖아.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

회도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제비를 뽑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야.

여학생 : 점점……. 뭐? 계절? 제비뽑기? 참 나, 넌 왜…….

3. 추론적 사고(이어질 말의 추리)

정답해설 : 대화에서 여학생이 마지막 말로 할 이야기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학생과의 대화에서 이기주의를 극복한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남학생이 갑자기 제비뽑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학생이 비판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공존에 관한 내용과 제비뽑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을 끌어들이는 논점 이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서 말할 수 있다. [답] ①

4. 이번에는 어떤 발표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고등학교 ‘고대 문화 연구반’ 동아리 발표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마야의 상형 문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유럽에 처음 알려진 마야의 그림 문자들은 수 세기 동안 해독되지 못한 채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해독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체의 약 85%가 해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야 문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해독된 숫자 표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본수로 10을 사용하는 데 비해 그들은 기본수로 20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리 값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1, 10, 100으로 10배씩 증가하는 기수법을 쓰는 데 비해, 그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20배씩 증가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자리가 올라갈수록 1, 20……,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그림을 볼까요? 여기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조개껍데기 모양, 보이시죠? 그들은 이 모양으로 0을 나타냈습니다. 0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니 놀랍죠? 또 그들은 점으로는 1을, 선으로는 5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림은 5를 나타내는 선이 한 개, 1을 나타내는 점이 두 개 있으니, 한 자리 수 7이 되겠죠? 세 번째 그림은 얼마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첫째 자리는 5를 나타내는 선이 두 개 있으니 10이 되겠고, 둘째 자리에 있는 점 하나는 20을 나타내는데, 점이 두 개 있으니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째 자리의 10과 둘째 자리의 40을 합하면 5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풀어 볼까요? 두 자리 수인 네 번

째 그림은 얼마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첫째 자리에 선이 세 개, 둘째 자리에는 점이 세 개 있네요. 얼마일까요?

4.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마야 문자의 숫자 표기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실제로 숫자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그림에서 조개껍데기는 0을 나타내고, 둘째 그림에서 첫째 자리에 있는 선은 5, 점은 1이니까 합쳐서 7이 되고, 셋째 그림에서 첫째 자리에 있는 선 두 개는 10이 되고, 둘째 자리에 있는 점은 하나가 20이니까 두 개 있으면 40이 되기 때문에 합쳐서 50이 된다. 따라서 넷째 그림에 있는 것은 첫째 자리에 있는 5가 3개이므로 15에다가 둘째 자리에 있는 20이 3개이므로 60이 되어 합치면 75가 된다. [답] ②

[5~6] 이번에는 좌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최근 유네스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문화 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 교수님, 이 협약이 갖는 성격과 의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 교수(여) : 문화 다양성 협약이란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즉, 각 나라가 자국의 문화 정책을 자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국제 규범이죠. 따라서 각 나라가 자국의 다양한 문화 지원 정책이나 재정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사회자 : 네, 그러면 이 협약이 채택된 배경에 대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교수(남) : 네, 그동안 세계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모든 영역에서 자유시장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문화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 결과 몇몇 강대국의 소비적인 대중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여 각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파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문화 상품은 다른 상품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사회자 : 이 협약이 우리 문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교수 : 네, 앞으로 우리 문화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문화 산업이 장차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교수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협약의 근본정신인 문화 다양성의 뜻을 감안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도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는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 협약이 앞으로 얼마나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 협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교수 : 글썄요. 대다수 국가가 이 협약에 찬성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이를 비준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은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교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와 입장이 같은 나라들과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한다면, 국제법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문화와 관련한 통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좌담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사회자가 묻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사회자의 말을 잘 파악하면 된다. 먼저 문화 다양성 협약의 의의를 물었고, 다음에 채택된 배경, 우리 문화 산업에 끼치는 영향, 협약의 실효성 등을 묻고 있고 좌담자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에 규정된 분쟁 조정 절차는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6.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여자 좌담자는 남자 좌담자가 언급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답] ②

[7-14] 쓰기, 어휘·어법

7.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자유 연상)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시각자료는 무인도에 도착한 현대인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어차피 난 혼자였어.’라고 독백하는 ㉠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드디어 자유다!’라고 외치는 ㉡은 일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관광지로 개발하면 좋겠는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은 자연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야자수를 쳐다보며 ‘뗏목부터 만들어야겠군.’이라고 생각하는 ㉠은 적극적인 자세로 난관을 극복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태평스럽게 누워서 ‘누군가 지나가겠지.’라고 말하는 ㉡은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는 현대인의 모습보다는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낙천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답] ③

8. 비판적 사고(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의 (가)는 ‘한 나무꾼이 날이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주저앉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날이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은 비능률적인 일이다’라는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끈기 있게 공부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바라는 학습 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한다.’는 것은 올바른 적용이 아니다. ‘능률적인 학습 방법 모색’이라는 문두의 내용을 고려할 때 ‘나무꾼’은 학생, ‘나무를 베는 것’은 ‘학습하는 것’, ‘무딘 도끼’는 ‘비능률적인 학습 방법(태도)’을 비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는 ‘끈기 있게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비능률적인 학습 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한다.’고 고치는 것이 좋다. [답] ④

[오답피하기] <보기>의 (나)는 ‘한붓그리기’와 관련된 자료로서, ‘점선 안에 집착’하는 것은 고정 관념에 사로잡힌 태도와 연관되며, ‘점선 밖을 생각’하는 것은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창의적 발상과 연관된다. 따라서 이 자료를 ‘점선 안에만 집착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이로부터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추출해 내며, 이를 바탕으로 ‘고정 관념에 빠져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학습 태도 개선’에 적용하는 것은 사고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매우 적절하다.

9.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 및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문두에 제시된 주제가 ‘한국학 육성 방안’이고, ㉠의 상위 항목이 ‘해외 한국학 육성의 의의’임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학문적 연대 증진’이라는 항목에 ‘각국의 문화재 보존 현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는 것은 상위 항목과의 위상이 맞지 않으며 전체 주제에서도 벗어난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답] ②

10. 창의적 사고(관점과 표현에 따른 글쓰기)

정답해설 : <보기1>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기 위해 독서해야 한다.’는 베이컨의 독서관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2>는 반복법과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모두 살린 표어는 ‘나를 찾고’, ‘지혜 얻자’를 통해 베이컨의 독서관을 반영하고, ‘책 속에서’의 반복하면서 동시에 전반절과 후반절의 짝을 절묘하게 맞춰 대구의 효과를 살린 ①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1>의 관점은 나타나지만, 반복과 대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보기1>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으며, <보기2>의 표현법 중에서 대구는 사용되었지만 반복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보기1>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으며, 반복과 대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보기1>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으며, <보기2>의 표현법 중에서 반복은 사용되었지만 대구는 사용되지 않았다.

11. 비판적 사고(영상물 제작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영상물의 주대상층이 ‘탈춤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로 설정되어 있는데, ④와 같이 내레이션을 통해 ‘탈춤에 조예가 깊은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한다.’고 계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답] ④

12.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단어 수준의 기준을 보면 ‘단어는 적절하고 맞춤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의 초고에서 ‘연마할’이라는 단어는 바로 앞의 ‘제 소질과 능력’과 적절하게 호응하므로 ‘연습할’로 바꿀 필요가 없고, ‘자부합니다’하는 단어도 바로 앞의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와 자연스럽게 호응하므로 ‘자인합니다’로 바꿀 필요가 없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둘째 문단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겠다고 결심을 굳힌 계기가 하나만 나와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② 둘째 문단에서 첫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과 다섯 번째 문장의 연결 관계가 자연스럽게 못하므로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③ 셋째 문단의 ‘저는 국어 국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라는 문장에서 ‘깊은 관심’에 대한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⑤ ‘굳히게’는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고, ‘굳히게’가 맞는 표현이므로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13. 어휘·어법의 이해(표준어 규정의 이해와 활용)

정답해설 : <보기1>의 규정 중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이라고 한 뒤에 ㄱ으로 ‘부조’, ‘사돈’, ‘삼촌’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④처럼 ‘㉠의 ‘삼촌’은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이라고 반응한 것은 옳지 않다. ‘짱충짱충’은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 맞지만, ‘삼촌’은 양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④

14. 어휘·어법의 이해(어휘 간의 반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보기1>은 문맥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

기2>는 ‘서다’라는 단어의 다양한 반의어를 예문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A]의 경우 ‘시계가 서다’의 반의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시계가) 가다’가 맞고, [B]의 경우 ‘깎이다’와 반의 관계인 ‘서다’가 사용된 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회장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았다.’가 맞고(체면이 서다 ↔ 체면이 깎이다), [C]의 경우 ‘기강이 서다’의 반의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기강이) 무너지다’가 맞다. [답] ③

[15-19] 현대시

(가) 정지용, ‘인동차’

지문해설 : 이 작품은 겨울의 시련을 인동차를 마시며 이겨내는 노주인의 모습을 통해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고자 하는 화자의 인내와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다. 하이얀 삼동으로 표현된 겨울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붉은 덩그락의 불과 파란 무순의 이미지는 시련을 암시하고 있다. 인동차는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와 기다림

(나) 박두진, ‘청산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청산의 생명력을 통해 청산과 같은 밝고 깨끗한 세계에의 소망과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의 열망은 반복적인 표현과 영탄법, 유장한 가락과 산문시의 빠른 호흡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인간사에 전이시켜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주제] 깨끗한 세상에의 소망과 그리움

(다)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사랑 노래로 있지만 누가 떠났고 누가 남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단지 실연의 상황만이 제시되었을 뿐 내용은 상당히 암시적이다. 어제의 단절을 보여주는 편지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며, 이는 모든 길이 사라진,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처지는 깨어진 금들을 통해 재확인되며 날리는 눈을 통해 비극적 운명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지식인이 느끼는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 암울한 시대 상황과 지식인의 불안한 내면

15.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하이얀 삼동’의 겨울이다. 이러한 시대 현

실 속에서 화자는 ‘덩그럭 불’의 붉은 이미지와 ‘무순’의 파란 이미지로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암울한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검은 밤과 이에 대비되는 밝고 푸른 산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다)는 과거와 단절된 화자의 상황을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는 돌의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처를 깨어진 금을 통해서, 그리고 불안한 화자의 내면을 떠다니는 눈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세 작품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④ (나)의 특징이다. ③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가)의 작품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파악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작품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노주인이 ‘책력도 없이’ 삼동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추위로 표현되고 있는 당대의 시대적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주인, 즉 화자는 알기에 시간을 초월하여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답] ④

17. 추론적 사고(어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시적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요,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이다. 이는 눈 맑고 가슴 맑은 사람이다. 화자는 어둠으로 표현된 밤에 이와 같은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줄 존재이다. ㉕는 화자가 이별을 한 대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연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대와의 이별로 인해 화자는 길이 사라지는 암담함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방황은 내려앉지 못하고 한없이 떠다니는 눈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답] ⑤

18. 추론적 사고(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나)의 특징에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은 세 가지이다. 이러한 세 가지는 ㉑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산아’라고 부름으로써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산아’에 따르는 수식어의 변용을 통해 반복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리고 ‘철철철’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산의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답] ①

19. 창의적 사고(작품의 창작 구상 파악)

정답해설 : 작품의 창작 구상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다고 했다. 이는 결국

(다)에 드러난 창작 구성을 먼저 파악해야 하므로 결국은 (다)에 드러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전체로 본다면 화자가 그대와의 단절로 인해 방황하고 있고 아픔을 느끼고 있지만 냉소적 어조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이 보일 뿐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랑한다’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감정이 직접 드러내고 있다. ③ ‘몇 송이 눈’의 명사형으로 끝맺음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다. ④ 마침표를 비롯한 쉼표 등의 구두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3, 4행의 길, 8행의 추위, 10행의 눈, 12행의 눈 등 곳곳에서 조사의 생략이 보인다. ⑤ 현실의 상황을 추위와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20-23] 기술, ‘디젤 엔진의 작동 원리와 특성’

지문해설 : 이 글은 여러 모로 장점이 많은 자동차 디젤 엔진의 작동 원리와 특성을 가솔린 엔진과 대조하면서 설명한 글이다. 작동 원리로 보면, 압축된 혼합 기체를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를 일으켜 동력을 얻는 가솔린 엔진과 달리 디젤 엔진은 압축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착화되도록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한다. 또, 사용하는 연료도 디젤 연료가 점성이 강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좋은 연비를 내는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주제] 가솔린 엔진과의 대조를 통해 알아본 디젤 엔진의 작동 원리와 특성

20. 사실적 사고(세부적 내용의 확인)

정답해설 : 마지막 단락에 디젤 엔진이 작동 원리상 가솔린 엔진보다 더 튼튼하고 고장도 덜 난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런 경우를 내구성이 강하다고 한다. ‘내구성(耐久性)’이란 ‘물질이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오래 견디는 성질’을 뜻한다. [답] ②

21.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기화기와 점화 플러그는 디젤 엔진에는 없고 가솔린 엔진에만 있는 부품들이다. 가솔린 엔진은 기화기에서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여 실린더에서 압축한 후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를 일으켜 동력을 얻는다. 이와 달리, 디젤 엔진은 실린더 안으로 공기만을 흡입하여 피스톤으로 압축시킨 다음 거기에 연료 분사기로 연료를 분사하여 착화되도록 한다. [답] ②

22.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넷째 단락의 ‘탄소가 많이 연결된 탄화수소물에 고온의 열을 가하면 탄소 수가 적은 탄화수소물로 분해된다.’는 내용을 통해 ③과 같은 추리가 가능하다. 이를 전제로 하면, 많은 수의 탄소를 가진 경유에 고온의 열을 가하면 탄소 수가

적은 가솔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경유가 휘발유보다 점성이 더 강하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에 어긋나는 추론이다. ② 경유가 가솔린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했으므로, 올바른 추론이 아니다. ④ 경유가 가솔린보다 증발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⑤ 경유가 가솔린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은 추론이다.

23. 어휘·어법의 이해(유의어의 구별)

정답해설 : 문맥상 디젤 엔진 제작 기술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아졌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보기>의 () 안에는 ‘개선’, ‘진보’, ‘향상’, ‘발전’ 등의 어휘들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개조(改造)’란 ‘고치어 다시 만듦’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답] ①

[24-30] 문학 복합 [수필+고전시가]

(가) 양태사, ‘야청도의성’

지문해설 :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작자가 발해국의 부사(副使)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즈음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다. 이 작품은 스물네 줄로 된 칠언고시(七言古詩)인데, 의례적인 수사법을 버리고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여 감동을 자아낸다. 이 시는 특히 청각적 심상이 주제로 승화되는 고도의 표현 기법을 구사했다.

[주제] 향수(鄉愁), 가을 밤에 고국을 그리워함

(나) 정철, ‘속미인곡’

지문해설 : 정철이 관직을 잃고 고향인 전남 창평에 있을 때 지은 작품으로, 홍만중(洪萬宗)과 김만중(金萬重)에게 극찬을 받은 가사이다.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빌려 임과 이별한 사연을 하소연하고 있다. 임과 이별한 것을 오직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려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 속에 작자의 충절이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이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으로 비유되어 더욱 문학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대화 형식을 빌린 표현의 참신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제] 연군의 정

(다) 이상, ‘조춘점묘(早春點描)’

지문해설 : 생활 속에서의 체험을 통해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감정을 드러낸 글이다. 훌륭한 공지를 발견했다는 기대가 결국 그 공지 또한 이윤 추구의 대상에 지나지 않더라는 사실의 확인으로 실망하게 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필자는 ‘두

다리 쪽 뺏고 누워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휴식과 안식을 줄 공간을 원하고 있다. 이는 소유욕과 물질적 가치와 이윤 추구로 인해 각박해진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주제] 소유욕과 물질적 가치 추구로 인해 각박해진 현대적 삶의 공간

24.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고향의 공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천상 백옥경의 임과 헤어져 있어야 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다)의 필자는 '두 다리 쪽 뺏고 누워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휴식과 안식을 줄 공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세 작품 모두에서는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답] ④

25.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과 역할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바람'은 '자유로움'과는 연관이 없다. 다듬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계절감과 더불어 애상감의 시적 흥취를 유발하고 있다. ② 향수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④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을 알린다. ④ 과거 고향에서 들던 소리와 현재 듣는 소리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26. 추론적 사고(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는 '속미인곡'이 지은이 정철의 상소문이라는 가정 하에 의도를 파악케 하는 문제 유형이다.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는' 의도가 드러난 표현을 찾으려면 된다. ㉞은 '내가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과를 자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답] ④

27.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A]는 입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드러나 있다. [B]는 왜꼬아리 분에서 트는 싹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 이로 보아 [A], [B] 모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답] ①

28. 추론적 사고(심리의 파악과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현대 문명이 가져다주는 욕망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주어진 작품은 이러한 현대적 삶이 가져다주는 휴식과 안식의 부재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공간은 이윤 추구의 욕망의 통로가 될 뿐이어서 필자는 '두 다리 쪽 뺏고 누워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휴식할 공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필자가 인식하는 기저에는 물질적 가치가 증시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것이다. [답] ⑤

2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왜꼬아리 분(盆) 안의 공간을 가리킨다. ㉑, ㉒, ㉓, ㉕는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휴식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답] ㉕

30. 어휘·어법(어휘의 쓰임 파악)

정답해설 : (다)의 ‘풍기는’은 기본형이 ‘풍기다’로 주로 비유적으로 쓰이면서 ‘어떤 분위기가 나다. 또는 그런 것을 자아내다.’는 의미이다. ‘야성미가 풍기는 몸짓 / 이 작품에서는 인간미가 풍긴다.’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㉒이다. [답] ㉒

[오답피하기] ㉑, ㉕ 겨, 검불, 먼지 따위가 날리다. 또는 그런 것을 날리다. ㉓ 냄새가 나다. 또는 냄새를 퍼뜨리다. ㉔ 짐승이 사방으로 흩어지다. 또는 그런 것을 흩어지게 하다.

[31-34] 언어, ‘언어의 고유성과 다양성’

지문해설 : 외국어를 통해 자국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고, 자국어의 고유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글쓴이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개별 언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서 어떤 언어든 간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유카어의 증거법과 한국어의 높임법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들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이다.

[주제] 언어 간의 비교·대조를 통한 자국어 재인식의 필요성

31.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한국어에는 없는 특성인 투유카어의 증거법을 한국어에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 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했으므로, ㉓과 같은 추리가 가능하다. [답] ㉓

32. 사실적 사고(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라)에서는 한국어의 특성을 드러내는 높임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며,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답] ㉔

[오답피하기] ㉑ (가)에서는 피테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㉒ (나)에서는 투유카어의 증거법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㉓ (다)에서는 증거법을 놓고 투유카어와 한국어를 대조하고 있다. ㉕ (마)에서는 ‘외국어는 자국어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3. 추론적 사고(정보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증거법은 투유카어의 특성이고, 높임법은 한국어의 특성이다. 즉, 그들은 각각 투유카어와 한국어라는 개별 언어의 고유성을 잘 드러내는 특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⑤에서처럼 어느 것이 고유성을 더 잘 드러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답] ⑤

34. 추론적 사고(관점의 추리 및 적용)

정답해설 : 글쓴이는 다양한 개별 언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통하는 것이 <보기>의 ‘ㄷ’과 ‘ㄹ’이다. ‘ㄷ’은 어떤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인류가 이룩한 문명과 지혜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말로, 여러 가지 개별 언어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ㄹ’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는 언어들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자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보기>의 ‘ㄱ’은 문자 언어는 본능이 아닌 문명의 산물임을 강조한 말로, 이 글에서 보이는 글쓴이의 언어관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ㄴ’은 개별 언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갖는 보편적인 특성을 말한 것이다.

[35-39] 과학, 이글루에 담긴 과학적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이누이트의 주거 시설인 이글루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눈을 가지고 주거 형태인 집을 만들었으며, 어떻게 난방을 하는지 등 일반인들이 궁금해 할 만한 화제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해가고 있다. 이글루의 온도가 왜 바깥보다 높은지, 안이 추울 때는 어떻게 온도를 높이는지 등이 해명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주제] 이글루의 건축과 이누이트의 생활에 담긴 과학적 원리

35. 사실적 사고(정보의 개괄적 확인)

정답해설 : 이누이트들이 이글루가 추울 때 사용한 방법은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이다. 이때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이 효과가 있는데, 이는 물의 물리적 변화 과정에서 열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했다. 그들은 복사, 기화의 의미는 몰랐을지라도 나름대로 그들의 생활에는 경험을 통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은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④, ⑤는 3문단에서 온실 효과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36. 추론적 사고(내용 전개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이글루라는 구체적인 현상에 담겨 있는 과학적 원리, 즉 물의 용해와 응고, 복사, 기화 등 물의 물리적 변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다.

[정답] ⑤

37.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ㄴ’은 둘째 단락에서 이글루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체에 부딪힌 빛의 산란 때문에 뿌옇게 보인다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질문이다. ‘ㄷ’은 넷째 단락에서 추운 때에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어는 온도까지 빨리 도달한다고 한 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③

38. 어휘 · 어법의 이해(단어의 구조)

정답풀이 : ㉠은 재료인 ‘벽돌’과 그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결과물인 ‘집’이 하나로 합쳐진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앞말(벽돌)’로 만든 ‘대상(집)’을 뜻하는 말이 된다.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것은 ㉠이다. ‘두부콩’은 앞말인 ‘두부’는 결과물이고 뒷말인 ‘콩’이 그 재료이기 때문이다. 즉, ‘앞말(두부)’을 만들기 위한 ‘재료(콩)’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시된 ‘벽돌집’과는 그 구조가 다르다. [답] ①

[오답 피하기] ㉡ ‘유리(재료)’로 만든 ‘창(대상)’ ㉢ ‘보리(재료)’로 만든 ‘밥(대상)’ ㉣ ‘비단(재료)’으로 만든 ‘옷(대상)’ ㉤ ‘밀짚(대상)’으로 만든 ‘모자(대상)’

39.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이해)

정답풀이 : 이 글에는 이글루를 만드는 원리와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정보는 눈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이글루가 어떻게 얼음집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준 것이다. 여기에 이글루 제작의 핵심 사항인 눈의 활용이 거론된다. 즉, 눈 벽돌을 쌓아 이글루를 만든 후에 이글루의 내부에서 불을 피워 일부러 눈이 녹게 만들어 그 눈으로 하여금 눈 벽돌의 사이를 메워 탄탄한 이글루를 완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눈 벽돌집’이 ‘얼음집’으로 완벽하게 변모되는 것이므로 이글루에서 ‘접착제’ 구실을 하는 것은 바로 ‘눈’이라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 피하기] ㉠ 불 자체가 접착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은 난방을 위한 것이다. ㉣ 언급되지 않은 대상이다. ㉤ 이글루의 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40-43] 인문, 조희룡, ‘이향견문록 서’

지문해설 : 이 글은 친구가 평범한 사람들의 전기(傳記)로 지은 ‘이향견문록’을 읽고 그 앞에 붙일 서문으로 작성한 글이다. 글의 내용이 지적(知的)이면서도 조선 후기 지식인의 내면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금강산 기행에서 느낀 바를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세상에 알려져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많은 사

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과 교훈을 느껴주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이향견문록 서'를 쓰는 이유와 목적

40. 추론적 사고(글쓴이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가 '이향견문록 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이향견문록'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만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생각과 유사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 속에서 글쓴이가 당대의 정치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교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사관이 기록한 역사 기록 이외에 이 책에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③ 저술된 글로써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④ 친구인 겸산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이들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매우 진중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⑤ 글쓴이나 그 친구인 겸산이나 모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다.

41. 추론적 사고(문맥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각자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존재를 지칭하는 어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a ~ e 중에서 b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모두 이런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는 그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가리고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답] ②

42. 창의적 사고(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은 세상에 드러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만한 재주와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전기를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수록되었을 사람들은 대부분 권세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의 내용은 바로 이런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삶을 꾸려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긴 하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가 가장 적절하다. [답] ㉡

[오답피하기] ㉠ 효도를 하려 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탄식하는 내용이다. ㉢ 매화의 향기와 자태를 예찬하는 내용이다. ㉣ 은자(隱者)로 묻혀 살고 있으면서도 임금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 오랜만에 고향의 경치를 둘러보며 변화가 심한 인간사와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43. 어휘 어법(관용어구의 적용)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유재건’은 글쓴이인 ‘나’의 친구로 나온다. 그것도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이 유사한 뜻이 통하는 친구이다. 이렇듯 서로가 생각과 뜻이 같은 줄을 알기 때문에 ‘유재건’은 ‘나’에게 ‘이향견문록’의 서문을 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는 그 글에 드러난 친구의 생각과 사고에 깊이 동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서문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계는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라는 의미를 지닌 ①이 가장 적절하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적대 관계인 오나라의 왕 부차(夫差)와 월나라의 왕 구천(句踐)이 같은 배를 탔으나 풍랑을 만나서 서로 단합하여야 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③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44-47] 예술, ‘현대 공연 예술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현대 예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형식과, 공연 장소, 관습 등을 파괴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대 예술의 특징은 한 마디로 장르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의 다양한 장르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주제] 장르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현대 공연 예술의 특징

44.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현대 공연 예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밝히듯이 장르 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현대의 공연 예술은 이전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1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본보다는 즉흥적인 연출을 시도하고 있고,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고정된 대본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은 전혀 잘못 파악한 것이다. [답] ⑤

45. 비판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황후의 탄식’에 대한 비평문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글에 나타난 핵심 논지에 어긋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황후의 탄식’은 기존의 형식에서 벗

어난 ‘춤연극’의 사례로 글쓴이가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마치 연극 무대처럼 펼쳐지며, 다양한 장면들이 몽타주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배경 또한 상징적 이미지를 중시한다고 했으므로 자연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나 배우의 사실적 연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전의 연극이나 영화에서 중시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실적이 아니라 상징적, 시적 의미가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46. 어휘·어법의 이해(어휘의 쓰임 파악)

정답해설 : ㉠에서의 ‘뒤’는 접두사로 ‘몹시, 함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에서의 ‘뒤섞어’ 역시 이러한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다른 사례로는 ‘뒤흔들다, 뒤틀다’가 있다. 접두사 ‘뒤’는 이 밖에도 ‘반대로, 뒤집어’의 의미(뒤엎다, 뒤바꾸다)와 ‘온통, 전부’의 의미(뒤덮다)를 지니기도 한다. 나머지의 ‘뒤’는 선후에서 ‘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이다. [답] ③

47. 어휘·어법의 이해(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은 기존의 공연 예술에서 중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대의 공연 예술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경향의 특징이다. 즉, 현대의 공연 예술에서는 정해진 구조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공연이 아니라 이미지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에 해석의 다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논리와 이성이 투영되지 않은 ‘신체의 언어’에 가장 가깝다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전의 공연 예술에서 중시하는 것들이다. [답] ①

[48-51] 고전산문, 작자 미상, ‘유충렬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주몽 신화의 전통을 잇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적 구조를 잘 유지한 소설로, 일상적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주인공이 일시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가문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전형적인 배경과 구조를 보여 주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영웅 소설이다. (가) 부분은 간신 정한담에 의해 유충렬의 아버지인 유심이 귀양을 가는 장면이고, (나) 부분은 대원수가 된 유충렬이 정한담에게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는 천자를 구하는 장면이다.

48.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모든 것을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천기를 살펴본 유충렬이 천자를 구하는 장면으로 병렬적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대화 위주의 장면, (나)는 요약 서술 ③ (가)는 궁궐이라는

공간, (나)는 금산성과 황성 밖 ④ (가)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만 제시되어 있고, (나)는 편집자의 논평이 있다. ⑤ (가)는 대화, (나)는 묘사 위주로 되어 있다.

49. 추론적 사고(인물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남적 토벌하는 것에 대한 내용과 유심을 처벌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한 결정권자는 천자가 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각각에 대해서 찬성자와 반대자는 다르다. 우선 남적 토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정한담과 최일귀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유심이다. 유심의 처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역시 정한담과 최일귀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왕공렬이다. [답] ③

50.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대원수 유충렬이 적병과 싸우고 있는 때 빗방울이 내려 천기를 살피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재미성이 떨어지는 변고가 있다. 이것은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암울한 분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유충렬이 천사마를 타고 번수 가에 이르러서 천자를 살해하려는 정한담을 쫓아가 목을 산 채로 잡아온다. 이런 장면으로 볼 때 정한담이 도망가면서 여유와 의연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51. 어휘 어법의 이해(속담의 추리)

정답해설 : (가)에서는 정한담과 최일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남적을 치도록 기병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유심이 이를 반대한다. 이에 대해서 천자는 유심을 신뢰하지 않고 정한담과 최일귀를 신뢰하여 유심을 귀양 보낸다. 하지만 (나)에서는 정한담이 오히려 백사장에 엮어진 천자를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천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심의 말을 듣지 않고 정한담의 말을 들었건만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니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것으로, 속담에 빗대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된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 ③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조금 주고 그 대가를 많이 받는다는 말 ⑤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경우를 이르는 말

[52-55] 사회, '옵션'

지문해설 : 이 글은 '옵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옵션의 정의와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탈레스와 올리브유 압착기 사례를 이용하여 옵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고, 또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한다.'는 옵션의 개념이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현대의 주식 시장의 옵션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 개념을 더욱 명

확히 다지고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는 또 옵션 보유자인 경영자의 행동과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주제] 옵션의 개념 이해와 효과

5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옵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옵션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옵션은 반드시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해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②는 이런 옵션의 특징을 그대로 잘 살려 쓴 내용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주식 옵션은 일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살 수 있다.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미래 정해지는 것이고, 그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이 글의 서두 부분에서 옵션이 금융 상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옵션 프리미엄은 나중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옵션을 처음 살 때 지불하는 돈이므로 옵션을 행사한 후에 갖는 것이 아니다.

53. 추론적 사고(상황의 이유 파악)

정답해설 :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수확기에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옵션 개념이다. 본문의 논리대로 이 옵션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풍년이 들어 압착기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압착기 임대료가 올라가면 탈레스는 자신이 지불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압착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으므로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나 흉작이 되면 압착기를 빌리려고 사둔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압착기를 빌리기 위해 지불한 돈만 날리게 될 뿐 더 큰 손해는 없기 때문이다. 즉, 압착기를 빌려줌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료가 자신이 압착기를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답] ⑤

54.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A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보기>의 그래프에 적용시켜 보는 문제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그래프에 정확히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와 ㉡가 보여주는 상황을 통해 옵션을 행사할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은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었을 때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1만 원 이전의 구간인 ㉡에서 옵션을 행사했다는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겨야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율기를 지니고 있다. ②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게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⑥를 토대로 본다면 손실은 처음 투자한 금액인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옵션 프리미엄을 구입할 때의 가격이 일단 묶여 있는 것이므로 ⑥는 0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⑤ 옵션으로 인한 수익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지만, 옵션으로 인한 손해는 1000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옵션이 지닌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 소득이 무한정 증가할 수 있음을, ⑥는 손해가 1000원 이상을 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5. 추론적 이해(중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제시하는 것은 경영자가 옵션을 지님으로써 옵션 관련 사업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주식 가격의 상승을 적극적으로 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경영자들이 자신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답은 ②가 가장 적절하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노동자의 복지 증진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③ 경영자에게 옵션을 주는 것이 사업의 안정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영자에게 옵션을 주는 것이 사업의 다각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경영자의 사회 공익에 대한 언급은 없다.

[56-60] 현대소설, 최인훈, '광장'

지문해설 : 이 소설은 남북 분단의 비극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남과 북에 대한 객관적 반성이 나타나 있고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상황의 비극성이 밀도 있게 표현되어 있다. 주인공 이명준은 철학도로서의 밀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광장'을 찾아 월북하고, 그 '광장'에서 절망을 한 후 은혜와의 사랑이라는 '밀실'을 찾는다. 다시 전쟁이란 '광장'을 거쳐서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밀실'인 중립국을 택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큰 새'는 북에서 사랑했던 은혜를 상징하고, '꼬마 새'는 은혜가 낳은 딸을 상징한다. 그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다는 사랑만이 참다운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광장'이며, 동시에 이념이 배제된 '밀실'이다. 따라서 이명준은 최후에 그만의 '광장'인 동시에 '밀실'인 바다를 택하여 자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준의 자살로 마무리된 결말 부분은 냉전적 사고가 지배하던 당시의 시대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분단 이데올로기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의 추구

56.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이명준이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

며, 중간중간에 이명준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풍자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고, 이야기의 비극성은 약화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는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밀실’과 ‘광장’을 추구하는 이명준의 독특한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57.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문맥상 ‘사복 자리’에서 주인공은 ‘삶의 광장’이 극도로 좁아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현재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밀실’인 중립국을 택하여 배를 타고 제3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배 위에서 또 다시 ‘광장’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이 ‘사복 자리’에서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군.’이라고 한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 ③

58. 비판적 사고(외재적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장황한 진술에 얽매이지 말고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보기>에서 ‘상황의 구체적 의미’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할 때 드러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준이 겪은 사건을 창작된 시대의 상황 및 그 시기에 작가가 가졌던 가치관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고 한 ⑤번이 상황의 구체적 의미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답] ⑤

59.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 추리)

정답해설 : 문맥상 ㉠은 큰 새(=은혜)와 꼬마 새(=딸)가 마음껏 날아다니는 바다를 보며 ‘푸른 광장’임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명준이 깨닫게 된 내용이다. 따라서 ‘그 너럭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 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썩었던 게 틀림없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유토피아를 찾다가 남한과 북한 사회에 모두 환멸을 느끼고 6·25 전쟁에 참전한 후 끝내는 중립국을 선택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으로 보아야 한다. [답] ④

60. 어휘·어법의 이해(단어의 확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서 ‘불타다1’은 기본적 의미이고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불타다2’는 확장된 의미이다. ㉠는 저녁놀이 불타는 것이므로 기본적 의미가 아니라 확장된 의미인 ‘불타다2’에 해당한다. 그런데 ㉡의 ‘손꼽아’는 문맥상 ‘손가락을 꼽아 수를 세다.’는 기본적 의미로 풀이되므로 ㉠와 쓰임이 다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물오른 싱싱한 생선’에서 ‘물오른’은 실제로 물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 싱싱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 ③ ‘두령을 수놓고’에서 ‘수놓고’는 실제로 수를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 ④ ‘바람 소리도 잠들고’에서 ‘잠들고’는 실제로 잠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바람 소리가 사라져 없어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 ⑤ ‘신록을 살찌게 하는 비’에서 ‘살찌게’는 실제로 살이 찌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록을 더 짙게 보이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⑤ 2.③ 3.① 4.③ 5.⑤ 6.③ 7.⑤ 8.④ 9.④ 10.⑤
11.③ 12.③ 13.④ 14.① 15.⑤ 16.② 17.② 18.② 19.④ 20.③
21.③ 22.⑤ 23.② 24.⑤ 25.② 26.⑤ 27.① 28.① 29.③ 30.④
31.④ 32.③ 33.② 34.① 35.④ 36.② 37.② 38.② 39.② 40.③
41.④ 42.④ 43.⑤ 44.⑤ 45.② 46.④ 47.⑤ 48.② 49.④ 50.②
51.① 52.④ 53.④ 54.③ 55.④ 56.③ 57.② 58.① 59.⑤ 60.①

[1-6] 듣기

1.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사막과 사막화의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막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가 공유하자선 취지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유엔은 이 대로 가면 지구 육지 면적의 3분의 1이 사막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막화란 건조 지대에서 일어나는 토지 황폐화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지구 환경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과도한 경작으로 땅을 혹사시키거나 무분별한 벌목으로 삼림을 파괴하는 인간의 잘못된 활동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막화는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심한 곳은 아프리카입니다만, 중동이나 호주, 중국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막화의 피해는 눈에 떨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생산력을 잃은 토지에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되고 농경이 불가능해지죠. 이것은 식량 생산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식수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동 지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이런 식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담수화 과정을 거쳐서 식수로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섬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직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1.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사막화가 인류에게 주는 위협에 대해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이다. 이 학생은 먼저 사막화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사막화의 발생 원인, 사막화가 심한 지역, 사막화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막 부분에서 사막화로 인한 피해 중의 하나인 식수 부족 현상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막화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답] ⑤

2.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어제 수업 시간에 사람들의 반응 유형에 관한 선생님 얘기 어땠니? 난 참 재밌던데.

여학생: 응, 나도 재미있었어. 특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방어 기제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재미있었어. 내가 어떤 유형인지도 분명하더라.

남학생: 넌 어떤 유형인데?

여학생: 난 반동형에 속하겠더라.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난 내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거든. 넌 어떤 유형이니?

남학생: 난 달콤한 레몬형인 것 같아.

여학생: 그래? 난 그 대목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 그게 어떤 유형이니?

남학생: 달콤한 레몬형은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유형이래. 내가 봐도 난 그런 것 같거든.

여학생: 그래? 음~ (휴지) 그럼 한번 말해 봐. 너 같은 달콤한 레몬형이 지하철을 타려고 뛰어가는데,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열차를 놓쳐 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니?

남학생: 음, 나라면~

2. 추론적 사고(이어질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두 학생은 수업 시간에 들은 사람들의 반응 유형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학생이 달콤한 레몬형에 해당한다고 하자 여학생은 그 유형에 대해 자세히 듣지 못했다며 그게 어떤 유형인지 묻고 있다. 남학생은 ‘달콤한 레몬형은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유형’이라고 설명해 준다. 여학생은 다시 지하철을 타려다가 열차를 놓쳐 버렸을 때 너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묻는다. 나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달콤한 레몬형의 특징이라고 했기에, 남학생은 열차를 놓친 상황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할 것이다. ‘차라리 잘 됐다며 음료수를 마신다.’는 것이 바로 나쁜 상황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한 것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④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것은 나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일 뿐,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3. 이번에는 라디오극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효과음 (바람소리 쉬익~)

해설: 태양이 작열하는 사막에 한 시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나태한 자신을 벗어 버리려 사막에 왔던 시인. 그러나 지금은 지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낙타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시인: (정신 차리며) 누구신지?

낙타풀: 전 낙타풀이에요.

시인: 어디 있나요? 모습을 보여 주세요.

해설: 시인은 머리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덩굴풀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인: 아! 놀랍군. 난 이 사막엔 생명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정말 반가워.

낙타풀: 아저씨는 뭐하시는 분이세요?

시인: 난 시인이란다. 내가 사는 곳에선 유명한 사람이지. 마음속에 스민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섬세한 언어에 담는 일을 해. 네가 하는 일도 좀 얘기해 줄래?

낙타풀: 정말 멋있군요. 음, 제가 하는 일은요, 이 사막에서 자라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목을 적실 빗물도 거의 없지만, 전 이 사막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 가시가 덮인 우리 몸도 사막의 기후를 견뎌 내기 위한 거죠. 혼한 일은 아니지만 길을 잃고 쓰러진 나그네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요. 전 그들이 다 제 길을 찾았으면 해요. 참, 굶주린 낙타들에겐 우리들이 양식이 되기도 하죠. 낙타들이 저혈 보고 반가운 콧소리를 터뜨릴 땐 우리들 마음은 무척 따뜻해지고 행복해 진답니다.

시인: 낙타풀아! 너는~

3. 비판적 사고(대상의 특성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낙타풀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므로 어려운 환경에도 잘 적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막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안다고 볼 수 있고, 시인처럼 길을 잃고

쓰러진 나그네들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격려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친절
한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굶주린 낙타들에게 양식이 되어 줄 때 행복해진
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낙타
풀이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답] ①

4.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그림을 보며,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고속도로는 왜 막힐까요? 사고도 공사도 없는데, 유독 정체되는 부분이
따로 있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는 차가 많아서 정체가 생긴다고 생각하
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론에서는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자
동차 무리와 새그의 관계죠.

여기 그림을 보시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무리가 보이죠. 상대적으로
느린 차를 선두로 자동차가 무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곳이 바로 새그입니다. 새그란 도로의 기울기가 변해서 오목해진 지점
으로, 변화된 정도가 미미해서 운전자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림을 계속 보시죠. 여기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자동차 무리가
새그에 직면했다고 가정해 보죠. 선두 차의 운전자는 도로 기울기의 변화를 인식하
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더 밟지는 않습니다. 결국 달리던 속도에서 시속 3~4킬로
미터 정도 속도가 떨어지고, 그럴 경우, 뒤따르는 차는 선두 차가 감속한 것으로 알
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는 앞 차에 비해 더 감소합니다. 이때 그 다음 차는 앞 차
에 비해 조금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겠죠. 이렇게 되면 이 자동차 무리의 맨 뒤
차는 시속 수십 킬로미터까지 속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로 달리는 자동차 무리가 접근합니다. 이 무리의 선두 차와 앞서 가던 무리의 맨
뒤차가 만날 경우, 정체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새그, 즉 도로의 기울기가
변해 오목해진 지점 때문에 도로 정체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의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
여러 개의 자동차 무리가 있습니다. <보기> 중, 앞선 무리의 선두 차의 운전자가
도로 기울기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 때, 새그에 의해 교통 정체가 생기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4.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강연 내용은 고속도로에서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인 ‘새그
현상’에 대한 것인데, 새그는 도로의 기울기가 변해서 오목해진 지점으로서, 이 지
점 때문에 앞서 가던 차의 운전자가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면 뒤따르던 차들이
점점 더 감속하게 되어 도로 정체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원리를

<보기>에 적용해 보자. 주행 중 선두 차의 운전자가 도로 기울기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게 됨으로써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야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우선 ㄴ처럼 내리막길이 끝나고 평탄한 길로 접어들 때 속도가 줄어들어 정체가 일어나며, 다음으로 ㄷ처럼 오르막길의 기울기가 좀 더 급해질 때 속도가 줄어들어 정체가 일어난다. [답] ③

[오답피하기] ㄱ처럼 내리막길의 기울기가 좀 더 급해지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므로 정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ㄷ처럼 오르막길이 끝나고 평탄한 길로 접어드는 경우에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빨라지므로 정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5-6] 이번에는 음악 감상법에 대한 대답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클래식 음악 감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답자(남자):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여자): 클래식 음악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실 클래식을 감상하려고 해도 어떤 순서로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바흐와 같은 고전 시대의 음악부터 출발해야겠지요?

대답자(남자): 아,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듣기 편안한 음악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악이든 기악이든 상관없겠지요. 그러다 다른 분야의 음악으로 감상의 폭을 넓히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시대를 구별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이리다 보면 클래식에 대한 조예도 깊어지고 느낌도 풍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느낌을 갖고 의미를 찾으려는 자세가 클래식 감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여자): 그렇군요. 가사가 있는 대중가요와는 달리 클래식은 가사가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해도 알아듣기 어려워서, 어떤 점을 중시해 감상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까요?

대답자(남자): 헛헛(가볍게 웃음).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듣기 편하고 선율이 아름다운 곡을 통해 친근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래식 음악에 좀 더 익숙해지면 협주곡이나 교향곡처럼 제법 규모가 큰 음악도 감상할 수 있게 되지요. 여기서 여러 악기가 내는 독특한 음색도 느껴 보면서 감상의 깊이와 폭을 넓혀 가야겠지요.

진행자(여자): 아! 그렇군요. 최근에 모차르트의 음반을 사서 들어봤는데요, 예전

에 들었을 때의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답자(남자): 음악을 듣는 상황이 바뀌어 그럴 수 있고, 연주자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같은 작품을 놓고 서로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한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감상하는 것이 좀 더 높은 단계의 감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주자나 지휘자에 따라 달라지는 음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작들의 형식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면 클래식 음악 감상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서적을 찾아 읽어 보는 것도 감상에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든 앞에서 말한 클래식 감상의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행자(여자): 그렇군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5.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대답자(남자)는 클래식 음악 감상 방법에 대해 묻는 진행자(여자)의 질문에 대해, 자기가 좋아하는 듣기 편한 음악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으며, 자기만의 느낌을 갖고 의미를 찾으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대답을 듣고 난 뒤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느낌을 가지고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가장 중시할 것이다. [답] ⑤

6.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진행자는 대답의 앞부분에서 클래식 음악을 어떤 순서로 감상해야 하는지 물어보면서, 구체적으로 고전 시대의 음악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의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내었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최근 모차르트 음반을 사서 들어봤는데 예전에 들었을 때의 느낌이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의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내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② ‘그렇군요’ 하며 맞장구를 칠 뿐,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④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질문하긴 했지만 그와 관련된 어떤 일화를 소개한 것은 아니다.

[7-14] 쓰기, 어휘·어법

7. 추론적 사고(자료의 해석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생성)

정답해설 : 주어진 그래프 중 첫 번째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인간의 성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인간의 성취도가 마감 시간에 가까울수록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중간 마감 시간을 설정하여 인간의 성취도가 변화하는 모습과 최종 마감 시한만을 설정했을 때 나타난 인간의 성취도를 함께 보여

주고 있다. 두 그래프에서 중간 마감을 설정한 경우에 중간 단계는 물론 최종 단계에서도 더 높은 성취도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 분석의 내용을 ‘효과적인 공부’에 적용한다면 α 과 같이 공부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를 나누는 방식 즉, 일별, 주별 공부량을 정해서 각각의 마감 시한을 설정하여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또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 모두에서 α 과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공부의 성취도 차이 즉, 그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도 도출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ㄱ. 두 그래프로부터 ‘효과적인 공부’를 꾸준한 노력과 연결시키기 어렵다. 그래프는 꾸준한 노력을 변수로 하고 있지 않고, 마감 시간과 성취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한 노력이 핵심 변수라면 ‘마감 시한’을 설정하는 그래프는 도출될 수 없다. ㄴ. 휴식은 그래프의 변수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언급할 수 없다.

8. 추론적 사고(글의 주제 파악을 통한 이어 쓰기)

정답해설 : <보기>는 학교 급식실의 공간이 협소하여 나타나는 불편함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어질 내용은 이러한 불편함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급식 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급식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사항을 언급한 ①, 급식실의 협소함으로 인해 학생이 받은 피해를 언급한 ②, 급식 시설을 포함하는 학교 환경 개선의 효과를 언급한 ③, 급식실의 협소함으로 인해 식사를 늦게 해서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함을 언급한 ⑤는 각각 이어 쓸 내용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도서관의 자리가 부족함을 건의하는 것은 건의문의 서두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답] ④

9. 추론적 사고(내용 파악을 통한 뒷받침 자료의 확인)

정답해설 : 주어진 선택지에서 ①은 II의 1에, ②는 II의 2에, ③은 III의 2에, ⑤는 II의 3에 해당하는 자료로 각각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국제 교류의 유형과 국가별 선호도의 상관관계는 제시된 개요의 내용 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답] ④

10. 사실적 사고(주제의 이해)

정답해설 : 개요의 내용은 ‘청소년 국제 교류의 필요성 → 청소년 국제 교류의 문제점 →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가 의도하는 주제 의식은 청소년 국제 교류의 활성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문장은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강구 및 제도 정비, 즉 청소년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그 필요성을 강조한 ⑤가 된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재정 지원, 민간 지원 시스템은 모두 구체적인 해결책 방안이므로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가 되기 어렵다. ③ 국제화 시대의 인재 양성은 개요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④ 청소년들의 의식 전환은 개요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11. 창의적 사고(조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생성)

정답해설 :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지향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므로 ②는 제외된다. ①, ③, ④, ⑤ 중에서 사물의 현상이나 속성을 뒤집는 ‘거꾸로 생각하기’의 발상이 담긴 것은 ③이다 “작은 것이 더 큼니다.”라는 진술은 상식을 뒤집는 역설적인 진술로 ‘거꾸로 생각하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큰 상처’와 ‘작은 상처’의 비교를 통해서 작은 상처인 헌혈이 큰 상처 즉, 다른 사람이 겪는 더 커다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지향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답] ③

12. 추론적 사고(퇴고하기)

정답해설 : ㉞은 솔수염하늘소의 특성을 통해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문장이다. 따라서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 방지책 중 솔수염하늘소의 방제를 진술하고 있는 앞 문장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셋째 문장과 넷째 문장은 모두 솔수염하늘소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 과정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사이에 위치하면 그 방제책이 삽입되게 되어 글의 진술이 어색해진다. [답] ③

13. 추론적 사고(어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조건] 1.로부터 ㉠과 ㉡은 -답²-에 해당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조건] 2에서 -답¹-은 단어보다 더 큰 단위에 결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제시된 단위가 ‘싸움에서 이긴 장군’으로 이는 명사 ‘장군’과 이를 수식하는 관형사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관형사절 + 명사]+ -답다’의 구조를 ㉢과 ㉣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예]에서 ㉤, ㉥, ㉦이다. 그리고 [조건] 3.에서 -답¹-은 자격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역시 ㉢,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¹-에는 ㉤, ㉥, ㉦이 -답²-에는 ㉧, ㉨이 해당된다. [답] ④

14. 추론적 사고(어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동일한 대명사가 상황에 따라서 2인칭과 3인칭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①의 ‘저희’이다. 가.에 사용된 ‘저희’는 1인칭인 ‘우리’의 낮춤말이다. 나.에 사용된 ‘저희’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이다. [답]
①

[15~19] 현대시

(가) 신경림 ‘고향길’

작품해제 : 화자는 가난하지만 소중한 추억이 깃들여 있는 고향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의 현실 속에서 이제 고향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에 ‘쫓기듯 도망치듯’ 떠나야만 하는 공간으로 변해 버렸다. 눈물을 머금고 이방인처럼 고향을 등져야만 하는 화자의 고향 상실감과 그로 인한 비애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주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삶의 비애

(나) 김상옥, ‘사향(思鄕)’

작품해제 : 이 작품은 3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정경을 회상 형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고향에 대한 정경을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아울러 고향 마을 사람들과 마을 전체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에 회상에서 벗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다) 박재삼, ‘추억에서’

작품해제 :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고난과 한스러운 삶을 회상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내용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골 생활과 함께 진주 장터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던 모습을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한스러운 삶을 살다간 어머니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

15.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고향을 가난하지만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비해, (다)의 화자는 고향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한과 고생이 담긴 공간으로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다)에 등장하는 고향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그네 되어 떠난다는 데서 고향에 정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② 눈 감고 회상하는 아름다운 고향이 나타나 있다. ③ 진주 장터와 남강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④ (나)는 고향을 회상하고 있

을 뿐이지만, (가)에서는 고향에 찾아가게 되면 어떨 것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16. 추론적 사고(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내 살던 집 뒷마루’는 시적 자아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역시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유랑하는 삶의 지향점을 뜻하고, ㉡은 어머니의 고난스러운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17. 추론적 사고(작품을 바꾸어 쓰기 위한 구상)

정답해설 :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즉, 첫 부분의 ‘눈을 감는다’에서 현재 상황에서 과거 회상이 시작되고 있으며, 마지막에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이 도로 애것하다’에서는 과거 회상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는 직접 회상하는 내용만 나와 있을 뿐 회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나)를 (다)로 개작할 경우에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현재 상황을 부여해야 한다. [답] ②

18.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나)는 현대 시조로 음수율이나 율격 구조는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현재적인 감수성이 느껴지는 것으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한 시조라고 할 수 있다. 1연에서 ‘풀밭길 - 개울물 - 초집’의 이미지들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2연에서의 ‘진달래 - 저녁노을 - 꽃지짐’의 붉은 색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들의 긴밀한 연결, 3연에서의 ‘멧남새 - 봄을 씹는 마을’이라는 미각적 이미지들의 긴밀한 연결에 의해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게 의미 구조를 배치함으로써 율격이라는 형식적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미학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글자 수 제한과 율격적 특징은 기존의 시조의 특성이다. ④ 사투리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기보다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⑤ 3장 구조는 특별히 새로운 미학을 개척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9. 비판적 사고(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과 고통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새벽 서리를 맞으며 나가 밤 이슬을 맞으며 돌아오시곤 했던 어머니의 고생과 자식들을 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D가 된다. 자식들을 위해 진주 장터로 생

어물 장사를 하러 신새벽이나 밤에 오고가고 하는 어머니의 한스러운 상황과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답] ④

[20-23] 사회, '소비 사회에서 공간 텍스트를 읽는 과정'

지문해설 : 쇼윈도는 현대의 공간 텍스트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곳이다. 즉 '소비 행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간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인 셈이다. 소비자는 공간 텍스트에 놓여 있는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상품을 관찰하며, 그 상품에 부여된 가치를 해독하고 궁극적인 평가를 내리는 과정을 통해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가 그 상품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제] 공간 텍스트를 통한 소비 행위의 의의

20.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 여부 확인)

정답해설 : 쇼윈도는 소비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적 표상 중의 하나로 소비를 이루어 내는 공간 텍스트의 역할을 한다. 이는 마치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표지나 목차를 먼저 읽듯이 소비자를 소비 사회의 공간 텍스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책의 표지나 목차 이야기는 쇼윈도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책을 읽는 능력과 공간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과의 관련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비자는 쇼윈도를 통해 소비 공간으로 입문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② 소비자는 관심, 관찰, 해독,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④ 마네킹은 공간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소비자는 마네킹이 걸치고 있는 옷, 장신구 등을 보며 이것을 생산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한다. ⑤ 공간 텍스트에는 생산자가 의미를 부여한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21. 사실적 사고(설명 방법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소비자가 쇼윈도라는 공간 텍스트를 통해 소비 행위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현상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공간 텍스트를 세 개의 층위(표층, 심층, 서사)로 나누고 있다. ② 공간 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라며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④ 옷 가게의 쇼윈도에 마네킹이 서 있는 경우를 사례로 들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첫째 단락의 끝부분에서 기호학의 이론에 따라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22. 추론적 사고(핵심 어구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어진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한 후, 공간 텍스트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공간 텍스트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공간이고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공연 예술의 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공간 텍스트는 생산자, 혹은 판매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② 예쁜 옷을 입고 멋있는 장신구를 한 마네킹을 쇼윈도에 세워 두는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 텍스트를 이용하여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 ③ 소비자와 생산자는 공간 텍스트에서 서로 연결된다. ④ 공간 텍스트는 쇼윈도처럼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게 된다.

23. 어휘 어법의 이해(중요 어휘의 이해)

정답해설 : ‘이야기’는 <보기>에서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 ㉡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 두 단어가 <보기>에 제시된 여러 개의 뜻 중에서 어떤 의미로 문맥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은 ‘자신이 경험한 일이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므로 ㉠이 적절하다. ㉡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 가장 가깝다. [답] ②

[24-28] 고전소설, 김만중, ‘구운몽’

작품해제 : ‘구운몽’은 김만중이 남해 유배 시절 어머니 윤씨 부인의 근심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는 우리나라 양반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유교, 도교, 불교 등 한국인의 사상적 기반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불교의 공(空)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성진이라는 불제자가 하룻밤의 꿈 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맛보고 깨어나, 인간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껴 불법에 귀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양소유가 꿈에 용왕의 딸인 백능파를 만나게 된 뒤 용궁에 초대되어 갔다가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이다.

[주제] 인생무상에의 깨달음과 불법에의 귀의

24.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양 원수가 용궁에 초대되어 대접을 받는 장면과 남악 형산을 구경하는 장면, 꿈에서 깨어난 뒤에 장졸들에게 꿈의 내용을 물은 뒤에 백룡담에 가서 물을 마시는 장면으로 다양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크게 세 차례 바뀐다. ② 양 원수가 용왕의 초대를 받고 백룡담의 물을 마시고 병든 군병에게 먹이는 등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용궁과 남

악 형산의 공간이 등장한다. ④ 용왕과 양 원수와의 대화나 노승과 양 원수의 대화가 격조가 있다.

25.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작품의 구조를 분석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특징을 감상하는 문제이다. ‘현실’과 ‘꿈’과 ‘꿈속 꿈’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에서 ‘현실’과 ‘꿈속 꿈’의 공간이 남악 형산으로 일치하게 되어 ‘꿈속 꿈’이 다시 ‘현실’의 공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현실 층위가 아닌 용궁이 등장하고 있다. ③ ‘꿈속 꿈’은 욕망을 이루는 부분으로 현실적 욕망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꿈속 꿈’의 공간은 백능파를 만나는 공간이다. ⑤ ‘꿈속 꿈’에서 ‘꿈’으로 간다는 점에서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추론적 사고(작품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유의전’에서는 전단강에 사는 용왕의 아우가 경하강 용왕의 아들과 싸워서 동정호 용왕의 딸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구운몽’은 양소유가 남해 태자와 싸워서 동정호 용왕의 작은딸인 백능파를 구해주게 된다. [답] ⑤

27.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에 담겨 있는 양소유의 심정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답고 빼어난 경치가 있지만 아직 공적을 이루지 못해 물러나서 한가하게 즐길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 이러한 심정이 나타나 있는 것을 찾으면 ①이 된다. 초당의 자연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귀거래하고 싶다는 말만 하고 있을뿐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풍류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③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④ 우국지정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 ⑤ 나라가 망한 것을 탄식하고 있다.

28. 어휘·어법의 이해(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해설 : 양 원수가 장졸들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가고 묻자 모든 장졸들이 똑 같은 꿈을 꾸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 대답하여 말하는 모습을 이구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①은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 같음을 이르는 말로 이 부분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③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또는 말이 오고 감. ④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⑤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29-32] 예술, '마티스의 [모로코 사람들]에 나타난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마티스의 '모로코 사람들'이라는 그림에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그림의 구상 동기와 전체적인 특징, 그리고 그림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보여 준 후, 구성과 색채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을 설명함에 있어 그림의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통합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주제] 마티스의 '모로코 사람들'에 나타난 구성과 색채상의 특징

2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마티스의 '모로코 사람들'은 추상적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어 그림에 그려진 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했다. 특히 왼쪽 하단의 그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 즉, 흰 선과 격자 위에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터번을 두르고 기도하는 아랍인들이라는 해석과 푸른 잎사귀에 싸인 네 개의 멜론이라는 해석이 있다고 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4문단의 4행과 5행에서 색 자체는 화려하거나 다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② 이 그림은 모로코 여행 직후가 아닌 4~5년 뒤에 그려졌으며 조형적으로 소화되어 추상적 형태에 가깝게 단순화되어 있다고 했다. ④ 4문단의 8행에서 마티스는 화면이 밝은 것은 물감 색의 생생함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⑤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3문단의 첫 문장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논의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했다.

30. 추론적 사고(새로운 자료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일반적인 미술 비평의 세 단계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기술과 분석의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이 제시되고 관계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는 왼쪽 하단의 그림을 구체적인 색과 형태로 제시한 ㉠과, 화면 오른쪽 아래쪽의 색과 형태에 대한 진술인 ㉡이 해당된다. 다음 단계인 해석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 했다. ㉢은 바로 ㉠에 대한 해석이며, ㉣은 황색의 원과 나머지 구성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며, 그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진술이기에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평가 단계에서는 선행 결과를 토대로 작품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다고 했다. ㉤은 앞에서 설명한 마티스의 그림에 대한 특징들을 토대로 '놀라운 표현력을 보여주는 걸작'이라고 최종 평가를 내리는 진술이라 할 수 있다. [답] ④

31. 추론적 사고(함축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색채의 마술사 마티스의 비밀이란 마티스가 어둠의 색인 검정을 빛의

색으로 변모시켰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의 색으로 변모를 시켰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4문단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마티스 스스로가 밝혔듯이 다른 색과의 조화와 어울림에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화란 흰색과의 대비도 아니며, 다른 물감과의 혼합도 아니고 주변 색과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다. [답] ④

32. 비판적 사고(새로운 작품에의 적용)

정답해설 : 마티스 그림의 경향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무엇을 그렸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그렸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선 마티스 그림의 전체적인 특징인 추상적이고 기하학적 형태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또한 마티스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비록 검은 색을 썼지만 색의 조화를 통해 남국의 밝은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진술은 동심원의 형태라는 기하학적 특징과 수수한 색채를 통해 화사한 봄별의 느낌을 주도록 했다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마티스 그림은 추상적 형태라 했으므로 사진과 같은 세밀함은 잘 못된 것이다. ②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해석의 여지를 없앤 것은 마티스 그림의 경향이 아니다. ④ 마티스의 그림에서는 인상 깊은 대상만을 집중적으로 그려내기 보다는 전체적인 것의 조화를 중시했다. ⑤ 안정된 구도와 차분한 색채가 매력적이기는 하나 이 역시 추상적인 형태를 띤 그림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33-36] 기술, '6 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의 성격과 효과'

지문해설 :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에서 불량품의 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6 시그마 계획의 특성을 설명한 글이다. 시그마란 품질의 평균값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품질 특성값이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표준 편차의 표시 기호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시그마를 축소하기 위해 불량품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정 및 시스템 개선을 벌이게 된다. 글쓴이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들은 제품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고객 만족도의 향상을 가져 왔다고 설명한다.

[주제] 6 시그마 계획의 개념 및 특성과 제품 생산에서의 적용 효과

33. 추론적 사고(내용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구성)

정답해설 :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이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문에는 공정이 안정되고 설비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생산된 제품은 오차를 갖게 마련이라고 진술되어 있다. 오차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특성값으로 평균을 냈을 때, 그 값이 공정의 목표값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는 없다. 이것이 가능한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우선 평균값보다 작은 정도와 큰 정도의 절대값이 서로 일치하고 그

개수도 서로 일치하는 경우로 지문에 나타난 그래프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그래서 지문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답] ②

34. 어휘 · 어법의 이해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일을 해결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고 쉽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다.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 상대가 되는 사람이 거리감이 있어 행동하기가 조심스럽고 거북하다. ㉢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까다롭다. ㉣, ㉤ 가난하여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

35. 추론적 사고(유사한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현재 품질 상태를 측정해야 불량품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은 ‘나. 측정 단계’에 해당한다. ㉡는 불량품의 개선을 위한 공정 교체를 의미하므로 품질 개선을 위한 방법과 조건을 찾는 ‘라. 개선 단계’에 해당한다. [답] ④

36. 추론적 사고(자료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지문에 제시된 시그마의 수준을 바탕으로 이를 면적, 비용, 시간, 거리로서 나타내고 있다. 시그마는 제품의 평균에서 떨어진 산포도를 측정하는 표준편차를 의미하는 기호이다. 지문에서 시그마 앞의 배수가 크면 시그마가 작아 불량품이 적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시그마 앞의 배수가 작으면 시그마가 커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그마 앞에 배수들이 각각 3, 4, 5, 6으로 제시된 <보기>는 배수가 커질수록 불량품의 산출이 점점 적어지고 있음을 면적, 비용, 시간, 거리의 단위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는 시그마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불량률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답] ②

[37-42] 문학 복합 [고전시가+고전수필]

(가) 안민영, <매화사>

작품해제 : 모두 8수로 된 연시조이다. 이 작품은 추운 계절에도 능히 꽃을 피우는 매화의 고아한 절개를 그리고 있다. 필자는 매화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윽한 향으로 인해 느껴지는 운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 안민영의 시조 작품 가운데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히며 매화가 상징하는 지조, 절개의 의미와 더불어 그에 걸맞는 멋과 향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매화에 대한 예찬

(나) 송순, <면앙정가>

작품해제 : 이 작품은 강호가도를 확립한 노래이다. 정극인의 '상춘곡'을 이어받고,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문에서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흥취를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연의 경치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고,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고유어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주제]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면양정의 경치와 이를 즐기는 흥취

(다) 박지원, '홍덕보 묘지명(洪德保墓誌銘)'

작품해제 : 묘지명에 해당하는 잡문이지만 수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글이다. 덕보 홍대용과의 교유에 따른 개인적인 체험과 일화를 통해 그의 비범한 재주를 찬미하고 있는 글이다. 몇 일화를 통해 홍대용의 인물됨을 예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홍대용의 평소의 생활 자세와 그가 지닌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 덕보 홍대용의 인물됨과 비범한 재주에 대한 예찬

37.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면양정 주변 사계절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의 필자는 덕보 홍대용이 지닌 비범한 능력과 인물됨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 결국 주어진 세 작품 모두에서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38.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과 역할 파악)

정답해설 : '황혼월'은 '매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보조 관념이 아니다. 황혼 속의 달이라는 자연 정취와 연관되는 본 관념으로서의 시어이다. 시 전체에 걸쳐서 단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화자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 시어이다. ③ 화자는 매화의 상징적 속성을 들어 '우아함'과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④ 두견화는 진달래이다. 화자는 철쭉이나 진달래의 속됨과 다른 매화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눈'은 어려운 환경을 의미한다. 화자는 이러한 눈을 이기는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소재로 '눈'을 활용하고 있다.

39. 창의적 사고(다른 갈래로 전환하기)

정답해설 : 동영상이라는 다른 갈래로 전환하여 보는 문제 유형이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작품의 정황과 연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가)의 분위기는 우아함과 절제된 아름다움, (나)의 분위기는 아름다움과 신비함의 흥취이다. 그런 만큼 동영상에서 (가)를 '구슬픔'이라는 분위기와 연관하여 영상화한다면, 이는 주어진 작품의 분위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잔 잡아 권하는 구절과, (나)에서 남여를 재촉해 타는 구절과 상응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가)에서는 백설 양춘이라는 시어를 통해, (나)에서는 시상 전개와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달’을 통해, (나)에서는 ‘사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는 ‘동각’의 언급을 통해 한옥의 딸이 연상되며, (나)에서는 남여를 타고 길을 통해 도달한 ‘백척 난간’의 상황을 통해 주변 풍경의 조망이 가능한 곳이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될 수 있다.

40.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㉔은 아름다운 가을 산의 풍경과 모습이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흥에 겨운 피리소리와 연관해 볼 때, 어떤 적막감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황앵’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었다. ② ‘긴 조으름’이라는 시어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④ 청각 심상으로서의 ‘어적’과 시각 심상으로서의 ‘달’이 동시에 드러난다. ⑤ ‘가는 곳곳마다 불만한 경치로구나’라며 감회를 집약하고 있다.

41.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과 역할 파악)

정답해설 : ㉔는 노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화를 완상하는 화자의 풍류적 감각을 드러내기 위해 차용된 소재이다. 반면 ㉕는 그 이후의 문장과 연관하여 생각하면 된다. 곧, ‘자중 자애하면서 세속을 벗어나 마음을 닦는’ 수양의 도구로서 거문고가 사용되는 것이다. [답] ④

42.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덕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필자는 덕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평소의 생활 자세인 겸손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③ 육비, 엄성, 반정균과 같은 중국의 학자들과 비교하면서 홍덕보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전체적으로 여러 일화와 예를 동원하여 덕보의 인물됨을 말하고 있다.

[43-46] 언어, 머릿속 사전의 조직에 나타난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머릿속의 사전에 낱말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 연상 실험과 실어증 환자에게 대한 실험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사전에서의 낱말 조직과 비교를 하고,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체계적인 정리로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실험을 통해 밝혀진 머릿속 사전의 조직에 나타난 다양한 특징

43.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머릿속 사전의 조직을 살펴보는 방법인 단어 연상 실험에서

자극어에 대한 반응은 깊이 사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라는 가정에 부합하다고 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의 첫째 항목에서 머릿속 사전은 서로 관련을 맺는 단어들이 거미줄처럼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 했다. ② 단어 연상 실험에서 단어들은 등위적, 배열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특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③ 5문단의 둘째 항목에서 정리하였듯이 강력한 연결 관계를 맺는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 했다. ④ 4문단의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단어들은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무리지어 있으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44. 비판적 사고(구체적인 논거의 제시)

정답해설 : A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머릿속 사전의 조직 방식은 사전과는 달리 한글 자모 순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4 문단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논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례라 했으므로 사전에서처럼 한글의 자모 순서와 관련이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⑤에서 ‘장어, 쟁어, 정어, 정우’는 모음의 근접성이 있는 단어들끼리 모아 놓은 것이기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문’과 ‘바람’은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배열적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② ‘곤경’과 ‘장애’는 의미가 유사하기에 수준이 유사한 단어들의 연결인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③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 동시에 떠올라 혼란을 일으켰으므로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는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④ ‘현미경’과 ‘망원경’은 서로 수준이 유사한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에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ㄱ의 ‘고무’와 ‘줄’은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기에 배열적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ㄴ의 ‘잠자리’와 ‘채’ 역시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기에 배열적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ㄷ의 ‘두껍다’와 ‘얇다’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에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ㄹ의 ‘남자’와 ‘사람’은 하위어와 상위어의 관계이기에 상위적 연결 관계의 단어이다. ㅁ의 ‘북쪽’과 ‘남쪽’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에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답] ②

46. 비판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오리가리’는 의미상 ‘오리³’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머릿속 사전의 방식대로 정리한다면 두 낱말은 가까운 곳에 저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머릿속 사전은 형태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기에 ‘오리가리’가 ‘오리’와 형태적 유사성이 있다는 판단을 토대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머릿속 사전은 사전에서처럼 한글 자모 순서가 아니라 유사한 의미나 주제를 중심으로 단어들 연결되어 있다. ② 두 단어는 비록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기에 ‘오리’는 ‘동물’의 단어들과 같이 묶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머릿속 사전은 일정한 주제나 의미상 연관이 있는 단어들끼리 묶이기 때문이다. ③ ‘오리발’, ‘오리걸음’의 ‘오리’는 ‘오리’에서 나온 것이므로 머릿속 사전에는 이 단어들 어떤 식으로든 묶여야 자연스럽다. ⑤ 머릿속 사전에는 유사한 단어들끼리 묶인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나,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끼리 묶인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47-51] 인문 ‘개인적 선호의 정당성에 대하여’

지문해설 : 살면서 부딪히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가 정당한 도덕적 평가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따진 글이다. 다양한 삶의 양상에 따라 행해지는 개인적 선호와 도덕적 정당성과의 미묘한 함수 관계가 노출되고 있다. 필자는 다양한 예를 동원하여 이러한 미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의 도덕적 판단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평주의자의 입장을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나누어 그 대처 양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주제] 개인적 선호와 도덕적 정당성

47.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선택이 과연 정당한 도덕적 평가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결국 이 글은 다양한 삶의 양상에 따라 행해지는 ‘개인적 선호의 도덕적 정당성’을 그 중심 화제로 삼고 있다. [답] ⑤

48. 논리적 사고(추론 과정의 파악)

정답해설 : ㉠은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 주었다’의 판단 내용과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는 두 판단 내용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만큼 ㉠의 추론 과정에는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를 놓아 주지 않았을 것이다’가 전제되어 있다. 곧,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를 놓아 주지 않았을 것이다 → 철수는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 주었다 → 그러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는 추론 과정이 성립될 수 있다. [답] ②

49. 추론적 사고(이유 및 근거의 추리)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기>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처한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과 순이는 친할

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이가 온건한 공평주의자라면 일단은 상황적 조건의 동일성 여부를 따질 것이다. 상황이 동일하다면 개인적 선호에 따라,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면 도덕적 흐름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처한 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만큼, 순이는 간병할 사람이 없는 친할머니를 간호함으로써 도덕적 흐름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답] ④

50. 비판적 이해(반응의 타당성과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을 파악한 후 본문과 더불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된다. <보기>는 딜레마에 처한 왕이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도망간다는 내용이다. 왕의 직분은 ‘도덕적 판단’을, ‘아버지와 더불어 도망함’은 ‘개인적 선호’를 의미한다. 본문에 나오듯이 강경한 공평주의자의 입장이라면 개인적 선호에 대한 완전한 배제를 주장할 것이다. 그런 만큼 집행관이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이는 일에 대해 지지를 보낼 것은 당연하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개인적 선호가 반영되었다면 왕은 아버지의 체포를 허락질 않을 것이다. ③ 공평주의자들이 갖는 관심은 도덕적 정당성의 여부인 만큼, 왕이 지위를 버리느냐의 여부는 관심 사항이 아니다. ④ 강경한 공평주의자라면 왕의 아버지를 구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질 않을 것이다. ⑤ 민수의 행동은 ‘상황의 동일성’에서 나온 개인적 선호이므로 상황의 동일성과 관계없이 나타난 왕의 금지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51. 어휘 어법의 이해(적절한 어휘의 선택)

정답해설 : 주어진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여기에 쓰인 ‘특별한’은 ‘남다른’의 의미이다. 곧, ‘친분에 있어 타인과 구별하여 이루어지는’의 의미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각별(格別)한’, ‘자별(自別)한’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답] ①

[52-56] 현대소설, 이문열, ‘금시조’

작품해제 : 어려서 부모를 여윈 '고죽'은 서예가인 석담 선생에게 맡겨진다. 석담은 '예(藝)'보다 '도(道)'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도(道)보다 '예(藝)'가 더 센 고죽의 작품 세계를 못마땅해 한다. 고죽은 스승과는 달리 보편적 원리로서의 '도'를 인정하지 않고, 한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서예 역시 독특하게 추구되어야 할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스승과는 다른 독자적 세계를 추구해 간다. 중년의 나이에 스승과 대립하고 스승 곁을 떠나기도 했던 고죽은, 스승이 죽은 후에야 스승이 자기를 총애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고죽은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의 작품을 회수하여 불태우면서, 그 불꽃을 통해 고죽은 자기 부정의 예술혼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인 금시조가 날아오르는 것을 확인하며 죽음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예술에서 작가의 정신 세계를 담아내려 했던 스승 '석담'과, 서화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제자

‘고죽’ 간의 갈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주제] 한 예술가의 자기 부정의 예술혼

52.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여기 제시된 지문은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제자인 ‘고죽’과 스승인 ‘석담’의 첨예한 갈등을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두 인물이 상대방의 의견을 공박하며 예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30년 후로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답] ④

53. 추론적 사고(세부 구절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㉞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㉞에 담겨 있는 고죽의 심리는 원망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답] ④

[오답피하기] ㉠의 앞에 나온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 모를 심화를 느끼며’로 볼 때, 스승의 집착을 못마땅해 하는 ‘고죽’의 심리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라는 내용이 드높은 예술의 경지에 대해 회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의 전후 상황을 통해 ‘석담’이 ‘고죽’을 나무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의 앞에 나온 내용으로 볼 때, ‘글씨 한 자에 쌀 뒷박’ 얘기가 채주는 많으나 자신의 뜻에 어긋난 ‘고죽’을 ‘석담’이 질책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그’가 초현이라는 것과, ‘그’에 대한 ‘고죽’의 기대감이 나타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4.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보기>의 핵심 내용은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에서 ‘고죽’은 서예 작품을 ‘문자로 된 나의 깎데기’로 비유하며, 그것이 낯모르는 후인들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하고 있으므로, <보기>를 통해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음을 근거로 ㉠에 나타난 ‘고죽’의 생각을 비판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였다는 것은 <보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도’와 ‘현묘함’이 서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정, 도둑, 장인, 야공에게도 있다는 내용으로서 <보기>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서예가 실용성이 없다는 내용으로서 <보기>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 드높은 경지로 후세

에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어떤 경지를 설정했다는 내용으로서 <보기>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55.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고죽’은 젊었을 때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스승에 대해 반대하고 스승 곁을 떠났지만, 스승이 죽은 후엔 오히려 스승을 그리워하며 나이가 들수록 스승이 서예 기법의 가치를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고죽’이 작가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볼 때,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에 대해 작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고죽’과 ‘석담’의 갈등을 통해 예술의 효용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고죽’이 젊었을 때 예술의 드높은 경지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스승과 결별까지 했지만 결국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가는 모습을 통해 예술의 경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③ 작가는 서예가인 ‘고죽’과 그의 스승인 ‘석담’의 만남과 헤어짐을 극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⑤ ‘석담’과 ‘고죽’의 고뇌를 통해 예술을 창조하는 이들의 정신적 고뇌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56. 어휘·어법의 이해(속담의 이해와 활용)

정답해설 : 초헌이 붓 쥐는 법도 익히기 전에 행서를 휘갈기고 점획 결구도 모르면서 초서와 전서까지 그려 대는 ‘요즈음 젊은이들’답지 않게 정서(正書)로만 3년을 채웠고, 7년을 하루같이 서실에만 붙어살았다고 한 내용으로 볼 때, 이렇게 오랜 기간 참고 기다리며 연마하는 초헌과 달리 ‘요즈음 젊은이들’은 실력도 연마하기 전에 자기 실력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 실력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속담은 ‘기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한다.’이다.

[오답피하기] ① ‘성미가 급하여 참고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뜻이다. ② ‘아주 무식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무식한 사람이라도 유식한 사람과 오래 섞이면 다소 견문이 트인다.’는 뜻이다. ⑤ ‘멧모르고 겁도 없이 함부로 덤빈다.’는 뜻이다.

[57-60] 과학, ‘소리굽쇠의 진동수를 이용하여 악기의 기준음을 구한 샤이블러의 실험’

지문해설 : 이 글은 소리굽쇠의 진동수를 이용하여 악기의 기준음을 구한 샤이블러의 실험을 다룬 내용이다. 과거에는 소리굽쇠의 진동수를 정확히 모른 채 악기를 조율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연주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음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샤이블러는 다른 진동음을 내는 두 개의 소리굽쇠가 만들어 내는 맥놀이 진동수를 이용하여 기준음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는 제 각각이던 기준음들을 하나의 기준음으로 통일한다는 의의를 지니게 되는데, 이

는 곧 샤이블러의 업적인 셈이다.

[주제] 악기의 기준음을 구한 샤이블러의 실험의 의의

57. 추론적 사고(대상의 업적 파악)

정답해설 : 샤이블러의 실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실험에 담긴 의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기존의 이론에, 소리굽쇠의 진동수의 차이와 음의 관계를 이용하여 건반의 A음을 440Hz로 삼아 음 높이의 기준을 삼았던 샤이블러의 연구가 합쳐지면서 조율의 기준음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샤이블러의 연구 결과가 가져온 긍정적인 의미와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정리할 수 있어야 그의 업적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낼 수 있다. [답] ②

58.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보기>에서 제시하는 사실들 중에 옳은 것만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 발문을 통해 1번 소리굽쇠가 200Hz라는 전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ㄱ에서 언급된 1번 소리굽쇠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는 1번 소리굽쇠의 진동수의 절반인 100Hz의 진동수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ㄱ은 샤이블러의 실험과 그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번 소리굽쇠가 200Hz의 진동수를 가질 때, 샤이블러의 이론에 따르면, 이는 마지막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두 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소리굽쇠는 100Hz의 진동수를 갖게 되어 처음 소리굽쇠의 진동수와 100Hz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③ 이 실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리굽쇠의 개수는 25개이다. 소리굽쇠 간의 진동수의 차이는 4Hz이기 때문이다.

59. 추론적 사고(구체적 현상에 대한 추리)

정답해설 : 샤이블러 실험의 결과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율의 기준음으로 ‘슈투트가르트 피치’를 만들어 두루 사용하게끔 하였다. ‘슈투트가르트 피치’는 건반의 A음을 440Hz로 삼아 음 높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이것이 도입된 곳에서는 정확히 진동수가 440Hz가 되는 표준 소리굽쇠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답] ⑤

60. 어휘 어법(다의어와 반의어)

정답해설 : ㉠, ㉡, ㉢의 관계를 통해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각 의미마다 반의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약하다’가 ‘힘이 정도가 작다’라는 의미일 때는 ‘세다’와 반의 관계에 놓이지만, ‘단단하지 못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단단하다’와 반의 관계에 놓인다. ‘젊다’는 ‘나이가 한창 때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늙다’와 반의 관계가 되지만, ‘젊다’와 ‘어리다’는 반의 관

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좋다’는 ‘어떤 일이나 대상이 마음에 들다’는 의미로 쓰이면 ‘싫다’와 반의 관계가 성립하고,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훌륭하여 만족할 만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나쁘다’와 반의 관계가 된다. ③‘주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면 ‘빼앗다’와 반의 관계이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감정 따위를 보내다.’의 의미로 쓰이면 ‘받다’와 반의 관계가 된다. ④‘굽다’는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의 의미로 쓰이면 ‘밟다’와 반의 관계이고, ‘만져 보는 느낌이 거칠지 아니하고 보드랍다.’의 의미일 때는 ‘거칠다’와 반의 관계가 된다. ⑤‘당기다’는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밀다’와 반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앞으로 옮기거나 줄이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늦추다’와 반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 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① 2.① 3.④ 4.③ 5.④ 6.② 7.⑤ 8.③ 9.② 10.②
11.② 12.① 13.④ 14.② 15.③ 16.⑤ 17.③ 18.④ 19.② 20.⑤
21.⑤ 22.② 23.① 24.② 25.③ 26.② 27.⑤ 28.① 29.④ 30.①
31.③ 32.⑤ 33.④ 34.③ 35.④ 36.④ 37.③ 38.② 39.④ 40.②
41.③ 42.⑤ 43.① 44.③ 45.⑤ 46.③ 47.① 48.⑤ 49.② 50.①
51.④ 52.② 53.④ 54.⑤ 55.① 56.① 57.④ 58.③ 59.② 60.⑤

[1-6] 듣기

1.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자연 현상이나 동물의 행동을 통해 삶의 교훈을 얻곤 합니다. 오늘은 ‘기러기의 집단 이동 현상’을 통해 우리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러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이때 기러기들은 V자 형태를 그리며 이동하죠. 왜 그럴까요? V자 대형을 이뤄 날아갈 경우, 대열의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저을 때마다 기류가 발생하는데, 그 기류가 뒤따라오는 기러기의 비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뒤쪽의 기러기들은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어 선두 기러기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선두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다른 기러기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한편 이동 중에 병에 걸리거나 사냥꾼의 총에 부상을 입어 대열에서 낙오되는 기러기가 생기면, 그 기러기가 회복되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몇몇 기러기들이 함께 남아 보살피 준다고 합니다.

1. 추론적 사고(교훈적인 삶의 태도 추리)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기러기의 집단 이동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러기는 V자 대형을 이뤄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뒤에 있는 기러기의 비행을 돕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울음소리를 내어 선두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협력하는 자세와 서로를 격려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또 선두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지치면 다른 기러기가 그 역할을 대신 한다고 한 데서 동료들 아끼는 태도를 배울 수 있으며, 대열에서 낙오한 기러기가 생기면 몇몇 기러기들이 함께 남아 보살피 준다고 한 데서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기러기의 집단 이동 현상’ 중에서 겸손한 태도를 배울 수 있는 현상이나 행동은 찾아볼 수 없다. [답] ①

2.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이번에도 광고 포스터 대회에 입상했다며? 참 좋겠다.
여: 고마워. 운이 좋았지 뭐.
남: 혹시 무슨 비결이라도 있지? 난 공모 결과가 항상 좋지 않거든.
여: 글썬,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가령, 사물을 그냥 제시하거나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표현하려는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하는 거지.
남: 그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봐.
여: 이것 좀 볼래? 다음 공모전에서 쓰려고 표현해 본 자료들이야.
남: 어디 좀 보자. (휴지) 아, 다양한데.
여: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게 없니?
남: 글썬. 음.
여: 그래? 그럼 이것 좀 볼래? 이건 물을 절약하자는 의도에서 표현한 자료야.
남: 음, 그러고 보니, 이 부분이 매우 독특한걸.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네!
여: 그래, 맞아. 수도꼭지를 있는 그대로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그림처럼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대신 돈이 떨어지게 표현하는 건 새로운 생각이야. 바로 이렇게 대상의 일부를 대체할 경우에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거든.
남: 아, 그렇구나. 이제 확실히 알겠다.
여: 그럼, 한번 맞춰 봐. 여기 있는 다른 그림들 중, 방금 설명했던 방법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골라 볼래?

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 대화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이 설명한 방법에 맞는 자료를 골라야 한다. 여학생이 설명한 광고 포스터 제작 방법의 핵심은 변형에 있다. 즉 수도꼭지에서 물이 아니라 돈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물을 절약하자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의 일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답지에 제시된 것 중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대신 하트 모양을 그림으로써 ‘함께 하는 삶’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 여학생이 설명한 방법과 가장 유사하므로, 남학생이 선택해야 할 자료는 ①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우유팩을 두루마리 휴지로 바꿈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의도를 표현한 경우인데, 이는 대상의 일부를 변형한 것이 아니라 대상 전체를 새롭게 재창조한 것이므로 여학생이 설명한 방법과는 다르다. ③ 나무 한 그루를 여러 그루로 바꿈으로써 숲을 가꾸자는 의도를 표현한 경우인데, 이는 대상의 일부를 변형한 것이 아니라 대상의 수효를 늘린 것이므로 여학생이 설명한 방법과는 다르다.

④ 자가용 승용차를 지하철표로 바꿈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의도를 표현한 경우인데, 이는 대상의 일부를 변형한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를 아예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이므로 여학생이 설명한 방법과는 다르다. ⑤ 사람을 뜻하는 한자[인(人)]와 책이라는 두 대상을 책을 펼쳐 세워서 만든 ‘사람 인’자 모양의 한 가지 대상으로 바꿈으로써 독서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표현한 경우인데, 이는 대상의 일부를 변형한 것이 아니라 두 대상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므로 여학생이 설명한 방법과는 다르다.

3.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조선 시대 사람들은 상거래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저희 모둠에서는 조선 시대에 활동했던 보부상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보부상은 전국의 장을 돌아다니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던 상인으로, 보상과 부상을 함께 부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상은 붓짐장수로 물품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는 방식으로 가지고 다녔는데 귀금속, 장신구, 화장품 등의 잡화를 팔았고, 부상은 등짐을 지고 다니는 장수로 옹기, 생선, 소금 등과 같은 생활용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보부상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국가의 일정한 보호를 받는 대신, 국가의 유사시에 동원되어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는 해주산성 전투에 무기를 운반, 보급하고 직접 전투에도 가담하여 왜군을 물리치는데 공헌한 일이 있습니다.

보부상들에게는 채장이라고 하는 신분증이 매년 발급되었는데, 이것이 없으면 장사는 물론 객줏집에서 자고 가는 것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채장의 뒷면에는 보부상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계명이 적혀 있었답니다. 장사를 하면서 불손한 언어를 쓰거나 불친절하여 예의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는 물망언, 나그네로 돌아다니면서 민폐를 끼칠 것을 경계해 이를 금하던 물패행, 음란함을 금하던 물음란, 도둑질을 금하던 물도적과 같은 규율이 그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부상은 조직의 엄격한 통제를 따라야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예의와 규율을 지켜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 했던 보부상들의 정신을 오늘날 상인들도 배워야

3.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보부상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이다. 학생의 발표에 따르면 보부상은 전국의 장을 돌아다니며 장사했고, 보상과 부상이 취급하는 물품이나 운반 방법이 각각 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부상

은 ‘채장’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계명과 같이 보부상에게는 지켜야 할 계명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부상이 일부 상품을 독점했다는 내용은 학생의 발표 중에 찾아볼 수 없다. [답] ④

4. 이번에는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암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퍼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계는 15세기 이탈리아의 건축가인 레온 알베르티가 개발한 암호 장치로, 글자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한 최초의 기계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이것은 사이퍼 디스크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사이퍼 디스크는 두 개의 구리 원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리 원반의 가장자리에는 각각 대문자와 소문자 알파벳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정해진 회전 규칙에 따라 대문자로 된 원문 알파벳을 소문자로 된 알파벳으로 암호화합니다. 회전 규칙이 정해지면 정해진 숫자만큼 안쪽 원반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예를 들면 ‘회전 규칙 1’은 시계 방향으로 한 칸, ‘회전 규칙 2’는 시계 방향으로 두 칸, 이런 식으로 안쪽 원반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문자 알파벳이 그것에 대응되는 소문자 알파벳으로 암호화됩니다.

그러면 한번 ‘회전 규칙 1’을 적용해서 원문 알파벳 ‘AC’를 암호화해 볼까요? (휴지) 그림처럼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일치시킵니다. 그 다음, ‘회전 규칙 1’에 따라 안쪽 원반을 시계 방향으로 한 칸 회전시켜 봅시다. (휴지 길게) 그러면 원문 알파벳 ‘AC’가 소문자 알파벳 ‘hb’로 암호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죠. 다시 그림과 같이 대문자 ‘A’를 소문자 ‘a’와 맞추세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회전 규칙 3’을 적용하여 원문 알파벳 ‘BD’ 를 암호화하면 무엇이 될까요?

4. 추론적 사고(시각 자료 활용)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암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퍼 디스크’라는 기계에 대한 강의 내용이다. 그림을 보면서 대본 내용을 꼼꼼히 들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듣기와 보기를 통합한 신유형 문제라 할 수 있다. 두 개의 구리 원반으로 이루어진 ‘사이퍼 디스크’의 가장자리에는 대문자와 소문자 알파벳이 새겨져 있다고 했고, 정해진 회전 규칙에 따라 대문자로 된 원문 알파벳을 소문자로 된 알파벳으로 암호화한다고 했다.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은 ‘회전 규칙3’을 적용할 때 원문 알파벳 ‘BD’가 어떻게 암호화되는냐는 것이다. 선생님의 설명 중에 ‘회전 규칙1’

은 시계 방향으로 한 칸, ‘회전 규칙2’는 시계 방향으로 두 칸, 이런 식으로 안쪽 원반을 돌린다고 했으므로, 이 규칙을 적용하면 ‘회전 규칙3’은 안쪽 원반을 시계 방향으로 세 칸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일치된 현재의 그림에서 ‘회전 규칙3’을 적용하여 안쪽 원반을 시계 방향으로 세 칸 돌리면 ‘B’는 ‘g’로, ‘D’는 ‘a’로 암호화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회전 규칙3’을 적용하여 ‘AE’를 암호화한 것이다. ② ‘회전 규칙3’을 적용하여 ‘AF’를 암호화한 것이다. ④ ‘회전 규칙3’을 적용하여 ‘BC’를 암호화한 것이다. ⑤ ‘회전 규칙3’을 적용하여 ‘CG’를 암호화한 것이다.

[5-6]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남): 지금까지 대한대학교 최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선호 현상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크게 정리하면 유명 브랜드가 자아 표현의 수단이고, 유명 브랜드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민국대학교의 장 교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장 교수(여): 예, 물론입니다. 저로서는 최 교수님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명 브랜드 소비가 자신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자아 표현을 꼭 유명 브랜드로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유명 브랜드 선호를 비판하시는 이유는 뭐 더 없으신가요?

장 교수: 당연히 있죠. 최 교수님은 이 문제의 부정적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조차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선호합니다. 그에 따른 과소비도 큰 문제지만,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 역시 커다란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 교수(남):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저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회자: 잠깐만요, 최 교수님. 교수님 입장은 저희가 앞서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만큼 장 교수님께도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 장 교수님?

장 교수: 저는 최 교수님이 주장하신 경제적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최 교수님은 유명 브랜드 선호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는 수입품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된 자료를 좀 더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많이 키워야 한다는 최 교수님 말씀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소비자들이 광고의 이미지만을 좇아 외국 브랜드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소비 현실에서 과연 세계적 브랜드를 쉽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너무 기업의 시각으로만 보시려는 최 교수님의 선입견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선입견이요?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장 교수: 최 교수님은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 결국은 특정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교육의 측면에서 보자는 것이지요.

5. 추론적 사고(논리적 전제의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유명 브랜드 선호 현상’에 대한 토론 내용이다. 첫 장면에서 사회자가 최 교수(남)의 말을 요약해 주고 나서 장 교수의 말을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명 브랜드 소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①과 ②가 최 교수가 이 장면 이전에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반부에서 장 교수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많이 키워야 한다는 최 교수님 말씀을 누가 부정하겠냐’고 말한 것과, ‘최 교수님은 저와 같은 사람(=유명 브랜드 선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입장이 특정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다’고 말한 데서 ③, ⑤도 최 교수가 앞 장면에서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토론에서 소비자 교육의 측면을 강조한 사람은 최 교수가 아니라 장 교수이므로, ④는 최 교수가 이 장면 이전에 한 말로 보기 어렵다. [답] ④

6. 비판적 사고(사회자의 태도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최 교수의 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으므로 장 교수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며, 최 교수의 말을 끊고 장 교수의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토론에서 사회자가 중립적 입장을 취하여 공정한 토론이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회자가 유머를 사용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③ 최 교수와 장 교수가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자가 주의를 환기할 만한 대목이 없다. ④ 사회자는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지 않았다. ⑤ 사회자가 토론자의 말실수를 지적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7. 추론적 사고(자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보의 생성)

정답해설 : <보기>의 그림에서 ‘녹음’은 소리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효과적인 독서’에 연관시켜 새로운 내용을 연상한다면, 독서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이나 독자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기록하여 남기는 것으로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녹음’을 독서를 할 때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는 내용으로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은 ‘녹음’이 갖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진술이기 때문이다. [답] ⑤

8. 비판적 사고(개요의 작성과 수정)

정답해설 : 본론 II-2.는 ‘잘못된 신발 선택의 폐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통비 증가’는 잘못된 신발 선택 또는 이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신발 선택이 잘못되어 교통비가 증가한다는 진술은 논리적 연결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답] ④

9.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생성)

정답해설 : 주어진 자료에는 한국인들의 76.9%가 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상을, 5.8%가 부정적인 연상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인은 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상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야기에 개가 부정적인 역할보다 긍정적인 역할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추론적 해석을 내리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주어진 자료에는 고양이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빠르다, 예민하다’와 같은 긍정적 연상을, ‘차갑다, 교활하다, 믿을 수 없다’와 같은 부정적 연상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고양이에 대해서 ‘부드럽다, 친근하다, 깨끗하다’와 같은 긍정적 연상과 ‘제멋대로다, 게으르다, 변하기 쉽다’와 같은 부정적 연상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양이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표적 연상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양이의 이미지는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에서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적 해석을 내리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10. 추론적 사고(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의 생성과 그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계획을 통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글을 쓰는 의도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실천 가능한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구체화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방안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볼 수 있을 뿐, 교통안전을 위한 예방책으로 보기 어렵다. [답] ②

11. 비판적 사고(퇴고하기)

정답해설 : ‘완만하다’라는 말은 ‘성격이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너그럽다’는 의미를 가진 어휘이다. 따라서 지붕이 경사진 정도를 의미하는 어휘로 사용할 수 없다. 경사가 급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진 어휘는 ‘완만하다’이다. 따라서 ㉠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대응전에 도착하기 이전의 풍경인 절 입구의 연못과 돌다리에 관한 진술은 대응전 진술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④ 시간이 되었다는 진술은 모호한 표현이다. 그 ‘시간’이 어떤 사건과 관련한 시간인지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기>에서는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절을 떠나야 할 시간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창의적 사고(조건에 적합한 표현의 생성)

정답해설 : [A]에 들어갈 내용은 학생이 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석탑이 나를 반긴다.’의 진술과 연결되기에 자연스러운 내용을 담아야 하고,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의인법, 직유법 그리고 대상 즉, ‘석탑’에 대한 공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것은 ①이다. ‘다정한 친구처럼 내게 말을 건넨다.’는 표현에 직유법과 의인법이 드러나 있으며, 대상인 석탑과 자신이 서로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듯한 ‘대상과 주체의 공감’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직유법이 없고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진술도 없다. ③ 직유법이 없다. ④ 의인법이 없고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진술도 없다. ⑤ 직유법이 없고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진술도 없다.

13. 추론적 사고(어휘의 의미 변별을 통한 해석)

정답해설 : ㄷ의 분석 자료를 통해 서울과 인천이라는 장소 중간에 생긴 넓은 공간에는 ‘틈, 겨를’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ㄹ의 분석 자료를 통해서 ‘겨를, 사이’는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ㄷ과 ㄹ을 통해서 [시간]의 의미가 세분화되어 ‘사이’와 ‘틈’의 사용에 대한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ㄹ은 [시간]과 관련하여 ‘틈’과 ‘겨를’이라는 어휘의 의미가 세분화되는 것과 관련이 되지만, ㄷ은 시간이 아닌 공간의 의미를 분화와 관련이 되는 진술이기 때문이다. [답] ④

14. 추론적 사고(어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세 개이다. 필수적 문장 성분이란 누락되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없게 되는 성분이다. 따라서 ㄴ에서 필수적 문장 성분을 찾으면 주어인 ‘학생들이’와 목적어인 ‘점심을’ 그리고 서술어인 ‘먹는다’이다. 그러나 ‘식당에서’라는 부사어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이 성분은 문장의 의미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 문장의 문법적 성립 여부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답] ②

[15~19] 현대소설, 이태준, ‘복덕방’

작품해제 : 이 소설은 소외된 세 노인의 삶을 통해 당대의 궁핍한 사회상을 드러냄은 물론, 물질주의와 출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기적인 딸과 소심한 아버지를 통해 무너지가는 가족 관계도 보여주고 있으며, 1930년대에도 만연되어 있었던 부동산 투기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세 노인이 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소

일을 한다. 이들에게는 뚜렷한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작가는 이들의 꿈과 좌절을 객관적 태도로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한말에 훈련원의 참위로 봉직했던 무관 출신 서 참위는 복덕방 주인으로서 그런 대로 현실에 만족하지만, 수차에 걸친 사업 실패로 몰락하여 지금은 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간혹 먹고 자기도 하며 신세를 지고 있는 안 초시는 현실에 불만족한 채 재기의 꿈을 안고 살아간다. 무용가로 유명한 딸 안경화가 있으나 안 초시는 늘 그녀의 짐으로 대우받을 뿐이다. 재기를 꿈꾸던 안 초시에게 박희완 영감이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고, 안 초시는 딸의 돈 삼천 원으로 그 부동산을 사들이지만, 박희완 영감이 제공한 정보가 박희완 영감 자신도 속아 넘어간 거짓 정보임이 밝혀지면서 딸의 재산을 몽땅 잃게 된다. 결국 안 초시는 음독 자살함으로써 허황된 꿈을 가진 인물의 서글픈 귀결을 보여 준다. 한편 딸 안경화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다. 안 초시의 영결식에 참석한 서 참위와 박희완 영감은 친구의 죽음과 인간미 상실의 체험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기만 하다. 서 참위와 박희완 영감은 안 초시의 딸 경화와 조문객들이 내보이는 가식적 울음과 인간적 허세가 역겨워서 묘지에 따라가지 않는다.

[주제] 일제강점기 소외된 노인들의 애처로운 삶에 대한 연민

15.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안 초시, 서 참위, 박희완 영감의 성격이 각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간접 제시되는 동시에 서술자에 의해서 직접 제시되고 있으며, 주로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으므로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ㄴ. 이 글은 짧고 감각적인 문장보다는 만연체의 긴 문장이 더 많이 쓰였다. ㄷ. 여기 제시된 장면에서는 갈등의 심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16.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㉞를 통해 안 초시의 ‘딸’이 부자임을 알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안 초시의 희생 덕분이라고 이해한 것은 이 글과 <보기>의 어디에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없다. 제시된 지문 내용에 따르면 안 초시는 자기의 야심 때문에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실패한 것이 딸을 위해 희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드팀전이 신식 상점의 등장으로 점차 퇴조했다는 <보기> ㉡의 설명과 안 초시가 엄지손가락을 탓하는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② ‘참위’의 직위에 관한 <보기> ㉣의 설명과 서 참위의 인물됨에 대해 언급한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③ 일제 때 쓰던 연호의 의미를 설명한 <보기> ㉤와 서 참위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게 된 내력을 언급한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④ 일제 때는 ‘국어’가 ‘일본어’를 뜻했다는 <보기> ㉥의 설명과 박희완 영감의 인물됨에 대해 언급한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17. 추론적 사고(인물의 관점 및 태도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안 초시’는 비록 현재는 몰락한 처지이지만 언젠가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과 야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값이 폭등하는 <보기>의 현상을 보고 금광을 통해 자신의 희망과 야심을 구체화하려는 식의 반응을 보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금광 열 개보다 자기 손 안의 백통화 한 푼이 낫다는 반응은 이 글에 제시된 안 초시의 인물됨과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② 안 초시가 복덕방으로 돈을 번 서 참위의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한 데서 그가 복덕방으로 번 돈 정도는 하찮게 여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안 초시가 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떴었다는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⑤ 안 초시가 부자인 딸의 예산 중에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없는 모양이라고 하며 아쉬워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짐작할 수 있다.

18.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 추리)

정답해설 : 「속수국어독본」은 일본어인데 그것을 ㉠의 투로 읽는다고 하였다. ㉠은 ‘「삼국지」를 읽던 억양으로’ 일본어를 읽는다는 뜻이므로, 결국 박희완 영감이 일본어로 된 책을 삼국지 읽듯이 읽기 때문에 그 발음이 일본어 억양과 맞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최후의 십 전이기 때문에 떨리는 것이다. 여기 제시된 지문에서는 아직 안 초시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없다. ② 못 생긴 엄지손가락에 대한 자탄이 아니라 자신의 운수가 나쁨을 탓하는 것이다. ③ 서 참위는 가난하지 않으므로 서 참위가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관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책이 손때, 머리카락에 절어서 글자가 안 보이는 것이므로 인쇄 상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9. 어휘·어법(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세상은 먹구 살게는 마련이야’라는 것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결국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살기가 어렵다고 쉽사리 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을 뜻하는 ‘산 입에 거미줄 치랴’가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살기 위하여 하지 못할 일까지 하게 된다는 말. ③ 몹시 고생하는 사람도 운이 트일 날이 있다는 말. ④ 우연히 한 일이 뜻하지 않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 ⑤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는 말.

[20-23] 언어 ‘주시경의 업적과 평가’

지문해설 : 이 글은 주시경이 남긴 업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자인데, 특히 오늘날 형태소에 해당하는 개념 ‘닛씨’를 인식했다는 사실과,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주시경은 국어학자만이 아니라 국어 교육자로서도 큰 공헌을 남겼는데, 그의 성과는 오늘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주제] 주시경의 연구 업적과 그에 대한 평가

20. 사실적 사고(글쓰이의 서술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주시경의 업적이다. 그런데 글쓰이는 국어학자로서, 국어 교육자로서 주시경의 업적을 다루면서 그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적인 인물, 놀라운 통찰력, 의의가 크다, 큰 공헌을 하였다,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 등의 표현에서 글쓰이는 주시경의 업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부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⑤

2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지문에서 단어의 의미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의미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다룬다면 특정한 어휘의 의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5행에서 알 수 있다. ②, ③ 3문단에서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설명한 ‘닛씨’라는 개념은 오늘날 ‘형태소’와 유사한 개념이며 이는 단어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

22.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국어학에서 주시경은 고유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였다고 했다. 그가 도입한 ‘닛씨’라는 개념은 서양의 블룸필드보다 훨씬 이전이라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국어 연구에 매진한 이유는 서구 언어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언어를 민족 정체성의 징표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연구로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어 교육에도 앞장섰던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주시경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국어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다고 했다. ③ 주시경은 국어학자로서만이 아니라, 국어 교육자로서도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언어를 민족 정체성의 징표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4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④ 2문단에 제시되었듯이 그의 연구 업적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호하거나 엄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과학적 연구 방법이 전무했던 시대에 나온 것이다. ⑤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웠으며 이를 국어 교육을 통해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

의 업적들은 ‘한글 맞춤법’에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기에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적 인물이라 한 것이다.

2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제시)

정답해설 :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형태주의적 입장이란, 소리보다는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되어도 앞 낱말의 받침이 연음되지 않고 ①에 제시된 ‘집이’, ‘집을’처럼 그냥 결합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용언이 불규칙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간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기에 형태주의의 사례로 볼 수 없다. ③ 형태주의가 적용된다면 ‘소나무’는 ‘솔나무’가 되어야 하며, ‘바느질’은 ‘바늘질’이 되어야 한다. ④ ‘짚막하다’는 ‘짚다’의 어간 ‘짚’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널따랗다’ 역시 ‘넓다’의 어간 ‘넓’이 변하였다. ⑤ ‘마개’는 ‘막다’의 어간 ‘막’이 변하였고, ‘마감’ 역시 ‘막’에 ‘암’이 결합되면서 어간이 변하였다. 즉 형태가 유지되지 않았다.

[24-27] 과학,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위치 및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위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판구조론의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른 아이슬란드의 특수한 지질학적 위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독특한 지질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특수함을 이해해가는 과정은 지구의 판 운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이끌어준다. 판의 속도와 열점 등의 개념 또한 쉽게 설명되어 있어 지구 구조의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주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특성의 이해

24. 추론적 사고(대상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위치는 일반적인 판 구조론에 비해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즉 한 나라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판 위에 놓여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지구의 판 이론을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아이슬란드 자체가 그 연구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아이슬란드는 그 지질학적 위치와 더불어 판의 절대 속도를 잴 수 있는 기준점인 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과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특성들이 과학자들이 관심을 두는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과 ㄷ이 아이슬란드에 과학자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답] ②

25.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독해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사고를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슬란드의 특수한 지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하였다고 해도 ③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두 개의 판이 만나고 있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을 뿐, 어느 판이 더 빠른 이동 속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나 그와 관련된 정보는 없기 때문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아이슬란드는 화산섬이라는 지질학적 특성이 있어 화산의 열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되어 있음이 1문단에 드러나 있다. ②아이슬란드가 위치한 두 개의 판이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위치한 아이슬란드의 크기도 점점 확장된다. ④아이슬란드가 위치해 있는 두 개의 판이 점점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지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⑤아이슬란드는 대서양의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다. 즉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분이 해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의 해저 산맥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26.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및 심화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심화 학습은 지문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추가로 연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는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좀 더 깊은 사고가 가능해질 수 있는 문제제기들을 의미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선택지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제가 지문에 다루어진 내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②는 본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심화학습의 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답] ②

27. 어휘 · 어법(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기본형이 ‘구하다’인 단어로, ‘알아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하다’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한 것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쓰임은 ‘문제의 답을 알아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⑤가 가장 유사한 쓰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은 ‘필요한 것을 찾거나 또는 그렇게 하여 얻다’는 의미이고, ④는 ‘상대편이 어떻게 하여 주기를 청하다’는 의미이다.

[28-34] 시가복합

(가) 서정주, ‘추천사’

작품해설 : 이 시는 ‘춘향전’을 모티프로 하여 쓴 시로 ‘춘향의 말’이라는 부제를 지

니고 있다. 일종의 춘향의 유언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신분적 제약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상적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초월적 세계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네’라는 사물을 통해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넛줄에 매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춘향의 운명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초월적 세계로의 갈망

(나) 김지하, ‘새’

작품해설 : 이 시에서 사물이 푹푹 썩어가는 더운 여름날 화자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창밖 푸른 하늘 흰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새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육체의 피로움과 암울한 심리를 토로하고 있다. 구속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자유에 대한 열망

(다) 윤선도, ‘만흥’

작품해설 : 이 시는 연시조로 윤선도가 세상을 멀리 하고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시이다. 조선 전기의 강호가도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제목도 역시 ‘흥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흥겨운 삶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하게 현실에서 벗어나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도 임금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

28. 비판적 사고(작품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춘향이의 초월적 지향이 첫 연과 끝 연에 나타나 있고, (나)에서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에 비해 현실의 고통에 묶여 있는 화자의 상태를 첫 연과 끝 연에서 대응시키고 있다. 따라서 두 시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킴으로 해서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①, ② 둘 다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주관적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다)는 오히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⑤(가)는 호소적 어조가, (나)는 탄식적 어조가, (다)는 감탄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29. 추론적 사고(화자의 태도 추리)

정답해설 : [B]의 화자는 새처럼 자유롭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에서는 묶여 있는 고

통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에 좌절하기보다는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A]의 화자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자각하고 이에 대해 좌절하고 있다. 따라서 [B]의 화자는 [A]의 화자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하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라고 말할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죽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② [A]의 화자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좌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미 [A]의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꿈을 지니고 있다. ⑤ [B]의 화자가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30.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다)의 ‘띠집’은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세계를 뜻하면서도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벗어난 것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찾으면 ‘그넛줄’이 된다. ‘그넛줄’은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밀어 올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월적 지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넛줄에 매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수양버들, 풀꽃더미, 나비, 꾀꼬리’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⑥는 지상의 아름다운 사물, ③는 현실적 장애물, ④는 초월적 이상의 세계, ⑤는 현실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31. 추론적 사고(표현 기교 파악)

정답해설 : ㉞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생각으로는 내 분수에 맞는 일로 여겨지노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분수에 맞는 안분지족의 삶에 대한 겸손한 표현이므로, 자조적인 태도를 지닌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원래 ‘나는’으로 해야 어법에 맞는다. ② 밝은데 침침하다고 했으므로 모순된 표현으로 역설법에 해당된다. ④ 천자와 자신을 비교한 것은 과장법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의문이다.

32.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임을 꿈에서나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시에서도 역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의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화자는 임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랑의 상처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만 미천한 신분을 한탄하는 것은 아니다. ③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지만 단순하게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임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 임과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답]

33. 창의적 사고(다른 갈래로 전환하기)

정답해설 : (나)의 4연은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부정적이고 암울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노래한 것이다. 즉 낮이 밝을수록 침침하고, 별빛은 여위어가고 새는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영상화할 때 화면을 점차 밝게 하는 것은 시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화면을 어둡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는 ‘새’와 ‘화자’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드러낸다. ② 암울한 상황을 드러낸다. ③ ‘사슬 소리여’라고 했으므로 효과음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⑤ ‘떠나가는 새’와 ‘눈부신 구름’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세계를 상징한다.

34. 비판적 사고(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다)에서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세속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의 일과 관련된 벼슬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작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은 자연 속에 있으면서 세속과는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남은 여남은 일’을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것으로 감상한 것은 정반대로 감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금쇄동의 공간을 뜻하므로 실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바위 끝 물가’는 그가 거처하면서 조성해 놓은 정원의 사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먼 뵈’가 임보다 반갑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자연은 현실처럼 다툼과 시비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35-38] 기술, ‘초기 사진술의 특성’

지문해설 : 다게르와 톨벗, 이 두 사람이 만든 사진술을 소개하는 글이다. 사진 영상을 얻는 기술적 과정과 얻게 된 사진 영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의 진술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인 콜로디온 기법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사진술이 퇴조하게 되었음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주제] 다게르와 톨벗이 만든 사진술의 특성

35.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글쓴이는 다게르와 톨벳이 만든 사진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술의 발명을 두 사람의 창의적 발상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게르는 니에프스와 공동 연구 이후 사진술을 만들었으므로 창의적 발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톨벳의 경우는 글 속에 창의적 발상에 의해 사진술을 만들게 되었다는 진술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진술이 출현하게 된 상황을 진술하면서 다게르와 톨벳이 상을 얻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② 톨벳이 만든 사진술에 의해 나타난 영상의 약점과 다량 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 있다. ③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의 보급과 콜로디온 기법으로 인한 이 두 타입의 쇠퇴가 진술되어 있다. ⑤ 톨벳의 특허 출원이 기술 확산에 제동을 주었다는 진술이 드러나 있다.

36. 창의적 사고 (표를 활용한 정보의 창의적 구성)

정답해설 : (가)에서 다게레오타입에 나타난 사진 영상은 세부 묘사가 탁월하여 매우 정밀한 상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으나, (라)에서 칼로타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고 중간색이 거의 없어서 풍경이나 정물 사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진술되고 있다. 따라서 칼로타입의 영상에 나타난 특징으로 다양한 중간색을 지적한 ④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라)에 드러나 있다. ② (가)에 드러나 있다. ③ (나)와 (라)에 드러나 있다. ⑤ (다)에 드러나 있다.

37. 추론적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반응 이해)

정답해설 : (다)에서는 톨벳이 만들어낸 칼로타입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칼로타입은 음화-양화 기법으로서 한 번의 촬영으로 다량의 종이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칼로타입의 특허 출원으로 인해서 기술의 확산에 제동이 걸렸음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반응은 (다)의 내용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칼로타입을 다게레오타입보다 우수한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며 더구나 경쟁에서 이겼다는 내용은 (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답] ③

38. 어휘 · 어법의 이해(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존 명사 ‘바람’은 ‘-는 바람에’의 구성으로 쓰여 이어지는 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②이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친구들이 떠드는 것이 교실에서 공부를 못 하게 된 것의 이유와 원인이 되고 있다.

[39-43] 사회, ‘후(後) 채택 이론에 근거한 정보 격차 양상의 파악’

지문해설 : 이 글은 후(後) 채택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정보 격차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과거에는 매체 보급의 확대로 정보 격차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후 채택 이론’에 따르면 정보 격차는 다차원으로 존재하며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 격차의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현대 사회의 정보 격차가 이용의 자주성과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런 정보 격차의 양상이 앞으로는 인구 사회적 변인과 결합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복합적으로 드러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주제] 정보 격차 양상의 변화와 전망

39. 사실적 사고(단락의 요지 파악)

정답해설 : 각 단락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각 단락은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지니게 되는데, 이처럼 단락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라)는 앞단락에서 이야기한 ‘이용의 자주성’과 대응되는 또 하나의 양상인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단락이므로 이를 새로운 관점과 기존 관점의 절충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다)처럼 ‘새로운 관점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 단락에서는 매체 보급이 확대되면 정보 격차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기존의 관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② ‘정보 격차의 문제’가 매체의 보급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격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는 단락이 된다. ③ (나) 단락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관점은 ‘이용의 자주성’과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관한 것인데, (다)는 그 중 ‘이용의 자주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마)는 앞으로 정보 격차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전망하고 있다.

40.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글 전체의 화제인 ‘정보 격차의 해소’를 해결하려면 실제 사회에서 어떤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는 문제이다. 즉 지문의 내용을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그런데 이 글은 정보의 격차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②는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정보 격차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정보 격차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답] ②

4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밑줄 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이면서도 적절한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할 줄 알고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인터넷을 사용할 줄은 알지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순간에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매체 이용의 자주성과 매체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매체에 중독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도 공공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디지털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접근의 격차는 어느 정도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컴퓨터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꺼리게 된다. ④ 디지털 시스템 사용 능력은 길렀지만 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⑤ 정보 격차는 정보 활용의 질적 차이를 낳아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됨을 의미이다.

42.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매체 보급이 확대되면 정보 격차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존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관점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 사람들 사이의 정보 격차는 줄어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이 있는 사례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두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게 되어 공연에 대한 정보 격차는 사라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관련이 있는 사례는 ⑤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43. 어휘 · 어법(단어 의미의 확장 이해)

정답해설 : 먼저 제시된 <보기>를 통해 단어의 기본적 의미와 확장된 의미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후에 제시된 각 단어의 기본적 의미와 확장된 의미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이 확장된 의미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는지 아니면 쓰일 수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한다. ㄱ의 ‘풀다’의 반대말은 ‘뭉다’이지만 확장된 의미인 ‘(감정을) 풀다’의 반대말은 ‘(감정을) 갖다’가 된다. 또 ㄴ의 ‘주다’의 반대말은 ‘받다’이지만, 그 확장된 의미인 ‘(겉을) 주다’의 반대말은 ‘(겉을) 먹다’가 된다.

[44-48] 고대소설, 작자 미상, ‘숙향전’

작품해제 : 이 작품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여성의 수난을 그리고 있다. 천상계에서 정한 예정에 따라 지상에서 애정이 이루어진다는 적장 소설적인 전개를 지니고 있다. 숙향이라는 인물이 시련을 겪으면서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요소도 있지만, 대부분 초월적인 구원자들에 의해 도움을 받

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요소를 띠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시련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사랑

44. 추론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부분은 인물들 간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다. 앞 부분에서는 사향, 부인, 승상, 숙향이라는 인물들이 주고 받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숙향의 행동과 용녀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숙향의 적개심이 달리 표출되고 있지 않다. ② 서술자가 아니라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④ 특별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산문투로 진술되어 있다.

45.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사향은 혼자서 일을 꾸며서 숙향을 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내용으로는 먼저 숙향에게 도둑질의 누명을 씌우고, 뒤에 숙향이 외인과 상통하는 것처럼 부정한 행실의 누명을 씌운다. 승상은 숙향을 추방할 것을 지시하고, 숙향은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답] ⑤

46.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적용)

정답해설 :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을 읽는 사람들이 겪었음직한 현실적인 경험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숙향이 여러 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독자의 동질감과 함께 비감(悲感)을 증대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적강은 비현실적인 경험이다. ② 용녀는 예정되어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④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누고 있는 것은 이중적 세계관을 드러낸 것이지 운명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⑤ 안정된 현실이라기보다는 이루고 싶은 소망을 뜻한다.

47. 어휘 어법(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해설 : ㉠에 나타나 있는 숙향의 처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기호지세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③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④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

48.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해설 : 전기수가 사람들에게 국문소설을 읽어 주다가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하는 장면에서 읽기는 멈추는 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하기 위한 수법이다. 따라서 앞으로 흥미진진한 장면이 펼쳐질 부분에서 멈추게 함으로써 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에서는 속향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난 이후의 위기적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읽기를 멈춘다면 독자들은 궁금증이 생겨 빨리 읽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답] ⑤

[49-52] 예술 ‘예술의 개념’

지문해설 : 이 글은 예술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해 답을 찾아가고 있다. 즉,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술의 본질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만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의 해결을 구체적인 사례와 유추적 설명, 권위자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접근해가고 있다. 결국 예술이라는 개념은 열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럴 때 예술의 창조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주제] 본질의 성찰을 통한 새로운 예술의 개념

49. 사실적 사고(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예술의 개념이라는 추상적 화제를 다루다 보니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서술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상반되는 관점들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게임의 사례를 들어 예술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3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통해 ‘유사성’의 개념으로 글을 이어가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와이츠의 의견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개념을 가족과 밧줄의 유추를 통해 설명하였고, 여기에서 예술의 열린 개념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1문단과 2문단에서 예술의 본질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다.

50.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와이츠가 말하는 예술의 ‘열린 개념’은 예술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것이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에 적합한 개념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된다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분명히 그들 안에는 어떤 연관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폭이 넓게 적용될 따름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서 밧줄 속의 실들이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공

통적인 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공통적인 속성이 없기에 예술의 본질은 없고, 다만 가족 유사성에 근거한 열린 개념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③ 와이즈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표현이나 형식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51. 논리적 사고(개념 간의 범주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예술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동원한 것이다. 즉, 어떤 대상의 개념을 규정할 때, 과연 본질적 속성이란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가]에서는 게임(A)을 ‘경쟁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가진 것(B)’으로 가정한 후 이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반례에서 ‘경쟁’을 속성으로 가졌으면서도 게임이 아닌 전쟁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게임 중에서 경쟁을 속성으로 가지지 않는 혼자 하는 카드놀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A와 B 사이에는 ‘경쟁’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경쟁이 없는 게임과, 게임이 아니면서도 경쟁의 속성을 가진 것이 있기에 둘은 교집합만이 있는 상태의 ④로 표현되어야 적절하다. [정답] ④

52. 어휘 · 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에서 ‘밧줄’과 ‘짧은 실’은 예술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구체적인 사물이다. ‘밧줄’은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짧은 실’은 그 개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다. ㉡는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며, ‘이에 속한 모두에게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머지는 모두 개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거나,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들이다. 즉, 나머지는 ‘개념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답] ㉡

[53-56] 극문학, 유치진, ‘토막’

작품해제 : 1920년대 우리 농촌의 궁핍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명서네 집안이 겪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일제 강점기 하의 궁핍한 민족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 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품으로, 한국 현대 희곡의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막’이라는 어두운 공간을 중심으로 삶의 기반을 상실한 채 파멸해 가는 한 가정의 비극을 통해 일제의 악랄한 식민 통치를 비판하고 있다. 1920년대 궁핍한 한국 농촌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어 사실주의적 희곡의 전형으로 꼽힌다.

[주제] 일제 강점하의 민족의 비극적 현실 고발과 극복 의지

53.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전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활용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명서네를 찾아

온 삼조가 “명수에게 부칠 게 있다고요?”라고 말한 내용으로 미루어 ‘삼조’는 ‘명서’의 집에 오기 전에 ‘명수’에게 전할 것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답] ④

54. 추론적 사고(연극 상황으로 적용하기)

정답해설 : 삼조는 바쁘다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삼조에 대해 명서의 처는 잠시 마루에 걸터앉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선후 관계로 미루어 이 경우는 삼조가 바쁘다고 말하면서 초조하게 마당을 서성거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편지를 제때 쓰지 못하는 명서를 비난하며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 ② 명서는 지금 편지 내용을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어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시선을 위로 향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명서의 처는 삼조의 차림새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만큼 삼조를 바라보는 것이 어울린다. ④ 아직 편지를 다 쓰지 않은 상태이므로 삼조의 말에 대해 껌연쩍은 표정을 짓는 것이 어울린다.

55. 비판적 사고(내적 준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금녀와 명서의 처는 편지를 전달해줄 ‘삼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만큼 ‘명서의 처’는 개가 짓는 다는 금녀의 말을 듣고 경계심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반가움을 드러낸다고 보아야 옳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개가 짓는 만큼 이를 나타낼 효과음이 필요하다. ③ 금녀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④ 이후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 이끌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⑤ 개가 짓는 것은 삼조의 등장 시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56. 추론적 사고(근거의 추리)

정답해설 : <보기> 내용과 연관하여 일관되게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삼조’가 양복을 입고 있는 것과 <보기>에 드러난 금녀의 심리 곤, 오빠 소식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은 서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에 드러난 ‘삼조 씨가 가면’이라고 생각한 곳은 일본에 해당된다. ③ 삼조와 명수가 아는 사이이기에 소식을 전하고 알릴 수 있을 것이다. ④ 명수는 일본에 있어 소식을 모르기에 금녀는 궁금해 하고 불안해 한다.

[57-60] 인문, ‘임진왜란 때 의병의 봉기 원인’

지문해설 : 이 글은 임진 왜란 때 의병의 봉기 원인을 분석한 글이다. 글쓴이는 기존 연구자들이 의병의 봉기 원인을 유교 이념에서 비롯된 ‘임금에 대한 충성’의 측면에서 찾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의병들은 유교적 충의 이념에 따른 봉기에

앞서 혈연과 지연으로 묶인 지역으로서의 고을을 지키기 위해 봉기하였다는 것이다. 곧, 의병의 입장에서는 가족과 마을의 수호를 의병장의 입장에서는 지역적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실적 이해 관계가 의병 봉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주제] 의병의 봉기 원인으로 파악될 수 있는 지역성

5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각 문단의 문단 화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변별해 낸다. 주어진 글에는 의병의 전투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그 실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전반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 ② 2문단과 5문단에 드러난다. ③ 5문단에 드러난다. ⑤ 4문단에 드러난다.

58. 추론적 사고(근거의 파악과 적용)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보기>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근거화하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된다. ㄱ은 백성들의 조정 대신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 민심을 언급하고 있어 ㉞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 ㄴ은 흐름으로 보아 조정에서 의병장에게 내리는 편지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할 것이다. [답] ③

59.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 추리)

정답해설 : [A]는 의병의 입장에서 가족과 마을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 의병 봉기의 직접적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②는 충의적 이념에 따른 임금에 충성하기 위한 의병 가담인 만큼 이는 [A]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병에 참여하는 만큼 당연하다. ③ 혈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해당된다. ④⑤ 혈연과 지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60. 어휘 어법(접미사의 파악)

정답해설 : -꾸러기는 -투성이처럼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활용된다. 『장난꾸러기/욕심꾸러기/잠꾸러기/말썽꾸러기/걱정꾸러기』와 같은 용례로 쓰인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일부 명사 뒤에 붙어』 ㉠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나무꾼/노름꾼/도굴꾼/사기꾼/사냥꾼/주정꾼. ㉡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구경꾼/일꾼/장꾼. ②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서울내기/시골내기. ㉢ 『일부 어간이나 접두사 뒤에 붙어』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흔히 그런

사람을 낚잡아 이를 때 쓴다. ¶신출내기/여간내기/풋내기. ③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간판장이/땀장이/미장이/양복장이/용기장이/칠장이. ④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벼슬아치/동냥아치.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해설

[정답] 홀수형 기준

- 1.② 2.⑤ 3.② 4.④ 5.④ 6.① 7.② 8.③ 9.③ 10.④
11.⑤ 12.② 13.① 14.⑤ 15.① 16.② 17.② 18.④ 19.④ 20.③
21.⑤ 22.② 23.① 24.① 25.④ 26.① 27.① 28.⑤ 29.① 30.⑤
31.③ 32.④ 33.② 34.③ 35.③ 36.① 37.④ 38.④ 39.⑤ 40.⑤
41.④ 42.③ 43.③ 44.④ 45.① 46.④ 47.② 48.② 49.④ 50.⑤
51.② 52.① 53.④ 54.⑤ 55.④ 56.③ 57.② 58.③ 59.② 60.③

[1-6] 듣기

1. 이제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남): (음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읽는 이(여): 나는 누에를 키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나는 누에고치에서 누에나비들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그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고치에 생긴 작은 구멍에서 누에나비가 긴 시간을 몸부림치며 용케 빠져나오는 것을 보던 나는,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그 가엾은 나비를 도와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누에고치 하나에 큰 구멍을 내 주었습니다. 좁은 구멍에서 나오는 다른 누에나비들이 날개가 찢기는 듯한 고통을 겪는 동안, 고치에 구멍을 내 준 나비는 쉽게 고치에서 나와 아무런 상처도 없이 아름다운 날개를 퍼덕였지요. 나는 이 나비의 날갯짓을 보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온 나비들은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지만, 큰 구멍으로 쉽게 나온 나비는 책상 위를 몇 번 맴돌더니 얼마 후 지쳐 쓰러졌습니다. 누에나비는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동안, 힘이 길러지고 물기가 알맞게 말라 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몰랐던 거죠. (음악)

1. 추론적 사고(이야기의 교훈 추리)

정답해설 : 이 이야기에서 구멍이 큰 고치에서 아무 고통도 없이 나온 나비는 다른 나비들에 비해 날개는 찢기지 않아서 아름다웠지만 날지를 못했다고 했다. 카프만 부인은 누에나비가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동안 힘이 길러지고 물기가 알맞게 말라 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도움을 주려다가 피해를 준 카프만 부인의 행동에서 도움을 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카프만 부인의 행동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참

고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며, 매사를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겸손한 태도’에 관한 교훈은 누에나비의 행동에서도 얻을 수 없고, 카프만 부인의 행동에서도 얻을 수 없다. [답] ②

2. 이번에는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대개 어린이가 어른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목소리가 높죠? 오늘은 목소리의 높낮이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죠. 진동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진폭과 진동수인데요. 진폭은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가의 문제이고, 진동수는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폭이 크면 소리가 크고, 진동수가 높으면 소리가 높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목소리가 높죠. 어린이가 어른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목소리가 높은 것도 어린이와 여성 목소리의 진동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의 성인 남성 목소리의 진동수는 150~160헤르츠 정도이고 성인 여성은 240~250헤르츠 정도입니다.

목소리의 진동수가 이렇게 다른 주된 이유는 성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대가 길면 저음을 내고 성대가 짧으면 고음을 내죠. 실로폰의 긴 음판이 짧은 음판보다 더 낮은 음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변성기 이전에는 성대의 길이가 0.8센티미터로 남녀가 비슷하지만, 변성기를 거치면서 남성의 성대는 1.8에서 2.4센티미터까지 길어지고, 여성의 성대는 길어 봐야 1.7센티미터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2.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이 강의는 어린이가 어른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목소리가 높다는 데서 출발하여 목소리의 높낮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인데, 진동의 성질은 진폭과 진동수에 의해 결정된다. 목소리의 높낮이도 마찬가지여서 진동수가 높을수록 목소리가 높다. 목소리의 진동수는 성대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변성기 이전의 어린이는 남녀 모두 성대가 짧아 진동수가 높고 고음이 난다. 하지만 변성기가 지나면 남자는 성대가 길어져 저음이 나고 여자는 성대가 상대적으로 덜 길어져 저음이 난다. 따라서 이 강의는 결국 목소리의 높낮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⑤

3.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버지: 철수야, 아빠가 재미있는 놀이 하나 가르쳐 줄까? ‘고누’라고 하는 건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야.

철수: ‘고누’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버지: ‘그림 A’를 보렴. 이게 고누판인데, 이 고누판에서 두 사람이 교대로 자기 말을 움직여서 상대방의 말을 다 잡으면 이기는 거야. 이때 말은 기본적으로 선을 따라 상하좌우로 한 번에 한 칸씩만 움직일 수 있지. 다만, 고누판 네 귀퉁이의 동그라미 부분만은 예외란다. 동그라미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동그라미를 따라 돌면서 여러 칸을 갈 수가 있어.

철수: 어떻게 간다고요?

아버지: 예를 들어 줘야겠구나. 자, ‘그림 A’에서 ‘가’로 표시한 말을 보자. 이 말을 위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면 한 칸밖에 갈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거기서 동그라미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가령 1번 자리로 움직이면, 화살표를 따라 동그라미를 돌아서 2번을 거쳐 3번까지, 또 동그라미를 돌아서 4번, 그리고 5번, 6번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야. 네가 원한다면 1번에서 6번까지 어느 자리에서든 멈출 수 있단다.

철수: 아빠, 그럼, 6번을 지나면요?

아버지: 그러면 자기편 말인 ‘나’에 막히니까 ‘나’ 왼쪽에서 멈춰야지.

철수: ‘가’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를 오른쪽인 2번으로 움직이면 화살표를 따라 1번 자리를 거쳐 ‘다’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겠지? 그럼 ‘다’를 잡을 수 있단다. 중요한 점은, 상대 말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먼저 돌아야만 한다는 거야. 검은 말 ‘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다’를 잡을 수는 없다는 거지. 반드시 귀퉁이의 동그라미를 돌아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말을 잡는 게 이 놀이의 규칙이란다. 그럼, 철수 네가 한번 해 볼래? ‘그림 B’에서 검은 말 ‘가’와 ‘나’가 네 것인데, 상대편 말 ‘다’를 한 수만에 잡으려면 어떤 말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겠니?

3. 추론적 사고(시각 자료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고누’ 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 고누판에서 말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상하좌우로 한 칸씩만 움직일 수 있지만, 네 귀퉁이의 동그라미를 따라 돌게 되면 자기편 말이 가로막지 않는 한 여러 칸을 한꺼번에 움직여서 상대편 말을 단박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상대 말을 잡으려면 반드시 동그라미를 먼저 돌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편 말을 한 수만에 잡으려면 일단 말을 동그라미가 있는 귀퉁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림 B에서는 ‘가’

의 말이 귀퉁이 주변에 있으므로 반드시 ‘가’의 말을 움직여야 한 수만에 상대편 말 ‘다’를 잡을 수 있다. ‘가’의 말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1’, ‘2’, ‘3’인데 이 중에서 ‘2’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동그라미 세 개를 거쳐 막힘이 없이 여러 칸을 움직여서 ‘다’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반드시 동그라미를 먼저 돌아야 한다고 했는데 ‘나’의 말을 먼저 움직이면 어떤 경우에도 한 수만에 동그라미가 있는 방향에 도달할 수 없고, ‘가’의 말을 ‘1’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 칸밖에 못 움직이고, ‘가’의 말을 ‘3’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기편 말인 ‘나’에 막혀서 ‘다’를 잡을 수 없다.

4.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영화야, 여기 신문 좀 봐. 우리나라가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한다네. 너, 그게 뭔지 알아?

여: 응~ 그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만든 국제적 지원 제도야.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데도, 그에 걸맞은 원조를 하지 못했잖아. 이제라도 확대한다니 참 잘한 일이야.

남: 그래? (휴지) 어려운 나라를 돕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국내 사정도 좋지 않은데, 아직은 좀 이른 게 아닐까? 수출도 어렵고 경제도 위축된 상황에서……. (휴지) 일단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보고 지원을 많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좀 더 발전한 다음에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도 살기 힘든데…….

여: 아냐,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닌 거 같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는 우리도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해. 게다가 공적 개발 원조에 적극 참여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질 거야. 물론 잘사는 나라들이 원조를 더 많이 해야겠지.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국가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데도 더 적극적으로 원조를 하는 나라도 있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우리보다 특별히 높지도 않은데 말이야.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이 나라 좀 봐.

4. 비판적 사고(시각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정답해설 : 여학생은 우리 나라의 공적 개발 원조 확대에 대해 찬성하면서 국가 경제 규모가 우리 나라보다 훨씬 적는데도 더 적극적으로 원조를 하는 나라가 있다는 신문 기사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문제지에 제시된 표에서 확인해 보면 우리 나라보다 국민총소득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과 파키스탄이고(국가 경제 규모는 ‘1인당 국민 총소득’보다는 ‘국민 총소득’과 더 관계가 깊다), 이 중에 공적 개발 원조액이 우리 나라보다 많은 나라는 포르투갈임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우리 나라보다 공적 개발 원조액이 많은 나라 중에서 미국, 캐나다,

독일은 우리 나라보다 국가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5~6. 이번에는 대답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래 한마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교수님을 모시고 전래 동요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교수: 예, 안녕하세요?

진행자: 선생님, 요즘 아이들은 동요보다는 대중가요에 훨씬 친숙한 것 같은데요?

이 교수: 맞습니다. 그나마 알고 있는 동요조차도 외래 동요가 대부분이죠. 가령 「여우야 여우야」, 「꼬마야 꼬마야」 같은 노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진행자: 아, 그래요? 이 노래들이 외래 동요였군요. 그럼, 우리 전래 동요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교수: 우리 전래 동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놀이와 노래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술래잡기나 숨바꼭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또한 동물이나 곤충과 놀면서 부르는 노래들도 많이 있죠. 이처럼 전래 동요에는 아이들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요? 그런 전래 동요가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왜 그렇죠?

이 교수: 실제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우리 동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문화가 크게 바뀌었고 우리 전래 동요도 많이 사라졌죠.

진행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노래들을 우리가 잘 살려 나가야 할 텐데요. 그럼, 이들 전래 동요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교수: 요즘 노래와 달리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불러 선율이나 노래는 비록 단순하지만 아이들의 감수성이 잘 드러난 노래들이 많습니다. 또, 악보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노래라도 지역이나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불리죠. 또한 우리말의 리듬이 잘 드러나 있어 누구나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 전래 동요를 하나 들려주시죠.

이 교수: 네. 전라북도 지방에서 전래된 노래인데요, 잘 들어 보세요. (음악) 마른 눈에 우렁 / 진 눈에 대수리 / 대수리는 껌더라 / 껌으면 까마구 / 까마구는 날더라 / 날면 비들기 / 비들기는 회더라 / 회면 영감

진행자: 선율이 참 특이하네요.

이 교수: 네, 맞습니다. 전래 동요가 대체로 그렇듯,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말이 지닌 리듬감이 잘 드러나 있죠. 특히 이 노래에는 전래 동요의 특징적인 형식

가운데 하나인 말 잇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말꼬리를 이어가며 부르는 노래군요. 참 재미있네요. 그럼, 이와 비슷한 노래를 하나 더 들려주시죠.

이 교수: 그러죠.

5. 비판적 사고(전래 동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전래 동요의 특징에 대해 교수가 대답한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 먼저 전래 동요는 놀이와 노래가 어우러져 있다고 했고, 이어서 아이들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잘 담겨 있다고 했고, 다음으로 악보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노래라도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전래 동요를 예로 들며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말의 리듬감이 잘 드러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고는 말한 바 없다. [답] ④

6. 추론적 사고(이어질 노래의 추리)

정답해설 : 대담 끝 부분에서 진행자는 말꼬리를 이어가며 부르는 노래를 하나 더 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답지 중에서 말꼬리를 이어가며 진행되는 노래는 ‘등 굽어 - 길마 - 구멍 - 시루’로 말꼬리를 이어나가는 ①번이다. [답] ①

[7-14] 쓰기, 어휘·어법

7. 추론적 사고(자료를 통해 내용에 맞게 연상하기)

정답해설 : 손전등이 꽃에 가까워짐으로 인해 그림자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통해 ‘상대방의 의미가 더욱 객관화된다.’는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림자가 ‘커지는 것’과 상대방의 의미가 ‘객관화되는 것’이 서로 어떤 연상의 인접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자가 커지는 것은 타인의 의미가 주체인 ‘나’에게 더욱 큰 의미가 되는 것 정도의 진술이어야 적절한 연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②

8. 추론적 사고 (주제에 맞게 계획하기)

정답해설 : 건의문의 주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이다. 따라서 글 내용으로 선정될 항목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내용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용 선정]의 항목 중 첫째 항목으로 제시된 자전거 분실 문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 문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자전거 분실 문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와는 관련이 없으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 문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인정한다 할지라고 그것은 이미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고 난 후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답] ③

9. 비판적 사고 (개요의 작성과 수정)

정답해설 :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작성된 개요에서 Ⅲ.-1의 내용은 부적절하다. 재래시장을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성격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상위 항목의 주제와 어울릴 수 없다. 따라서 ③에 제시된 것처럼 ㉠이 주제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살린 시설’을 마련한다는 진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 ③

10. 추론적 사고(자료의 해석을 통한 활용)

정답해설 : ㄴ.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 1인당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 통계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ㄷ.은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늘어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자료를 결합하면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답] ④

11. 추론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남의 충고에 대해서 소가 뿔로 들이받듯 과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사회에 해로운 존재라는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는 댓글이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남의 충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이 긍정적인 면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④의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남의 충고에 과격하게 반응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두 진술은 동일한 행동으로부터 제기된 상반된 성격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답]⑤

12. 비판적 사고 (고쳐쓰기)

정답해설 : ㉠은 전화기의 고장과 성의 없는 서비스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 전체의 내용을 담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글의 맨 앞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한 수정으로 보기 어렵다. ㉡에는 ‘이런 성의 없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글의 맨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앞에 진술된 내용을 가리키는 ‘이런’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게 삽입된 상태가 된다. [답] ②

13. 어휘·어법(어휘의 특성 이해)

정답 해설 : ‘미연(未然)’은 사용상 원칙적으로 '미연에' 꼴로 쓰여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를 의미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결합되는 조사의 종류’라는 측

면에서 볼 때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극비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14. 어휘·어법(자료를 통한 어법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되다¹’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능동인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되다²’는 일부의 명사나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서 해당하는 명사와 용언의 어근, 부사가 의미하는 상태나 성질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바뀌거나 변화한다는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⑤

[15-19] 현대소설, 김유정, ‘만무방’

작품해설 : 1935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다. 제목인 ‘만무방’은 ‘염치없이 막되어 먹은 사람’이란 뜻으로 이 소설의 인물로는 ‘응칠’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이 소설은 상반된 인물인 응칠과 응오 두 형제를 통해 식민지 농촌의 궁핍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수확을 해도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현실을 앞에 두고서 자기 논이 벼를 도둑질하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작가의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상황적 아이러니이다. 즉 자기 것을 자기가 훔쳐야 하는 상황을 통해 1930년대 농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유정 특유의 문체에도 주목하며 감상해야 한다.

[주제] 식민지 한국 농촌의 궁핍한 실상과 그것으로 인해 왜곡된 삶

15.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소설에서 응칠이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그리워 응오를 찾아왔다. 응오는 성실한 농민이지만 벼를 베지 않고 있다. 아내가 거의 죽게 된 데다 수확해 봤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수확했다가 빈 지게로 돌아오며 울었던 작년의 경험이 있는 데다가 올해는 그나마 흉작이기 때문이다. 응칠이는 응오를 도와주려고 지주를 만났다가 지주의 태도에 화가 나서 지주의 뺨을 갈기는 실수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응오의 논에 도둑이 드는 변괴가 발생한다. 응칠이는 자신이 전과자여서 의심을 받을 것으로 짐작하고 자기가 범인을 잡아서 혐의를 벗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응칠이가 잠복까지 해가며 그 범인을 잡고 보니 동생 응오였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응칠과 응오 두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인물의 움직임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작품은 응칠과 응오의 경험 위주로 전개되므로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삽화(이야기 가운데 본 줄거리와 관계없는 끼워 넣은

이야기) 형식도 아니다. ③ 인물의 심리나 상황에 대한 묘사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장황한 해설’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작품에서 작가 의식은 상황적 아이러니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지 ‘장황한 해설’을 통해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인물의 외양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회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수확해도 얻을 것이 없는 서글픈 현실과 관련되므로 서정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16. 추론적 사고(상황의 변화 및 장면의 기능 추리)

정답해설 : [A]는 ‘올해는 흉작이라 수확을 해도 빛도 다 못 갚을 상황이라서 벼를 수확하지 않고 내 던져 둔’ 응오의 처지를 드러낸 장면이고, [B]는 자기 벼를 스스로 훔치다가 응칠에게 들킨 응오가 ‘왜 형까지 못 살게 구느냐’며 울고 나서 ‘내 것 내가 먹는데 무가 뭐랴’며 사라지는 장면이다. 따라서 [A]는 [B]의 사건(응오가 자기 벼를 스스로 훔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되며, 이러한 상황적 아이러니는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자기 벼를 자기가 훔치는 것은 역설적 상황이다)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ㄴ의 경우 [B]에서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으며, ㄷ의 경우 불만의 대상은 [A], [B] 모두 표면적으로는 ‘개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이다.

17. 비판적 사고(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응칠이가 먼 곳에서 동생을 찾아온 것은 못 본지 오래된 동생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와서 보니 응오의 눈에 도둑이 드는 사건이 일어났고, 응칠이는 자기가 범인으로 의심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자기가 도둑을 잡아서 혐의를 벗으려고 도둑을 기다리는 것이다. [답] ②

18. 추론적 사고(구절의 문맥적 의미 추리)

정답해설 : ㉠은 응칠이가 도둑을 잡고 보니 자기 동생인 응오였기에 당황해 하는 대목인데, 응오의 입장에서는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에 울분과 비애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답] ④

19. 어휘·어법의 이해(생소한 고유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④의 ‘모로’는 거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옆쪽으로, 대각선으로’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쳐주다 : 인정하여 주다 ② 즐이다 : 속을 태우다시피 조바심하다. ③ 가리다 : 빛·외상값 따위를 셈하여 갚다. ⑤ ‘뺑소니를 놓는다’는 것은 문맥상 ‘뺑소니를 친다’는 의미이다.

[20-23] 사회, '제3자 효과 이론'

지문해설 : 제3자 효과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전달 내용이 유해한 경우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론과 연결되면서 여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도 이용되곤 한다.

[주제] 제3자 효과 이론의 효과와 의의

20.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제3자 효과 이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등장 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론의 정확한 개념, 제3자 효과 이론이 갖는 의의, 그리고 제3자 효과 이론이 적용되는 다른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 단락은 제3자 효과가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제3자 효과 이론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제3자 효과 이론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②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제3자 효과 이론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④ 제3자 효과 이론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으로, 이는 이 이론의 의의에 해당한다. ⑤ 제3자 효과 이론을 여론이 여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도 이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1.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제3자 효과 이론의 핵심은,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다는 데 있다. 즉 자신은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지만 타인들은 대중 매체의 영향을 무척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대중 매체가 전하는 해로운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리리라는 우려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중 매체에 대한 검열과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대중 매체에 대해 자신이 받는 영향과 타인이 받는 영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하므로 가장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⑤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은 자신이 받는 대중 매체의 영향과 타인이 받는 영향이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글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④는 자신보다 타인이 대중 매체의 영향을 덜 받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22.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의 이해)

정답해설 : 본문의 ‘언다’는 어떤 사례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포착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쓰인 말로,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제시된 여러 사례들 중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②가 맞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돈을 빌리다’의 의미. ③ ‘병을 앓게 되다’의 의미 ④ ‘권리나 결과, 재산 따위를 차지하거나 획득하다’의 의미 ⑤ ‘사위, 며느리, 자식, 남편, 아내 등을 맞다.’의 의미.

23. 추론적 사고(뒷받침 진술의 이해)

정답해설 : 제3자 효과 이론은 곧 ㉠이 지니는 행동 성향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은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훨씬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대중 매체에 대한 검열과 규제 정책의 실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 행동 성향을 인지하고 제3자 효과 이론을 터득하게 된 독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사실이지 ㉠의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대중 매체의 유해한 내용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③ (다) 단락에 드러나 있듯이 유해한 내용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므로 ④ 검열과 규제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 ⑤ 대중 매체의 영향은 사람들 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지간해서는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24-27] 기술, ‘산업 분류 체계의 종류와 의의’

지문해설 : 산업을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다양한 산업의 정의와 분류의 기준이 마련된 것임을 전망하는 설명문이다. 글쓴이는 1~5문단을 통해 경제학자 클라크의 1·2·3차 산업 분류와 국가가 제정하는 표준산업분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투자 기준 산업분류, 새로운 기술 영역의 출현에 따른 산업 분류, 시장 수요에 따른 산업 변화에 따른 분류 등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6문단에서는 앞으로 산업에 대한 정의와 분류의 기준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제]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분류 체계의 종류와 의의

24.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 파악)

정답해설 : 클라크의 산업 분류는 원료의 채취와 생산, 원료의 가공, 가공 원료의 유통이라는 특성을 반영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산업을 각각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클라크의 산업 분류가 기술 진보의 정도를 반영한다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답] ①

25. 추론적 사고(삽입될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보기>는 새로운 학문의 등장과 그 학문의 명칭에 따른 학과 명칭의 설정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로봇 공학을 가르치면 로봇 공학과, 분자생물학을 가르치면 분자생물학과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학문의 명칭과 학과 명칭의 관계는 제시된 지문의 산업 분류 유형 중, 기술 영역을 중시하는 관점과 유사하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의 내용 그대로가 산업 명칭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답] ④

26. 추론적 사고(판단의 근거 추리)

정답해설 : 글쓴이는 6문단에서 이미 산업을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의 생성과 소멸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고정된 기준으로 산업을 정의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앞으로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존의 분류 기준으로는 산업의 실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①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27. 어휘·어법의 이해(어휘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과 ㉡는 맥락 상 반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태어나다’와 ‘자라다’는 서로 의미 관계가 반의 관계에 있지 않다. [답] ①

[28-32] 현대시

(가) 이육사, ‘교목’

작품해설 : 이 시는 교목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교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으로든 꺾을 수 없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시련을 이겨내는 의지

(나) 신석정, ‘들길에 서서’

작품해설 : ‘나’의 생활을 되돌아 보고 삶에 대한 밝고 건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작품이다. 현실이 암담하지만 추구하는 세계는 밝고 희망찬 세계이고, 화자는 반드시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의지를 가지며 나아가고자 한다.

[주제] 굳센 삶에의 의지와 이상 세계 추구

(다) 김종길, ‘고고’

작품해설 :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고고함이란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

다려야 겨우 확인할까 말까한 것일 수 있다. 즉 고고함이라는 정신세계는 세속화를 거부하는 것인 동시에 삶의 긴장감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쉽게 변질될 수 있을 만큼 아슬아슬한 것으로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얻을 수 없는 세계의 것이다. 이것은 시인이 추구하는 고고한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고고한 삶의 지향

28.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나)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생활일지라도 굴하지 않고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다)에서는 고고한 삶의 자세와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는 둘 다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현실과 이상이 괴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③ (다)는 일상 생활이 아닌 고고한 삶의 세계를 보여준다. ④ (나)에만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29.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와 같은 직유법과 의인법이 쓰였고, ‘거미집’, ‘꿈길’, ‘바람’ 등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도 역시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푸른 산처럼’과 같은 직유법과 ‘푸른 하늘’, ‘푸른 별’ 등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둘 다 어조가 일관되어 있다. ③ (나)에만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고 있다.

30. 추론적 사고(자료를 통한 작품 해석)

정답해설 : (가)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작품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바람’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인의 실행 의식과 저항 의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답] ⑤

31. 비판적 사고(시상의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나)는 삶의 숭고함과 삶의 희열, 삶의 목표 확인을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을 뿐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응축된다고 할 수 없다. 나란히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③

32. 창의적 사고(작품의 창작 과정 파악)

정답해설 : 북한산이 그 고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한다

고 노래하고 있다. 가볍게 눈을 쓰고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그 고고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윈 산을 뒤덮는 적설’이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얽은 화장’은 눈이 살짝 쌓인 북한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산의 모습을 그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③ 겨울과 대비되는 때의 소재를 말하고 있다. ⑤ 산봉우리의 고고함은 긴장을 조금만 늦추어도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33-36] 인문, ‘지식의 유형과 형성(인식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철학의 하위 분야인 인식론을 다루고 있다. 글쓴이는 인식론에서 다루는 지식의 유형을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표상적 지식을 다시 경험적 지식과 선형적 지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절차적 지식이고,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표상적 지식이다. 예컨대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이 절차적 지식이고,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아는 것을 표상적 지식이다. 표상적 지식 중에서 감각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것은 경험적 지식이고,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선형적 지식이다. 선형적 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 좋은 예가 된다.

[주제] 인식론에서 본 지식의 유형

33. 사실적 사고(정보의 개괄적 확인)

정답해설 :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에 보면, 지식은 크게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으로 나뉘고, 이 중에서 절차적 지식은 자전거 타기처럼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표상적 지식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예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끝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첫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 찾기)

정답해설 : 가수의 이름을 아는 ①과,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아는 ②와, 퀴즈의 답이 ‘피아노’인 것을 아는 ⑤는 모두 감각 경험에 의존하는 경험적 지식이고, 2를 네 번 더하면 8인 줄 아는 ④는 선형적 지식인데, 이 네 가지는 모두 정보의 소유

를 의미하는 표상적 지식에 해당한다. 반면 ③에서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일종의 능력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을 절차적 지식으로 분류했다. [정답] ③

35. 추론적 사고(논리적 전제의 추리)

정답해설 : 논리적 분석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까다로운 문제이다. ㉠은 ‘개별적 대상들에 대한 감각적 경험 → 귀납추리 → 일반 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은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 = 경험적 지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려면 ㉠의 과정에서 ‘귀납추리가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일 귀납추리가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게 된다면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은 감각적 경험과 무관한 지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에 기초해 있다. ② ㉠에 의하면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도록 해 주는 수단일 뿐이므로,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④ ㉠에서 개별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만일 귀납추리를 통해 지식이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게 된다면 ㉡처럼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이 곧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된다. ⑤는 귀납추리의 속성과 관련된 옳은 진술이지만 ㉠, ㉡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36. 어휘 · 어법의 이해(고유어의 문맥적 의미 이해)

정답풀이 : ㉠의 기본형인 ‘드러나다’는 ‘겉으로 나타나다’는 뜻으로 굳이 한자어로 바꾼다면 ‘노출(露出)되다’나 ‘노정(露呈)하다’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을 ‘천명되기도’라고 바꿔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천명(闡明)되다’는 ‘드러내서 밝히다’는 의미를 지닌 ‘천명하다’의 피동형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 습득(習得)하다 :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하다. ㉢ 의거(依據)하다 : 어떤 사실이나 원리에 근거하다. ㉣ 형성(形成)되다 : 어떠한 모양이 이루어지다. ㉤ 별개(別個)의 : 서로 다른, 서로 관련성이 없는

[37-40] 예술, ‘대중매체와 예술’

지문해설 : 이 글은 대중 매체를 대하는 예술계의 다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술계에서는 대체로 대중 매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내용을 대등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구체화하여 서술하고 있다.

[주제] 대중 매체에 대한 예술의 태도

3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근본주의 회화와는 달리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중 매체를 비판한 사례로 ‘팝 아트’를 소개하고 있다. 즉, 팝 아트는 대중문화의 산물을 수용하면서도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점이 영국의 초기 팝 아트에서 두드러졌다고 했다. 반면에 미국의 팝 아트는 애매한 태도나 낙관주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비판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고 했으므로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샌들의 ‘자유를 위한 힘찬 일격’을 소개하며 대중 매체에 대한 전면적인 비난과 거부로는 대중 매체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근본주의 회화의 미술가들은 대중 매체를 부정하기 위해 회화의 근본을 찾아내려 고심했다고 했다. 그들의 목표는 회화의 근본이라는 것이었기에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리는 행동까지 나아간 것이다. ③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팝 아트는 다양한 태도를 보였는데 비해, 영국의 팝 아트는 대중 매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했다. ⑤ 리히텐슈타인의 미술은 근본주의 회화가 아니라, 미국의 팝 아트의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38. 추론적 사고(정보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의 근본주의 회화에서는 회화의 근본을 찾기 위해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방식이 중요해졌고, 이 자체가 회화의 주제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반면에 회화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 매체를 비판한 것이 팝 아트인데, ㉡은 이러한 팝 아트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은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으로 만화의 재현 방식 자체가 주제가 되면서도 내용 역시 중요한 요소로 관여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둘의 공통점은 그리는 방식이 주제가 된다는 점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다고 했다. ② ㉠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은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반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또한 만화의 형식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 전쟁을 소재로 삼았을 뿐이다. ③ ㉠에서는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지만, ㉡은 내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기에 이미지를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과 ㉡은 형식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내용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기에 작품의 의미가 공허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9.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다. ㉠는 <보기>에서 ‘오페라의 유령’에 등장하는 유령의 모습을 활용하는 것이며, ㉡는 휴 게이츠겔의 사진을 오페라의 유령에 등장하는 유령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은 이렇게 함으로

써 생겨난 휴 게이트의 이미지가 비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㉔와 같이 정치가 휴 게이트의 정책에 반대하는 해밀턴의 입장을 담아내고 있다. ㉕의 내용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보기>에서 대중문화는 영화인테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 ⑤

40. 비판적 사고(판단의 근거)

정답해설 : 리히텐슈타인의 ‘파광!’은 만화의 형식을 문제 삼고 있다. 즉, 만화의 밝고 경쾌한 양식이 어떻게 공포와 고통의 전쟁이라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관객은 이러한 내용과 표현 방법 간의 모순을 알아차려야 작가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답] ⑤

[41-45]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적벽가

작품해설: 중국의 군담 소설인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벽 대전을 모티프로 삼아 만들어진 판소리 작품이다. 제시된 지문은 위나라 조조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와 대치하여 싸우다가 완전히 패배하여 정욱을 비롯한 부하들과 도망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판소리가 가진 율문적 특성과 조조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해학적인 내용이 잘 어우러져서 독자에게 재미를 준다.

[주제] 영웅들의 다양한 면모와 전란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

41. 사실적 사고(작품의 세부적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조조 그리고 정욱을 비롯한 부하들은 전투에서 패배하여 도망을 가고 있다. 도망가는 상황 역시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장면 전개를 통해 조조가 커다란 낭패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조는 자신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나라 장군인 주유와 촉나라의 군사 지휘자인 제갈공명을 비웃는다. 그러나 그 비웃음이 끝나자마자 조자룡이 등장하여 조조를 공격하고 조조는 남은 군사들마저 다시 잃게 된다. 따라서 조조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패배시킨 적국의 장수를 비웃음으로써 어리석고 허세를 부리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42. 추론적 사고(장면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나)는 조조와 정욱의 대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조는 도망 중에 겁먹은 행동을 계속 보여주며 동시에 상황과 동떨어진 ‘술안주’ 이야기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어리석은 인물로 그려지면서 해학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진술은 (다)의 장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는 조자룡의 등장으로 조조가 다시 패퇴하게 되는 장면을 3·3 또는 3·4조의 음수율을 기본으로 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43. 추론적 사고(진술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조조의 웃음은 자신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을 가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승리한 주유와 제갈공명을 비웃는 웃음이다. 그러나 곧 조자룡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패배하게 되면서 그 웃음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태도였음이 다시 입증되게 된다. 따라서 그 웃음은 방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황이 반전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답] ③

44. 추론적 사고(관점에 의한 소재의 기능 해석)

정답해설 : 작품 속에서 까마귀와 관련된 진술은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고리각 까옥 저 까마귀.’이다. 이 진술 속에서 까마귀는 들판 대로로 길을 가지 못하고 적에게 쫓겨 이리 저리 숨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조조의 처지를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까마귀를 효조와 연결하여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45. 어휘 · 어법의 이해(속담을 통한 상황 표현)

정답해설 : (마)에서 조조는 조자룡의 공격을 받아 다시 한 번 큰 패배를 하게 된다. 적벽 싸움에서 크게 패하여 도망하는 조조가 다시 공격을 받아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장면이다. 따라서 한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니 또 새로운 위험이나 난관에 부딪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가 조조의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다. [답] ①

[46-50] 과학, ‘과학사의 그늘-화성의 운하’

지문해설 : 이 글은 화성의 ‘운하’를 사례로 들어 과학적 진실이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실재하지도 않는 화성의 ‘운하’에 근거하여 화성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오랫동안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경위를 살펴봄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진실의 규명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자 스키아파렐리가 지닌 사회적 호감도와 그가 그린 지도가 지닌 외형적 호소력이 망원경과 같은 객관적인 기구보다 더 신뢰 받던 사회에서는 과학적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결국 과학적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 뿐 아니라, 새롭게 발견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론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오류에 새로운 현상을 맞추는 어리석음으로 일관하였다. 권위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주제] 왜곡된 과학에서의 진실

46. 추론적 사고(적절한 제목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과학적 진실은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권위나 기타 사회의 영향을 받아 과학적 오류를 진실로 착각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과학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경향을 강조한 것으로, 과학적 진실 추구에 객관적 증거와 연구 태도가 필요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화성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운하’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 곡해된 경우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제목은 ‘과학사의 그늘-화성의 운하’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47. 사실적 사고(중심 구절의 이해)

정답해설 : 화성의 운하를 연구하여 화성 지도를 처음 그려낸 사람은 ‘그린’이다. 그 이후에 ‘스키아파렐리’의 화성 지도가 등장했다. 글쓴이는 연구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볼 때 그린의 지도가 스키아파렐리의 지도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다. ㉠의 뒤로 그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도록 한다. 지리학의 방식대로 채색한 것은 오히려 스키아파렐리의 화성 지도가 사람들에게 더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이므로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관찰한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은 보고난 후에 기억에 의존하여 다듬는 것보다는 더 정확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③ 망원경은 배율이 높을수록 더 정확할 것이다. ④ 자신이 관측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측자의 관측 결과까지 반영하게 되면 그 정보의 정확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추리할 수 있다. ⑤ 대기가 청명한 곳은 천체를 관측하기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8. 추론적 사고(사례의 유사점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갈릴레이와 관련된 사례로,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도전하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이 갈릴레이의 관찰 결과를 의심하며 수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본문의 사례와 비교하여 그 유사점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에서 말하고 있는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이 논란이 된 점’은 갈릴레이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문의 화성 관찰에서는 화성의 완전성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본문에서 망원경이라는 객관적인 조건보다 학자의 권위에 더 신뢰를 보였던 분위기 등은 <보기>의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③ 그린의 관측 결과가 스키아파렐리의 결과에 비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갈릴레이의 관측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유사하다. ④ 화성을 관측한 것과 달을 관측한 것 등, 둘 다 천체의 지형에 대한 관측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⑤ 스키아파렐리가 지닌

권위가 오류를 지속시켰다는 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오류를 지속시켰다는 점이 유사하다.

49.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본문에 나타난 그린과 스키아파렐리의 연구와 그 결과가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파악한 후, 거기에 담겨 있는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된 논쟁들이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생겨난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본문의 내용은 한 과학자가 제시한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과학자들이 수용하지 못한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관측에서 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했다는 것이 반드시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② 과학적으로 관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론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다. ③ 스키아파렐리가 그 관찰에 있어서는 덜 과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의 방식대로 지도를 그린 이유로 더 큰 호소력을 얻은 것으로 볼 때, 표현 방식에 따라 과학적 주장이 설득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과학 이론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현재에 와서는 오류임이 밝혀지듯이, 현재에는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미래에는 새로운 이론이나 근거에 의해 오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50. 어휘어법(단어의 유사성 이해)

정답해설 : ‘놀랍게도’에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힘들다’, 혹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성능이 더 좋아진 대형 망원경으로 관측해서 운하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예상외로 과학자들이 기존의 이론에 관찰된 상황을 끼워맞추려고 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놀랍게도’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처구니없게도’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놀랍고 신기하게도 ② 아주 크고 훌륭하게도 ③ 유달리 재치가 뛰어나게도 ④ 미처 생각할 겨를 없이 급하게도

[51-56] 문학 복합 [고전시가 + 수필]

(가) 계량의 시조

작품해설 : 봄에 이별한 임이 가을이 되어서 자신을 생각하는가를 탄식하면서 꿈에서나마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계절적인 배경을 시적 상황과 연관시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헤어질 때 울며 잡고 헤어져서 자신

은 아직도 입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입은 자신을 생각하는지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입에 대한 그리움

(나) 조위, '만분가'

작품해설 : 이 시는 입과 이별한 여인이 입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를 당한 시인이 배소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일편단심으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연군의 정

(다) 양주동, '질화로'

작품해설 : 이 글은 질화로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질화로를 통해서 느끼는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늦둥이를 얻은 부부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따뜻한 애정을 질화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질화로를 에워싼 머슴들의 놀이와 노인들의 모습을 정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필자가 질화로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질화로에 대한 추억과 정감

51.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사랑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이, (나)에서는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에서는 질화로와 관련 있는 추억들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답] ②

52. 비판적 사고(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봄에 이별하고 가을에 입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고, (나)에서는 가을 달 밝은 밤에 외롭게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시는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둘 다 감정이 노출되어 있다. ④ (나)에만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어 있다. ⑤ 단호한 어조가 아니라 어떤지 알 수 없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53. 추론적 사고(어휘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꿈'은 입과 헤어져 외로운 상태에서 입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추억'은 이웃집 늙은 부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질화로, 머슴과 노인들의 질화로, 부모님과 관련된 질화로 등 다양한 대상과 연관되어 있다. [답] ④

54. 추론적 사고(시어의 상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침변’ 즉 임의 ‘베갯머리’에 시드는 것은 설중에 혼자 피어 있는 매화이고, 이는 시적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변에 시드는’은 임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시적 화자가 처한 현재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지 임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③ 죽어서 변하지 않는 만장송이 되고 금강산의 학이 된다는 것은 임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않겠다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5. 추론적 사고(부분적 감상)

정답해설 : 겨울밤이 어느덧 밝은 녘이 되었다는 것은 질화로를 둘러싼 정겨운 삶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질화로를 둘러싸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놀이를 하는 추억어린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지 겨울밤이 무료하거나 길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답] ④

56.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은 질화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억들을 회상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질화로가 가지고 있는 정감어린 이미지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 시절의 회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질화로를 통해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각, 분주하게 놀이를 하는 머슴들의 모습을 드러낸 시각적 감각, 아버지의 고서 읽는 소리가 들리는 청각적 감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가난을 환기하는 소재라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57-60] 언어, ‘소수 언어의 소멸’

지문해설 : 이 글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수 언어의 현황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소수 언어가 사라지는 원인을 살펴본 후 우리가 소수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내용의 제시와 예측되는 미래의 상황 및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 소수 언어 보존의 필요성

5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글쓴이는 2문단에서 언어가 소멸하는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 하나로 제시된 것이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 파괴이다. 하지만 이는 언

어 소멸의 원인이지, 언어의 소멸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②의 진술 내용은 인과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후반부에서 글쓴이는 언어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야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③ 2문단의 4행에서 ‘문화적 신경가스’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전자 매체의 확산이 언어 소멸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진술하였다. ④ 3문단의 전반부에서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 없는 것은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⑤ 4문단에서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다양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으므로 언어의 소멸은 문화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58. 추론적 사고(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언어의 소멸이라는 현상에 대해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을 펼치고 있다. 글쓴이는 여러 근거를 동원하며 언어의 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 몇 가지를 2문단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에 기대고 있지는 않다. 또한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언어의 소멸에 대한 예측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③의 진술은 각각의 내용을 마치 연관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기에 잘못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언어의 소멸에 대한 예측을 구체적 수치를 동원하여 실태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② 3문단에서 언어의 소멸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④ 글에서 묻는 방식의 진술은 독자로 하여금 그 대답을 생각하게 하기에 독자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3문단과 4문단에서 이러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언어 수의 90%가 소멸할지 모른다고 했으며, 4문단에서 언어의 소멸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59.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자료의 해석)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언어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기>는 언어에 따른 1인칭 복수 표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영어와 달리 자이세 어는 두 가지의 1인칭 복수 표현이 있으며, 체로키 어에는 더욱 다양한 표현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이 글의 논지대로 ‘언어의 다양성이 인간의 언어 능력이 풍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④ 글쓴이는 언어의 다양성을 바람직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⑤이 주장은 글쓴이의 관점과 반대되고 있다.

60. 어휘·어법의 이해(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㉔은 특정한 나라나 민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기에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머지 네 개는 모두 ‘소멸될 위기에 처한 언어’
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답] ㉓

2008학년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② 2.① 3.③ 4.② 5.② 6.④ 7.⑤ 8.⑤ 9.④ 10.②
11.③ 12.④ 13.② 14.④ 15.④ 16.① 17.⑤ 18.① 19.③ 20.②
21.④ 22.③ 23.③ 24.④ 25.④ 26.⑤ 27.⑤ 28.③ 29.③ 30.①
31.⑤ 32.② 33.② 34.③ 35.① 36.⑤ 37.① 38.② 39.② 40.②
41.④ 42.① 43.⑤ 44.④ 45.① 46.① 47.③ 48.① 49.⑤ 50.⑤

[1-5] 듣기

1. 이제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난히 맑은 어느 가을날이었죠. 나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한적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나무들이 죽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히 불어오고 나뭇잎들은 햇살 속에서 하늘거렸죠.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모퉁이를 돌자 풍경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길 양쪽이 화재 때문에 검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처음 보는,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차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 정말 끔찍하네.”

그러자 아내가, “그래요, 여보! 하지만, 꼭 나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숲 속의 나무 밑에는 그동안 자랄 기회가 없었던 씨앗들이 있어요. 다시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린다면 새싹들이 돌아날 거예요. 그러면 숲은 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나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쁜 일로만 보이는 게 실제로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직장에서 해고당한 일, 부모님을 여윈 일, 그것들은 모두 가슴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그런 실패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몇 해가 흐른 뒤에 알았지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좌절과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되돌아보세요. 그 덕분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않았나요?

1. 비판적 사고(발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정답해설 : 강연 내용은 강연자가 구체적 체험을 통해 얻었던 깨달음에 관한 것이

다. 강연자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산불로 인해 숲이 타버린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 모습을 보고 끔찍하다고 여겼지만, 강연자의 아내는 큰 나무들이 타버림으로 인해 오히려 씨앗들이 자라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자는 아내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강연자가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강연자는 단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을 뿐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인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강연자는 시커멓게 타버린 숲을 보고 끔찍하다고 여겼지만, 그의 아내는 그 안에서 씨앗이 자라날 기회를 발견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강연자는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보았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청중들은 이 강연을 듣고 ‘가족’이 주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④ 강연자는 자신의 체험을 전달하기 위해 ‘줄지어선 나무’, ‘검은 잿더미로 변한 숲’ 등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풍경들을 묘사하고 있고, 직접적인 대화를 인용함으로써 청중들에게 현장감을 주려고 하였다. ⑤ 강연자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일, 부모님을 여읜 일과 관련된 실패와 고통을 극복할 수 없는 아픈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난 후에 그 일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알았다고 하고 있다.

2. 이제 표어 심사평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협회에서 초보 운전 차량의 뒤 유리창에 붙일 표어를 공모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3등상. 정명수 회원님입니다. 유명한 시를 패러디했네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는 없습니다. 모두가 배려해 주고, 보살피 줄 때 병아리가 장닭으로 크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2등상으로 민다영 회원님입니다. 온통 빠르게 달려가는 세상이지만 여유를 갖고 살자는 내용입니다. 표어처럼 회원님의 마음씨도 아름답겠지요? 이제 대망의 1등상, 영예의 1등상은……. 어라, 우리 회원님 중에 어린 학생이 있었나요? 면허증이 있어야 우리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애교스런 글을 앞에 두고, 누가 난폭 운전을 할까요? 어린 학생을 가장한 박설아 회원님이 1등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

이 밖에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응모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도 옛날에는 나 같았다’ 하고 울챙이와 개구리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글은 좋았지만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벌하게 겁을 주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붙였다가는 뒤차에 경각심을 주기는커녕, 오히

려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등외로 했습니다. 응모해 주신 여러 회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사회자는 공모된 표어 중 수상작 세 점에 대한 심사평과 아울러 등위에 들지 못한 표어 두 점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답지에 제시된 다섯 점의 표어들 중 언급되지 않은 표어를 찾아야 한다. ①에 제시된 표어는 사회자가 심사평으로 소개한 사항 중 어느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참신성이 떨어지는 표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자의 심사평에서는 구체적으로 ‘올챙이와 개구리’라는 표어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평의 대상이 된 표어로 보기 힘들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영금영금 거북이 우리 아빠’라는 내용이 1등상으로 발표된 어린 학생을 가장한 회원의 표어가 가진 성격과 일치한다. ③ 자동차를 ‘밟으면 함께 터지는 폭탄’이라고 표현한 내용이므로 순위에 들지 못했던 표어에 대한 심사평 중 살벌하게 겁을 주어 뒤차를 자극할 수 있는 표어로 볼 수 있다. ④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서정주 시인의 시구를 패러디한 형식을 갖고 있으므로 3등상으로 발표된 표어로 볼 수 있다. ⑤ ‘천천히 달리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는 여유를 갖고 살자는 내용이므로 심사평 중 2등상을 수상한 표어의 성격과 일치한다.

3. 이번에는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자(여) :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주의의 전망과 미래 사회』를 저술하신 김철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문화주의가 뭐죠?

교수(남) : 네, 오늘날엔 한 사회 내부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죠. 여러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이론을 말합니다.

기자 : 그러면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교수 :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체로 문화 차이에 따른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자 : 말씀을 들으니, 다문화주의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네요.

교수 : 네,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주의를 수용하여 국가 정책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그 실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국가를 단일 민족 국가나 단일 이념 국가라고 여기는 경우엔 다문화주의가 단일성을 훼손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반감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사실 소수 문화가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 문화를 정책적으로 배려하자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 간에 의견이 저마다 다릅니다.

기자 :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시대에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교수 : 소수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은, 이주민이나 이주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분열도 완화될 수 있고, 사회도 발전하겠지요.

기자 :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정책으로 마련해 나가는 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 :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3. 추론적 사고(이어질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다문화주의를 수용하여 국가 정책을 실현할 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다문화주의가 단일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반감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러한 반감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소수 문화를 정책적으로 배려하자는 데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② 세 번째 교수의 말에서 ‘소수 문화가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각 문화 집단 간의 경제적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4~5. 이번에는 협상 장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주변 상점들 단체 티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야. 어제 애들이 추천했던 가게로 가 보자.

여학생 : 이왕이면 디자인 예쁘고, 질 좋은 걸로 해야지.

(가게 문을 열 때 종소리 들림)

아저씨 : 어서 오세요.

남학생 : 안녕하세요. 다음 주가 우리 학교 체육 대회라서요. 단체 티를 맞추려고요.

아저씨 : 그래, 잠깐 기다려 봐라. 여기 견본 있다.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보렴.

여학생 : 와, 종류가 참 많네요. 근데 요즘 어느 게 잘 나가요?

아저씨 : 이건 값이 싸서 부담은 없는데, 합성 섬유라서 촉감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건 가볍고 땀 흡수도 잘 돼서, 요즘 단체 티로 많이 나가.

남학생 : 좋아 보이네요. 얼마예요?

아저씨 : 그리 안 비싸. 만 원이야.

여학생 : 너무 비싸요. 저희도 품질 좋은 걸로 하고 싶은데, 학생인 저희들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6천 원에 해 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 : 많이 사면 모르지만, 몇 장 사는데 그 가격에 주기는 힘들지. 학생들이니까 내가 9천 원까지는 깎아 주지.

남학생 : 저희 두 반만 해도 70장이 넘는 걸요. 또 다른 반 애들도 여기 디자인이 예쁘다고 가격만 적당하다면 여기서 사겠대요. 가서 얘기 잘 할게요. 그러니까 6천 원에 해 주세요.

아저씨 : 그래도 6천 원에는 힘들지.

남학생 : 그럼 옷에 학급 로고를 새겨 주시면, 7천 원에 살게요.

아저씨 : 로고라…….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돈이 좀 드는데. 음, 로고를 그냥 해 주는 대신 9천 원에 하지. 어때?

여학생 : 어우, 그래도 비싸요. 아저씨, 체육 대회 때 쓸 모자도 여기서 단체로 살 테니까 조금 더 깎아 주세요. 네?

아저씨 : 좋아. 그러면 8천 원에 하자. 대신 다른 애들한테도 말 잘해 줘야 돼.

남학생 : 좋아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되겠죠?

아저씨 : 그럼. 이제 계약서를 적어 볼까? 8천 원에 학급 로고 새겨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 됐지?

4. 사실적 사고(대화 과정의 이해)

정답해설: 들려주는 내용은 단체 티를 맞추기 위해 학생들이 가게에 가기 전에서부터 가게 안에서 주인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다. 문제지에 제시된 협상의 과정을 인지한 후에 대화를 통해 그 과정들이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학생들의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문제지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지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복잡한 사고력이 요구되어 난이도가 높다. 학생들은 가게로 들어가기 전에 협상을 위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자신들의 구체적인 협상 목표라든지 최대 양보선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남학생의 첫 번째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단체 티를 맞추기 위해 주변 가게의 가격 수준 등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쟁점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 ③학생들은 가게 주인과 대화하며 주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자신들의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상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④로고를 새기는 문제, 모자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가격선을 정하고 있으므로, 양보 수위를 조절하며 협상

을 벌인다고 볼 수 있다. ⑤처음에는 만 원으로 제시된 가격을, 로고를 새겨서 8천 원에 구입하기로 조정한 후, 여기에 대해 만족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전략의 파악)

정답해설: 학생들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가게 주인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고 있다. 다른 아이들이 이 가게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아이들에게 가서도 선전하겠다는 것, 모자도 단체로 한꺼번에 주문하겠다는 것 등 가게 주인이 선호할 만한 제안들을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그 때마다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즉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는 주인의 가격에 대해 주인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제안들을 하나씩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에 근접하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안을 내놓고 주인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다. ③ 상점 주인과 우호적인 인간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학생들은 싼 값에 질 좋은 단체 티를 구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④ 다른 상점들의 시세에 대한 이야기는 주인에게 직접 하지 않았다. ⑤ 협상 기한은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무리없이 제시되고 수용되었다. 기한의 촉박함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조건을 고려한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건으로 제시된 ‘착안점 → 문제 상황 설정 → 주제 구체화’의 과정에 따라 정보들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착안점으로 주어진 그림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며, 문제 상황으로 제시된 내용은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다. 넷째 줄의 경우 역시 학교의 게시판에 붙은 지시 사항들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수동적 삶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④에서 ㉠에 들어갈 말로 제시된 것은 ‘세상의 변화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변화에 관심을 갖는 삶의 태도를 수동적 삶의 태도를 극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에는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태도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으로만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칠판을 지우는 그림과 정보를 잊어버리기 쉬운 현대인들의 특성을 연결시킨 것은 타당성이 있다. ② 그림으로 제시된 창문은 안과 밖이 잘 보이면서도 바깥의 소리는 차단하는 작용을 하므로, 서로 마주보면서도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③ 일정이 뻘뻘하게 들어차 있는 시간

표는 일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와 적절하게 연결된다. ⑤ 쓸데없는 물건이 넘쳐나는 쓰레기통의 모습으로부터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져서 버릴 불필요한 것까지 가지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소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7. 추론적 사고 (자료 해석의 타당성 평가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가)에 제시된 그래프 자료는 한국·중국·일본의 가족 관계와 관련된 6가지 내용 요소들을 담고 있으며, (나)에 제시된 도표 자료는 한국·중국·일본의 가족 친밀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한 방안 중 ⑤는 적절하지 않다. (나)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2.90으로 제시된 일본인데, (가) 그래프를 보면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로 볼 때에는 중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가족 수는 2.38로 낮지만 배우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로 평가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 수와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를 보면 가족 가치관에 관한 한국의 그래프 유형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② (가)의 ‘가족 내의 위계질서’를 보면 세 나라 모두 0~5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도표에서 일본은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 수는 2.90으로 가장 많지만 친밀도를 보면 63%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준다. ④ (나)에 따르면 일본은 가족 친밀도는 세 나라 중 가장 낮지만 (가)를 보면 일본이 ‘가족의 단결’을 가장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추론적 사고 (조건에 따른 표현)

정답해설 : 그림 자료 안의 ‘공지사향’에는 세 가지의 글쓰기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무엇이 어떻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첫머리에 넣어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유를 다음으로 제시하라는 것이며, 셋째는 제안이 실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쓰라는 것이다. 답지로 제시된 내용 중 ⑤에서는 가장 먼저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글을 쓰게 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까봐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익명의 글을 허용했을 경우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공지사향’을 통해 주어진 조건을 충실히 활용한 글쓰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문화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시의 성공 사례를 제안의 이유로 제시하는 과정까지는 유사하다. 그러나 지역 특산품 홍보에 대한 것은 예상되는 결과라기보다 세부적 방안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교통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한 첫 문장과 등곳길의 안전의 중요하다는 둘째 문장이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요구로 제시되고 있다. ③ 체육공원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먼저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둘째 문장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시청 옆의 공터에 만들어 달라는 구체적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다. ④ 거리에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의견 뒤에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은 현재의 시정에 대한 불만으로 제시되었다.

9. 비판적 사고 (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 추가된 자료에 따라 제시된 개요를 고쳐쓰는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다. <보기>는 황사의 피해에 관련된 내용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 먼저 황사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에 관한 내용, 다음으로 황사가 산업에 미치는 피해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황사를 막기 위한 중국, 몽골 정부와의 국가 간 협력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요를 수정한 방안 중 ④는 적절하지 않다. IV의 2에 제시된 ‘친환경 전기 자동차 생산 기술 개발’은 미세 먼지 오염 감소 대책으로 타당한 것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한 ‘미세 먼지 예·경보제 시행 확대’는 미세 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의미가 있을 뿐 오염 자체를 감소시킬 수는 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개요의 I에 제시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미세 먼지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는 전체 논지와 <보기>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범위가 넓으므로 타당한 수정 방안이다. ② II의 1과 2는 각각 호흡기 질환, 심장 혈관계 질병 등 미세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와 관련되고 있으므로 묶는 것이 적절하며, <보기>에 황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II의 하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도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황사 역시 미세 먼지의 일종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미세 먼지의 발생 원인으로 황사를 추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몽골 정부 간에 황사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거론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IV의 미세 먼지 오염 감소 대책의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

정답해설 : 우주에서 우주인이 운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 (가)는 고쳐쓰기 이전의 글이고 (나)는 (가)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표현상 잘못된 부분을 고쳐쓴 글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글을 비교하여 고쳐쓰기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추리해야 한다. 이렇게 두 글을 비교할 때 (가)에서 ②에 제시된 어색한 번역 투의 피동 표현을 발견하기 어렵다. 어색한 번역 투의 피동 표현이란 ‘~되어졌다’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셋째 문장은 분량으로 볼 때 상당히 길게 느껴진다. (나)에

서는 이 문장을 둘로 나누어 주고 있으므로 고쳐쓰기의 검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첫 문장에서 몸을 고정시키는 장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서 ‘운동 기기에’라는 부사어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검토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셋째 문장을 보면 (가)에 나와 있지 않던 ‘그런데’라는 접속어가 추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고쳐쓰기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첫 문장에 나온 ‘고착’은 ‘물건 같은 것이 굳게 들러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에서는 이를 ‘고정’으로 바꾸었으므로 고쳐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11. 어휘·어법(어휘의 특성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는 세 가지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데, ‘쇠고기’와 ‘소고기’는 두 어휘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복수 표준어라는 사실, ‘쇠고기’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사실, ‘돼지고기’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사실이다. <보기>에는 관형격 조사 ‘의’에 관한 언급도 있는데, 관형격 조사란 ‘문장 안에서,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의 관형어임을 보이는 조사’이다. 즉 앞의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조사를 의미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 중 ③은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다. 구조로 볼 때 쇠고기는 ‘쇼+의+고기’로 ‘명사+관형격 조사+명사’의 구조이며, 돼지고기 역시 ‘돌+의+고기’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쇠고기’는 ‘쇼+의+고기’로 형성되었는데, ‘의’는 현대어로 ‘의’이므로 ‘소의 고기’라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쇠고기’는 명사인 ‘쇼’, 조사인 ‘의’, 명사인 ‘고기’로 형성되었으므로 세 단어가 결합되어 한 단어로 발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쇠고기’는 ‘소의 고기’를 뜻하는 말이지만, ‘소고기’는 동물 이름 ‘소’에 바로 ‘고기’를 붙여서 만든 단어라고 할 수 있다. ⑤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만들어진 과정을 고려할 때, ‘명사+관형격 조사+명사’의 구조가 그대로 사용되었다면 ‘돌+의+고기’, 즉 ‘돌지고기’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추리할 수 있다.

12. 어휘·어법(자료를 통한 어법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 1>은 ‘-마는’과 ‘-만은’의 문법적 성질 차이를 밝힌 것이고, <보기 2>는 ‘-마는’과 ‘-만은’을 실제 문장에 적용한 사례이다. <보기 1>을 통해 ‘-마는’의 경우 종결어미 뒤에 붙으며, ‘-만은’은 어미, 체언, 조사에 다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보기 2>에 적용했을 때 빈 칸에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경우는 ‘-마는’의 앞에 종결어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 문법에서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동사에 평서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가 있고, 형용사에는 평서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다. 그러므로 <보기2>의 ㉠ ~ ㉣ 중 그 앞에 종결 어미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찾으면 된다. ㉡의 경우, ‘오늘은 그냥 간다’의 ‘간다’에는 평서형 종결어미 ‘-니다’가 사용되었으므로 ‘-마는’을 넣을 수 있다. 또 ㉣의 ‘되겠느냐’ 역시 ‘-느냐’라는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뒤에 ‘-마는’을 넣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는’이 들어갈 것은 ㉡와 ㉣라고 할 수 있다. [답] ㉣

[오답피하기] ㉠ ㉠의 경우, ‘가서’의 ‘-서’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연결어미이므로 ‘-마는’을 넣을 수 없다. ㉢ ㉢의 경우, ‘맺힌 가지’의 ‘가지’는 명사이므로, ‘-마는’이 아니라 ‘-만은’이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3-18] 시가복합[현대시 + 고전시]

(가) 김소월, ‘나의 집’

작품해설 : 이 시에는 소월의 시에서 주로 보이는 삶에 대한 비애나 이별의 한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집을 짓겠다는 의지와 그 집에서 임을 기다리는 희망이 드러나고 있다. 화자는 떨어져 나가 앓은 산기슭이나 물가 뒤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 큰길까지 내가며 집을 짓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집에서 길손을 바라보며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새로운 세계를 새 터에 건설하고 싶은 화자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터가 아닌 새로운 터를 굳이 고집하는 것은 ‘길손’에 대한 배려이고 이는 곧 새로운 세계의 건설에 대한 강한 집념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화자가 기다리는 그대는 연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염원으로 볼 수 있기에 일제 하에서 조국 광복의 기원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상이 무엇이든 이 작품에는 화자의 기다림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주제] 임을 기다리는 마음

(나) 윤동주, ‘길’

작품해설 : 이 시에는 윤동주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듯이 식민지 지식인의 부끄러움과 자아성찰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자아성찰의 공간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길이다. 화자는 무엇을 잃어버렸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화자 앞의 길은 돌이 연달아 있으며, 담은 굳게 닫혀 있으며 풀 한 포기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은 험난하고 고달픈 화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화자는 절망하지 않고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가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잃은 것을 찾기 위해 길을 걷고 있다. 이는 끊임 없는 자아 성찰과 수련을 통해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내면적 결의, 본질적 자아 회복에의 희구

(다) 월명사, ‘제망매가’

작품해설 : 이 시는 향가 중에서 표현 기교와 서정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누이의 죽음을 이룬 바람에 떨어진 잎으로 표현한 비유가 특히 뛰어나며, 누이의 죽음에 따른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화자의 신앙심 또한 잘 드러나 있다. 첫째 단락에서는 요절한 누이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노래하였고, 둘째 단락에서는 적절한 비유를 통해 애절한 혈육의 정을 구체화시켰으며, 마지막 단락에서는 인간적인 슬픔과 고뇌를 종교적인 숭고함으로 승화시키는 정신세계가 잘 나타나 있다.

[주제]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고 추모함

13.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세 작품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그에 대한 화자 나름의 대응 방식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새로운 터에 집을 짓고 길을 낸 후 그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나)의 화자는 험난하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슬퍼하지만 미타찰에서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고 슬픔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자연 현상에 대응시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④ 세 작품에서 화자의 지향점은 분명히 보이지만 그 세계에 대한 확신이 그려지고 있지는 않다. ⑤ (나)에서 ‘길이 돌담을 끼고 있다는 것’, ‘풀 한 포기 없는 길’ 등의 내용은 현실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시간이란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흐른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러한 속성에 모순되는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에 제시된 시간은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저녁 무렵과 아침의 시간이 표현되어 있다. [B]에서의 시간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다시 아침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역설적인 표현은 아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순환되며 흘러가기 때문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아침의 시간은 청각과 시각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② 아침에서 저녁으로, 다시 저녁에서 아침으로의 표현에서 시간의 지속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③ [B]에서 길이라는 공간과 아침 저녁이라는 시간이 결합되어 형상화되었다. ⑤ [A]에서 아침은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첫 시작을 의미하며, [B]에서의 시간은 굳게 닫은 쇠문이 긴 그림자를 드리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화자의 고뇌가 지속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15.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나)의 ‘하늘’은 화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화자가 처한 현실은 암담하고 황량하지만, 하늘이 있기에 화자는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의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이상의 공간으로, 화자가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지향하는 곳이기도 하다. [답] ④

16. 추론적 사고(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화자가 짓는 ‘집’의 위치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습’이며, ‘넓은 바다의 물가 뒤’라는 것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터가 아닌 새로운 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화자는 자신이 지은 ‘집’ 앞에 큰길을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대를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이다. 화자는 현실 상황에 대해 극복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속세를 떠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답] ①

17.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 쓰인 시어들을 살펴볼 때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메기습’의 ‘메’가 산의 옛말로 향토적인 정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방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속적인 방언으로 향토적 정감을 환기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이라는 첫구에서 목적어의 위치가 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에서도 그 뒤의 내용이 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치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하이얀’은 ‘하얀’의 음절 수를 의도적으로 늘린 것이며, ‘그대인가고’에서는 ‘그대인가하고’의 음절수를 줄인 것이다. ③ 마지막 행에서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간절함이 강조되고 있다. ④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새벽녘의 이미지를 ‘희게’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8.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비교를 통한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에서의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한다. 이것은 누이의 죽음을 가져온 원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에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에서의 ‘바람’은 ‘도화’를 지게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떨어진 꽃 역시 꽃이라 하며 이를 쓸지 말라고 한다. 떨어진 꽃은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기에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과는 거리가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만들고, B의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린다. ④ ㉠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고 있지만, B에서 ‘나무’는 임이 그리워 병든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모두 바람에 의해 영향

을 받고 있는 수동적인 존재들이다.

[19-22] 사회, '위치적 군비 경쟁'

지문해설 :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소모적인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나 경쟁 제약에 효과적인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주제]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과 이로 인한 초래되는 사회 현상 이해

19. 추론적 사고(중심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은 '위치적 외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치적 군비 경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즉 이렇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위치적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③의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가 클수록 위치적 보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적절한 서술이라고 볼 수 없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그래프와 셀레스의 예로 설명하듯이 위치적 외부성은 동일한 목표를 지니고 있고 비슷한 수준을 지닌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하게 된다. ② 사람들은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경쟁자가 지출을 늘리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도 비용 지출을 하게 될 수 있다. ④ 마지막 단락에 위치적 군비 경쟁이 심화되어 비효율성이 증가되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사회적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⑤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한 경쟁이 서로에게 별 효과가 없이 소모적인 지출인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20.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해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는 상황은 비슷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될 때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위치적 외부성은 경쟁자들에게 금전, 노력 등 그 어떤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선택지에 제

시된 다섯 가지의 사례를 살펴볼 때도 바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봐야 한다. 즉 비슷한 목표를 지닌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거두는 성과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②는 프로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유명 가수가 공연을 하면 관중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 가수의 출연이 선수들의 이익에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가수와 선수들이 서로 경쟁관계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이 중 한 후보가 사퇴한다는 것은 그 후보의 표가 어떻게 나뉘어 어느 후보에게 가게 되는지에 따라 각 후보의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각 후보들 사이에는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하는 셈이다. ③ 도서관의 좋은 좌석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일찍 도서관에 가서 줄을 서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자리를 배정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일찍 도서관에 가서 줄을 서려고 하는 현상을 빚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또한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한 해 늦게 입학하여 높은 학업 성취도를 얻어내게 된다면, 이 때 이 학생과 경쟁해야 하는 정상적인 나이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과 경쟁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밀폐된 공간에서 각자가 자신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런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모든 사람들이 더 크게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이 역시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1.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위치적 군비 경쟁은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모적인 지출을 보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경쟁을 위해 어떤 투자를 했으나 그 투자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소모적인 지출로 끝나버렸을 때를 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집단 내 경쟁자들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경쟁자들이 위치적 보상이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지출을 감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돌아오는 효과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지출을 늘린다면 그것이 곧 소모적인 지출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위치적 군비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단 내 한정되어 있는 이익을 두고 많은 경쟁자들이 경쟁하기 때문이고, 또 경쟁자들 당사자가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위치적 보상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감행하기 때문이다. [답] ④

22. 어휘·어법의 이해(단어의 의미와 용례의 적용)

정답해설 : 본문에 사용된 ㉠와 ㉡의 ‘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는 것이다. 즉 ㉠와 ㉡의 의미와 용례를 각각 고르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의 ‘간’은 ‘경쟁자와 경쟁자 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ㄴ에 해당하고 용례 또한 ‘부부 사이’를 의미하는 ‘내외간’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는 ‘많게든 적게든’이라는 의미이므로 ‘선택의 무차별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옳든지 그르든지’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c의 경우와 유사한 용례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③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보기>의 ㄷ은 ㉠와 ㉡ 둘 다 관련이 없긴 하지만, 용례의 a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23-26] 현대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제목처럼 어느 하루 동안에 벌어진 구보 씨의 일과를 서술한 박태원의 중편 소설로서 ‘집을 나섬→돌아다님→귀가’의 노정을 따르고 있다. 이 작품에서 ‘구보 씨’는 무기력한 한 지식인(소설가)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전차안→다방→거리→경성역 대합실→다방→거리→술집’으로 전전하며 그가 지켜본 일상의 풍경은 1930년대 조선의 세태를 잘 반영해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태 묘사와 더불어 중간중간에 인물의 복잡한 내면 심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잘 표출되어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1930년대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 사회의 따뜻한 인간미가 상실되어 가는 모습 및 그 속에서 도시인들이 느끼는 고독감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은 인물의 내면 의식이 두서 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나 행위, 갈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이 작품에 사용된 의식의 흐름이나 몽타주 기법 등의 모더니즘 소설 기법들은 연관성 없는 내면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 제시된 장면은 구보 씨가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평소 왕래가 없던 중학교 동창 및 그의 동료들 만나 당시의 걸작이나 원고료 등 달갑지 않은 화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주제] 1930년대 소설가의 눈에 비친 도시의 일상사

2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구보 씨가 다방에서 벗을 기다리던 중에 평소 왕래가 없으면서도 아는 체를 하는 중학교 동창 및 그의 동료들 만나 썩 내키지 않는 화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문을 들어서서 벗과 함께 다방에서 벗어나는 장면이다. 여기 제시된 지문만 놓고 보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고 있지만, 주인공인 구보 씨의 내면 의식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 두서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인과성

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 배열을 통해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다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과 작가의 원고료에 대한 대화를 통해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② 이 글의 서술부는 전반적으로 과거형 어미로 진술되고 있으나,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는 문장만큼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의 대화 부분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뒤섞여 있는데, 이를 통해 등장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처럼 쉽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적 태도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구보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사내’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합석하여 대화를 나눈다. 따라서 ㉠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는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작품을 남들에게 선전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상대방을 자신의 독자 권유원으로 삼으면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난데없이 생각한 자신의 내면 의식에 대해 스스로 유치하다고 여기며 어이없게 웃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다방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온몸에 느낀다는 것은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태도라 할 수 있다. ③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행동하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간신히’라는 부사로 볼 때, 구보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창의적 사고(시점을 바꿔 서술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가)와 (나)는 모두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는 그림이므로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된 ①, ②는 제외하고 답을 골라야 한다. (가)의 시점은 전지적 서술자가 구보의 입장에서 ‘사내’의 심리를 추정하여 서술하는 시점이다. 반면 (나)의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서술자가 직접 ‘사내’의 심리와 ‘구보’의 심리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여, 서술자가 관찰만 하고 있을 뿐 ‘사내’의 내면 심리를 모르고 있는 듯이 서술한 ③은 (나)의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서술자가 ‘사내’와 ‘구보’의 내면 심리까지 꿰뚫어 보고 서술한 ④가 (나)의 시점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1인칭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추정함으로써 서술자

가 ‘사내’의 심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서술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6.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구보’는 원고료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최 군’의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만, ‘최 군’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⑤는 이 글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 대화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 ‘사내’는 예술 작품 자체보다 그 작품을 쓴 작가와 자기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② 이 글에서 ‘최 군’은 당시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에 대해 걸작이라고 생각하며 구보의 동의를 구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③ 이 글에서 ‘구보’는 ‘최 군’이 말하는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동의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③처럼 말하는 것도 이 글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와 어울리는 대화라 할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최 군’이 원고료에 관심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④처럼 그림의 가격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글에 나타난 ‘최 군’의 태도와 어울리는 대화라 할 수 있다.

[27-29] 과학, ‘초음파 진단 장치의 작동 원리와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현대 의학에서 의료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초음파 진단 장치의 원리와 그 작동 과정을 보여주는 글이다. 일반적인 소리와 대비하여 초음파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초음파가 ‘압전 소자’를 비롯한 여러 장치와 결합하여 인체와 여타 대상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주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결론부에서는 초음파 진단 장치가 초음파를 활용하는 동물들의 능력을 모방한 생체 모방 기술의 패거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제] 초음파 진단 장치의 작동 원리와 과정

27.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추론)

정답해설 : 둘째 문단에서 초음파가 인체 진단 기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이유가 그것의 ‘짧은 파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⑤에서 성능 좋은 장치가 파장이 긴 음파를 사용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반응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첫째 문단에서 CT는 인체에 해로운 엑스선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CT가 ‘태아’에게도 해롭다고 추론한 반응은 적절하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돌고래는 박쥐와 더불어 초음파를 발생시켜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③ 넷째 문단에서 인체 부위에 젤리를 발라주면 음파 전달 과정에서의 손실이 최소화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젤리로 인해 음파가 인체의 내부로 잘 전달되는 것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에서 압전 변환기가 마이크와 같은 기능도 수

행한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기능을 하는 부품이 압전 소자라고 하였으므로, 마이크에도 압전 소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8. 사실적 사고(정보의 사실적 이해)

정답해설 : 셋째 문단에 따르면, ‘압전 효과’는 압전 소자가 압력을 받았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역으로 ‘역압전 효과’는 교류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초음파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림>에서는 ‘전기’나 ‘교류 전압’이라는 용어 대신에 ‘고주파 교류’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주목하여 볼 때, 전기가 발생하는 ‘압전 효과’는 ‘고주파 교류 발생’의 단계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 다음 두 번째 문장 ‘역으로 높은 ~’에 따르면, ‘초음파 발생’은 ‘역압전 효과’에 대응한다.

29.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A]에서 설명하는 초음파 진단 장치의 원리는 음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통과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음파에 변형이 일어나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음파의 요소와 매질의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A]의 원리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③에서 말하는 ‘관에서 나는 소리’는 음파가 관을 투과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므로, ‘관’이 음파의 전달·이동 과정에 매질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물속’과 ‘공기’가 소리가 전파되는 매질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② 얇은 벽과 두꺼운 벽이 소리가 투과하는 매질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④, ⑤ 공기 또는 벽이 소리의 전파 과정에서 매질로 기능하고 있다.

[30-32] 희곡, 황석영 원작, 김석만 · 오인두 각색, ‘한씨연대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50년대 분단된 남과 북을 배경으로 하여 고지식하고 양심적인 한영덕이라는 지식인이 겪게 되는 삶의 기록이다. 중심인물인 한영덕은 김일성 대학의 의사로서 양심적 삶을 살아가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데올로기의 고통스러운 희생양이 된다. 작가는 분단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 놓인 인간에 초점을 맞춰, 아무런 죄도 없이 시대 현실에 의해 시달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야 하는 삶의 아픔을 제시한다.

[주제] 전쟁으로 인해 전도된 가치관이 개인에게 주는 비극

30.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한혜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

다며,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고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한혜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했다고 했다. ③ 강 노인보다 젊은 한영덕이 자신의 관을 짜 달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감을 엿볼 수 있다. ④ 한혜자는 아버지가 의사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⑤ 강 노인은 한영덕이 장의사에 처음 찾아왔을 때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31.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한혜자는 자신의 아버지 한영덕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과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극중 시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이다. 반면에 [B]의 시간은 생전에 한영덕이 살아 있을 때 장의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영덕이 장의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갈등의 원인은 아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②[A]와 [B]의 극중 시간은 다르며,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③ [A]에서 한혜자는 일방적인 말하기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털어놓고 있다. 반면에 [B]에서는 강 노인과 한영덕의 대화를 통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④ [A]에서 아버지 한영덕에 대한 한혜자의 기억은 좋지 않은 것들이다. 이것은 [B]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인간 한영덕에 대한 관객의 이해와는 다른 것이기에 관객의 정서적 몰입을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32. 비판적 사고(연출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첫 부분에서 한영덕은 모시 적삼을 입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관을 들고 등장한다고 했다. 염을 하고 관을 짜는 장면이기에 깔끔한 모시 적삼은 어울리지 않는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강 노인과 한영덕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한혜자는 관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④ 한혜자가 말하는 시공간과 강 노인 한영덕이 대화하고 있는 시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무대의 같은 공간에서 병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에 퇴장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제시되는 내용으로 보아 어두운 배경 음악이 어울린다.

[33-36] 인문, ‘성품의 탁월함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성품의 탁월함’을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소개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탁월한 성

품과 관련된 행위들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게 되어 그런 행동을 더 쉽게 하게 되며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 하게 된다고 하였다.

[주제] 성품의 탁월함을 습득하는 방법

3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 습득에 비유하고 있을 뿐이며, 함축적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탁월함을 ‘지성의 탁월함’과 ‘성품의 탁월함’으로 구분하여 논제를 설정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성품의 탁월함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의 개념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④ (라)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갑돌이와 병식이라는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 구체적인 예화를 사용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라는 실제적인 물음과 연결 짓고 있다.

34. 추론적 사고(생략된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의 결론에 대한 근거가 들어가야 한다. 즉, ‘갑돌이’가 성품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라)의 앞 부분에서 ‘갑돌이’ 관련 내용에서 ‘갑돌이’가 아무런 내적인 갈등 없이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갑돌이’가 옳은 일을 하는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언급은 (라)에서 찾을 수 없다. ② ‘갑돌이’가 옳은 일을 한 것은 그의 성품 때문이며, 주체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라)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④ ‘갑돌이’가 옳은 일을 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갑돌이’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 때문에 옳은 일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갑돌이’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의식했다는 근거를 (라)에서 찾을 수 없다.

35.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라 비판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도덕적 행위에 있어 행위자의 감정이나 욕구보다는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행위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보기>의 입장을 바탕으로 이 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비판한다면,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에는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므로 그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옳은 행동을 즐겨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탁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어렵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긴 하

지만 <보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③ 도덕적인 행위는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보기>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서는 ‘본성’보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결국 본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은 <보기>의 내용과 맞지 않다 ⑤ <보기>에서 강조한 것은 ‘이성적 성찰’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6. 어휘·어법(관용적 어휘의 이해와 표현)

정답해설 : ‘인사치레’라는 말에는 ㉠에서 언급한 ‘진실’이라는 의미는 없고, ㉡에서 언급한 ‘예의를 차린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실속없이 헛된 말. ㉡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② 수다스럽게 떠벌려 늘어놓는 말이나 짓. ㉡가 결여되어 있다. ③ 아무 까닭이 없이 트집을 부림. ㉡가 결여되어 있다. ④ 짐짓 어기대는 행동. ㉡가 결여되어 있다.

[37-39] 과학, ‘심해저 생물의 생태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심해저에서 어떻게 해양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물의 신비로운 생존능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즉 심해의 지각 활동으로 인해 흘러나온 용출수에는 다양한 광물질이 녹아 있고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열수구에 살고 있는 관벌레는 독특한 순환계로 인해 자신의 영양체 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에게 황화수소를 공급해주고, 이 세균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 관벌레에게 먹이가 될 만한 유기물을 공급해준다. 즉 심해 열수구에서는 화학 합성 세균이 해양의 표층에서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작용들이 있기에 태양에너지가 전혀 미치지 않는 심해에는 해양의 표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생물이 진화되어 온 것이다.

[주제] 심해 열수구에서 생물의 생존과 진화

37.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태양 에너지가 미치지 않는 심해저에서 생물이 어떻게 생존하고 진화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해양 표층에서는 플랑크톤의 광합성에 의해 생물체가 유기물을 공급받으며 생존할 수 있지만, 광합성이 불가능한 심해저에서는 어떻게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밝혀주는 것이다. 즉 이 글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물이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심해저에도 생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런 생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설명해 준다. 지각활동으로 인한 용출수의 분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벌레와 세균의 관계 등이 어우러지면서 심해저에는 신비하게도 생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심해저 생물종인 관벌레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세균과의 관계가 드러나 있을 뿐, 심해저 생물들의 먹이 사슬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해양 표층의 생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심해저 생물의 생존 방식을 다루고 있을 뿐, 해양 생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열수구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생존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글이므로 심해저의 아름다움을 표제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생물학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생물학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38. 추론적 사고(대상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지각활동으로 인한 용출수가 흘러나오는 심해저의 열수구 지역에서는 지각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해수에 다량의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의 우점종인 관벌레의 순환계 속의 혈액은 황화수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특수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벌레는 자신의 특수기관인 영양체 안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에게 황화수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렇게 황화수소를 충분히 공급받은 세균들은 다시 화학 합성을 통해 관벌레에게 먹이가 될 만한 유기물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관벌레와 세균은 서로의 활동으로 상대방의 생존을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는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된 선택지 중에서 곰치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찌꺼기나 곰치의 표피에 있는 기생충을 먹고 사는 놀래기는 곰치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있는 썸이다. 곰치의 입장에서는 놀래기가 자신의 몸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썸이므로, 이 둘은 서로에게 유익한 점을 제공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썸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어류의 표피에서 그 체액을 빨아먹고 사는 등각류의 생존 방식은 기생이라고 볼 수 있다. 어류에게는 이러한 점이 없이 등각류만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소라고둥 껍데기는 생물체가 아니므로 이는 그 관계를 제시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④ 잘피가 다른 동식물에게 베푸는 영향들이 나와 있을 뿐, 다른 동식물에게서 받는 영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이는 먹이사슬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생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39. 추론적 사고(자료의 이해 및 활용)

정답해설 : 이 글은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인 심해저에 어떻게 생물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지각활동에 의한 용출수의 분출에서부터 설명된다. 즉 지각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광물질과 황화수소를 포함한 용출수가 분출되자, 그 황화수소를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순환계 구조를 지닌 관벌레가 생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관벌레는 자신의 특수기관인 영양체 안에 존재하는 세균에 의해 유기물을 공급받고, 다시 이 세균들이 필요로 하는 황화수소를 비롯한 무기물들을 공급해주면서 심해저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보기>

에서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관찰한 천문학자들이 유로파의 밝은 얼음 층 밑의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는 지각 활동을 내세울 수 있다. 이는 심해저에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지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 때문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만약 유로파가 지각 활동을 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할 수 있다면 심해저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답] ②

[40-42] 언어, '소쉬르의 공시대 개념'

지문해설 : 이 글은 공시대를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로 본 소쉬르의 언어학적 견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완벽하게 정적인 상태라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태와 공시대를 동의어로 본 소쉬르의 견해는 오류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을 기술할 때에도 그 언어가 변화하고 있는 중임을 유념해야 한다는 보고 있다.

[주제] 소쉬르의 공시대 개념과 그것의 문제점

40. 비판적 사고(구체적인 논거의 제시)

정답해설 : 과율은 언어를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언어 연구에는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쉬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라 하더라도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는 구성 요소의 순간 상태 이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체계이므로, 소쉬르는 화자가 발화한 당시의 언어 상태를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답] ②

4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본문에 제시된 공시대와 통시대의 개념을 '좁쌀'이라는 단어에 적용시켜 보는 문제이다. 공시대는 동시성의 축을 말하고, 통시대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말한다. 따라서 '조밭'이 음운 변화를 거쳐 '좁쌀'이 된 것은 통시적 연구(④)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좁쌀'과 중세 때 사용한 '조밭'은 각각 그 당시의 언어 현상에서 바라보는 공시적 연구(①, ⑤)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밭'은 중세 국어에서의 공시대이고, '쌀'은 현대 국어에서의 공시대라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② '좁쌀'은 현대 국어의 공시대이므로, '좁쌀'에서의 'ㅂ'이 '밭'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42. 추론적 사고(중심 개념의 비유적 표현)

정답해설 :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그런데 소쉬르는 '공시대(㉔)'를 시간의 개입

이 완전히 배제된 ‘정태(㉠)’로 보았다. 언어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어느 한 순간만을 보면 정지되어 있는 ‘정태’로 보이지만, 정지되어 있다고 보는 그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공시태’로서의 개념을 소쉬르는 간과했던 것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라)에서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으므로, 변화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고정되어 버리는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악보에 있는 ‘음표’라는 기호를 실현한 것이 ‘소리’이다. ⑤ ‘산’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대상으로, 그 대상을 보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3-46] 고전소설, ‘임진록’

작품해설 : 이 글은 ‘임진왜란’을 역사적 배경으로 민중의 상상력이 가미된 역사 소설이다. ‘사명대사’, ‘이순신’, ‘곽재우’ 등 임진왜란의 영웅들의 행적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으며, ‘경판본’, ‘완판본’, ‘흑룡록’ 등 다양한 판본이 전한다. 제시된 지문에서는 김덕령의 영웅적 행적을 다루고 있다.

[주제] 의병장 김덕룡의 신이한 행적

43. 추론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가등청정이 군사들의 머리에 백지를 붙이게 한 것은 김덕령의 말대로 시행한 후 김덕령이 약속한 시간에 당도하였을 때 일시에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등청정이 수문장을 죽인 것은 김덕령의 진입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며, 김덕령이 자취도 없이 들어온 연유를 김덕령의 신이한 능력 때문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다. 가등청정이 김덕령의 능력에 간담이 서늘해진 것은 김덕령의 도술을 본 이후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김덕룡은 순식간에 일본 병사들의 백지를 모조리 거두어 일본 병사들의 죽음을 경고한다. ② ‘거상’은 상중(喪中)에 있음을 말하는데, 어머니는 김덕령에게 공자와 군자, 대부의 거상 기간을 거론하며 김덕령이 마땅히 상중의 도리를 다하여야 하며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이를 소홀히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김덕령이 상중에 있다는 점, 그가 가등청정에게 병사들의 목에 종이를 달고 있을 것을 요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복을 입고 공중에 나타난 ‘소년’은 김덕령임을 알 수 있다. ④ 김덕령이 상중인 이유로 가등청정과 싸움에 나아가기를 고민하고, 가등청정의 진에 가서도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고 바로 복귀한 것으로 보아,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모두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4.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시문에서는 여타의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깝도다’의 경우에서처럼 서술자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천지가 뒤넘는 듯하더니’의 경우에서처럼 상황을 과장되어 묘사하기도 하고 있다. <보기>

에서는 오히려 최척이 혼례를 하고자 하는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가 본문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고 한 ④는 타당하지 않은 진술이다. [답] ④

[오답 피하기] ①, ② 본문에서는 김덕룡이 가등청정을 제압한 반면, <보기>에서는 최척이 의병장의 꾸중으로 자신의 의지를 접고 있다. 본문이 <보기>에 비해 통쾌한 느낌을 자아내고, 주인공을 비교할 때에도 본문의 주인공이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⑤ 본문에서는 김덕령이 ‘옛날 황석공’에 필적할 만한 도술의 소유자이며, 실제로 그런 도술을 발휘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최척의 인간적 욕구와 객관적 상황의 부조화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45.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비판)

정답해설 : 역사적 인물 김덕령은 출생지가 ‘전라도 광주’이나, 임진록의 가공인물 김덕령은 ‘함경도 곡산’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에 ‘독자층을 널리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주인공의 출생지가 다르게 되면 다양한 외적 상황에 의해서 독자층이 확대·축소되거나 별다른 영향이 없게 되는 다양한 상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추론은 본문과 제시 자료 어느 쪽에서도 도출되기 어려운 반응이다. [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근력이 삼천 근(3000×0.6kg=1,8톤)을 감당할 만하고, 키가 구 척(9×30.3cm= 약 2.7m)이라 하여 인물의 특성을 과장하였으며, 이렇게 거대한 힘과 체격을 설정함으로써 김덕령의 영웅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③ 김덕령의 여러 행적과 그 행적 안의 인과 관계가 크게 단순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핵심적인 사건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은 타당하다. ④ 자료에서는 김덕령이 상중에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설에서 출전한 것으로 바꿈으로써 국가에 대한 김덕령의 충성심을 부각할 수 있다. ⑤ 자료에서는 김덕령이 가등청정과 직접 대면하였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소설에서 김덕령이 가등청정을 위협한 것으로 설정된 것은 억눌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6. 어휘 · 어법(적절한 한자 성어 찾기)

정답해설 : ㉠은 가등청정이 감시를 소홀히 하여 김덕령을 진영에 들이게 한 수문장에게 책임을 물어 수문장의 목을 벤 상황이다. 이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성어는 ‘일벌백계’이며, 이는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할 상황. ③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갑작스러운 재앙을 이룸. ④ 토끼가 죽으면 그 토끼를 사냥하던 개를 삶아먹는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⑤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

[47-50] 예술, '예술과 감정의 관계'

지문해설 : 예술과 감정의 긍정적 연관성에 주목하여 예술의 가치를 옹호한 톨스토이와 콜링우드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예술은 자신이 표현하고픈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본다. 이때 전달되는 감정은 연대감이나 형제애와 같이 질이 좋은 감정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콜링우드는 예술적 효과를 통한 연대감 전달이 오히려 비합리적 선동을 강화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예술의 역할로서 감정의 전달이라는 외적 측면보다는 감정의 정리라는 내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주제] 예술과 감정의 긍정적 연관성

47. 추론적 사고(이유 및 추론의 근거)

정답해설 : 톨스토이는 예술을 감정 전달의 수단으로 보았으나, 콜링우드는 감정 정리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콜링우드는 일상사에서 느껴지는 여러 복잡한 감정들을 자기 나름의 적절한 예술적 방식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불면의 밤을 보내며 완성한 시는 그것으로 제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혼란스러웠던 여러 감정들이 시를 통해 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답] ③

48. 비판적 사고(새로운 관점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예술의 형식에 주목하고 있다.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내용도 필요치 않고 오직 형식적 연관만으로 예술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예술의 형식적 측면보다 내용적 측면인 감정을 중요하다고 보는 이 글의 관점과 배치된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을 지닌 사람이라면 예술 고유의 조형적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이 글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에서 예술적 형식을 감정의 전달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보기>의 관점은 예술의 형식적 면을 강조하는 것이지, 정신적 이념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④ 용솟음치는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본 것은 위 글의 관점에 해당하므로 비판적 이해라 볼 수 없다. ⑤ <보기>에서는 형식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9. 비판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예술 작품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은 타인도 공감할 수 있는 질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제시된 답지 중에서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⑤)'는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너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연대감이나 형제애를 전달하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포수의 총에 맞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나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산새처럼 날아간 ‘새’(㉡),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삼만 리로 떠난 ‘임’(㉢),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기만 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다른 답지들은 주로 순수의 파괴, 상실감, 서글픔 등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의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 [답] ㉤

50. 어휘·어법의 이해(적절한 단어로 바꿔 쓰기)

정답해설 : ㉤는 ‘가치 따위를 부여하다’의 의미로,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꾸다’는 의미의 ‘전환(轉換)’으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

[오답피하기] ㉠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보거나 여김 ㉢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함 ㉣ 어떤 결과를 가져옴

2008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 1.③ 2.⑤ 3.⑤ 4.④ 5.④ 6.① 7.⑤ 8.④ 9.② 10.②
11.① 12.⑤ 13.② 14.⑤ 15.③ 16.① 17.③ 18.③ 19.④ 20.②
21.⑤ 22.① 23.① 24.④ 25.④ 26.③ 27.② 28.⑤ 29.② 30.③
31.② 32.④ 33.⑤ 34.③ 35.③ 36.④ 37.⑤ 38.① 39.① 40.②
41.② 42.④ 43.② 44.② 45.② 46.④ 47.④ 48.① 49.④ 50.⑤

[1-5] 듣기

1. 이제 수업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의 일기에서 느낀 점이 많았죠? 어린 시절 백범 선생의 인생을 바꾸게 했다는 구절, 한번 읽어 볼까요? 상호불여신호요, 상호불여심호라. 나도 여러분 나이였을 때 이 구절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고, 이후에도 이 구절을 늘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럼, 수업을 마치기 전에 체로키 부족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어떤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어요. “애야!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 같지. 하나는 욕심이 많고 잘난 척만 하는 녀석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너그럽고 겸손한 녀석이란단다. 이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일어나지.” 손자는 잠시 그 말을 생각하다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어느 쪽이 이기나요?”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 주었지요. “그건 네가 먹이를 주면서 잘 돌봐 주는 녀석이지. 그래, 너는 어떤 녀석을 돌보고 싶니?”라고 말이지요.

이야기 속의 노인이 손자에게 어떤 말을 하려 했을까요? 백범 선생께서 깨달았던 것과 노인이 손자에게 전해 주고 싶어 했던 것을 잘 새기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았으면 해요.

1. 추론적 사고(발화자의 의도 추론하기)

정답해설 : 강연에서 두 가지의 예화를 제시하고 그 예화들을 바탕으로 발화자가 어떤 교훈적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추론하는 문제이다. 먼저 김구 선생의 일기에서 김구 선생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소개된 구절은 인간의 훌륭함을 결정하는 요소는 용모나 건강이 아니라 심성임을 말하고 있다. 마음에 상반된 요소가 있어서 이들이 늘 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음의 주인인 자신이 먹이를 주며 돌보는

노력에 따라 싸움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 노인의 이야기에서는 올바른 심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두 예화는 각각 심성의 중요함, 심성을 갈고 닦는 노력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했을 때에는 바른 품성을 기르고 닦아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③의 추론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건강한 몸’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추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지혜를 얻기 위해 어른들을 본받아야겠다는 것은 들은 내용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추론이다. ④ ‘어려운 일’의 극복에 대하여 추론하고 있으므로 이야기의 핵심적 의도와 관련성이 떨어진 진술이다. ⑤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이야기 속 두 예화를 종합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2.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두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흔하디흔한 삭정이이고, 다른 하나는 페르메르의 <진주 귀고리 소녀>라는 그림입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하죠. 들 중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죠? 네, 당연히 여러분은 페르메르의 그림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겠죠.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풍속화의 대표작으로,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삭정이는 별 가치 없는 자연물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피카소와 맞먹는 어떤 대가가 그것을 미술관에 전시하고 <존재의 역사> 같은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차서 그것을 보려고 미술관을 찾을 것이고, 비평가들은 앞 다투어 혹시 그것에 어떤 의미나 철학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해석하려 들 것입니다.

이 상황은 삭정이가 더 이상 자연물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다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술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재고하게 해 줍니다. 보통 우리는 예술, 특히 미술 작품은 전시적 가치가 있는 어떤 인공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술관의 삭정이에겐 방금 언급한 두 요소 중 ‘전시적 가치’만 있지, ‘인공성’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없습니다. 예술가가 한 일이라곤 이미 존재하는 사물을 미술관에 갖다 놓은 것뿐이죠. 그런데 어째서 그 사물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예술가의 명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가 없더라도 ‘인공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현대 예술의 경향에 있습니다. 즉, 어떤 사물에 감상 대상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만으로도 ‘인공성’이 갖춰진다고 인식한다는 거죠.

2.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강연자는 자료로 제시된 두 가지의 대상이 예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논의하면서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이어서 예술의 두 가지 속성을 ‘전시적 가치’와 ‘인공성’으로 제시하면서 ‘인공성’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할 때 비예술로 보이는 대상도 예술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강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청자라면, ‘어떤 대상이라도 경우에 따라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예술에 대한 과거의 통념이 현대에 들어서는 유효하지 않다. ② 표면적으로 인공성이 없어 보여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전시적 가치가 없어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③ 화자는 전시적 가치와 인공성은 예술 작품의 기본적 속성으로 전제하고 있다. ④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어떤 사물에 감상 대상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만으로도 인공성이 갖추어진다고 보고 있다.

3. 이번에는 라디오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곳은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있는 타림 분지입니다. 텐산 산맥과 쿤룬 산맥 등에 둘러싸여 있으며, 가운데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습니다. 면적은 33만km²로,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1.5배나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분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타림 분지의 생성 원인은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 물리학의 발달 덕분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메갈리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메갈리스란, 지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뜨겁고 무른 맨틀에 자리 잡은 차갑고 거대한 암석 덩어리입니다. 지구를 커다란 달걀이라고 보면 노른자는 핵, 흰자는 맨틀, 그리고 껍질은 지각에 대응하는데, 메갈리스는 달걀 껍질 조각이 흰자로 파고들어 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메갈리스는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판들이 맨틀 위에서 움직이다가 서로 충돌할 때, 하나의 판이 다른 판의 아래로 밀려들어가 그 끝부분이 상부 맨틀과 하부 맨틀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하 600~700km 깊이까지 도달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충돌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맨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판에서 떨어져 나와 맨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 침강 과정은 천만 년에 이를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메갈리스가 침강하게 되면 지각에도 거대한 규모의 침강이 일어나는데, 이곳 타림 분지가 바로 이렇게 해서 생긴 지형입니다.

3. 추론적 사고(설명 방식의 추론)

정답해설 : 다큐멘터리에서는 중국의 타림 분지가 어떤 지질학적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타림 분지’와 ‘메갈리스’는 일종의 현상과 원인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를 ‘상반된 두 사례’로 파악하여 이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고 한
⑤는 이 다큐멘터리의 설명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지질학적 구조를 달걀의 노른자, 흰자, 껍질에 비유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② 분지의 형성 원인을 지구 물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이렇게 거대한 분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 ④ 면적(33만 km²), 메갈리스가 침강해 들어가는 깊이(600~700km) 등을 언급할 때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

4-5.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얼마 전, 동일한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횡수가 3개월간 130회를 웃돈 사람이 1,500명을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 : 예, 그렇습니다. 의료 서비스 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걸 그 환자들의 개인적 특성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의료 서비스의 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대기 시간이 긴 데 반해 진료 시간이 짧아, 과연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좀 더 나은 병원을 찾아 나서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남 : 저는 선생님과 달리, 이 문제의 원인을 건강 보험 제도에서 찾고 싶습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든 적게 이용하든 환자가 지불하는 진료비에는 큰 차이가 없죠. 그 때문에 사람들이 큰 부담 없이 여러 병원을 순례할 수 있는 겁니다.

여 :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 논리로만 보고 계신 듯하네요. 아무리 자기 부담이 적다고 해도, 할 일도 많은데 환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려고 할까요? 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보다 완벽한 진단과 처방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은 병원을 찾아서 자신의 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확실하게 치료하려는 것이지요.

남 : 경제 논리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과 거기서 얻는 이익을 비교해서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의료 서비스에 불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과잉 진료를 받게 만든다는 거죠. 가령,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가 있다고 칩시다. ‘갑’은 건강 보험 덕분에 큰 부담 없이 병원을 쇼핑하듯이 다닙니다. 반면에 ‘을’은 필요할 때만 병원에 가고요. 그런데 의료 서비스를 과잉 소비한 ‘갑’ 때문에 보험 재정에 부담이 생기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갑’뿐만 아니라 ‘을’의 건강 보험료까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을’도 자기만 손해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갑’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4. 추론적 사고(화자의 입장 추론)

정답해설: 남자는 지나친 병원 이용 문제의 원인을 건강 보험 제도에서 찾고 있다.

사람들은 건강 보험에 지불하는 비용과 비교하여 자신이 얻는 이익을 따져보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과잉 진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잉 진료에 대해 남자가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건강 보험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의 손해 의식을 줄이고, 진료의 본인 부담률을 늘림으로써 필요할 때만 병원에 가게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남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본인 부담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④가 적절하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병원 평가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관심을 갖는 여자의 생각에 가깝다. ② 소득 수준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건강 보험료를 조절하더라도 사람들이 건강 보험료의 비용이 병원 진료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보험료와 진료비의 상대적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③ 건강 보험료를 올린다면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과잉 진료의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⑤ 보험료 대비 진료비의 건강 보험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남자의 입장이다.

5. 비판적 사고(자료의 적절성 비판)

정답해설: 여자의 주장은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원인이 병원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자신의 병을 충분하고 확실하게 치료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료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터뷰 자료가 적절할 것이다. ④는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자신이 과연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병원의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병원의 개수에 대한 불만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이다. ② 과잉 진료가 아니라 진료비 부담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이다. ③ 병원에 관한 인터뷰가 아니라 약 조제에 관한 인터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병원을 직접 이용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가 진료한 경우에 관한 인터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이어질 내용 추리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논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서 쓸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다. <보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들을 학생들이 보고서 작성에 이용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내용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논지의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①의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연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업적 이용’이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인터넷 이외의 정보 습득 방법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보고서 작성에 이용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④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태도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많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7. 추론적 사고(내용에 맞게 연상하기)

정답해설 : 문두에 제시된 연상의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삶은 연극’이라는 제목에 연결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둘째는 배우가 연극의 요소들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⑤는 이 두 조건에 따라 진행된 연상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다. 연극의 요소 중 ‘소품’에 초점을 맞춰 연상하고 있는데, ‘소품’이란 연극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품’을 이용한 연상의 경우, ‘적절한 곳에서 쓸모 있게 살아가는 삶’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연결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⑤에서는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살려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는 내용을 끌어내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은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소품’의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내 삶의 터전’이라는 내용이 ‘무대’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②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관객’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③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삶’에 관한 내용이 ‘대본’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④ ‘주목을 받을 때나 그렇지 않은 때’에 관한 내용이 ‘조명’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8. 추론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제시된 자료는 학급 회의에서 나온 발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세 사람의 말을 통해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갑’의 말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강조’라는 내용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을’의 말을 통해서 ‘비유적 표현’의 조건을, ‘병’의 말을 통해서 ‘운율감’이라는 형식적 조건을 제시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④이다. ‘더불어 숲이 되는 정겨운 우리’에는 ‘공동체 의식’에 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으며, ‘모두가 아름답리 고운 나무들’이나 ‘더불어 숲이 되는’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절로 대구의 형식을 취하면서, 4음보의 율격을 지킴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세 조건 중 ‘운율감’과 관련된 조건만 지키고 있다. ② ‘공동체 의식’, ‘운율감’은 나타났지만,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③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라는 비유적 표현은 나타났지만, ‘공동체 의식’이나 ‘운율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별처럼 빛나는 꿈’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

들이 모여'라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부분은 발견할 수 있지만, '운율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9. 추론적 사고(자료의 해석을 통한 활용)

'세계 숲 보전'을 촉구하는 글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논지 전개 방향과 자료를 연결할 경우, ②는 적절하지 않다. '숲 파괴로 인한 폐해'를 전달하기 위해 ㉠을 숲 파괴의 피해 사례로 제시한다는 것인데, ㉠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시민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일 뿐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시민 단체들의 대응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역시 '숲 파괴로 인한 폐해'를 제시하는 논지의 흐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숲의 보존 실태와 부정적 미래를 예상하고 있는 ㉡은 숲이 줄어드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기에 적절하다. ③ 정부의 통제 밖에서 진행되는 아마존 개발은 무분별한 벌목과 개발의 원인으로 제시되기에 적절하다. ④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와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 다국적 곡물업체 사이의 열대우림산 콩 구입 중지 협정은 대규모 삼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인책으로 적절하다. ⑤ 생태 보전에 대한 관심이 먹을거리나 아토피에 비해 매우 적다는 ㉢은 독자의 관심을 촉구하기에 적절하고, 삼림 파괴에 대해 저항한 사례인 ㉣은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기에 적절하다.

10. 비판적 사고 (고쳐쓰기)

정답해설 : 제시된 고쳐쓰기 방안 중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②에서는 '사람들이'와 '느끼겠지요?'의 주어 - 서술어 호응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문장을 살펴보면 두 개의 절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부분에 제시된 절에서 '사람들이'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열게 된다면'이며, 뒷부분의 절에서 '느껴지겠지요?'와 호응하는 주어는 '복도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술 호응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고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둘째 문단은 ㉠에 관한 내용을 상세화하는 내용인데, 안 여단이문과 밖여단이문에 관한 설명만 있을 뿐 안팎으로 여단은 문에 관한 설명은 빠져 있으므로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다. ③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부딪힐'이 요구하는 부사어인 '문에'를 보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의 바로 앞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며 인과 관계로 연결되는 문맥이 아니므로 '그렇기 때문에'보다는 '이렇게'가 적절하다. ⑤ ㉢의 전후 문맥은 여단이문의 여는 방향과 관련되므로, '문을 여닫기 위한 공간의 필요성'은 문맥을 벗어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11. 어휘 · 어법 (자료를 통한 어법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사례들은 종결어미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이

다. 이 사례들을 분석하면 종결어미가 다양한 문법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실제 발화 상황에서 이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①은 적절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제시된 종결 어미들 중 문장의 과거·현재·미래와 같은 시제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똑똑하다고’의 ‘-고’, ‘가느냐가’의 ‘-가’는 문장 성분을 표시해 주는 조사로 종결어미 뒤에 사용되었다. ③ ‘그치겠다’의 ‘-다’는 진술, ‘그치겠니?’의 ‘-니?’는 의문, ‘그치겠구나!’의 ‘-구나!’는 감탄의 의도를 나타낸다. ④ ‘듣습니까?’의 ‘-습니까?’, ‘듣소?’의 ‘-소?’는 발화 상대의 지위나 연령에 따른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상대높임법을 위한 어미이다. ⑤ ‘앉아라’의 ‘-아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로 ‘가다’와 ‘가다’로 끝나는 동사, ‘오다’와 ‘오다’로 끝나는 동사를 제외하고 끝 음절의 모음이 ‘ㄱ, ㄴ’인 동사 어간 뒤에 붙으며, ‘떡어라’의 ‘-어라’ 역시 명령형 종결 어미로 끝 음절의 모음이 ‘ㄱ, ㄴ’이 아닌 동사 어간 뒤에 붙는다.

12. 어휘·어법 (어휘의 특성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과, 사전에 실릴 때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동사를 제시하며 그 뜻풀이와 동사가 쓰이는 구조가 잘 연결되었는지를 평가하라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⑤이다. ‘여기다’의 뜻풀이도 적절하며, ‘여기다’가 쓰이는 구조에서 필요한 성분인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표시하는 조사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깔다’의 뜻풀이는 ‘젓혀서 벌리다’가 아니라 ‘바닥에 펴놓다’이다. ② ‘스치다’의 뜻풀이는 ‘세계 닿거나 마주치다’가 아니라 ‘서로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다’이다. ③ ‘맡기다’의 뜻풀이는 적절하나, 쓰이는 구조에 대한 표시로는 ‘...이 ...을’이 아니라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표시하는 ‘...이 ...에게 ...을’이 적절하다. ④ ‘푸다’의 뜻풀이는 적절하나, 쓰이는 구조에 대한 표시로는 ‘...이 ...에서’가 아니라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표시하는 ‘...이 ...에서 ...을’이 적절하다.

[13-16] 현대시

(가)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작품해설 : 이 시는 국경을 넘나들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결국은 낯선 땅에서 침상 없는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한 조선인 아버지의 임종을 통해 시베리아 유이민의 참담한 실상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아버지가 고향이 아닌 곳(아라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 유랑민들의 고된 삶을 대변한다. 이 시의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풀벌레 소리는 시적 화자의 슬픔을 대변해 주는 대상인 동시에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비극적인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어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제] 아버지의 비참한 임종과 유랑민의 비애

(나) 박용래, '월훈'

작품해설 : 이 시는 겨울 산촌 외딴집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산문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 적절한 점표와 의태어의 사용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은 갯 속 같은 마을에서도 동떨어져 있다. 그러한 외딴집에서 노인은 긴 겨울밤에 시장기를 달래며 짚단의 소리, 새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외로움을 느끼기에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노인의 고독은 심화될 뿐이다. 노인의 발은 기침 소리가 끝나며 이어지는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노인의 서러움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감정이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산촌 노인의 고독감과 그리움

13.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화자가 아버지의 죽음을 회상하는 과거의 장면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있다. 특히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 순간의 장면이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화자의 슬픔은 풀벌레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와 결합되며 자연스럽게 절제되어 있다. (나)는 첩첩산중에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다루고 있다. 동떨어진 마을에서도 외딴집에 살고 있는 노인의 외로운 상황은 배경에 대한 시각적 묘사와 노인이 귀 기울이고 있는 청각적 이미지로 부각되어 있다. 특히 벽이 무너지라고 울고 있는 귀뚜라미는 노인의 처절한 외로움을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월훈의 시각적 이미지는 여운을 주며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우의적이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는 화자의 직접 체험을 표현한 것이다. ③ (가)의 화자는 아버지의 임종에 대한 체험을 절제된 목소리로 담담하게 회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 대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거니와 화자가 대상과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 화자는 노인의 고독과 외로움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노인의 외로움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④ 화자 자신을 대상화하여 표현한 것은 없다. ⑤ 회상하는 방식은 (가)에서 엿볼 수 있다.

14. 추론적 사고(조건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아버지의 임종에 대한 경험을 회고하고 있다. 아버지는 고향도 아닌 곳에서 침상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보기>의 화자가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화자의 아버지는 젊어서 밀수 때문에 러시

아를 오가며 고생을 하셨고, 다시는 갈 수 없는 러시아를, 그곳에 계신 가족들을 생각하며 외로워하신 분이다. 이러한 삶을 사신 아버지이기에 (가)에서 화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대로 울음’을 운 것은, 그만큼 슬픔을 극대화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보기>의 두 번째 작품에서 비록 아버지가 밀수를 하며 위태로운 삶을 사실 때 화자 자신이 아버지에게 성가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에서 아버지의 죽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보면 아버지가 젊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임종의 순간에는 타향에서 침상도 없는 집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다. ② <보기>의 두 번째 작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밀수를 한 것은 결국 가난한 삶 속에서 우리를 키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아버지에게 러시아는 외할머니와 큰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젊어서 먹고 살기 위해 밀수를 다녔던 곳이기도 하기에 러시아 지명에는 아버지의 고달픈 삶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의 첫 번째 작품을 보면 아버지는 러시아를 못 잊어 늘 외로운 분이셨다. 그렇기에 (가)에서 말한 ‘피지 못한 꿈’은 바로 이러한 내용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5.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나)에서 노인이 살고 있는 외딴집은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노인은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며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목가적’이란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전원’의 배경을 떠올리게 하기에 (나)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나)의 화자는 이러한 노인을 관찰하며 그 내용을 서술할 뿐이지, 이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노인의 귀 기울임에서 고독을 읽어내고, 귀뚜라미의 울음을 통해 노인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화자가 노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② 동떨어진 마을의 외딴집은 노인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시켜주고 있다. ④ 마지막 장면의 달무리는 노인의 시선이 머문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처지를 느끼게 하기에 독자에게 진한 여운을 느끼게 한다. ⑤ ‘마을’의 반복, ‘콩깍지, 외딴집’의 반복과 연쇄, ‘짚단, 짚오라기’, ‘새, 새들’, ‘울지요, 읍니다’의 반복과 연쇄가 리듬감을 주고 있다.

16.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풀벌레 소리’는 화자가 느끼는 극도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다. B에서의 겨울 귀뚜라미 역시 짚단과 새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나 누가 찾아올까 하는 노인의 기대감이 허물어졌을 때의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다. ‘겨울’, ‘떼를 지어’는 이러한 노인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화자가 느끼는 극도의 슬픔을 무력한 현실이라 할 수 없다. ③ 관조적이란 대상을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음미하며 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A]와 [B]에서는 화자나 대상의 슬픔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7-19] 언어, ‘발음기관의 구조와 작동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간 발음 기관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에 따른 모음과 자음의 발음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말소리는 인간의 여러 신체 기관의 협력 작용에 의해 만들어는데,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는 다르지만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과 그 작동 원리는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음의 경우에는 후두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자음의 경우에는 입술과 입 안의 여러 기관의 작용에 의해 소리가 분화된다.

[주제] 발음기관의 작용에 따른 자음과 모음의 발음 원리

17.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 작동 원리는 같다고 첫 번째 형식단락에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말소리의 수가 다른 것이 발음 기관 구조의 차이란 언급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단락을 보면, 후두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모음의 분화에 관계를 한다고 나와있다. ② 4단락에 발음에 관계되는 기관들은 후두를 통과해 올라온 공기의 흐름을 특정 위치에서 방해하는 작용을 통해 자음의 소리값을 만들어낸다고 언급하였다. ④ ‘마찰음’은 공기를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것이고,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소리를 낸다. ⑤ ‘비음’은 코안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므로, 코가 막히면 비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18.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인간이나, 침팬지, 오랑우탄은 이 후두의 위치가 모두 목구멍 정도의 높이로 태어난다. 모음은 이 후두의 위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모음은 후두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후두가 목구멍 아래쪽에 자리 잡게 되면서 모음이 분화할 수 있는데 비해, 유인원들은 그 위치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유인원이 다양한 모음을 발성할 수 없는 것은 선천적으로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후두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모음은 후두의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 나게 되므로 후두가 목구멍 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모음 분화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② 인간의 경우에도 갓난아이일 때는 유인원과 마찬가지로 후두의 위치가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 ④ 화석 인류의 발성 기관을 재구해 보았을 때 몇 개의 모음만

발성되었다는 것은 현대인에 비해 완전히 모음이 분화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므로, 후두의 위치가 현대인에 비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⑤ <보기>에 제시된 화석 인류의 증거를 통해 볼 때, 인간이 다양한 말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과도 연관이 있다.

19. 추론적 사고(핵심 개념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고, ‘ㅂ’은 두 입술을 닫는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자음의 조음 위치는 각각 ‘9’와 ‘5’에 해당한다. 모음 ‘ㅓ’는 입과 목 안의 공간 크기가 비슷한 상태에서 발음하고, ‘ㅣ’는 입안을 최소화하고 목안을 최대화하여 발음 한다고 했으므로 각각 ‘㉠’, ‘㉡’에 해당한다. [답] ④

[20-24] [고전시가 + 수필]

(가) 정극인, ‘상춘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전 79수로 된 가사로 글쓴이가 벼슬을 사임하고 향리인 전라도 태인으로 돌아가 만년을 지내면서 봄날의 흥취에 한껏 젖어 온갖 풍류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다. 다양한 표현기법과 고사의 사용을 통해 자연 속의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부귀와 공명을 욕심 내지 않고 청풍과 명월을 벗하는 안빈낙도의 생활 자세를 지니며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노래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표방하는 은일가사의 첫 작품이며, 송순과 정철로 이어지는 호남 가단 형성의 계기가 되는 작품으로도 평가된다.

[주제] 봄의 경치를 완상하며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나) 설장수, ‘어옹’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세속의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어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삶의 모습은 ‘물, 구름, 호수, 안개, 달, 배’ 등 자연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으며, 이와 대립되는 세속적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헛된 이름, 서울 길, 붉은 먼지, 옥당’ 등이 있다. ‘도롱이, 삿갓’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옹으로서의 화자는 실제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안분지족하며 살고 있는 은일자로서의 어부라 할 수 있다.

[주제] 은일자인 어부의 삶에 대한 만족감

(다) 남공철, ‘동원화수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글쓴이의 따뜻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대상의 대비적 특성을 나열하고, 이를 대하는 종의 태도를 드러내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있는 복숭아나무와 불품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잡목의 대비는 글쓴이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기에 적절하다. 대상의 외모와 실용성을 증시하여 복숭아

나무만을 가꾸는 종의 태도를 꾸짖는 글쓴이의 모습에서 만물에 평등한 화자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주제] 사물을 평등하게 대하는 바른 태도

20.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세 작품에서 그려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모두 세속적인 삶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가)의 화자는 부귀공명을 꺼리며, 청풍명월의 자연을 벗삼고 있고, 단표누항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 (나)의 화자 역시 세속적 삶과 명예를 멀리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어부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드러낸다. (다)는 실용적인 복숭아나무나 아무 쓸모없는 잡목이나 모두 생명을 가진 똑같은 것으로 대하고 있기에,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어느 작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③ (나)에서 자연의 이미지와 인간의 세속적 삶의 대비를 통해 주체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④ 화자나 글쓴이가 현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작품은 없다. ⑤ 세 작품의 화자 및 글쓴이는 자신의 현실적 삶에 만족하고 있다.

21. 비판적 사고(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화자가 봉두에 올라 멀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나)에서는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 풍경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와 더불어 '노랫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로 뱃사람인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라 했으나, 사실 부귀공명이 주체이기보다는 화자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한다는 것이기에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푸른색의 이미지로, 세속적 삶의 모습은 붉은 색의 이미지로 대비되어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마지막을 의문 형태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가)에서는 '이만하면 만족한다.'로, (나)에서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로 읽어내야 한다. ④ (가)에서는 봉두에 올라서 바라보는 풍경과 더불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나) 또한 안개 낀 호숫가와 배를 비추고 있는 달빛의 풍경과 더불어 세속을 멀리하겠다는 화자의 정서가 함께 드러나 있다.

2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화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준다. 즉, (나)의 화자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부라 했다. 그러므로 (나)에서의 자연은 화자와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달이 배를 비추고

있는 풍경은 화자가 살고 있는 어촌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줄 뿐이지, 달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은 아니다. [답] ①

23. 추론적 사고(작품의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다)에서 ‘나’는 복숭아나무만을 가꾸고 잡목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종을 나무란다. 종은 복숭아나무가 꽃도 좋고 열매까지 주는 이익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잡목은 미관상으로도 볼 것이 없고, 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나’는 복숭아나무이든, 잡목이든 모두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에, 종에게 잡목도 가꾸라 명령한 것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④ ‘나’와 ‘종’은 모두 복숭아나무의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미적 가치 또한 인정하고 있다. ③, ⑤ ‘종’은 잡목의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4. 추론적 사고(어휘의 함축성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흥에 겨워 ㉠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간다. 그리고는 산 위에서 마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풍경에 심취해 있다. 그러므로 ㉠는 화자의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는 (다)의 글쓴이가 복숭아나무나 잡목이나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대상이다. 즉, ㉡는 뒤에 이어지는 ‘가죽나무, 상수리나무’와 대비되는 대상이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의미를 추리해 보면 ‘어진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가죽나무, 상수리나무’는 ‘어질지 못한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② 두견화는 봄의 계절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5-28] 과학, ‘과학 기기 선도 사용자의 역할’

지문해설 : 이 글은 유기 화합물의 조성과 구조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술들 중에서 물리학의 양자 이론에 힘입어 발명된 NMR 분광계의 의의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물리학에서 시작된 기기가 화학자인 로버츠에 의해 유기 화학의 핵심 장치로 탄생하게 된 과정을 다룸으로써 설명된다. 즉 로버츠는 분자의 파괴나 변형 없이 화합물의 구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NMR 분광계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도 사용자’가 되었다. 그는 ‘선도 사용자’로서 유기 화학계에 이 기구의 유용성을 열심히 알렸을 뿐 아니라 기구가 유기 화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NMR 분광학은 유기 화학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주제] 선도 사용자의 역할과 의의

25. 추론적 사고(대상의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물리학 분야의 기구가 화학자인 로버츠에 의해 유기 화학에 활용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분자의 파괴나 변형 없이 화합물의 구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구인 NMR 분광계는 로버츠에 의해 널리 보급되었다. 그는 이 기구의 유용함을 자신의 연구 방향에 적합하도록 배리언 사에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고, 배리언 사의 협조에 힘입어 자신의 연구를 순조롭게 진척시킬 수 있었다. 즉 그는 ‘선도 사용자’로서 기구의 장점을 관련 과학 분야에 널리 알려서 유용한 기구의 보급에 기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로버츠의 역할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답] ④

26. 추론적 사고(다른 대상과의 비교 분석)

정답해설 : 지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로버츠의 ‘NMR 분광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후, 이를 <보기>에 제시된 미국 물리학자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와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다.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는 아인슈타인의 중력과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통 형태의 기구로서, 웨버가 직접 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물리학계의 공인을 받지 못하고 조작 시비에 휘말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상의 존재 여부를 알고자 했던 것은 로버츠의 ‘NMR 분광기’가 아니라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NMR 분광계는 과학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활용했으나,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는 이를 이용한 연구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조작 시비에 휘말리기까지 했다. ② NMR 분광계는 배리언사에서 제작한 것이었지만,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이었다. ④ NMR 분광계는 물리학 분야의 양자이론에 힘입어 만들어진 것이고,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⑤ NMR 분광계는 화합물의 구조를,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는 중력과의 존재를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는 지각하기 어려운 대상을 알아내고자 한 것이다.

27.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화학자인 로버츠는 물리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된 NMR 분광계라는 기구를 유기 화학분야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기구를 다른 과학자들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헌하였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배리언사와의 공조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한 후, 선택지에 나온 반응의 타당성을 검토 해볼 때, 배리언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②와 같은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NMR 분광계가 배리언사의 수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물리학의 실험 기구였던 것이 유기 화학 연구의 핵심 장치로 쓰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③ 화학자 솔러리는 대학의 유기 화학자들과 함께 NMR 분

광계를 이용한 협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④ 배리언 사는 화학자 솔러리를 고용하여 NMR 분광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으므로, 이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 셈이다. ⑤ 로버츠가 자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커지자 자신의 연구 방향에 맞게 NMR 분광계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세부 연구 분야의 연구 방향이 로버츠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 어휘·어법 (단어의 유사성 이해)

정답해설 : ‘일찍이’는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의 의미와 ‘예전에, 또는 전에 한번’ 등의 의미로 쓰인다. 선택지에 주어진 문장들 속에서 ‘일찍이’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⑤만 ‘예전에’의 의미를 담고 있고, ①, ②, ③, ④는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답] ⑤

[29-32] 고전소설, ‘전우치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허균의 ‘홍길동전’을 모방하고, 선조 때의 실제 인물인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한 도술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전우치는 도사를 만나 도술을 배워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조정의 무능과 부패, 백성들의 고통을 고발하는 사회 의식이 담겨 있기는 하나, 지나치게 도술에 의존하는 단점도 갖고 있다. 제시문에서도 조정에서 임시 벼슬을 맡은 전우치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술을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주제] 전우치가 도술을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함

29. 추론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전우치는 ‘문사낭청’이라는 조정의 임시 벼슬을 하고 있다가 도적으로 잡힌 이들의 신문 과정에서 역적으로 몰리게 된다. 조정에서 내린 벼슬을 받지 않았다고 한 ②는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원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임금에게 요청하여 자신이 도술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③ ‘우치 역모함을 짐작하되 나중에 보려 하였더니’라는 구절 등으로 볼 때, 임금은 전우치를 평소 전우치를 신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전우치가 백성의 고통, 조정의 무능을 참다 못하여 집을 버리고 천하와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한 내용으로 볼 때 전우치가 개인적 이익보다 대의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장난함’이라는 임금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비판)

정답해설 : [A]에서 높은 스승에게서 신선의 도를 배웠다고 하여 득도의 과정이 드러난 반면, <보기>에서는 득도의 과정이 나와 있지 않았다. <보기>의 ‘신선’은 전우

치 아버지의 태몽에 등장하였으며, ‘도’는 전우치에게 불도를 가르친다는 대목에서 나왔는데 이를 종합하더라도 ‘득도’로 연관짓기는 어렵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는 전중보가 꿈을 꾸 후 아들을 얻었다. ② <보기>는 [A]와 달리 전중보의 행적이 제시되어 전우치가 불도를 배우게 된 과정과 관련지어지고 있다. ④ [A]에서는 ‘조선 초’로 시기가 제시되었으나, <보기>에서는 <인조 대왕 시절>로 시기가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⑤ <보기>에는 전우치의 아버지의 근본이 ‘관노’임이 제시되어 있다.

31. 추론적 사고(장면과 소재의 기능과 특성 추론)

정답해설 : ㉠은 전우치가 그린 그림에 대한 묘사로, 그림은 전우치가 임금 앞에서 그림 속의 공간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중간 통로가 되고 있다. 또한 그림은 전우치의 도술적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나. 전우치가 임금을 단죄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우치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르. 사건의 요약적 제시란 시간의 흐름을 압축하여 사건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의 장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그림이 사건의 요약적 제시 방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2. 어휘·어법(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각골통한(刻骨痛恨)’은 ‘뼈에 사무쳐 맺힌 원한’을 뜻하므로, ‘어찌 원통치 아니리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침소봉대(針小棒大) : 바늘만 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한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크게 허풍을 떨어 말함. ② 목불인견(目不忍見) :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음. ③ 수수방관(袖手傍觀) : 팔장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를 않고 그대로 버려둠. ⑤ 기사회생(起死回生) : 거의 죽어가다 살아남.

[33-35] 예술,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지문해설 : 이 글은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이라는 미학 개념을 ‘무관심적 관심’, ‘목적 없는 합목적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옹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적 무관심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예술의 지적, 실천적 역할이 도외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예술의 고유한 가치는 진리나 선과 같은 가치 영역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더욱 고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 예술의 고유한 가치와 실천적 역할의 조화

33. 사실적 사고(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독립 선언이 곧 고립 선언은 아니다’라는 의미는 예술의 고유한 가치만

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다른 가치 영역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기 힘들어 언급한 것이다. 즉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고립 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예술이 사회에 대한 실천적 역할을 도외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답] ⑤

34. 추론적 사고(핵심 관점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이 주는 모든 외적 관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오로지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에만 집중하는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미학의 개념이다. 이는 대상의 형식적 측면에만 관심을 갖는 ‘무관심적 관심’이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관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화를 감상할 때 영화의 색채 묘사나 카메라의 시점 처리와 같은 형식적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③이 칸트의 입장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모순 고발과 전망 제시’라는 영화 제작의 의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② 영화를 ‘보고 즐기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영화 ‘주인공’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⑤ ‘새로운 깨달음’을 영화의 목적으로 보고 있다.

35.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쾨베르크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의 높낮이와 리듬’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도외시킬 수 없고, ‘주음-부음 관계를 파괴하는 불협화음 전략’에 담겨 있는 억압적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간과할 수 없다. 음악이 갖고 있는 내적 의미 파악과 음악 외적인 지적·실천적·역할 모두를 추구하고 있는 음악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답] ③

[36-39] 인문,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간이 사고 작용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형성하여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뒤,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관찰 사례를 들어, 이러한 인간의 사고 작용이 사물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하도록 하는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 글이다.

[주제] 사고 작용의 기능과 한계

36.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첫째 문단에서 지식 획득에 과정에서 사고의 기능을 언급하면서 사고 작용을 통해 사물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문단부터는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사례를 들어, 경험적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사고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상화된 관

념에 의지하여 판단함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답] ④

37. 추론적 이해(시각 자료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 글의 셋째 문단에 따르면, 사물의 속성은 변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물에 대한 ‘관념’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사과라는 사물의 크기를 보는 시점에서 사과의 모양에 대한 관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둘째 문단과 <보기>를 견주어 볼 때 사과의 색깔, 모양, 크기를 순서대로 관찰하면서 색깔의 관념, 모양의 관념, 크기의 관념을 순서대로 얻는다고 했으므로,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아직 크기의 관념이 의식 속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둘째 문단과 <보기>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관찰하여 얻은 세 개의 관념을 종합하여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했으므로,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아직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③ 셋째 문단에서 사물에 대한 관념은 변하지 않지만 사물의 속성은 변한다고 했으므로, 사과의 모양을 보는 시점에서 색깔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에서 사물의 속성은 변해도 사물에 대한 관념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사과의 모양을 보는 시점에서 색깔의 관념은 기억으로 남아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38. 추론적 이해(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 글의 주제는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이다. 이 글에서 우리의 사고는 시공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추상 작용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고의 한계이다. ①에서 강의실의 속성이 변했기 때문에 ‘이 강의실’은 ‘어제의 강의실’과는 당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어제의 강의실’에 대한 관념 때문에 ‘이 강의실이 어제의 이 강의실이 맞나요?’라고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는 이 글에서 설명한 사고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질문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④, ⑤ 도형의 종류, 자료 정리, 자신의 약속에 대한 망각, 덧셈을 잘할 수 있는 비법 등은 이 글에서 설명하는 사고의 한계, 즉 사고 작용을 통해 사물을 인식할 때의 한계와는 무관한 주제들이다.

39. 어휘·어법(용언의 불완전한 활용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의 어간 ‘불구하-’는 ‘-에도’, ‘-는데도’, ‘-는데도’, ‘-은데도’의 뒤에서 주로 ‘불구하고’의 꼴로 쓰이며, ‘거리끼지 않다. 얽매이지 않다.’는 뜻을 나타낸다. 즉, ‘-고’라는 어미 이외에는 다른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의 밑줄 친 용언의 어간도 일부의 어미와만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용언들이다. 하지만 ㉠에서 ‘애처롭게’의 어간 ‘애처롭-’은 ‘애처롭게’, ‘애처로워’, ‘애처롭지’, ‘애처롭고’, ‘애처

로운' 등 다양한 어미와 자유롭게 결합한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허구하다'는 주로 '허구한'의 꼴로 쓰이므로 활용 방식이 '불구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③ '막다르다'는 주로 '막다른'의 꼴로 쓰이므로 활용 방식이 '불구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④ '서슴다'는 주로 '서슴지'의 꼴로 쓰이는 불완전 동사로서 활용 방식이 '불구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⑤ '가공하다'는 주로 '가공할'의 꼴로 쓰이므로 활용 방식이 '불구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40-43] 현대소설 - 이상, '날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현대인의 도착된 삶과 자아 분열의 의식 속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그린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심리 소설이다. 이 작품은 억압적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지식인이 차츰 현실을 인식하고 억압적인 현실에서 탈출하여 자기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나'는 매춘부인 아내에게 기생해 사는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일상적인 상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날 그날을 맹목적으로 살아간다. 아내의 매음 현장은 그에게 금단의 공간이며, 아내의 매음 시간은 아내가 준 수면제에 의해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 된다. 여기에 제시된 부분은 이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나'의 심리적 변화 과정이 나타난다. '나'는 '정오 사이렌'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이를 통해 '재생'의 욕망으로 불타게 된다. 여기서 '날개'는 억압된 세계, 전도된 질서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한다.

[주제] 무기력한 삶과 자아 분열 속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아를 찾으려는 의지

40.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정답해설 : 이 소설은 객관적인 진술보다는 서술자인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며, 독백적 어조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서술자의 내면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나'가 지닌 자의식의 혼란과 자아 분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피곤한 생활이 푹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늑흐늑 허비적거렸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회상의 기법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답] ②

41.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추리)

정답해설 : 작품 속에서 특정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묻는 유형이다. 이 작품의 배경인 일제 강점기의 서울에서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은 매우 높은 곳이었기에 건

물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옥상에 올라와서 ‘나’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면적 성찰을 한다. 또한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조망하면서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택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옥상에서 바라본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쓰코시 옥상이 나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인공인 서술자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계기는 ‘미쓰코시 옥상’이 아니라 ‘정오의 사이렌’이다. [답] ②

4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에 나타나는 ‘나’의 심리 변화에 주목해 볼 때, ㉠ 이후로 ‘나’의 심리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후 ‘나’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가 담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기>를 참조할 때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은 주인공의 의식의 전환을 보여 줄 뿐,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⑤ <보기>에서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을 읽을 때는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3. 추론적 사고(사건의 상징적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폐쇄적이고 무기력한 삶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몸부림일 뿐이므로, 이를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아내’가 현대 문명을, ‘나’가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에서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을, 지식인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이 작품에서 ‘나’는 ‘아내’를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보기>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변덕인다고 한 것은, 사라졌던 ‘나’의 희망과 야심이 다시 살아남을 표현한 구절이므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46] 기술, '기술 영향 평가'

지문해설 : 이 글은 국가기술 정책의 수단인 기술 영향 평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글이다. 기술·발전은 인간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기 때문에, 기술 영향 평가는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변화의 방향을 통제해야 한다. 그런데 초창기의 기술 영향 평가는 사후적 평가와 처방에 주력했기 때문에 통제의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기술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주제]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 방법이 갖는 의의

44. 사실적 사고(정보의 개괄적 확인)

정답해설 : 기술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기술 통제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과학적 기술 예측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기술에 대한 완전한 평가와 예측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학적 기술 예측이 기술 통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한 ②번 답지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④ 기술의 영향에 대해 예측을 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기술 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둘째 문단에서 기술 영향 평가는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및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 영향에 대해 평가한 다음, 기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되어 있다.

45. 추론적 사고(논지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기술 예측 결과를 사후에 평가하는 초창기의 기술 통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에 평가하고 처방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그 기술의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사후적 기술 영향 평가는 기술을 통제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전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가 완벽한 기술 정책이 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초창기 기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평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정답] ③

46. 추론적 사고(논리적 전제의 추리)

정답해설 : ‘통제의 딜레마’란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 어떤 기술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지라도, 그 기술의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청정에너지 기술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된 까닭에 중단하는 것이 어렵게 된 ④번의 사례와 가장 유사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시장 원리에 따른 소비자들의 평가에 따른 선택이다. ②, ③사전에 기술의 결함에 대해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이다. ⑤기술의 불완전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의 예측 결과를 잘못 계산하여 사고가 난 사례이다.

[47-50] 사회, ‘금융의 사회적 역할-마이크로크레디트의 사례’

지문해설 : 이 글은 은행의 핵심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빈곤층의 자활을 지향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디트 단체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 실시한 공동 대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고, 해당 프로그램이 거둔 사회적 효과에 대해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 사업을 벌일 인적·물적 자본의 확보가 자활의 핵심요건이라고 파악하고, 실제로 빈곤층이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대출을 실시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공동 대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면서 금융 공공성의 가치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주제] 금융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47. 추론적 사고(중심 화제의 속성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 나오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은 금융 배제층에 대해서도 창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몇 명의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연대 책임을 느끼게 하는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은행을 무색케 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은 기본적인 창업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진행되는 것으로 무상 원조가 아닌, 적은 돈이지만 사업자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은 ‘가난한 사람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ㄴ과 ㄹ이 적절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④

48. 추론적 사고(추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지문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 용자를 희망하는 최저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공동 대출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 명확히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여러 명이 모여서 대출을 한다는 점, 모인 다섯 명 모두에게 한꺼번에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선택지에 나온 내용들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동 대출 프로그램이 유독 여성들을 대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창업 교육의 효과가 남성에 비해 크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특별히 지문에는 밝혀 놓지 않았지만, 방글라데시임을 고려해 볼 때, 그 사회에서 빈곤하면서도 더욱 약자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추리해볼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② 분할 상환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갚는 것이므로 한꺼번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 부담이 적다. ③ 서로가 상대에 대해 얼마나 자활 의지가 있는지 파악한 후에 짝을 짓게 되므로, 은행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자활 의지를 지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④ 동료의 돈을 갚아야 자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동료의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도 노력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짝을 이룬 사람들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⑤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추가 용자가 가능하므로, 돈을 빌려간 사람은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게 될 것이다.

49. 비판적 사고(대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답해설 :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은 금융 배제층에게 소액의 창업 자금을 부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보기>는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이 사회적 관심을 받다 보면, 해당 단체가 원래의 취지를 간과한 채 외형상의 성장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양질의 창업 지원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가 초심을 지키면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런 <보기>의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어떤 방안을 내세울 수 있는지 고르는 문제로, <보기>의 사고와 유사한 것을 찾아야 한다. 이 때의 핵심은 창업 지원 서비스가 금융 배제층에게 소액의 창업 자금을 용자해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신력 있는 지표가 개발되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한다면 외형상의 성장에만 주력하는 폐해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④

50. 어휘어법(문맥적 의미의 이해)

정답해설 : 지문을 통해 ㉠ ~ ㉣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이를 선택지에 쓰인 해당 단어의 의미와 비교해 보는 문제 유형이다. 어휘의 문맥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지문에 쓰인 어휘와 비교하여 유사한 것과 다른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의 ㉣에 쓰인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거나 시작하여 펼쳐 놓다’의 의미로

쓰였지만, ⑤의 ‘별이다’는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치하다’는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이다’의 의미이다. ② ‘희박하다’는 ‘감정이나 정신 상태 따위가 부족하거나 약하다’의 의미이다. ③ ‘떨어지다’는 ‘수준이 처지거나 못하다’의 의미이다. ④ ‘거두다’는 ‘좋은 결과나 성과 따위를 얻다’의 의미이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⑤ 2.⑤ 3.① 4.④ 5.② 6.③ 7.③ 8.④ 9.② 10.②
11.⑤ 12.⑤ 13.⑤ 14.③ 15.① 16.② 17.② 18.③ 19.④ 20.⑤
21.④ 22.① 23.① 24.③ 25.④ 26.① 27.② 28.③ 29.④ 30.①
31.① 32.③ 33.① 34.① 35.③ 36.④ 37.③ 38.⑤ 39.③ 40.④
41.④ 42.⑤ 43.① 44.④ 45.⑤ 46.② 47.② 48.⑤ 49.⑤ 50.②

[1-5] 듣기

1.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제 꾸넀 꿈 이야기 하날 들려 드리겠습니
다. 전 꿈속에서 낯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간판을 발견했답
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 호기심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
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인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전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인
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물건을 파느냐고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엇이든 다?’ 전 무엇을 사야 할까 생각하다가 말했합니다.

“사랑, 부귀 그리고 지혜하고 건강도 사고 싶습니다.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요. 지금 바로 살 수 있나요?”

그러자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한번 잘 보게나. 여기에서 팔고 있는 것은 무르익은 과일이 아니라 씨앗
이라네.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씨앗들을 잘 가꾸어야 할 걸세.”

1. 추론적 사고(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 추리)

정답해설 : 화자는 꿈속에서 행복을 파는 가게로 가게 된다. 그 가게에서 물건을 파
는 노인은 사랑, 부귀, 지혜, 건강을 사고 싶다는 화자에게 “여기에서 팔고 있는 것
은 무르익은 과일이 아니라 씨앗이라네.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씨앗들을
잘 가꾸어야 할 걸세”라고 말해 준다. 여기서 ‘무르익은 과일, 즉 좋은 열매’는 화자
가 소망하는 것들(사랑, 부귀, 지혜, 건강)을 의미하는 데, 그것을 얻기 위해 ‘씨앗
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은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답] ⑤

2.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 이번 동아리 음악 감상회는 드뷔시로 한다면서요. 그런데 드뷔시의 음악은 아무리 들어 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 정말 드뷔시의 음악은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체계적인 음악을 선호하던 당시 경향에 비한다면 뭐랄까, 실체가 없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 드뷔시도 처음에는 그 당시 음악의 흐름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뭐, 전통에 대한 도전이라고나 할까.

남자: 그래도 맺고 끊는 게 있어야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의 음악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뭐랄까, 좀 몽롱하다고나 할까.

여자: 맞아요. 드뷔시 음악의 성격을 제대로 보셨네요. 드뷔시는 화성을 색채로 보았어요. 음악적 분위기로 만들어 내는 빛이랄까. 당시 독일의 음악가들은 화성을 철학이나 한편의 희곡처럼 생각했대요. 선율을 고조시키고 이완시켜 즐거리를 부여하는 식이지요. 그런데 드뷔시는 이런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선율을 보여 주고 싶었나 봐요.

남자: 그렇군요. 그래도 저는 음악에서 기승전결 같은 구성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자: 음악이 꼭 주어, 서술어로 이어지는 문장이 될 필요는 없겠지요. 전 새로운 표현으로 음악을 담아내려는 그의 시도가 오히려 존경스럽더라고요. 한번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들어 보세요. 짧은 곡이지만 드뷔시 음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작곡가 블레즈가 현대 음악은 이 곡으로 깨어났다고 한 바로 그 곡이죠.

2.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남자와 여자는 동아리 음악 감상회의 주제인 드뷔시의 음악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자의 말에 따르면 드뷔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찾으려고 했고, ‘전통에 대한 도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자는 드뷔시의 음악이 맺고 끊는 게 없다고 했고, 여자는 그것이 드뷔시 음악의 성격이라면서 화성을 철학이나 희곡처럼 생각했던 당시 독일 음악가들과 달리 드뷔시는 이런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선율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에서 기승전결 같은 구성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다는 남자의 말에 대해 여자는 ‘새로운 표현으로 음악을 담아내려는 드뷔시의 시도’가 존경스럽다고 말하며 현대 음악은 드뷔시의 곡으로 깨어났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이상의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드뷔시 음악의 특징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새로운 표현으로 음악을 담아내려는 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낸 표제와 부제는 ⑤번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악보로 쓴 회곡’, ‘선율의 고조와 이완이 줄거리가 된’ 등의 표현은 모두 드뷔시가 극복하려 했던 당시 독일 음악가들의 경향에 해당된다. ② ‘소리로 빛은 색채의 향연’은 드뷔시에 해당되지만, ‘화성을 철학으로 승화시킨 음악’은 드뷔시보다는 당시 독일 음악가들에 해당된다. ③ ‘분명한 맺고 끊음의 미학’은 드뷔시 음악의 성격과 거리가 멀다. ④ 드뷔시는 ‘전통에 대한 도전’을 했다고 했으므로 거리가 멀다.

3.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밤에도 햇빛이 하늘에 비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대일조라는 천문 현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대일조란 밤하늘에 희미한 빛이 타원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 빛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두운 밤일 때, 지구 반대편 저쪽을 태양이 비추고 있겠죠? 그 햇빛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에 비치는 게 바로 대일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정말 가능할까요?

대일조 현상의 비밀을 밝혀 준 건 우주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입니다. 이 우주 탐사선은 태양계의 행성들 사이의 먼지가 대일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 먼지가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햇빛을 산란하는 거죠. 산란이란, 빛이 불규칙하게 흩어지는 현상인 건 알고 계시죠? 산란되는 빛 중에서도 빛의 진행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산란되는 빛이 가장 강하답니다. 바로 이 빛들이 모여 대일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일조를 언제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름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는 장소와 겹치기 때문에 보기 어렵고, 겨울에는 대일조보다 더 밝은 은하수가 빛나고 있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일조는 봄과 가을에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일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가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대기 오염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일조를 보기 위해 몽골의 초원과 같은 곳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은은히 빛나는 자연 그대로의 밤하늘을 잘 볼 수 없다는 게 아쉽기만 하네요.

3.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강연에서는 ‘대일조’라는 천문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강연 내용에 따르면, 대일조는 ‘밤하늘에 희미한 빛이 타원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이며, 이 현상의 비밀을 밝힌 것은 우주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임을 알 수 있다. 우주 탐사선이 밝혀낸 대일조의 원인은 태양계 행성들 사이의 먼지인데, 이 먼지가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햇빛을 산란(빛이 불규칙하게 흩어지는 현상)하고, 이렇게 산란되는 빛들이

모여 대일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강연 내용 중에 대일조는 봄과 가을에만 볼 수 있고 여름과 겨울엔 볼 수 없는데, 여름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는 장소와 겹치기 때문이고 겨울에는 대일조보다 은하수가 더 밝게 빛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우주 탐사선이 밝혀낸 것은 대일조 현상 자체가 아니라 대일조 현상의 원인이므로, 대일조 현상 자체가 우주 탐사선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진술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 ①

4~5. 다음은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남):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돗물 정책을 담당하시는 박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김 박사(여): 네,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공단 폐수 방류 사건 이후에 17년간 네 번에 걸친 종합 대책이 마련됐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돗물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수돗물 사업이 민영화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김 박사(여):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정부도 수돗물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기술 수준도 세계적이고요. 그리고 효율성 문제는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설 가동률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고, 누수율도 15%나 된다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 보수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상태로 민영화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돗물 가격의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물 산업 강국이 라는 프랑스도 민영화 이후에 물 값이 150%나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회자(남): 박 과장님, 김 박사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과장(남): 민영화할 경우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격 인상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와 잘 협조하면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수돗물 사업을 민간 기업이 운영하게 된다면, 수질도 개선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시설 가동률과 누수율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4. 추론적 사고(이전에 말한 내용의 추론)

정답해설 : 사회자는 지금까지 수돗물 정책 담당자의 말을 들었고 이번에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자 시민 단체의 대표인 김 박사는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의 핵심이 ‘수돗물 사업의 민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자가 수돗물 사업이 민영화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분도 많을 것이라고 하자, 김 박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효율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 통계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면서 수돗물 사업의 민영화가 물 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정책 담당자가 방금 전에 효율성 문제를 근거로 수돗물 사업을 민영화하자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정책 담당자는 민영화할 경우 어느 정도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② 사회자의 두 번째 말로 볼 때 정책 담당자가 ‘전문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담당자가 주장한 내용은 ‘기술 교육 강화’가 아니라 ‘수돗물 사업의 민영화’이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③ 종합적인 대책 마련으로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 굳이 민영화할 필요가 없는 셈이므로 이는 정책 담당자의 의견과 상반된다. ⑤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므로 정책 담당자가 이전에 말했을 내용으로 볼 수 없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여성 토론자(시민 단체 대표인 김 박사)는 시설 가동률 50%, 누수율 15%, 민영화 이후 물 값이 150% 인상된 프랑스의 사례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방인 수돗물 정책 담당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여성 토론자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③ 여성 토론자가 논박하면서 제시한 근거 중에 사회적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 ④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여성 토론자의 말 중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여성 토론자의 말 중에서 상대방의 반론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내용으로부터 ‘학습’에 관한 글을 쓰려 한다고 했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등산 배낭을 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학습’과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에서의 유사성을 토대로 새로운 내용 생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유추의 사고가 작용한다. ③과 같이 ‘여러 학습 방법을 비교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배낭 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한다’는 내용이 제시

되었어야 한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는 등산 배낭을 꾸릴 때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꾸리면 안 된다는 내용에 대응된다. ② 이는 욕심을 내서 많이 가져가고 싶더라도 체중의 1/3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에 대응된다. ④ 배낭의 무게가 등 전체에 골고루 분산 되도록 가벼운 것은 아래에, 무거운 물건은 위에 넣어 체감 하중을 줄인다는 내용에 대응된다. ⑤ 여행 목적지와 일정을 고려하여 배낭을 꾸린다는 내용에 대응된다.

7. 추론적 사고(계획에 맞게 내용 선정하기)

정답해설 : 주제는 체계적인 어린이 건강 증진을 마련하여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운 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생성하고 있다. 그런데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 ‘어린이 보육 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했다. 보육 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은 주제를 표현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가 수집해야 할 자료는 ‘어린이 건강 증진 방안’과 관련된 자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상 독자에게 필요성을 환기시키면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② 국내·외의 자료나 제도의 현황 조사를 통한 비교·대조는 우리에게 어린이 건강 증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시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④ 문제의 시급성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⑤ 구체적인 건강 증진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다.

8. 추론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제시된 조건은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명승고적에 대한 글을 써야 한다. 첫째가 비유적 표현, 둘째가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성, 셋째가 완곡한 표현이다. 이 모두를 충족한 것은 바로 ④번이다. ‘○○산이 고장의 수호신’이라는 점에서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 있고, ‘오랑캐와 싸웠던 의병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내용에서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산의 정상에서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기개를 일러 주지 않겠느냐’는 내용에서 완곡한 권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이 산을 찾아달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천 년 전 살았던 옛사람들이 묻힌 곳’에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조건만 지키고 있다. ② ‘물안개가 전설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추억을 만들어 보라는 내용에서 완곡한 권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망부석인 양’에서 비유적 표현을, 오백 년 전 이국으로 떠난 이들의 피붙이들이 만든 정자에서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이 나타나 있다. ⑤ ‘술을 치맛자락 삼아’에서 비유적 표현을, 앞마당에서 술잎 향기를 즐겨 보라는 말에서 완곡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9. 비판적 사고(자료의 해석을 통한 활용)

정답해설 : 개요의 초고를 작성한 후 새로운 글감 세 가지를 접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글감을 모두 활용하여 개요를 보완한다고 했으므로 글감을 분석하여 개요의 어디에 보완하면 좋겠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글감 ㄱ은 독일의 사례로 정부 기관이 환경 영향 평가를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글감 ㄴ은 우리나라의 사례로서 개발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정부 기관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ㄱ과 ㄴ의 사례는 같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그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ㄷ의 글감에서 우리나라의 개발 사업자가 왜곡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승인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추가된 세 개의 글감은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II-2-가. 제도상의 문제'에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서 개요를 보완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우리나라의 잘못된 제도를 보여주고 있기에 성과라 할 수 없다. ③ 추가된 글감의 자료는 감독 소홀이라기보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추가된 글감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환경 오염 처리 시설의 언급은 없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

정답해설 : ㉠의 문장은 수정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장 구조로 볼 때,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로 이어져 있다. 즉, 개발로 인해라는 어구는 양쪽에 다 걸리는 것이다. 결국 '개발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로 되기에 이는 피동의 형태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개발로 인해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따라'로 고친다면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답] ②

11. 어휘·어법 (어휘의 특성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사례들은 두 단어로 표현된 것을 접사를 사용하거나 합성에 의해 같은 의미의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세계 밀었다'는 '밀다'에 '-치-'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밀쳤다'로, '몹시 불었다'는 '불다'를 '-디-'라는 연결어미를 이용해 합성어로 만들어 '불디불었다'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의미의 변화는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⑤에서 '심하게 싸웠다'는 두 단어를 '싸움질했다'는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의미에 변화가 생겼다. 즉, '-질'이라는 접미사는 어떤 행동을 저급하게 표현하는 의미를 덧붙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심하게 싸웠다'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크다'에 '-다랗-'이라는 접미사가 결합되었다. ② '찾았다'에 '되-'라는 접두사가 붙었다. ③ '들었다'에 '엿-'이라는 접두사가 붙었다. ④ '디뎠다'에 '헛-'이라는 접두사가 붙었다.

12. 어휘·어법 (자료를 통한 어법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맞춤법 규정 19항과 그 해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여 어휘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맞춤법 규정의 붙임에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⑤의 ‘마개’를 분석해 보면 ‘막+애⇒마개’가 된 것이기에 어간에 ‘애’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마개’는 원래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1항 [붙임]의 사례와 같은 이유로 해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이며, 의미 또한 어간의 뜻과 멀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떡이’로 적는 것이다. ② 장신구로서의 ‘목걸이’ 또한 ‘-이’가 결합되었고, 어간의 뜻과 멀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적었다. ③ ‘마중’에서 ‘-옹’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이면서 동시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이 결합되어 품사가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④ ‘같이’는 ‘-이’나 ‘-음’이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며 어간의 뜻도 유지하고 있기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13-16] 현대시

(가) 김광균, 와사등

작품해설 : 이 시는 도시를 배경으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를 잘 활용한 작가답게 이 작품에서도 감각적인 표현과 참신한 비유가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작품의 중심 소재가 되고 있는 와사등은 도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으며,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의 절망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제] 도시적 삶에서 느끼는 고독과 비애

(나) 김수영, 사령(死靈)

작품해설 : 이 시는 화자인 ‘나’와 ‘벗’의 대화를 기본 설정으로 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까지도 답답함을 호소하며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자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활자요, 활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는 고개를 숙이며 듣고 있을 뿐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 시에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비겁함과 소심함을 자책하는 한 시대의 지성인의 양심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자성(自省)

(다)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작품해설 : 이 작품에는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세속적인 욕구와 자연에서의 은거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쉽게 마음을 정하지도 못한 채 갈등하고 있다. 작품 전체가 현실 세계로부터 일탈(逸脫)하여 자연 속으로 침잠(沈潛)하기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노래는 18수의 연시조로 이루어졌으며 강호가도(江湖歌道)의 후기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자연이라는 공간을 문학 속으로 끌어들여 작가의 실존적 모습을 제시한 작품으로 문학사적 의미를 가진다.

[주제] 세속적 삶의 욕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

13. 비판적 사고(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도시 속에서 방향성을 잃고 삶의 비애에 잠겨 있다. 낮설은 거리와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 지를 모르고 있다. 고뇌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화자가 고뇌에 차 있음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나)의 화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를 고개 숙이고 들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고요한 현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행동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는 공명의 길과 강호에서 자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몰라 갈등하고 있다. [답] ⑤

[오답파하기] ① (가)에서 화자의 고뇌는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시도나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화자 또한 행동해야 함을 잘 알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기에 도피하고 싶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② (가)에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나 화자의 인식도 엿볼 수 없다. (다)에서 화자는 마지막 수까지 자신의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③ (나)에서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잘 드러나 있지만, 화자는 이에 대해 대결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내면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침묵만 하고 있기에 자신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니냐며 반성하는 것이다. ④ (나)에서 화자는 현재의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고자 했으나 지난 십 년을 허둥대며 보낸 것 같아 이러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14.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키는 수미상관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끝 연은 첫 연 이후 전개된 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의 1연에서 화자는 와사등 아래에서 방향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자의 상황은 2연의 도시적 풍경에 대한 어두운 비유와, 3연에서 낮설은 거리에서의 아우성

소리를 통해 점차 심화되고 있다. 4연에서는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다는 인식에 이어 마지막 연에 이르고 있다. 결국, 마지막 연에서의 반복은 1연에 제시된 화자의 정서가 그만큼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를 보며 화자는 자신의 영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자신에 대한 자책, 고요한 현실에 대한 부정,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을 거쳐 다시 1연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연에서는 화자의 자기반성의 정서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활자를 의인화시켜 화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활자의 속성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15. 비판적 사고(시구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는 긴 여름해가 훌쩍 저 버리는 시간의 흐름을 마치 새가 날개를 접는 듯이 표현한 것이다. 날개가 표현되기는 하지만 날개를 접는다는 것에서 보듯이 이는 상승의 이미지가 아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간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해가 지는 것을 새가 날개를 접는 것에 비유한 것은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③ ㉠는 밤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화자의 슬픔과 고뇌는 심화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니 충효를 이루지 못할까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에서 ‘나래를 접고’와 ㉣에서 ‘물 흐르듯’에서 비유가 보인다. ⑤ 날개를 접는 것이나 물이 흐르는 것이나 모두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16.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서 설명한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다. ㉠의 ‘늘어선’은 건물이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화자의 정서나 반응을 엿볼 수가 없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화자의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③ 도시적 문명에 대한 화자의 거부 반응이 드러난다. ④ 도시에서 느끼는 화자의 내면이 표현되어 있다. ⑤ 와사등의 차가운 느낌은 화자가 도시 문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17.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정보에 의하면 작가가 서장에서 심신의 안정을 누린 후에 (나)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작가는 심신의 안정을 찾았지만 생활에 대한 긍정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가 작품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말하는데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부끄러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답] ②

18.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연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연시조의 각 연들은 일관된 체계 아래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각 연들은 내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의 제1수에서는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충효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수에서는 충효를 추구하고자 노력했으나 시간만 흘러가고 이를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제3수에서는 충효를 못 이루어도 자연을 추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임천’이란 바로 자연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③에서는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고 했다. 제2수에서 추구하는 충효의 길과 제3수에서 추구하는 자연의 길은 서로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제4수에서는 충효의 길(제2수)과 자연 추구의 길(제3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제5수에서는 표현을 달리하며 제4수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답] ③

[19-22] 기술, ‘촉매 설계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마법의 돌이라 불리는 촉매 설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보존을 위해 촉매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회귀 경로를 통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체계인 촉매 설계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촉매의 개념을 설명하고 촉매 설계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단계를 과정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제] 촉매 개발의 필요성과 촉매 설계 방법의 구체적 과정

19. 사실적 사고(작품의 세부적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의 첫 문장에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보존을 위해 촉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촉매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설계를 통한 촉매 개발이라 할 수 있기에 ④의 진술은 맞는 것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촉매 설계 방법에서 목표치를 정하고 반응 경로 모델을 구상한 후 진행하다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촉매 조합을 선정하는 단계로 돌아간다고 했다. 즉, 촉매를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②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촉매 개발 과정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요행히 촉매를 발견하는 식이었기에 촉매의 개발 완료 시점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③ 전통적인 촉매 개발 과정이 비효율적이었던 것은 시행착오의 반

복을 통해 촉매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발견’이란 시각적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⑤ 촉매 설계 방법은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열역학적 검토와 경제성 평가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별도의 항목이지 하나가 해결된다고 다른 것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0. 비판적 사고(구체적인 사례의 제시)

정답해설 : ㉠은 회귀 경로를 통하여 오류를 최소 과정 내에서 통제하는 체계라 했다. 여기에서는 회귀 경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회귀 경로는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에서 철수가 수영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자세로 회귀하여 코치의 조언에 따라 자세를 고쳐 기록을 향상시켰다. 또한 기록이 정체된 후 던하는 방법으로 회귀하여 잘못된 방법을 고쳐 기록을 더욱 향상시켰다고 했으므로 ㉢의 방법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답] ㉡

[오답피하기] ㉠ 비록 세 번 만에 비밀 번호를 찾았지만, 이는 시행착오 끝에 촉매를 발견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가까운 것이다. ㉡ 같은 행동에서 다른 결과를 얻고 있다. ㉢ 우연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 ㉣ 같은 행동과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21.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촉매 설계법에 따라 촉매를 개발한 사례라 했다. 촉매 설계법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열역학적 검토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기>에서 조업 온도 350도에서 촉매 1킬로그램이 시간당 400리터의 염화수소를 처리하고 전환율이 70%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반응 경로 모델을 구상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보기>에서는 두 개의 반응식으로 구성된 반응 경로 모델을 설정하고, 촉매 조합인 ‘크롬 조합-1’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니 염화수소의 전환율이 65%였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서 회귀를 해야 한다. 이것은 2문단의 중간 부분 ‘결과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다시 촉매 조합을 선정하는 단계로 돌아가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는 새로운 촉매 조합의 방법을 선정하여 실험을 새로이 수행해야 한다. [답] ㉣

[오답피하기] ㉠ 이는 실험이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 설정된 경로 모델대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회귀하는 방법이다. ㉡, ㉢ 첫째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22. 어휘·어법(유의어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돕다’의 다양한 유의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수재 의연금을 내서 수재민을 도왔다.’에서의 ‘돕다’는 ‘빈민, 이재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하다’의 의미를 지닌 ‘구휼(救恤)’이 적절하다. ‘구명하다’는 ‘목숨을 구하다’

는 의미이다. [답] ①

[23-26] 인문, '태조실록'

지문해설 : 이 글은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서, 당시 사관의 역사 기록을 보고자 하는 태조의 명령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들어 반대하는 신하의 견해를 담고 있다. 글쓴이는 먼저 사관의 역사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역사 기록의 왜곡을 초래했던 당 태종의 잘못된 선례를 들어 임금의 역사 기록 열람 명령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금께서 역사를 열람하고자 했다가 신하들의 반대를 수용하여 그 명령을 거두었던 지난 행위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며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한 군주'라는 태조 임금의 특별한 지위를 부각시켜 태조를 따라 후세 임금들이 대대로 역사 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사관들이 사실대로 역사를 기록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임금을 설득하고 있다.

[주제] 임금이 당대 사관의 역사 기록을 열람하면 안 되는 이유

23.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에서 당 태종의 고사를 든 것은 태조가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신하)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당 태종의 고사를 들어 임금이 당대의 사관(史官)의 기록을 보고자 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 중 ㉠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는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는 셋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는 셋째 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는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추론적 사고(설득 전략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임금이 역사 기록을 볼 경우 사관이 역사를 왜곡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후대 임금도 따라 할 것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언급해 명령을 철회하도록 결단할 것을 임금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당 태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잘못된 선례를 들어 임금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임금이 역사를 열람하고자 했다가 신하들의 반대를 수용하여 그 명령을 거두었던 지난 행위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며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창업한 군주'라는 상대방의 특별한 지위를 부각시켜 사안의 중대성을 환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상기시켜 그 흐름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답] ③

25. 추론적 사고(적절한 반론 추리)

정답해설 : 임금이 역사 기록을 보려는 이유에 대해 글쓴이가 추정한 것이 ㉠일 경

우, 글쓴이는 임금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기록을 제시함으로써 임금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데 <보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ㄱ’이다. 글쓴이가 추정한 이유가 ㉞일 경우, 글쓴이는 사관의 기록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살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임금께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데 <보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ㄴ’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보기>의 ‘ㄱ’은 이 글이 셋째 문단에서 글쓴이가 추정한 것 중 어느 항목과도 관련이 없다. ‘ㄴ’은 셋째 문단에서 글쓴이가 추정한 이유 중 ‘미진하게 기록되었는지 조사해 빠짐없이 쓰도록 하려는 것입니까?’에 대한 반론에 해당한다.

26. 어휘·어법(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태종에게 미치지도 못하는 후세의 군주가’라는 문맥으로 볼 때, 이 부분에서 ㉠은 ‘일정한 기준 혹은 수준에 도달하다’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에서도 ‘미치지’라는 말이 ‘어머니의 숨씨’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미쳤다’는 자동사로서 ‘어떤 대상에게 힘이나 작용이 가 닿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③ ‘미치지’는 자동사로서 ‘말이나 생각이 어떤 대상에까지 이른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④ ‘미치는’은 타동사로서 ‘(영향을) 끼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⑤ ‘미친다’는 자동사로서 ‘어떤 대상에게 힘이나 작용이 가 닿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27-30] 고전소설, 김만중, ‘사씨남정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집안 내의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린 가정 소설이면서, 당대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출하고 장 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풍간(諷諫) 소설이다. 처에 해당하는 사씨 부인을 선한 인물형으로, 첩에 해당하는 교씨를 악한 인물형으로 설정하여 선한 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제시된 장면은 한림의 고모인 두씨 부인이 유 한림과 사씨 부인을 만나 우려를 표시하는 대목과 유 한림이 교씨의 말을 듣고 사씨 부인을 내쫓기로 결심하는 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 조카 부부의 앞날에 대한 두씨 부인의 염려와 사씨 부인을 내쫓기로 한 유 한림의 결심

27. 추론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작품의 내용은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서술자는 사건을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내면 심리는 최소한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악되도록 하였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설보다는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그 자체

가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작중 인물의 대화가 지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④ 인물의 회상 등을 통해 사건의 흐름이 역전되는 대목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⑤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등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발견되고 있다.

28.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사씨가 베치마를 입고 보기에다 처참한 것은 사실이나, ㉠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낡고 해진 사씨의 옷이 아니라, 의복(의 무게)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초췌해져 있는 사씨의 몸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유 한림이 베푸는 전별 잔치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 두 부인이 언짢은 표정을 짓는 것은 사씨가 곤경에 빠져 있음을 짐작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사씨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유 한림이 사씨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살아서 두 부인을 뵙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한으로 여겼다는 것은 사씨가 자신이 머지않아 죽을 처지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사씨 역시 이 상황을 ‘잘못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 무엇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의 책임을 결국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29. 추론적 사고(생략된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에 이어지는 사씨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은 사씨의 잘못된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사씨는 자신이 ‘눈은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교씨를 첩으로 들이는 과정에서 사씨가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교씨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주문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④에서는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교씨의 사람됨을 잘 판단하라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말과 행동의 일치를 언급하며 이행할 수 있는 발언만을 신중하게 할 것을 당부하는 조언이다. 그러나 두씨 부인이 염려하는 것은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사씨가 이행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의 위험성이다. ② 교씨를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을 잘 대해주라는 내용이므로, 교씨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두 부인이 했을 충고로 보기 어렵다. ③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므로, 교씨의 사람의 됨됨이에 비관적인 두 부인이 했을 충고로 보기 어렵다. ⑤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교씨의 사람 됨됨이를 문제 삼았을 두 부인의 충고로 적절하지 않다.

30. 추론적 사고(작중 인물의 행동에 대한 비판)

정답해설 :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사씨가 쫓겨나게 된 것은 교씨의 흥계 때문이며, ㉞의 장면도 교씨가 사씨를 모함한 직후에 해당한다. 따라서 ㉞에서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교씨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나 의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씨가 그 자리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유 한림의 마음에 들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씨가 흥계를 꾸미고, 유 한림에게 사씨를 모함한 것이 모두 ‘그 자리’(부인의 지위)를 노리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씨의 속마음과 외적인 언행이 상반되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기에 적절한 표현은 표리부동(表裏不同)인데, 이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를 의미한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 교씨는 오히려 속마음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으며, 속마음을 경솔하게 노출하고 있지 않다.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교씨가 유 한림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 다른 짐승들에게 위세를 부리는 상황과는 같지 않다.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 어렵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유 한림에게 교씨가 눈물로 거짓 하소연하는 대목이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비판하기 어렵다.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사리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제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안 맞으면 싫어한다는 말이다. 집안의 가부장인 유 한림이 교씨에게 감탄고토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31-33] 언어, ‘개구도를 중심으로 한 음절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이용하여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눈 다음,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매겨나가는 것이다. 이런 소쉬르의 방법론을 국어 음절에 적용시켜 보면, 국어의 음절은 모음이 핵이 되며, 모음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모음과 자음의 개구도를 중심으로 한 음절의 구조

31. 사실적 사고(세부적 사실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은 ‘입의 벌림 정도’ 즉 모음과 자음의 ‘개구도(開口度)를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 0도, 마찰음과 파찰음 1도, 비음 2도, 유음 3도, 고모음 4도, 중모음 5도, 저모음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해 나가는 방법으

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모음의 변화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붙여 나가면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되는데, 이를 통해 말소리가 음절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 보면 '끝말잇기 게임'이나 시에서 운을 맞추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절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음절 초에는 'ㅇ[ŋ]'이,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ŋ]'이 제한된다고 하였다. ⑤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고 언급하면서, 영어에서 1음절인 단어가 국어에서는 3음절이 되는 예를 제시하였다.

32.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되는데, 국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다. 이 모음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에, 모음보다 개구도가 작은 자음이 하나씩 올 수 있다. 이러한 음절은 발음을 지배하는 기본 골격으로, 국어를 발음하는 최소 단위가 된다. [답] ③

33. 추론적 사고(핵심 개념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한 부등호 배열을 보고 음절의 모양을 추리해 보는 문제이다. 부등호 배열이 '<><>>'라고 했으므로, 두 부등호 사이의 음절 경계를 보아 2음절의 단어임을 알 수 있고, 음절의 구조는 '자음+모음'인 음절과 '자음+모음+자음'인 음절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①의 '가족'은 '개구도 0 6 1 5 0'으로 부등호로 배열하면 '<><>>'의 구조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④ 두 번째 음절이 '자음+모음'이다. ③ '<><>>'의 구조이다. ⑤ 첫 번째 음절 '우'는 '자음+모음'의 구조가 아니라 '모음'의 구조이다.

[34-36] 과학, '피의 순환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우리 몸 안의 혈액 순환에 관한 이론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즉 하비가 주장한 피의 순환에 관한 이론을 제기했고, 새로운 현미경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모세혈관을 발견하게 되면서 '피의 순환 이론'이 정립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피의 이동에 대한 과거의 주장들이 있었고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냄으로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피의 순환 이론'의 의의를 살펴보는 글인 것이다.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어도 끈끈하게 유지되던 갈레노스의 이론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험을 근거로 제기된 하비의 주장에 의해 그 이론의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피의 순환 이론'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하비의 구체적인 실험에 의해 입증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고, 여기에 현미경의 발달까지 겹쳐지면서 ‘피의 순환 이론’은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 피의 순환 이론의 정립 및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

34. 사실적 사고(중심 대상과의 관련성 이해)

정답해설 : ‘피의 순환 이론’은 하비의 주장에 모세혈관의 발견까지 겹쳐지면서 완전히 정립된 이론이다. 이는 오랫동안 아성을 지켜오던 의학적 정설을 뒤집으며 새로운 생리학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즉 ‘피의 순환 이론’이 성립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현실에 수용되면서 생리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한 셈이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순서를 고려해 볼 때, ①은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에 이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폐정맥이 공기의 통로가 아니라 피의 통로라는 베살리우스 발견과 부합하며 ‘피의 순환 이론’이 성립되었다. ③ 하비는 먹은 음식물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④ 새로운 현미경이 모세혈관을 발견하면서 ‘피의 순환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⑤ 하비는 자신의 혈관을 직접 묶으며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피의 순환 이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5. 추론적 사고(구체적 과정의 이해)

정답해설 : 하비가 주장한 피의 순환 경로는 그의 실험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비는 자신의 팔목을 직접 묶어 피의 흐름에 변화를 줌으로써 정맥과 동맥의 기능 및 거기를 통과하는 피의 흐름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실험은 기존의 이론을 뒤엎고 새로운 이론을 내세우게 될 만큼 근거가 확실한 구체적인 실험으로서의 좋은 예가 된다. 하비는 동맥과 정맥을 압박하다가 동맥을 압박하던 끈을 먼저 풀어서 피가 통하게 하고 다시 정맥을 압박하던 끈을 풀어 부풀어 오른 정맥을 가라앉힘으로써 동맥에서 나갔던 피가 손을 돌아 정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하비가 끈을 묶어 압박했던 지점은 각 기관(손)을 중심으로 할 때, 그 전과 그 이후이므로 ㉠과 ㉡이 된다. [답] ③

36. 추론적 사고(관점에 따른 사례의 분석)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기존 패러다임이 어떻게 위기를 맞고 어떻게 붕괴되며, 그 자리에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워지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정상과학이 새로운 이론에 밀려 위기를 겪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이론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는 ‘과학 혁명’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보기>에 제시된 과학혁명 성립의 과정을 이해한 후, 여기에 본문의 내용들을 적용시켜

보는 문제 유형인 썸이다. 그러나 베살리우스의 ‘폐순환의 발견’은 갈레노스 추종자들에게도 입증된 이론으로, 본문에 의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갈레노스의 추종자들의 의견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 썸이 된다. 그래서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한 것이지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갈레노스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이므로 이는 기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갈레노스의 생리학은 그 당시로서는 확신되고 있었던 이론들이었기 때문에 정상과학이다. ③ 폐정맥이 공기의 통로가 아니라 혈액의 통로라고 밝혀진 것은 이전의 갈레노스 이론과 맞지 않는 부분이므로 ‘변칙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⑤ 하비의 순환 이론은 갈레노스의 이론을 밀어내고 수립된 새로운 이론이므로 ‘과학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37-39] 희곡, 천승세, ‘만선’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성실하고 순박하지만 ‘만선’에 대한 집착을 지니고 있는 어부 곶치를 주인공으로 하여 집착으로 인해 빚어지는 한 가족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어부라면 누구나 고기를 가득 잡고 돌아오는 꿈을 지니고 있지만, 폭풍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만선에만 집착하는 곶치의 태도는 결국 자식들의 죽음과 아내의 실성을 초래하고 만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부지런함을 잃지 않고 생계를 위해 힘쓰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주변의 상황들을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만선에 집착하는 태도는 결국 삶을 비극적으로 몰고 갈 뿐이다. 제시된 부분은 배가 없어 늘 임제순에게 배를 빌려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던 가난한 곶치가 임제순에게 배를 거절당하는 장면이다.

[주제] 만선에 대한 집착이 부르는 삶의 비극

37. 사실적 사고(작품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본문은 고기를 잡았어도 모두 빚으로 뺏겨버린 연철과 이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가난으로 인한 삶의 비극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맥이 빠진 연철이나 연철의 상황을 알고 놀라는 인물들의 반응들은 모두 간결하게 처리되어 장면의 전개가 빠르게 진행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언어유희’가 사용된 부분은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풀이 죽은 연철이나 연철이가 빚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놀람의 반응은 모두 간결한 대사로 처리되어 있어 속도감을 준다. ② 인물들은 모두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어 독자들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④ 그물, 부서 때, 배 등을 통해 인물의 직업이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접하고 있는 공간이 바닷가임을 알 수 있다. ⑤ 지시문의 사용이 매우 빈번한 편으로, 이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해준다.

38. 추론적 사고(인물의 역할 이해)

정답해설 : 장면 속에서 연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유형이다. 장면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한 후에 <보기>에 제시된 연철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철의 말과 행동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보기>의 ㉠ ~ ㉣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연철은 임제순이 나타나 ‘배를 묶겠다’고 하는 말에 대해 성삼, 도삼과 함께 “배를 묶다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관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연철은 잡은 고기를 처분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객들에게 전달해주게 된다. ② 연철의 첫 대사 “놀러라우? 맘이 기빠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는 기대감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준다. ③ 연철은 ‘다 뺏겼다’, ‘빛에 잡혔다’, ‘그리고도 이 만원의 빛이 남았다’ 등의 정보를 분할하여 제공하고 있다. ④ 연철은 ‘쉬잇’하는 소리로 사립문쪽에 임제순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39. 추론적 사고(인물의 행동 파악)

정답해설 : <보기>의 설명을 통해 제시된 ㉠ ~ ㉣에 나타난 배우의 움직임과 회피의 욕망으로 분류한 후, 각 움직임에 들어 있는 의도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유형이다. ㉣은 연철이 하는 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곰치가 연철에게 다가가며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는 상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연철이 하는 말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연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들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② 연철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착잡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곰치의 불안하고 애절한 마음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행동이다. ⑤ 곰치의 말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40-43] 예술, ‘루뱅 보쟁의 정물화에 나타난 미학적 특징 및 의미’

지문해설 : 이 글은 ‘루뱅 보쟁’의 <체스 판이 있는 정물-오감>이라는 작품을 통해 17세기 정물화에 드러난 미학적 속성 및 의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루뱅 보쟁’의 그림에는 꽃병, 거울, 악기, 지갑, 트럼프 카드 등의 사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물들이 갖는 전통적 의미인 도상적 의미를 인간의 ‘오감’으로 파악한 다음, 같은 주제를 그린 동시대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로부터 ‘감각적인 악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그림의 내재적 의미를 발견해 내고 있다.

[주제] ‘루뱅 보쟁’의 정물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학적 특징 및 그 의미

40. 사실적 사고(글의 화제 파악)

정답해설 : 1단락에 보면 정물화가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7세기에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역사화나 종교화와 달리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들이 화가들을 후원하면서 그들이 갖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정물화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④의 내용은 언급되어 있으나 ‘보쟁’의 예술적 생애라든가, ‘보쟁’ 작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비평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 [답] ④

41. 추론적 사고(핵심 관점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17세기 정물화를 감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한 <보기>를, ‘보쟁’의 정물화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보기>의 관점은 우선 그림 속에 그려진 사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사물들의 의미를 도상적 전통과 관례를 통해 해석한다. ㉠과 ㉡은 바로 이 두 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그 다음 단계인 그림의 내재적 의미인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해석해 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17세기 정물화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그렸지만 그 안에 담긴 미학적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 ④

42.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에서 설명하고 있는 빛의 효과와 유사한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는 빛의 섬세한 처리를 통해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답지 중에서 촉감과 시각적 효과에 관련된 사례를 찾으면 된다. ⑤에 보면 ‘따스한 감촉’과 ‘다양한 색채, 번쩍이는 장식물’ 등, 촉각과 시각을 살린 빛의 효과가 드러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빛과 어둠의 극단적 대비가 드러나 있다. ② 빛의 추상적 표현에 관한 것이다. ③ 빛의 동심원 형태, 즉 반복적 효과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④ 기독교적 경건함에 관한 것이다.

43. 어휘 · 어법(의성어, 의태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물랑물랑’은 ‘여기저기가 야들야들하고 보드랍고 조금 무른 듯한 느낌’을 의미하는 의태어로 촉각과 관련이 있다. ‘물씬물씬’은 ‘코를 푹 찌르도록 심한 냄새가 자꾸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후각과 연관이 된다. ‘사각사각’은 ‘벼나 보리 따위를 벨 때, 또는 눈이 내리거나 눈을 밟을 때, 사과 따위를 씹을 때’ 나는 의성어이므로 ‘청각’과 연관이 된다. ‘쌌근쌌근’은 ‘숨쉬는 소리’이므로 ‘청각’과, ‘파룻파룻’은 ‘파르스름한 모양’이므로 ‘시각’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주어진 답지 중에서 미각과 연관이 있는 어휘는 없다. [답] ①

[44-46] 사회, '공공사업의 사회적 할인율'

지문해설 : 이 글은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일반적 개념으로써 할인율과 사회적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 사용되는 요소들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 주장의 문제점으로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의 성격이 같을 수 있는가, 단기적이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의 논리가 장기적 성격이 강한 공공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점을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문장에서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주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44.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의 핵심어는 사회적 할인율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사회적 할인율이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며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과 같은 사적 부문에 적용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수준에 대해 언급한 ④가 글쓴이의 핵심적 질문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셋째 문단에 언급되고 있지만 보조적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② 글쓴이는 미래 세대의 몫을 공적 성격과 관련짓고 있다. ③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자는 내용만 언급될 뿐 영향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글쓴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영역을 엄격히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다.

45. 추론적 사고(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은 바로 앞에 제시된 문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발생하기 어려운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보다는 그 이면에 숨은 의미를 추론하여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에는 '실제로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보다 높지 않다'는 정보와 '정부는 공공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정보를 연결하여 이해하면, 그 전제로 적절한 것은 '정부는 낮은 수익률이 발생하는 공공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가 될 것이다. 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⑤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공공 부문의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②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정보는 이 글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다.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이 글로부터 추론할 수 없다. ④ 공공 부문에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제한 조치의 필요성에까지 연결되기는 어렵다.

46.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는 자연 환경을 개발하려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결정이라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 글의 첫째 문단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은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되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첫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 할인율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현재의 가치가 떨어지며 수치가 낮을수록 현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보기>의 ㉠은 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이익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따지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 소개한 할인율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의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환경 개발에 대해서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자연 환경 개발에 반대할 것이므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③ 개발 업체가 자연 환경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개발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므로 당연히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하면 개발에 대해 반대할 것이고 그러므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47-50] 현대소설 - 최일남, ‘흐르는 북’

작품해제 : 이 작품은 서울의 한 중산층 가족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을 보여 준다. 할아버지(민 노인)와 아버지(민대찬)의 갈등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북’은 민 노인의 삶의 궤적을 보여 주며, 실리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예술 정신과 전통 세계의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민대찬은 아버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실리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한다. 그리고 아들 성규에게도 자신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강요한다. 그러나 성규는 새로운 세대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는 민대찬과 아들 성규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린 가운데, 성규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통해

세대를 넘어서는 화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 예술혼과 인간의 본원적인 삶의 추구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 및 화합

4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는 작품으로, 제시된 부분은 주로 민 노인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손자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편안해 하거나 공연을 앞두고 설레며, 북을 치고 나서 자기 몫을 해냈다는 느긋함을 느끼는 민 노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민 노인의 북을 치는 행위를 통해 민 노인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⑤ 이 부분에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48. 추론적 사고(공간적 배경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이 장면에서 ‘집’은 민 노인과 아들 내외(특히 ‘며느리’)와의 갈등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며느리’는 아들 성규의 학교에 가서 북을 친 시아버지(민 노인)의 행위를 마치 죄인 다루듯 하며 힐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노인은 ‘성규가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회적 체면을 깎았다는 것을 아시니 다행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민 노인’은 ‘막걸리 집’에서 손자 또래의 신세대를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②~④ ‘민 노인’은 ‘춤판’에서 아이들과 어우러져 신명나게 북을 치며 유대감을 확인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또한 ‘춤판’에서 ‘구경꾼들’은 공연 내용에 호응하여 공연자들과 함께 전통 예술을 향유하고 있다.

49.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이번에도 내가 너들 체면 깎았냐’는 말에는, 손자의 학교에 가서 북을 친 자신을 비판하는 ‘며느리’에 맞서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밝히고자 하는 ‘민 노인’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에 대해 상대방인 며느리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쓰고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는 북을 통해 예술혼을 발휘하는 ‘민 노인’에 대한 ‘아이들’의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다. ② ㉡에는 자기를 주목하는 구경꾼들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상황에 적응하려는 ‘민 노인’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③ ㉢에는 공연 상황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에 빠진 ‘민 노인’의 상태가 나타나 있다. ④ ㉣에서 시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속내를 드러내는 ‘머느리’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

50.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에는 북을 칠 때 모시 두루마기라도 입어서 나름대로의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민 노인’의 생각이 암시되어 있으며, ㉡에는 자신의 북 가락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민 노인’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예술은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품위 있는 격식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민 노인’의 예술에 관한 태도를 미루어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예술가의 고난과 인내’를 떠올릴 수 있는 단서를 ㉠, ㉡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③ ‘시대의 이상을 곳곳이 지켜야 한다’는 태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단서를 ㉠, ㉡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④ ㉡를 통해 청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의 필요성을 연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와는 연결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예술’에 대한 단서를 ㉠, ㉡에서는 찾을 수 없다.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② 2.⑤ 3.③ 4.② 5.⑤ 6.① 7.⑤ 8.③ 9.④ 10.⑤
11.④ 12.③ 13.③ 14.④ 15.① 16.① 17.② 18.③ 19.① 20.②
21.② 22.⑤ 23.④ 24.③ 25.① 26.⑤ 27.⑤ 28.① 29.④ 30.⑤
31.⑤ 32.③ 33.① 34.③ 35.④ 36.⑤ 37.④ 38.⑤ 39.② 40.②
41.④ 42.① 43.① 44.③ 45.⑤ 46.② 47.② 48.② 49.④ 50.①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병원 가기를 두려워했던 이유 중 하나가 주사 바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환자들이 주사 바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우선 약물 분자에다가 다른 고분자를 붙여 주사해서 약물을 몸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 약물을 나노캡슐에 넣고 주사해서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결국 주사 맞는 횟수를 줄여 주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바늘이 주는 통증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몸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주사기를 개발했는데, 이 패치에 붙어 있는 바늘들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피부에 붙여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금속성 바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몸 안에서 녹는 재질의 미세한 바늘들이 붙어 있는 패치도 개발했는데, 이 패치를 붙이면 바늘이 피부 안에서 녹으며 그 안에 들어있던 약물을 몸 안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최근에는 아예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약물이 담긴 가늘고 긴 임플란트 관을 몸속에 삽입해서, 삼투압 원리에 따라 분자 크기의 약물을 일정하게 방출하는 기술입니다.

1.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환자들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주사 기술의 발전을 다룬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과 최근 개발된 기술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으면서 진행자가 소개하는 기술

을 제외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 진행자는 전기 신호를 사용한 주사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②는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하지 않은 기술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약물을 몸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기술로서 진행자가 맨 처음에 소개한 기술이다. ③ 약물을 나노캡슐에 넣고 주사해서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기술로서 진행자가 두 번째로 소개한 기술이다. ④ 몸 안에서 녹는 재질의 미세한 바늘이 붙어 있는 패치를 활용한 기술로서 진행자가 세 번째로 소개한 기술이다. ⑤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약물이 담긴 임플란트 관을 몸속에 삽입해서 삼투압 원리에 따라 약물이 방출되도록 하는 기술로서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소개한 기술이다.

2.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이아름’입니다. 모교에 와서 후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학창 시절에 저는, 영화를 보고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서서 한참동안 주인공의 예쁜 모습을 흉내 내곤 했지요. 그때만 해도 배우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외모가 아름다운 배우와 훌륭한 배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럼 훌륭한 배우에게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할까요? 우선 정확하고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야 해요. 배우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자신의 삶인 양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기해야 될 인물의 성격을 자세히 파악해야겠지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좋은 연기를 하기 위해선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가령 의사를 연기하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하거나 진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의사처럼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배우가 상상해서 모델을 만들고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가 사실적으로 연기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감정을 갖고 표현해야 하지만, 자신에게는 최대한 냉정해야 해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서, 배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과장된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훌륭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지요? 요약하자면 훌륭한 배우는 예리한 관찰력과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 비판적 사고(말하기 전략의 실현 여부 평가)

정답해설 : 연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훌륭한 배우의 자질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데, 수험생들은 강연을 들으면서 문제지에 제시된 메모 내용 중에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찾으려 한다. 연사는 훌륭한 배우의 자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한 후에 맨 마지막에 중요 사항을 요약하면서 말하고 있으므로, 강연 전략 중 중간 중간에 중요 사항을 요약하면서 말하겠다고 한 ⑤는 실제 강연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첫 부분에서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을 소개하며 화제를 제시하였고, 중간 부분에서 훌륭한 배우의 자질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끝 부분에서 중요 사항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였다. ② 시작 부분에서 화제와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였다. ③ 훌륭한 배우의 자질에 대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④ 첫째 항목, 셋째 항목에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였고, 둘째 항목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적절한 예를 제시하였다.

3. 이번에는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 자 : 최근 농촌 체험 행사로 큰 수입을 올리고 있는 행복리 김 이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이장 : 안녕하세요?

기 자 : 이색적인 농촌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습니까?

김 이장 : 아, 예. 우리 마을의 농촌 체험 행사가,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새로운 행사를 계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 자 :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김 이장 : 처음 농촌 체험 행사를 시작할 때는 다른 마을처럼 도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숙박 시설을 짓고, 떡 만들거나 사과 깎기 같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는 다른 농촌 마을에서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 굳이 깊은 산골에 있는 우리 마을까지 올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기 자 : 그렇겠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김 이장 :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 체험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군요. 하나는 다른 마을의 체험 행사와 달리 우리 마을만의 특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촌 체험 행사니까 눈으로만 구경하지 않고 농촌 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행사를 마련해서 진행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군요.

기 자 :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3. 추론적 사고(이어질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기자가 농촌 체험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민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농민 대표인 김 이장은 농촌 체험 행사의 성공 비결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다른 마을과 차별화되는 우리 마을만의 특징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농촌 일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김 이장’의 답변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③번에서 ‘우리 동네 특산물 활용’은 첫째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고, ‘산양유 직접 짜 보게 하기’나 ‘녹파 잎 따서 차 만들어 보게 하기’는 둘째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첫째 조건은 충족시키지만 둘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② 둘째 조건은 충족시키지만 첫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④ 두 조건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⑤ 둘째 조건은 충족시키지만 첫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4~5. 다음은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 : 아이, 속상해라!

남자 :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여자 : 어제 반상회 참석하지 않았다고 글썄, 벌금을 내라고 하네요. 제사 때문에 시골에 다녀오느라 못 간다고 미리 말도 해 냈는데, 너무 하네요.

남자 :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니까 내야지 별 수 있겠어요?

여자 : 어차피 참석하지 못하는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엔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정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리 얘기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남자 : 그래도 원칙을 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야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사람들 모두가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내놓는 시간 문제만 해도 그래요. 아파트의 미관이나 청결 문제도 있고 해서 관리 사무소에서는 매주 금요일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로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만 재활용품을 내놓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일부 주민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아파트가 지저분해졌어요. 결국엔 한 번 정한 원칙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자 : 그 문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원칙을 정할 때 사람들의

다양한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 집에 없는 세대들도 꽤 있거든요. 그 때 재활용품을 내놓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은 집안에 쌓아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격주로 배출 시간을 달리 정해서 한 주는 아침에, 한 주는 저녁에 내놓게 하면 새벽같이 일 나가느라 시간을 못 지켰던 사람들도 정해 놓은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미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남자 : 글썄요. 그래도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 주다 보면 끝이 없지 않겠어요? 원칙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자꾸 지키지 않게 되면 그만큼 사회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자 :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4. 사실적 사고(핵심 주장의 파악)

정답해설 : 강연 내용은 생활 속에서 겪는 원칙 적용 문제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대화이다. 여자가 특별한 사정 때문에 미리 알리고 반사회에 불참했는데 벌금을 내는 것이 속상하다며 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남자는 한번 원칙을 정했다면 예외 없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남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원칙은 정해진 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남자는 개인의 사정을 봐 주다 보면 끝이 없으니,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④ 남자, 여자 모두 원칙 적용에 있어서 부작용의 최소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⑤ 원칙을 세울 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여자의 주장이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이 대답에서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재활용품 배출 시간의 원칙에 대해, 애초에 원칙을 정할 때 사람들의 다양한 조건을 제대로 고려해 격주로 재활용품 배출 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이 제시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자의 말에서 반복적인 질문을 발견할 수 없다. ③ 여자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벌금을 물게 된 자신의 처지를 바탕으로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③ 여자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박하고 있다. ④ 여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적 사고를 하여 ‘아동 교육’에 관한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메주를 만드는 과정을 ‘콩을 삶아 으깨어 네모나게 빻기→더운 방에서의 발효 및 숙성→햇볕에 말리기’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떠올릴 수 있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메주를 숙성시키는 일련의 과정에 대응된다. ③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부터 생성할 수 있다. ④ 잘 빻은 메주를 더운 방에 짚을 깔아 숙성시킨다든지, 방 안의 메주를 꺼내어 ‘짚을 매달아 햇볕에’ 말린다든지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로 볼 수 있다. ⑤ ‘콩을 삶아 으깨어 네모나게 빻기’, ‘더운 방에서의 발효 및 숙성’, ‘햇볕에 말리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메주마다 특유의 맛과 향을 내게 된다고 했다.

7. 추론적 사고(자료의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다)를 보면 ‘학과 안내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직업 체험’, ‘진로 교과 수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자료 (나)를 보면 ‘학과 안내 행사’를 경험한 학생들이 ‘진로 교과 수업’이나 ‘직업 체험’을 한 학생들에 비해 많다. ‘학과 안내 행사’ 경험이 많은데도 만족도가 낮다는 내용으로 볼 때, 학과 안내 행사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효율적인 진로 결정을 돕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자료 (가)를 보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를 모르고 있다. 이것은 (나)에서 제시된 진로 탐색 경험이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자료 (다)를 보면 ‘진로검사’, ‘학과 안내 행사’에 관한 만족도가 낮다. ③ 직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6.8%이다. ‘진로 교과 수업’ 중 직업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면 진로 탐색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④ ‘직업 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는데, 그것을 경험한 학생들의 수가 9%로 적다.

8. 추론적 사고(구상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구상해 쓰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결단과 도전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이다. 그런데 ③에서는 B와 C가 A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힘주어 말하며 격려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자유의 소중함’이 주제의식으로 부각된다. 이야기의 주제에 비추어 볼 때 ③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의 고뇌는 ‘상황과 결부된 내적 갈등’이라는 <갈등 구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 ② ‘절벽에 몸을 던져 새 부리를 얻었다’는 것은 <착상>

의 내용과 연관되며 ‘결단과 도전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와도 통한다. ④ <기본 열개>의 ‘도전과 시련’과 관련 있다. ⑤ 도전과 시련을 마치고 새 부리를 얻는다는 것은 이야기의 주제를 잘 나타낸다.

9. 비판적 사고(고쳐 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의 주체는 ‘어미 오리’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의 주체가 ‘어린 새’로 되어 있다. 여기서 ㉠에 ‘어미’라는 주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에 ‘어미’를 추가하면 ‘어미가 어린 새를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가 된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앞문장과 논리적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 ‘백조가 다른 ~ 인정받은 것이다.’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가 자연스러워진다. ㉡에는 ㉢가 들어가야 한다. ㉡ 뒤의 ‘내가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를 고려하면 ㉡에는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앞의 문장과 역접 관계이므로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가 자연스러우려면 ‘그러나’도 필요하다. **[답] ④**

10. 추론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제시된 조건은 세 가지이다.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⑤이다. ⑤의 ‘하얗게 지새운 밤’과 ‘노랗게 흔들리는 아침’은 감각어를 활용한 대구적 표현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난밤 모니터 속의 적과 대결하는 동안 / 당신은 적에게 생기를 빼앗겼습니다.’는 구체적 상황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며, ‘게임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도 나타내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게임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도 잘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② 감각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 ③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구체적 상황으로 게임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11. 어휘·어법 (조사의 쓰임 이해)

정답해설 : 조사 ‘는’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에서 ‘할아버지에게’에 ‘는’을 써야 하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할아버지’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는’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 조사 ‘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앞 문장에서 할아버지를 소개했으므로 ‘는’을 써야 자연스럽다. ‘가’를 사용하면 앞 문장과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③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한다는 사실과 대조된다. ⑤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애교가 많지도 않다는 점에서 ‘말썽꾸러기 돼지’는 다른 동

물들과 대조된다.

12. 어휘·어법 (어휘의 적절한 분류)

정답해설 : ‘수군거리다’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남’은 제삼자를 가리키며, ‘이야기하다’는 대화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군거리다’를 대화 상대가 불필요한 B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구시렁거리다’는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듣기 싫도록 자꾸 하다.’는 의미인데 혼자서 중얼대는 말이므로 적절한 분류이다. ② ‘투덜거리다’는 ‘남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자꾸 불평을 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대화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불만을 표현하는 말이므로 적절한 분류이다. ④ ‘웅얼거리다’는 ‘나직한 소리로 푹푹하지 아니하게 혼자 입속말을 자꾸 해 대다.’는 뜻이다. 대화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B에 분류되어야 한다. ⑤ ‘속닥거리다’는 청자 외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자가 필요하므로 C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

[13-15] 과학, ‘신기루의 형성과 종류’

지문해설 : 이 글은 신기루가 일어나는 과학적 원인과 그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기루는 원래 있던 대상이 공기층이 온도 차 때문에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현상으로, 공기의 밀도 차에 따라 빛이 공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막 지역처럼 지표면이 뜨거운 곳에서는 지표면 공기가 그 위층의 공기에 비해 쉽게 뜨거워지므로 두 공기층 사이에는 밀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신기루가 생기는 데 이를 ‘아래 신기루’라고 한다. 추운 극지방에서는 지표면의 공기가 그 상공의 공기보다 훨씬 차기 때문에 이런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은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되어 산봉우리가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를 ‘위 신기루’라고 한다. 이 외에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가열된 아스팔트 도로 위의 물웅덩이처럼 보이는 신기루, 그리고 따뜻한 봄날 지표면 부근에서 발생하는 아지랑이 등도 모두 공기의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이 굴절 되면서 일어나는 신기루의 일종이다.

[주제] 신기루가 발생하는 원리와 그 유형들

13.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두 공기층 사이에 밀도 차이가 생길 때, 이렇게 밀도가 다른 경계면을 통과하는 공기는 굴절하게 된다. 따라서 신기루는 지표면 공기와 그 위 공기 간의 온도 차이가 큰 사막이나 극지방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신기루는 그 자리에 없던 대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아

나라 원래의 대상이 공기층의 온도 차 때문에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신기루가 나타나려면 그 부근에 대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① 신기루는 공기층의 온도 차로 인해 생겨나므로 사막이나 극지방에서 잘 일어나지만, 그 외의 여러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② 빛은 밀도 차이가 나야 굴절하게 된다. ④ 신기루는 공기층의 밀도 차이가 있어야만 생길 수 있다. ⑤ 신기루는 공기층의 온도 차이에 의해 빛이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의 있고 없고는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14.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그림은 지문에 드러난 신기루가 일어나는 원리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기루의 개념, 신기루가 일어나게 되는 조건, 신기루의 여러 형태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선택지의 내용이 타당한지 하나씩 세밀하게 검토해본다. 태양이 비치는 지표면 공기는 쉽게 뜨거워지므로 ⑥의 공기층은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작아진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① 사막 지대에 있는 나무는 거꾸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② 극지방의 지표면은 상공의 공기보다 차고, 찬 공기층의 밀도는 상공의 공기보다 크다. 이러한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은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된다. 이 때문에 극지방의 산봉우리는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③ 공기층의 온도가 일정하면 밀도가 일정하므로 신기루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지표면 공기층이 상공의 공기층보다 온도가 높으면 빛은 굴절하여 위로 올라간다.

15. 추론적 사고(대상의 비교·대조)

정답해설 : ‘위 신기루’는 추운 지역에서 일어나는 신기루이다. 이는 굴절된 빛이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기루이다. ‘아지랑이’ 또한 신기루이다. 이는 지표면과 그 위 공기 간의 온도 차이가 생겨서 하늘에서 온 빛이 굴절되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극지방은 위 아래 층의 온도 차이가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곳이고 아지랑이는 봄철에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므로, 이를 통해 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각각의 신기루가 어떤 날 더 효과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③ 빛은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한다. ④ ‘위 신기루’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라진다. ⑤ ‘위 신기루’가 실제보다 더 위로 보이는 것은 맞지만, 아지랑이가 더 아래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16-19] 인문, ‘현대 사회에서의 연민의 의미와 가치’

지문해설 : 글쓴이는 매체의 발달로 사람들의 고통을 과거보다 더 많이 접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민의 정서를 갖지 않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연민이 생길 수 있는 두 조건을 제시하며 현대 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이 더욱 무뎠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현대 사회에서 연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글쓴이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삼아 현대 사회에서 연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쓴이는 여러 사람과 함께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연민이라는 견해도 피력하고 있다.

[주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현대 사회에서의 연민과 연대의 필요성

16.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글쓴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이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이유로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글쓴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연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인데, 이 말은 ‘사회가 위험해지면 연민이 많아진다.’는 ①과는 의미가 다르다. ①은 ‘사회가 위험해지는 것’을 ‘연민이 많아지는 것’의 필수 요건이란 의미를 나타낸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첫째 문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연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연민을 느낄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⑤ 연민에 대한 정의가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라는 둘째 문단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다.

17. 추론적 사고(뒷받침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글쓴이는 ‘현대 사회의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 의식할 수 있게 된 것’ 등을 근거로 연민이 그 어느 때보다 현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①은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정황을 근거로 도출된 글쓴이의 생각이다. ②는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정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③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④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관계가 복잡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⑤ 직장을 잃는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이다.

18.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둘째 문단을 보면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며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을 갖고 있다. <보기>의 경수 또한 그러한 경향을 보여 준다. 경수는 할머니의 불행이 할머니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며, 자신은 할머니와 같은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수는 할머니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할머니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할머니의 불행을 할머니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방송을 통해 할머니의 불행을 접하고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④ 경수는 개인적으로 전화 모금에 참여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경수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경수가 연대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⑤ 경수는 할머니와 같은 불행을 자신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할머니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19. 어휘·어법(어휘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너나들이하다’는 ‘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성은 줄었지만’이란 내용을 나타내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사로운 모양’을 나타낸다. ③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지내다.’를 뜻하고 있다. ④ ‘자주 만나지 못하여 낮이 좀 설다.’는 의미를 뜻하는 말이다. ⑤ ‘낮이 설거나 익숙하지 아니하여 자꾸 어색하다.’를 뜻한다.

[20-23] 현대시

(가) 백석, ‘여승’

작품해설 : 이 시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스런 삶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절에서 여승을 만나고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이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제시되며, 왜 여승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편을 찾아 헤매다, 딸까지 죽게 되자 여인은 여승의 길을 택한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여인의 모습에는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고단했던 삶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 삶에서 느끼는 서러움

(나) 나희덕, ‘못 위의 잠’

작품해설 : 화자는 못 위에서 꾸벅이며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며 유년 시절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겉으로 범주가 다른 두 대상을 그려내고 있지만, 제비는 바로 화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현재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작은 제비집, 갓 태어난 새끼들, 날개로 등지를 덮은 어미, 못 위에서 잠을 자는 제비는 각각 화자의 유년 시절의 좁은 골목길, 나를 포함한 아이 셋, 피곤에 지친 화자의 어머니, 한 걸음 늦게 따라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응되고 있다.

[주제] 유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연민

(다)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작품해설 : 이 시는 어머니에게 말하듯이 대화체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화자는 어린 시절 자신을 감싸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기에 그 사랑이 더욱 절실히 그리울 뿐이다. 이러한 화자에게 여린 물살을 품고 흐르는 한강물은 바로 어린 시절 화자가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비록 차가운 얼음으로 형상화되었지만,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고 있는 얼음은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주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20.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시적 화자인 ‘나’는 여승을 만나면서 여승의 과거를 떠올린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과거의 삶이 펼쳐지며 왜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여지는데 이것이 시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못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못 위에 앉아 불안하게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의 모습이 어린 시절 실업자로 힘든 삶을 살았던 아버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화자는 당시 아버지의 심정을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하고 있다. (다)에서 화자는 예닐곱 살 적 겨울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체험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요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절실히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한강교를 건너면서, 흐르는 여린 물살을 품고 흘러가는 물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결국 세 작품 모두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부각시킨 작품은 없다. ③ (가)에서 한 여인이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현실이 나온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현실을 포용하기보다는 고발하고 있다. (나)에서도 아버지가 실업하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다)는 어머님께 말하듯이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 작품은 없다.

21. 추론적 사고(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해설 : (가)는 화자가 여승을 만난 이후 이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삶의 모습을 시간 순(2,3,4연)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편을 찾으러 금점판을 헤매던 여인이 딸까지 잃고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눈물을 자극할 만하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장면을 담담히 서술하고만 있을 뿐이다. 반면에 (나)에서 화자는 못 위에서 꾸벅거리는 제비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 실업자였던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실업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 그리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화자는 이제야 그때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여승이 (나)에서는 제비가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② ③ (나)에서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아버지에 대한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을까요’, ‘-던가요’의 어조가 친근감을 주고 있다. ⑤ (가)의 넷날같이 늙은 여승, 불경처럼 서러워진 화자,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등에서, (나)의 못 위에 앉아 꾸벅거리고 있는 제비로 표현된 아버지, 반쪽 난 달빛같이 창백한 어머니 등에서 비유적으로 표현된 인물을 엿볼 수 있다.

22.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비좁은 골목은 화자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궁핍한 삶이 영위되는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인은 금점관에서 옥수수를 팔며 지아비를 찾고 있다. ② 여인은 딸이 죽어버리자 여승이 되기로 생각한 것이다. ③ 어린 시절 실업자였던 아버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세 아이를 데리고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부인을 기다리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다. 화자는 이제서야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④ 그럴듯한 집 한 채에는 아버지의 바람이 담겨 있다.

23. 비판적 사고(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화자는 어린 시절 추위로부터 자신을 따뜻하게 해 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운 것이다. 그런데 한강교를 지나면서 여린 물살을 품 안에 안고 흘러가는 한강의 물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얼어붙은 잔등’은 혹한이라는 시련을 막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얼음’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답] ④

[24-27] 기술, ‘국제 표준 도량형’

지문해설 : 이 글은 국제 표준 도량형, 즉 미터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791년에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미터를 정하고자 하였으나, 자오선의 길이를 측정하기가 어려웠으며, 1889년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는 ‘백금-이리듐 합금 막대’를 미터의 기준이 되는 원기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이 원기는 상황에 따라 변형이 생길 수 있었다. 1960년 제11차 총회에서는 크립톤 원자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하였으나, 파장의 빛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1983년 제17차 총회에서는 고정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의 표준을 정하였다. 이는 빛의 속력을 측정하지 않고 정확한 값으로 고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 국제 표준 도량형을 만들기 위한 노력

24. 사실적 사고(정보의 세부적 확인)

정답해설 : 넷째 문단에 따르면,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갖고 있’어서, 국제도량형총회에서 크립톤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③은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이것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셋째 문단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본문에서는 다양한 도량형의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자오선’에 따른 정의, ‘합금 막대’에 따른 정의, ‘크립톤 파장’에 따른 정의, ‘빛의 속력’에 따른 정의가 그것인데, 이러한 내용에 ①의 ‘정의는~ 변경되면 안 된다’가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본문 둘째 문단에서 ‘자오선의 길이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라고 하였으므로, ②의 ‘자오선의 길이는 언제든 측정이 가능하므로’는 본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본문에 따르면, 1960년의 길이 표준은 원자 내부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을 이용한 것이고, 1983년의 길이 표준은 빛의 속력을 이용한 것이다. 각각 ‘복사선의 고유성’, ‘빛의 속도가 지닌 일정성’을 활용한 것이므로, 빛의 동일한 속성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셋째 문단에 따르면, 백금-이리듐 합금이 인공물이라는 하나 1889년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 정해진 바 있다.

2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없어서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량형의 사전적 의미는 ‘길이, 부피, 무게 따위의 단위를 측정하는(=재는) 법’인데, 이에 따라 ‘측정의 표준이 없어서 혼란이 초래되는 사례’를 찾으려 한다. ㉠에서 충전기의 모델이 다른 것은 충전기의 크기나 무게 등이 올바른 규격으로 제작되었다라도 호환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측정의 표준과 직결되는 문제라 보기 어렵다. [답] ㉠

[오답피하기] ㉡ 체온 측정의 표준이 되는 체온계가 통일되지 않은 사례 ㉢ 전압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이 생긴 사례 ㉣ 생산된 부품들의 치수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생긴 사례 ㉤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생긴 사례

26. 추론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A]의 미터 규정은 빛의 속력 값을 고정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빛의 속력은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고정한 것인데, 이는 측정에 의한 값에 불가피하게 오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A]는 이렇듯 빛의 속력 값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고정한 것이라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는 빛의 속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A]를 잘못 이해한 내용이다. [답] ㉤

[오답피하기] ② ‘측정값’은 불확정적이라는 내용이므로 [A]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 ③ 1/3초에 1m를 갈 경우, 1초에 3m를 진행한다는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A]에서 빛의 진행이 1/299 792 458초에 1m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빛은 1초에 299 792 458m를 진행한다는 계산을 추론할 수 있다. ④ [A]에 따르면, ‘속력’, ‘이동 거리’와 ‘시간’ 이 셋의 관계 중에서 과거에는 이동 거리와 시간을 미리 결정하였다. 그러나 새 도량형의 정의에서는 ‘속력’을 고정하고 ‘길이’를 고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길이’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속력’과 함께 ‘시간’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7. 어휘·어법의 이해(형태소 간의 의미 관계)

정답해설 : ㉠의 ‘눈금자’는 ‘눈금’이라는 [형태]가 ‘자’라는 [대상]에 [새겨]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 ‘모눈종이’는 ‘모눈’이라는 [형태]가 ‘종이’라는 [대상]에 [새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형태’는 ‘물건의 생김새나 그 바탕이 되는 몸체’를 뜻한다. [답] ㉡

[오답피하기] ㉠ ‘꽃무늬’에서 ‘꽃’과 ‘무늬’는 둘 다 [형태]를 말한다. ㉡ ‘삼각자’에서 ‘삼각’이라는 [형태]는 ‘자’가 취하는 형태 그 자체이다. ‘형태’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을 뜻한다. ㉢ ‘저울눈’에서 ‘저울’에 ‘눈’이 새겨지므로, ‘저울눈’은 [형태]+[대상]의 구조가 아니라, [대상]+[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 ‘그림물감’에서 ‘그림’은 ‘물감’이라는 [대상]의 용도이다.

[28-31] 현대소설, 현길언, ‘신열(身熱)’

작품해설 : 한 신문사 기자의 눈을 빌려 역사의 왜곡 행위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꼬집는 동시에 현재에도 우리가 어떤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와 조작을 일삼고 있음을 비판한 소설이다. 이 작품 속의 ‘김만호 씨’는 일제 시대 친일 행위를 했지만 해방 이후에 출세한 인물로서 현재 ‘선구적인 시민상’ 수상을 앞두고 있다. 반면 ‘강 목사’는 일제 때 한글강습소를 운영하다가 김만호 씨에게 핍박을 받은 인물로 김만호 씨와 상반된 삶의 관점을 지녔던 인물이다. 지문에 제시된 대화로 미루어 볼 때 ‘재종숙’은 ‘강 목사’의 입장에서 서 있는 인물이고, ‘교장 어른’은 ‘김만호 씨’의 입장에서 서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의 관찰자이자 작품 속에서 기자 역할을 하는 ‘나’는 ‘선구적인 시민상’ 수상 논란의 당사자인 김만호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 취재하면서 진실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 관계로 결국 좌절하고 만다.

[주제] 진실을 왜곡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28.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지문에서는 ‘나’와 ‘재종숙’의 대화, ‘나’와 ‘교장 어른’의 대화를

통해 주로 ‘김만호 씨’와 ‘강 목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들이 일제 강점기 때 및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대화를 통해 초점이 되는 두 인물의 성격과 그들의 상반된 삶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주제를 암시할 만한 상징적 소재를 찾을 수 없다. ③ 사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비유적인 언어를 부분적으로 구사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9.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및 입장 추론)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재종숙’은 ‘강 목사’의 입장에 서 있어서 ‘김만호 씨’의 ‘선구적인 시민상’ 수상을 반대하고 있는 데 비해, ‘교장 어른’은 ‘김만호 씨’를 두둔하며 ‘재종숙’의 처사를 못마땅해 한다. ‘나’는 이 두 사람을 모두 만나 취재를 하면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기에, ④처럼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렵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김만호 씨’가 일제 시대에 면장으로 일하면서 친일 행위를 했으면서도 해방 이후에도 요란하게 행세를 했다고 한 데서, 그가 현실의 변화를 재빨리 수용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김만호’는 일제 시대에 관리로 일했고, ‘강 목사’는 한글강습소를 운영하다가 강제 폐쇄를 당했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③ ‘교장 어른’이 ‘김만호’를 두둔하는 말을 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⑤ ‘재종숙’이 ‘김만호’의 ‘선구적 시민상’ 수상을 반대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권력의 종노릇 한 사람이 그런 상을 받으면 모두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언성을 높여 말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30. 추론적 사고(구절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추론)

정답해설 : ㉔을 예상 밖의 결과에 대해 실망하는 심리로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의 중간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재종숙’과 헤어지고 나서 ‘교장 어른’을 만나러 오면서 ‘그에게서는 재종숙과는 정반대의 말을 들을 것이 뻔하다’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종숙’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김만호’를 두둔하는 ‘교장 어른’에게서 ‘김만호’의 새로운 면모를 찾지 못한 것은, 서술자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이며 특별히 실망할 만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㉑에서 ‘재종숙’이 그때 일을 어제 일같이 말한 것은 그가 과거의 일을 아직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임을 전후 문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㉒에서 ‘재종숙’의 말투가 점점 과격해진 것은 그가 ‘김만호’의 수상 소식 때문에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흥분하고 있기 때문임을 전후 문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㉓의 앞뒤 문맥에서 서술자가 관련된 사안을 예민한 문제라고 느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㉔의 앞뒤 문맥에서 ‘교장 어른’이 일제 치하의 상황 논리

를 근거로 ‘김만호’의 친일 행위를 두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1. 추론적 사고(도표를 활용한 구성 방식의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서술자인 ‘나’(인물A)는 이야기Ⅱ 속의 인물인 ‘강 목사’(인물D)와 ‘김만호’(인물 E)의 삶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재종숙’(인물B)과 ‘교장 어른’(인물C)을 차례로 만나서 그들에게 ‘강 목사’(인물D)와 ‘김만호’(인물E)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야기Ⅱ를 이끌어내고 있다. 작품의 진행 과정으로 볼 때 ‘김만호’의 ‘선구적 시민상’ 수상의 타당성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는데, ‘재종숙’은 ‘김만호’의 수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김만호’를 두둔하는 ‘교장 어른’은 그런 ‘재종숙’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선구적 시민상’을 수상하게 된 ‘김만호’(인물 E)의 실상 규명이며, 동시에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강 목사’(인물D)의 실상 규명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야기Ⅰ과 이야기Ⅱ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야기Ⅰ(현재)과 이야기Ⅱ(과거)의 시간적 배경은 분명히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③ 이 글의 갈등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며, 갈등 관계를 통해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글의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Ⅱ의 비중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Ⅱ의 비중이 더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

[32-35] 예술, ‘난간의 건축 미학’

지문해설 : 이 글은 우리의 전통 건축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난간(欄干)의 건축 미학적 특징과 의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 우리의 전통 건축물은 대부분 목조 양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난간 역시 자연스럽게 목조로 설치되었다. 나무는 본래의 특성을 잘 살려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난간 공간에는 궁창을 만들어 잇기도 했는데, 이는 장식적 목적 이외에 건물 내부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깥 세계를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주제] 난간 건축의 미학적 특징과 의의

32. 사실적 사고(핵심 개념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난간의 건축 재료인 목조의 자연 친화적 특징과 난간이라는 공간이 갖는 미학적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목조는 나무 본래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다른 건축 재료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건축 재료로, 선인들의 자연 친화적인 미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난간에 궁창을 만들어 답답한 내부 공간을 확장하고 외부 공간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간 미학을 발휘하고 있다. **[답] ③**

33.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추론)

정답해설 : 우리의 전통 건축물 대부분은 목조 양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석조 난간 보다는 목조 난간이 더 널리 설치되었다. 목조 난간은 일반 민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수한 난간에서부터 멋을 살린 계자(鷄子) 난간으로 발전해 갔는데, 계자 난간은 궁관에 궁창을 만들어 잇기도 하고, 때로는 궁관 대신에 다양한 모양의 살창을 끼워 멋을 살렸다. 따라서 계자 난간의 궁창에 살창을 낸다고 한 ①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민간에서 주로 보이는 보통의 난간은 특별한 장식 없이 널빤지만으로 잇는 소박한 형태였다. 따라서 민간의 난간에서는 다양한 모양을 한 궁창을 찾아볼 수 없다. ③ 마지막 문단에 보면, 수복강녕(壽福康寧)을 상징하는 다양한 모양의 궁창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 보면, 난간에 동자를 짜서 마루와 궁관에 끼워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장식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난간을 지을 때 하엽과 돌란대를 고정시키기 위해 못을 박을 때에도 국화 모양의 나무못을 사용했다.

34.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5문단에 보면, 난간에 궁창을 만들어 잇는 것은 건물 내부 공간을 시원스럽게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레 바깥 세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인 난간이, 동시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난간의 다양한 변형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⑤ 목조로 만들어진 난간이 주위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고 했지, 환경의 물리적 변형 없이 설계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35. 어휘·어법의 이해(적절한 단어로 바꿔 쓰기)

정답해설 : ④는 화사한 멋과 야무진 짜임새를 ‘두루 빼놓지 않고’, 모두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의 의미를 갖는 ‘한결같이’와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36-39] 고전소설, 작자 미상, ‘조웅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대표적인 영웅 소설의 하나로, 전반부는 주인공이 고행을 겪고 여인과 인연을 맺는다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영웅적인 활동으로 조정과 황제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소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영웅의 활동을 도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은 한시(漢詩)를 빈번하게 삽입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인물의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제시된 장면은 월경 대사의 보호 아래 있던 조옹이 어머니를 떠나 철관 대사를 만나는 대목이다.

[주제] 조옹이 어머니를 떠나 철관 대사를 찾아감.

36. 추론적 사고(등장인물의 특성)

정답해설 : 조옹은 어머니께 ‘세상을 구경하고 황성 소식도 듣고자’ 한다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다음, 다시 월경 대사에게 ‘모친의 마음을 돌려 저의 뜻을 펴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어머니가 꾸중으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뜻을 관철시키는 태도로 보았을 때, 조옹이 어머니의 입장보다 자신의 포부를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옹의 거동을 본 철관 대사는 옹이 글쓰고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급히 내려와’ 글을 ‘보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옹을 다시 불러 오게 하고 있다. 철관 대사가 조옹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왕 부인이 월경 대사에게 한 말에 따르면, 부인은 옹의 입신양명에 대한 희망보다는 옹에 대한 사랑(‘어찌~ 잠시라도 잇을 수 있으며’)과 염려(‘어지러운 세상에 나가 어찌될 줄 알리오.’)가 앞서고 있다. ③ 동자는 조옹에게 ‘정성이 부족’하여 철관 도사를 만나지 못한 것이며, 대사의 ‘종적’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동자는 조옹이 도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④ 월경 대사는 조옹이 어떠한 곤란에 처하더라도 ‘조금도 걱정할 바가 없을’ 것이라 하여 조옹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다.

37. 추론적 사고(소재의 서사적 기능)

정답해설 : [A]는 철관 도사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조옹의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것이므로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이 제시되어 있다(ㄴ)고 할 수 있다. ‘십 년을 지내 온 나그네’인 자신이 ‘정성이 모자람’으로 인해 못 만나고 간다는 것이다. 한편 철관 도사가 조옹을 급하게 부르게 된 것은 그 글을 읽고 나서이므로, 그 글은 주인공의 고민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ㄷ)고 볼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ㄱ : 조옹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ㄷ. 조옹의 위기를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은 찾을 수 없다.

38. 비판적 사고(구성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소대성과 조옹이 영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두 가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소대성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했고, 조옹은 ‘간신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해서’ 나라를 구했다. 소대성이 ‘선천적으로 무예와 도술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조옹은 ‘스승을 찾아’ ‘긴 수련의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⑤에서 이 작품이 ‘선천적으로 힘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소대성전’보다 ‘주人公의 현실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고 한 진술을 타당한 진술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등장인물의 수’의 증감은 ‘조옹전’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사건을

다양한 측면이나 시점에서 작품이 서술되었는지의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 ②, ③ 부각하고자 하는 대상이 ‘대사나 도사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④ 시련이 보다 ‘단계적으로 설정’되는데,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되었는데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39. 어휘어법(사자성어를 통한 독자의 반응)

정답해설 : 월경대사의 말은 조웅의 운명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은 그 말과 같지 않게 조웅에게 번고라도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은 ②의 ‘노심초사(勞心焦思)’로 이 말은 ‘근심과 걱정으로 속이 탐’을 의미한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선견지명(先見之明) :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식견 ③ 식자우환(識字憂患) : 아는 것이 병이다. ④ 시시비비(是是非非) : 옳고 그름을 따짐.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즉, 잘못을 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낸다는 뜻.

[40-42] 언어, “언간(諺簡)’의 국어학적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조선 시대에 쓰인 옛 한글 편지 ‘언간(諺簡)’의 국어학적 특징을 문체적, 구어적, 표기적 특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언간은 당시 자료인 언해(諺解)가 원문인 한문의 간섭을 많이 받음에 비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 셋째, 언간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재점’이나 생략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표기가 가능하다.

[주제] 언간(諺簡)의 국어학적 특징

40.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언해 자료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인 한문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말 어법에 필요 없는 단어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어순이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언간은 원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준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③ 1문단에 보면 언간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연이나 감정을 드러낸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④ 3문단에 보면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한 편지글이라 명시하고 있다. ⑤ 1문단에 지금까지 전해진 언간들 중, 사대부 간에 주고받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41.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언간에서는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에도 방언형이 등장한다. ‘말심’은 중

양어의 일반적 어형인 ‘말슴’의 방언형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말심’이라고 표기한 것은 아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16세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내’라는 호칭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보기>에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자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16세기에 비해 오늘날에는 높임의 의미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테’는 조사 ‘에게’에 비해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향후여’의 축약형인 ‘향히’가 위 글에 인용된 언간에 쓰이고 있다. ⑤ 언간의 끝은 ‘이만 적습’, ‘여의치 못’ 등 종결어미를 생략하여 쓰기도 했다.

42. 추론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사례 찾기)

정답해설 : ‘총총’은 편지글을 쓸 때 끝맺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글쓴이의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답] ①

[43-45] 사회, ‘조세전가의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인 ‘조세전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세전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조세전가의 개념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조세전가’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 또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런 조세전가 현상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제] 조세전가의 개념과 여러 양상

43.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에 소개되고 있는 조세전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조세전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네 번째 문단에서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에 대해 궁금증을 내보이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진다고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이런 사실은 조세전가의 핵심 사항에 해당하며 곧 ①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조세전가의 혜택은 소비자가 누릴 수도 있고 생산자가 누릴 수도 있다. ③ 조세전가란 정해진 조세액 중의 일부가 타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담될 경우 생산자의 조세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⑤ 조세전가가 일어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에 따라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44. 추론적 사고(자료의 활용 및 적용)

정답해설 : A는 정부가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했을 때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조세 전가를 설명한 것이다. 물품세가 부과된 생산자는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품 가격을 올리고자 할 것이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와 갈등을 초래한다. 이런 갈등은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힘이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생산자에게만 부과되었던 물품세가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100원이었던 조세를 50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다소 낮춘다는 것이지, 조세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S_1 은 왼쪽 위로 올라가되, S_2 보다는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P를 형성하게 되고 소비자는 P를 가격으로 지불한다. ② 생산자는 부과된 세금 100원을 모두 납부한다. 단지 가격 상승이 있으므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는 것이다. ④ 소비자의 세금 부담액은 원래 상품의 가격 1500원에서 초과된 금액이므로,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⑤ 조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므로 상품 판매는 줄어들게 된다. 시장 가격의 형성된 부분의 가로 좌표가 판매량에 해당한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소비량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해도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는 이미 생산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상품 수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곧 생산량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⑤는 ㉠의 예로 적절하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바나나 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소비를 조절하는 경우이다. ② 커피 가격의 변동에 따라 커피의 소비를 조절하는 경우이다. ③ 언제나 더 싼 제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다. ④ 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사과의 출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이다.

[46-50] 갈래 복합

(가) 정약용, '고시'

작품해설 : 이 시는 제비의 말을 통해 당대의 지배 계층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화자는 제비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용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고 있지 않는 듯하지만, 이미 제비의 말에서 제비가 겪는 고통을 읽어낸다는 것은

핍박받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제비는 바로 착취당하는 서민층을 의미하며, 황새와 뱀은 이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지배 계층을 의미한다.

[주제] 지배자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통

(나) 박인로, '누항사'

작품해설 이 작품은 지은이가 51세 때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생활하던 중 두메 살림의 어려운 형편을 묻는 한음 이덕형에게 대답한 것이라 한다. 조선 전기의 양반가사와는 달리 곤궁한 생활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비록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도(道)를 즐기는 장부의 뜻은 변함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빈이 무원(貧而無怨)하는 선비들의 고절(高節)한 삶

(다) 이학규, '어떤 사람에게'

작품해설 : 이 글은 글쓴이가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친구에게 여행 중 바라본 물가의 마을에서 말년에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다. 이에 대해 친구는 그곳에서 실제 자신이 겪었던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실제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다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친구의 말을 들은 글쓴이는 깨달음을 얻는다.

[주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에 대한 깨달음

46.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한 제비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백성들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느릅나무 구멍을 쪼는 황새와 해나무 구멍을 뚫지는 뱀은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관리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의 화자는 소를 빌릴 수 없으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安貧樂道)의 뜻을 지키겠노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에서 '나'가 훗날 살고자 하는 물가의 마을에 대해 친구인 '포원자'는 그곳에서 겪는 삶의 어려운 점들을 생생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나를 만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작품 모두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담고 있는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⑤ (나)에서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를 잊어버렸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있다.

47. 추론적 사고(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가 처한 공간은 소박한 시골이다. 이곳에서 화자는 농사를 짓고자 하나 그마저도 소를 빌릴 수 없어 쉽게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생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강호에서의 꿈을 되새기며 안빈낙도의 의지를 다

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의 이동 경로는 찾아 볼 수 없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제비’와 제비를 못살게 구는 ‘황새, 뱀’은 대비적 관계에 있다. ③ (가)에서 ‘황새, 뱀’은 화자에 의해 풍자되고 있다. ④ 설의적 표현이란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이다. (나)의 ‘~취할 뜻을 갖을쏘냐’, ‘~알 이 있어 사러오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엿볼 수 있다. ⑤ (가)에서는 제비의 하소연하는 듯한 말을 그대로 읊기면서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자신의 힘겨운 삶에서 느끼는 내면을 직접 드러내고 있으며, 잠시 잊었던 안빈낙도의 의지를 다지는 부분에서도 화자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48.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제비의 지지배배하는 소리이다. 화자는 이러한 제비의 소리에서 힘 없는 백성들이 삶에서 느끼는 고통을 읽어내고 있다. 결국 제비의 소리는 화자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의 말은 친구인 포원자가 글쓴이인 ‘나’에게 한 말이다. ‘나’는 관동지방 유람을 하다가 바라본 물가의 마을에 대해 훗날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친구 포원자는 멀리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이 아닌 실제 그 마을에 대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친구는 ‘나’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결국 친구의 말은 ‘나’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답] ②

49.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작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작품의 감상을 심화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삶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며 힘겨워하다가 강호의 꿈을 환기하며 안빈낙도의 삶을 살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에서의 ‘홀륭한 군자’는 바로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화자가 빌리고자 하는 낚싯대 역시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그러므로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에 대한 비판을 보여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50. 비판적 사고(작품의 관점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도시의 삶에서 지친 사람이 시골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은 소망을 드러낸 사람은 (다)에서의 ‘나’이다. 둘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곳에서의 이상적인 삶을 소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다)에서 ‘나’의 친구가 지적했듯이 실제의 삶이란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친구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다)의 글쓴이가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충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겠느냐는 충고를 해야 할 것이다. [답] ①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 1.④ 2.⑤ 3.② 4.② 5.① 6.④ 7.② 8.⑤ 9.④ 10.③
11.⑤ 12.① 13.④ 14.④ 15.① 16.⑤ 17.③ 18.④ 19.② 20.②
21.① 22.④ 23.⑤ 24.③ 25.④ 26.⑤ 27.⑤ 28.② 29.② 30.①
31.② 32.② 33.④ 34.④ 35.④ 36.② 37.① 38.③ 39.③ 40.③
41.① 42.① 43.④ 44.⑤ 45.⑤ 46.② 47.③ 48.① 49.② 50.③

[1-5] 듣기

1.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헤이 온 와이’라는 헌책 마을을 아시나요? 이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부스는 대학 졸업 후 고향인 헤이 온 와이에 돌아와 작은 헌책방을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시골에서 헌책방이 되겠느냐’며 만류도 하고 조롱도 했죠. 하지만 부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고서를 수집해 책방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헤이 온 와이에 가면 모든 책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곳은 세계적인 명소가 됐죠.

책을 구하러 다니던 부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부스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제 친구가 떠오릅니다. 학급 환경 미화 때의 일이에요. 학급 게시판에 붙일 학급 상징물을 만들기로 한 그 친구가 종이에다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멋진 그림은커녕 종이에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뭐야?’ 하며 실망했던 저는, 다음날 깜짝 놀랐습니다. 게시판엔 수십 장의 종으로 이어진 큰 새가 하늘을 날고 있더군요. 순간 그 친구의 남다른 생각에 평소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 추론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에서 학생은 ‘헤이 온 와이’라는 헌책 마을을 세계적 명소로 만든 ‘리처드 부스’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학급 환경 미화 때 남다른 생각으로 게시판에 붙일 학급 상징물을 만든 한 친구를 통해 평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 내용을 통해 ‘남의 잘못을 감싸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에 대한 교훈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리처드 부스는 대학 졸업 후 고향에 돌아와 작은 헌책방을 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마을을 세계적 명소로 만드는 큰일을 이루어냈다. ③ 리처드 부스를 조롱했던 고향 마을 사람들이나 종이에 한 가지 색만 칠하는 친구를 보

고 실망했던 화자는 모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볼 수 있다. ③, ⑤ 리처드 부스와 화자의 친구는 모두 남다른 생각으로 사물을 볼 줄 아는 열린 사고를 지니고 있었고, 목표를 향해 묵묵히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2. 이번에는 드라마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갑 : 자, 여기가 양진이로구먼.

을 : 그래, 이제 양진까지 왔으니 고성까진 얼마 안 남았군. 잠시 쉬었다 가세. (지도 펼치는 소리) 음, 내일 해금강은 배를 타고 다녀올 수도 있겠군.

갑 : 자네, 고성에 한 번도 안 가 봤다면서 그걸 어찌 아나?

을 : 자, 여기 이 지도를 보게. 고성을 지나는 남강 물줄기가 상류에는 한 줄, 백천교 부근부터는 두 줄로 표시되어 있지? 보통 물줄기가 두 줄이면 배가 다닐 수 있고, 한 줄이면 배가 못 다닌다네.

갑 : 아하, 그렇군. 자네는 지도를 아주 잘 보네그러. 허허허.

을 : 과한 칭찬일세. 지도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네. 자네도 몇 번 보면 잘 볼 수 있을 게야. 자, 다시 지도를 보게. 모래 일정은 신계사야.

갑 : 여기는 뱃길이 없어 걸어가야겠네.

을 : 그래도 고성에서 신계사까지는 30여 리 정도니까, 아침 먹고 출발하면 점심은 절에서 먹을 수 있을 게야.

갑 : 아니, 지도에 거리까지 표시되어 있단 말인가?

을 : 그렇다네. 고성 주변으로 비교적 곧게 뻗은 선들이 보이는가? 이걸 길을 나타낸 건데 보통 10리마다 방점이 표시되어 있지. 그런데 그 길이 험하면 걷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격이 좁고 반대로 걷기 쉬운 데면 간격이 넓다네. (사이) 자, 이제는 출발하자고. 해 지기 전에 고성 목전의 금성산 줄기를 넘어야지. 해가 지면 성문을 통과할 수 없어.

갑 : 고을 이름에 '성' 자가 들어가니 성이 있는 줄 아는 게로구먼.

을 : 그것도 그렇고, 지도를 보면 고성의 고을 이름이 두 겹으로 된 원 안에 있지? 이렇게 성이 있는 고을이라야 두 겹의 원으로 표시되니 아는 걸세.

갑 : 신통하군. 마지막 일정은 만폭동이지? 고성에서 만폭동에 이르는 길은 어떤지 내가 한번 봄세. 음, 거기까진

2. 추론적 사고(이어질 대화 내용 추리)

정답해설 :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은 현재 양진에서 고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며, 내일은 해금강, 모래는 신계사, 마지막 날은 만폭동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방송을 들을 때 지도를 보면서 해당되는 장소를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된다.) 지도를 보면 고성에서 신계사까지는 거리가 비교적 짧고 강을 두 번만 건너면 되는 데 비해, 고성에서 만폭동까지는 거리도 멀고 강을 네 번 건너고 산을 하나 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만폭동 쪽 길이 신계사 쪽 길에 비해 훨씬 험하고 어려우므로 ‘신계사 쪽에 비하여 비교적 길이 편하겠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고성에서 만폭동 사이에 방점이 7~8개가 찍혀 있으므로 80여 리쯤 가야겠다는 판단은 옳다. ③ 지도상에서 강의 물줄기가 두 줄일 때 배가 다닐 수 있다고 했는데, 고성에서 만폭동 사이의 강은 모두 물줄기가 한 줄이므로 뱃길이 닿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지도에서 고을 이름이 두 겹으로 된 원 안에 있어야 성이 있는 고을이라고 했는데, 고성에서 만폭동 사이에는 그런 고을이 없다.

3.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부 곤충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동물은 피가 붉어 근육이나 살의 단면이 붉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류는 피가 붉은데도 살이 하얗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상 동물은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신체 구조상 튼튼한 다리와 역센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중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어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 소모량도 크게 다릅니다. 근육 운동이 많은 육상 동물은 어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하죠. 그런데 혈액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만으로는, 근육 운동에 필요한 산소를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육상 동물은 근육 속에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미오글로빈’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죠.

미오글로빈은 철을 포함하고 있어 산소와 결합하면 헤모글로빈처럼 붉은색을 띵니다. 육상 동물의 살이 붉게 보이는 것도 근육 속에 산소와 결합한 미오글로빈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어류는 육상 동물에 비해 근육의 사용이 적어, 미오글로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살이 하얗게 보이는 거죠. 물론 다랑어처럼 살이 붉게 보이는 어류도 있긴 합니다. 다랑어는 다른 어류에 비해 움직임이 왕성해 근육 속에 미오글로빈이 많기 때문이죠.

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강연에서 연사는 육상 동물의 경우 헤모글로빈만으로는 근육 운동에 필요한 산소를 제때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육 속에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미오글로빈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이 근육 속에서 미오글로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근육 속에 미오글로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③ 연사가 ‘왜 그럴까요?’라고 물은 후 ‘육상 동물은 중력을 이겨 내기 위해 역센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④ 연사는 어류의 경우 미오글로빈이 거의 없어서 살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⑤ 연사는 미오글로빈이 철을 포함하고 있어서 산소와 결합하면 붉은색을 띤다고 설명하였다.

4~5. 다음은 방송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으로 일정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남):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과장님, 의약품 공급 정보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장: 네, 저희 자치단체에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약국이나 제약 회사가 판매하고 남은 의약품을 저희 정보망에 기탁하면, 의약품이 필요한 사회 복지 시설이나 국내외 의료 봉사 단체에 무상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이버상의 네트워크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동안 이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의약품을 기탁하는 곳이나 받는 곳 모두 이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과장: 네. 약국이나 제약 회사에서는 처방전 변경 등으로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들을 기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죠. 또 유통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들만을 기탁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기부금 관련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 시설이나 봉사 단체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양제나 아토피 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 초를 기준으로 40여 곳에서 기탁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25억 원 어치의 의약품이 전달되었습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음,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했다면 아직은 널리 확산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 걸림돌이라도 있나요?

과장: 아, 네. 좀 있습니다. 재고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면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다시 재고가 쌓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전문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제공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장: 아, 그건 아주 쉬워요. 기부하고 싶은 사업체나 받고 싶은 시설 및 단체는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간편해서 좋군요. 모쪼록 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이 확대되어 국내외 의료 취약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비판적 사고(청취자 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대담을 들어보면 의약품 기탁자는 약국이나 제약 회사이고 사용자는 복지 시설이나 봉사 단체임을 알 수 있다. 기탁자 입장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재고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면 판매량이 감소하여 다시 재고가 쌓이는 점, 전문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제공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늘어나는 것은 기탁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방송 청취자 중에서 ‘기탁자’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약품을 기탁하는 곳이 약국이나 제약회사라고 했으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의약품 기탁을 받는 ‘봉사 단체 관계자’ 입장에서는 방송 이후 지원받고 싶은 단체가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의약품이 골고루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기탁 의약품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통 과정의 관리 문제와 사용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장에서는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을 자신들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여자는 대담의 진행자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와 같이 상대방의 답변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여자는 사업의 성과와 이점, 문제점,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을 뿐, 대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③ 여자는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다. ④ 여자는 상대방의 답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실제 사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⑤ 남자의 답변 중에 화제에서 벗어난 답변이 없으므로 여자가 상대방의 답변을 제지하는 장면은 없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적 사고를 하여 ‘글쓰기 체험’에 관한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메모’에는 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상상적으로 감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나, ‘이끌어 낸 내용’에서는 ‘그 글을 읽게 될 사람들’의 요구를 예측한다고 하고 있어 제삼자들을 글의 독자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직접적인 연결성이 떨어지는 사고에 해당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메모’의 ‘한 아이가 자기 방 안에 있다’는 문장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에 대응한다. ②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보았고’는 망원경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주를 체험하는 것이므로 간접 경험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별의 모습을 직접 그려 본다’는 ‘글을 써 본다.’에 대응하고, ‘가 보고 싶은 별’은 ‘자신이 꿈꾸는 세계’에 대응한다. ⑤ ‘그림 속 우주의 한 행성에 발을 디딘 것처럼 즐거워한다.’는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보는 적극적이고 행복한 경험’에 대응한다.

7. 추론적 사고(자료의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가)는 야생 동물의 교통 사고에 대한 보도 자료이고, (나)는 도로 길이가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대수가 증가하여 교통 혼잡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다. (다)는 승용차든 트럭·버스든 저속 운행을 할 때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통계 자료이다. ②에서 (가)와 (다)는 연결 자체가 어색할 뿐만 아니라, 저속 운행을 하면 오염 물질이 줄어든다는 내용의 추론 역시 (나)의 자료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한다는 내용은 자료 (나)에서 추론될 수 있고, ‘동물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생태 통로’를 만든다는 내용은 자료 (가)에서 추론될 수 있다. ③ 교통 혼잡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은 자료 (나)에서 추론될 수 있고, 교통 혼잡이 오염 물질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은 자료 (다)에서 추론될 수 있다. ④ 자료 (나)의 통계가 2001년, 2003년, 2005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도로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고, 혼잡 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추론도 할 수 있다. ⑤ 자동차 배출 가스의 양이 승용차냐 트럭·버스냐, 저속이냐 고속이냐에 따라 달라짐을 자료 (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8. 비판적 사고(수정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므로, 그 개요의 결론 역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㉔에는 ‘소비자 의식 함양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으로 결론이 진술되어 있는데, ‘소비자 의식 함양’은 개요 III에서 소개된 세 가지 대책 중 하나에 불과하다. IV에 들어갈 내용은 앞에서

논의된 대책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하므로, ⑤에서 제시된 수정 의견처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 촉구’로 포괄적으로 진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실태는 ‘소비자 권익 침해의 실태’를 말한다. ‘소비자 상품 선호도의 변화’는 ㉠의 실태와 관련성이 떨어지고 완결성도 없는 내용이다. ② ‘II-1-나’는 ‘부실한 피해 보상’인데, ㉡은 ‘불합리한 피해 보상 절차 및 제도’이다. 하나는 실태이고 하나는 원인인데, 실태와 원인이 관련되어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요 생성이다. 중복되었으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다. ③ <보기>의 ‘사업자 간 경쟁의 활성화’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 간 경쟁의 규제’는 글의 주제에 역행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④ ‘소비자 보호 기관’과 ‘사업자 감독 기관’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구제 제도’로 포괄할 수 있다. ‘피해 실태 조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바꾸면 오히려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게 된다.

9.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제시된 조건은 세 가지이다.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④이다. ④의 ‘가야금 곡조’, ‘소리 한 자락 ~ 즐겨 봄시다’에서 첫 번째 조건인 전통 문화를 언급하고 있다. ‘옥빛 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인 ‘소리’를 ‘옥빛’의 색채어로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두 번째 조건인 ‘공감각적 표현’을 충족한 것이다. ‘-봄시다’의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조건인 ‘청유형 문장’의 조건에 부합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전통문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② ‘공감각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③ ‘공감각적 표현’과 ‘청유형 문장’ 쓰이지 않았다. ⑤ ‘공감각적 표현’, ‘청유형 문장’이 쓰이지 않았다.

10. 추론적 창의적 사고(고쳐 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에서 ‘생각해 보게 하는’이 쓰인 것은 독일 어느 성당의 오르간 악보(‘이것’)가 우리에게 (느림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사동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라는 문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③처럼 ‘생각해 보는’으로 고친다면 주어 ‘이것이’와 서술어 ‘생각해 보는’이 호응하지 않게 된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비추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에서 사용되고, ‘비치다’는 자동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 문장 내에서 목적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비치기도’가 적절하다. ② ‘오르간 악보’에 대한 문장에서 ‘오르간 연주 장면’에 관한 문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어색하고, ‘거기에는(오르간 악보에는)’이라는 정보의 흐름에 ㉡이 끼어든 것도 어색하다. 따라서 ㉡을 삭제하자는 의견은 적절하다. ④ ㉣은 현재의 상황을 가정하는 문장이므로 ‘들었다면’은 어울리지 않다. ‘듣는다면’이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 필요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에 ‘악보를’이라는 목적어를 넣자는 의견은 적절하다.

11. 어휘·어법 (어미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⑤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와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 경우 어미 앞의 ‘빌리다’의 주어도 ‘동수’이고, 어미 뒤의 ‘예약을 하다’의 주어도 ‘동수’이다. ㉡의 경우 어미 앞의 ‘만나다’의 주어도 ‘영희’이고, 어미 뒤의 ‘돌아가다’의 주어도 ‘영희’이다. ㉠과 ㉡의 두 문장은 어미 앞뒤의 주어와 모두 같은 문장들이다. ⑤의 논리에 따른다면, 어미 앞뒤의 주어와 같으면 ‘-러’를 선택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러’가 쓰인 ㉠, ㉡ 두 문장 역시 어미 앞뒤의 주어와 같으므로 ⑤의 선택 기준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려고’, ‘-고자’가 쓰이지 않은 것은 ㉠에 쓰인 문장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 ㉠의 문장은 구어 상황의 청유형 문장이다. ② ㉡에서 ‘-러’만 쓰이지 않고 있는데, 책을 빌릴 의도만 있고 빌리기 위한 ‘이동’의 의미 요소는 담겨 있지 않다. ㉠의 문장처럼 이동의 의미 요소가 담긴 ‘빌리러 가다’가 ‘-러’의 자연스러운 문장임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있는 탐구이다. ③ ㉠은 평서문에서, ㉡은 부정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미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어미가 문장 중간에, ㉡은 문장 끝부분에 어미가 쓰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

12. 어휘·어법 (어휘의 적절한 구사)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말과 말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선택 제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말들의 결합 양상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의 취지이다. ‘결론’은 ‘내리다’, ‘짓다’와 결합하고, ‘하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소설의) ‘결말’은 ‘맺다’와 가장 잘 어울린다. ‘결정’은 ‘하다’, ‘내리다’ 등과 결합하지만, ‘맺다’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 제약을 가장 잘 고려한 어휘 선택은 ①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결정을 *맺다’는 어색한 결합이다. ③ ‘결론을 *맺다’는 어색한 결합이다. ④ ‘결론을 *하다’는 어색한 결합이다. ⑤ ‘결말을 *하다’는 어색한 결합이다.

[13-15] 기술,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

지문해설 :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의 개념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란 영상의 밝기와 색상뿐 아니라 크기, 모양, 질감까지 변화시키는 기술로 화소의 밝기 값이나 색상 값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디지털 영상 기술은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위·변조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주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의 개념과 그 실행 방법

13. 비판적 사고(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문단에서 디지털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가 일반화되면서 발생한 위·변조를 방지하는 것이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언급하고 있을 뿐,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 갖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두 개의 그림을 활용하여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의 실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의 여러 가지 효과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14.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은 화소의 수치 값을 변화시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④는 화소 값에 변화를 주는 과정 없이 단순히 디지털 영상을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과는 관련이 없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친구들의 모습이 담긴 화면의 화소가 갖는 밝기 값과 색상 값을 복사하여 화면에 삽입하는 영상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② 화소 값에 변화를 주어 색상과 질감을 좋게 만드는 영상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③ 흐린 부분을 주위와 같은 수치 값으로 변화를 주어 선명도를 높이는 영상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⑤ 변색된 부분의 색상 값을 조절하여 화면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영상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15. 추론적 사고(원리 적용의 과정 이해)

정답해설 : 영상 처리 기술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 후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 보는 문제이다. ㉔의 위성 영상은 어둡고 화소 간의 밝기 값의 차이가 없어 선명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화소의 밝기 값을 높이고, 각 화소 간의 밝기 값의 차이를 부각시키면 화소 간의 변별력이 향상되어 선명도가 높아지게 된다. ①은 화소의 밝기 값이 높아지면서 각 화소 간의 밝기 값의 차이가 두드러지도록 영상을 처리했기 때문에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각 화소의 밝기 값과 화소 간의 밝기 값의 차이(변별도)가 모두 낮아지고 있어 이전보다 더 어둡고 선명도도 떨어지고 있다. ③, ④ 밝기 값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지만 화소 간의 밝기 값 차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선명도가 높아

졌다고 볼 수 없다. ⑤ 화소의 밝기 값과 화소 간의 밝기 값 차이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16-19] 인문, '영웅의 창조와 전승 과정'

지문해설 : 인간의 기억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안에서 형성되어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영웅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영웅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글쓴이는 영웅의 탄생과 전승 과정을 살피는 것은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웅이 '민족'이라는 단위와 결합되어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애국이라는 덕목과 결부되며 국민의 단결을 이루어내는 매개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주제] 시대에 따라 달라져 온 영웅의 역사적 실체와 역할

16.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기 때문에 영웅의 탄생과 전승 과정을 살피면 시대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거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영웅이 죽고 나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 속에서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역사가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후대에 체계화된 지적 구성물임을 알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중을 역사를 이끄는 주체로 제시한 내용은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② 역사가 여러 시대를 거치며 다르게 기술되고 해석되어 왔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역사가 현재의 세계를 목적으로 진보해 온 과정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다. ③ 이 글에서는 역사가 주체에 따라 다르게 서술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을 뿐, 역사의 과학적 지위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④ 역사가 우연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7.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과거의 것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 따르면 기억은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역사 소설을 읽고 실재한 사실과 문학적 허구를 가려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기억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전승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효행의 선양을 위한 효자비 제정은 마을이라는 사회적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② 역사적 인물을 지폐에 도안으로 삼으면 그 인물에 대한 기억

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수 있게 된다. ④ 사회적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⑤ 전쟁 박물관의 전시는 국난 극복의 역사를 사회적으로 기억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추론적 사고(논지의 파악 및 적용)

정답해설 :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는 일이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첫째 문단의 내용으로부터 ㄱ이 논지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영웅이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어 구성원의 집단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 내용을 통해 ㄴ이 논지에 부합함을 알 수 있으며, 넷째 문단에서 영웅이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났다는 데서 ㄷ이 논지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이 글을 통해 시대의 욕망에 따라 영웅이 다르게 창조되고 전승되었음은 알 수 있으나, ‘영웅을 만들어 유포하는 체제가 좋은 체제가 아니다’는 입장은 이끌어낼 수 없다.

19. 어휘·어법(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⑥의 ‘화신(化身)’은 ‘어떤 추상적인 특질이 구체화 또는 유형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애국의 화신’은 애국이라는 특질이 구체화된 대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파란만장’은 곡절과 시련이 많음을 나타낸다. ③ ㉠은 탐구한다는 맥락적 의미를 지니므로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으로 그 의미가 파악된다. ④ ‘표리’는 ‘겉과 속’을 의미한다. ⑤ 뒤의 ‘과제’란 말이 있음을 고려하면 ㉡가 ‘가장 높은 위’라는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0-23] 고전소설, 작자 미상, ‘박홍보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다. 전체적으로 악한 놀부가 벌을 받고 착한 흥부가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형 소설이지만, 작품의 상당 부분은 착한 흥부가 형에게 박대 받고 가난에 시달린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고단한 흥부의 삶은 해학적으로 그려지고, 부유한 놀부의 삶은 풍자와 야유로 표현되어 대중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이 작품은 장면 장면으로 이어지는 희곡적 성격이 강한데, 이는 이 작품이 당초에 판소리의 각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쓰인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제시된 장면은 흥보가 환곡을 얻어 생활하는 장면, 매품을 팔러 가기 전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를 묻는 장면 등이다.

[주제] 흥보와 흥보 가족의 가난한 생활과 해학

20.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담긴 소설에서 당대의 사회상을 추론해내는 문제이다. 흥보가 매품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말을 듣자 아이들은 벌 떼처럼 모여들어 각자 자신의 소원을 말한다. 아이들은 흥보에게 ‘풍안(안경)’, ‘송아지’, ‘양피 조끼, 장도 비단 꽃신’ 등을 사달라고 말한다. 이로 볼 때, 아이들이 풍안과 양피 조끼 등의 신문물이나 치장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남의 죄로 매’를 맞는 상황이 나오므로, 부자가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상은 이끌어내기 어렵다. ③ 흥보의 마누라는 나라의 곡식인 환곡미를 당장은 빌려 먹더라도 나중에 갚을 때 어떻게 갚겠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 없이 관가에서 곡식을 빌렸을 것이라는 추론은 하기 어렵다. ④ 돈을 벌기 위해 매품을 파는 상황은 황금만능 풍조에 대한 반감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⑤ 흥보가 놀보 집에 다녀온 후 그야말로 다양한 품을 팔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품을 팔게 되는 상황은 흥보가 노동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21.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정답해설 : [A]에서는 자신의 볼기가 매를 맞고 돈을 버는 데라도 구실이 있다며,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볼기’의 구실을 열거하고 있다. 흥보가 떠올리는 장면이 다양하다 하겠으나, 이것을 ‘빠른 시선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 흥보는 [A]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지, ‘긴장 조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하니, ~해 볼까’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③ ‘볼기’를 소재로 하여 해학적인 맛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삼정승’, ‘양국대장’, ‘각읍 수령’ 등 자신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위를 상상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흥보 자신의 궁한 신세를 부각시키게 된다. 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2.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 이해)

정답해설 : <보기>는 판소리계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말하고 있고, 답지들도 그에 따라 인물의 심리를 복합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㉔의 경우에는 흥보 마누라가 ‘목숨’ 즉 운명 대로 살고 ‘남의 죄로 매 맞’는 일은 하지 말자는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편이 매 맞으러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드러나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수용하는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아자씨도 야속하다’에는 ‘시아주버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드러나 있고, ‘나의 설움’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② ‘속이 매워 못 듣겠네’에는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이, ‘장부의 허물이라’에

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③ ‘몽둥이 서넛’ 맞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형님께로 떠넘기세’라 하여 형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요런 몹쓸 일’이라 하여, 아버지가 매를 맞으러 간다는데 자신의 바람만을 늘어놓는 자식들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많이 사다 주마’라 하여 자식들의 바람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22. 어휘·어법(관용적 표현)

정답해설 : 자식 한 놈이 ‘송아지’를 사달랬더니, 흥보는 자식이 살림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자식을 칭찬하지만, 자식은 ‘송아지’를 불에 구워 먹겠다고 하여 흥보를 실망시킨다. ‘송아지’라는 대상에 대해서 흥보는 살림 밑천으로 보는 반면 자식은 식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자 성어는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침상 위에서 잠자면서 다른 꿈을 꿈)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같은 비용이 든다면 더 나은 것을 고르고 싶다는 뜻.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② 질문에 대하여 엉뚱한 답을 함. ③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를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김.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의 처지를 이해함. ④ 매우 분주함.

[24-27] 예술, ‘영화의 리얼리즘 미학에 관한 바쟁의 영화관’

지문해설 : 영화는 현실을 시간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연장이고, 현실의 숨은 의미를 드러내고 현실을 밀도 있게 그린다는 점에서 현실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이런 리얼리즘적 본질을 구현하는 영화가 심리적, 기술적, 미학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바쟁의 영화관이다.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현실의 참모습을 변조하는 과도한 편집 기법보다는 사건의 공간적 단일성을 존중하는 기법을 지지한다. 그것이 현실적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제] 영화의 리얼리즘 미학에 대한 바쟁의 영화관

24.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

정답해설 :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가 현실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침해하여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되도록 영화에 과도한 편집을 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이 사건의 공간적 단일성을 존중하고 현실적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현실을 의도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예술이라는 것은 바쟁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바쟁은 조형 예술의 역사가 ‘미라 콤플렉스’와 관련되어 변화해 왔

다고 생각한다. ② 회화보다 사진이 더 현실을 정확히 재현한 것이고, 영화는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한 것으로 본다. ④ 영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을 더욱 닮게 그려낼 수 있다. ⑤ 사진의 등장으로 회화는 복제의 욕망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율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25. 사실적 사고(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리얼리즘 영화가 지니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제이다. 영화는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한 예술 장르로,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 것이며, 현실과 최대한 닮은 모습을 그려낸다. 이는 곧 현실의 연장이고 현실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의 ‘현실의 참모습’은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넷과 그 의미가 다르다. ㉡, ㉢, ㉣, ㉤은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현실과 꼭 닮게 재현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답] ④

26.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정답해설 : 바쟁의 영화관에 동조하는 감독이 영화를 제작한다고 할 때, 그는 영화의 리얼리즘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될 것이다. 이는 최대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할 것이고, 과도한 편집이나 현실에 대한 무리한 조작을 삼가게 될 것이다. 또 화면 속에 여러 층을 형성하여 모든 요소를 균등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점과 관련지어볼 때, ⑤의 화면 속 중심 요소에 주목하여 관객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바쟁의 영화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리얼리즘 영화는 과도한 편집을 자제한다. ② 현실을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말이다. ③ 기교를 부리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리얼리즘 영화관이다. ④ 리얼리즘 영화 기법에서는 단일한 슷을 길게 촬영하는 롱 테이크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27. 어휘 어법(단어의 구성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는 파생어의 형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파생어는 어근에 접미사를 덧붙여 만들기도 하고, 접미사 뒤에 어근을 이어서 만들기도 한다. ‘믿음’은 ‘믿다’의 ‘민-’이라는 동사 어근에 ‘-음’이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⑤의 ‘달리기’가 ‘달리다’라는 동사의 어근인 ‘달리-’ 뒤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기’를 덧붙여 만든 말이므로 ‘믿음’과 그 구성이 같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길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길-’에 접미사 ‘-이’가 붙음. ② ‘기쁘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기쁘-’에 명사형 접미사 ‘-ㅁ’이 붙음. ③ ‘털’이라는 명사에 접미사 ‘-보’가 붙음. ④ ‘오뚝하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오뚝-’에 접미사 ‘-이’가 붙음.

[28-33] 시가 복합(현대시 + 고전시가)

(가)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 단장'

작품해설 : 이 시는 박혁거세의 어머니 사소에 대한 고대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작가가 창조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꽃'으로 표현된 절대적, 초월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화자인 사소는 노래, 말, 산돼지, 산새로 표현된 현실 세계의 경험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고 싶어한다. 그러한 열망이 '문 열어라 꽃아'에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

(나)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작품해설 이 시는 화자가 나무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어리고 나약한 나무들이 어둠과 비바람 속에서도 손을 잡고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먼 훗날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시련과 고통을 연대의 힘으로 이겨낸 나무들이 숲과 들판에 우뚝 설 것이란 낙관적 희망의 메시지는 나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주제]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낙관적 믿음

(다) 안조원, '만언사'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추자도로 유배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유배지인 추자도에 이르는 노정과 그 노정에서 느낀 바를 표현하고 있다. 유배지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이 사실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김진형의 '북천가'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유배가사이다.

[주제] 유배생활의 어려움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

28.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시적 화자가 꽃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꽃에게 문을 열라고 말한다. (나) 역시 화자는 나무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작은 손, 흐느낌, 아프고 서러워' 등의 표현에서 의인화된 나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에서 낚시를 하던 화자는 낚시대 그림자에 놀라 날아가는 백구에게 내 마음을 왜 몰라 주냐 하며 가지 말라고 한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 산천을 '홍일'로, 만경창파를 '금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다)는 가사의 4음보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④ (나)에서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통해 나무들의 시련과 활짝 피어나는 날에 대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⑤ '유장한 어조'란 '급하지 않고 느릿느릿한 여유를 보여주는 어조'를 말한다. (다)에서 화자는 한가롭게 낚시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29.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산새에 입맛을 잃었다고 했다.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은 꽃이요 꽃이 문을 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현실의 대상으로 열거된 ‘노래, 말, 산돼지, 산새’는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 (다)에서 화자는 낚시를 하고 있지만, 낚시를 하는 목적이 ‘은린옥척’을 잡고자 함이 아니라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 했다. 그렇기에 은린옥척 역시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가 머무는 장소는 꽃밭이다. ③ (가)에서 개벽은 화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이다. (다)의 성세 또한 화자의 간절한 바람이기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④,⑤ (가)에서 물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아이는 현재의 화자로 비유되어 있다. 즉, 화자는 초월적, 절대적 세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꽃이 문을 여는), 현재의 화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요, 만족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의 ‘그림자’는 낚싯대의 그림자일 뿐이요, 백구를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벗님’은 ‘백구’의 친구이기에 바로 화자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30. 추론적 사고(시상 전개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설의적 표현이란 의문의 형식을 취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나)에서 1행과 2행은 ‘얹으리’로 끝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두렵다, 무섭다’의 의미이며, 이를 시작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다)에서도 중간 부분 이후에 ‘내 마음 모를소냐’, ‘하물며 너 잡으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어둠과 비바람의 계절을 이겨내고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는 계절을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에서 계절의 변화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③ (나)에서 화자가 일관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무들’이다. ④ (다)는 낚시를 하며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기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⑤ (나)와 (다) 모두 외부 세계 보다는 화자의 내면 세계가 중심이 되고 있다.

31. 비판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원주’에 따르면 (가) 시는 집을 떠나기 전 사소가 한 독백이다. ‘노래, 말, 산돼지, 산새들’에 흥미를 잃었다는 것은 사소가 자신을 둘러싼 현실, 당시까지의 삶에 흥미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심리는 사소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나게 된 심리적 배경과 원인의 구실을 한다. 아울러 ‘꽃’은 새로운 세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답] ②

32. 추론적 사고(시적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나무들의 연대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즉, 현재는 비록 ‘작은 손’으로 표

현되었듯이 나약한 존재들이고, 어둠과 비바람에 시련을 겪을 것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낸 뒤에는 꽃과 열매가 이들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③,④ 시련을 극복한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극복할 것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33.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는 낚시를 하며 한가로움을 느끼던 화자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는 내용이며, 글쓴이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배지에서 느끼는 적대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평생의 곱던 입을 ~ 마음을 둘 데 없어’에서 화자의 외로움과 수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는 낚시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③ 백구가 내 가슴을 쪼아 헤치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했다. ⑤ 화자는 흥중에 붉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성운을 갇겠다고 했다.

[34-37] 화행이론에서의 발화의 적절성 조건

지문해설 : 발화의 적절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화행 이론은 요청, 명령, 질문, 약속, 충고 등의 발화가 상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성 조건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시 예비조건, 진지성 조건, 기본 조건으로 나뉜다. 적절한 발화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제] 발화의 적절성 조건

34.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적절한 발화는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발화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발화도 상황에 따라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④의 내용은 위 글에서 말하는 내용에 부합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적절성 조건을 어긴다는 것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각 상황마다 위배되는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예비 조건이 다른 적절성 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적절성 조건은 모든 발화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⑤ 일부러 적절성 조건을 어김으로써 모종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늘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35. 비판적 사고(서술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화행 이론에서 발화의 적절성 조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글은 딸의 생일 선물을 잊은 아빠의 이야기를 예로 들

면서 글을 시작한 후에 화행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발화의 적절성 판단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그리고 적절성 조건을 요청의 경우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것 외에 둘 이상의 조건을 어긴 발화까지 소개하면서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주고 있다. 글의 마지막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발화의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화행이론만으로는 발화와 상황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글에서 (라) 단락은 앞 단락을 뒷받침하는 단락이 아니라 앞 단락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단락이다. 또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 ④

36.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의 상황을 이해한 후, 이 상황에서 예비 조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을 찾는 문제이다. <보기1>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보기2>에서 딸은 아빠가 그렇게 큰 곰 인형은 사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청자가 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아빠, 나도 사 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아빠가 누나에게 그런 곰 인형을 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런 곰 인형을 사달라는 것이다. 즉 예비조건을 어기지 않은 요청이 된다. 엄마와 할머니가 구두를 언급하는 것도 곰 인형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할아버지가 다른 선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역시 곰 인형을 사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들 밖에 없다. [답] ②

37.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 추리)

정답해설 : ㉠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을 한순간 미처 생각하여 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쓰였다. ‘중요한 약속을 잊다’, ‘제삿날인 것을 잊었다.’는 등의 경우에 쓰인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수돗물 잠그고 나오는 것을 잊다’는 ①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④, ⑤ 일하거나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 또는 좋지 않은 지난 일을 마음속에 두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다. ③ 한 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 내지 못하다.

[38-40] 회곡

이강백, ‘파수꾼’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우화적 기법을 통해 권력의 위선적 실체를 통렬히 풍자하고 있다. 1970년대 안보 정책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집단의 모습은 이리때라는 가상의 적이 오히려 체제 유지와 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촌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진실을 폭로하고자 하나 촌장의 설득으로 결국 체제에 순응하고 마

는 ‘과수꾼 다’의 모습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용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진실을 향한 열망

38.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촌장은 편지를 가져와서 편지를 운반한 사람이 도중에 편지를 읽었으며,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올 것이며, 어떤 사람은 도끼를 들고 올 것이라 했다. 이 내용은 촌장이 ‘과수꾼 다’를 설득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즉,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무대’의 개념은 현재 극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극중 시간의 흐름은 ‘과수꾼 나’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을 뿐 전환되지는 않는다. ② 과수꾼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에 공간적 배경은 망루 정도로 추리할 수 있다. ④ 전반부에서 ‘과수꾼 가’는 ‘과수꾼 나, 다’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촌장과 대립하고 있기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⑤ 이 작품의 중심 갈등은 ‘과수꾼 다’와 촌장과의 갈등이며 이것이 전체의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39. 비판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서사극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무대 위의 연극은 연극일 뿐임을 강조하는 서사극은 관객에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낮설게 하기’의 기법을 활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기법은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 등장할 때 이러한 모습을 관객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①,②,④,⑤의 내용들은 무대 위의 상황을 현실의 상황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며, 극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들이므로 서사극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답] ③

40. 추론적 사고(어휘 해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과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망루 밖의 들판에는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이 ‘팻말’ 때문에 아무도 들판에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촌장과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팻말’을 적절히 활용한다. 즉, ‘팻말’ 뒤에 잘 익은 ‘딸기’를 그들만이 취하는 것이다. 결국 ‘팻말’은 명분 뒤에 숨겨진 ‘딸기’라는 실리를 취하게 만드는 촌장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답] ③

[41-43] 과학, ‘과거의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는 남극 빙하’

지문해설 : 남극의 빙하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빙하에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이 포함되는 연유를 밝힌 후에, 빙하를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의 산소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해 과거 지구의 기온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극 빙하를 통해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 수 있는 것은 클라트레이트 수화물과 관련이 깊다.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은 과거의 기체 성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해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은 산소 동위원소비가 기온 변화와 거의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 과거 지구의 기후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남극 빙하가 지닌 가치

41. 사실적 사고(표제와 부제의 파악)

정답해설 : 첫째 문단에서 남극의 빙하가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음을 말한 후, 둘째 문단에서는 남극 빙하를 통해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 수 있는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문단에서는 기온 변화를 알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도 남극의 빙하가 지구의 기온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 실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빙하 연구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 아니다. ④ 동위원소 연구의 현황을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으나, ‘남극, 거대한 실험실’이나 ‘동위원소 연구의 현황’이란 말은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⑤ 자원의 보고로서 남극 빙하의 가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 추론적 사고(뒷받침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셋째 문단에서는 빙하를 구성하는 산소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해 과거 지구의 기온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남극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들의 산소 동위원소비의 증감은 일 년의 주기를 갖는다. 그리고 그 증감은 기온 변화와 거의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 산소 동위원소의 증감의 주기성을 이용하면 빙하의 생성 연대와 그 당시의 기온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빙하의 오염 정도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둘째 문단을 통해 빙하의 강도가 높을 것이란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나, 그 강도를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결정구조와 산소의 동위원소비의 상관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산소 동위원소비를 통해 전체 부피를 알 수는 없다.

43.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둘째 문단을 보면 남극 빙하의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하부의 눈이 얼음으로 변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이 얼음으로 변형되면 눈 입자들 사이에 있던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산소 등의 공기가 얼음에 갇히게 되고, 상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하부의 얼음 일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A가 화산재이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② 산소의 동위원소비는 기온의 변화와 거의 정비례한다. B 지점에서의 산소의 동위원소비가 C 지점보다 낮으므로 B 지점이 C 지점보다 기온이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③ 남극의 표층에 쌓인 눈은 계속 내리는 눈에 덮이면서 점점 깊이 매몰되고 그에 따라 눈의 밀도도 증가한다. 즉 빙하 하부의 밀도가 표층의 밀도보다 큰 것이다. ⑤ 표층에 눈이 계속 쌓이면서 하부에 얼음이 형성되므로 100m 지점의 얼음이 50m 지점보다 먼저 형성된 것이다.

[44-46] 사회, '여론 조사 공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지문해설 : 이 글은 선거 기간 동안 여론 조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여론 조사 공표 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론 조사의 공표 결과가 선거에 부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과 아직까지 공정한 여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여론 조사 공표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과 여론 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논거로 삼고 있다.

[주제] 선거 기간 중 여론 조사 공표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

44. 추론적 사고(논지의 도식화)

정답 해설 : 이 글은 선거 기간 중 여론 조사 공표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다루고 있다. 여론 조사 공표 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A)은 여론 조사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거(a)와 여론 조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논거(b)를 들고 있다. 이에 반해 여론 조사 공표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B)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거(c)와 함께 여론 조사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찬성론자들의 논거(a)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가장 잘 도식화한 것은 ⑤이다. [답] ⑤

45.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 해설 :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선거 기간 내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 기간이 과거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표 금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알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언론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알 권리를 대행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현행 선거법이 여론 조사 공표를 금지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알 권리가 정보와 사상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46. 비판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 해설 : ‘밴드왜건 효과’는 지지도가 높은 후보 쪽으로 표심이 이동하는 것이고, ‘열세자 효과’는 동정심이 발동하여 열세에 있는 후보자 쪽으로 표심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에서 박수철 후보는 5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11.1%로 최하위였으나 최종 득표율이 29.1%로 대폭 상승하며 2위를 했다. 이것은 열세자인 박수철 후보에 대한 투표자의 동정심이 득표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영희 후보는 지지도가 가장 높은 후보가 아니었고, 5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29.9%였으나 최종 득표율이 28.9%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밴드왜건 효과’를 본 것은 아니다. ③ 2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2위였던 김민수 후보가 3차 조사에서 1위가 된 것으로 보아 ‘밴드왜건 효과’보다는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3차 조사 때보다 4차 조사 때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박수철 후보는 ‘열세자 효과’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5차 조사 때 2위였던 이영희 후보는 최종 득표율이 지지율보다 하락했고, 1위인 김민수 후보는 지지율보다 최종 득표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김민수 후보가 ‘밴드왜건 효과’를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7-50] 현대소설, 오상원, ‘모반(謀叛)’

작품해설 : 좌우익의 혈투와 여러 정당의 난립 속에서 이해득실을 달리 하는 단체와 집단들의 각축이 치열하던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여, 한 테러리스트가 비정한 조직의 생리와 휴머니티 사이에서 인간적 갈등을 겪는 모습을 그린 수작이다. 아직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혼란한 시기에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부정적 세태를 고발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비밀결사 조직의 지령을 수행하는 동안 벌어진 어머니의 외로운 죽음으로 인해 주인공이 겪는 갈등과 번민, 그리고 조직 활동의 결과로 인한 죄 없는 한 청년과 그 가족의 참담한 희생, 결국은 조직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에 회의를 느끼고 조직을 이탈하는 주인공의 모습 등에서 당대의 시대적·사회적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문학의 시대 정신을 읽어 낼 수 있다.

[주제] 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되는 조직의 폭력성과 비윤리성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함

4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 나타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중의 주인공을 가리키는 호칭이 ‘그’로 되어 있다. 결국 이 글은 시종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날 밤’과 ‘며칠 전’의 장면에서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지금’(1)의 공간적 배경은 거리의 가로수 아래이고, ‘지금’(2)의 공간적 배경은 어머니가 누워 있는 방 안이다. ② ‘그날 밤’은 2개월 전으로 거사가 계획되었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머니가 숨져 가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어머니가 숨져 가고 있는 순간인 ‘지금’(2)와 동일한 시간적 배경임을 알 수 있다. ④ 주인공이 ‘지금’(1)의 시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의 ‘그날 밤’[=‘지금’(2)]을 회상하고 있는 중에, 그 때보다도 ‘며칠 전’의 일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며칠 전’이 가장 먼저임을 알 수 있다. <보기>의 시간을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그날 밤’, ‘지금’(2)→‘다음날’→‘지금’(1)이다.

48. 추론적 사고(소재의 서사적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보기>의 설명 중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는 매개’,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하는 장치’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소재는 ㉠~㉣ 중에서는 ‘신문’밖에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조국’이나 ‘클랙슨 소리’는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 및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는 매개’와 거리가 멀다.

49.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의 앞부분에서는 외부 사물의 묘사로 인물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고 있으며, [A]의 끝부분에서는 약 이 개월 전의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A]에서는 ㉢처럼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는 표현을 찾을 수 없으며, ㉣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도 찾을 수 없다.

50. 추론적 사고(대화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C]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제 할 일’을 더 중요시하는 데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제 할 일’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② [B]에서 ‘비밀결사’ 조직의 동료는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압박하고 있다. ⑤ [B]에서는 비밀결사 조직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C]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타나는데, ‘그’는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홀수형) 해설

[정답]

1.⑤ 2.① 3.⑤ 4.③ 5.④ 6.③ 7.① 8.④ 9.④ 10.⑤
11.② 12.③ 13.③ 14.④ 15.④ 16.③ 17.① 18.② 19.① 20.③
21.② 22.② 23.③ 24.⑤ 25.④ 26.④ 27.② 28.① 29.③ 30.②
31.② 32.④ 33.④ 34.① 35.① 36.② 37.① 38.② 39.③ 40.④
41.⑤ 42.④ 43.⑤ 44.⑤ 45.③ 46.⑤ 47.② 48.⑤ 49.① 50.④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옛 이야기를 통해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조선 시대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생과 그의 아우는 관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생이 아우의 집에 들렀는데, 어찌 된 건지 마당에 못 보던 향아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상히 여긴 김생이 그 이유를 묻자, 아우는 염색업을 시작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말에 김생은 화를 내며 아우를 꾸짖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관직에 있어서 살기에 불편함이 없을 만큼 후한 녹봉을 받고 있건만, 너는 어찌 과욕을 부리느냐? 네가 이렇게까지 하여 재물을 취한다면, 네 과욕 때문에 본래 이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김생의 이런 성품은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바가 큼니다.

어느 날 아궁이 밑에서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한 어린 김생은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금입니다! 제가 금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 금은 네 물건이 아닌데 어찌 이리 기뻐하느냐. 네가 그 금을 취한다면 그로 인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생길 터이고, 그 마음이 끝내는 너 자신을 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그 금을 원래 자리에 묻고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1. 추론적 사고(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 추리)

정답해설 : 화자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에서, 김생은 동생이 관직에 있어서 살기에 불

편함이 없는데도 염색업을 부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 과욕을 부린다고 꾸짖고 있다. 그 과욕 때문에 본래 염색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자는 김생의 이런 성품이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생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금을 발견한 김생에게 그 금으로 인하여 탐욕이 생기면 그 마음이 너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물질에 대한 과한 욕심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해가 된다는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이야기에서 형이 재물을 탐하는 아우를 꾸짖은 것일 뿐, 재물로 인해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② 형의 말은 부업까지 하면서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었지,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었다. ③ 이 이야기에서 물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는 에피소드는 없었다. ④ 형과 아우는 관직에 있었으며, 아우가 물질 획득의 수단으로 한 일은 염색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철새는 장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활용하는 비행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 중 활상하는 철새와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이동 시간대가 다릅니다.

활상하는 철새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펼친 채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상승 기류는 지면이 달궈지고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낮에 정점에 이릅니다. 따라서 활상하는 철새는 보통 상승 기류가 많은 한낮에 이동합니다.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는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하며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는 수평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상승 기류와 부딪히게 되면 수평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겠죠. 따라서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는 대개 해가 진 뒤의 밤 시간에 이동합니다. 또 끊임없이 날갯짓을 하면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밤에 열을 식히기가 쉽겠지요.

활상하는 철새와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는 모두 바람의 방향에 따라 비행 고도를 바꿉니다. 바람은 지표면으로부터 고도가 높아질수록 더 강하게 부는데요, 새들이 이동하다 역풍을 만나면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낮은 고도를 선택합니다. 반면에 순풍을 만나면 바람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높은 고도를 선택하겠죠.

2. 사실적 사고(강연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이해)

정답해설 : 이 강연에서는 철새를 비행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언

급한 후, 그 중에서 ‘활상하는 철새’와 ‘날개치기 하는 철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활상하는 철새’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펼친 채 이동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많은 낮에 이동하고, ‘날개치기 하는 철새’는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하며 수평으로 날아가는데, 이 때 상승 기류와 부딪히면 수평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주로 밤에 이동한다고 하였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활상하는 철새’와 ‘날개치기 하는 철새’는 모두 역풍을 만날 때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낮은 고도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③ 열을 식히는 데 유리한 밤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은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이다. ④ 날갯짓을 하며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은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이다. ⑤ ‘활상하는 철새’는 상승 기류를 이용할 수 있는 낮 시간대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3.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 생: 선생님, ‘인터넷 공간에서의 윤리 의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려고 우선 문항부터 만들어 봤어요. 고칠 데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그래? 어디 보자. 잘 했는데, 몇 가지는 고쳐야겠네. 먼저, 이 설문 문항은 네가 조사하려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윤리 의식’이라는 주제와 거리가 멀구나. 이걸 기기의 사용 능력을 묻는 것이어서, 윤리 의식과는 거리가 멀지.

학 생: 음, 그렇겠네요.

선생님: 이 문항도 같은 문제점이 있네. 게다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응답해야 할지 곤란하구나. 만일 너한테 ‘당신은 그동안 책을 몇 권이나 읽었습니까?’라고 물으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묻는 건지 알 수 없겠지?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으려면 설문지의 답항에 묻는 대상의 종류와 기준을 다 제시해야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

학 생: 그렇군요. 묻는 게 무엇인지,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대답하기가 혼란스럽겠네요.

선생님: 그리고 이 문항에는 성격이 다른 물음이 묶여 있네. 물음마다 대답할 내용이 다른데, 한 문항으로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두 문항으로 나누어서 한 문항에 하나씩 물어야 해.

학 생: 아. 정말 한 문항에 두 가지 내용을 섞어서 묻고 있네요.

선생님: 또 이 문항은 응답자가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직설적으로 묻고 있네. 이렇게 응답자 본인의 경험 여부를 직접 물으면, 솔직하지 않은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학 생: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3.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교사와 학생의 대화에서 학생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윤리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기 위해 만든 설문 문항을 검토해 달라고 교사에게 요청하고 있다. 교사는 설문 문항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지적해 주고 있다. ⑤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설문 주제에 맞고, 두 가지 내용을 섞어서 묻고 있지 않으며, 응답자가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직설적으로 묻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⑤는 선생님이 지적한 설문 문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컴퓨터 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묻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윤리 의식’이라는 설문 주제와 거리가 먼 문항이다. ② 이용 가격에 대해 묻는 것은 설문 주제와 거리가 멀고, 무엇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할 지 알 수 없는 문항이다 ③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응답자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④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물음이 섞여 있는 문항이다.

4~5. 다음은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동아리 활동비 배정에 대해 봉사반과 발명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동아리 대표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 일정한 단계와 조건을 정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에 따라 발언해 주시고, 학생회 배심원들께서는 잘 듣고 평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사반 토론자 입론하십시오.

봉사반 토론자: 동아리 활동비는 학생회 예산의 일부이므로 되도록 많은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봉사반은 회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 성과에 따라 봉사반에 더 많은 활동비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발명반 토론자 입론하십시오.

발명반 토론자: 동아리 활동비는 실질적 성과를 많이 올린 동아리에 더 많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발명반은 여러 차례 학생 발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으니, 우리 발명반에 더 많은 활동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봉사반 토론자, 상대방 입론에 대해 반론하십시오.

봉사반 토론자: 소수 학생만 만족하는 활동 결과를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발명반 토론자, 상대방 입론에 대해 반론하십시오.

발명반 토론자: 저도 학생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올바른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봉사반 여러분들이 좋은 품성으로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시죠.

사회자: 봉사반 토론자 주장하십시오.

봉사반 토론자: 우리는 ‘나눔의 공간’이라는 봉사 활동 소식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전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동아리에 더 많은 활동비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발명반 토론자 주장하십시오.

발명반 토론자: 축제 때 우리 동아리에서 ‘생활 속의 발명’이라는 행사를 했더니, 평소에 발명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명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입상 실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아리에 더 많은 활동비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4. 비판적 사고(토론 내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동아리 활동비 배정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려고 봉사반과 발명반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회자는 먼저 일정한 단계와 조건에 따라 발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계별 조건에 따르면 ‘입론’ 과정에서 근거 제시를 통해 각 동아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반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례 제시를 통해 각 동아리의 주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발명반 토론자의 반론을 들어보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활동 성과로 주장하는 봉사반의 입론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품성으로 양보의 미덕을 보여 달라’는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발명반 토론자는 입론 단계에서, 발명반이 여러 차례 학생 발명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발명반에 더 많은 활동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봉사반 토론자의 반론은, 소수 학생만 만족하는 발명반의 성과를 실질적인 성과라 할 수 없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인성을 기르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④ 봉사반 토론자는 ‘나눔의 공간’이라는 봉사 활동 소식지를 만들어 많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발명반 토론자의 주장은, ‘생활 속의 발명’이라는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례 제시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추론적 사고(공통적인 전제의 파악)

정답해설 : 봉사반 토론자는 봉사반이 그동안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해 왔으니, 이러한 활동 성과에 따라 더 많은 활동비를 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발명반 토론자는 실질적 성과를 많이 올린 동아리에 활동비를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학생 발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발명반에 더 많은 활동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두 토론자 모두 동아리의 활동 성과에 따라 활동비를 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활동비를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동아리 활동비 지출 절차의 투명성을 지적하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을 우선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대상에서 추출한 의미를 바탕으로 여행에 관한 글감을 연상하는 것이다. 자릿수를 통해 위치가 다르면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의미를 추출했다. 이를 여행에 적용하면 여행하는 사람이냐, 그곳에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 같은 대상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냐, 여행을 안내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같은 대상이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답] ③

7. 추론적 사고(자료의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청소년 우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글을 쓰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절하게 찾아내야 한다. 2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주로 공공시설 이용 시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할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데 그 혜택이 제한적이라 했다. 그리고 1의 인터뷰 내용에서 공공시설 이용 시 대학생들은 할인 혜택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민간 시설의 우대 혜택이 늘어나길 바란다 고 했다. 그런데 ①에서는 공공시설의 우대 규정이 민간 시설에 비해 미비하다고 했다. 자료만 볼 때 공공시설과 민간 시설의 우대 규정을 비교할 수는 없다. 오히려 2의 자료를 볼 때 공공시설의 우대 규정이 일부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기에 민간 시설의 우대 규정보다 좋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3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앞으로 교통수단 이용에서 우대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①에서는 우대 혜택이 교통수단 이용에 편중되어 있다고 문제를 잘못 지적하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1의 인터뷰 내용에서 청소년증 제도가 지닌 한계를 알 수 있다. 또한 1과 2의 자료에서 우대 혜택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③ 1의 인터뷰 내용에서 대학생들은 할인 혜택이 없다고 했다. 2의 자료를 보더라도 18세 이하 청소년조차 할인 혜택이 제한적이라 했다. ④ 4의 자료에서 알 수 있다. ⑤ 3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제도가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그린 IT 운동은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과 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의 항목은 이러한 목적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 ‘기업과 소비자의 의식 전환’의 내용을 넣는 것 또한 어색하다. 상위 항목이 ‘3. 정책적 차원’이라 했으므로 주체를 정부로 생각한다면 ‘기업과 소비자의 의식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답] ④

9. 비판적 사고(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하다’의 서술어는 ‘채색’에 대응되는 것이며, ‘밀그림’에는 대응될 수 없다. ‘밀그림’은 그리는 것이기에 현재 상태로 서술어를 각각 두는 것이 적절하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잘못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두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배치’가 아니라 ‘방치’가 적절하다. ② ㉠의 ‘그래서’는 ‘건물 뿐 아니라 주변 공간까지 황폐해 보이기에’이기 때문에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야 인과 관계가 자연스럽다. ③ 주민들의 자부심을 담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해’로 수정해야 한다. ⑤ 추진하는 주체는 바로 제안서를 쓰는 학생들이기에 피동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표현해야 자연스럽다.

10.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참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와 주민들에게 가져올 생활상의 변화라는 두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⑤에서 학생들에게 마을에 대해 자부심과 협동 정신을 심어 준다는 내용이 첫째 조건을, 주민들은 활발히 교류하며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둘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어느 조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첫째 조건만을 충족하고 있다. ③ 둘째 조건만을 충족하고 있다. ④ 첫째 조건만을 충족하고 있다.

11. 어휘·어법 (인칭 대명사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그쪽’은 아버지의 책을 부탁받는 당사자이다. ‘㉡당신’ 역시 같은 대상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내’는 ‘㉡나’와 같은 1인칭 대명사이다. ‘㉠내’는 ‘가’라는 주격 조사 앞에 쓰이고, ‘㉡나’는 은/는 앞에 쓰인다. ‘내’가 ‘나의’의 줄인 말로 쓰이는 경우는 ‘내 물건’과 같은 사례에서이다. ③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책을 부탁하고 있는 ‘나’를 포함한 ‘나의 형제자매들’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나’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그쪽’은 내가 부탁하고 있는 당사자이기에 우리에게 포함되지 않는다.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할 때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반드시 대명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대상이 혼동되지 않고 분명할 때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아버지’를 ‘당신’이란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도 있지만, 현재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바꾸어 쓸 필요는 없다. ⑤ ‘㉤당신’을 ‘자기’로 바꾼다면 뒤에 이어지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의 ‘당신’이 높임법에 맞는 것이다.

12. 어휘·어법 (어휘의 적절한 구사)

정답해설 : ㄱ과 ㄴ의 문장이 연결된다면 ㄴ의 ‘시늉’은 ‘공부를 하는 척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시늉’의 대상은 ‘장사꾼’의 행동이 아니라 공부인 것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⑤ ‘조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부추김’이란 의미를 나타낸다.

[13-15] 언어, ‘옛 문헌의 문장 부호’

지문해설 : 이 글은 옛 문헌에 사용된 문장 부호의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설명문이다. 오늘날의 문장 부호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옛 문헌의 부호들로, 마침표나 쉼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던 ‘ㅇ’[구점(句點)과 두점(讀點)], 새로운 단위의 내용이 시작될 때 쓰였던 ‘○’, 주석을 달기 위해 사용했던 ‘【 】’, 앞 글자나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 주는 부호였던 ‘〃’, ‘々’, ‘^’ 등을 소개하고 각각의 기능이나 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제]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

13. 사실적 사고(중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가 주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옛 문헌에 어떤 부호들이 쓰였고,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였던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의 경우와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했지만, 설명의 초점은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에 맞추어져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④ 옛 문헌에 쓰인 부호가 현대적으로 수용된 것에 관한 내용은 다섯째 문단에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현대에도 문장 부호가 쓰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 문헌에도 문장 부호가 쓰였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지는 하나,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논의의 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14. 추론적 사고(이유의 추리)

㉠은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 주는 부호들이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수고를 덜기 위해 다시 적지 않고 부호로 처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인쇄본보다 손으로 쓴 필사본에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 글의 내용도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려면 부호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풀이하여 쓰는 것이 나을 것이다. ② 글자나 어구의 반복을 나타내므로, 문장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③ 동일함을 표시하는 부호가 있다고 해도 띄어쓰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5. 비판적 사고(유사 사례와의 비교 판단)

오늘날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 ‘()’를 이용하듯이, 옛 문헌에서는 ‘【 】’를 사용하여 보충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셋째 문단에 따르면, <보기>의 ㉠처럼 단락이 끝나는 위치에서는 ‘】’를 생략했다고 했으므로, ④는 옳지 않은 반응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오늘날의 쉼표(,)에 해당하는 것이 두점이다. ② 오늘날의 마침표(.)에 해당하는 것이 구점이다. ③ 표제어가 용례로 반복되어 나타날 때는 ‘-’로 대체했다고 했다. ⑤ 새로운 단위의 예문 같은 것이 시작될 때에는 ‘○’을 사용했다고 했다.

[16~19] 예술, ‘각 시대의 음악 양식에 적용된 반복의 양상’

지문 해설: 음악 양식에 적용된 반복의 양상을 시대별로 소개한 글로 음악은 시대별로 그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을 기본 원리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작곡가들은 (감상자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음이 기억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반복의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돌림 노래와 유사한 입체적인 모방의 방식으로, 바로크 시대는 반복과 변주를 통한 장식적인 변주 형태로, 고전 시대는 주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악장의 사이사이에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를 삽입하는 형식적 반복의 형태로 반복의 기법을 구현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시대별 음악 양식에 적용된 반복 기법의 특징

16.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해설 : 둘째 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른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한 ‘모방’을 통해 반복 기법을 활용했다. 변주의 방식을 활용한 것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은 다섯째 문단, ②는 첫째 문단, ④는 셋째 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⑤ 첫째 문단과 넷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반복 기법이 단순한 동요에서부터 복잡한 소나타까지 널리 사용된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17.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 해설 : ‘모방’의 방식은 돌림 노래 형식으로 여러 성부가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을 노래하는 반복 기법을 말한다. 돌림 노래처럼 동일한 선율로 시작한 후에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의 노래를 이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에 의한 통일감과 다른 선율에 의한 독립성을 보여주는 구조가 ‘모방’의 양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①은 A가 시간 차를 두고 반복되면서 각 성부가 A의 뒤에 각각 B, C, D와 같은 독립된 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모방’의 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각 성부의 A 뒤에 각각 독립적인 B, C, D가 이어지고 있어 성부의 독립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A가 시간 차를 두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 성부가 동시에 A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③ 성부2에서 A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성부1과 성부3의 독립성이 떨어진다. ④ 성부1에서 A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성부1, 3에서 A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8.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정답 해설 : <보기>는 앵무조개의 껍데기가 동일과 변화의 미감을 준다는 내용으로 동일한 형태의 반복에서 통일을, 형태의 크기를 달리하는 것에서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한 바로크 시대의 음악 양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②에서 언급한 소나타 악장의 대조는 서로 다른 주제가 대조되는 형식이 반복되는 것이므로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에서 느껴지는 동일과 변화의 아름다움과는 다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반복의 미감은 <보기>에서 언급되었듯이 르네상스 건축에서도 느낄 수 있다. ③ 동일과 변화의 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문과 창은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추구한 바로크 시대의 장식적 변주 양식과 유사하다. ④ 바로크 성악의 저음 성부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앵무조개 껍데기의 무늬에서도 엿볼 수 있다. ⑤ 동일과 변화를 통한 조화를 추구했던 바로크 시대의 음악 양식과 르네상스 건축의 유사성을 잘 이해한 반응이다.

19. 추론적 사고(어휘의 이해와 활용)

정답 해설 : ‘사이사이’는 ‘사이’라는 어휘가 반복되면서 ‘틈이 있을 때마다 또는 틈이 있는 데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걸음걸음’은 ‘걸음’을 반복함으로써 ‘걸음을 걸을 적마다, 걸음마다’라는 의미를 얻게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사이사이’에 담긴 ‘여러 개의 사이’라는 복수적 의미로 표현

될 수 있듯이 ‘걸음걸음’도 ‘여러 걸음들’이라는 복수적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나머지는 ‘-마다’와 결합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대강들’(×), ‘바싹들’(×), ‘멀리들’(×), ‘가득들’(×)처럼 복수적 의미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20-23] 현대소설 - 김승옥, ‘역사’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60년대 도시화된 삶의 형태에 대해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김승옥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서, 현대인의 팍 짜인 기계적인 일상생활을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외화(外話, 겉 이야기) 속에 내화(內話, 속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소설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외화와 내화는 모두 1인칭 시점(외화 - 1인칭 관찰자 시점, 내화 -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이 소설은 질서와 가풍을 중요시하는 양옥집과 가난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창신동 집이라는 두 공간을 대립시켜 현대 문명사회의 허구성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자기 세계에 대한 작가적 지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줄거리] 액자 소설인 이 소설은 어느 공원에서 우연히 듣게 된 어느 사내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다.(외화) 창신동 빈민가에 살던 나는 어느 날 깨끗한 양옥집으로 하숙집을 옮기게 된다. 이 집의 주인인 할아버지는 가풍을 중시하는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도 엄격한 질서와 가풍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인물이다. 나는 이곳의 엄격한 질서와 규칙에 낯설어 하면서 창신동에서의 가난하지만 생기 넘치는 삶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의식에 가장 또렷이 떠오르는 인물은 서씨인데, 그는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로 한밤중에 동대문에 올라가 무거운 돌을 옮기는 역사(力士)였다. 자신만의 내밀한 삶과 세계를 추구하는 서씨의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이 집의 기계적인 획일성에 대해 나름의 반발도 모해 보지만, 하숙집의 생활은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내화)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 일상 생활에 대한 풍자

20.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인 나는 가난하지만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서씨의 삶과 엄격한 질서와 가풍을 중시하는 현재 하숙집 인물들의 삶을 대비하고 있다. 즉, 서술자인 나는 과거의 하숙집과 현재의 하숙집의 대비를 통해 각각의 공간에 속한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면서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② ‘그 집’에서의 회상 장면에서 ‘이 집’에서의 현재 장면으로 전환된 것 외에는 장면 전환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④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동대문’, ‘그 집’, ‘이 집’에서 모두 서술자는 ‘나’이므로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다.

21. 추론적 사고(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은 서씨가 자신의 힘을 더욱 유용하게 쓰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서씨는 역사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로 조상들로부터 ‘힘’이라는 무형의 재산을 ‘가보’로 물려 받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그 ‘힘’은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그저 공사관에서 남들보다 약간 더 많은 경제적 보수를 보장하는 정도에 불과해졌다. 그래서 서씨는 공사관에서 남들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는 데 힘을 쓰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남몰래 동대문에 올라 돌을 옮기고 그 돌을 보면서 선조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존재감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의 존재감을 긍정함으로써 서씨가 선조의 영광을 보존한다는 것이 ㉠에 담긴 의미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는 서씨(저 사내)를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나’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③ ㉢은 창신동 집에 있을 때 안주에의 동경을 느끼던 내가 새로운 하숙집에 와서 권태와 혐오증을 느끼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여기에는 ‘나’조차도 ‘나’의 감정 변화를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 ④ ㉣에서 피아노 소리가 그친 시간을 확인해 보는 ‘나’의 행동에는 이 집안의 규칙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는지 확인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 ⑤ ㉤에서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했다’는 것은 방어적 표현으로서 이 집안의 규칙이 ‘나’의 행동을 제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추론적 사고(함축적 의미의 추리)

정답해설 : ㉠, ㉢, ㉤, ㉥는 모두 ‘이 집’의 할아버지가 정한 엄격한 질서와 관련이 있는 시간들이며, 특히 ㉢과 ㉥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시간이다. 반면에 ㉡는 그런 질서와 관계 없이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때를 가리킨다. [답] ②

23.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작가 김승옥이 추구한 새로운 사실성에 대해 언급하며 [A], [B]에 나타난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에 대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독자들은 [B]에서 서씨 가게의 내력을 통해서 서씨가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를 옮겨 놓는다는 이야기에 실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작가가 서씨의 내력을 밝힌 것은 [A], [B]에서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를 옮겨 놓는 서씨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A]에 나오는 ‘금고만 한 돌덩이’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이지만 오히려 외국인의 눈에는 사실적인 소재로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동대문’을 낫선 배경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동대문’이라는 배경이 독자들의 실감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모습을 변형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그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A]에 나타난 서씨의 면모를 신성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⑤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서씨의 ‘돌덩이 옮겨 놓기’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서씨의 행위가 사실이 아닌 환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4~27] 사회, ‘창조 도시의 근본 동력과 환경에 대한 조명’

지문 해설 : 창조 도시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창조 도시를 만드는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창조 도시는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문화적 환경과 경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창조 도시를 만드는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보는 견해와 창조 계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글쓴이는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창조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와 창조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주제] 창조 도시를 만드는 근본 동력과 창조 환경의 중요성

24.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의 적절성)

정답 해설 : (마)의 중심 화제는 ‘창조 도시 건설의 선행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마)는 창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고찰하여 창조 산업, 창조 계층, 창조 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답] ⑤

25.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 해설 : <보기>의 B시는 창의적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연구 기관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구 기관과 지역 산업체의 교류가 부족해 경제적 부(富)가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B시의 상황을 창조 계층과 산업 환경 간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시가 공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아름다운 현수교를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② A시의 변화가 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③ B시에는 창의적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많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경제 침체가 제조업의 퇴조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A시는 제조업의 비중이 큰 도시라는 특성을, 특화된 연구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B시는 창조 계층과

연구 기관이 풍부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26. 사실적 이해(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해설 : (가)에서 창조 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창조 도시는 문화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도시임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문에 창조 산업이 미래 예측성과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마)에서 창조 도시가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라)에서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마)에서 창조 계층의 창의력을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27. 추론적 이해(어휘의 이해와 활용)

정답 해설 : ‘창출하다’는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지어냄’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⑥는 ‘만들어 내는’ 정도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 ②**

[28-33] 현대시, 고전시가 복합

(가) 한용운, ‘님의 침묵’

작품해설 : 이 시는 임이 떠나 버린 슬픔을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듯한, 또는 혼자서 독백을 하는 듯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임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경어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내용을 더욱 호소력 있게 전달한다. 이 시는 임이 떠난 것을 자각하면서 시작된다. 1~4행에서 임과의 이별은 화자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5~6행에서 그 슬픔이 드러난다. 하지만 7~8행에서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된다. 그리고 마지막 9~10행에서는 슬픔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님의 침묵’에 대한 화자의 태도이다. 화자는 임이 떠나가 버렸고 현재 침묵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속에는 임이 생생히 살아 있기 때문에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윤희 사상이라는 불교적 사유에 바탕을 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조국 상실의 시대적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나) 김광규, ‘나뭇잎 하나’

작품해설 : 이 시는 겨울이 되어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발견한 소멸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이 시에서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1~2연에서 언

젠가는 소멸하고 마는 자연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제시한 후, 3연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에 주목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4연에서 저마다 생성되었다가 끝내 소멸해 버리고 마는 나뭇잎을 보면서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함께 자신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

(다) 작자미상, ‘춘면곡(春眠曲)’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즉 상사(相思)의 정(情)을 노래한 평민가사이다. 한 서생(書生)이 봄날 야유원(野遊園)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 춘흥(春興)을 나눈 후 이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별로 인한 한(恨)과 원망의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잠이 들어 꿈에나마 임과 재회하여 즐거웠지만, 꿈에서 깨자 다시 임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이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다룬 다른 시가들과 달리 남자가 겪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주제] 임과 이별한 괴로움을 잊으려 애쓰는 한 남자의 심정, 임에 대한 상사(相思)의 정(情)

28. 비판적 사고(작품들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굳고 빛나던 옛 맹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등 과거에 임과 함께 했던 추억을 환기하며 임과의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신록이 우거졌을 때’, ‘낙엽이 지던 때’ 등 과거에 미처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환기하며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임과 만나 사랑하던 때를 떠올리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화자는 모두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지 않았고, (다)는 자연의 변화가 표현되긴 했지만 그것이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다)에는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작품이 없다. ④ (가), (다)에는 관조적인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는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29. 추론적 사고(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은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되는 부분이다.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라는 표현에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반면에 ㉡은 마지막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화자가 문득 인식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서 화자의 인식만 드러날 뿐, 화자의 의지는 투영되어

있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 ㉡ 모두 시상이 확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 ㉡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다. ④ ㉢은 역동적인 느낌이 희박하고, 오히려 ㉠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아니고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은 사실과 관념이 뒤섞인 표현이다.

30. 비판적 사고(주어 읽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의 ‘차디찬 티끌’은 임이 떠난 충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임과의 인연이 허무하게 깨진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가)의 화자가 이별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임이 떠났다고 해도 임과의 인연이 깨진 것은 아니다. (나)의 ‘새벽 서리’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물이므로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첫 번째 ‘아아’는 임이 떠난 것(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으며, (나)의 두 번째 ‘어화’도 임이 곁에 없는 상황(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다.

31. 비판적 사고(다른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보면 한용운의 「반비레」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라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고, 「나의 노래」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에서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을 만나 깊이 교감(소통)한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화자는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의지적으로 극복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님에게 들리는’ 것이 초점이므로, ‘산과 들을 지나서’라는 표현만 보고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임이 떠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노래가 아니라 화자의 노래이다.

32. 비판적 사고(감상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는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존재의 고뇌를 노래한 시가 아니다. 따라서 4연에서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한 것은, 생성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마는 자연의 원리를 깨닫게 된 화자의 상실감이라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1, 2연에서 '~가(이) 온통 ~ 때 그곳을 ~면서 나는 ~었다'는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과거에는 대상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골짜기(1연)'→'길(2연)'→'대추나무(3연)'→'나뭇잎 하나(3연)'로 대상이 바뀌면서,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면서 대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라는 부사는 화자의 인식의 순간을 강조하는 부사로서 독자로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났다(생성)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지는(소멸) 나뭇잎의 변화 과정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33. 비판적 사고(다른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A]에서 '조각달'이나 '잘새'는 '오동', '제비', '나비'와 마찬가지로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헤어진 임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므로,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답] ④

[34-36] 과학,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

지문해설 : 공룡 발자국 화석이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공룡 발자국의 형태, 길이, 폭, 보폭 거리 등을 측정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형태를 토대로 발자국의 주인이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 공룡인지 짐작할 수 있으며, 발자국의 길이를 통해 공룡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보폭 거리를 통해서 발자국의 주인이 어떻게 보행하는 공룡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주제]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

34.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공룡 발자국 화석은 공룡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발자국의 형태로부터 종류를, 발자국의 길이로부터 크기를, 보폭 거리로부터 보행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토대로 공룡의 특성이나 당대의 기후, 환경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공룡 발자국에 관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생대 백악기의 기후 환경, 공룡의 분포, 서식지 특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공룡과 환경의 연관성은 글의 내용과 상관성이 적은 부제이다. ④ 공룡 발자국 형태를 통해 발자국 주인이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둘째 문단에 나와 있을 뿐이다. 글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⑤ 공룡 골격 화석이 아니라 발자국 화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B는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로부터 B가 초식 동물인 용각류에 속하는 공룡의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A를 보면 앞쪽에 세 개의 발가락이 있으며 뒤꿈치는 뾰족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각류의 발자국 형태이다. 수각류는 육식 공룡이다. 따라서 A와 C의 공룡이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림 자료 왼쪽에 건열이 있다는 사실에서 추정할 수 있다. ③ <보기> 자료에서 동일한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과 함께 새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있다. ④ 4족 보행 공룡의 경우에 뒷발자국의 길이를 기준으로 '지면으로부터 골반까지의 높이(h)'를 구한다. 뒷발자국 길이가 B는 평균 30cm이고, C는 평균 36cm이므로 B는 h값이 120이고 C는 144이다. ⑤ B에는 모양이 서로 다른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함께 있으므로 B의 주인은 4족 보행 공룡이다. 그러나 D는 규칙적인 2족 보행렬을 보이고 있으므로 발자국 주인이 2족 보행 공룡이다.

36.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상대적 보폭 거리는 $[SL/h]$ 이다. A와 D는 발자국 길이가 같으므로 h값도 100으로 동일하다. 반면에 A의 보폭 거리(SL)는 230cm이고 D의 보폭 거리는 150cm이므로 A와 D의 상대적 보폭 거리는 각각 2.3과 1.5이다. A는 2.0 이상 2.9 이하에 해당하므로 보행 상태가 빠른 걸음 상태였을 것이고, B는 2.0 미만이므로 보통 걸음 상태였을 것이다. [답] ②

[37-39] 시나리오, 흥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각색한 시나리오다. 조세희의 소설은 1970년대 한국 소설이 거둔 중요한 결실로 평가되는 작품으로 전혀 낙원이 아니고 행복도 없는 '낙원구 행복동'의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난장이' 일가(一家)의 삶을 통해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소시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지문은 영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 사건을 교차편집의 방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다.

[주제] 도시 빈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좌절

37.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95에서 인부들이 담벽을 허물고 마당으로 들어왔는데도 난쟁이 식구들

은 태연히 앉아 말없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 인부의 대장 눈짓에 따라 인부들은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데 즐거운 낮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꺼워하다’는 ‘마음속으로 기쁘게 여기다’는 의미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영수는 말없이 앞만 본다고 했다. 영수가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영수와 영호가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제시된 상황을 보면 가족 모두가 영희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불이가 ‘얼굴은 왜 다쳤니.’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영호는 얘기가 복잡하다며 덕분에 고기를 얻었다고 했다. ⑤ 우철은 영희에게 다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시를 서툴게 쓰는 모습을 보고 직접 고기를 잘라 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철의 태도에 대해 영희는 약간 화가 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38. 추론적 사고(영화의 장르적 특성 이해)

정답해설 :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뚫혀 온다고 했다. 이는 담장 밖이 아니라 담장 안에서 바라본 시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카메라의 위치는 담벽 안쪽이며 이 시선은 인부들의 시선이 아니라 불이 가족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③ 카메라의 시선은 바로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다.

39.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불이의 집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주 플롯’이 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우철과 영희의 이야기가 ‘부 플롯’이 된다. 이러한 두 개의 이야기가 교차편집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94의 장면은 몽타주 기법으로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플롯과 부 플롯이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④, ⑤ <보기>에서 유사성과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두 장면의 유사성은 ‘고기’이며, 대조점은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이다.

[40-42] 인문, ‘집단 수준의 인과’

지문해설 : ‘집단 수준의 인과’라는 철학적 주제에 대하여 상이한 관점을 보이는 두 주장을 대비한 글이다. 상이한 두 관점은 각각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는 별개다’라는 입장과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입장이다. 전자는 집단 수준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스트레스와 병이라는 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제시함으로써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글쓴이 자신의 주관은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 글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주제]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에 대한 관점의 대비

40. 사실적 사고(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는 별개라고 보는 관점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 둘을 대비하면서 스트레스와 병을 예로 들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상반된 두 관점의 주장을 소개하는 데서 그칠 뿐, 내용을 종합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②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자를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두 관점에서 각각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지는 않았다. ⑤ 서두에 일반인의 상식을 제시하고, 철학자들은 그 점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설명한 글로, 상식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

41.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집단 수준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독립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쪽에서도 하나의 결과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여러 요인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요인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추리할 수는 없다. ② 사람들은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했다.(첫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③ 첫째 단락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와는 반대로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하여 집단 수준의 인과를 도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집단 수준의 인과와는 별개라고 보는 쪽의 견해와는 맞지 않은 말이다.

42. 추론적 사고(생략된 전제의 추리)

정답해설 :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요인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필수적인 요인이 있다면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갖는 필연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기>의 (가)에 제시된 여러 요인들 중에는 필수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섞여 있다. (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려면 다른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필수적인 요인임을 전제로 하면 되는데, <보기>의 (가)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

므로, ㉠에 바로 그런 내용이 제시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게 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좋은 씨앗이 아닌데도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나)의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 ② 물을 제때 주지 않은 것이나 병충해로 인한 요인은 개별자 수준 인과의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집단 수준 인과의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결론과는 무관한 것이기도 하다. ③ (가)에 제시된 영희네의 사례는 경험적인 것이므로 이 말 자체가 이미 틀렸다. 게다가 (나)의 결론과 상충되기도 한다.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에 들어가면 결론에 맞지도 않다.

[43-46] 기술, '동영상 압축 기술의 원리'

지문해설 : 컴퓨터 동영상 파일은 대부분 수십만 장의 화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압축한 결과물이다. 이 글에서는 화질의 차이 없이 동영상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원리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제거하는 것이 그것인데, 본문의 문단 구조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원리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형식이다.

[주제] 컴퓨터 동영상 압축 기술의 세 가지 원리

43. 비판적 사고(독자들의 반응)

정답해설 : 본문의 정보를 바르게 이해한 반응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먼저, 셋째 문단의 '원래의 화소 값들을 여러 개의 성분들로 형태를 변환한'이라는 대목에서 '변환된 성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문단의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을 저장한다',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등에서 '변환된 성분'의 제거 정도에 따라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넷째 문단의 '이미 많은 부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통계적 중복' 원리가 '변환된 성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짧은 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하면 ~ 크게 줄일 수 있다.'에서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압축된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달라지겠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⑤의 '변환된 성분'과 관련이 깊은 것은 둘째와 셋째의 원리이며, 이들 각각에서는 변환이 이루어진 성분을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동영상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화면 간 중복'은 이전 화면과 이후 화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며, '화면이 복잡함' 경우는 화면 내부의 정보를 따지는 '화소 간 중복'과 관계된다. ② 셋째 문단에 따르면, '성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화면이 흐려'진다고 하였다. 따라

서 ‘화면이 흐려지는 이유는 화소의 개수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③ 화면 간 중복은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하다는 내용을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화면이 연속된다면 화면 간 중복된 정보를 제거하여도 같은 화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에 화소 간 중복만 제거할 수 있다고 한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④ 셋째 문단에 따르면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소의 중복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화면과의 관계를 알 수 없어 화소 간 중복을 따질 수 없다고 한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화면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중복은 ‘화면 간 중복’이다.

44. 추론적 사고(정보 간의 관계)

정답해설 : ㉠이 지닌 비유적 의미를 파악하고, ㉠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추적으로 파악하는 문제이다. ㉠(수분)은 우유에서 전지방유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며, 전지방유는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유’를 ‘원래의 정보’라고 한다면, ‘수분’은 ‘필수적이지 않은, 없어도 되는 정보’, ‘전지방유’는 ‘압축된 정보’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분’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⑤의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 즉 필수적이지 않아서 제거해도 되는 정보로 볼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하나의 화면’은 변환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모든 화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분’의 비유적 의미와 거리가 있다. ② ‘동영상의 화질’은 그 화면에 제거해도 되는 정보가 얼마나 포함되었느냐에 따라, ‘우유의 수분 함유량’으로 비유될 수 있다. ③ ‘원래의 화소 값들’은 원래의 우유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으로 비유될 수 있다. ④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는 우유로 치면, 수분을 제거하기 이전과 이후의 각각의 우유 성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가)는 ‘이전 화면’에 별, 사각형, 원, 육각형, 팔각형이 들어 있고, ‘현재 화면’에 같은 도형들이 들어 있는데, 다만 그 배치가 달라져 있다. 형태가 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셋째 문단에서 말하는 ‘한 화면 안에서 화소 값의 차이’는 적은 편이다.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으며, ‘선’을 제외하면 변화도 거의 없다. 반면 <보기>의 (나)는 ‘이전 화면’과 ‘현재 화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만 같은 화면 내에서 세부적인 명암의 차이가 크므로 ‘한 화면 안에서 화소 값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면 간 중복의 정도’는 두 개의 화면이 거의 비슷한 (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화면 내의 화소 간 중복 정도’는 (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답] ③

46. 어휘·어법(단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의 ‘지는’은 ‘얼룩’과 결합하여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를 의미하며, ‘생기다’와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의 ‘장가를 들었다’의 ‘들다’는 ‘~(생활)을 시작하다’, ‘~의 처지에 놓이게 되다’ 등의 의미에 가까우므로 문맥적 의미가 ㉠과 거리가 있다. **[답]** ㉡

[오답피하기] ㉠ ‘파문이 일었다’의 ‘일다’는 ‘없던 현상이 생기다’를 뜻한다. ㉡ ‘발자국이 나’의 ‘나다’는 ‘어떤 대상에 형체 변화가 생기다’를 뜻한다. ㉢ ‘구멍이 생겨’의 ‘생기다’는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를 뜻한다. ㉣ ‘흙이 가서’의 ‘가다’는 ‘생기다’와 의미가 같다.

[47-50] 고전소설, 작자 미상, ‘박씨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병자호란으로 인한 패배감을 심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창안된 군담 소설의 하나이다. 그러나 청나라에 굴욕적인 화친을 맺은 역사적 사실을 뒤집어 당시의 치욕을 되갚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병조 판서 이시백의 아내인 박씨 부인은 도통한 경지에 이른 인물로 청나라의 계략을 미리 알아차리고 청나라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제시된 지문은 이시백과 박씨 부인의 결혼을 성사하기 위해 상공이 박 처사와 언약을 하고 금강산을 찾는 장면이다.

[주제] 박 처사의 딸과 이시백의 혼인(작품 전체 주제 :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47.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상공은 박 처사의 딸과 자신의 아들 시백의 혼사를 허락할 때,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이 재상가에서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했느냐며 다그칠 때,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다고 했다. 이로 보아 상공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

[오답피하기] ㉠ 박 처사는 상공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을 보고 혼인을 청한 것이다. ㉢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근본도 모르는 집안’이라 반대한 것이다. ㉣ 초등들은 상공이 묻는 말에 박 처사에 들은 이야기를 전해줄 뿐이다. ㉤ 이시백은 아버지 상공의 뜻을 따라 혼인을 하기 위해 금강산을 따라 왔다. 이시백이 돌아가자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박 처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48. 추론적 사고(내용의 세부적 이해)

정답해설 : 시백이 부친을 위로하며 고사를 인용한 것은 지난 일은 후회해도 소용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쓸쓸함’은 고사에서 한 무제가 겪은 감정이지 현

재의 시백이나 상공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귀택, 극히 불가하오나, 아니하오면, 하나이다’에서 극진한 겸양 표현을 엿볼 수 있다. ② 부인은 ‘혼인은 인륜대사’라는 한문 구절은 인용하며 혼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③ ‘좌우 산천 바라보니’의 시선은 바로 인물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풍경에 대한 시각적 묘사와 시냇물, 두견성의 청각적 묘사를 통해 박 처사를 찾지 못해 애가 타는 상공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49.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말한 수직적 사고는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했다.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계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 이러한 수직적 사고 때문이 아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금강산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50. 어휘·어법(한자성어에의 적용)

정답해설 : ㉠에서 상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즉, 혼인을 치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박 처사를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강산에 마냥 있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란 의미이다. ②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접는다는 의미이다. ③ 기회를 놓쳐 시기가 지나갔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⑤ 인간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 힘들기에 좋은 일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슬픈 일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과 해설

[정답]

1.④ 2.③ 3.② 4.② 5.④ 6.④ 7.③ 8.④ 9.② 10.③
11.③ 12.③ 13.⑤ 14.⑤ 15.④ 16.⑤ 17.③ 18.① 19.② 20.②
21.① 22.⑤ 23.② 24.③ 25.③ 26.④ 27.④ 28.① 29.⑤ 30.①
31.① 32.④ 33.③ 34.③ 35.⑤ 36.① 37.① 38.④ 39.② 40.②
41.① 42.③ 43.① 44.① 45.④ 46.③ 47.⑤ 48.④ 49.① 50.⑤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청취자와 함께 하는 ‘삶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희 씨가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쓴 글을 들려주신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추억에 잠겨 보시죠.

여 :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성냥갑에서 뼈죽이 나와 있는 성냥개비가 놀자고 한다. 무료함에는 특효약이라 속삭이는 성냥개비. 한번 믿어 보기로 한다. 한 개비를 놓고, 또 한 개비를 놓고, 그 위에 가로질러 또 나란히 놓고…….

처음에는 무심히 쌓아 올리지만, 조금씩 높아지면서 마음이 가기 시작한다. 어디 무너지지 않게 쌓아 볼까, 손이 조심스러워진다. 제법 높이를 갖추니 조바심도 생긴다. 무너지면 안 되는데, 손이 부담스러워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바닥부터 착실하게 쌓을걸.

아차 하는 순간 소리도 진동도 없이 무너진다. 아래쪽에 있던 성냥개비들이 자기들에게 무심했던 시간을 원망하는 듯하다. 그때 미리 마음을 썼으면 덜 미안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닐까?

남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희 씨의 글이었습시다.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이 방송에 소개된 청취자의 사연은 성냥개비 쌓기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글이다. 성냥개비를 제대로 쌓으려면 바닥부터 착실하게 쌓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즉 바닥부터 착실하게 쌓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무너져 후회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라는 교훈을 준다. 따라서 이 방송 내용은 기본을 다지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친구에게 들려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④

2.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제시된 화면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스텔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을까요?

(효과음) 먼저, (가) 화면입니다. 파스텔화를 처음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파스텔을 이용해 그림의 완성도를 높였던 17세기 화가, 루벤스를 떠올리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파스텔화는 15, 16세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두 화가는 습작을 할 때 빨간색 분필을 문질러 다양한 효과를 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빨강 분필을 파스텔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음) (나) 화면을 보세요. 18세기에 그려진 「풍파두르 부인」이란 작품입니다. 부인의 얼굴이 온화하게 보이죠? 피부의 부드러움과 윤기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나 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파스텔을 문지르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림의 좁은 부분에서는 종이를 사용하고, 넓은 부분에서는 솜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외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효과음) (다) 화면입니다. 파스텔은 처음에 주로 스케치 연습 재료로 쓰이다가, 17,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어떤 화가들이 파스텔을 주로 사용했을까요? 19세기 밀레는 파스텔이 다른 재료들에 비해 휴대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빛이나 동작을 포착하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드가 역시 독특한 질감에 매료되어 파스텔을 애용했지요.

(효과음) (라) 화면입니다. 파스텔화와 관련된 유의 사항입니다. 파스텔화를 그린 다음에는 반드시 아교풀이나 고무로 만든 정착액을 뿌려야 합니다. 그림의 색을 보호하고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착액을 뿌리면 색깔이 다소 변하고 그림의 표면도 평평해지기 때문에 처음 그릴 때보다 재질감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이젠 파스텔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넓어졌나요?

2. 비판적 사고(발표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파스텔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프리젠테이션하는 내용을 듣고 이를 수정, 보완해 보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파스텔화의 기원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파스텔화를 처음 시작한 화가와 그들이 사용한 재료에 대해 설명하였고, (나) 화면을 보여주면서 파스텔화의 효과와 표현 도구에 대해 설명하였고, (다) 화면을 보여주면서 파스텔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화가를 소개하고 그들이 파스텔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였고, (라) 화면을 보여주면서 파스텔화를 그릴 때와 그릴 후의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③번의 경우 발표자가 (다) 화면을

설명할 때 이미 밀레와 드가가 파스텔을 사용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설명 내용 중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가 나오는데 (가) 화면의 '1'에는 화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화가의 이름을 하위 항목으로 넣어주면 (가) 화면이 보완된다. ② (나)를 설명할 때, 종이, 솜 이외에 다른 도구에 대해 의문만 제기하고 설명을 안 하고 있으므로, 다른 도구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줄 필요가 있다. ④ (라)를 설명할 때 그린 후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는 중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⑤ (가)~(라)는 모두 '파스텔화의 이해'와 관련된 하위 항목들인데, 현재의 화면에서는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각 화면 상단에 '파스텔화의 이해'라는 제목을 표시해 주면 보완이 될 수 있다.

3.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감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9볼트의 건전지입니다. 허끝에 대면 찌릿함을 느끼죠? 그 까닭은 건전지의 전류가 허로 흐르면서 허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감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외부에서 전압이 걸려, 근육이나 내장으로 전류가 흘러 몸에 충격을 주는 것이 감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정전기를 느끼는데, 이것도 감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기의 경우는 전압이 높아도 흐르는 전류가 그다지 세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 감전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류가 우리 몸에 흘러야 위험할까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50밀리암페어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압의 크기가 아니라 전류의 세기입니다. 또한 시간도 중요한데요, 센 전류라도 흐르는 시간이 매우 짧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약한 전류라도 흐르는 시간이 길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마른 손에 비해 젖은 손에서 전기 저항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세지게 되고, 따라서 감전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 전류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감전됐을 때 부상을 입는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뇌와 심장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3.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강연에서 감전 시 얼마만큼의 전류가 우리 몸에 흘러야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전압이 몇 볼트나 되어야 우리 몸이 피해를 입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②에 제시된 질문은 이 강연만 듣고는 해결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감전될 때 위험한 신체 부위는 뇌와 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정전기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전압이 높아도 흐르는 전류가 그다지 세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마른 손에 비해 젖은 손에서 전기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면 감전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강연의 첫머리에서 9볼트의 건전지를 혀에 대면 짜릿함을 느끼는 이유를 감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5. 다음은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아침부터 조는 걸 보니 새벽에 축구 중계 봤구나?

남학생 : 응, 그래도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은 좋아.

여학생 :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경기가 조금 지루했나 보더라.

남학생 : 전반 초반에 넣은 한 골을 끝까지 지켜서 이겼거든. 그래도 이겼으니 됐지, 뭐.

여학생 : 나도 우리 팀이 이겨서 좋긴 한데, 경기 내용은 맘에 들지 않아. 올해 감독이 바뀌고 난 뒤에 우리 팀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 지난번에도 30분이나 남았는데, 경기를 수비 위주로 운영하고, 고의적으로 반칙을 해서 경기 흐름을 끊고. 그런 건 맘에 안 들어.

남학생 : 그래, 그건 좀 아쉽지. 하지만 선수들은 이기려고 축구를 하는 거고, 또 팬들은 이기는 걸 보려고 축구장에 가는 거잖아.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하는 거나 상대 선수가 다치지 않을 만큼만 반칙을 하는 것도 다 이기기 위한 작전의 하나라고 봐.

여학생 :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다 보면 팬들이 지루해하잖아. 그리고 반칙도 작전의 하나라고는 하지만, 경기 흐름을 끊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는 않아. 지난번 감독은 비록 지더라도 화려한 공격 축구를 보여 줬잖아.

남학생 : 맞아. 그때는 한순간도 경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 하지만 경기 내용이 그렇게 박진감이 넘쳐도 결국 이기지 못하면 힘 빠지더라.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느낌이랄까?

여학생 :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냐.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좋아야 팬들을 축구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거지. 팬들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보여 주는 다양한 기술이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려고 축구장에 가는 거잖아. 그게 진정한 팬이기도 하고.

남학생 : 팬들이야 당연히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지.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기는

거야말로 팬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거야. 그리고 진정한 팬이라면 그냥 구경만 하기보다는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지. 왜, 경기장의 팬들을 열두 번째 선수라고도 하잖아?

4. 창의적 사고(광고 문구의 창의적 생성)

정답해설 :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은 스포츠 선수의 경기 참여 태도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여학생은 팬들을 위해 경기 내용이 좋아야 한다며 경기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고, 남학생은 팬들을 위해서 이기는 경기를 해야 한다며 경기의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팬들을 위한 경기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두 학생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문구는 팬을 위한 경기를 강조한 ②번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여학생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며, ⑤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남학생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다. ③, ④는 이 대화의 내용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문구들이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이 대화에서 여학생은 ‘우리 팀이 이겼으니 됐다’는 남학생의 주장에 대해 ‘나도 우리 팀이 이겨서 좋긴 하다’며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경기 내용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남학생도 ‘경기 내용이 아쉽다’는 여학생의 주장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팬들은 이기는 걸 보려고 축구장에 간다’며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여학생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며 남학생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수비 위주의 경기는 팬들이 지루해 하니까 공격 축구를 해야 한다’며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남학생은 그런 여학생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기지 못하면 힘이 빠진다’며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여학생은 ‘결과가 중요하다’는 남학생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경기 내용이 좋아야 팬들을 축구장으로 불러모을 수 있다’며 자기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남학생은 ‘팬들이 내용 있는 경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여학생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이기는 것이 최고의 팬 서비스’라고 하며 자기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모두 상대방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자기 견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산길을 걷는 여정에서 삶의 자세를 이끌어내는 문제이다. 가령, 그림 에세이의 ‘목마름과 돌부리와 무거운 발걸음’에서는 <보기>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림 에세이의 내용에서 ④의 ‘목표를 잃은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는 끌어내기 어렵다. ④를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에 관한 내용은 에세이에서 찾기 어렵다. 정답 ④

7.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공모에서 요구한 표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휴대 전화의 벨 소리와 연주회의 음악을 대비할 것. (2) 다른 관객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할 것. (3) 휴대 전화를 끄도록 요청할 것. 이 셋을 다 충족하는 표현은 ③이다.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벨 소리보다 ~ 음악이 더 소중합니다’이며, 조건 (2)를 충족하는 표현은 ‘이웃과 공감하며 듣는’이다. 그리고 조건 (3)을 충족하는 표현은 ‘휴대 전화를 재워 두실 때’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②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기계의 울림보다 악기의 울림’이며, 조건 (2)와 (3)을 충족하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④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마음을 ~ 주머니 속이 아니라 무대 위에’이며, 조건 (3)을 충족하는 표현은 ‘전원을 내려 두는 작은 실천’이나, 조건 (2)를 충족하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8. 비판적 사고(자료의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나)는 강의 방류수에서 항생제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이며, (다)는 폐의약품에 오염된 물이 인체의 건강에 해로우므로 폐의약품을 수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료이다. ④의 경우, (나)와 (다)에서 항생제가 자연에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으며, ‘항생제의 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찾는 활동은 의약품이 버려지기 이전의 진료 단계에 관한 것이므로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글 전체의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④

9. 추론적 사고(개요 수정 과정의 전략 파악)

정답해설 : (가)와 (나)는 두 학생 각각의 개요이고, (다)는 이 둘을 통합한 개요이다. (다)의 ㉠(데이터베이스화된 도서 정보의 이용 증대)은 (가)의 본론 ‘3. 도서 정보 활용의 증대’를 구체화한 것이고, (나)의 항목은 활용하지 않았다. ㉡ 항목이

(나)에서는 언급되거나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본론’ 중 ‘2. 독자와 저자의 대화 활성화’와 (나)의 ‘현황’ 중, ‘나홀로 독서의 만연’이 서로 배치되므로, ㉠에서 (가)의 내용을 선택하여 기술하고 있다. ③ ㉡(전자 도서 이용자 증가)은 (가)의 ‘결론’의 ‘온라인 독서 방법’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으나 (가)의 ‘본론’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에서는 ‘전자 도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의 ㉢에서 새로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④ (나)의 ‘현황’에서는 대중 읽기 식의 독서나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독서 등의 문제적 현상을 지적하고 있고, (가)에서는 ‘온라인 독서 방법의 개발’을 언급하고 있다. 이 둘을 결합하여 (다)에서는 ㉣(바람직한 온라인 독서 방법의 개발과 교육)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⑤ ‘중소 서점’과 ‘도서관’은 (가)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나)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다)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과 같은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는 온라인 서점이 오프라인 서점보다 편리한 이유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위치가 적당하다. 바로 앞 문장에 온라인 서점의 편리성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 바로 뒷문장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도서의 저렴함에 관한 내용이므로 위치를 맞바꾸면 내용 연결이 어색하게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그래프에 제시된 기간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의 바로 앞에서는 2008년이 언급되었으므로, ㉠(판매한 책)가 어느 기간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분명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다. ② 그래프 상 판매 감소가 있었던 해도 있으므로, ‘매출액은 매해 증가해 왔으며’를 수정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서점’으로 써 오다가 ‘인터넷 서점’을 바꾸어 쓰고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④ 전자 도서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의 정보는 온라인 서점을 통한 도서 구입 증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11. 어휘·어법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

정답해설 : ‘만화가 재미있다’의 ‘재미’는 ‘흥미’를 뜻하므로 ‘재미1’에 해당한다. <보기>에 제시된 대로, ‘재미1’과 ‘맛2’가 유의 관계인 것은 맞으나, ‘재미1’과 ‘맛1’은 다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다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맛1’과 ‘맛2’의 다의 관계에서처럼 형태가 같아야 하나, ‘재미1’과 ‘맛1’은 형태가 다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여행의 ‘맛’은 <보기>의 ‘맛2’에 해당하며, ‘맛2’는 ‘맛1’과 다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② 설탕의 ‘단맛’과 ‘쓴맛’은 <보기>의 ‘단맛’과 ‘쓴맛’에 해당하며, 이들은 <보기>에서처럼 ‘맛’의 하의어에 해당한다. ④ 상인의 ‘이익’을 ‘재미2’

와 유의 관계로 본다면, <보기>의 ‘이익’도 ‘재미2’와 유의 관계로 볼 수 있다. ⑤ 소설의 ‘흥미’와 ‘이익’은 <보기>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기 어려우므로, <보기>에 역시 그 의미 관계를 표시할 수 없다.

12. 어휘·어법 (감탄사의 용법 파악)

정답해설 : ㉠의 ‘글썸’이 ㉡의 ‘글썸요’로 ‘-요’가 첨가된 것은 발화의 청자가 아들에서 아버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하여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뉘’는 다음에 이어지는 ‘명인’에 대해서 이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여러 말 할 것 없’이 수용하거나 긍정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② ㉡은 상대방을 의식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바라는 발화이다. ④ ㉢의 ‘음’ 앞뒤에 반점(.)이 있다는 것은 독립어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의 ‘아니요’는 부정하는 의미이고, ‘아니 ~ 될 일이냐’의 ‘아니’는 놀라움의 의미이므로 둘은 의미가 같지 않다.

[13-16] 현대시

(가) 정지용, ‘발열(發熱)’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열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자식의 고통스런 상황이 잦은 쉽표의 사용과 도치의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자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은 ‘아아’의 반복적인 표현 속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있으며, 아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지막 모습이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주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

(나) 김영랑, ‘거문고’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소리를 마음껏 내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선 ‘거문고(기린)’를 통해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화자의 답답함과 비애 어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억압의 상황에서 자유를 구가하지 못하는 작가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시대를 잘못 만나 제 곡조를 잃어버린 ‘기린(거문고)’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망국의 설움 속에서도 마음껏 울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권 회복에 대한 화자의 염원을 읽어낼 수 있다.

[주제] 암울한 시대 상황의 비극적 인식

(다) 최승호, ‘대설주의보’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온 산과 골짜기를 덮는 눈을 통해 1980년대 군부의 계엄령 상황이라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눈보라의 대설주의보를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으로 표현한 것에서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읽힌다. 이러한 눈보라는 길을 끊어 놓을 듯하고, 연약한 굴뚝새를 숨게 만들며, 그 위세는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릴 듯하다.

[주제] 자유를 억압하는 암울한 시대 상황 비판

13.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화자의 어린 아들이 열에 앓고 있는 모습이, (나)에는 화자가 지켜보고 있는 ‘기린(거문고)’가 울지 못하는 상황이, (다)에는 눈보라 속에서 ‘굴뚝새’가 처한 상황이 부각되어 시적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나는 중얼거리다’의 문장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느껴지고 있지만, 시행이 반복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에서도 시행의 반복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명사로 끝난 시행은 11행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복이 시적 여운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다)에서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며 화자가 인식하는 암담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에는 거문고가 기린으로 의인화되었다. 또한 (다)에는 눈보라가 힘찬 군단으로 표현되어 마치 군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의인화의 표현이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에서의 표현은 계엄령 하의 군대를 연상시키기에 강한 거부감을 불러온다. ④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이 느껴지는 작품은 (가)이다. (가)에서 2행은 ‘포도순이 소리 없이 기어 나가는 밤’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소리 없이’를 행의 맨 뒤로 보냈으며, 4행은 ‘등에 훈훈히 서리나니’로 표현되어야 자연스러운데 ‘훈훈히’를 행의 뒤로 보냈고, 6행에서는 ‘박나비처럼 드내쉴노니’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도치하여 표현했다. 또한 8행과 9행 역시 도치되어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어순의 도치는 작품 전반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14. 비판적 사고(영상시 제작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의 아이는 열병을 앓고 있다. 화자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안타깝게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이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으로 표현되었으며,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망연한 표정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C]의 장면을 B, S처럼 영상화하는 것이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 장면에서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처마 밑 어느 집

에 고정되고 있다. 시간은 밤이요, 땅에 스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린다는 표현에서 더운 계절임을 알 수 있다. ② 아이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기에 ‘박나비, 주사’의 표현에서 열병의 붉은 색이 두드러지고, 아이의 가쁜 호흡을 음향으로 들려주면 아이의 고통스런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아이의 앓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④ ‘아아’의 감탄사는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시대적 상황 하에 탄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두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 일정한 증거로서의 틀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 ‘노인’은 국권이 자유로울 때 ‘기린’을 마음껏 울게 했던 존재로 추억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화자의 ‘기린’은 이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보다 계엄령으로 표현된 눈보라 속에서 고립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나)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에 쓰였다고 했다. (다) 역시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② (나)에서 화자는 마음껏 울지 못하는 시대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 지금은 ‘이리떼, 잔나비떼’만 몰려다니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읽어낼 수 없다. (다)는 눈보라의 상황 속에서 파닥이며 힘겹게 날아가는 ‘굴뚝새’에게서 암울한 시대 상황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읽어낼 수 있으나 ‘굴뚝새’는 ‘뒷간’에 몸을 감추고 만다. 그렇기에 여기에서도 고난의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읽어낼 수 없다. ‘대설주의보, 군단, 계엄령’으로 표현된 암울한 상황만이 강조되고 있다.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기린’이지만, 동시에 화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다)에서 ‘내리는’ 역시 그 대상은 ‘눈’이면서 동시에 ‘계엄령’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이리떼’와 ‘잔나비떼’는 ‘내 기린’을 제약하는 것이며, (다)에서 ‘술개’는 ‘굴뚝새’를 ‘뒷간’에 숨게 만든다.

16. 추론적 사고(시적 상황에 대한 파악)

정답해설 : [D]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문 아주 닫고 벽에 기댄 채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기린’의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닫힌 공간은 바로 화자 스스로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는 ‘산짐승’들로 하여금 길 잃고 굶주리게 하며,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려는 눈보라가 내려치는 상황이다. ‘굴뚝새’마저 몸

을 감추게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립의 공간인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D]는 화자가 선택한 고립된 공간이며, 동시에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E]의 공간은 존재들을 억압하는 외부적 공간이다. ② [D]와 [E]의 상황 모두 화자를 힘들게 하고,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③ [D]에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내’는 ‘기린’이라는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E]에서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관찰과 묘사만 드러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대상인 ‘기린’과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E]에서 화자는 대상인 ‘눈보라’와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17-19] 언어, ‘언어 지도를 활용한 방언 연구’

지문해설 : 이 글은 지리학의 방법인 ‘언어 지도’를 활용하여 방언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어 지도는 일정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으로, 통시적으로 변화하는 언어 현상을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지리학의 한 방법인 언어 지도를 활용하면 현재 언어 상태의 생생한 모습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어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도에 담긴 언어형태 이전 시기의 언어를 재구성하거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제] 언어 지도를 활용한 방언 연구의 방법 및 의의

17. 추론적 사고(글의 세부 내용 추리)

정답해설 : 방언 연구에 언어 지도를 활용하면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시적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어 지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기에 성별이나 세대 차의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방언형에 대한 내용은 유추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③ 방언형의 지역적인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어떤 방언형이 두루 쓰이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준어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언어 지도는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에, 순수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다.

18.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사례 찾기)

정답해설 : ‘박쥐’를 ‘빨쥐, 뿔쥐’로, ‘부추’를 ‘솔, 줄, 정구지’로, ‘진달래’를 ‘참꽃, 연달래’로 부르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 ㉠의 예에 해당한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의미하는 ‘아재’가 지역에 따라 ‘고모’나 ‘이

모'를 의미한다는 b의 사례는 ㉠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분화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19.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표준어 '노을'에 대한 가상의 언어 지도이다. <지도 A>는 각 지점에 해당하는 방언형을 지도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호로 표시한 진열 지도이고, <지도 B>는 앞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등어선으로 표시한 해석 지도이다. 진열 지도인 <지도 A>에서는 언어학적으로 비슷한 모양의 부호를 사용하는데, '노을'과 '노으리'가 비슷한 모양인 '□'과 '■'의 부호를 사용한 것은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 ◇, ☆' 등은 '노을'의 방언형 중에서 형태가 다른 것을 구분하기 위한 부호일 뿐, 단어의 의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④ <지도 B>를 보면 방언형이 같은 여러 지점을 묶어서 굵게 등어선으로 표시하였다. ⑤ <지도 B>를 보면 <지도 A>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역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이질적인 방언형이 무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편집자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20-22] 기술, '청력 검사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귀의 소리' 측정을 통한 청력 검사 기술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력 검사 방법은 청력 검사자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귀의 소리'를 이용한 청력 검사 방법은 외부 자극 소리에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청력 검사자의 반응 없이도 청력을 측정할 수 있다. '귀의 소리'를 이용한 청력 측정 방법의 기술적 원리를 귀의 구조와 연결해 핵심 정보로 소개하면서 그 한계, 이용 사례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주제] 귀의 소리 측정을 통한 청력 검사 기술의 원리

20. 추론적 사고(근거의 파악)

정답해설 : ㉠은 '귀의 소리'가 청세포가 외부의 자극 소리에 반응하여 내는 자체적 소리임을 말하고 있다. 문제의 의도는 ㉠과 같이 말한 이유를 이 글의 제시된 내용을 통해 이해했는지를 묻고 있다. 글쓴이는 ㉠과 말한 이유를 ㉠의 바로 뒤에서 '달팽이관 메아리'와 달리 외부자극에 대한 '귀의 소리가'가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다는 점과, 오른쪽 귀에만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 자극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말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귀의 능동적 소리'인지, '달팽이관의 메아리'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다. ④ 3문단에서 ‘귀의 소리’는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의 근거로 알맞지 않다. ⑤ 3문단에 제시된 내용으로 ‘귀의 소리’의 특징이다. ‘달팽이관 메아리’ 역시도 개인별 차이가 있고, 개인별로 패턴을 가질 것이므로 적절한 근거로 볼 수 없다.

21.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지문에 제시된 ‘귀의 소리’ 측정 방법과 원리를 시각 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귀의 소리’가 ‘외부 자극 → 청세포 전달 → 청세포 수축, 이완 → 소리 발생’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후 귀의 여러 기관 거쳐 외부에서 감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리 자극인 f_1 , f_2 가 마이크로폰에서 먼저 감지된 다음 ‘귀의 소리’가 마이크로폰에서 포착된다. 이는 모니터의 오른쪽에 f_2 , f_1 소리 후, f (귀의 소리)가 포착되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귀의 소리가 외이도를 거쳐야 하므로 옳은 판단이다. ③ 자극 소리로 인해 귀에서 울림이 있으므로 메아리 소리도 감지될 수 있고 반응소리인 ‘귀의 소리’도 포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판단이다. ④ 2문단의 최대 ‘귀의 소리’ 관련 공식에 대입하면 옳은 판단이다. ⑤ 귀의 소리의 개념을 이해한 것으로 옳은 판단이다.

22. 추론적 사고(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귀의 소리’가 청세포의 손상으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귀의 소리’가 사라진 사람에게는 ‘귀의 소리’ 측정을 통한 청력 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세포가 파괴된 환자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귀의 소리’가 청신경 자극이라는 점, 귀는 자신의 반응을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보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② 일부러 소리에 반응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귀의 소리’를 확인하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다. ③ ‘귀의 소리’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별로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는 점으로 보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④ ‘귀의 소리’는 청세포의 능동적 반응 소리이므로 그 여부에 따라 난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3-26] 현대소설 - 신경숙, ‘외딴 방’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작가의 열여섯에서 스무 살까지의 시절을 엿보게 한다. 즉,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학의 꿈을 키워 나가던 작가의 어린 시절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내성의 문학’이라 부를 수 있으며, 제목 그대로 외딴 방에서 외롭게 죽어간 한 여자의 가여운 녀에 대한 진혼가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잊고 싶었던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그 시절, 그 장소로 돌아가서 그 쓰라린 현장을 다시금 복원해 낸다. 그 복원의 대상은 주인공이 십대 후반, 낮에는 전기제품업체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던 시절이다. 이 작품은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지난 시절과 작품을 쓰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 주기적으로 교차되면서 일반 소설이 주지 못하는 감동을 전해 준다. 이처럼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내적 필연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작품과 일정한 거리를 취한 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에 개입해서 그 의미를 반추하고 그것의 필연성과 정당성에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런 글쓰기는 이 작품에 강한 밀도와 구체성을 부여해 주는 성과를 거두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유년기의 기억과 글쓰기를 통한 자아의 정체성 확인, 글쓰기의 의미에 대한 탐구

23. 추론적 사고(심리적 태도의 추리)

정답해설 : 이 작품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컨베이어’, ‘유산’, ‘대차대조표’, ‘공장 굴뚝의 연기’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한다. 하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쓰게 된 ‘반성문’에 대해서는 ‘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꺼이 쓰다 보니 노트의 삼분의 일은 되게 길게 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주인공은 ‘반성문’에 대해서 다른 것과는 다른 심리적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24. 추론적 사고(작가의 서술 전략에 대한 추론)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작가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교차시키면서 성장 과정의 자기 고백을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글쓰기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간결한 문장을 주로 구사하고 있다. 특히 [B]에서는 간결한 문장을 통해 소설 쓰기의 계기가 된 최홍이 선생님과 만남, 즉 열일곱 시절의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 노트의 ㉔가 [B]에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A]에서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고 있지만 이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그것 때문에 인과 관계가 명료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B]에서 ‘이후 나’와 ‘열일곱의 나’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⑤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사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5. 비판적 사고(작품 내용에 대한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C]는 ‘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노트에 옮겨 쓰는 장면이다. 이는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내용을 통해 ‘나’의 고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은 [C]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④ [C]의 뒷부분에서 ‘나’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자신의 삶과 유사한 소설 속 인물들의 삶에 공감하며 위안을 얻고 있다. 이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나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와 같은 독특한 문장부호를 사용한 서술을 통해 드러난다. ⑤ ‘열일곱의 나’가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적는 데서, ‘나’가 이 소설에 대해 보이는 애착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26. 추론적 사고(다른 작품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D]는 작가가 작품의 창작 동기(‘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띄워 보고 내 인생의 폐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로’)를 직접 드러낸 부분이다. <보기>에 제시된 『양주별산대놀이』에서 광대들이 공연하는 동기가 직접 제시된 부분은 ‘여기 모인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 제대로 놀아보자’고 말하는 ④이다. **정답 ④**

[27-30] 인문, ‘조선시대 군대의 전술 변화’

지문해설 : 조총의 도입으로 나타난 군대의 전술과 무기체계의 변화 및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총의 도입으로 나타난 군대의 전술과 무기체계의 변화로는 군의 규모 증대,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의 변화, 조총의 비중 증가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변화로는 백성에 대한 통제의 강화, 대규모 군사력의 운용으로 인한 국가 단위의 재정 규모 증대, 재정권의 중앙 집중화, 조세제도의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총의 도입으로 나타난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주제] 조총의 보급으로 인한 전술의 변화 및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양상

2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조선군은 조총이 보급된 후 기병 중심에서 조총병, 살수, 사수 등의 삼수병 체제로 이루어진 보병 중심으로 군대 체제가 급속히 전환되었다. 특히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조총의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활의 비중이 줄고 조총의 비중이 높아졌다. 따라서 조총이 보급된 후에도 활의 사용이 여전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조총을 도입한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조선은 군대 편성 및 전술에 변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② 중국은 조총을 보급하면서 절강병법을 고안하였으며, 조선은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의 전술로 바꾸었다. ③ 조총과 함께 다양한 근접전 병기를 갖춘 보병을 편성했다. 반면 조선은 조총병, 살수, 사수 등의 삼수병 체제로 보병을 편성했다. ⑤ 조총은 특별한 무예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에 관한 연마가 되어 있지 않은 하위 계층의 사람들도 군대에 편성될 수 있었다.

28. 비판적 사고(정보와 참고 자료의 연관성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여진족이나 왜구를 상대로 싸웠을 때 다양한 화약 병기를 사용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화포의 효과를 말하고 있는 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나)는 중국의 군대가 조총과 함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근접전용 무기를 갖춘 병사들이 각 특성에 맞게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ㄴ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 작살 등으로 무기를 만들고 각 병사의 특성에 따라 담당하는 무기가 달랐다는 사실을 제시해 (나)의 참고자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다)는 조선군의 전술이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기병과 보병을 비교해 보병이 우리나라에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ㄴ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은 지방의 군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있는 내용을 (가)~(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29. 추론적 사고(추론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라)에서는 새로운 무기 수용과 전술의 변화가 군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변화까지 가져왔음을 말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하나로 재정권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재정의 상당 부분이 조정으로 귀속된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을의 재정 형편이 그 전보다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을 것이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천민 계층까지 군대에 충원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② 사노까지 군대에 충원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백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남성은 이름과 군역 등이 새겨진 호패를 차야 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④ 가호(家戶)를 단위로 부과하던 공물을 농지 면적에 따라 쌀이나 무명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 논밭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부담을 줄였다는 데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30. 어휘·어법 (음운변동 현상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도치’ 등의 다섯 가지 음운변동을 제시한 후, 그 사실을 ‘못한’에 적용해 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못한’이 표준발음대로 발음되는 과정을 분석하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못’이 /몬/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몬/이 뒤의 /한/과 함께 발음되는 과정에서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어 ‘못한’이 /모탄/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31-35] 고전수필, 고전시가 복합

(가) 홍인우, ‘관동록’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금강산을 다녀온 후 그 감상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기행문답게 여정과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 있는데, 특히 금강산의 영랑재에서 바라본 다양한 형상의 봉우리와 바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비유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비로봉에 오르는 과정에서 바라본 풍경들, 그리고 비로봉에서 바라본 풍경 및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금강산 봉우리들의 풍경에 대한 예찬

(나) 정철, ‘관동별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송강 정철의 대표적인 가사 작품으로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며 금강산과 동해 일대의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쓴 기행 가사이다. 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나 있으며,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 작가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제시된 지문에는 금강산 비로봉에 오르는 과정에서 바라본 다양한 봉우리와 풍경들이 다양한 비유적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주제]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예찬

(다) 안민영, 평시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금강산의 겨울 풍경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담아낸 시조이다.

화자는 금강 일만 이천 봉을 ‘눈’과 ‘옥’으로 표현했기에 겨울의 풍경임을 알 수 있고, 혈성루에서 바라본 풍경은 글로도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했다.

[주제] 금강산의 겨울 풍경에 대한 예찬

31.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감각적인 언어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등의 심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을 말한다. (가)에서는 특히 천봉만학의 형상을 다양한 비유로 시각화시켰으며, ‘해송과 측백나무’ 또한 ‘질고 열은 푸른 빛’으로 표현하는 등 시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나) 역시 금강산에서 바라본 풍경들을 표현하다 보니 시각적 표현이 곳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금강산이라는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는 모두 금강산 비로봉에 이르는 여행 도중의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③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의 질문을 통해 금강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에서는 작가가 의문을 드러내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았다. ④ (나)에서는 ‘또 있는가’, ‘귀 뉘신고’, ‘고이힐가’ 등 단정적이기보다 의문형의 어조가 자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다)에서는 ‘옥이로다’, ‘되었어라’, ‘금강인가 하노라’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나)에는 금강산에 대한 작가의 다양한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조화옹’의 솜씨가 드러난 것으로 금강산을 바라보기도 하며, 인간 세상에서의 임금과 신하 사이의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다)는 짧은 시조의 형식이다 보니 금강산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32. 추론적 사고(표현 대상의 파악)

정답해설 : ㉠의 비유는 작가가 해송과 측백나무가 펼쳐진 위로 걸어가며 느낀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에 비유적 표현의 대상은 해송과 측백나무 위의 길이다. 반면에 나머지는 모두 금강산의 ‘천봉만학’의 다양한 형상들이 펼쳐진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답 ④**

33. 추론적 사고(내용의 추리 상상)

정답해설 : 작가는 ‘진혈대’에 올라 그 아래 펼쳐진 봉우리들을 구경하며 풍경에 감탄하고 있다.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에 마치 ‘여산’의 진면목을 본 듯하다고 한 것이다. 즉, ‘여산’은 화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풍경이 아니라 금강산의 풍경을 빗대어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영랑재에서 바라본 기괴한 형상들이 다양한 비유로 표현된 것을 보면 작가에게 이 풍경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② 해송과 측백나무가 바람을 싫어하여 줄기가 한쪽으로 쏠렸다고 했다. ④ 작가는 개심대에서 중향성을 바라보며 기운을 느끼고 그 기운으로 인걸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⑤ 혈성루에 올라가니 천상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천상인’을 ‘신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 비판적 사고(서술자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A]와 [B] 모두에서 작가가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지 않았다. [A]에서 작가는 오히려 자연 속에서 새로운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작가가 승려 성정에게 질문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비로봉을 바라보며 작가는 동산, 태산에 올라 노국과 천하를 좁다고 했던 공자의 호연지기를 떠올리고 있다. ④ [A]에서 비로봉에 오른 작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했으며 ‘나는 새라도 내 위로는 솟구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B]에서 작가는 공자의 높은 덕을 흠모하며 비로봉에 오르지 않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⑤ [A]의 ‘산천의 구분과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란 작가의 질문에서 알 수 있다. 또한 [B]에서 작가는 자신은 노국 좁은 줄도 모르는데 천하를 좁다고 한 공자의 호연지기에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35. 추론적 사고(운율의 원리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설명한 전뱃대의 간격은 운율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다. a)에서의 ‘원래의 간격’이란 규칙적으로 반복되던 리듬감을 말한다. 이를 시조 읽기에 적용한다면 ‘일정한 간격’이란 ①과 같이 한 호흡에 4글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말하며, 전뱃대 하나가 안 보이는 허전한 느낌이 드는 상황은 바로 3글자로 표현된 ②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전뱃대가 촘촘히 나타나서 급한 느낌이 드는 상황은 ④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리다가 다시 원래의 간격인 4글자를 회복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바로 ⑤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36-37] 과학,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통한 생물 다양성의 이해’

지문해설 :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어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토대로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실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모델로 삼아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세 집단 중 두 집단을 각각 섞어 배양하면 가위바위보 게임

처럼 집단 간 증식 경쟁에 따른 승패가 확실하지만, 세 집단을 서로 인접시켜 배양하면 여러 요인의 상호 관계가 영향을 주고 받아 결과적으로 가위바위보의 관계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삼자 간의 공존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생태계에 절대 강자가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삼자 간의 병존 가능성은 생물 다양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 가위바위보의 관계와 같은 생물들 간의 공존 관계

36. 추론적 사고(새로운 정보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한 후, 그것을 새로운 정보의 생성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집단 S’는 ‘집단 R’보다 증식 속도가 빠르지만 콜리신에 의해 증식이 억제된다. 이는 ‘집단 S’가 증식 속도 면에서 ‘집단 R’보다 강자이며, 콜리신과 관련해서는 ‘집단 C’보다 약자임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집단 S’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화살표가 모두 시계 방향을 가리켜야 하며, ㉠, ㉡에 각각 ‘집단 C’와 ‘집단 R’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집단 S’는 콜리신에 의해 증식이 억제되는 이유로 ‘집단 C’보다 약자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콜리신 생산’이다. 그리고 ㉣에 적합한 내용은 ‘저항성 및 증식속도’이며, ㉤에 적합한 내용은 ‘증식 속도’이다. **정답 ①**

37. 비판적 사고(정보 해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셋째 문단에서는 생쥐들의 장내에 세 대장균 집단을 투여한 후 각 집단 간의 증식 경쟁을 살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한 시점에서는 생쥐 개체별로 어느 한 집단이 우세한 경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세한 집단이 일정한 순서로 계속 바뀐다고 하고 있다. 이는 대장균 세 집단을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배양했을 때, 어느 한 집단이 증식 경쟁에서 필연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독소를 생산하는 종과 그에 관한 저항성을 지닌 집단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독소를 생산하는 종만 있을 때보다 생물 다양성이 증가되었음을 나타낸다. ③ 생쥐 실험 내용이 다른 포유동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면 토끼로 실험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④ 생쥐들의 장내에 세 대장균 집단을 투여했을 때 한 시점에서 생쥐 개체별로 어느 한 집단이 우세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실험에서 생쥐를 수를 늘렸을 때 각 대장균 집단의 우세가 균등하게 분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⑤ 대장균 세 집단의 관계는 가위바위보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우세한 집단이 바뀌는 순서를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토대로 예측할 수 있다.

[38-42] 사회, ‘반론권’

지문해설 : 이 글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권’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반론권은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론 중재 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반론권 청구가 가능하며 사회적 강자인 언론에 대해 일반인이 동등한 권리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제도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엇갈리나 있으나 법적으로 이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권’의 의미와 가치, 우리 사회에서 반론권의 적용에 따른 논란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주제] ‘반론권’의 개념과 그 의의

38. 추론적 사고(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반론권’의 개념을 1문단에서 소개한 뒤, 2문단에서 반론권 도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시각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3문단에서 ‘반론권’이 가진 의의를 설명한 뒤, 반론권 적용의 효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정답 ④**

39. 사실적 사고(글의 세부적 내용 이해)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우리가 프랑스식 모델의 반론권이 아닌 독일 모델의 반론권을 도입했음은 알 수 있으나 반론권을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③ 1문단 반론권은 정정보도, 추후보도와는 다르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④ 2, 3문단에서 반론권과 관련된 설명에서 ‘개인’, ‘일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단체, 조직, 법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40.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 제시)

정답해설 : 반론권은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추후보도에 해당한다. ③, ④, ⑤ 정정보도에 해당한다.

41.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 ‘무기대등원칙’은 강자에 대해 약자가 방어할 수 있도록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은 약자인 피의자가 강자인 국가, 권력, 법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근본적 의미가 ‘무기대등원칙’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④, ⑤ ‘보호’, ‘배려’의 개념은 드러나나, ‘방어’의 개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42. 어휘·어법(유의어의 파악)

정답해설 : ㉠은 ‘마음에 들다, 차다’의 의미이다. ㉡ ‘상당한’은 ‘어느 정도에 어울리는, 알맞은, 걸맞은’의 개념으로 ㉠의 유의어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 ② ‘모자람 없이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 ④ ‘마음에 흡족하다,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 ⑤ ‘마음에 들어 흡족하다’라는 의미

[43-46]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수궁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구토지설과 같은 설화가 판소리로 정착된 것으로서, 평민 예술 특유의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이 돋보인다. 용왕과 토끼의 대립, 독수리와 토끼의 대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속이는 지배 계층과 이를 피로 모면하는 피지배 계층의 대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제] 위기를 극복하는 토끼의 지혜

4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수궁’에서 자신의 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처지에 있던 토끼가 위기를 모면하고 육지로 오는데, ‘육지’에서 다시 독수리를 만나 잡아먹힐 위기에 봉착한다. 하지만 토끼는 피를 내어 위기를 다시 모면한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공간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작품은 우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특정 시대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지 않다. ③ 갈등이 고조된다기보다는 갈등 또는 위기가 해소되는 상황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고사의 ‘오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⑤ 주인공 토끼의 행동을 ‘잘못’의 반복으로 보기 어렵다.

44.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권력자인 용왕의 권위가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불행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B]는 토끼가 독수리를 조롱하고 단념시키는 상황이므로, ‘연륜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에서 토끼가 자신의 배를 가르라고 할 정도로 호언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B]에서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라고 말하는 것은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④ [A]에서 ‘배를 따’, ‘똥’, [B]에서 ‘해골이 터질 테니’ 등의 비속어가 쓰이고 있다. ⑤ [A]는 표면상 토끼가 별주부에게 하는 말이나 용왕을 포함한 다른 청중들까지 설득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말이다. 반면 [B]는 토끼가 바위 구멍 밖의 독수리에게 하는 말이다.

45. 어휘·어법(한자성어를 활용한 반응)

정답해설 : ㉠ ‘토공을 모시고’는 용왕이 별주부에게 토끼를 데리고 물으로 가라고 명을 내리는 상황으로, ‘토공’과 ‘모시고’와 같이 토끼를 우대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이는 토끼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스르지 않으려는 용왕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천려일실(千慮一失)은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여러 생각 가운데에 잘못되는 것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용왕의 태도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허장성세(虛張聲勢)’는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떠벌림’을 뜻하며, 조심스러운 용왕의 태도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② ‘수주대토(守株待兎)’는 송(宋)나라의 한 농부가 나무그루에 토끼가 부딪쳐서 죽는 것을 보고, 농사를 팽개치고 나무그루에 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구습을 고수하여 변통할 줄 모름’을 이른다. 용왕이 토끼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맞으나, 이 상황에 ‘수주대토’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라고 말하는 토끼에게서 용왕이 ‘안하무인’의 태도를 인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하무인(眼下無人)’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⑤ 용왕은 토끼가 간을 가지고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겨우 잡아 온 토끼를 놓아주어야 하다니’의 반응을 보이기는 어렵다. ‘자가당착(自家撞着)’은 ‘같은 사람의 문장·언행이 앞뒤가 어긋나 모순됨’을 뜻한다.

46.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의사줍치’는 독수리가 토끼를 잡아먹느냐, 토끼가 독수리로부터 벗어나느냐의 상황에서 토끼가 생각해 낸 꾀에 해당한다. ‘의사줍치’로 인해 토끼는 독수

리를 속이고 독수리는 토끼를 놓치게 되었으므로, ‘의사중치’가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독수리는 ‘의사중치’란 말을 듣고, 관심을 토끼에게서 (의사중치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썩은 도야지 창자, 도야지 새끼나 개 창자’ 등으로 돌리게 된다. ② 토끼는 ‘의사중치’를 수궁의 용왕에게서 획득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④ 독수리를 현혹시킨 ‘의사중치’는 토끼의 피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 대상이다. ⑤ ‘의사중치’는 독수리의 더 많은 먹이를 바라는 욕망과 토끼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얽히는 대상이다.

[47-50] 예술, ‘영화의 추상적 의미 표현’

지문해설 : 이 글은 한자의 구성 원리를 응용하여 이루어진 영화의 시각적 의미 표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자의 육서(六書) 중 회의 문자는 두 개의 문자가 결합하여 두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에이젠슈테인은 이에 주목하고 있다. 에이젠슈테인은 영화의 개별 장면(shot)들은 각각 상형 문자로, 개별 장면이 결합된 조합은 회의 문자로 보고 있다. 즉, 영화의 개별 장면들은 각각 사물이나 사실을 나타내지만, 이들이 특정하게 결합되면 그 조합은 새로운 의미의 ‘개념’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장면들이 시간적 병치를 통해 이루어 낸 추상적 의미는 관객의 몫이 된다.

[주제] 영화의 추상적 의미 표현에 응용된 한자의 구성 원리

47. 비판적 사고(글쓴이의 의도 파악)

정답해설 : 영화는 대사나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약한 장르이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즉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인 의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글쓴이는 이를 위해, 한자의 구성 원리를 끌어들이어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 의미 표현을 한 에이젠슈테인의 영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대사나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는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영화의 개별 장면은 상형 문자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③ 영화의 개별 장면들이 특정하게 결합되어야 영화의 정신적인 의미로 환원될 수 있다. ④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은 영화 본연의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48. 추론적 사고(글쓰기 전략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시각 예술로서 영화의 특질을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에이젠슈테인이 주목했던 한자의 구성 원리를 들고 있는데,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들

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다. 구체적 작품은 50번 문제에 소개된 ‘2001년 세페이
스 오디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49.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의 의미를 파악한 후,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례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
는 문제이다. ㉠은 각각의 의미를 지닌 두 문자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회의 문자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답지 역시, 두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례여야 하는데, ‘얼굴을 익히다’는 ‘여러 번 보아
서 눈에 익거나 친숙하다’는 의미로 ‘익히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
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곡식 따위를 찢거나 뺏는다는 의미의 ‘방아’가 ‘입’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사례이다. ③ 모순(矛盾)은 ‘창’과 ‘방패’라는 의미의 단어
가 만나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이라
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사례이다. ④ ‘배꼽’과 ‘쥐다’가 결합하여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⑤ ‘개밥’과 ‘도토리’가 만나
서 형성된, ‘개밥의 도토리’는 ‘따돌림을 받아서 여럿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비
유적으로 이르는’ 관용어로 쓰인다.

50.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뼈’와 ‘우주선’은 각각 영화의 개별 장면으로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된
다. 하지만 이 둘이 결합하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이 ‘뼈와 우주선’
을 연결하여 개념을 이끌어낸 것은 ⑤이다. 이 영화는 <보기>의 장면을 통해 ‘뼈’와
‘우주선’을 연결하여 ‘도구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원시의 황야’와 ‘우주 공간’을 연결시켰다. ②, ③ ‘뼈’와 ‘우주선’
을 연결시켜 개념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다. ④ ‘우주선’만 가지고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 1.③ 2.① 3.① 4.④ 5.④ 6.⑤ 7.② 8.② 9.④ 10.②
 11.② 12.① 13.④ 14.② 15.① 16.④ 17.① 18.⑤ 19.④ 20.⑤
 21.② 22.③ 23.④ 24.④ 25.⑤ 26.⑤ 27.① 28.② 29.③ 30.①
 31.③ 32.② 33.⑤ 34.④ 35.② 36.⑤ 37.① 38.④ 39.① 40.③
 41.③ 42.④ 43.③ 44.② 45.⑤ 46.⑤ 47.④ 48.③ 49.⑤ 50.③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하는 삶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가이신 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 선생님 :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건축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계단’과 ‘우리네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누워서 세상을 보던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서 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아이가 첫발을 내디디며 느끼는 것도 달라진 높이에서 보는 기쁨이죠.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계단도 이런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전해 주죠.

진행자 : 네. 그렇다면 계단이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김 선생님 : 아래층과 위층은 들어오는 빛, 경치, 심지어는 냄새까지도 다른 공간입니다. 계단은 이렇게 분리된 두 공간을 이어 주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서로 다른 차원의 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계단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교류하게 되고, 달라진 높이에서 세상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계단을 통해 (딩동)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이 방송에서 건축가 김 선생님은 ‘계단’과 ‘우리네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먼저 누워서 세상을 보던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기쁨에 빚대어 ‘계단’도 이러한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 한 다음, 계단이 분리된 두 공간을 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단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교류하고 달라진 세상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마지막에 이어질 말로 적절한 것은 ‘인간은 계단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방송에서 언급한 계단의 의미와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갖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방송에서 언급한 계단의 의미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④ 방송에서 언급한 계단의 의미와 ‘끊임없

는 도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⑤ 방송에서 언급한 계단의 의미와 '일의 성패는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2. 이번에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처음 탄소발자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탄소발자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탄소발자국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를 계산하여 그것을 발자국으로 표시한 것이지요.

더 자세히 알아보까요? 탄소발자국은 무게 단위나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 그루수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칩 포장지의 탄소발자국 마크에 75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감자 재배에서부터 감자칩 생산까지 제품당 75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대략 50kg 정도인데, 이 정도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는 10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탄소발자국 제도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와 유사한 탄소은행, 탄소마일리지 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는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기업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제품을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지구 온난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발자국은 개개인에게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2. 추론적 사고(발표자의 의도 추리)

정답해설 : 발표자는 '탄소발자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나서 탄소발자국의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지구 온난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런 의미에서 탄소발자국 제도가 개개인에게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치고 있다. 따라서 발표자는 탄소발자국 제도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개인의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발표 내용에서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③ 발표자는 탄소발자국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④ 발표자는 기업의 책임보다 개인의 관심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탄소 배출량 감축 기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3.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서툰 것 같아. 참, 근데 넌 부탁할 때마다 친구들이 잘 들어주던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지?

여 : 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마음이 잘 표현되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부탁할 때도 말하기 방법이 필요해.

남 : 그렇구나. 어떤 방법인데?

여 : 음……. 우선, ‘쉬운 부탁 먼저 하기’ 방법이 있어. 들어주기 쉬운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말하기 곤란한 좀 더 어려운 부탁을 하면, 승낙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해. 다음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순서로 하는 건데, ‘어려운 부탁 먼저 하기’의 방법이야. 어려운 부탁을 먼저 하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다면 그때 들어주기 쉬운 부탁을 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남 : 그렇구나.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부탁도 하고 들어주기도 해야겠지. 그러니 부탁하는 말하기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겠어.

여 : 그런데, 부탁은 거절당할 때도 있잖아? 그럴 때 필요한 방법이 ‘호의 베풀기’야. 상대방이 내 부탁을 거절해도 서운해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라도 다시 부탁할 때 잘 들어주더라고. 네 번째 방법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야.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부탁을 하면 적어도 그중 하나는 들어주는 경향이 있거든. 마지막은 ‘공정 대답 유도하기’의 방법인데, 이걸 ‘날씨가 좋지요?’와 같이 부정하기 어려운 친교적 질문들을 먼저 하는 거야. 부탁받는 사람이 ‘네’라는 긍정의 대답을 계속하다 보면, 이어지는 말에도 긍정적으로 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

남 : 부탁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여 :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 테니 어떤 방법인지 알아맞혀 볼래?

다음은 여학생이 든 사례를 대화로 들려드립니다.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A(여) : 부탁이 있는데, 공책 좀 잠깐만 보여 줄래?

B(남) : 그래. 여기 있어.

A(여) : 내가 필기 못한 게 너무 많네.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빌려 가서 보고, 내일 돌려주면 안 될까?

B(남) : 그래 내일 꼭 갖다 줘.

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여학생이 설명한 ‘부탁하는 말하기 방법’ 중 ‘쉬운 부탁 먼저 하기’ 방법은 들어 주기 쉬운 부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부탁을 하면, 승낙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학생이 든 사례에서 ‘공책을 잠깐 보여 주는 것’은 들

어 주기 쉬운 부탁이고 ‘공책을 빌려 가는 것’은 좀 더 어려운 부탁인데, 여학생은 쉬운 부탁을 먼저 한 다음 좀 더 어려운 부탁을 해서 남학생의 승낙을 얻어 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쉬운 부탁 먼저 하기’의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③ ‘호의 베풀기’는 상대방이 내 부탁을 거절해도 서운해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나중에 다시 부탁할 때 잘 들어주도록 하는 방법인데, 여학생이 든 사례에는 이런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선택하도록 하기’는 두 가지 부탁을 해서 둘 중의 하나를 들어주도록 하는 방법인데, 여학생이 든 사례는 쉬운 부탁을 먼저 하고 어려운 부탁을 나중에 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긍정 대답 유도하기’는 ‘날씨가 좋지요?’처럼 부정하기 어려운 친교적 질문을 먼저 함으로써 상대방이 ‘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계속하게 해서 부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여학생이 든 사례에는 친교적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5. 다음은 동아리의 면접 장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부장 : 교지 편집부에 지원하신 분들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편집부장입니다.
학생들 : 안녕하세요.
부장 : 먼저, 지원 동기를 알고 싶은데요?
남 : 예, 저는 평소 교지를 만드는 작업에 호기심이 많았고, 미래에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여 : 중학교 때 제가 쓴 글이 교지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직접 교지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부장 : 그렇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남 : 기사는 발로 뛰며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 : 전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을 꼭 알아보고 싶어 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학교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알려 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부장 :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편집부원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남 : 지금 당장 떠오르지는 않지만, 저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할 겁니다.
여 : 전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직업에 대한 생생한 내용이 담긴 교지를 만들고 싶어요.
부장 :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교지에 ‘소설가와의 만남’이라는 특집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남 : 일단 소설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부딪쳐 봐야 알죠.
부장 : 어떤 소설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부딪친다는 거죠?
남 : 그냥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을 쓴 소설가를 찾아가는 거죠.

여 : 저는 먼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설가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소설가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작성한 후 그 질문들을 인터뷰에 활용하겠습니다.

부장 : 어떤 기준으로 질문을 준비하실 건데요?

여 :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물어야겠죠. 소설을 쓰게 된 계기나 소설가를 지망하는 청소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등입니다.

부장 :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일 여러분이 저처럼 편집부장이라면 편집 방향을 정할 때, 부원들과 의견이 달라 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 : 저는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전체 의견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부원들을 계속 설득하여 멋진 교지를 만들 겁니다.

여 : 편집부장은 교지 편집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원은 당연히 부장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부장의 직권을 행사하여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4. 비판적 사고(면접관의 평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면접관의 질문 중 ‘교지에 소설가와 만남이라는 특집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네 번째 질문은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체계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남학생은 ‘일단 부딪쳐 보겠다’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이는 체계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대답이므로 ‘아니다’에 해당한다. 반면 여학생은 ‘먼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설가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묻고 싶은 질문들을 작성한 후 그 질문들을 인터뷰에 활용하겠다’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이는 상당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렇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학생은 ‘아니다’, 여학생은 ‘그렇다’에 표시되어야 맞는데, 선지 ④번은 둘 다 ‘그렇다’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남학생은 ‘평소 교지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장차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 지원했다’고 대답했고, 여학생은 ‘중학교 때 제 글이 교지에 실린 적이 있는데, 그 때부터 교지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지원했다’고 대답했다. 두 학생 모두 지원 동기가 뚜렷하므로 둘 다 ‘그렇다’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②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남학생은 ‘저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고, 여학생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알아보고 싶어 하는 성격’이라고 대답했다. 두 학생 모두 동아리 특성에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둘 다 ‘그렇다’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③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남학생은 ‘당장은 떠오르지 않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즉 ‘아니다’)에 해당한다. 반면에 여학생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직업에 대해 생생한 내용이 담긴 교지를 만들고 싶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활동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즉 ‘그렇다’)에 해당한다. ⑤ 마지막 질문에 대해 남학생은 ‘시간이 걸려도 부원들을 계속 설득하여 멋진 교지를 만들겠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부원들과 화합하려는 자세를 드러낸 경우(즉

‘그렇다’)에 해당한다. 반면에 여학생은 ‘부원이 다르지 않으면 부장의 직권을 행사하여 일을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부원들과 화합하려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경우(즉 ‘아니다’)에 해당한다.

5. 비판적 사고(면접관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면접관은 지원 학생들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중 네 번째 질문의 경우 ‘일단 부딪쳐 봐야 알죠’라는 남학생의 대답에 대해 면접관은 ‘어떤 소설가를 찾아가서 부딪친다는 거죠?’ 라고 보충 질문을 했고,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을 작성한 후 인터뷰에 활용하겠다’는 여학생의 대답에 대해서도 면접관은 ‘어떤 기준으로 질문을 준비하실 건데요?’ 라고 보충 질문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면접관은 지원자에게 보충 질문을 하여 발언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원자들이 핵심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지 않았고, 면접관이 그런 대답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았다. ② 면접관은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 ③ 면접관은 지원자의 답변을 요약하지 않았다. ⑤ 면접관은 질문을 간단하게 했고 질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물의 상태 변화 현상에서 지적 성숙의 과정을 유추해내는 문제이다. ⑤에서는 지적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지식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물의 상태 변화 현상에서 ‘지식’에 대응하는 요소는 찾아낼 수 없고, 그래프의 내용에서도 ‘지식의 핵심을 파악’한다는 내용 요소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⑤는 적절한 연상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지적 성숙(온도의 상승)을 이루기 위해 꾸준한 노력(지속적인 가열)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래프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② 지적 성숙(온도의 상승)이 단계적으로(얼음에서 물로, 물에서 수증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그래프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③ 노력을 계속해도(계속 가열하여도) 지적 성숙(온도의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음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높은 단계의 지적 성숙(높은 온도의 상태)은 이전 단계(낮은 온도의 상태)보다 더 많은 노력(가열)이 필요함을 그래프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답 ⑤**

7.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학급 회의를 통해 도출된 표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심을 드

러낼 것. (2) 현수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할 것. (3) 자연물에 비유할 것. 이 셋을 다 충족하는 표현은 ②이다.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한 그루 두 그루 모여 초록 숲’이며, 조건 (2)를 충족하는 표현은 ‘초록 숲’, ‘신록처럼 넘실대는’이다. 그리고 조건 (3)을 충족하는 표현은 ‘초록숲(=급우들)’, ‘초록처럼 넘실대는(=우리들의 함성)’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색채 이미지의 특성이 활용되었으나, 다른 조건들은 충족하지 못한다. ③ ‘새’라는 자연물에 빗댄 표현이 있기는 하나, 색채 이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협동심을 드러내는 내용 또한 담고 있지 않다.

8.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은 ‘교복 착용의 실태’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정·보완 의견]의 내용은 ‘실태를 구체화하여 제시’이다. ㉡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교복 착용의 실태(㉠)’에 ‘교복 구입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자고 하였는데 이는 실태의 구체화로 보기 어렵다. ‘교복 구입의 경제적 부담’은 ‘교복 착용의 실태’를 구체화한 것이라기보다는 논점에 어긋나는 내용의 진술에 해당한다. **정답 ②**

9. 추론적 사고(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의 활용 방안의 경우, 학생들이 처음 교복을 구매할 때 상표를 선호한다는 내용을 자료 (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개성적 욕구가 있다는 내용을 자료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두 가지의 정보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이 두 정보를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표’를 의식하는 것은, 자료의 내용 가운데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 가까우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개성에 대한 욕구와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디자인’과 ‘유행’은 학생의 미적 감각과 연관이 되므로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소속감 형성과 개성의 표현이라는 성격이 다른 요소가 결합된 방안이다. 소속감 형성에 관한 내용은 (나)에서, 개성의 표현에 관한 내용은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앞선 문장으로 볼 때, ㉠이 들어 있는 문장은 도서관의 이름을 ‘슬기그림’으로 한 이유를 밝히는 문장이다. 따라서 ㉠의 ‘터전입니다’는 ‘터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등이 적절하지, ‘터전이라는 뜻입니다’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앞 문장이 도서관 이름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해당하므로, ㉠의 자리에 ‘그래서’를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③ ㉡ 이전에 ‘강’은 도서관의 이름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으므로, 강이 인간에게 주는 피해를 설명하는 ㉡은 도서관의 이름을 설명하는 이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 삭제하자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의 주어는 ‘많은 학생들이’이며, ‘갈증이 해소되어 지기를’이 주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므로, ‘갈증을 해소하기를’로 고쳐야 한다는 방안은 적절하다.

11. 어휘·어법 (관용 표현의 의미 구조)

정답해설 : ㄴ(뒷북을 치다)과 ㄹ(무릎을 치다)의 서술어는 둘 다 ‘치다’이다. 그런데 ㄴ에서는 의미 쏠림이 발생하고 ㄹ에서는 의미 쏠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로 볼 때, 서술어 ‘치다’는 의미 쏠림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발생할지 알 수 있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③ ‘바가지’를 씌우다의 ‘바가지(터무니없이 많은 요금이나 물건 값)’와 ‘바가지’를 긁다의 ‘바가지(아내가 남편에게 늘어놓는 불평이나 불만의 소리)’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며, 의미 쏠림 이후에도 이러한 의미 차이는 유지된다. ④ ㉠의 ㉡은 ‘닭 잡아먹고(A) 오리발을 내밀다(B)’이며 ㉢은 ‘오리발을 내밀다’이다. 요소의 생략 과정에서 ‘오리발을 내밀다(B)’만 남았으므로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났다고 본 것은 적절한 이해에 해당한다.

12. 어휘·어법 (인용 발화의 개념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첫 문장에 따르면 ‘인용 발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남에게 전달하는 말’이다. 그런데 ①의 경우 자신의 기쁨을 청자에게 보고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여기에 쓰인 ‘-답니다’의 형태는 인용 발화의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의 ‘-답니다’는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 주는 합쇼체의 종결 어미’이며, 나머지 인용 발화를 의미하는 형식 ‘-답니다’는 ‘-다고 합니다’의 준말 형태이다. 정답 ①

[13-17] 인문, ‘동양에서의 천(天) 개념의 변천 과정’

지문해설 : 동양에서 다양하게 이해되었던 ‘천(天)’의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천(天)’의 개념이 ‘자연천(自然天)→상제천(上帝天)→의리천(義理天)’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각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그 개념이 당대인의 삶에 미친 영향 또한 밝히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동양에서의 ‘천(天)’ 개념의 변천은 그 개념이 지닌 한계가 보완되며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천(自然天)’의 개념 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을 할 수 없었으며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를 알 수 없었는데, 이는 ‘상제천(上帝天)’의 개념이 출현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의리천(義理天)’은 ‘상제천(上帝天)’이 억압의 성격을 나타냄에 따라 출현한 것이다.

[주제] 동양에서 ‘천(天)’ 개념이 변화해 온 과정과 그 양상

1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의하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인식되어 왔다. 즉 천은 인간에게 자연 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천명(天命)’은 ‘상제천(上帝天)’ 개념 하에서 가치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등장하였다. ② 동양에서는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동양에서 천은 현실 세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③ ‘자연천(自然天)’ 개념에서는 천을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⑤ ‘내면화된 천’은 ‘상제천(上帝天)’이 아니라 ‘의리천(義理天)’과 관계가 깊다.

14.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동양에서 ‘천(天)’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연천(自然天)→상제천(上帝天)→의리천(義理天)’의 과정으로 ‘천(天)’ 개념이 바뀌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 ‘개념의 의미 변천’이다. **정답 ②**

15. 비판적 사고(정보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자연천(自然天)’ 개념 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인간은 ‘천(天)’을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했다. 이는 ‘자연천(自然天)’ 개념 하에서 인간이 자율적 존재가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상제천(上帝天)’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력 행사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타율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③ ‘의리천(義理天)’ 개념에서 천은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④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천이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었다. ⑤ 천명 의식이 수

정되면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타율성은 축소되었다.

16.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개념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ㄱ은 천을 자연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예이므로 ‘자연천’에 해당한다. 천의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한 ㄴ도 역시 ‘자연천’에 해당한다. ㄴ에서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는 ‘상제’에 대응되므로 ㄴ은 ‘상제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ㄷ은 수정된 천명 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의리천’에 해당한다.
정답 ④

17. 어휘·어법(어휘의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은 ‘드러나는 기미, 경향, 느낌 따위가 보통 정도보다 뚜렷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이다. ①의 ‘질어’는 폭우가 내릴 기미가 뚜렷해졌음을 의미한다.

[오답파하기] ② ‘액체 속에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진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③ ‘안개나 연기 따위가 자욱하다.’는 의미이다. ④ ‘일정한 공간에 냄새가 가득 차 보통 정도보다 강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⑤ ‘그림자나 어둠 같은 것이 아주 뚜렷하거나 빛깔에 아주 검은색이 있다.’는 뜻이다.

[18-20] 과학, ‘연니(軟泥)의 유형과 분포’

지문해설 : 생물의 골격과 그 파편 등에 의해 생성되는 생물기원퇴적물인 ‘연니(軟泥)’의 유형과 그에 따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연니가 형성되는 과학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니를 ‘석회질연니’와 ‘규질연니’로 나누어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두 연니의 특성을 제시한 후 그에 따라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연니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연니의 유형에 따른 특성과 연니 연구의 의의

18.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심해저에서 연니를 형성하지 않는 점토류는 1,000년에 걸쳐 2mm 정도가 퇴적되는 데 비해, 연니는 1,000년 동안 약 1~6cm가 퇴적된다. 즉 연니가 심해저 점토류보다 5배에서 30배에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퇴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니의 퇴적 속도가 심해저 점토류의 퇴적 속도보다 느리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연니는 주로 죽은 부유생물의 껍질, 골격 등과 바람이나 유수에 육지로부터 멀리 운반된 점토류가 섞여 형성된다. ② 코콜리스나 유공충과 같은 생물체 잔해가 적어도 30% 이상 포함된 퇴적물이 석회질연니이므로 유공충이 40% 포함되어 있다면 석회질연니에 해당한다. ③ 표층수에 서식하는 부유생물의 양이 많을수록 연니는 많이 퇴적된다. ④ 규질연니는 탄산염이 녹는 수심보다 깊은 속에 서도 발견된다. 탄산염이 녹는 수심은 탄산염보상수심보다 깊은 곳이다.

19.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둘째 문단에서 연니를 ‘석회질연니’와 ‘규질연니’로 유형을 나누고 있으며(ㄴ),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에서 유형에 따라 연니의 지리적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다(ㄷ).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연니 연구의 효용성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④**

20.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가) 지점은 수심이 5,000m이므로 탄산염보상수심보다 깊은 곳이다. 탄산염보상수심보다 깊은 곳은 탄산염 성분으로 구성된 생물체의 골격이나 잔해가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석회질연니는 분포하지 않고 규질연니가 분포한다. 그리고 (가) 지점은 표층 수온이 낮은 곳이므로 용승이 일어나고 차가운 해류가 흐르는 남극 부근의 C이다. (나) 지점은 탄산염보상수심보다 낮고 탄산염 성분의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므로 석회질연니가 분포하는 곳이다. 따라서 (나) 지점은 대서양 중앙 부분인 B이다. 마지막으로 (다) 지점은 표층 수온이 높고 표층수에 방산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태평양의 적도 부근인 A이다. **정답 ⑤**

[21-26] 시가 복합

(가) 이육사, ‘소년에게’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소년의 당당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소년의 순수한 모습은 박꽃에 비유하고 있고, 당당한 소년의 모습은 큰 여울을 만들어 흘러가는 강물의 흐름과 분수 있는 풍경 속에 동상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소년의 기상은 서풍을 맞고 자연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소년의 강한 의지는 추위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힘이 넘치는 소년의 모습에서 시대 현실에 굴하지 않는 육사의 당당함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저항 시인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육사의 시 중에서 그의 유년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준마를 달리고 곧은 기운을 드러내며 추위 속에서도 당당한 소년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강인함을 신뢰하는 육사의 믿음을 엿볼 수 있다.

[주제] 소년의 당당한 모습

(나)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작품해설 : 이 시는 추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나무의 강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화자는 추위를 이겨내는 나무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겨울 나무와 봄 나무의 대조적 상황으로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작품을 시대 상황과 연관시켜 본다면 겨울은 나무를 억압하는 고통과 시련의 시기이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이를 이겨내는 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나무의 생명력

(다) 이현보, ‘어부단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부가’를 개작한 것으로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의 한가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부는 실제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진짜 어부로 보기보다는 속세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선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수에서 어주(魚舟)에 누워 있으면서도 세상사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자연에 은거하는 어부의 생활

21.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소년의 당당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연의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에서 추위에 당당히 맞서는 소년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추위는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나)는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겨울은 암울한 고통의 시대 현실이며, 이를 이겨내는 나무는 시대 현실에 맞서 자유를 성취해 내는 민중들의 모습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다)의 화자는 자연에서 한가로운 삶을 지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한가로운 모습은 녹수와 청산을 바라보고, 흰 달을 바라보며, 어부 생활을 하며 바라보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만 자연과 화자의 물아일체를 엿볼 수 있다. ④ (나)에서 겨울 나무와 봄 나무의 대비는 사물 자체의 속성을 대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박꽃은 소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아침 이슬, 진주, 연꽃, 맑은 녀’의 시어로 볼 때 순수한 모습을 빗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의 꽃은 겨울의 추위를 나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싹을 틔워 피워낸 것이기에 강한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차디찬’은 아침 이슬을 수식하고 있기에 ‘맑고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영하 13도’는 겨울의 추위이기에 시련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나)에서는 고난과 시련의 추위에 온 몸으로 대결하고자 하는 나무의 숭고함을 엿볼 수 있으나, (가)의 ‘녘’은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라기보다는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소년의 굳은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나무가 추위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거부라기보다는 당당한 수용에 가깝다.

23. 비판적 사고(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비교)

정답해설 : (가)와 (다) 모두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화자의 사고 전개 과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큰 강이 목 놓아 흐르고 여울이 돌에 부딪치는 것을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다)에는 자연의 풍경이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② (다)는 4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기에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가)에서는 한 연이 3행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규칙성은 있으나, 음보가 일정한 규칙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다)는 2수의 초장, 3수의 초장, 4수의 초장 등에서 대구의 표현이 드러난다. ⑤ (가)의 2연 ‘자랐어라’, 5연의 ‘서 봐도 좋다’, 7연의 ‘미친들 어찌라’에서 영탄의 어조를 엿볼 수 있다. (다)에서는 각 수의 종장에서 영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2수와 4수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

24.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육사의 유년 시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년 시절의 체험이 육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그의 유년 시절의 체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6연에서는 서풍이 뺨을 스치고 하늘 끝 구름 뜨는 곳의 회고 푸른 즈음을 노래한다고 했으므로 노래는 소년의 지사적 기풍이나 기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은 시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게 않으며, <보기>에서 이러한 정보도 찾아볼 수 없기에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정답 ④**

25. 추론적 사고(시구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은 나무가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내민 후 푸른 잎이 되기까지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은 나무가 온 몸으로 꽃을 피워내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간결한 시에서 유사한 기능의 말을 반복한 것은 그만큼 그 과정의 시간이 길다는 것이며, 그 전후의 과정을 화자가 강조하는 것이기에 독자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한다. ㉠과 ㉡ 모두 나무의 외적 변화와 내면을 동시에 주목한 것이기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한 것은 아니다. **정답 ㉡**

26. 비판적 사고(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화자는 ㉠에서 청산을 돌아보며 흰 달을 떠올리고 마음을 비우고 있다. 또한 ㉡에서 장안을 돌아보며 복잡한 세상사를 떠올리지만 그곳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화자는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때대로 ㉡의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수의 종장에서 화자의 최종 선택은 ㉡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만첩’은 화자가 살고 있는 청산과 속세가 그만큼 거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7-30] 고전소설 - 남영로, ‘옥루몽’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구운몽>의 전체적인 구성을 따르면서도 이를 생동감 있게 개작한 소설이다. 천상의 선관이 인간으로 태어나, 사대부 남성으로서 모든 이상적인 조건을 두루 갖추고 벼슬해서 부귀를 누리며 여러 여성들의 사랑을 얻는다. 그러나 <구운몽>과는 달리 불교적인 깨달음을 내세우지 않았고 부귀와 사랑을 얻는 과정이 치열한 대결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창곡의 여러 처첩 중에서 기생인 강남홍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데, 여기에는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산촌의 한미한 선비인 양창곡이 중앙에 진출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횡포를 일삼던 세력과 대결하여 승리하는 것을 통해, 일신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여 부패 타락한 생활을 서슴지 않는 통치자들의 행태와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주제] 부패한 현실 정치에 맞서는 영웅의 승리

27. 추론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강남홍은 적의 두 장수에게 화살을 쏘아 갑옷만 깨뜨리고 뇌천풍에게도 칼을 날려 투구만을 깨뜨리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있다. 연화봉에 올라가서는 옥피리 소리로 적진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보로 보았을 때 강남홍

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고 있으며 여유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강남홍이 손삼랑과 함께 간 곳은 적진이 아니라 연화봉이라는 봉우리이다. ③ 양창곡은 꿈 내용 때문에 놀라서 꿈에서 깨어난다. ④ 양창곡이 휘하의 장수들에게나 적에게나 자신이 영웅임을 과시하는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28.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옥피리 연주의 곡조는 양창곡이 잘 알고 있는 곡조였다. 따라서 강남홍이 연주한 곡을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④, ⑤ 강남홍과 양창곡의 연주는 천지자연조차도 감응하게 하는 연주곡이다. 이 연주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묘사되었으며,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고도 할 수 있다.

29.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ㄱ과 관련하여, 14회의 제목은 이후에 있게 될 옥피리 연주를 암시하고 있다. ㄴ과 관련하여, 서술자는 뇌천풍이 강남홍에게 달려들자마자 말에서 떨어졌다고 한 다음에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다음 회를 보시라’라는 선진 문구도 사용하고 있다. ㄷ과 관련하여, 14회의 첫 대목은 13회의 마지막 장면을 자세히 반복 부연 설명하고 있다. ㄹ과 관련하여, ‘각설’이라는 상투어가 쓰이고 있다. **정답 ③**

30.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활용)

정답해설 : ㉠에서 뇌천풍은 강남홍의 공격에 깜짝 놀라 도망하고 있다. 이미 대결이 끝난 다음에 뇌천풍이 도망가는 장면이므로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적절하지 않다.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된 경우와 고립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기사회생(起死回生)’은 ‘중병 등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회복됨’을 뜻한다. ③ ‘삼십육계(三十六計)를 놓다’는 ‘도망을 치다’를 뜻하며, 사자성어를 활용한 관용구이다. ④ ‘혼비백산(魂飛魄散)’은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뜻한다. ⑤ ‘이란투석(以卵投石)’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우리 속담에 대응하는 사자성어이다.

[31-32] 사회, ‘경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지문해설 : 이 글은 경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경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제도’에 찾는 견해가 보편적

인데 이것은 제도가 경제 발달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인을 변수가 없는 지리적 조건에서 찾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제도’에서 찾는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나라가 경제적으로 뒤쳐지는 현실을 사례로 들며 경제 발달의 주요인은 제도임을 주장하면서도, 지리적인 조건이 제도의 역전 현상을 낳는 현상에 주목해 지리적 조건을 제도를 낳게 하는 요인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한편 경제 발달의 원인을 변수가 없는 지리적 조건에서 찾는 견해 역시 제도라는 요인을 간접적인 원인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입장이 다른 학자들의 견해가 어떻게 수정되어 가면서 이론화 되는지를 살필 수 있다.

[주제] 경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31. 사실적 사고(내용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문단 별로 화제를 제시하여 글 전체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표이다. 지문은 <보기>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제도 결정론자의 견해, 지리 결정론자의 견해, 수정된 제도결정론자의 견해, 수정된 지리 결정론자의 견해가 문단 별로 소개되어 있다. (나)에서는 지리결정론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지리결정론은 지리적 조건이 경제 발전(소득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통계적 증거를 통해 주장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증거→주장’의 관계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다)에서는 수정된 제도 결정론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수정된 제도결정론자들은 지리결정론자의 생각이 실제 사례와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지리결정론의 핵심 근거를 반박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조건은 제도의 발달 방향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 발달과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기존의 견해를 보강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다)는 ‘반증→주장’의 관계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정답 ③**

32.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지문에 제시된 여러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ㄱ은 지리적 조건(기온으로 인한 질병, 건강)이 경제 발달을 뒤쳐지게 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나)의 지리 결정론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ㄴ은 제도(재산권 제도의 발달)가 경제 발달(제도에 영향을 받은 중남미의 경제 발전 낙후)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가) 제도 결정론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ㄷ은 지리적 조건(기후)이 제도(불평등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경제 발달(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수정된 제도 결정론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는 (다)를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정답 ②**

[33-35] 언어, '비교 언어학을 활용한 언어의 조어 추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고 언어의 변화 과정을 추정하는 방법을, '외적 재구'와 '내적 재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외적 재구는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고 음운 대응 규칙을 중시하는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조어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내적 재구는 한 언어의 자료만을 가지고 그 언어의 옛 모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언어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적·공간적 흔적들을 복원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주제] 언어의 옛 모습을 추론하는 방법

33. 추론적 사고(글의 세부 내용 추리)

정답해설 : 언어 간의 음운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해당 언어끼리 친족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조어(祖語)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를 유추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해당 언어들의 친족 관계의 유사성이 확인되고 친족 관계가 입증된 후에 그 언어들의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오래된 형태가 조어에 더 가깝다. ④ 언어들 사이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내어야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34.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언어의 변화 과정에는 시간적·공간적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다른 언어를 참고하지 않고 그 흔적을 통해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해 보는 방법이 내적 재구이다. 한 언어 안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떤 단어의 어형이 다양하게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단어들의 방언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a의 경우 내적 재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b의 경우에도, 한 언어 자료만을 가지고 옛 모습을 추정하는 내적 재구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정답 ④

35. 추론적 사고(제시된 자료의 탐구)

정답해설 : 음운의 대응이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음운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음운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만주어와 몽고어의 경우, '불다'와 '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비교해 보면 /f/와 /h/의 대응을 통해 음운 대응의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음운 대응의 규칙성이 친족 관계 증명에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두 언어는 친족 관계에 있을 가능성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36-39] 기술,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의 학습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우편물 자동분류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한 글이다. 우편물 자동분류기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의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우편물 자동분류기 성능의 핵심 관건이다. 먼저 우편물 자동분류기는 다양한 필체를 보이는 우편 번호의 필체 특징을 추출하는데 이때 목표치가 주어지면(감독학습) 목표치대로 감지해 내게 되고 필요한 조건(함수)에 의해 분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목표치가 설정되기 어려운 경우(무감독학습)에는 입력 특징들을 함수를 통해 군집화하여 분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글을 통해 사람의 필체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정보화하여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의 정보 처리 원리

36.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

정답해설 : 4문단에서는 우편물 자동분류기가 작업을 수행할 때 목표치가 없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우편물 자동분류기는 다양한 데이터의 특징을 유사성에 근거해 군집화하여 인식한다고 했다. 따라서 ⑤는 목표치가 없는 경우의 우편물 자동분류기의 학습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맞은 내용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자동분류기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으므로 양과의 연관성이 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② 본문에서 목표치의 설정 여부만 나와 있지 목표치의 개수나 종류는 알 수 없다. ③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다양한 필체의 특징을 추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단순히 일정한 종류의 숫자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④ 2문단에서 자동분류기는 숫자의 입력 특징을 찾아 그 숫자만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37.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1문단에서 학습은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 정도에 따라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또 2, 3문단을 통해 학습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여 목표치에 맞춰 스스로 익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①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입력되는 데이터를 저장된 데이터와 대조하는 것으로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을 찾을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휴대 전화를 든 손으로 공중에 쓰는 것은 다양한 필체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추론과 관계가 있는 작업이다. ③ 사용자의 음성 특징은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추출하여 분류하는 것은 본문의 학습 개념과 관계 깊은 것이다. ④ 휴대 전화에서 손이 닿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유형화한다는 것은 학습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⑤ 사람의 움직임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얼굴을 색상값이라는 특징으로 추출해 내고 변한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38.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2, 3문단에서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데이터로부터 입력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이때 목표치가 제시되면 데이터를 제시된 목표치로 분류해 학습하여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학습의 과정을 통해 함수를 만들게 되며 최종적으로 분류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④는 이와 같은 순서와 과정을 잘 구조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정답 ④**

39. 어휘·어법(고유어와 한자어의 유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문맥으로 보아 ㉠은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데 합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취합(聚合)’은 ‘모여서 합친다. 또는 한데 모아서 합친다.’는 뜻으로 ㉠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융합(融合) : 여럿이 녹아서 하나로 합침. ③ 조합(組合) :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짬. ④ 규합(糾合) : 일을 꾸미려고 사람을 모음. ⑤ 결합(結合) : 둘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가 됨.

[40-43] 현대소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현대 사회의 근원적 속성을 예리하게 파헤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도시에는 새를 파는 ‘방생의 집’과 교도소가 있다. 교도소에서 나온 ‘사내(노인)’는 새 가게 주인이 새의 날개 안쪽 깃털을 조금 자른 뒤, 돈을 받고 새를 놓아주는 것을 본다. 날개가 잘렸기 때문에 새는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 밤이 되면 주인은 다시 새를 찾아 잡아서 낮에 다시 판다. 새는 낮에는 자유로이 날아갔다가 밤이 되면 다시 붙잡히는 삶을 반복한다. 여기서 날개는 자유를 상징한다. 자유를 억압당하는 새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 나오는 ‘도시’는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잔인한 곳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사내’는 출옥과 투옥을 반복하는 인물이며, ‘새’는 자유롭게 날아갔다가 다시 새장에 갇히기를 반복하는 대상이다. 즉 ‘사내’와 ‘새’에게는 조작된 해방과 구속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말 부

분에서 ‘사내(노인)’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남쪽의 고향을 향해 걸어간다. 그곳은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 도시와는 달리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곳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이처럼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서 상징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주제] 현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시의 비정한 속성에 대한 비판,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고귀한 인간성에 대한 열망

40.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교도소에서 출옥한 ‘사내(노인)’는 교도소에 남아 있는 친구(동료)들을 위해 새장수에게 새를 사서 방생하는 일을 하기 위해 공원 벤치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새를 파는 가게의 젊은 주인은 ‘사내(노인)’를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지만 사내(노인)는 매일 새를 사서 날려 보내는 일을 계속해 간다. 그런데 새들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도대체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 그러던 중 밤마다 전깃불빛을 앞세운 새 사냥꾼이 새 사냥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어느 날 밤 쫓기던 새 한 마리가 벤치에서 노숙하던 사내(노인)의 품 속으로 숨어들어 오게 되면서 사내의 궁금증은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인물(=사내 혹은 노인)이 새 사냥에 대한 추리 과정을 통해 ‘이상스런 일’의 내막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에서 사건은 주로 새 가게와 공원의 숲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② 제시된 지문 내에서는 주로 현재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독백이 많다. 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공원의 숲과 벤치, 새 가게 등인데, 제시된 지문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41. 추론적 사고(인물의 행동의 이유 추리)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사내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새장수 젊은이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 가게 주변을 맴돈다. 사내는 지금 교도소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위해 새장수에게 새를 사서 방생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 있는 친구(동료)들 모두를 위해 빠짐없이 한 마리씩 새를 사서 방생하는 일이 바로 그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렇게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서처럼 젊은이의 비웃음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내가 거쳐하는 곳은 새 가게가 아니라 공원의 벤치이다. ② ‘젊은이’에게 무언의 항변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가 없다. ④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⑤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젊은이’의 말에서만 나타나고 ‘사내’가 정말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42.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여기 제시된 지문은 인물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자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직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졸음기가 말끔히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른 채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것은 놀라움에서 안도에 이르는 정서 변화 과정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하는 전깃불빛은 새 사냥꾼이 새 사냥을 하는 장면에 해당하므로 ‘공원 숲 속’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의 모습은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어둠’의 부정적 이미지로 볼 때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장면은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은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의 결과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43. 추론적 사고(어구의 문맥적 의미 추리)

‘그런 사연’은 ‘새들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사연’이다.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우선 밤에 발생하는 새 사냥(㉞)의 본질이다. ㉠, ㉡는 모두 ‘밤새 사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는 ‘밤새 사냥’의 결과로 일어난 새들의 행동(숲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붙잡혀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는 ‘사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이다. **정답 ③**

[44-47] 예술,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

지문해설 : 이 글은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종래의 예술에서는 수용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예술관에서는 작품과 수용자 각각의 상호 작용의 고유성이 보호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전체 속에서 통일되는 미적 체험에 대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존 듀이는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체험을 미적 체험으로 간주하며 ‘예술의 세속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주제]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가 갖는 의의

44. 사실적 이해(글의 세부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은 각각의 고유성이 보호되면서도 예술 작품 속에서 상이한 요소, 행동, 사건, 주체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 따라서 ①과 같이 수용자가 완결성을 갖는 작품을 변형하며 감상하는 것은, 수용자 위주의 감상이므로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45. 비판적 사고(비판적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에서 쇼펜하우어는 맹목적 충동의 연쇄 작용으로 인해 인간은 불만족과 갈등에 시달리게 된다고 보았다. ‘미적 관조’는 이런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예술을 현실의 모든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해방 공간으로 보는 것이다. 이같은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고통과 갈등을 예술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바라보는 ‘예술의 세속화’는, ‘미적 관조’를 현실 세계로 확산시켜 삶의 통일성에 대한 미적 체험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②‘예술의 세속화’가 예술의 순수성을 깨려는 것은 아니다. 작품과 수용자 각각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예술의 세속화’는 인간과 예술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며, 미적 체험이 예술 작품 속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고 했다.

46.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존 듀이는 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호 관계와 경험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미적 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용자의 일상과 미적 체험이 상호 작용하는 사례를 찾아야 한다. ⑤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반지의 이미지가 과거 아내와의 체험을 떠올리게 하여 수용자가 삶과 작품 공간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작품이 강조되고 있다. ②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수용자의 느낌이 강조되고 있다. ③컴퓨터 기술이 발전한 것에 대한 수용자의 감탄이 추가 되고 있다. ④스크린에 등장한 이미지가 일상생활의 맥락에서와 달리 신비스런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다.

47. 어휘·어법 (어휘의 사전적 의미)

정답해설 : ‘부단하다’는 주로 ‘부단한’의 형태로 쓰이며,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답 ④

[48-50] 희곡 - 함세덕, '동승'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도념이라는 한 동승이 속세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것으로 어머니를 향한 도념의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 좌절이 간결한 극적 구조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미망인에게 입양되기를 바라던 도념의 소망이 좌절되자 도념은 어머니를 찾아 속세를 향해 떠나기로 한다. 종교적 계율보다는 자유와 희망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한 도념의 행동은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불교적 가르침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이의 갈등

48.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희곡에서 대화, 방백, 독백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독백이란 배우가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 촉발된 혼잣말이라 했다. 그런데 도념이 초부와 헤어진 후에 혼잣말을 한 것은 독백은 맞으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지 스님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② 도념이가 떠나겠다는 것을 말리던 초부는 도념의 결심이 이미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가려거든 빨리 가라며 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⑤ 독백을 한 후 도념은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쉬며, 떠나면서도 산문을 돌아다보고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도념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49. 추론적 사고(극의 장르적 특성 이해)

정답해설 : 도념은 떠나기로 결심을 하면서도 주지 스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잣을 한 움큼 꺼내 산문 앞에 놓으며 스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 ㉠은 도념이 절을 떠나는 상황에서 들리는 소리이다. 그러므로 이 소리는 도념과 주지의 정서적 교감을 보여주기보다는 도념의 미안한 마음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절임을 알 수 있다. ② 등장인물인 초부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관객 역시 이 소리에 집중할 것이다. ③ 은은하게 들리던 종소리가 그치며 도념이 등장하고 있다. ④ 초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도념에게 들린 소리이다. 이 소리에 도념은 발길을 돌려 혼잣말이지만 스님에게 마음의 인사를 하고 떠난다.

50. 추론적 사고(어휘의 상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절을 떠나기로 한 도념은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데 이 비탈길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비탈길이 벗어남의 속성을 지닌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이 절에서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던 절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속세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③ 2.① 3.③ 4.② 5.④ 6.② 7.④ 8.④ 9.⑤ 10.③
11.③ 12.④ 13.④ 14.② 15.① 16.③ 17.④ 18.② 19.① 20.⑤
21.③ 22.② 23.① 24.① 25.③ 26.⑤ 27.③ 28.⑤ 29.⑤ 30.②
31.⑤ 32.③ 33.② 34.⑤ 35.② 36.① 37.② 38.④ 39.③ 40.①
41.② 42.② 43.⑤ 44.④ 45.⑤ 46.③ 47.⑤ 48.④ 49.① 50.①

[1-5] 듣기

1. 이제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재치 있는 말썬이나 재미있는 행동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고 활기차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웃음을 유발하여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우선,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살짝 꼬집을 때나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할 때, 듣는 사람은 마음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웃게 됩니다. 또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도 웃음을 유발하지요. 그리고 번뜩이는 재치로 상대방의 기대나 예상을 깨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방법이지요. 마지막으로 찰리 채플린처럼 특이한 표정과 몸짓으로 과장해서 행동할 때도 웃음이 유발됩니다.

자!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어 보시지요.

어느 연극에서 배우가 해엄을 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관객이 볼 수 없는 무대 세트 뒤로 배우가 뛰어내리면, 음향 담당자가 물통으로 ‘침뽕’하는 효과음을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향 담당자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연출자의 지시를 놓쳤습니다. 주인공이 뛰어내릴 때, ‘침뽕’ 소리가 나야 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순간 무대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배우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강물이 퐁퐁 얼어붙었군.” (휴지)

그 순간 관객들은 박수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강연의 전반부에서 재치 있는 말썬이나 행동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고 활기차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웃음을 유발하는지 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구체적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배우가 강으로 뛰어들어 해엄을 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음향 담당자의 실수로 ‘침

병' 소리가 나지 않고 '쿵' 소리가 들린 것이다. 갑작스런 상황이었지만 배우는 당황하지 않고 번득이는 재치로 강물이 얼었다는 말을 하였고,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배우의 말에 웃음을 터트린 것이다. [정답] ③

2. 다음은 수업 중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사 :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민요를 채록하는 과제가 있는 거, 모두들 알고 있지요?
 학생 : 네,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사 : 우선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께 민요를 불러 달라고 부탁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녹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요와 관계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죠. 먼저,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 옛날에 부르던 또 다른 민요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학생 :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되나요?
 교사 : 마을의 가구 수와 연령층, 마을 사람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일 같은 지역적 특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 그 마을에 전래되는 설화나 풍습 등을 조사하면 민요가 생겨난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게 되지요.
 학생 : 아, 이제 좀 알겠네요. 선생님, 그 밖에 다른 것은 없나요?
 교사 : 그것 외에도 민요의 성격을 알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지난 시간에 배운 '유월 염천 한더위에 나락도 좋고요, 땅 파는 힘이 얼마나 좋고요.'라는 민요 가사 생각나지요? 이 대목을 보면 농사와 관련된 민요라는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민요가 불릴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질문을 해서 심화된 자료를 모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면 그 민요의 학술적, 민속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에 대한 파악)

정답해설 : 교사와 학생의 대화는 민요를 채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학생들의 질문에 교사는 민요 채록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것을 조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교사의 마지막 설명 부분에 따르면, 민요의 민속적 가치는 대상자에게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민요를 채록하여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교사는 마지막 설명 부분에서 민요의 성격을 알기 위해 민요가 불릴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질문을 해서 심화된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③ 교사는 두 번째 설명 부분에서 마을 사람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일 같은 지역적 특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④ 교사는 두 번째 설명 부분에서 마을에 전래되는 설화나 풍습 등을 조사하면 민요가 생겨난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다고 했다. ⑤ 교사는 첫 번째 설명 부분에서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 옛날에 부르던 또 다른 민요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도 알아 두어야 한다고 했다.

3. 다음은 홈페이지 소개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조선 시대의 문화 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자 지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지도는 시간, 공간, 주제라는 세 가지 항목과 관련된 정보들이 마치 필름을 하나하나 엮듯이 입체적으로 제공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장'에 대해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난 후, 여러분도 같은 방식으로 '서원'에 대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선 중기 한양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시간 항목에서 '조선 중기', 공간 항목에서 '한양', 그리고 주제 항목에서 '시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조선 중기 한양의 시장들이 한 번에 지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각 지역에 분포한 시장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한눈에 볼 수도 있지요. 또 검색 시 공간 정보를 시장 주변으로 확대하면, 그 시장과 주변 마을의 정보를 추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자 지도는 조선 전기, 중기, 후기와 같이 시대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880년부터 1890년 사이와 같은 세분화된 연도별 검색은 어렵습니다.

이 전자 지도는 정치 상황이나 당시의 행정적 사항들, 그리고 생활 문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설정되어 있어서 자신이 살펴보려는 주제와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진이나 동영상 등도 제공하고 있어 검색한 정보들의 생생한 모습을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원에 대해 검색해 보세요.

3. 비판적 사고(수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인터넷을 통해 조선 시대의 문화 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시간, 공간, 주제의 세 가지 항목과 관련된 정보들이 입체적으로 제공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라는 구체적 정보를 사례로 검색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한편 시간에 대한 검색은 조선 전기, 중기, 후기와 같이 세 단계로 정보를 제공하기에 세분화된 연도별 검색은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서원 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는 반응은 잘못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시장을 사례로 설명할 때, 각 지역에 분포한 시장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한눈에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서원의 위치 역시 전국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② 검색 시 공간 정보를 시장 주변으로 확대하면, 그 시장과 주변 마을의 정보까지 추가해서 볼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서원과 주변 마을의 정보도 동시에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전자 지도는 정치 상황이나 행정적 사항들, 생활 문화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설정되어 있어서 살펴보려는 주제와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다고 했다. ⑤ 마지막 부분에

서 각종 사진이나 동영상 등도 제공하고 있어서 검색한 정보의 생생한 모습을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4 ~ 5. 다음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발표회 때 사용할 공간을 어떻게 정할지 얘기 좀 하자. 선생님께서는 발표회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본관 중앙 계단 옆 교실과 별관 꼭대기 층 교실만 남았다고 하셨어. 너희 문예부는 조용한 곳에서 시화전을 하는 것이 좋을 테니, 우리 천체 관측부가 제일 시끄러운 중앙 계단 옆 교실로 가 줄게.

여 : 원래 중앙 계단 쪽은 왕래가 잦아 모든 동아리들이 탐내는 명당 중 하나야. 우리 동아리가 별관 꼭대기로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니? 그 이유가 뭐야? 너 지금 우리 문예부 생각해 주는 척하며 은근슬쩍 명당을 차지하려는 거 맞지?

남 : 뭐, 꼭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너희는 시화전을 할 건데, 시를 감상하기에는 조용한 곳이 더 좋잖아.

여 : 별관 꼭대기는 별자리를 소개하려는 너희 동아리에 더 제격이야. 서로 양보 못하겠다고 버티기만 한다면 이야기해 봐도 뽀족한 수가 없겠네. 그럼 이대로 그만두자.

남 :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동아리는 너희만큼 알려지지 않아서 별관 꼭대기 층에 있으면 아무도 안 온단 말이야. 너흰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동아리라 어디에서 발표회를 해도 상관없잖아.

여 : 그렇지도 않아. 다른 건 몰라도 중앙 계단 옆 교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그 자리는 우리 동아리 최후의 보루야.

남 : 너희는 내년에 더 좋은 자리에서 하고, 올해는 우리에게 중앙 계단 옆 자리를 양보해 줘.

여 :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차라리 너희가 양보 좀 해 줘. 너희가 양보해 준다면 전에 부탁했던 별과 관련된 문학 작품도 찾아 주고, 청소도 해 줄게.

남 : 발표회 준비도 도와주고, 청소를 해 주겠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한테는 장소가 더 중요해.

여 : 그럼, 우리 두 동아리 모두 중앙 계단 옆 교실에서 함께 하는 건 어때? 우리 문예부가 시화전 주제를 '시와 별'로 바꾸면, 별자리를 소개하려는 너희 주제와도 어울려서 좋고 발표 내용도 더 알차게 될 거야. 우리가 주제를 바꾸는 대신에 너희 동아리가 공간 장식 좀 도와줄래? 그리고 별관 꼭대기 층에 있는 교실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자.

남 : 와, 그런 방법도 있었네. 좋아.

여 : 그럼, 이제 합의한 거다. 우리 서로 잘 해 보자.

4. 비판적 사고(협상 전략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남학생과 여학생이 발표회 때 사용할 공간에 대해 협상하는 대화이다. 여기에서 여학생이 말하는 협상 전략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지를 묻고 있다. 남학생은 두 번째 대화에서 여학생이 자신의 의중을 찌르는 질문을 하자,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시화전은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이 말에 여학생은 별관 꼭대기는 별자리 소개하는 천문 동아리에 더 제격이라 반박을 하고는, 양보 못하겠다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그만두자고 강하게 배수진을 친다. 그러므로 이 말에 담긴 전략은 대화 자체는 물론 행사도 거부하겠다는 행동으로 상대로 하여금 양보하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상대가 먼저 제안하게 하여 생각할 여유를 가지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그러면 서로의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정도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위 대화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먼저 남학생이 천체 관측부가 시끄러운 중앙 계단 옆 교실을 사용할 테니, 문예부는 조용한 꼭대기 교실에서 시화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말에 여학생은 그 이유가 뭐냐고 묻다가 우리 문예부 생각해 주는 척하며 은근슬쩍 명당을 차지하려는 거 아니냐고 상대의 숨은 의도를 확인한다. ③ 여학생의 강한 압박에 남학생은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며, 문예부는 유명한 동아리라 어디에서 발표를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한다. 이 말에 여학생은 중앙 계단 옆 교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며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④ 남학생이 문예부는 내년에 좋은 자리에서 하고 올해는 우리에게 양보하라고 부탁하자, 여학생은 오히려 천체 관측부가 양보하면 자신들이 작품도 찾아주고 청소도 해 주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한다. ⑤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의를 거부하고, 장소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말에 여학생은 중앙 계단 옆 교실에서 두 동아리가 같이 발표회를 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남학생이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른다.

5.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중앙 계단 옆 교실에서 동아리 발표회를 하겠다며 대립하다가 마지막에 합의에 이른다. 합의 내용은 두 동아리가 중앙 계단 옆 교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서로 도와주면 발표회가 알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남학생의 천체 관측부는 본관 중앙 계단 옆 교실에서 별자리를 소개할 것이다. **[정답] ④**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②의 ‘새로운 정보가 지나치게 유입되면’의 내용은 ①의 ‘폭우’와 대응시킬 수 있는데, ①에서는 폭우가 내리면 토양이 침식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②에

도 토양의 침식에 대응하는 내용을 생성하여야 한다. 그림의 [착안점]에서 토양은 사회의 지적 기반과 같게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토양이 침식된다는 것은 사회의 지적 기반 훼손을 뜻한다. 그런데 ‘개인 간 갈등이 유발된다’고 한 것은 사회의 지적 기반의 훼손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 간의 갈등이 사회의 지적 기반이 훼손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갈등이 잘 해결되어 지적 기반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착안점]에서 나무가 개인에, 숲이 사회에 대응한다고 보았으므로, ㉠의 ‘오염된 비’에서 ‘그릇된 정보’를, ‘숲과 나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에서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④ ㉡의 ‘딱딱하게 굳은 토양’에서 ‘지적으로 경직된 사회’를, ‘빗물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에서 ‘새로운 정보의 수용이 쉽지 않다’를 연상해 낼 수 있다. ⑤ ㉢의 ‘나무’에서 ‘개인’을, ‘토양의 수분을 흡수하며’에서 ‘사회적 지적 기반을 바탕으로’를, ‘(나무가) 자란다’에서 ‘(개인이) 성장한다’를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7. 창의적 사고 (개요의 수정과 보완)

정답해설 : ④의 ‘낙후된 교실 환경’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는 내용은 <보기>에 제시된 개요의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다. 개요의 주제는 ‘학교 휴식 공간’에 관한 것인데, 수정될 내용은 ‘낙후된 교실 환경’에 관한 것이므로 개요의 흐름을 벗어나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휴식 공간’에 관한 글에서 ‘여가 활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 ㉠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휴식 및 친교 기능의 공간 요구’로 바꾸는 방안도 적절하다. ② ‘자연 친화적 공간 활용 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은 구체적 실천 방안에 해당한다. 또 ‘학교 옥외 공간의 활용 방안 부재’는 현 상황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⑤ ‘~한 학교 옥외 쉼터의 제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옥외 쉼터를 조성하자’는 주제에 잘 어울린다.

8. 비판적 사고(자료의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나)의 자료 1은 1인당 ‘독서량’에 관한 내용이고, (다)의 자료 2는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이다. 특히 (다)의 2에서 어휘력 부족이 글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어휘력 부족이 독서 기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② (나)의 2-을 활용하면, 독서량 감소가 글쓰기 능력과 관련한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⑤ (나)의 2에서 독서 권장이 글쓰기 자신감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9. 추론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회상하게 한다’의 주어가 ‘간이역은’이므로, ㉠은 간이역이 글쓴이로 하

여금 지난날을 회상하게 한다는 사동문이다. 그런데 주어를 그대로 두고 서술어를 '회상한다'로 바꾸면 서술어가 주어와 호응하지 않게 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대합실 안의 물건들에서 간이역이 추억의 공간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다음 문단에 대합실 안의 물건들이 소개되는 것이 좋다. 기존의 둘째, 셋째 문단 위치를 맞바꾸면 둘째 문단에 대합실 안의 물건이 소개되고, 셋째 문단에 글쓴이의 상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② '마치'는 '~과 같다'와 호응하고, '이루'는 '~할 수 없다'와 호응하므로, ②의 고쳐쓰기 방안은 적절하다. ④ '오래된 모퉁이'보다는 '오래된 난로'로 이해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10.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대출 도서의 훼손을 막으려는 의도를 표현하라고 하였는데, ③에서 책을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표현되었다. 또 <보기>에서 의인화와 대구의 표현을 쓰라고 하였는데, '제', '상처', '당신' 등에서 의인화 표현이 쓰였고, '어디에 어찌하는 무엇'의 형태가 반복되어 대구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작의 의도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고, 의인화의 표현 기법이 쓰이지 않았다. ④ 제작의 의도가 약하게 표현되고, '아픔'이라는 의인화 표현이 일부 쓰이기는 하였으나, 대구의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⑤ 대출 도서를 훼손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 대신 도서 반납을 잘하라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11. 어휘·어법 (어휘의 음운과 의미의 관계)

정답해설 : a에서 [시켜]는 '식혀'와 '시켜'의 소리는 같고 의미는 다른 말로 표기된다. 이는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이다. b에서 [이연패]는 '이연패'로 표기되며, 그 의미는 '두 번 연속 패배함[이연패, 二連敗]'과 '두 번 연속 우승을 차지함[이연패, 二連覇]'의 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이다. c에서 [가스미]는 '가슴이'로 표기되며 신체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고, 심정을 뜻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정답 ③**

12. 어휘·어법 (청유 표현의 용법 파악)

정답해설 : ④의 '먹읍시다'라는 청유 표현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밥 좀 먹읍시다'에서 밥을 먹을 사람은 '화자'이며, 밥 먹는 행위는 청자에게 기대되지 않는다. 행위의 주체가 화자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④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청자인 '떠드는 친구들'만 조용히 하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② 청자인 아이만 약을 먹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③ 화자와 화자의 친구인 청

자 모두가 영화를 보러 가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⑤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반 친구 전체가 토의하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13-15] 인문, '지행론의 변화와 그 배경'

지문해설 :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과 실학자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바탕이 되었던 '지행(知行)'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먼저 지행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후, '지행'에 대해 기존의 성리학자들과 다른 입장을 취했던 '홍대용', '최한기' 등 실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즉, 이 글은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겨 내면의 도덕적 수양을 중시하고 지행을 병진(並進)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성리학자들의 견해와, 지행에 대해 새롭게 접근했던 홍대용 및 최한기의 견해를 통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조선 시대의 '지행(知行)'에 대한 입장의 변화와 그 배경

13.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는 내면의 도덕적 수양을 중요시 하며 지행을 병진하는 것으로 여겼던 성리학자들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며, 2문단에는 지행에 대해 기존의 성리학자들과 다르게 접근했던 실학자 홍대용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3, 4문단에는 홍대용과 마찬가지로 지보다 행을 중시했던 실학자 최한기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 5문단에서는 지행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학문의 목표(사회 현실의 개혁, 격변하는 시대의 대처)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해 지행론 변화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선행후지(先行後知)'는 최한기의 입장인데, 1문단에는 성리학자들의 입장이, 2문단에는 홍대용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지행의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③ 실천을 중시했던 실학자들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지행에 대한 입장의 변화라는 글의 논지를 포괄하지 못한다. ⑤ 이 글은 조선시대에 인식과 실천의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14.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홍대용은 '지'와 '행'의 병진을 전제하였지만, 이용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다. 그에 따라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실용적인 지식을 중시하였다. 이는 그가 '지'의 대상을 실용적 측면까지 확대시켰음을 의미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성리학자들은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겼다. ③ 홍대용과 최한기는 '지'보다 '행'을 중시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최한기의 학문의 목적은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함

이라고 했다. ⑤ 최한기는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5.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는 어린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보기>에 따르면 아이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형태의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완전한 형태의 언어 표현 구사’를 위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은 최한기의 입장에서 보면 ‘행을 통해 지를 형성하고, 그 지에 의해 새롭게 행하고, 다시 그 행을 통해 기존 지를 검증’해 객관적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최한기의 입장에서 보면 '행'에 의해 '지'를 검증해 객관적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중시한 것은 성리학자들이다. ④ 최한기는 경험을 통한 객관적 지식의 습득을 강조했다. ⑤ 최한기는 자연을 탐구해 물리(物理)를 인식함으로써 사리(事理)가 성립되며, 이 사리에서 인도(人道)가 나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도를 통하여 사리를 얻는다는 것은 최한기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16-19] 고전소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김시습의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실려 전하는 다섯 편의 한문 소설 중 하나로 이승 사람인 총각 ‘양생’과 이승 사람이 아닌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전기소설(傳奇小說)이다. 전체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전라도 남원에 사는 양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채 만복사의 구석방에서 외로이 살고 있다. 만복사에는 매년 삼월 이십사일 청춘 남녀들이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양생은 부처님 전에 저포를 가지고 가서 부처님과 내기를 하여 이긴다면 그 대가로 배필을 점지해 달라는 소원을 빈다. 내기에서 이긴 양생은 불상 뒤에서 동정을 살피다가 부처님 전에 축원문을 올리는 여인이 배필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자신의 방에 데려와 인연을 맺는다. 양생은 그 여인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삼 일째 되는 날 여인은 양생에게 헤어질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헤어질 때 그녀는 은주발을 주며 내일 보련사 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부모를 만나라고 말한다. 다음날 양생은 보련사 가는 길에서 여인의 부모와 만나게 되고 여인의 부모에게 은주발을 얻게 된 경위를 말한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여인이 왜구의 난리 때 죽은 자신들의 자식임을 밝힌다. 보련사에 도착한 양생은 음식을 먹는 혼백의 수저 소리로 자신들의 딸의 행위에 의아해하는 부모에게 여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여자는 양생과 더불어 부모가 베푼 음식을 먹고 나서 저승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며 사라졌다. 양생은 이에 홀로 귀가한다. 어느 저녁 양생은 자신은 타국에 가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당신도 불도를 닦아 윤회를 벗어나라는 여자의 말을 듣는다. 양생은 여자를 그리워하며 다시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지낸다. 지문으로 나온 부분은 양생이 여인과 3일을 지내는 장면과 여인의 부모를 만나 여인의 존재를 그녀의 부모에게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다.

주제: 죽은 여인(귀신)과의 짧은 사랑과 이별

16. 사실적 사고(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해설 : (중략) 바로 앞부분에서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술을 권하도록 하였다. 시녀가 옛 가곡을 부르자 여인이 새로운 가사를 지어 술을 권해도 되겠냐고 물은 뒤, 만강홍 곡조에 맞춰 가사를 짓고 시녀에게 부르게 한다. 여인이 어떤 내용의 가사를 지었는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여인이 시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지, 시녀가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드러내기 위해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여인의 두 번째 말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중간 부분인 ‘하지만 여인의 말씨와~의심치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중략) 아래 부분에 드러나는 시녀의 말 ‘아가씨 장례 때~가지고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중략) 아래 부분에 드러나는 부모의 말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그리고 조금도 놀라지 말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사실적 사고(공간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좁은 판자방)은 양생이 여인과 인연을 맺고 3일간의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이다. ㉡(하얀 휘장 안)은 양생과 여인이 식사하는 공간으로 여인의 존재에 대해 의아해하는 그의 부모에게 귀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공간이다. 따라서 ㉠은 인연을 맺는 공간, ㉡은 여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부모에게 여인과의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으로 파악한 ㉣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위 글에서 ㉠, ㉡ 모두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장소인 것은 아니다. ② 위 글에서 ㉠은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은 여인 스스로 들어간 공간이다. ③ 위 글에서 ㉠은 현실적 공간으로 양생과 여인이 현실적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다. ㉡은 현실적 공간에서 기이함(전기적 요소)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⑤ 위 글에서 ㉠, ㉡ 모두 현실적 공간의 일부일 뿐이다.

18. 비판적 사고(주어진 조건에 맞게 감상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드러난 기획 의도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보기>에 드러난 기획 의도의 핵심은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이 작품에 드러난 양생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가벼운 만남과 대비되는 양생의 만남이 부각되어 드러난 답지의 의견이 기획 의도를 적절히 이해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②는 양생이 여인과의 만남이라는 인연을 부각시킨다는 내용과 만남의 소중

함을 깨닫게 한다는 내용이 의견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의견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여인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인의 가족과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여인을 변함 없이 사랑하는 양생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양생의 만남을 일상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드러난 의견일 뿐,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와는 거리가 먼 의견이다. ③ 죽은 여인의 환생이라는 기이한 상황(전기적 요소)을 부각시키려는 기획 의도가 드러난 의견일 뿐,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④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현대인의 기호에 맞춰 구성하자는 기획 의도가 드러난 의견일 뿐,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⑤ 양생과 여인의 사랑을 강조하자는 기획 의도가 드러난 의견일 뿐, 이 둘의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는 확인할 수 없다.

19. 어휘의 이해(상황에 적합한 한자성어 파악)

정답해설 : 여인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은 채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서 틀어박혀 지낸 상황을 보여 주는 말이다. 따라서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한다’는 말이 이 상황을 적절히 보여 주는 말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인 박명(佳人薄命): 아름다운 여자는 수명이 짧다는 말.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④ 망양지탄1(亡羊之歎)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유사어는 다기망양(多岐亡羊)이다. ⑤ 독야청청(獨也靑靑)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23] 사회, ‘기업 결합의 양상과 심사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업 결합의 양상과 그에 대한 정부의 심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기업 결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기업 결합의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 결합의 위법성에 대해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친다고 했다. 이러한 심사 단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기업 결합의 성격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구체적 진술로 상세화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기업 결합의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심사 과정

20. 사실적 사고(글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이 글의 중심 화제는 기업 결합이다. 기업이 결합하면 순기능도 있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도 있기에 정부는 이를 가려내기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했고, 그 심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취지는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부정적 기능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기업 결합에 따른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② 이 글은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기업 결합에 따른 이익의 사회 환원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1문단에서 기업 결합은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④ 기업은 소비자를 상대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기에, 이러한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고 했다. 이로 보아 기업 활동의 위법성 여부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21. 사실적 사고(글의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이 글의 절반 이상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하여 이해하는 문제이다. 도식이 복잡한 것 같지만 글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판단하면 오히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문단에서 ㉠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취득 기업(A)이 피취득 기업(B)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때 결합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했다. 결합이 성립된 다음의 과정은 3문단의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라 했다. 그 다음 과정인 ㉡는 4문단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장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되더라도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했다. 아니라면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답] ③

2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해설 : 이 글의 3문단에 기업이 결합할 때 두 기업이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동일 시장에서 경쟁자란 서로에 대해 대체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로 판단한다고 했다. 즉, A의 가격 인상이 있을 때 A의 판매량이 20% 떨어지고, B의 판매량 15% 증가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 반대로 B의 가격 인상이 있을 때, A의 판매량 증가가 가장 크다. 결국 A와 B 두 상품은 경쟁 관계이며 동일 시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A의 소비자들은 B를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③ C의 가격 인상이 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상품은 D이므로 C와 D는 경쟁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두 회사의 결합은 특별한 관련이 없는 혼합 결합이 아니라, 수평 결합으로 볼 수 있다.(5) ④ A의 가격 인상이 있을 때 D의 판

매량에는 변화가 없다. 반대의 경우 즉 D의 가격 인상에 따른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기에 A와 D는 경쟁 관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두 회사가 결합한다면 이는 수평 결합이기보다 혼합 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3. 어휘·어법(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침해’는 ‘침범하여 해를 끼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라져 없어짐’은 ‘소멸(消滅)’의 의미이다. **[정답] ①**

[24-26] 과학, ‘미생물의 종 구분’

지문해설 : 미생물의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라 미생물 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미생물은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해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은 미생물이 배양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미생물에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 거리’를 토대로 미생물의 종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특정 유전자가 미생물 전체의 유전적 특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전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미생물 종은 ‘서로 유전 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이라는 정의가 성립되었다.

[주제]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미생물의 종 구분과 미생물 종의 개념 정의

24. 추론적 사고(논지 전개 과정의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미생물의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미생물의 종을 구분하는 방법의 한계를 지적한 후,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나)에 제시된 해결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라)에서는 (다)에 제시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마)에서는 유전자 특성을 이용해 미생물 종을 구분하는 것의 의의를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정답] ①

25.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외양에 따라 미생물의 종을 구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미생물의 외양적 특성이 환경에 따라 변하고 모든 미생물 종에 적용되기가 힘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의 특성을 이용해 미생물의 종을 구분한다. 이는 외양보다 유전적 특성이 미생물 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에 따르면,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 주는 유전자를 이용한다. ②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은 어떻게 배양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했다. ④ (가)에서 동식물의 종을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또는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고 했다. ⑤ (라)에서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적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유전체가 DNA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26. 비판적 사고(시각 자료를 통한 정보 이해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글에 제시된 그림은 두 미생물 사이의 유전 거리와 유전체 유사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그림을 통해 두 미생물의 유전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전 거리를 안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두 미생물이 같은 종이기 위해서는 유전 거리가 가까워야 하며, 아울러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일 경우 유전 거리가 L 미만이 되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III영역은 유전체 유사도가 7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종으로 구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④ IV는 유전 거리도 L미만이고 유전체 유사도도 70% 이상이라 두 미생물이 같은 종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7-29] 희곡

윤홍길 원작/ 윤삼육 각색, ‘장마’

작품해설 : 이 시나리오에는 6·25 전쟁이 한 가정에 준 상처를 그린 윤홍길의 ‘장마’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제목 ‘장마’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끈끈하고, 무덥고, 고통스러운 시기인 6·25 전쟁을 상징한다. 제시된 장면은 길준의 전사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에서 비롯된 한 가족의 비극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전쟁으로 인한 한 가족의 비극과 극복

27. 추론적 사고(인물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외할머니의 아들인 길준의 전사 소식을 접한 외할머니, 어머니, 할머니, 이모, 동만의 모습을 그리는 장면이다.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한 집안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를 통해 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져온 비극적 상황을 느낄 수 있다. #32에서 이모(길자)가 아버지에게 가져갈 점심 식사를 이고 나가자 동만은 이모를 따라 나온다. 이어서 #33에서 전쟁의 의미를 잘 알지 못

하는 동만이 이모(길자)에게 외삼촌이 죽은 이유를 묻고 있다. 이는 순진한 어린 아이의 시각을 통해 어른들이 초래한 전쟁의 비극성을 반문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③은 #33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외할머니가 #32에서 말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들(외삼촌)의 죽음에서 받은 충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친할머니의 첫 번째 대사에서는 사부인(외할머니)을 염려하고 있으므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은지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이다. ② 동만 또는 #31에서 자신의 어머니, 길자, 남편의 식사를 걱정하고 있다. ④ #31과 #32를 통해 이모는 형부(동만의 부)의 점심을 챙겨주기 위하여 나간 것이다. ⑤ #30의 친할머니 두 번째 대사에서 동정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28. 내용의 추리(구체적 장면의 파악)

정답해설 : ㉠(마당)에서의 인물들의 모습은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추리할 수 있다. #32에서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는 먼 산을 쳐다보며 넋을 놓고 있고, 동만의 행위를 간신히 알아차리고 있다. 그리고 동만의 이모는 동만 아버지의 점심을 이고 나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마당’이 소통 부재의 상황을 해소하는 공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8에서 ‘햇빛 울음’에 이어 ‘장맛비’가 제시되는 데서 생겨날 수 있는 감상이다. ② 외할머니의 시선을 카메라가 대신함으로써 원경이 될 수밖에 없으며 동만의 집이라는 한정된 배경에서 확장된 배경을 제시할 수 있다. ③ #30의 외할머니의 모습이 #32외할머니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시간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외할머니의 상실감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밥상)을 매개로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동만, 길자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29. 비판적 사고(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감상하기)

정답해설 : <보기>는 시나리오의 매개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매개 요소란 각 정면을 이어주는 형식적 연결 고리로 공통성, 대립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31과 #32에서 이모가 밥 소쿠리를 이고 나가자 동만이 따라 나오으로써 자연스럽게 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⑤ 이모(길자)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1과 #32에서 이모의 성격은 계속 같게 유지되고 있다. **정답 ⑤**

[30-31] 언어, ‘음운의 변별적 자질’

지문해설 : 음운의 변별적 자질은 본래 음운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변별적 자질은 이뿐만 아니라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변별적 자질을 나타내는 양분적인 값을 사용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를 동원해 변별적 자질의 역할을 설명하고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주제] 변별적 자질을 통한 음운 간의 대립 설명과 그 의의

30.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 받은 후의 음’,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들처럼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이 그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변별적 자질은 본래 음운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③ 변별적 자질을 통해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운적 특성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④ 변별적 자질의 ‘+/-’는 해당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음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상호 예측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 준다.

3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들은 각각 ‘ㅇ’과 ‘ㄱ’이다. <보기>에 따르면 ‘ㅇ’과 ‘ㄱ’은 모두 [+비음성]의 자질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할 수 있다. 즉 비음성이라는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되는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A에 해당하는 ‘ㄱ, ㄷ, ㅂ’은 모두 [-비음성]의 자질을 나타낸다. ② ㉡의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은 B를 일컫는다. B에 해당하는 ‘ㅇ, ㄴ, ㄱ’은 모두 [+비음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③ ㉢에 해당하는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ㄴ, ㄱ’이다. 이들은 모두 [+비음성]의 자질을 나타낸다. ④ ‘ㅂ’과 ‘ㄱ’은 글의 1문단에 따르면 모두 [+양순성]의 자질을 나타낸다.

[32-37] 시가 복합(현대시 + 고전시가)

(가) 조지훈, ‘승무’

작품해설 : 이 시는 승무라는 불교적 춤을 소재로 하고 있다. 화자는 승무를 추는 고운 얼굴의 여승은 아무 말 없이 때로는 정적으로 때로는 동적으로 춤을 출 뿐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런 여승에게서 인간사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의지를 읽어낸다. 승무라는 고전적인 춤을 소재로 한국적인 정조, 세상사의 번뇌를 이겨내

려는 인간 보편의 염원을 그려낸 작품이다.

[주제]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

(나) 송수권, '지리산 삐죽새'

작품해설 이 시에서 화자는 지리산 삐죽새 울음 소리에서 느끼는 설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저 먼 지리산의 한 곳에서 삐죽새가 울음을 토해내면 그 울음이 봉우리를 울리고 넘어와 섬진강으로 이어지고 그 섬진강은 다시 남해 군도의 여러 섬을 밀어올리며, 그 울음이 지리산 정상 세석의 철쭉꽃밭으로도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산에서 강,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하가 설움으로 그득하다는 것을 화자는 자신도 설움에 잠기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주제] 지리산의 삐죽새 소리에서 깨닫게 되는 설움의 정서

(다) 송순, '면앙정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송순이 41세로 관직에서 물러나 전라도 담양 제월봉 아래에 면앙정을 짓고 그 곳 주변의 풍경을 노래한 시이다. 이어서 화자는 면앙정의 지형적 위치를 제시한 다음, 면앙정 주변의 근경에서 산봉우리의 원경을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이렇게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후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다. 즉, 세속의 번잡한 일을 잊고 대자연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주제] 대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 속에서의 풍류

32.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춤을 묘사한 시이다.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이나 서서히 움직이는 동작, 멈춘 동작까지 모두 묘사되어 있다. 특히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 보선이여'에서는 오이씨와 같은 버선을 신은 발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춤사위를 표현하고 있다.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뺨는 손'에서 손의 동적인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삐꾸기 울음'이라는 청각적인 이미지이다. 2연에서 '실제의 삐죽새가 / 한 울음을 토해 내면 /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부분은 삐꾸기 울음소리가 봉우리를 넘고 넘어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는 면앙정 주변의 모습을 여러 비유법을 사용하여, 마치 '용이 일어서는 듯', '학이 두 날개를 벌리는 듯', '하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등과 같이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세 작품에서는 시각, 청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에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의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에만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나)와 (다)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33.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이해)

정답해설 : (가)의 ‘흐르는 빛’은 (여인의 얼굴이) ‘정작으로 고와서’ 화자의 마음을 서럽게 하는 빛이다. 그 고운 얼굴빛은 승무를 처음 발견한 화자가 그 자리에 서서 춤을 끝까지 보도록 붙잡아 두는 힘이기도 하다. ②에서는 ‘흐르는 빛’을 여인의 얼굴에서 화자가 발견하는 빛으로 보지 않고, 여러 빛들에 의한 조명 효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여승이 춤을 추는 배경이 달이 지는 ‘밤’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정경들이 어둠 속에 묻히고 무녀(舞女)인 여승이 부각된다. ④ (가)에서 ‘하늘’은 지상의 세계와 대비적인 의미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지상은 인간이 번뇌를 느끼는 곳이며, 세속에 지친 인간은 ‘하늘’, 그리고 하늘의 ‘별빛’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별’은 인간의 모든 번뇌를 초월하게 하는 해탈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여승이 까만 눈동자를 들어 ‘한 개의 별빛’을 향한다는 것은,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가고자 하는 여승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⑤ 6연에서 ‘눈동자 살포시 들어 ~ 별빛에 모두오고’라는 구절이 7연의 ‘눈물’, ‘번뇌는 별빛이라’와 이어진다는 점에서 ‘별빛’이 무녀의 눈과 연결되고, 이는 다시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이어준다고 할 수 있다.

34. 추론적 사고(시어의 의미 파악 및 비교)

정답해설 : (가)에서 여승의 춤사위는 느리게 출발해서 점차 빨라지면서 다시 고요해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화자는 여인에게서 세상사의 번뇌와 설움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에 나비와 같은 춤이 이어진다고 하여 시상을 종결한 것은 여승의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자 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설움’이 지리산에 숨어사는 한 마리 삻새의 울음임을 깨달았고, 그 울음이 지리산 전체를 울게 만들었으며, 그 울음에서 발원(發源)한 한줄기 강이 멀리 남해 바다로 흘러들어 무수한 섬을 생기게 했음을 깨닫는다. 또한 그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서 지리산의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마지막 연의 ‘세석의 철쭉꽃밭’은 이승의 맨 마지막 빛깔로서 앞 연에서 서술된 설움을 환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④ (가)의 설움은 여승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나)의 설움은 외부적 대상인 ‘삻새’에서 비롯되고 있다.

35. 추론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2연에서 지리산 아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삻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가 그 소리를 받아 넘기고 그 소리가 뒷산 봉우리를 넘어 울려 퍼진다. 그리고 또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긴다. 이는 한 마리의 삻새 울음이

차츰 다른 뼈꼭새로 이어지는, 즉 공동체의 공감으로 확산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다르지 않은 동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화자가 울음의 주인공에 관한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를 ‘석 석 삼 년’ 즉 이십 칠 년의 봄을 더 넘겨서이고, ‘길이 덜 뜬 설움에 맛이 들고’ 나서였음을 1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2~4연의 첫 행에 ‘지리산 하’, ‘지리산 중’, ‘섬진강’이라는 시적 공간을 배열하여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36. 추론적 사고 (표현상의 특징 비교)

정답해설 : [A]는 지리산의 봉우리가 한 마리 뼈꼭새의 울음소리를 받아넘긴다고 하여 자연물을 의인화한 표현이 쓰였으나, 직유법은 쓰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B]에서는 면양정 앞의 시냇물을 ‘쌍룡(←쌍룡이 뒤흔는 듯)’과 ‘비단(←긴 김을 펼쳤는 듯)’에, 물가에 펼쳐진 모래밭은 ‘눈(←눈같이 퍼졌거든)’에 비유하는 과정에서 직유법이 쓰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 4음보의 정형적 음보율이 느껴진다.

37. 추론적 사고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관점을 토대로 (다)를 감상하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면양정’은 작가가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화자는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여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하고 했다. ㉞의 ‘늙은 용’은 세월봉의 형세를 표현한 것인데, 선잠에서 막 깨어난 ‘늙은 용’이 머리를 얹혀 놓은 듯한 형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늙은 용이 선잠에서 막 깨어났다는 것은 이상을 펼치기에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펼치고자 하는 작가의 내면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무변대야’는 ‘끝없이 넓은 들판’으로 그런 곳에서 무슨 ‘짐작’을 한다는 것은 작가의 이상이 높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다. ③ ‘두 날개를 벌리는 듯하다’는 표현은 비상(飛上)하려는 화자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추월산의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서 있다는 것에서, 높고 낮은 다양한 형세의 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38-41] 현대소설 - 이문구, ‘관촌수필(冠村隨筆)’

작품해설 : ‘관촌수필’은 8편의 단편을 묶은 연작소설이다. 오랜 타향 생활 끝에 고향에 들러 옛 터전을 둘러보며 떠오르는 감상을 위주로 서술한 이 작품에는 근대화 과정에서 변화하는 농촌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제목이 ‘수필’로 되어 있듯이 이 작품은 회고담 형식을 취하면서 주목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에피소드

들을 나열하고 있다. 출제된 부분은 제3편 ‘행운유수(行雲流水)’의 일부이다. 여기서는 집안의 허드렛일을 돕는 천한 출신의 ‘옹점이’가 주인공이다. 유년 시절을 고독하게 보내던 ‘나’에게 옹점이는 잊지 못할 친구였다. 그녀는 그릇을 잘 깨는 달렁쇠였고 참새 못잖은 수다쟁이였지만, 착하고 소견이 넓었으며 남달리 인정이 많았다. 그래서 잘 살아갈 줄 알았던 그녀가 6·25의 와중에 남편을 잃고 시가 식구들에게마저 냉대를 당하다가 시댁을 나와 약장사 꽤거리를 따라다닌다는 소문이 들린다. 행운유수와 같이 떠도는 기구한 인생이었던 것이다. 장터에서 그녀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나’는 그녀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 아파한다.

[주제] 한 인물의 가슴 아픈 인생 유전(제3편의 주제)

38.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대화 부분에서 특히 충청도 특유의 방언이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진술되어 있어서 생생한 느낌을 준다. ‘옹점이(옹점이)’, ‘그렇당께(그렇다니까)’, ‘-헌티(한테)’, ‘전디졌슈(견디졌어요)’ 등에서 이러한 방언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자의 독백적 진술이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사투리가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신 순수한 우리말과 토속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서술자는 ‘나’로 일관하고 있다. ② 인용된 부분에서는 옹점이를 평가하고 있는 마지막 대목에서만 현재의 시각으로 진술했고, 나머지는 옹점이에 관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다. ③ 서술자인 ‘나’가 주관적 입장에서 주인공 옹점이에 얽힌 일화를 들려주고 있다. ⑤ 서술자인 ‘나’의 눈으로 옹점이에 얽힌 일들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 이질적인 시선이 대비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9. 추론적 사고(인물의 입장 추론)

정답해설 : 옹점이는 ‘교전비와 난봉난 행랑것’ 사이에서 태어난 천한 신분의 인물이다. 구시대의 잔재인 신분 의식이 아직 남아 있던 당시에는 이것이 혼사에 큰 장애로 작용하여, 근동의 총각들이 그녀에게 눈독은 들일망정 혼인의 상대로 생각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③은 등장인물의 입장과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어머니는 옹점이의 음식 솜씨나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인정했으나, 손이 커서 험든 데가 있다고 걱정을 했다. ② 옹점이는 부지런하고 손놀림이 빨라 동네의 큰일에 불러 다니며 뒤퉼다끼리를 도맡아 해주었고, 그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대견스레 여겼다는 내용이 나온다. ④ 근동 사람들은 옹점이가 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다 안다. 그렇지만 일도 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그녀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⑤ 옹점이는 처자식을 잃고 홀로 된 절름발이 늙은이를 측은하게 여겨 곡식을 빼들려 가면서까지 그를 돕는다.

40. 추론적 사고(작품의 배경의 추론)

정답해설 : 옹점이가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징발되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촌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거나 대소사를 치를 때에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공동체적 유대감이 남아 있는 전통적인 농촌 사회인 것이다. 또한 혼사에서 신분을 중시하는 전근대적인 모습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관촌과 달리 전채민촌은 원래는 대여섯 가구뿐인 작은 부락이었으나 다른 곳에서 이주민들이 몰려와 떠들썩하게 변한 동네이다. 그런 동네이니 결속력이 강할 리 없고, 들고 나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개방적인 마을로 봐야 할 것이다. ③ 전채민촌은 떠들썩한 동네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④ 관촌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공간인데 반해, 전채민촌은 읍내에서 지게꾼, 장사꾼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대의 흐름을 많이 타는 공간이다. ⑤ 관촌은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신분을 중시하는 등의 특성을 지닌 곳으로, 아직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전근대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가 우위에 있는 마을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채민촌은 읍내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41. 비판적 사고(작품의 형식적 특성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옹점은 신분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성품과 훌륭한 일솜씨로 집안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은 천성이 착하고 발라서 나온 것이지, 신분적 한계를 극복해 내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볼 만한 행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옹점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녀의 행적을 회고하는 이유는 글의 마지막 대목에 나타나 있듯이 ‘주체성’ 있는 사람으로 서술자의 인상에 강하게 남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옹점이가 인정 많은 인물임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전(傳)’에서의 주요 행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B]에서 서술자는 옹점이가 일찍이 진정한 주체 의식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아주 후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 ④ [B]에서 서술자는 근래에 사람들이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이니 하는 말들을 남발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세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⑤ [B] 이전까지 옹점의 행적을 전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고유어와 토속적인 표현들을 위주로 말하듯이 서술했다. 그러던 것이 [B]에 이르러서는 어휘도 주체성이니 주체 의식 같은 관념적인 어휘를 동원하고 말투도 다소 격식을 갖춘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문체상의 특징은 ‘전(傳)’에서 행적과 인물평을 문체를 달리하여 서술한 것과 꽤 닮았다.

[42-45] 예술, ‘음높이와 음길이를 표시하는 기호’

지문해설 : 악보에 쓰이는 기호의 의미와 형성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먼저 악보에

서 쓰이는 기본적인 기호에 음높이를 나타내는 기호들과 음길이를 나타내는 기호들이 있음을 밝히고 나서, 다음으로 이런 기호들이 형성되고 발달되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음높이를 나타내는 기호로는 ‘5선’과 ‘음자리표’를, 음길이를 나타내는 기호로는 ‘음표’와 ‘박자표’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이들 기호들은 처음부터 사용된 것이 아니다. 발달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음높이와 음길이를 구분한 후 과정에 따라 각 기호들의 발달과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기능과 유용성까지 설명함으로써 각 기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주제] 악보에서 음높이와 음길이를 표시하는 기호의 형성과 발달 과정

4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에 따르면 음높이를 표시하는 5선은 14세기 무렵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규칙적인 박의 묶음을 표시하는 박자의 개념은 새로운 리듬 양상을 보여주는 14세기에 시작되었다. 즉 14세기에 이르러 음높이와 음길이의 표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가 사용된 이후에 다양한 리듬의 표현이 가능해졌다. ③ 음자리표는 음의 높이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박자표는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리듬은 음의 길이와 관련이 깊다. ④ 9세기에는 가사 위에 간단한 기호로 음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표시했다. ⑤ 음자리표는 11세기경부터 사용되었는데, 이때부터 2선이나 4선 위에 음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2선이나 4선 악보에서도 음자리표를 볼 수 있다.

43. 추론적 사고(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옛날의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악보가 있기 때문이라며 악보의 의의를 제시했다. 그런 다음 악보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호들을 음높이를 나타내는 것과 음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누어, 그 기호들의 발달과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44. 창의적 사고(개념과 원리의 창의적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A는 3분할이고 B는 2분할이다. 3분할과 2분할은 각각 3박자와 2박자 계통의 기초가 된 것이다. 3박자는 ‘강-약-약’의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묶은 것이며, 2박자는 ‘강-약’의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묶은 것이다. 따라서 A는 ‘강-약-약’, B는 ‘강-약’으로 연주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프랑코 기보법’에 사용되는 음표들은 음길이를 표시하기 위한 것들이다. ② 4문단에서 ‘3’이라는 숫자를 ‘완전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음길이를 셋으로 분할하는 완전 분할을 사용했다고 했다. 즉 3분할은 완전 분할이고 2분할은 불완전 분할이다. ③ ‘악기 3’은 ‘세미브레비스’ 음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음표는

가장 짧은 음길이를 나타낸다. 이는 ‘악기 3’으로 연주되는 음의 리듬이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⑤ <보기>의 A와 B는 동시에 연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A의 ‘악기 2’의 통가 1개는 B의 ‘악기 3’의 세미브레비스 6개와 연주되는 시간이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45. 어휘·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의 ‘정하고’는 기보법에서 네 종류의 음길이를 규칙으로 결정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의 ‘설정(設定)’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개정(改定)’은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을 의미한다. ② ‘판정(判定)’은 ‘판별하여 결정함’을 의미한다. 문맥상 ‘판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인정(認定)’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을 뜻한다. ④ ‘추정(推定)’은 ‘추측하여 판정함’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46-50] 기술, ‘장비의 신뢰도 분석의 기본 개념과 원리’

지문 해설 : 이 글은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직렬 구조와 병렬 구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뢰도 구조와 물리적 구조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직렬이나 병렬의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n 중 k’ 구조 또한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글은 장비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여러 대상의 개념을 규정하고, 개념 간을 비교·대조하며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신뢰도 분석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장비의 신뢰도 분석의 개념과 원리

46. 추론적 사고(내용의 논리적 추론)

정답 해설 : 6문단에서 ‘n 중 k’ 구조는 직렬이나 병렬의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이라 했다. 이 구조는 n개의 부품 중에서 k개만 작동하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 것이다. 그런데 n=k일 때는 모든 부품이 정상 작동을 해야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기에 이 구조의 신뢰도는 직렬 구조와 같아진다. 2문단의 3행에서 직렬 구조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정상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직렬 구조는 모든 부품이 정상 작동을 해야 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되기에 부품 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A의 신뢰도를 구했다. 이는 부품 간의 상호 작용이 있다면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문단에서도 역시 마지막 문장에서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신뢰도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면 B의 신뢰도의 값 역시 달라진다고 했다. ④ 부품이 동일할 때, 직렬 구조보다는 병렬 구조에서 경로의 수가 더 많다. 제시된 그림

은 2개의 부품이 들어있는 시스템의 경로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한 2문단의 첫 문장 설명을 보면 A 구조는 경로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신뢰도 구조라 했다. 반면에 3문단의 첫 문장에서 B와 같은 병렬 구조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두 부품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부품 1이 고장 났을 때 작동하는 경우, 부품 2가 고장 났을 때 작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⑤ 2문단에서 0.72의 신뢰도란 100번 가운데 72번이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것이라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7.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 해설 : <보기>는 카메라 사용 시 주의 사항이다. ㉠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라 할 때,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를 찾는 것이다. 신뢰도란 그 시스템 즉, 카메라가 작동할 확률과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는 카메라의 손실된 녹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카메라의 작동이나 고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카메라의 고장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카메라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뢰도만큼 작동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상으로 보증한다는 것이다. ②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온도 조건을 명시한 것이기에, 이를 벗어나면 신뢰도만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③, ④ 이는 카메라가 피해야 할 조건들이다. 즉, 이러한 조건 하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면 주어진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48. 비판적 사고(수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 해설 :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구조라면 하나의 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4개의 건전지가 필요한 탁상시계에 4개 모두를 넣어야 시계가 작동한다는 것은 이것이 직렬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로등 1개가 고장 났지만 나머지 가로등은 켜져 있다. 하나의 부품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병렬 구조이다. ② 퓨즈 2개가 모두 끊어졌을 때 작동을 멈추었으며, 1개를 넣어도 작동한다고 했기에 병렬 구조이다. ③ 1개가 고장 났고, 이것을 제거해도 나머지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병렬 구조이다. ⑤ 이중 제동 장치이며 하나가 고장 났지만 다른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해서 차량이 정지했다. 병렬 장치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장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49. 창의적 사고(개념과 원리의 시각적 표현)

정답 해설 : [가]는 장비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물리적으로는 직렬 구조이지만 신뢰도 구조상으로는 병렬 구조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배수펌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 구조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이 시스템의 물리적인 구조는 직렬 구조이다. 단지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하나가 작동하면 역류를 막을 수 있으므로 신뢰도 구조상으로는 병렬 구조이다. 그러므로 직렬 구조 중에서 펌프가 가장 왼쪽에 위치한 것이 정답이다.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왼쪽으로 흐르는 것이 역류이기 때문이다. 정답 ①

50. 어휘·어법(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㉔는 ‘여럿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범위의 안’의 의미이다. ①에 쓰인 ‘가운데’가 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양쪽의 사이’ ③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범위의 안’ ④ ‘양끝에서 거의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 ⑤ ‘일정한 공간의 중앙’

201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영역 (언어)

정답 및 해설

[정답]

1.③ 2.③ 3.④ 4.② 5.① 6.④ 7.③ 8.⑤ 9.⑤ 10.⑤
11.③ 12.② 13.① 14.① 15.④ 16.③ 17.① 18.④ 19.④ 20.④
21.③ 22.④ 23.① 24.③ 25.③ 26.⑤ 27.⑤ 28.② 29.③ 30.④
31.② 32.⑤ 33.③ 34.⑤ 35.① 36.② 37.② 38.① 39.① 40.④
41.⑤ 42.② 43.⑤ 44.① 45.② 46.② 47.⑤ 48.① 49.② 50.④

[1-5] 듣기

1.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여름에 마시면 좋은 한방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줄줄 흐르는 땀과 잠 못 이루는 열대야로, 기운 빠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여름에는, 오미자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오미자차는 갈증 해소에 좋을 뿐만 아니라, 폐의 기운도 북돋워 주고 혈액 순환도 원활하게 해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졸음까지 쫓아 주니, 피로해지기 쉬운 여름에 더없이 좋습니다.

오미자차는 오미자를 가루 내어 물에 타거나, 말려 두었던 오미자에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은근히 달인 뒤, 꿀이나 설탕을 타서 만듭니다. 또, 늦가을에 생오미자와 설탕을 일대일의 비율로 섞어 원액을 만들어 두었다가, 여름철에 원액 한 스푼을 냉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너무 지쳤을 때는 ‘생맥산’ 음료도 좋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맥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맥산은 ‘맥이 살아난다’, 즉 맥이 빠졌을 때 먹으면 맥에 생기를 북돋워 준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생맥산 음료는 인삼, 오미자, 맥문동을 달여서 만듭니다. 물 2L에 인삼 10g, 오미자 10g, 맥문동 20g을 넣고 물이 절반 정도로 줄 때까지 약한 불로 달이면 되니까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이 몸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테니, 자기 체질에 맞게 마셔야 합니다.

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학생은 여름에 마시면 좋은 한방차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하며 오미자차를 소개하고 있다. 오미자차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①), 그리고 어떻게 오미자차

를 만들고(②) 어떻게 마시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생맥산’ 음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생맥산’이란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④), 생맥산 음료를 어떻게 만들며(⑤) 달여 마실 때의 유의점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오미자차를 마실 때의 유의점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정답] ③

2. 이번에는 요트에 대한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요트에는 그림 (가)처럼, ‘메인세일’, ‘제네이커’, ‘지브세일’, 이렇게 3개의 돛이 달려 있습니다. 요트가 항해 중일 때는 이 중 2개의 돛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배 가운데 있는 ‘메인세일’은 늘 펼쳐 놓고, 순풍이 불면 ‘제네이커’, 역풍이 불면 ‘지브세일’을 펼쳐서 바람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 거죠. 항상 펼쳐 놓는 ‘메인세일’은 순풍을 ‘제네이커’로 보내는 역할을 하거나, 역풍의 흐름을 원활히 해 줍니다.

자, 이제 그림 (나)와 (다)를 봅시다. 먼저, 그림 (나)처럼 요트의 뒤쪽에서 순풍이 불면, ‘제네이커’를 펼칩니다. 그러면 ‘제네이커’를 때리는 바람의 힘으로 요트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역풍이 불 때, 요트는 어떻게 전진할까요? 그림 (다)처럼 비스듬히 불어오는 역풍을 만나면 ‘지브세일’을 펼쳐 바람의 방향에 평행이 되도록 맞춥니다. 그러면 ‘지브세일’의 뒷면으로 들어온 바람이 ‘지브세일’을 앞쪽으로 부풀게 합니다. 돛이 앞쪽으로 볼록해지면 앞쪽으로 지나가는 바람의 속도가 빨라져 돛 앞쪽의 기압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앞으로 볼록해진 돛의 뒤쪽은 바람이 지나가는 속도가 앞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려 기압이 높아지는 거죠. 이때 돛의 앞뒤 기압차에 의해 기압이 높은 뒤쪽에서 기압이 낮은 앞쪽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 힘에 의해 요트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단, 바람이 앞쪽 측면이 아니라 정면에서 불어오면, 요트는 방향을 좌우로 바꾸며 지그재그 형태로 항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역풍이 불어도 요트가 전진하는 원리는 비행기가 떠오르는 원리와의도 같습니다. 비행기의 날개는 윗면이 아랫면보다 넓은 유선형 모양인데, 날개 위아래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 차이에 의해 생기는 기압차를 이용하여 비행기를 뜨게 하는 것입니다.

2.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일반적으로 요트는 ‘메인세일’, ‘제네이커’, ‘지브세일’ 등 3개의 돛이 있으며 이 중 2개의 돛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다. 항해 중 ‘메인세일’은 바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늘 펼쳐져 있으며 순풍이 불면 ‘제네이커’, 역풍이 불면 ‘지브세일’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다. 특히 역풍이 불면 ‘지브세일’ 돛의 앞쪽이 볼록해지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는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압이 낮아지는데, 돛의 뒤쪽은 바람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면서 기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발생하는 기압차에 의해 요트는 앞으로 나아간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⑤ 대본의 마지막 부분에서 역풍이 불어도 요트가 전진하는 원리가 비행기가 떠오르는 원리와 유사하다고 했다.

3.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 : 선생님. 제가 다음 주 수업에서 발표를 해야 하잖아요? 내용 준비는 웬만큼 했는데, 발표하려니 걱정이 돼요.

선생님 : 내용이 준비되었는데 뭐가 걱정이지? 그냥 준비한 것을 발표하면 되잖아.

학생 : 그게, 발표만 하려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안 나와요.

선생님 : 네가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구나. 사실 선생님도 예전에 너하고 비슷했단다. 그래서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발표할지 미리 순서를 짜 본 적이 있어.

학생 : 저도 그렇게 해 봤는데, 여전히 떨리던걸요.

선생님 : 그래서 선생님은 친한 친구들 앞에서 발표 연습도 몇 번 해 봤어.

학생 : 저도 친구들 앞에서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때뿐이었어요.

선생님 : 그래? 그럼 왜 그럴까? 혹시 발표할 내용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학생 : 자신감이요?

선생님 : 그래. 발표를 하려면 우선 내용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단다. 발표 연습도 해야겠지만, 발표할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자신감이 생길 거야. 뭐라고 할까? ‘이 내용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자신감. 내용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선생님이라도 떨릴 거야.

학생 : 발표할 내용을 잘 알면 정말 발표를 잘하게 될까요?

선생님 : 물론이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멋진 발표 기대할게.

3. 비판적 사고(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학생은 수업 발표를 앞에 두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이 발표 내용의 순서를 미리 짜 보라고 하자(③), 학생은 그래도 여전히 떨린다고 했다. 이에 선생님은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해 보라고 했는데(⑤) 학생은 이 역시 별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발표할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셨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②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발표자가 숙지한 것은

아니다.

[4~5] 이번에는 방송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이 시간에는 다문화 정책 전문가 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교수님, 먼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주시죠.

김 교수 : 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7년에는 100만 명, 2009년에는 1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밀집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도 도시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셨는데요. 외국인들이 도시에만 거주하는 것은 아닐 텐데 왜 굳이 도시 지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셨나요?

김 교수 : 그건 전체 외국인의 2/3가 도시에 거주할 뿐 아니라 국적,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한 부류의 외국인들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청취자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조사하신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 네, 첫 번째로 목련 산업 단지 주변의 목련동인데요. 이 지역은 산업 단지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터 가까운 지역에 모여 살면서 형성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 관련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목련동 지역은 주요 정책인 다문화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시 정비에 치우쳐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주 외국인과 지역 사회의 소통을 위한 정책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럼, 목련동 지역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교수 : 아, 그건 아닙니다. 시행된 정책의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장미동의 저렴한 주택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지역에 비해 물가가 싸다는 장점 때문에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된 곳입니다. 장미동 지역은 최근 다문화 센터가 문을 열어 거주 외국인과 지역 사회의 소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교수 : 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외국인 취업 알선 센터 운영,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다문화 관광 특구 지정 등을 들 수 있겠고,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문화 센터 운영, 다문화 축제 지원 사업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도시 지역에 위치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연구를 한 ‘김 교수’가 진행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산업 단지 주변의 목련동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 지역은 외국인 관련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했으며, 도시 정비를 통한 주거 환경도 개선한 곳이다. 그런데 거주 외국인과 지역 사회의 소통을 위한 정책에 소홀한 면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에 김 교수는 시급하게 ‘다문화 센터 운영’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장미동의 저렴한 주택 지역인데 이 지역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물가가 싸기에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이 다국적으로 거주하게 되었으며 최근 다문화 센터가 문을 열어 지역 사회의 소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곳이다. 그러나 이 지역도 문제점이 있다.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답] ②

5. 비판적 사고(진행자의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진행자의 역할을 묻고 있다. 진행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왜 김 교수가 도시 지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지도 물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하며 청취자의 입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있다(ㄱ). 또한 김 교수가 목련동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지역 사회의 소통을 위한 정책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하자, 진행자는 그러면 목련동 지역의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정책인지 묻으며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김 교수는 진행자의 질문에 착실하게 대답하고 있으며 화제를 의도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ㄷ). 또한 진행자는 김 교수를 소개 한 후 바로 외국인 현황에 대해 알려 달라며 본격적인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ㄹ).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연상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십자말풀이로부터 떠올린 내용에 착안하여 ‘책 읽기’에 대한 편지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㉞의 내용은 편지 글의 앞내용과 자연스럽게 연

결되고 있지만, ‘글자 수가 같은 여러 단어를 넣어 본다.’는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다. ㉔에서 말하는 ‘책 한 권에서 하루에 읽는 일정한 분량’이 ‘글자 수가 같은’의 내용에 대응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단어’가 ‘책 한 권’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으므로 ‘글자 수가 같은 여러 단어를 넣어 본다.’로부터는 (다음에 읽을 책으로) ‘분량이 유사한 여러 권의 책을 떠올려 본다.’ 정도의 내용을 떠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쉬운 단어’는 ‘이해하기 쉬운 책’에 대응되며, ② ‘풀어낸 단어’는 ‘이미 읽은 책’에, ‘연결된 단어’는 ‘관련이 있는 책’에 대응된다. ③ ‘잘 모르는 것’은 ‘책의 어려운 부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은 ‘자료를 찾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해 보는 방법’에 대응된다. ⑤ ‘십자말풀이를 다 끝내고 얻는 뿌듯함’은 ‘읽어야 할 책을 모두 읽었을 때의 성취감’에 대응된다.

7. 비판적 사고 (자료의 활용 및 개요의 수정)

정답해설 : ‘2-가’의 내용은 ‘1-가’의 ‘습지 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한 극복 방안이므로 ‘교육과 홍보로 습지 보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자료 B를 활용하여 습지 보전이 장기적으로 지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B의 자료는 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정보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습지 보전이 지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자료 C를 활용해야 도출되는 내용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다’에 대응되는 장애 요인으로 ‘습지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 농작물 피해를 언급하며 습지 보전에 반대하는 인터뷰 자료 A를 활용할 수 있다. ② ‘1-가’에 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 주는 자료 B와 습지 보전의 가치보다 현실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자료 A를 활용할 수 있다. ④ C는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습지 보전 정책을 편 자료이므로 ‘2-나’에 활용할 수 있다. ⑤ ‘2-다’는 ‘갈등의 조정 및 해소 노력’이므로 갈등을 보여 주고 있는 자료 A와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의 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 C를 활용할 수 있다.

8. 비판적 사고(글 쓰기 계획의 보완 및 수정)

정답해설 : ‘중고 물품 교환 활성화’가 주제이므로 계획서는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㉔에서는 ‘매체 활용’에서 ‘취미 활동과 관련된 홈페이지 소개 및 주소 연결’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취미 활동’으로 주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자료 수집’에 ‘중고 물품 교환 사이트 목록’을 블로그에 추가하면 네티즌은 그 정보를 자료 수집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내용 선정’에 ‘중고 물품 재활용 실태와 문제점’을 추가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의견이다. ③ ‘중고 물품 교환을 위한 일일 시장 개설

제안'은 '중고 물품 교환 활성화' 방안의 하나이다. ④ 글의 내용을 조직함에 있어 '동참 제안'을 추가하는 것은 '중고 물품 교환 활성화'란 주제를 강조하기에 적절하다.

9.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비유법과 생략법의 활용'이라는 표현상의 조건과 '친구들과의 추억을 내용으로 담기'란 내용상의 조건을 충족시켜 졸업 앨범에 '친구들에게 남길 말'을 써야 한다. ⑤에서는 '나'를 '마른 장작'으로, '졸업'을 '흩어지는 구름'으로 비유하였고, 마지막 문장에서 '바란다' 정도의 서술어를 생략한 채 '아니길'로 끝내고 있다. 또한 '너희들과 함께 뛰놀던 운동장'이란 내용 조건도 충족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④는 <보기>의 조건 중 한 두 가지가 빠져 있다. ① '순대, 떡볶이를 함께 먹던 추억'이 내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얼굴'을 '보름달'로 비유하고 있다. ② '나'를 '농구대'로 비유하고 있다. ③ 2행에서 '~만들었으면'으로 끝을 내고 있다. 이는 생략법을 활용한 것이다. '나'를 '고구마'로 비유하기도 했다. ④ 2행의 끝에서 '잊지 말자'의 서술어를 생략했으며, 3행에서 '바란다'의 서술어 또한 생략했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마지막 문장에서 ㉠은 '~을 조사했더니, ~하였다.'가 와야 호응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탐구 계획도 정해 놓았습니다.'로 끝나고 있기에 ㉠은 '조사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조사하였고'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제목이 '신청 동기와 사전 준비 정도'이다. 그러므로 ㉠과 같이 자신을 선발해 주시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② 문단은 하나의 화제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은 잉카 문명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언급하였고, 이는 다음 문단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기에 둘째 문단으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매력은 '이상하게 사람의 눈이나 마음을 호리어 끄는 힘'이며,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홀림'이므로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정해야 한다. ④ ㉠이 속한 문장 전체의 주어는 '저는'으로 생략되었다. 그러므로 '저는~소망입니다.'는 호응이 부자연스럽기에 '저는~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로 수정해야 한다.

11. 어휘·어법 (어휘 사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의 문장에서 '불릴'은 배가 고픈 아이들의 배를 채우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부르다2)의 사동형이 적절하게 사용된 예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서 '불렀다'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불이다.'

(부르다1의 ㉔)의 피동형이다. ㉔ ㉕에서 ‘불려’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부르다1의 ㉓)의 피동형이다. ㉖ ㉗에서 ‘불리는’은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부르다2)의 사동형이다. ㉘ ㉙에서 ‘불려야’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부르다1)의 사동형이다.

12. 어휘·어법 (정보 출처 표현의 용법 파악)

정답해설 : 어미 ‘-을래’에는 정보의 출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정보가 담겨 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㉓ 어미 ‘-대’에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음’의 정보임을 알 수 있다. ㉕ 어미 ‘-네’에서 화자가 ‘직접 경험’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㉖ 어미 ‘-을걸’에서 ‘추측’하고 있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㉘ 어미 ‘-겠-’에서 ‘추측’하고 있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13-14] 인문, ‘추론의 여러 유형과 개념’

지문해설 : 이미 제시된 명제를 전제로 다른 새로운 명제를 도출하는 사고 과정인 추론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타당한 추론’, ‘개연성이 높은 추론’, ‘건전한 추론’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타당한 추론’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추론이며, ‘개연성이 높은 추론’은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 추론이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은 추론이다. 그리고 ‘건전한 추론’은 추론이 타당하면서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 한 추론이다. 논리학에서는 건전하지 않은 추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데, 이는 논리학이 전제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주제] 전제와 결론의 참·거짓 여부로 살펴본 추론의 유형과 개념

13. 사실적 사고(중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추론을 ‘타당한 추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타당한 추론으로 전제가 실제로 참이기까지 한 것은 ‘건전한 추론’이다. 반면에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나 참일 가능성도 높은 추론도 있는데, 이는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다. [정답] ㉓

14.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남자는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크다.’를 전제로 삼아 ‘농구 선수들은 다들 키가 엄청나게 크다.’ 따라서 ‘농구 선수들은 틀림없이 우유를 많이 마셨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추론에 대해 여자는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면서 남자가 한 추론의 결론이 거짓

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건전한 추론’은 결론이 참이어서 타당한 추론 이면서 전제도 실제로 참인 추론이다. 따라서 남자의 추론은 결론이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추론’이 아니며 그에 따라 ‘건전한 추론’도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개연성이 높은 추론’은 추론이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이다. 남자의 추론은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론의 개연성이 낮다. ③ 여자는 남자에게 ‘너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우유를 많이 마셔서 키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결론이 참일 가능성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④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남자 추론의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결론이 거짓인 추론은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⑤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의 추론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15-18] 과학, ‘사막의 형성 요인’

지문해설 : 사막은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은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에 있는 것으로 크게 나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으로 나누어 사막의 형성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저위도의 사막은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되며, 중위도의 사막은 지형적 특성과 지리적 위치라는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지형적 특성으로 형성된 대표적 사막은 미국의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이며, 지형적 특성 외에 지리적 위치가 요인으로 작용해 형성된 사막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그런데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은 지각 변동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호주 대륙의 사막들과 유사한 점이다. 호주 대륙의 사막들은 호주 대륙이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되었다.

[주제]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의 사막의 형성 요인과 특징

15.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 해설 : 1문단을 보면 사막이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④에서는 지구상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사막이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다고 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지각 변동으로 형성된 사막의 예로 타클라마칸 사막을 들고 있다. ② 타클라마칸 사막은 해양과 차단되어 있으며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은 온대 사막으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③ 시에라네바다 산맥은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의 형성 요인이다. ⑤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지형적 특성 외에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도 형성되었다.

16. 추론적 사고(정보 이해의 적절성 평가)

정답 해설 : [A]를 보면, 가설은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 측정 결과를 통해 지지되었다. 여기서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은 <보기>의 ㄴ의 ‘기존 이론’에 해당하며,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과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 측정 결과’는 ㄱ의 ‘추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③

17.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 해설 : 호주 대륙의 사막들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후에 사막이 형성되었으므로 호주 대륙의 사막들이 저위도의 사막의 형성 요인인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18. 어휘·어법(사전적 의미의 파악)

정답 해설 : ㉔의 ‘서식’은 ‘동물이 깃들여 삶’을 의미한다. 그런데 ㉔에서는 ‘길러서 번식하게 함’이라고 그 의미를 풀어 놓았다. 이는 ‘양식(養殖)’에 해당하는 의미이다. [정답] ④

[19-22] 현대시

(가) 김춘수, ‘강우(降雨)’

작품해설 :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허전함과 슬픔을 그린 작품이다.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화자는 일상에서 아내를 찾는다. 그러나 아내는 그의 곁에 없으므로 그의 행위는 공허하기 짝이 없다. 아내가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화자는 풀이 죽는다. 그리고 그의 어두운 마음처럼 비가 내린다.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날 법한 장면을 통해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주제] 아내를 잃은 슬픔과 절망감

(나) 김종길, ‘성탄제’

작품해설 :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작품이다. 6연까지가 회상이고 나머지가 현재이다. 찾아들던 어린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눈 속에서 약을 구해 돌아온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시공을 뛰어넘어 서른 살이 다 된 화자의 이마에 느껴진다. 화자가 살아가는 현실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던 예전의 그 공간이 아니라 삭막한 도시이다. 그래서 화자는 더욱 더 붉은 산수유 열매 같은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주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다) 이성복, '서해(西海)'

작품해설 :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다. 간절히 그리워하면서도 그 그리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가보지 않고 당신 계실 자리를 남겨 둔다고 배려해 줌으로써 애뜻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화자는 당신이 있을 곳을 늘 마음 한쪽에 지니고 있다고 하여 그리움의 정서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주제] 그리운 이에 대한 배려와 안타까운 그리움

19.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넙치지지미 땀뻘한 냄새', 메아리로 돌아오는 화자 자신의 '목소리', 어둠 속에 내리는 '비' 등의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이용하여 '이 사람'(아내)의 부재라는 화자의 현실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로 서러움과 그리움을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파도의 움직임이라는 역동적인 감각으로 나타나 있다. [정답] ④

20. 비판적 사고(작품 간의 특징 비교)

정답해설 : (가)에 부재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잘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나)에도 어렸을 때 자신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아내가 없는 집에서 빈자리를 느끼며 허전한 마음을 독백조의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는 '눈'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가)에는 아내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현재의 장면만 제시되어 있지만, (나)에는 어린 시절 아팠던 때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⑤ (가)에서는 '비', (나)에서는 '붉은 산수유 열매'를 통해 시상이 집약되어 나타나 있다.

21. 추론적 사고(시구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화자는 아내가 곁에 있던 때 그랬던 것처럼 '옆구리 담피가 도졌나'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밥상은 사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다. 아내는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자의 마음 상태가 평온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할 아내가 없기에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고 한 것이

다. ④ ㉔은 아내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서 느끼는 허전함과 쓸쓸함을 의미한다. ⑤ ㉕에는 지금은 아내를 만날 수도 없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체념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2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이 바다를 가리킨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는 ‘당신’에게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시구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지만 그를 배려하여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애쓰는 마음을 나타낸 시구이다. **[정답] ④**

[23-27] 예술,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통찰’

지문해설 : 이 글은 회화적 재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미술사의 흐름과 철학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있다. 먼저 미술사의 흐름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로부터 사실성을 강조한 인상주의자들, 그리고 본질이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던 세잔, 그리고 이를 계승한 입체주의까지 실재의 재현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비교 대조하며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철학적 차원에서 고흐와 칸딘스키의 이론에 주목하여 회화적 재현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피카소가 던진 한 마디에 회화적 본성에 대한 통찰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주제] 미술사와 철학적 차원에서의 회화적 재현에 대한 고찰

23. 추론적 사고(인물의 의도 파악)

정답해설 :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화는 그녀의 모습을 닮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초상화가 앞으로 그녀를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피카소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피카소가 회화적 재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4문단에서 입체주의는 존재,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했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4문단에서 스타인의 초상화가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하고 있다. 즉 어느 한순간의 외양이 아니라 본질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식이 스타인의 초상화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④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 했던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다.

24. 추론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을 보면, 세잔은 본질이나 실재를 담아내기 위해 대상을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렸으며 윤곽선을 그리고,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상주의자들은 사실성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며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서 (가)에 원근법이 사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윤곽선이 뚜렷한 그림은 (나)의 세잔의 그림이다. ②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은 (가)이다. ④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의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이다. (다)의 피카소는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냈다. ⑤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 그림을 목표로 한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며, 사실성을 의식적으로 추구한 인상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25. 비판적 사고(관점의 적용 및 평가)

정답해설 : 고프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가지는 핵심은 ‘순수한 눈’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도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지각은 관습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상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사실성을 추구했으며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또한 이들은 빛에 의해 같은 사물이라도 시시각각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고프리치와 굿맨은 인상주의자들이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그리려 노력해도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고프리치와 굿맨은 ‘순수한 눈’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고프리치와 굿맨은 객관적인 사실성을 부정한다. ④ 고프리치와 굿맨은 ‘숨어 있는 실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⑤ 고프리치와 굿맨에 따르면, 사실적인 그림이란 익숙한 그림이며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26. 비판적 사고(근거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은 고프리치와 굿맨의 이론을 일컫는다. 이 두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지각은 관습과 문화, 배경 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작품의 지각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사전 지식이 나무를 그린 소묘 속 불분명한 연필 자국을 나무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소 떼 그림에 있는 연필 자국을 소로 보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⑤가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배경 지식의 영향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관습과 문화의 차이를 강조하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고프리치와 굿맨이 말한 사실적인 그림이란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것이라 했다. ④ 선천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27. 어휘·어법(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얻다’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언어 내거나 얻어 가짐’의 의미를 가진 ‘획득(獲得)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습득(習得)’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체득(體得)’은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됨. 또는 뜻을 깊이 이해하여 실천으로써 본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취득(取得)’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의 의미를 ④ ‘터득(摠得)’은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8-31] 현대소설 - 임철우, ‘눈이 오면’

작품해설 : 이 소설은 탐색형의 구조를 띠고 있다. 고향을 떠나 둘째 아들 가족과 서울에서 살게 된 어머니는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다 이상 행동을 하며 치매 증세를 보이게 된다. 어머니는 남편의 산소가 있고, 큰아들이 있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자고 둘째 아들을 조른다. 결국 서술자인 둘째 아들(그)과 함께 고향 마을을 찾아가나, 고향은 물론 남편의 무덤조차 사라지고 만 그 자리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이 작품은 병약한 노인을 통해 산업화 시대 현대인의 고향 상실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주제] 산업화 시대에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28. 추론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작품은 서술자인 ‘그(찬우)’의 시각에서 어머니의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갑자기 고향인 꼬두메를 찾게 된 배경과, 고향에 내려가면서 되돌아보는 자신의 삶, 그리고 꼬두메에서 사라진 어머니를 찾으며 꼬두메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모두를 ‘그’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그’는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서술자는 과거 자신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③ 과거를 되돌아보는 서술자의 내면은 결코 답답하지가 않으며 객관적이지도 않다. 마지막 장면에서 꼬두메의 의미를 생각하는 장면 또한 그렇다. ④ 보여주기 기법보다는 말하기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인물 간 대결 의식은 보이지 않으며 ‘그’의 내면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29.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이 작품은 여로(旅路) 구조를 택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인물의 성격 창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서술자인 ‘그’는 고향에 내려가는 기차에서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오늘 사표 쓴 일을 떠올리고, 과거 실업자 신세로 지내며 끊임없이 무너질 때마다 그를 붙잡아 준 것은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그런 어머니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며 절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로는 ‘그’를 성찰하게 하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고향길이 충동적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성격이 즉흥적이며 낙천적인 것은 아니다. ② 고향을 찾아가지 않은 삶이 현실과 타협한 삶도 아니거니와, 그는 두 번의 실업자 신세를 맞이하고 있고, 5년 동안의 공백기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④ 고향에 도착하여 어머니가 사라진 이유는 ‘그’가 사려 깊지 못하고 부주의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사라진 고향 꼬두메를 찾고자 하는 어머니의 열망이 어머니로 하여금 사라지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사표를 제출한 행동이 ‘그’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으며, 오히려 절망적인 심정에 쌓여 있다. 실직도 실직이러니와 과거에는 이와 같이 무너질 때마다 자신을 잡아주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 또한 제정신이 아니기에 기댈 곳조차 없기 때문이다.

30. 추론적 사고(공간적 배경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꼬두메는 서술자의 고향이며 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현재는 망각의 땅일 뿐이다. 어머니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꼬두메를 찾아 눈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서술자는 과거 그곳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가난한 식구들’이란 표현을 썼다. 여기에서 꼬두메에서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④

31. 어휘·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의 햇별은 음지 식물로 비유된 서술자를 삼시간에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이기에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시련’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②

[32-35] 사회,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

지문해설 : 이 글은 광고에서 유명인 모델이 중복 출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근거를 들어 바람직한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먼저 모델은 상품의 특성에 맞는 인물이어야 광고 효과가 난다고 했다. 유명인의 중복 출현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맞는 한 상품의 광고에 지속적으로 나올 때라고 한정한다. 그렇기에 광고를 함에 있어 모델을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제]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와 바람직한 광고 모델 선정의 필요성

32. 비판적 사고(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출발점은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는 어떻든지 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가며 유명인이 광고에 중복 출현하면 광고 효과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 ⑤

33.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모델 A는 전문성과 신뢰성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기에 이 모델은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 카메라, 공기 청정기, 치약과 같이 성능이나 효능이 중시되는 상품의 광고에 적합하다. 반면 모델 B는 친근성과 매력성이 높기에 감성적인 느낌이 중요한 보석, 초콜릿, 여행 등의 상품 광고에 적합하다. ③과 같이 모델 B가 서로 다른 성향의 두 광고에 등장한다면, 상대적으로 치약 광고에서는 광고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전문성을 가진 모델 A가 카메라 광고에 적절함을 알 수 있고, 5문단에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명인 모델이 한 상품의 광고에 지속적으로 나와야 함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모델의 중복 출연은 이미지를 분산시켜 기대만큼의 광고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했다.

34. 비판적 사고(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의 핵심 주장은 아무리 유명한 모델이라도 여러 상품에 중복 출연을 하면 광고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하려면, 유명인이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 출연을 했는데도 광고 효과가 있었다는 반증의 사례를 들면 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매체에 따른 광고 효과의 언급은 없었다. ② 유명인의 광고 중복 출연이 문제의 쟁점이지, 광고 횟수는 쟁점이 아니다. ③ 유명인 모델의 이미지 변화가 광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역시 이 글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④ 일반인이 광고에 등장하는 내용 역시 글의 핵심 주장과 아무 연관이 없다.

35. 어휘·어법(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기다.’란 의미이다. ③ ‘어떠한 물건이 발견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④ ‘액체나 기체 따위가 밖으로 흐르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다. ⑤ ‘-속에서 바깥으로 솟아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36-38] 기술, ‘엔진의 운행 상태에 따른 자동차의 연비’

지문해설 : 자동차의 연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엔진의 동력에 대해 설명하고,

자동차의 연비가 달라지는 엔진의 조건들을 살펴보고 있는 글이다. 엔진의 동력이 흡기, 압력, 폭발, 배기의 4행정을 거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연료의 혼합비에 따라 엔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대조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주제]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엔진 조건

36.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엔진의 동력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엔진의 동력은 폭발 행정에서 생긴다고 했다. 즉, 피스톤이 상사점에 이를 즈음에 혼합 기체가 폭발하면서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외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밀리면서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높은 이유는 밸브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가스가 배출되는 단계는 배기 행정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흡기(상사점→하사점), 압축(하사점→상사점), 폭발(상사점→하사점), 배기(하사점→상사점)이므로 4행정이 완료되면 피스톤은 실린더를 2회 왕복한 셈이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이론과 달리 실제 환경에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려면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혼합비를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④ 혼합 기체의 흡입은 실린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배기 가스의 배출은 실린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 ⑤ 4문단의 2행에서 엔진의 회전수는 적정 혼합비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37. 추론적 사고(그림 자료에의 적용)

정답해설 : 그래프는 엔진이 작동할 때의 실린더 내부 압력과 피스톤의 위치 및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라 했다. ㉠은 압축 행정이며 여기에서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이동해야 하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와 ㉢이다. 그런데 압축 행정은 공기와 연료의 혼합 기체가 압축되는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실린더 내부의 압력은 점차 증가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에서 폭발을 하며 이는 ㉣에까지 이어진다. 왜냐하면 폭발 행정에서는 폭발 이후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밀리며 동력을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후의 ㉣는 바로 배기 행정이다. 그리고 다시 공기를 흡입하는 흡기 행정이 바로 ㉤이다.

38. 추론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해발 고도 5,000미터의 고원 지역에서는 대기압과 공기의 밀도가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했다. 즉, 엔진의 실린더 외부 기압이 낮아진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는 해수면 인접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이 최고가 되도록 고정되어 있다. 이 자동차를 고원 지역에서 운행하면 여러 가지 현

상이 벌어진다고 했다. 흡기 행정에서 외부 기압이 낮기에 공기의 흡입량이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도 연료는 정상적으로 분사될 것이기에 혼합 기체의 비율에서는 연료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3문단의 끝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소가 부족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증가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적정 혼합비를 벗어나기에 에너지 효율이 낮아진다. ③ 배기 행정에서 외부 기압이 낮기에 오히려 배기가스의 배출 속도는 빨라진다. ④ 배기가스에서 잔류 산소가 검출되는 경우는 혼합 기체에 연료의 비율이 낮아서 공기가 과잉일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 기압이 해수면 인접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다. ⑤ 에너지 출력이 가장 큰 경우는 연료의 혼합비가 적절할 때이다.

[39-43] 시가 복합(고전시가 + 고전수필)

(가) 작자 미상, ‘두더비 파리를 물고~’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두꺼비, 백송골, 파리 등을 의인화하여 당대 현실을 익살스럽게 풍자하고 있다. 관찰자 시점을 취하여 특권층인 두꺼비가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자신보다 힘 있는 존재 앞에서 비굴해지는 모습을 포착하여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힘 있는 자에게 굽실거리면서 힘없는 자 위에 군림하며 잇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수령이나 아전들의 행태를 비꼬고 있다.

[주제] 특권층의 허장성세(虛張聲勢) 비판

(나) 허전, ‘고공가(雇工歌)’

작품해설 :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에만 집착해 국가 일에 소홀한 관리들을 계으른 머슴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가가 현실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신하들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려 하지 않고 있음을 훈계하듯 비판함으로써 깨달음을 유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읽어 낼 수 있다.

[주제] 임진왜란 전후 백관들의 탐욕과 정치적 무능 비판

(다) 이옥, ‘어부(魚賦)’

작품해설 : 이 작품에서 작가는 물 속 물고기의 세계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즉, 한 나라의 ‘군주 - 신하 - 아전 - 백성들’의 관계를 ‘용 - 고래 등의 큰 물고기 - 메기 등의 중간 물고기 - 작은 물고기’에 비유하여 올바른 국가 경영의 도를 밝히고 있다. 작가는 이 글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 즉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징계해야 백성이 살고, 그래야 군주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올바른 국가 경영의 도

39.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파리(힘없는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자신보다 강자인 백송골(고위 관리)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터비(중간 관리)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나)는 몰락한 집안(위기에 처한 국가)을 일으킬 생각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고 있는 고공(나라의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다)는 국가의 도를 생각지 않고 작은 물고기(힘없는 백성)를 괴롭히는 큰 물고기(관리)를 비판하고 있다. 결국 세 작품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③ 세 작품 모두 풍자의 의도가 나타나 있으나 고사(故事)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는 도적들에 의해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화자의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 (다) 또한 강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혀 국가의 도를 흔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⑤ (가)는 파리를 물고 있다가 백송골을 발견하고 도망가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는 두터비의 모습에서 해학이 보인다. 그러나 (나), (다)에서는 해학적 요소를 찾을 수 없다.

40.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다)의 ‘비’는 가뭄을 해소해 주는 것이기에 군주가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 정도로 볼 수 있다. ㉠ 역시 고공들에게 그들의 기본적 삶을 위해 제공하는 음식이기에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집과 더불어 삶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다. ② ㉢은 ‘거친 울며’와 대조되는 의미를 지닌 ‘최상의 먹을 것’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은 국가의 살림살이로 의미를 확대해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⑤ ㉤은 화자가 신세 한탄을 하면서 꼬아낸 결과물이다.

41. 추론적 사고(시어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두터비 : 파리 : 백송골’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보면 ‘파리 < 두터비 < 백송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⑤에서 ‘쥐 < 솔개 < 봉황’이다. ‘솔개 : 쥐 : 봉황’의 배열 관계를 보면 (가)와 일치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닭’과 ‘개’는 화자가 기르고 있는 동물로 각자 자기 역할을 하기에 동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② ‘까마귀’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상이며, ‘백로’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상이다. ‘너’는 바로 ‘백로’를 지칭하고 있다. ③ ‘나비’와 ‘범나비’는 동등한 관계로 화자는 이들과 함께 지향하는 곳인 ‘청산’에 가고자 한다. ‘꽃’은 ‘청산’에 가는 중간에 설 수 있는 중간 기착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화자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는 ‘봉황’인데, 실제로 얻은 결과는 바로 ‘오작’이다. 이는 불만족스러운 결과이다. 그렇기에 ‘동자’에게 명을 내리고 있다.

4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를 통해 (나)의 노래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란 후의 국가 정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화자가 고공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나라 재건에 소홀한 관료 사회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나’는 ‘고공’이 사리사욕에 빠져 있는 행동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화자는 ‘고공’이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나라를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의 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관료 사회의 불신을 이끌어 낸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4행에 나타난 ‘고공’들의 행동은 조정의 불화를 표현한 것이다.
③ ‘옛그제 왔던 도적 ~ 옷 밤만 다투느냐’에서 엿볼 수 있다.

43. 비판적 사고(작품 이해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다)의 논지를 긍정하는 신하라면 바로 글쓴이의 입장을 지지하는 신하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글쓴이의 생각과 다른 것을 찾으려는 단순한 문제이다. 글쓴이는 국가의 도를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이들을 해치는 못된 관리들을 물리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백성이 살고, 그들이 살아야 군주 노릇을 하며, 그래야 국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⑤**

[44-46] 언어, ‘한글 창제 후 문자 생활사에서 나타난 변화’

지문해설 :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면서, 예상 독자에 따라 표기 방식을 달리한 책들이 간행되었던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각 표기 방식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한글 창제 후 독자를 고려한 다양한 표기 방식

4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용비어천가’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고 했다. 또한 3문단의 전반부에서 이 책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하였기에 한자를 음의 노출 없이 원문으로만 표기하였다고 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용비어천가’가 한자를 그대로 노출하였지만 ‘월인천강지곡’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로 인해 새로 생겨난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③ 3문단에서 ‘석보상절’은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기하는 표기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한

자를 아는 사람과 한자를 잘 모르고 한글만 아는 사람 모두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자가 앞에 있다는 것은 주된 독자층을 한자를 아는 사람으로 상정하였다는 것이다. ④ 4문단에서 ‘두시언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한자를 원문으로만 노출시킨 것은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⑤ 마지막 문장에서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에 한글로만 표기하였다고 했다.

45. 추론적 사고(원리 적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 한글과 같지만, 이를 문자로 운용할 때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결국 한글의 발음대로 알파벳을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파벳을 한글로 읽은 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을 단어 그대로 표기한 ‘런던(London)’이 ㉠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한글과 알파벳을 병행하지 않았다. ③ 한글과 알파벳의 병행을 하였고, <보기>의 표기 조건도 갖추었으나 알파벳이 앞에 있기에 잘못된 것이다. ④, ⑤ 알파벳을 한글과 같이 음절 단위로 끊어 적고 있다. <보기>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46. 추론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던 동국정운식 표기 방식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기>의 주장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영어의 ‘file’을 외래어 표기법에서 ‘파일’로 적도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퐁’을 만들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 내용을 따르면, ‘퐁’표기는 국어에 없는 음이다. 여기서 <보기>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면 외국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호들을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표기하는 것이 국어의 문자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표기에 적응해야 하고 우리말에 없는 새로운 음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⑤ 새로운 음으로 영어를 표기하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듣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음은 아무래도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47-50] 고전소설 - 작자 미상, '낙성비룡'

작품해설 : 어려서 부모가 죽고 고아로 자란 주인공 이경모가 구원자를 만나고 다시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여 승리자가 되는 과란만장한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줄거리나 주제, 표현 형식에 있어 다른 영웅 소설과 비교할 때 독창적인 점은 없지만, 섬세한 인물 성격 묘사와 순 우리말 표현이 특징적이다. 특히 주인공이 '잠꾸러기'에다 '떡보'로 나타난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는 '소대성전'과 일치하는 부분이며 주인공의 능력은 하늘이 내려준 천부적 재능이라기보다는 인물의 뛰어난 성품과 스스로의 학업에의 정진 등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 떡보에 잠꾸러기인 이경모의 고난 극복과 승리

47.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장면은 태수인 설인수와 원수인 경작(경모)이 만나 회포를 푸는 장면이다. 계급으로는 태수가 원수를 모시는 형편이지만, 그들은 계급 이전에 동서지간이다. 둘 사이에 이러한 인연이 밝혀지면서 극존칭을 쓰던 설인수의 말이 편해지고 둘은 사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의 안부와 처의 안부를 물으며 흉도 보고, 위협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인물들이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원수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암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④ 주로 대화를 통해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들이 조롱하듯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일부 있으나 이는 갈등이 아니라 둘이 허물없는 사이임을 보여준다.

48. 사실적 사고(서사 구조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장면에서 설 태수는 돌아와서 부인에게 이원수의 일을 전한 후 돌아간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에 감복했다고 했다. 이로 보아 장인은 이원수가 크게 될 인물임을 알아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반부에서 태수는 원수에게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라 했고, 이에 대해 원수는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라 했다. 이로 보아 이원수가 한때 잠을 많이 잤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설 태수와 이원수의 대화를 통해 이원수는 부인을 두고 집을 나온 지 11년이 되었다고 했을 뿐,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원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소 먹이던 목동이었다가 원수가 되었는지의 과정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49. 사실적 사고(말하기에 나타난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설 태수는 원수가 약한 부인을 버리고 집을 나간 후 11년 동안 편지 한 번 없이 보낸 행동에 대해 어둡고 무심하다며 질타를 하고 있다. 그러

므로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수의 넓은 덕을 추앙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일 뿐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⑤ 나는 비록 벼슬은 낮지만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④ 약한 처제를 홀로 남겨두고 소식조차 없었던 원수의 행동을 탓하고 있는 말에서 알 수 있다.

50. 어휘·어법(한자성어에의 적용)

정답해설 : ‘환골탈태(換骨奪胎)’란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거나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을 이른다. 원수는 11년 전 소 먹이던 목동이었으나, 현재는 한 나라의 원수가 되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이다. 경모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수도로 가는 길에 부모 묘소가 있는 고향에 들르겠다고 했다. ②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같은 장소나 처지에 함께 놓임. 또는 서로 반목하면서도 공통의 곤란 이해에 대하여 협력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③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⑤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을 이른다.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해설

| | | | | |
|-------|-------|-------|-------|-------|
| 1. ③ | 2. ④ | 3. ④ | 4. ① | 5. ⑤ |
| 6. ② | 7. ④ | 8. ① | 9. ⑤ | 10. ③ |
| 11. ③ | 12. ⑤ | 13. ① | 14. ④ | 15. ④ |
| 16. ⑤ | 17. ② | 18. ③ | 19. ② | 20. ① |
| 21. ④ | 22. ④ | 23. ④ | 24. ① | 25. ② |
| 26. ② | 27. ① | 28. ② | 29. ② | 30. ③ |
| 31. ① | 32. ④ | 33. ① | 34. ② | 35. ⑤ |
| 36. ⑤ | 37. ③ | 38. ⑤ | 39. ③ | 40. ③ |
| 41. ③ | 42. ④ | 43. ② | 44. ② | 45. ③ |
| 46. ⑤ | 47. ⑤ | 48. ① | 49. ⑤ | 50. ③ |

1.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꽃놀이를 하려면 발사에 필요한 장비와 꽃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꽃불’이란 말이 좀 낯설죠? 불꽃놀이를 위해서 총이나 포로 공중에 쏘아 올리는 물체가 바로 꽃불입니다. 꽃불은 껍을 감싸고 있는 ‘옥피’, 불을 붙이는 ‘도화선’, 꽃불을 터뜨리기 위한 ‘할화약’, 빛을 내는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중에서 꽃불이 개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꽃불의 크기와 도화선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불꽃놀이를 볼 때 아름답게 변하던 불꽃의 색깔, 기억하시나요? 불꽃의 색깔은 별 안에 어떤 금속 성분을, 어떤 층에 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속 성분을 층별로 다르게 나눠 넣은 별이 표면에서 내부로 연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불꽃의 색깔을 다양하게 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성분에는 알루미늄, 나트륨, 칼슘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금속 성분에 여러 첨가물을 넣어 다양한 효과를 연출합니다. 대표적으로 음향, 섬광, 점멸, 비행 효과 등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발표 내용 중에 ‘불꽃의 색깔’은 별 안에 어떤 금속 성분을, 어떤 층에 넣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별을 배치하는 순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별 안에 어떤 금속 성분을 넣는 순서를 언급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부분에서 ‘꽃불’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② 공중에서 꽃불이 개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꽃불의 크기’와 ‘도화선의 길이’에 따라 다르다는 발표 내용이 있다. ④ 발표 내용 중간 이후 부분에, ‘불꽃의 색깔’은 별 안에 어떤 금속 성분을, 어떤 층에 넣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 금속 성분을 층별로 다르게 나눠 넣은 별이 표면에서 내부로 연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난다는 내용,

불꽃의 색깔을 다양하게 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성분에는 알루미늄, 나트륨, 칼슘 등이 있다는 내용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⑤ 발표 내용 중 마지막 두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편집반: 안녕하세요? 교지 편집반 2학년 진달래입니다. 선배님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을 인터뷰해서 '우리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라는 주제로 교지에 글을 실으려 합니다. 먼저 김 선배님부터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김 선배: 다양한 분야를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면 좋겠고, 졸업 후 자신이 진출하려는 분야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면 정말 좋겠네요.

편집반: 박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선배: 대학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즐겁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인 감화를 받고, 선후배, 동기들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행사가 많으면 좋겠어요.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이나 진로를 고려해 현장 실습 경험을 쌓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편집반: 이 선배님은요?

이 선배: 자부심을 갖게 해 줄 대학이면 좋겠어요. 건물이나 시설은 조금 낡아도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학교에 다닌다면 더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들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성공한 여러 분야의 선배들과 만나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도 잘 해 주면 좋겠어요.

2.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가고 싶은 대학'에 관한 세 학생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김 선배) • 다양한 분야를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대학
- 장학금 혜택이 많은 대학
 - 졸업 후 진출하려는 분야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 주는 대학
- (박 선배) •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대학
- 교수님들로부터 인격적 감화를 받을 수 있고 선후배나 동기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행사가 많은 대학
 - 취업이나 진로를 고려해 현장 실습을 쌓도록 해 주는 대학
- (이 선배) •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대학,
- 미래를 위한 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학
 - 경제적인 지원을 잘 해 주는 대학

이상의 내용 중에 밑줄 친 부분을 종합해 보면, 세 학생은 공통적으로 ‘진로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 주는 대학’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3. 다음은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화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대화 방법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모든 상황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활용하면 원만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 이런 예측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죠. 습관적으로 늦잠을 자는 아이에게 비난을 쏟아부리는 것 대신에, “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학교에 지각하잖아. 그럼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겠지?”라고 논리적으로 말해 주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나 전달법’입니다. 이건 ‘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못마땅한 행동을 한 상대를 무턱대고 비난하기보다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현재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나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가 방을 어지럽혔을 때 “넌 왜 이렇게 정리도 제대로 못 하니?”라고 말하는 대신에 “네가 방을 어지럽히니까 엄마는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해서 속상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화 상황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동아리 발표 준비를 위해 휴일 아침 학교에서 모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남학생 : (가쁜 숨) 안녕, 애들아?
여학생 : 야, 지금 몇 시냐? 지각한 게 벌써 세 번째야.
남학생 : 너무 그러지 마. 버스를 타려는데 버스가 바로 내 앞에서 떠났어. 그래서 다음 버스를 타고, 내리자마자 막 뛰어왔단 말이야.
여학생 : _____

자, 이 상황에서 여학생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강연 내용 중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대화를 완성’해보라는 강사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강사가 말하는 두 가지 방법이란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와 ‘나 전달법’이다. 전자는 ‘예측되는 결과’, 즉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겪게 될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의 행동으로 화자 자신이 입게 될 피해와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 상태 등을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방법이다. ④의 ‘이렇게 자꾸 지각하면 친구들한테 비난을 들어 너도 기분 상할 거야.’라는 내용은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에 해당하고, ‘나도 바쁜데, 네가 늦으니까 연습도 못하고 기다려야 해서 좀 화가 나.’라는 내용은 ‘나 전달법’에 해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뒤 문장에 ‘나 전달법’에 가까운 내용이 있지만, ‘조금 일찍 나왔어 야지.’는 비난성 발언이므로 두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첫 문장은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에 가깝지만, 이어지는 문장 역시 비난성 발언이다. ③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⑤ 뒤 문장이 비난성 발언에 가깝다.

[4~5] 다음은 수업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오늘은 기부 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먼저,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생각해 볼까요?

여학생: 선생님, 외국의 경우, 큰돈을 번 기업인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부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를 볼 때, 우리나라에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사회 지도층이 적극적으로 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학생: 글썽요. 사회 지도층이 기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걸까요? 저는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며 다른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원인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데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부를 기업과 같은 단체나 사회 지도층이 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반 대중의 개인적인 기부가 적어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는 전체 기부액에서 개인의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낮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학생: 정부에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 지도층의 기부가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런 기부 사례를 적극 홍보해서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남학생: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금 모금 단체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부금 모금 단체를 정부에서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기부 형태 중에서 비정기적인 기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정기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잘 알죠?

여학생: 저희같이 돈을 벌지 않는 청소년들은 기부를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기부는 돈뿐만 아니라 지식, 재능 등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겠죠?

4. 사실적 사고(중심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여학생의 발언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발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언급하고, 두 번째 발언에서는 사회 지도층의 기

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세제 혜택, 기부 사례에 대한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들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③, ⑤ 남학생의 첫 번째 발언 중에 ‘기부금 모금 단체의 투명성 확보’, ‘개인의 정기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이 있다. ④ 여학생은 마지막 발언에서는 청소년들의 기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청소년의 기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남학생은 발언 과정에서 ‘여론 조사 결과’와 ‘어떤 조사’를 거론(첫 번째 발언)했고, ‘또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는 경쟁이 심해 이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②의 경우, 단순 암기 방법에서 남들과의 경쟁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목의 특성에 맞는 공부 방법에 따라 공부를 하는 것을 새로운 시장 개척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분야를 개척하는 내용이므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자료에서 연상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자료 (나)의 경우 피자를 자르는 아이가 욕심이 앞서서 많이 자르면 뒤에 고르는 아이가 큰 조각을 주울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이익을 추구하다 손해를 보는 상황을 연상할 수 있다. ④ (나)에서 피자를 자르는 아이와 고르는 아이를 분리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에서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⑤ 천적에 대한 경계를 무릅쓰고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에 관한 (다)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7. 추론적 사고(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3에서 청소년이 친구와 상담을 하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 상담하는 친구의 태도가 잘못되어 바뀌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료 4는 청소년 상담 기관의 실태에 관한 내용이므로 부모와 친구의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료 1에서 청소년의 고민 내용이 주로 공부와 진로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4에서 청소년이 상담(상담 기관)을 통해 고민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자료 2에서는 부모와 대화할 때 겪는 어려움(잘못한 것까지 다시 말씀하신다, 부모님 생각만 말씀하신다 등) ③ 자료 1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료 4에서는 일상적인 고민

에 대한 청소년 상담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자료 4를 통해 청소년 상담이 주로 ‘위기 청소년’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내용과 표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을 바라는 청소년의 마음을 드러낼 것. (2) 비유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것. (3)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 이 셋을 다 충족하는 표현은 ①이다.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관심의 우산을 씌워 주세요’이며, 조건 (2)를 충족하는 표현은 비유의 경우, ‘소나기(위기 청소년 문제)’, ‘가랑비(일상적인 고민)’, ‘우산(상담)’이며, 대조적인 표현의 경우, 소나기와 가랑비에 관하여 대조적으로 진술한 부분이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만 상담을 실시하지 말고 청소년의 일상적 고민에 대해서도 상담하자는 내용을 고려할 때, ‘소나기(위기 청소년 문제)’, ‘가랑비(일상적인 고민)’, ‘우산(상담)’ 등의 표현은 조건 (3)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미운 오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는 내용은, 제시된 자료의 내용(위기 청소년 문제가 아닌 일상적 고민에도 관심을 갖자)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조건은 충족했다. ③ 비유적인 표현은 쓰였으나 대조적인 표현이 쓰이지 않았고,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않았다. ④ ‘마음에 있는 빛을 지켜 가세요’라는 표현은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료의 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⑤ 표현의 대상이 부모님에 가까우므로 자료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9. 비판적 사고(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메모에서는 ‘학우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⑤에서는 (정부의) 문화재 정책 방안을 제시하자고 하였는데 이의 주체는 학생이 아니고, ‘훼손 문화재 복원 사업 추진’은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정답] 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고전은 왜 읽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첫째 문단에서는 ‘고전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 문답의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르자면, 세 번째 문단을 첫째 문단 앞으로 옮겨야 한다. 마지막 문단으로 옮긴다면 글의 앞부분에서 답을 하고 글의 뒷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상한 순서가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글의 제목이 ‘홍부전’인데, 이 글은 홍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부전과 같은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글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주어진 글에서 ‘고전을 읽는 이유는 ~ 의미를 준다’로 되어 있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 때문이다’로 고치

는 것이 적절하다. ④ 고전에서 인류의 문제를 제기한다고만 하였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적절한 지적이다. ⑤ 고전의 개념 규정 없이 바로 고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개념 규정이 필요하며, ‘오랜 세월을 두고 읽을 만한 좋은 책’은 고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 주는 적절한 표현이다.

11. 어휘·어법 (어휘의 의미 구별)

정답해설 : ‘찢다’는 ‘물체를 잡아당기어 가르다.’는 뜻이므로 도구를 쓰지 않을 때의 표현이며 ㉠에 해당한다. ‘빵다’는 ‘짓찢어서 가루로 만든다.’의 뜻이며, 절굿공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고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에 해당한다. ‘다지다’는 ‘고기, 채소 양념감 따위를 여러 번 칼질하여 잘게 만든다.’ 뜻이며, 칼을 사용하여 잘게 만드는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썰다’는 ‘어떤 물체에 칼이나 톱을 대고 아래로 누르면서 날을 앞뒤로 움직여서 잘라 내거나 토막이 나게 하다.’의 뜻이며, 잘게 자르지 않으므로 ㉣에 해당한다. [정답] ③

12. 어휘·어법 (표준 발음의 사례 분석)

정답해설 : 제시된 사례에서 기초적인 추론을 하는 문제이다. ㉠와 ㉡의 사례에서 겹받침 ‘ㄹㅂ’의 발음은 다음 이어지는 자음과 상관없이 각각 같게 나고 있다.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13-18] 시가복합

(가) 김소월, ‘길’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목적지를 잃고 방랑하는 나그네의 비애를 자문자답 형식의 대화체를 빌려 표현하고 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서글픈 정한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삶의 근원적 애수를 그린 것일 수도 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킨다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애를 그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제] 유랑하는 삶의 비애

(나) 백석, ‘적막강산’

작품해설 : 이 시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의 기본적인 문장을 유지하면서도 각 연에서 이 문장이 다양하게 변주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기본 문장에 다른 형태가 부연되어 시적 상황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화자의 상황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화자는 적막강산에서 홀로 절망하고 있는데, 화자의 답답함은 시대적 현실을 생각한다면 일제 강점기 하에서 느끼는 답답함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적막강산에서 느끼는 삶의 고독감

(다) 이신의, '단가 육장'

작품해설 : 유배지에서서의 고통스런 생활을 담아낸 6수의 연시조로 광해군 때 작가가 인목대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함경도 회령과 흥양으로 유배되어 5년간의 유배 생활을 할 때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자연물에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의 처지와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효제충신(孝悌忠信)의 마음

13.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떠도는 시적화자의 신세는 '까마귀'에 감정이입을 하여 표현하였고, 갈 곳 없는 화자의 처지는 '기러기'와 대조하여 표현하였다. (나)에서 제시된 공간은 '산'과 '들'이며 이곳은 온갖 새들의 소리로 들썩이고 있지만, 화자는 이와 대조되어 적막강산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다)의 <2장>에서 시적화자의 처지는 '술'에 빚대어 드러나고 있고, <4장>에서 '제비'는 화자의 시름을 보여주는 소재로 등장하였으며, <5장>에서 '명월'은 화자의 반가운 옛 벗으로, <6장>의 매화는 화자를 대변하는 존재로 등장하였다. 결국 세 작품 모두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각의 대립이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 작품에는 이러한 시각의 대립은 보이지 않고, 부정적 현실 인식이 드러난 것(부근이 그다지도 날뻐시고)도 (다)밖에 없다. ③ (나)의 산과 들에서 온갖 새들이 들썩이는 소리에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④ (다)에서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것은 아니다. ⑤ 명암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것의 대비가 나타난 것은 (가)와 (나)뿐이다.

14. 추론적 사고(시적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떠돌이 나그네의 신세이기에 어디론가 가야 하지만, 오라는 곳이 없어 갈 바를 모른다. 비록 고향이 있다고 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고향은 갈 수 없는 곳이기에 화자의 외로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화자와 달리 공중의 기러기는 가고 싶은 곳을 잘 가고 있기에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15. 추론적 사고(핵심 시어에 대한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산'과 '들'은 모두 새들의 온갖 소리로 들썩이는 공간이기에 서로 상반되기보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산'과 '들'은 오히려 '적막강산'에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야생 배추가 여물어 가는 때이기에 가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⑤ ‘산’과 ‘별’의 온갖 소리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적막강산’에 있다고 하여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다.

16. 비판적 사고(작품 간의 비교 분석)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나)의 시에는 서술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마지막 연에서 알 수 있듯이 적막강산에 있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길’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기에 소재라 할 수 있다. 반면 (나)의 ‘적막강산’은 사실 온갖 소리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정주 꼭산’은 화자의 고향이라고 했다. ‘정주 동림’은 ‘구십여 리 하룻길’이라 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실제 이 길을 경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갈린 길’은 갈림길이기에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하룻길’은 길을 가는 데 하루 정도가 소요되는 길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17. 추론적 사고(시적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귀양살이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부분을 찾아야 한다.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풀려나야 할 것이고, 풀려나기 위해서는 임금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귀양지에서 쓴 작품 속에 임금(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에서 임금의 사랑이 깊으면 다시 볼까 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충제충신을 강조하기에 충의 마음은 엿볼 수 있지만, 임과의 만남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다. ③ 자유롭게 나는 제비를 보며 귀양살이하는 자신의 신세에 한숨을 쉬고 있다. ④ 화자는 들보 위의 제비를 보며 시름을 느끼고 있다. ⑤ 화자는 명월을 보며 옛 친구를 만난 듯이 반가워하고 있다.

18. 추론적 사고(화자의 대상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나)의 ㉡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별은 소리에 들쭉이는 반면 화자는 홀로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3장>에서 귀양살이하는 화자는 자유롭게 나는 제비를 보고 한숨에 겨워하고 있기에 이 역시 화자와 대상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장>에서 ‘효제충신’은 화자가 추구하는 바이다. ② <2장>에서 ‘술’은 화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5장>에서 화자는 ‘명월’을

벗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6장>에서 ‘매화’는 화자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19-20] 과학, ‘시간의 물리학적 성격 변화’

지문해설 : 뉴턴 물리학에서는 시간을 절대 불변의 차원으로 간주하여 물체의 운동에서 시간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개념에서 시간은 절대성을 잃게 되었다. 물체의 속도에 따라 시간의 팽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빛의 속도에 가까운 엄청난 속도에서이기는 하나, 아인슈타인의 발견은 시간을 물체의 운동을 계산할 때 공간과 함께 고려해야 할 상대적 요소로 변화시켰다.

[주제] 시간의 상대적 성격을 파악한 아인슈타인

19.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개념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속 우주선’을 탈 경우 일상에 비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시간의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 시간이 팽창되어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 시간에 따른 사람의 노화도 서서히 진행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라 하더라도 빛의 속도와 비교하면 그 크기는 미미하다.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하여 시간 팽창 현상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 바늘은 시간 팽창의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③, ④ 물체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물리적 시간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⑤ 빛이 이동하여 지구의 관측자에게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므로 시간 팽창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20. 비판적 사고(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으로 뉴턴의 시간 개념을 비판한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이 경우 비판을 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점과 뉴턴의 시간 개념이 절대적이라는 점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아인슈타인은 공간에 따라 운동 속도가 무한히 크면 그렇지 않을 때와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지 않으므로 시간을 절대적이라고 한 뉴턴을 비판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상대 시간 개념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위배된다. ③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보았지, 시간을 인위적 개념으로 본 것은 아니다. ④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으로 고려되기 어렵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입장이다. ⑤ 아인슈타인의 시간의 팽창에 대해서 언급했지, 시간의 역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1-24] 고전소설 - 작자 미상, ‘김원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탈각(脫却) 설화뿐만 아니라 용궁 설화, 연적 설화, 재생 설화 등 다양한 설화를 바탕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주인공 김원은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에 태어나 그 운명이 처음에는 불행했으나 나중에는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다시 천상계로 승천한다. 주인공이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서사 전개 구조와 유사한 것이다.

[주제] 김원의 환골탈태와 고난 극복

2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김원은 허물을 벗은 다음 부모님 앞에서 자신이 허물에 쌓여 있었던 십년의 시간 동안 부모님께 불효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흉한 모습에 대해 부모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김 승상은 흥물이 태어난 것과 관련해 선녀의 말과 선녀가 출산을 도와준 것을 근거로 자신의 부인을 위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흥물이 태어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말하기는 하고 있지 않다. ② 부인은 흥물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웃으며 밥을 더 주고 있다. 이때 흥물이 밥을 주는 대로 먹는 것을 괴히 여기기는 했으나 근심하지는 않았다. ③ 노복이 흥물을 대한 부인의 태도를 비웃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김 승상 부부는 흥물이 허물을 벗고 선동(仙童)이 된 것에 대해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알고 싶어 김원에게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고 있다.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하고 있지 않다.

22. 추론적 사고(자료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김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내실(內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의혹을 갖던 차에 비복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김 승상에게 월영각에 흥물이 없어지고 선동(仙童)이 앉아서 김 승상을 찾고 있다고 보고하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복은 흥물이 선동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복은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것’은 본래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흥물로 적강(謫降)한 김원을 처음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② 김원이 적강(謫降)한 인물이기 때문에 변신 과정에 선관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③ ‘골육(骨肉)’은 ‘혈육(血肉)’과 유사한 말로 부모와 자식 간을 일컫는다. ‘원(圓)’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나타낸다. ⑤ ‘불초자’는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김원이 부자 관계를 확인받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추론적 사고(개별 서사 요소의 의미 추론)

정답해설 : 김원은 부모가 주는 밥을 먹고 보살핌을 받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 ‘성장’에는 부모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 과정에는 부모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변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선관’이다. 따라서 ㉠, ㉡의 서사 요소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주인공은 자신의 뜻에 의해 스스로 적당하지 않고 죄에 대한 별로 적당하였다. ② 천상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 ㉡는 김원이 적당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상계의 사건이 천상계의 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나타낸다. ③ 부모가 ㉠, ㉡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 것은 ㉠, ㉡가 괴이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를 괴이하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괴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즉 지상계의 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 ㉡가 괴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⑤ 김원은 자신이 벗은 ‘허물’을 통해 ㉡를 확인받고 있다. 이는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김원이 지상계에 내려와 죄를 짓고 그에 대한 확인을 지상계의 인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계의 질서가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24. 추론적 사고(한자성어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에서 승상 부부가 말한 것은 십 년 동안 고생을 해서 선동(仙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그 의미가 통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괄목상대(刮目相對) :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름.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 권세는 십 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임.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룸.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 오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룸.

[25-27] 언어·생활, ‘독서 방식의 역사’

지문해설 : 이 글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대의 지식사를 이끌었던 다양한 독서 방식들의 등장 배경과 그로 인한 읽기 방법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대에는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의 독서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다가 12세기 유럽 수도원의 필경사들 사이에서 묵독이 발명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책자형 책이 등장하면서 끊어 읽는 방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 같은 묵독은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18세기 중반, 금속 활자 및 인쇄술의 보급으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고 독자층도 두터워졌다. 이로써 집중형 독서에서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가 행해지게 되었다. 20세기 후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검색형 독서 방식이 등장했다.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해 독자는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주제] 다양한 독서 방식들의 등장 배경과 그로 인한 읽기 방법의 변화

25.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고대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있어 독자는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어 보야 글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이었다. 따라서 필자나 전문 낭독가가 낭독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듣기가 보편적이었다. 12세기 유럽 수도원을 중심으로 묵독이 등장하면서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발달했고, 이 시기에 책자형 책의 등장으로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 재독하기가 편리해져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 방법이 가능해졌다. 18세기 중반 인쇄술의 발달로 다독이 등장하였고, 독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가 발달했다. 20세기 후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자 검색형 독서(㉢)로 불리는 독서 방식이 등장하는데, 이 때 독자들은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정답] ㉡

26. 추론적 사고(세부적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두루마리 책은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없이 이어 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독자가 자기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는 음독 중심의 독서 방식이 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그러나 두루마리 책을 대체하여 책자형 책이 등장하면서 책의 여백에 주석을 달 수 있고, 앞부분을 재독하기도 쉬워져 묵독의 확산을 도왔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인쇄술의 발달로 다양한 장르의 책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만이 독서 대상이었고, 이것은 당연히 정독해야 하는 필독서로서의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 음독의 독서 방식 시대에는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들이 등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묵독의 시대가 되면서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등장할 수 있었다. ㉣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를 사용하면 이어 쓰는 표기법에 비해 문장의 배치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가독성이 높다. ㉤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4배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27.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쉬워졌다. 독자는 어디까지나 주체적 사용자로, 원하는 대로 필요에 의해 정보를 고를 수 있고 텍스트를 조합할 수도 있는 검색형 독서 방식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①과 같이 목록 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목록 시대처럼 꼼꼼하게 읽는 분석적 읽기 방법 보다는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해졌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하이퍼텍스트 문서에서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원전 텍스트라는 개념은 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 ③ 독자의 필요에 의해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다른 텍스트에 추가할 때, 원 저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표절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 ④ 종이 책으로만 존재했던 자료들이 전자 문서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의 검색과 활용의 범주는 훨씬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⑤ 독서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정보 처리적 읽기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8-31] 사회, 환율의 변동과 경상 수지의 관계

지문해설 : 환율의 상승이 경상 수지를 개선한다는 통념이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경우들을 살펴보고 있다. 일단 환율이 오를 때 경상 수지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J커브 현상’을 소개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한다. 반면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의 상승 후에도 경상 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그 이유도 소개함으로써 환율의 상승이 단순히 경상 수지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만큼 환율 정책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환율의 변동과 경상 수지의 관계 파악을 통해 신중한 환율 정책의 실시를 강조함

28.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

정답해설 :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하게 되기도 한다. 고환율 정책은 보통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일 때 구사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단순하게 ‘경상 수지가 적자일 때에는 고환율 정책을 쓴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본문에 제시된 바처럼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상 수지가 적자일 때에는 대개 고환율 정책을 쓴다는 소개는 있었지만 ②처럼 이를 필연성이 있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 ③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되어 있다. ④ 이 글은 전체적인 체계가 국내 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복잡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환율이 상승하면 대개 경상 수지를 개선하게 되리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첫 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

29. 추론적 사고(그래프 자료의 이해)

정답해설 :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J커브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해 보는 문제 유형이다. 내용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J커브 현상은 환율이 올랐는데도 단기적으로 경상 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즉 ㉔부분의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이유로는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와 외국 소비자들의 지체된 반응을 들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㉑의 설명은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㉒에서 말하는 ㉓부분도 그래프가 우상향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이는 경상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㉒. 수출 기업이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면 ㉔ 구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처지는 구간이 적어지거나 혹은 아래로 처지는 일이 없어질 수 있다. 즉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기대지 않고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게 되면 경상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㉒. 환율은 ㉕의 앞에서도 이미 상승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㉕가 굳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기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㉕는 경상 수지가 -(마이너스)를 벗어나게 되는 기준점일 뿐이다.

30. 추론적 사고(이유의 추리)

정답해설 : 환율이 오르면 경상 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생각이 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답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를 추리하는 것인데, ㉑의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될 수도 있고 개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곧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환율 상승일 때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난 후에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가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② 국내 기업이 환율의 안정성을 살펴본 후 가격 조정을 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늦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것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은 아니다. ⑤ 세 번째 단락

의 첫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 경상 수지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어휘어법(관용어구의 이해)

정답해설 : 수출 기업은 환율의 상승만을 믿고 안일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품의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 즉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는 속담은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바란다’가 가장 적절하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입만 벌리고, 그 입안으로 홍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② 어느 정도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해결점도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사람이 너무 극한 상황으로 몰리면 상황을 헤쳐 나오려는 의지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③ 가난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로, 그만큼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④ 재주가 많은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의미이다. ⑤ 한 가지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에 욕심을 내게 된다는 의미이다.

[32-34] 희곡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

작품해설 : 승천이 좌절된 구렁이의 전설과 삼국사기에 실린 온달 설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룬 창작 희곡으로, 공주의 주체적 의지와 온달의 헌신적 사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설화와 달리 공주가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 출가하면서 우연히 온달과 만나 결혼하고, 그를 정치적 동반자로 만드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작처럼 온달이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공주의 정적인 고구려 왕자의 사주를 받은 부하들의 음모에 의하여 암살되는 것으로 각색되어 있다. 온달의 죽음 후 공주도 온달의 옛집에서 온달의 어머니(‘온모’)를 모시고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다.

[주제] 온달과 공주의 비극적인 사랑

32.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및 심리 추리)

정답해설 : ‘장교’는 [A] 부분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발언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은 ‘왕명을 받들고’ 공주를 잡으러 온 사람임을 밝힌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공주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발언에서 ‘반역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장군들은 공주가 ‘(부장의) 투구를 벗으라고’ 한 말을 근거로 혹시 공주가 무슨 기미를 알았는지 두려움을 표명하고 있다. ③ 부장은 ‘과연 누구(자신과 공주 가운데서)의 목이 먼저 떨어지는지’ 보자는 말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병사들은 장교의 명령대로 공주를 압박하고 있다.

33.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밑줄 친 ‘설화가 지나는 비현실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글 ‘앞부분의 줄거리’에도 제시되었듯이 이 글의 비현실적인 요소는 장례를 치르려 하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내용상 연관되는 것이 ①이다. **[정답] ①**

34. 추론적 사고(연출 의도 추리)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시각 자료를 이해해야 하고 <보기> 아래쪽에 제시된 조건 등을 고루 염두에 두고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보기> 아래쪽 두 번째 조건을 보면 ‘그림의 숫자는 등장인물이 서는 무대 지역의 중요도 순서’라고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장교가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했지만 (가)에서 장교의 위치는 2번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그림의 숫자는 등장인물이 서는 무대 지역의 중요도 순서’라는 조건과 어긋난다. 장교가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그는 조건에 따라 (가)의 1번 지역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대사’와 ‘공주’의 거리가 (가)가 (나)에 비해 가깝다. ④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나)에서는 장교에 의해 온모가 가려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35-38] 현대소설 - 김원일, ‘다시 눕는 풀’

작품해설 : 1970년대는 우리 사회가 인간적인 가치와 윤리는 뒤로 한 채 산업사회를 향해 무한 질주하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상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김 여사의 얼굴과 맞닿아 있다. 주인공인 시우와 시우네 가족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자처한 시우의 선택은 눈물겹게 감동적이다. 돈에 팔려가는 시우를 ‘심청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감옥에서 웃고 있는 시우를 ‘포춧집에 팔려 나온 시골 처녀’에 비유함으로써 작가는 산업화 시대 도시 빈민층의 어두운 일면을 그리고자 하였다.

[주제] 산업 사회 도시 빈민층의 어두운 자화상

35. 추론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사건의 서술은 시우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략) 이전의 내용은 이 선생과 젊은 사장의 대화이지만, 화제는 시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또한 (중략) 이후의 내용은 시우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느냐에 서술의 초점이 있다. **[정답] ⑤**

36. 비판적 사고(인물의 특성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종우는 시우를 면회 와서 보상금으로 받은 180만원에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참아달라고 하며 면목이 없다고 미안해한다. 그리고 스스로도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부사장은 겉으로는 시우와 그 가족을 배려하는 듯이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사장의 진짜 목적은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의 체면, 명예를 최대한 지켜내면서 의도대로 일을 꾸미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만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② 시우는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가 형이 확정되자 함정에 빠진 듯했고, 억울해서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형이 면회를 와서 보상금으로 받은 180만원으로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감옥 생활을 참아내기로 마음먹는다. ③ 죄수들은 추위에 영겨 있으면서 시우에게 오라고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시우의 우는 듯 한 웃음에 역시 한마디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④ 첫 장면에서 사무장이 하는 말을 보면, 그는 부사장, 사모님을 위해 돈으로 시우를 매수하여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시우는 가족들을 위해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을 한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렇기에 ‘감옥’을 ‘집 안방’(㉠)으로 표현하였으며, 죄수들을 보면서도 ‘다정한’(㉡) 얼굴이라 생각한다. 또한 눈이 오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행복한 생활을 생각하며 ‘산타클로스 모자’(㉢)를 떠올리고, 동생이 입을 ‘교복’(㉣)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모두 자신이 처한 감옥 생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갖 죄를 지은 죄수들의 죄명을 시각화한 ‘뿔말’은 시우의 마음가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정답] ③**

38.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위 글에 대한 평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평을 작품의 구체적 내용에 적절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보기>에서는 작품에서 가진 자(부사장, 사모님)와 못 가진 자(시우네 가족)의 대립 구도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대립 구도가 공간적 대립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 즉, 면회소와 신흥 주택 지대는 공간적 대립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면회소는 시우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고, 신흥 주택 단지는 시우의 희생으로 그의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공간이기에 대립적이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시우가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을 웃은 것과 이에 대해 다른 죄수가 말한 것을 통해 이 웃음은 시우의 복잡한 내면, 결국 이러한 선택을 한 작가의 복잡한 심경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사건 조작 모티프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이 작품에서는 사모님의 죄를 가난한 시우가 대가를 받고 대신 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결국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사모님은 시우에게 빚을 졌다면 시우가 나오면 월급을 올려줄 것이라 했지만, <보기>와 같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면 결국 돈으로 사람을 거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39-43] 예술, '음악 이론과 전통'

지문해설 : 이 글은 서양 음악 이론의 맥을 형성한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의 두 전통이 되고 있는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소개하고 있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수학의 관점에서 이해한 학자로, 하프를 직접 연주하고 그 소리를 분석하여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의 조화를 찾아 5도에 기초한 피타고라스 음률을 밝혀냈다. 피타고라스가 논리 중심의 음악관을 폄하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리적 비율보다 '감각적 지각'을 미적 체험의 바탕으로 삼았다. 그는 경험적이고 현상론적인 입장에서 서양 음악의 기초가 되는 리듬과 멜로디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당시 통용되던 음악 현상들을 실제적으로 정리하여 음악주의자로 불리는 후대 이론가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대립적 성향의 음악 이론은 비단 이론뿐 아니라 오늘날 창작, 연주, 감상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주제] 서양 음악 이론의 맥을 형성한 고대 그리스의 두 음악 이론

39. 추론적 사고(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다)는 음악에서 논리를 중시한 피타고라스와 경험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립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즉, 수리적 추리를 통해 음악의 미적 체험을 이해하려 했던 피타고라스와 지각된 소리를 근거로 음악적 아름다움을 판단하려 했던 관점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비유적 진술은 사용하지 않았다. ② 피타고라스 음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용어의 개념 정의는 없다. ④ 앞 단락의 내용과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 단락의 내용을 이어받아 서술하고 있다.

40. 추론적 사고(자료를 통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보기>는 보이티우스의 음악 분류로, 모두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차원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즉, 대우주의 수적 조화를 의미하는 '뮤지카 문다나(㉠)', 우주의 영향을 받는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의미하는 '뮤지카 휴마나(㉡)', 인간의 목소리를 포함한 악기들의 조화를 의미하는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의 세 단계이다. ㉠은 '하프에서 나오는 소리'의 조화이므로 악기가 내는 물리적인 소리의 조화 상태를 이루는 ㉡ 차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피타고라스의 생각은 ‘수(數)적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므로 ㉠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에서 하프를 직접 연주하는 행위는 ㉢의 차원으로 나타난다. ④ ㉣의 간단한 정수비는 음향학의 기반인 음정이 될 수 있다. ⑤ ㉤은 오늘날 우리가 음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며 음향학의 출발이다.

41. 추론적 사고(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음악주의자’는 논리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음악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다. 이들은 ③의 사례에서와 같이 ‘직접 음반을 듣’는 경험적 방법을 중시여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에서 악곡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 ②에서 음악 요소들 간의 ‘수리적 관계’를 탐구하는 것, ④에서 음악의 ‘대칭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것, ⑤에서 ‘피보나치수열’을 적용하는 것은 모두 ‘감각적 지각’이 아닌 ‘수적 비율’을 중시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음악주의자’의 태도와 거리가 있다.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글 (나)와 <보기>의 자료를 통해 옥타브 [도-도']의 음향학적 원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옥타브 [도-도']는, [도-파]와 [파-솔], [솔-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현 길이의 비가 12 : 8이면 [도-솔]에 해당되고, 이는 5도이다. 따라서 현의 길이가 12: 8인 두 현을 켜면 당연히 4도가 아니라 5도가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도-솔]과 [파-도']의 음정은 모두 5도 이므로 같다. ② 옥타브 [도-도']는 5도인 [도-솔]과 4도인 [솔-도']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옥타브 [도-도']는 두 개의 4도([도-파], [솔-도'])와 한 개의 온음([파-솔])으로 구성된다. ⑤ 현 길이의 비 9 : 8은 [파-솔]로 온음에 해당한다.

43. 어휘·어법(대체할 수 있는 어휘 판단)

정답해설 : ㉠의 ‘내재한’의 ‘내재(內在)하다’는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다’는 의미이며, ㉡의 ‘배어 있는’의 ‘배다’는 ‘느낌,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아 있다’는 의미로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휘는 ‘들어 있다’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② 융합(融合) : 여럿이 녹아서 하나로 합침. ③ 조합(組合) :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짬. ④ 규합(糾合) : 일을 꾸미려고 사람을 모음. ⑤ 결합(結合) : 둘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가 됨.

[44-47] 인문, ‘전통적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지문해설 : 이 글은 초반부에 전통적 공리주의가 지닌 내용과 그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전통적 공리주의를 포괄할 수 있는 특징이 ‘공평주의’임을 강조한다. 그만큼

전통적 공리주의는 이익의 양에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공리주의에 대해 반공리주의자들은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시각을 드러낸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양적인 면에 치중하다보니 정의롭지 못한 방향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과 관련하여, 정의의 개념을 포함한 공리주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규칙 공리주의라고 한다.

[주제] 전통적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차이

44. 추론적 사고(이유의 추리)

정답해설 : 이 문제는 <보기>에서 ‘갑’의 예를 들어 ‘친구를 간호하는 일’과 ‘교통사고로 다친 운전자를 구한 일’을 비교하며 공리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일단 ‘갑’이 전통적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갑’을 전통적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얻어진 행복의 양이 최대라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갑’이 다친 사람을 도우면 자신만 행복해진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갑’이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선한 행동을 했다면, ‘갑’의 행동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이 행동한 일로 인해 얻어진 행복이 최대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결정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여주는 쪽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전통적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의 양을 최대로 산출하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③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람은 따라 행복의 무게를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전통적 공리주의가 공평주의라는 특성을 지녔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쪽으로 결정했을 것이므로 다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산출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⑤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키게 될 거라는 판단 아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45. 비판적 사고(반대 관점의 이해)

정답해설 : 전통적 공리주의자인 민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에 제시된 사례에서 민우는 집단 B의 무고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집단 간의 충돌을 막게 될 것이다. 즉 한 사람만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행복의 총합은 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 증언으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전통적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반공리주의자들은 전통적 공리주의자인 민우가 정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복의 총합만을 생각하며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피해자를 설득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용서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행동이 반공리주의자들의 입장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었을 경우의 불확실성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고, 반공리주의는 전통적 공리주의가 지닌 정의의 개념 소홀을 비판하는 입장이므로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일에는 정의가 소홀히 다뤄진 부분이 없으므로 반공리주의자들이 전통적 공리주의자들에게 지닐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⑤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두 집단의 갈등을 더 악화시켜 유혈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취할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또 반공리주의자들이 이런 행동을 예상하리라는 근거도 없다.

46. 추론적 사고(두 내용의 비교)

정답해설 : <보기>의 의무론자는 좋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인 셈이다. 반면, A에서 언급된 규칙 공리주의의 사례를 살펴보면, ‘좋은 사회’라는 결론을 확정한 상태에서 그에 이르기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규칙 공리주의의 특성이다. 즉 의무론자는 결과와 무관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규칙 공리주의자는 결과를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에 의존하여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규칙 공리주의자는 정의의 개념을 포괄해야 한다고 입장을 지니고 있지 모든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② 의무론자는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규칙 공리주의자만이 결과에 의존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④ 규칙 공리주의자는 정의의 배제가 아니라 정의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7.어휘어법(문맥적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본문에 쓰인 ‘따르다’는 앞에 언급한 내용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즉 ‘관례나 법규 따위를 좇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사용한 것은 ‘원칙에 따르다’라는 형태로 쓰인 ⑤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복종하다’, ‘준수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남을 좋아하여 붙좃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본떠서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남의 뒤를 좇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48-50] 기술,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저항형 센서’

지문해설 : 인간은 후각이나 호흡 기관을 통해 위험 가스를 인지할 수 있으나 미세한 농도의 감지는 불가능하다. 이 글은 인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저항형 센서’의 작동 원리와 평가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센서는 가스가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해 저항값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는 ‘응답 감도’, ‘응답 시간’, ‘회복 시간’ 등이 사용된다. [주제]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저항형 센서의 작동 원리 및 평가 요소

48.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3문단을 보면 산화물 반도체 물질은 산화 가스, 환원가스와 전자를 주거나 받아 흡착함으로써 저항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인간의 후각은 미세한 가스 농도를 감지하지 못하다. ③ 회복 시간이 짧아야 센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산화물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은 늘어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상태(定常狀態)에 도달한다. ⑤ 저항형 가스 센서는 가스가 탈착되기 전과 후에 변화한 저항값이 아니라 가스가 흡착되어 변화된 저항값으로부터 가스를 감지한다.

49.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 조건 하에서는 센서의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다. 이와 대응되는 내용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⑤이다. ⑤의 사례에서 ‘매일 아침 운동장을 열 바퀴 걸은 직후 맥박을 재어 보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한 것’에 대응되며, ‘항상 분당 128~130회’였다는 것은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에 대응된다. [정답] ⑤

50. 추론적 사고(시각 자료를 통한 핵심 정보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 값의 50% 혹은 90% 값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보기>의 그래프를 보면 t_1 을 지난 시점부터 A 물질의 저항값과 B 물질의 저항값이 R_s 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이는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의 응답 감도 값이 같지 않음을 나타낸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로부터 전자를 받으며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보기> 그래프의 저항값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험에 사용된 가스는 산화가스이다. ② 응답 감도는 R_s 와 R_{air} 의 차이를 R_{air} 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의 R_s 와 R_{air}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응답 감도는 같을 수밖에 없다. ④ 그래프에서 t_1 전 단계를 보면 A, B의 저항값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t_1 시점을 지나 저항값이 일정해지는 정상상태에 도달하기까지 A물질의 저항값이 B물질의 저항값보다 큰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해설 _[홀수형]기준

| | | | | | | | | | |
|------|------|------|------|------|------|------|------|------|------|
| 1.⑤ | 2.① | 3.④ | 4.④ | 5.① | 6.① | 7.④ | 8.④ | 9.③ | 10.① |
| 11.③ | 12.⑤ | 13.④ | 14.④ | 15.② | 16.④ | 17.⑤ | 18.⑤ | 19.① | 20.② |
| 21.① | 22.① | 23.③ | 24.③ | 25.③ | 26.① | 27.① | 28.③ | 29.④ | 30.① |
| 31.② | 32.③ | 33.③ | 34.② | 35.⑤ | 36.③ | 37.⑤ | 38.④ | 39.③ | 40.⑤ |
| 41.② | 42.⑤ | 43.④ | 44.③ | 45.④ | 46.③ | 47.② | 48.④ | 49.② | 50.② |

[1-5] 듣기

1.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느 부족의 말하기 관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족에서는 사냥에 나간 젊은이들이 돌아왔을 때, 아주 큰 사냥감을 잡은 젊은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관습이 있다고 하네요. “전 사냥에 영 소질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주 작은 거 하나 잡았어요.”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재미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뭔가 큰 걸 잡아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칭찬하고 치켜세우기보다는 겨우 그렇게 작은 것을 잡아 왔느냐고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는군요. 이러한 말하기 관습에서는 사냥에 성공한 젊은이가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거나 부족 사회에 동화되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사냥을 해 오지 못한 다른 젊은이들이 혹시 실망을 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주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족의 말하기 관습에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모두가 모두를 생각해 주는 지혜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요?

1. 추론적 사고(이야기의 교훈 추론)

정답해설 : 이 이야기에서 큰 사냥감을 잡은 젊은이는 자신의 성과를 축소하여 말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는 사냥에 성공한 젊은이가 시기와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하고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젊은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는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서로 배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큰 사냥감을 잡아 왔어도 겸손하게 표현하는 내용이므로 ‘도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제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②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이야기에서 ‘타인의 성공을 받아야 한다’는 주제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③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모두가 모두를 생각해 주는’ 내용이므로 ‘인격 도야’, ‘수양’ 등의 개인적인 차원의 주제를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성공적인 사냥에 대해서 공동체가 그것을 드러내어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이끌어 내기는 적절하지 않다.

2.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겨울이 되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죠? 손발이 차가워지는 원인은 대개 혈액 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때 피부 가까이에 분포해 동맥과 정맥을 직접 이어 주는 글로뮬이라는 관으로 피가 흐르면서 손발이 따뜻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즉 동맥에서 공급된 피가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글로뮬을 통해 직접 정맥으로 흐르면서, 손발에 다시 따뜻한 피의 양이 늘어나 피부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글로뮬은 평소에 닫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혈관에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면서 글로뮬이 열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글로뮬이 딱딱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면 추울 때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이 차가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글로뮬을 다른 말로 동정맥문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글로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에는 과식, 음주,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2.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방송에서 글로뮬이라는 관은 피부 가까이에 분포해 동맥과 정맥을 직접 이어 주며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로뮬을 통과한 피는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으로 흐른다’의 진술은 방송 내용과 어긋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동맥에서 공급된 피가 ~ 글로뮬을 통해 직접 정맥으로 흐르면서, 손발에 다시 따뜻한 피의 양이 늘어나 피부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이죠.’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모세혈관에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면서 글로뮬이 열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피부 가까이에 분포해 동맥과 정맥을 직접 이어 주는 글로뮬이라는 관’과 ‘글로뮬을 다른 말로 동정맥문합이라고도 하는데요’의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글로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에는 과식, 음주,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3. 다음은 아빠와 딸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딸 : 아빠, 여기가 우리 방이네요. 어, 문에 비상 대피도란 게 붙어 있어요.

아빠: 응, 비상시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이런 숙박 시설엔 객실마다 꼭 붙어 있지.

딸 : 아, 여기를 보세요. 별표가 지금 우리 방이네요.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건 비상구고, 비상시에 여기로 대피하라는 말이군요.

아빠: 응, 그렇지. 그럼 이번 기회에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몇 가지 알려줘야겠구나. 승강기는 화재 시에 아주 위험해서 이용하면 안 돼. 대신 비상구를 이용해야 하지. 1층에 별도로 설치된 비상문도 건물의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거란다. 그리고 여기 이 완강기는 밧줄을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피난 기구인데, 3층부터 10층까지 이렇게 별도로 설치돼 있어. 이 건물도 피난 기구가 2층엔 없고 3층엔 있더구나.

딸 : 그렇군요. 음, 그런데 옥상으로 대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빠: 아, 그땐 피난을 유도하는 유도등의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돼. 복도 유도등의 화살표는 비상구 쪽으로 돼 있고, 비상구 계단을 통해 옥상이나 지상으로 갈 수 있단다.

딸 : 아, 네. 여기엔 또 소화전의 위치도 나와 있네요. 불났을 때 물도 뿌리고 비상 상황도 알릴 수 있겠어요.

아빠: 응, 소화전이 보통 비상경보 장치와 함께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도 그렇더구나. 층마다 설치돼 있어서 비상경보 장치의 발신기 스위치를 누르면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려. 그리고 비상 대피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객실이든 휴게실이든 모든 방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과 소화기가 있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단다. 어때, 이제 좀 알겠니? 여행을 다닐 때는 만일에 대비해서 이런 걸 알아 두면 좋단다.

3.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딸’이 비상경보를 울리려면 비상경보의 발신기를 눌러야 하는데 문제의 그림에서는 발신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대신 ‘아빠’는 마지막 말에서 ‘소화전이 보통 비상경보 장치와 함께 있어서’라고 언급한 정보가 있는데, 이는 발신기의 위치가 소화전의 위치가 같음을 알려주는 정보이다. 그림에서 소화전은 객실의 복도 맞은 편 벽에 있으므로 ④는 적절한 행동 요령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승강기’와 관련하여 ‘아빠’는 ‘승강기는 화재 시에 아주 위험해서 이용하면 안 돼. 대신 비상구를 이용해야 하지.’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화재 시 승강기를 이용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② 여기서 말하는 피난 기구는 ‘완강기’이다(‘이 완강기는 밧줄을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피난 기구인데’라고 한 ‘아빠’의 말). 또한 ‘아빠’는 ‘이 건물도 피난 기구가 2층엔 없고 3층엔 있더구나’라고 하였으므로, 2층 비상구 쪽 2층으로 간다고 해도 완강기를 이용할 수 없다. ③ ‘(옥상으로 대피할 땐) 피난을 유도하는 유도등의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돼’라는 ‘아빠’의 말에 따를 때, 옥상으로 가

기 위해 복도 유도등의 화살표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객실이든 휴게실이든 모든 방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과 소화기가 있어서’라는 ‘아빠’의 말에 따를 때,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찾으려면 방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림에서는 완강기의 위치가 복도의 끝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휴대용 조명등을 찾기 위해 완강기가 있는 쪽으로 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4 ~ 5. 다음은 토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얼마 전 우리 동네 주민 도서관에 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번 토의에 이어 이번 토의에서도 도서관 측과 이용자 측 발표자를 모시고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서관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 측 발표자: 현재 도서관 운영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자료를 열람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반 열람실은 물론 자료를 쉽게 보도록 서가 옆에 책상을 비치해 놓은 개가식 열람실까지도 사람들이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부방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개가식 열람실의 공간을 확대해서 좌석을 늘리고 서가가 없는 일반 열람실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볼 수 있는 개가식 열람실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이 시죠? 다음은 이용자 측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용자 측 발표자: 사실 일반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열람실을 축소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보다는 지난번 토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개가식 열람실 개방 시간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는 주말에만 개가식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평일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마치고 도서관에 가면 개가식 열람실은 문을 닫은 상태죠.

사회자: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하면, 첫째는 공간 조정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양 측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둘째는 개가식 열람실 개방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용자 측 발표자께서는 죄송하지만 개방 시간 연장은 이미 지난번 토의에서 예산과 인력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는 공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용자 측 발표자: 네. 알겠습니다. 개방 시간 연장이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고 하니, 새로운 안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터

넷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자료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지 않을까요?
 도서관 측 발표자: 글썄요. 개방 시간 연장도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
 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료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문제이
 고,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자료 제공이 쉽지 않습니다.

4. 사실적 사고(중심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용자 측 발표자의 ‘중전 요구안’은 ‘개가식 열람실 개방 시간’을 늘려 달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안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이전의 요구를 접고 새로운 요구를 제기
 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 측 발표자가 자신의 중전 요구안을 고수하였다고 한 분
 석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도서관 측 발표자의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개가식 열람실의 공간을 확대해서 좌석을 늘리고’라는 말에서 도서관의 기능을 바
 탕으로 개가식 열람실의 공간을 확대하자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② 이용자 측
 발표자는 ‘평일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마치고 도서관에 가면 개가식 열람실
 은 문을 닫은 상태죠’라고 언급하여 평일에 방과 후 활동을 하느라 도서관을 이용
 하지 못하는 학생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사회자는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하에서 논점을 정리하고 있고, ‘특별히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고, 그 후에는 공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에서 이후의 논의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⑤ 도서관 측 발표자는 ‘자료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문
 제이고,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자료 제공이 쉽지 않습니다.’에서 이용자 측 발표자의 제안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도서관 측 발표자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가식 열람실의
 공간을 확대해서 좌석을 늘리고 서가가 없는 일반 열람실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개가식 열람실의 좌석을 늘려 주세요’라는 건의 사항이
 이번 토의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두 발표자 모두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언급하
 지 않았다. ③ 개인 사물을 둘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일반 열람실의 주말 개방 시간 연장에 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이용자 측 발표자가 제안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이며, 인터넷을 통한
 자료 구입 신청에 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의도대로 작품이 창작되었는지 예상 독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연상되기 위해서는 가야금 제작 과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야금 제작 과정에 관해서는 만드는 사람의 음감을 바탕으로 가야금의 음을 제작자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가야금이 잘 만들어졌는지 가야금 감상자의 판단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들을 줄 아는 귀’ 부분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연상할 수 있다. ③ 좋은 공명판이 될 만한 좋은 나무를 고르는 대목에서 좋은 글감의 선별을 연상할 수 있다. ④ 좋은 재료를 골라 잘 손질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글감을 잘 다듬어야 한다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⑤ 각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그 자리를 잡아주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작품 요소들끼리의 긴밀한 짜임새를 연상할 수 있다.

7. 추론적 사고(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다)의 자료는 우리나라 중고생의 상당수가 인터넷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이용하고 그 중의 대부분은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가)의 자료는 ‘리셋 증후군’이 과도한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하여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와 혼동하는 증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자료를 적절하게 연결하여 활용한다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 리셋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의 자료는 리셋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의 사례도 아니고 리셋 증후군의 대표적인 유형이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도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료 (가)의 후반부에 리셋 증후군의 세 가지 증상이 제시되어 있다. ② 자료 (나)에서는 리셋 증후군을 보이기도 하는 청소년이 가족과 여럿이 시간을 보내거나 스스로 컴퓨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리셋 증후군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나)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온라인 게임에 빠져 리셋 증후군을 보이기도 하며, (가)에 따르면 리셋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이 극단적인 일을 실제로 저지르기도 한다. 따라서 두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한다면, 청소년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때 리셋 증후군이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다)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일상화와 온라인 게임 위주의 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는 지나친 컴퓨터 게임 이용이 리셋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을 결합하여 활용한다면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실태가 리셋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8. 창의적 사고 (개요 수정 및 보완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의 개요 II의 3에 ‘학년 간 체험 활동 내용의 중복’이라는 항목

이 있는데, Ⅲ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Ⅱ의 하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한 검토 내용은 적절하며, ‘학년 간 체험 활동 내용의 차별화’는 Ⅱ의 3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하위 항목의 대안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직업 체험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증대’의 항목은 상위 항목인 ‘직업 체험 활동의 의의’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직업 체험 활동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바꾼 것도 상위 항목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② ‘진로 선택의 기준 제공’과 ‘직업과 관련한 능력 향상에 대한 동기 유발’이 별개의 의의인데도 두 항목이 중복된다는 지적은 잘못되었고, 한 항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수정 방안도 잘못되었다. ③ ‘간접 체험 위주의 활동’, ‘학생들의 성적 미반영’, ‘학년 간 체험 활동 내용의 중복’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직업 체험 활동의 수정 방안의 ‘과정’ 보다 기존의 ‘문제점’이 더 적절하다. ⑤ ㉠이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한 검토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9.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과문히게 되면’)은 ‘이런 물질들을’의 목적어 부분과 호응을 이루지 않으므로 ‘과문게 되면’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동 표현은 능동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③과 같이 ‘과문히면’으로 바꾸면 문장 성분의 호응 문제가 불안정하게 해결되므로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폐휴대전화에 대한 문단이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에 관한 문장은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셋째 문단은 폐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물질을 재활용할 대상과 공해 유발 대상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이런 흐름을 고려하여 ㉡의 문장을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10.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원 활용은 두 배로, 환경오염은 반으로’에는 폐휴대전화의 양면성이 대구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지구가 아프지 않게’에는 지구를 살아 있는 생명체와도 같이 활유법으로 표현했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독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문구는 ①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④ 대구의 형식을 쓰지 않고 있다. ⑤ 대구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나, ‘활유’의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11. 어휘·어법 (어휘의 의미 구별)

정답해설 : ㄱ~ㄴ에 쓰인 ‘들다’의 의미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ㄱ(‘감기가 들다’)의 ‘들다’ :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
- ㄴ(‘가방을 들다’)의 ‘들다’ : 손에 가지다
- ㄷ(‘단풍이 들다’)의 ‘들다’ :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가 스미거나 배다.

- ㄹ(‘고개를 들다’)의 ‘들다’ :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린다.
- ㅁ(‘반기를 들다’)의 ‘들다’ : 뜻을 밖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다
- ㅂ(‘보험을 들다’)의 ‘들다’ : 적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

위에 확인된 의미를 유사성의 기준으로 분류를 해 본다면, ㄱ, ㄷ, ㅂ의 ‘들다’는 ‘생기다’, ‘들어오다’의 의미로 묶이며, ㄴ, ㄹ, ㅁ의 ‘들다’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다’의 의미 요소로 묶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12. 어휘·어법 (한글 맞춤법의 사례 분석)

정답해설 :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로 적는 것은 <보기> 제5항의 ㉠에 따른 것이다. ‘깍두기’는 ㄱ 받침 뒤에서 [뚜]로 된소리가 나고 있는데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겹쳐서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것이다. ㉡의 ‘만사위’의 경우는 ‘만’과 ‘사위’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깍두기’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답] ⑤**

[13-16] 현대시

(가) 윤동주, ‘자화상’

작품해설 :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우물’은 거울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성찰의 매개체이다. 그 속에 비친 자연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화자 자신은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화자는 자기 모습을 미워도 하고 가엾게 여기기도 하며 그리워하기도 한다. 자신에 대한 애증, 자기 연민이 교차하는 것이다. 미운 것은 식민지 공간에서 자신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때문이고, 가엾어지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연민이며, 그리워지는 것은 순수하게 살던 옛날의 자기 모습을 떠올려서이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갈등은 마지막 연에서 우물 속의 아름다운 배경을 묘사하고 그 곳에 ‘사나이’가 ‘추억처럼’ 있다고 하여 극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제] 자아 성찰과 자기에 대한 애증

(나)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작품해설 : 선제리 아낙네들이 군산 목은 장에서 채소를 팔고 돌아오는 밤길의 정경을 통해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의좋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을 그리고 있다. 시인은 ‘한밤중’ 같은 생활을 비관하기보다는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의좋은 한세상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그것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곳곳하게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의좋게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

(다) 김명인, ‘그 나무’

작품해설 : 늦된 ‘그 나무’라는 시적 대상을 통해 부족하고 소외된 것에 대한 연민과 기대, 나아가 자아 성찰과 앞으로의 기대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의 시선은 만발한 벚꽃이 아니라 병들어 늦된 ‘그 나무’에 쫓혀 있다. 활짝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주목받지 못할 외진 곳에서 아직도 ‘멍울’만 달고 있는 ‘그 나무’를 화자는 어딘가 안쓰러워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본다. 모두가 풍성하게 꽃 피우는 중에도 어느 곳에선가 모자라고 뒤쳐진 삶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대상에게도 마음을 써주는 화자의 마음이 따스하다. 그런 따사로운 시선으로 화자는 ‘그 나무’도 다른 나무처럼 꽃잎을 피우고 푸릇한 잎을 달고 여름 지나 가을에는 비록 풍성하지는 못해도 ‘가난한 소지’처럼 단풍으로 물들기를 기대한다. 소외된 것에 대해 갖는 애뜻한 연민이 마음의 공명을 울린다. 그런데 이 시에서 화자는 나무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늦깎이 깨달음’을 얻는 중이다. 단지 사물에 대한 연민에 머물지 않고 늦된 ‘그 나무’를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여 대상의 자기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나무’의 발견이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 늦된 것에서 느끼는 연민과 자아 성찰과 기대

13.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그 사나이’(화자 자신)가 가없어진다고 자기 연민을 보이고 있고, (나)에서는 요기도 못해 배고픈 아낙네들을 딱하게 여겨 ‘빈 광주리야 ~ 오죽 가벼울까’라고 연민을 드러냈으며, (다)에서 ‘늦된 그 나무’를 어딘가 안쓰러워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정답] ④**

14. 비판적 사고(작품 이해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추억처럼’이란 말은 동경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6연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연에서 추억과도 같은 과거의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 자아의 미운 모습과는 다른, 과거 속에서의 순수한 자아를 보는 것이다. 과거의 순수한 자아는 곧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연을 자신에 대한 화자의 존재 탐구가 끝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우물 속에 투영된 자신을 미워하고 가없어하며 그리워해 온 이제까지의 내적 갈등이 6연에 이르러 우물이라는 모태와도 같은 공간 속에서 과거의 이상적 자아를 발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극복되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는 1연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행위가 우물이라는 공간에 화자 자신의 내적 모습을 투영해 보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② 2연에서 우물에 비친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를 상징한다. ③ 3~5연에 나타나 있는 ‘미워져 돌아갑니다 → 가없어집니다 → 미워져 돌아갑니다 → 그리워집니다’라는 심경의 변화는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한

반응이므로 자아 성찰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추론적 사고(작품 간의 표현 특징 비교)

정답해설 : [A]에서는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와 아낙네들의 말소리를 ‘짖어댄다’의 반복과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의 반복으로 병치해 놓음으로써 운율감이 조성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에서는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②**

16. 추론적 사고(시어 및 시구에 대한 해석)

정답해설 : ‘산에서 내려 ~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부분은 화자가 ‘그 나무’를 정서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난만한 봄길’은 화자 자신이 겪었던 젊은 시절의 혼돈이나 방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 나무’도 자신과 같이 미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늦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기에 늦된 ‘그 나무’와 함께 ‘늦깎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오릿길’은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말이다. 이 공간은 선제리 아낙네들이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는 삶의 현장이다. ② 화자는 선제리 아낙네들이 서로 의종게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에 대해 ‘얼마나 의종은 한세상이더냐’라고 공감을 표하고 있다. ③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느’이라고 수식이 되어 있으므로 ㉠의 주체는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그 나무’이다. 따라서 ㉠은 ‘그 나무’가 꽃을 성화(성스러운 불)처럼 피우면 좋겠다는 화자의 기대를 담은 시구로 볼 수 있다. ⑤ ‘늦깎이 깨달음’이라는 앞서의 시구와 관련하여 ‘소신공양’, ‘소지’라는 종교적 색채를 띤 시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불타는 소신공양’은 만발한 벚꽃들의 가을 모습이고, ‘가난한 소지’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늦된 ‘그 나무’의 가을 모습이다. ‘그 나무’와 자신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17-20] 인문, ‘자산의 개혁’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간의 문제를 자연의 힘에 기대어 해결하려던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반으로 정책을 펼쳐나갔던 정나라 자산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산은 현실적인 문제를 자연의 원리에만 기대지 않고, 오히려 자연의 변화를 파악하여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한 자산의 개혁은 현실의 곳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힘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역치(力治)로 이어져 결국에는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 등 새로운 폐단을 낳게 되었다.

[주제] 자산의 개혁이 지닌 특징과 결과

17. 사실적 사고(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제는 세밀한 독해를 바탕으로 지문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제 유형이다. 독해의 기본이 되는 문제로,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전체 내용을 이해하며, 선택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소들이 각 단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는 자산이 단행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것이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단지 그것이 낳은 결과까지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자산이 추진한 개혁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②자산이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고,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다는 시대적 배경이 언급되어 있다. ③자산은 귀족의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단행하였다. 백성의 개간을 허용하고,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④자산의 개혁은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켰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자산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와 관련하여 백성과 귀족의 반응이 적절한지 판단해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반응의 초점이 백성과 귀족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에 유의하며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자산은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켰고 형법을 성문화하여 법치의 체계를 세웠는데, 이는 귀족들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귀족들은 자산의 개혁으로 인해 법과 관련된 자신들의 힘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치 전통을 세우고자 한 것은 오히려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자산의 정책이 지니고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귀족들이 임의로 법을 제정하여 집행하던 일을 막고 형법이 성문화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전보다는 일관성이 있는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법이 성문화되었기 때문에, 백성의 입장에서는 법을 이해하려면 글을 알아야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③자산의 정책은 귀족들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즉 백성들이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늘리고 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를 정착시킨 것이다. ④귀족들만 독점하던 토지가 백성들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귀족에게 집중되었던 경제적 특권이 약화되고 백성들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귀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된다는 걱정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19.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라 중심 내용 비판하기)

정답해설 : <보기>는 노자 사상의 특징을 언급한 것으로, 통치자들의 무위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으로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산의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자산의 정책은 자연의 원리에 인간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분히 인위적인 성질이 강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산의 정책은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 등의 폐단을 낳은 정책일 뿐인 것이다. 이는 곧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하게 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자연이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자산이 생각한 것은 맞지만, <보기>에서도 자연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현실주의적 개혁이 백성들에게 안정이나 혜택을 가져온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폐단을 낳았다. ④사회 제도에 의거한 인위적인 개혁은 인간 생활에 많은 폐단을 가져온다는 것이 <보기>의 관점이다.

20.어휘어법(사전적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집정’은 ‘정치상의 사무를 잡는 일, 혹은 그런 관직이나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집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군주가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화’는 ‘재앙’을 의미하고, ‘복’은 ‘복되고 영화로운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재앙과 복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개간’은 ‘황무지를 개간하다’의 형태로 많이 쓰는 말로서, 거친 땅이나 버려진 땅을 일구어 논밭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위상’은 ‘나라의 위상을 높이자’ 등의 예로 활용되는 단어로서,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대상이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의미한다. ⑤‘농후’의 ‘농’은 ‘질은 정도’를 나타내고, ‘후’는 ‘두텁다’의 의미를 지닌 말이므로, 이는 ‘어떤 경향이나 기색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21-24] 예술, ‘미학이론으로 본 뮤지컬’

지문해설 : 이 글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체계 이론 미학’을 소개하면서 두 이론을 적용하여 뮤지컬을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즉,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체계 이론 미학’은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왔기 때문에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본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을 뮤지컬에 적용하면,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캐츠>와 같은 사례를 보면 다양한 형식적 요소만으로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레뷰로서의 뮤지컬’도 예술로서의 예술의 한 범례로 꼽힐 수 있다.

[주제]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체계이론 미학을 적용해 본 뮤지컬

21. 사실적 사고(핵심 개념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체계 이론 미학’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파악하고, ‘체계 이론 미학’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파악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말해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어야 참된 예술로 파악하고,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받아들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으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러한 유형의 미학이 완전히 주류로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③ 본문에서는 ㉠과 ㉡ 두 이론을 모두 뮤지컬이라는 예술 장르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이 여전히 지지를 받는 예술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22. 추론적 사고(사례 분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뮤지컬을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것이 ‘최근의 관점’이다. ‘레뷰로서의 뮤지컬’은 내용의 충실한 전달보다는 기발한 무대,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가 중시된다. 따라서 이같은 관점에서 <캐츠>를 감상하고 있는 것은, 원작에 상관없이 춤과 노래가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본 ①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작품의 주제 구현을 중시하고 있다. ③ 노래의 가사를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용적인 관점에서 감상한 것이다. ④ 조명과 의상과 같은 형식적인 요소를 원작의 주제와 연관 지어 감상하고 있다. ⑤인간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 것 역시, 내용적인 측면에서 감상한 것이다.

23.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고,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고 했으므로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이 모두 조화를 이룬 것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의 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는 ‘지적·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음악 내적 요소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고 했으므로,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된 ‘체계이론 미학’의 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㉔는 ‘미적 유희’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24. 어휘·어법(대체할 수 있는 어휘 판단)

정답해설 : 문맥상 ㉔와 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를 찾는 문제이다. ㉔는 소홀하게 보아 넘김의 의미를 지닌 등한시(等閑視)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멸시’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의 의미이다. ② ‘천시’는 업신여겨 낮게 보거나 천하게 여김의 의미이다. ④ ‘문제시’는 논의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⑤ ‘이단시’는 어떤 사상이나 종교, 권위 등에 반항함의 의미를 지닌다.

[25-26] 기술, ‘컴퓨터의 여러 가지 자료 구조’

지문해설 :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로 사용되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에 대해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로 두 자료 구조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연결 리스트’에 ‘이중 연결 리스트’도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배열’은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저장 순서가 일치해 자료의 논리적 순서를 알면 읽기와 쓰기가 간단하지만 자료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저장될 자료와 다음에 올 자료의 포인터인 ‘다음 포인터’를 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하는 ‘연결 리스트’는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간단하다. 하지만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는 점이 단점이다.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는 ‘이중 연결 리스트’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연결 리스트’보다 자료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주제] 자료 구조의 종류에 따른 자료 처리 방식의 장단점

25.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료 접근 시간에 차이가 생기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은 ‘연결 리스트’이다. ‘배열’은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포인터’는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 구조를 가진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의미한다. ② ‘배열’은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지만, ‘연결 리스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구조의 자료 접근 방식은 다르다. ④ ‘연결 리스트’는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로 자료의 개수가 자주 변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다. ⑤ ‘이중 연결 리스트’는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논리 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기 때문에 한 저장소에 세 가지 다른 정보가 저장된다.

26.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실험은 동일 수의 자료를 논리순이 유지되도록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읽기, 삽입, 삭제를 동일 횟수만큼 차례로 실행하는 것이다. ‘배열’은 자료를 삽입, 삭제할 때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삭제 실험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에 비해 늘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결 리스트’는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 왜냐하면 ‘이중 연결 리스트’는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논리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기 때문이다. ③ ㉡은 자료의 삽입이 ㉡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에 ㉡에 비해 삽입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짧다. ④ ㉡은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 ⑤ 현재 포인터에서부터 앞뒤 어느 방향으로도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은 ㉡에 비해 읽기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지 않다.

[27-31] 시가수필복합

(가) 정극인, ‘상춘곡’

작품해설 : 작가가 관직으로부터 물러나 고향인 태인의 자연 속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된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이상적인 삶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봄의 완상(玩賞)과 안빈낙도(安貧樂道)

(나) 김광옥, ‘율리유품’

작품해설 : 작자가 만년에 고향에 돌아가 지은 연시조(17수)로, 세상의 부귀와 공명을 잊고 자연에 묻혀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내용을 읊고 있다.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화자가 소박하지만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는 멋을 노래하며, 현실 정치에 대해 풍자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주제]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전원생활의 여유와 풍류

(다)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립’

작품해설 : 박규수가 중국 북송의 명신 범중엄(范仲淹)이 늙어서 저택을 새로 짓지 않겠다고 말한 사언을 바탕으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펼친 글로,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이 글을 썼다. 여기에는 당시 조선의 현실이 깊이 투영되어 있다. 당시에는 서울 주변의 경관이 좋은 곳에 사대부들이 경쟁

적으로 저택과 정원을 꾸미고, 서로를 비교하여 평가하려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풍경이 좋고 나쁜 것도 주관에 따라 다르므로, 일정한 구경거리나 미적 기준이 있지는 않다고 본다. 즐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제 소유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떠한 풍경이든지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풍경이란 것은 철따라 장소 따라 변화하여 일정함이 없으며, 풍경을 보는 사람의 시선과 감정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남의 평가에 따라 풍경을 볼 필요 없이 제 느낌에 따라 보면 된다는 것이다.

[주제] 풍경을 소유하려 드는 세태 비판

27. 비판적 사고(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가)에서는 ‘물아일체어니 흥이야 다를쏘냐.’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에서는 3수의 ‘이 몸이 이 청흥을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28. 추론적 사고(관점의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수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풍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기’를 탐하는 ‘백구’는 권력을 탐하는 속된 정치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㉔은 자연을 즐기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④, ⑤ ㉔은 소유하지 않고 자연을 즐기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산림에 묻혀 지락을 아는 것’,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는 것’, (나)에서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즐기는 것’, ‘(벼슬살이의) 구속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는 것’ 등은 모두 세속적 소유를 거부하고 속물적 태도를 비판한 범희문의 가치관과 통한다.

29. 추론적 사고(작품 간의 표현 특징 비교)

정답해설 : [A]에는 꽃 피고 새 우는 봄의 정경 속에서 흥에 겨운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 흥겨움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반해 [C]에는 눈이 녹아 푸른색을 되찾아가는 봄의 풍경과 달리 늙음을 탄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 서글프게 느껴진다. [정답] ④

30. 추론적 사고(태도의 추리)

정답해설 : [B] 부분에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생활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양반 사대부이기는 하나 물질적인 풍요와는 거리가 먼 화자의 조촐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31. 추론적 사고(태도의 추리)

정답해설 : ㉔은 자연을 고정된 견해를 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인식하고 평가하며

소유하려는 사람의 태도이다. ②는 그와 같이 고정된 견해를 갖지 않고, 변화하는 자연의 경치를 열린 마음으로 감상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자연을 소유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예이다. ③ 자연에 대해 고정된 견해를 가지고 강요하는 예이다. ④, 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연을 다른 것과 비교하여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2~36]과학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지문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율리우스력과 대비하여 그레고리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레고리력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특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레고리력의 제정은 제정 당시로서는 역법 개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역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그레고리력이 정확성을 기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주제] 그레고리력의 제정 경위와 특성

32.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일치·불일치 파악)

정답해설 :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라는 구절에 주목하면 율리우스는 교회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하였음을, 즉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았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교황청은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게 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여 한 번에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사이의 10일의 오차를 수정하였다. ② 부활절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함에 따라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함으로 인해 그레고리력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율리우스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었고,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하였다. 이로 인해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다. ④ 율리우스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었다. 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제정되었다.

33. 추론적 사고(적절한 반응 추리)

정답해설 : 태양력, 즉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마련한 율리우스는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인 항성년과,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인 회귀년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한 역법을 만들고자 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는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으며, 음력에서는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②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에서는 태양의 운동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하고자 했고, 음력은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365일 5시간 49분 16초)을 채택한 것인데, 이는 보름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삼은 음력의 열두 달(354일)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1년이 354일인 평년에 한 달을 추가한 것이고 율리우스력의 윤년은 366일이다.

34. 사실적 사고(정보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보다 후대에 나타났는데,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한 것이며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4의 배수인 해가 윤년이 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이고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이 되므로 1700년은 평년이 되고, ㉡에서는 4년마다 윤년이 돌아오기에 1700년은 윤년이 된다. ③ ㉠에서는 4의 배수인 해가 윤년이 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이 되므로 4의 배수인 해는 윤년이 되는 ㉡보다 윤년이 자주 돌아온다고 말할 수 없다.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⑤ ㉠이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으며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35. 창의적 사고(다른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식당 중심은 태양에 대응하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도는 철수는 지구에 대응한다. 철수가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에서 출발하여 다시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항성년에 대응한다.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는 항성에 대응하는데, 태양과 지구와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항성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에서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이 회귀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철수가 원래의 식탁에서 출발하여 다시 그 식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에 대응한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②③④ ㉠가 지구, ㉡가 회귀년, ㉢가 항성년에 대응한다는 사실에 위배된다.

36. 어휘(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다.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라는 문장의 ‘으로’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다. ②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④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37~39] “원래 비통사적 합성어였던 ‘두더지’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두더지’의 예를 들어 옛날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였지만 현재는 단일어처럼 인식되어 그러한 원래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힘든 단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더지’가 옛날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였음에 착안하여,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인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통사적 합성어와의 대비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언어 변화로 인한 단어 구성 방식 파악의 난점

37.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 · 불일치 파악)

정답해설 :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였지만 현재에는 단일어로 여겨져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두디다’>‘뒤지다’와 같은 그동안의 언어 변화로 인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본래 합성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단일어로 여겨진다. ② 합성어 유형 구분의 기준은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③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른 것은 통사적 합성어이고,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견주어 볼 때 차이가 드러난다.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의 어간은 ‘ㅅㅌㅌㅌ-’인데, ‘ㅅㅌㅌㅌ>숫’의 형태 변화로 인해 아예 소멸되었다.

38. 비판적 사고(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해설 : ‘거우루엣’의 ‘엣’은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ㅌ’의 결합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기능이 오늘날의 ‘에’에 대응하지는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귀엣’은 ‘귀(명사)+ 에(부사격 조사)+ ㅌ(관형격 조사)’로 분석되며, ‘거우루엣’은 ‘거우루(명사)+ 에(부사격 조사)+ ㅌ(관형격 조사)’로 분석된다. ② <보기>에서 ‘제’는 생략될 수 있다. ③ <보기>에서는 ‘거우루엣’과 ‘그르멜’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이루었는데 ‘거우루엣’은 ‘귀엣’과 유사한 구성이고 <보기>의 ‘그르메’와 ③의 ‘말’은 모두 명사이므로 ‘귀엣’과 ‘말’ 사이에도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다. ⑤ 지문에 의하면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곧 비통사적 합성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귀엣말’은 ①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기>에서 ‘거우루엣 (제) 그르멜’과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 ‘귀엣’과 ‘거우루엣’이 그 짜임새가 같다는 것을 고려하면 ‘귀엣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합성어였을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39. 창의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해설: ㉔는 ‘오르-’라는 용언 어간과 ‘내리-’라는 용언 어간의 결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르내리다’라는 합성어로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읽다’와 ‘갈무리하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하면 ‘읽갈무리하다’가 된다. **[정답] ㉓**

[오답 피하기] ㉑ ‘가락’이라는 체언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것이다. ㉒ ‘빼빼한’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것이다. ㉔ ‘부드럽-’이라는 용언 어간에 ‘국수’라는 체언이 직접 결합한 것이다. ㉕ ‘새콤달콤’이라는,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에 ‘국수’라는 체언이 직접 결합한 것이다.

[40-43] 현대소설 - 이호철, ‘나상(裸像)’

작품해설 : 1956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북한군의 포로로 되어 만난 형제가 이송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특히 천진난만한 ‘별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이 소설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

40 추론적 사고(서술상의 파악)

정답해설 : 이 소설은 형제가 포로로 이송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제시된 소설에서 ‘형’은 천진난만한 순수함을 지닌 인물로 동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다. 우는 동생을 나무라면서 본인이 운다든가, 동생 귀에 속삭이는 행위, 동생의 허리나 허벅다리를 쿡쿡 찌르는 행위 등을 반복 서술하면서 ‘형’의 성격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는 내용은 유추할 수 없다. ㉒ 내적 독백이 아니라, ‘형’과 ‘동생’의 대화가 위주이다. ㉓ 현재와 과거의 교차 서술은 등장하지 않는다. ㉔ 간접인용이 아니라 ‘형’과 ‘동생’의 대화 내용이 직접 서술되어 있다.

41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소설에서는 형과 동생의 갈등 구도라든가 갈등 양상이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은 동생을 기특하게 여기고 동생 역시 형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정답] ㉒**

[오답피하기] ㉑ 눈이 흘날리는 것을 보며 울음을 그치고 ‘눈이 내린다.’라며 좋아하는 것으로 보아 ‘눈’은 형에게 동심을 불러일으킨 매개체라 할 수 있다. ㉓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라고 하여, 황량하고 쓸쓸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㉔ 형의 걸음이 자꾸 처지는 것은 형의 ‘담증’ 때문이고, 그로 인해 형은 경비병의 따발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㉕ 형이 죽게 되는 시점에서 ‘함박눈’이 내리는 것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 추론적 사고(개별 서사 요소의 의미 추론)

정답해설 : 동생은 자신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형의 마음을 차츰 깨닫게 된다. 아파하는 형의 모습에 동생은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다. 따라서 ‘무심하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은 글의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③ 출다면서 동생을 끌어안는 형에게, 공감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은 적절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④ 아파하는 형을 바라보지만 아무 것도 해 줄 것이 없다고 여기는 상황이므로 ‘동생’의 안타까운 눈빛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

43. 추론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이 소설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그리고 있다. ‘형’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동심을 잃지 않는다. 또한 포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등의 행동을 않는다. 따라서 형은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해 어떠한 저항의 행위도 보이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형’은 천진난만한 ‘별거숭이 인간’으로, 근원적인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보고 있다. ② ‘경비병’은 형제를 구속하는 존재이므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대한 상징이라 볼 수 있다. ⑤ 제시된 소설은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44-46] 사회, ‘채권 가격의 결정 요인’

지문해설 :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권 투자자는 순수익의 크기를 따져 채권을 매입하는데,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채권 가격은 만기와 지급 불능 위험에도 영향을 받는다. 만기가 길수록 채권가격의 변동 위험이 크다. 이렇듯 위험 요인이 크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이 상승하면 채권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 등의 다른 시장 상황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주제]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44. 비판적 사고(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을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채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의 여러 요인을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금리가 채권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채권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채’, ‘회사채’ 등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

45.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이는 지급 불능 위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자들은 지급 불능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만큼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구입해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채권의 현재 가치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은 채권의 액면 금액이 아니다. ② 채권의 순수익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것이다.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다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순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 수 있다.

46. 추론적 사고(그래프를 통한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떨어져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보기>의 그래프는 이러한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고 하고 있다. 이는 채권 가격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으로 그래프에 적용하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이다. 기울기가 작아진 것은 ㉠이다. ㉡에서는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고 있다. ㉢의 경우 채권 가격이 A보다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채권 가격이 하락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다. **[정답] ③**

[47-50]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운영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신분적인 제약이 심했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신분적인 제

약이라는 거대한 장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궁녀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죽은 김 진사와 운영이 선비 유영에게 나타나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액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으로, 금지된 사랑이 싹트고, 지속되고, 결국에는 발각되어 불행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고전 소설의 특징인 ‘행복한 결말(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특한 작품이다. 제시된 본문은 두 사람의 사랑에 반동 인물로 작용하는 ‘특’의 간계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이 시련을 겪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과 장애

4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특은 김 진사의 부탁으로 운영의 재물을 운용하는 인물인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간계를 꾸미고 있다. 도둑을 만났다는 것도 특이 지어낸 거짓말일 뿐이며, 특이 맹인에게 말한 것은 도둑이 버리고간 물건을 자신이 주웠을 뿐이며, 그것에 대해 김 진사가 욕심을 부린다는 허무맹랑한 내용들이다. 운영이 도둑을 맞았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사는 도둑을 만나 재물을 뺏겼다는 특의 말을 믿었으나 그것이 특의 소행임을 알고 뒤늦게야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특의 집을 수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③ ‘맹인의 이웃’이 특으로부터 들은 김 진사의 악행에 관한 이야기는 궁중으로까지 전파되어 대군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④ 대군은 김 진사와 관련된 소문을 듣고 서궁을 수색하게 하였고 서궁의 궁녀들을 형장에 세웠다. ⑤ 은섬은 대군의 처사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궁녀를 원망하거나 하는 태도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48. 추론적 사고(특정 제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궁궐의 담’은 궁녀의 생활 환경을 규정지을 뿐 아니라, 궁녀로서의 삶과 일반인으로서의 생활의 경계를 이루는 제재이다. 궁궐의 담 안에서 살아가는 궁녀들은 대군의 영향 아래 궁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궁녀로서의 신분에 벗어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는 곧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담은 위선과 진실의 경계라고 할 수 없다. 그 경계를 통해 위선과 진실의 특징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드러나는 장면은 없기 때문이다. ② 물질적인 문제는 담 밖에 있는 특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궁궐의 담 안쪽을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섬의 말로 보아 담 안의 궁녀들이라고 해서 담 밖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제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뿐이다. ⑤ 김 진사와 특의 관계로 볼 때, 담 밖에도 신분적 위계는 존재하고 있다.

49. 추론적 사고(관점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운영전’이 운영과 김 진사의 목소리로 서술되는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문제는 이런 특징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유형이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에 반동적인 인물로 작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서술하게 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서술하게 된다는 점에 의해 작품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맹인의 태도로 인해 주인공의 사랑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특의 욕심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역경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운영이 김 진사를 사랑하게 된 것도 궁녀라는 신분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다면 엄연히 ‘대군’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인공은 특의 배신만을 문제 삼아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특이 남몰래 웃음을 짓는다는 것을 통해 특의 간교함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이는 주인공이 특의 부정적 면모에 초점을 맞춰 지난 사건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는 것이기도 하다. ④ 대군은 궁녀들의 주군으로, 궁녀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그간 대군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궁녀들을 벌하고자 하는 대군에 대해서도 궁녀들은 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⑤궁녀들은 신분적 제약을 받는 몸이라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처지임이 은섬의 말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곧 운영의 사랑이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0. 추론적 사고(한자성어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은 특이 거짓으로 도둑을 만나 죽을 뻔하였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매우 급박하고 긴장되었던 순간, 하마터면 죽을 뻔한 순간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금방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룸’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재경각’이 가장 적절하다. 즉, 특은 김 진사에게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겨우 도망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내우외환(內憂外患): 나라 안팎의 걱정과 근심들을 이룸. ③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 데가 도무지 없음을 이룸. ④오리무중(五里霧中): 오리에 걸친 짙은 안개 속에 있어 방향을 알 수 없음과 같이, 무슨 일에 대해 알 길이 없음의 비유. ⑤자승자박(自繩自縛):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함을 이룸.

| | | | | | | | | | |
|------|------|------|------|------|------|------|------|------|------|
| 1.② | 2.③ | 3.② | 4.③ | 5.① | 6.⑤ | 7.② | 8.④ | 9.① | 10.③ |
| 11.⑤ | 12.③ | 13.④ | 14.① | 15.② | 16.④ | 17.④ | 18.③ | 19.③ | 20.⑤ |
| 21.② | 22.③ | 23.⑤ | 24.② | 25.④ | 26.⑤ | 27.③ | 28.⑤ | 29.① | 30.④ |
| 31.④ | 32.① | 33.② | 34.⑤ | 35.⑤ | 36.④ | 37.④ | 38.③ | 39.② | 40.① |
| 41.③ | 42.⑤ | 43.① | 44.③ | 45.② | 46.① | 47.⑤ | 48.③ | 49.② | 50.④ |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분 고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고 힘들게 생각될 때 '궁즉통(窮則通)'을 떠올려 보세요. 궁즉통은 『주역』에 나오는 말로 궁하면 통한다는 뜻입니다.

궁즉통에서 궁은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말합니다.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태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결국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통입니다.

궁즉통, 아무리 궁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통한다는 점에서 궁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궁즉통의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화자는 <주역>에 나오는 한자어 궁즉통(窮則通)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궁'은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이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또, 힘들더라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괴로워하는 친구에게 이 방송을 들려주기에 적합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이라는 내용은 있으나 핵심은 아니며, 더욱이 자만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③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추리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기심과 배려심으로 추리할 만한 내용이 없다. ⑤ 방송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이 중심이다. 더욱이 성과 이후의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2.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3차원 입체 영상이 나오는 3D 영화나 3D 텔레비전에 대해 들어 본 적 있으시죠? 1920년대 초에 이미 상업용 3D 영화가 나왔다고 하니 3D 영상 기술은 역사가 꽤 오래된 것이지요. 오늘은 평면인 화면을 입체로 느끼게 하는 이 3D 영상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람의 두 눈은 약 6cm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망막에 맺히는 영상에는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를 시차라고 하는데, 사람의 뇌는 시차가 있는 두 영상을 하나로 융합해 입체감이 있는 영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3D 영상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실현하려면 먼저, 왼쪽 눈을 위한 영상과 오른쪽 눈을 위한 영상, 다시 말해 시차를 고려한 두 개의 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다음으로, 오른쪽 눈을 위한 영상은 오른쪽 눈으로만, 왼쪽 눈을 위한 영상은 왼쪽 눈으로만 보게 해야 합니다.

두 개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눈처럼 간격을 띄운 두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같은 대상을 촬영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우 각각 다른 영상은 어떻게 보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3D 텔레비전에 많이 사용되는 셔터 방식과 필터 방식의 원리가 조금 다른데요, 셔터 방식의 경우에는 화면에 각각의 눈을 위한 영상이 번갈아 표시될 때, 3D 안경의 액정이 좌우 교대로 개폐되면서 각각의 눈이 두 영상을 번갈아 보게 합니다. 필터 방식의 경우에는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내면, 3D 안경이 각각의 눈에 맞는 영상만 걸러서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차가 있는 평면 영상을 실제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강연 중간 부분의 ‘두 개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눈처럼 간격을 띄운 두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같은 대상을 촬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 3D 영상을 만들 때에는 시간을 두고 두 번 촬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강연의 첫 부분에 ‘1920년대 초에 이미 상업용 3D 영화가 나왔다고 하니’라는 언급이 있다. ② 사람의 뇌는 시차가 있는 두 영상을 하나로 융합해 입체감 있는 영상으로 파악하게 된다고 했다. ④ 강연의 끝 부분에서, 셔터 방식은 각각의 눈을 위한 영상이 번갈아 표시되고, 3D 안경의 액정이 좌우 교대로 개폐되면서 각각의 눈이 두 영상을 번갈아 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마찬가지로 강연의 끝 부분에서, 필터 방식의 경우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내면 3D 안경이 이를 걸러서 각각의 눈에 맞는 영상만 보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이번에는 인터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
|---|
| <p>학 생 :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고등학교 신문반 학생입니다.</p> <p>교 수 : 예, 안녕하세요.</p> <p>학 생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신문 특집 기사로 '스포츠마케팅'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p> <p>교 수 : 스포츠마케팅은 기업이 스포츠 팀을 운영하거나 선수 또는 대회를 후원해서 기업이나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합니다. 국내외의 우수 기업들이 유명한 스포츠 팀이나 대회를 후원함으로써 막대한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마케팅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p> <p>학 생 : 그럼 월드컵 경기 때 기업들이 길거리 용원을 후원한 것도 스포츠마케팅이라 볼 수 있을까요?</p> <p>교 수 :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졌죠. 그 덕분에 대학에서도 스포츠마케팅 관련 학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p> <p>학 생 : 네. 스포츠마케팅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학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p> <p>교 수 : 워낙 공부할 분야가 다양해서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포츠마케팅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교과목들을 배웁니다.</p> <p>학 생 :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세요?</p> <p>교 수 : 스포츠마케팅이 선진국에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어요.</p> <p>학 생 : 아,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p> |
|---|

3. 추론적 사고(정보 조직하기)

정답해설 : 인터뷰에서 스포츠마케팅의 문제점을 이끌어낼 만한 내용은 교수의 마지막 발언, 즉 ‘스포츠마케팅이 선진국에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발언은 우리나라 스포츠마케팅의 현황을 언급하는 내용이니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인터뷰 첫머리에서 ‘스포츠마케팅은~기업이나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③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서 ‘하지만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

다고 볼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④ ‘국내외의 우수 기업들이 유명한 스포츠 팀이나 대회를 후원함으로써 막대한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마케팅의 사례’라는 언급이 있다. 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스포츠마케팅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교과목들을 배웁니다.’라는 설명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4~5. 이번에는 학급 회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의 장: 학급 여행지 선정 투표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제안이 있어,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안을 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안자(남학생): 지금처럼 3개의 후보지가 있는 경우 다수결 방식으로 하면 과반수가 안 되는 곳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1순위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지 하나를 탈락시킨 후, 이 사람들의 2순위 표를 나머지 두 후보지에 1순위로 투표한 것처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의 장: 여기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자(여학생):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 학생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새로 1순위가 된 2순위 표와 처음의 1순위 표의 가치가 같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1순위 표가 가장 많았던 후보지가 탈락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의 장: 제안자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자: 물론 1순위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요. 만약 다수결 방식으로 할 경우, 우리 반 30명의 학생 중 심지어 11명의 외사로 여행지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호도 투표 방식으로 하면 학생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자: 선호도 투표 방식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1, 2, 3순위 표의 가치에 차이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안자: 그러면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1, 2, 3순위를 적어서 내는 것은 그대로 하고, 대신 순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 후, 그 점수의 합계로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대자: 음……, 그렇게 하면 선호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겠네요.

의 장: 수정 제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사실적 사고(발언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제안자인 남학생은 다수결 방식의 경우 1위를 차지한 의견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1순위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서 제안자가 소수의견의 반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개의 후보지가 있는 경우 다수결 방식으로 하면 과반수가 안 되는 곳이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선호도 투표 방식은 1순위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지 하나를 탈락시킨 후, 이 사람들의 2순위 표를 나머지 두 후보지에 1순위로 투표한 것처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반대자인 여학생은 선호도 투표의 경우 새로 1순위가 된 2순위 표와 처음의 1순위 표의 가치가 같아져, 처음에 1순위 표가 가장 많았던 후보지가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선호도 투표 방식의 장점에 동의하지만 1, 2, 3순위 표의 가치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제안자인 남학생은 순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 후, 그 점수의 합계로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 제안하고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반대자인 여학생은 첫 발언에서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 학생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라며 시작하고 있다. 두 번째 발언에서도 ‘선호도 투표 방식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③ 30명 중 11명의 의사로 여행지가 결정되는 사례를 구체적인 통계자료로 본다 하더라도 이 발언은 제안자인 남학생이 한 것이다. ⑤ 반대자인 여학생은 선호도 투표 방식의 경우 1순위 표와 2순위 표의 가치가 같아진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 다른 대상에 빗대서 말하지는 않았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민속놀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일의 수행 원리를 유추해내는 문제이다. ⑤에서는 난이도에 따라 일을 분류하여 단계별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연 날리기’와 ‘팽이치기’에서 착안한 내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오히려 팽이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팽이를 치면 팽이가 더 잘 돌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용하면 연을 띄우기가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이 놓인 상황을 활용하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정확한’ 순간에 제기를 차야 하고, 널에서 뛰어오르는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착안점에 근거할 때,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다. ② ‘상대에 따라’ 널을 구르는 힘을 달리하고, 상승할 때와 하강할 때의 자세가 달라야 한다는 착안점에 근거할 때, ‘상황에 적합한 수행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다. ③ 그네가 ‘느려지면 (그네의 발판에) 힘을 주’어 구르고, 팽이가 ‘천천히 돌면’ 역시 힘을 주어 채찍질을 한다는 착안점에 근거하여, 진행 과정을 살펴 일(발판 구르기, 채찍질)의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다. ④ 연을 반복하여 다루면 연의 조정이 쉬워지고, 제기차기를 연습하면 능숙하게 제기를 칠 수 있다는 착안점에 근거할 때, 꾸준히 노력하면 일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다.

7. 비판적 사고 (구상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발표 계획에서는 김홍도의 화풍을 ‘당대의 사회 풍속’ 또는 당시의 ‘시대적 특징’을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②에서는 김홍도의 작품을 현대 미술 작품과의 관련성이나 현대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구상의 계획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프리젠테이션의 주제가 ‘당대의 사회 풍속을 해학적으로 그려 낸 김홍도의 화풍’이므로, ‘해학으로 시대를 그려 낸 김홍도의 화풍’이라는 제목은 주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김홍도의 작품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텔레비전 드라마와 신문의 기사문을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자는 계획이 반영되었다. ④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작품에서 느낀 ‘재미’와 실제 씨름을 관람하였을 때 느낀 ‘즐거움’을 관련지어 설명한다고 하였으므로, 발표자의 경험과 작품을 연계하여 표현하자는 계획이 반영되었다. ⑤ 당대 사회의 모습이 김홍도의 그림에 표현된 양상을 설명한다는 내용은 시대적 특징과 관련하여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작품의 소재와 기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에는 ‘화풍의 특징’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8.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2>는 우유 팩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자료 3>은 우유 팩 재활용 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두 자료에서 ‘폐기물 자원 활용을 위한 유통 체계 개선’이라는 내용을 이끌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료 1>은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우유 팩 재활용률이 매우 낮고, 우유 팩의 재활용률은 일반 폐지에 비해서도 낮다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우유 팩 재활용률의 상황을 서구와 우리나라, 일반 폐지와 우유 팩 차원에서 비교하여 제시하면, 우유 팩이 충분히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② <자료 2>는 우유 팩의 양쪽에 붙어 있는 ‘폴리에틸렌

필름'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우유팩 재활용 실태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외에 환경오염적 측면도 제시하여 주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다. ③ <자료 3>은 '재생지 품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우유 팩 재활용에 대한 의식 부족'을 '우유 팩 재생지 품질에 대한 ~ 부정적 인식'으로 수정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 ⑤ 단순히 '요약 및 전망'으로 제시하지 않고,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 자원 보존'으로 제시하면 본론을 요약(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하고 전망을 제시(환경 자원 보존)할 수 있다.

9.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우유 팩을 재활용한 내용이 '나무', 더 나아가 '지구'를 살린다는 ①의 내용은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라는 주제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표현하고 있고, '나무' → '지구'의 단계로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보기>에 제시된 첫째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우유팩이 '나무를 지키고', '나무'가 '지구를 살'릴 것이라는 표현 방식은 <보기>의 둘째 조건에 제시된 비유법(의인법도 비유법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우리가 살린 우유 팩 나무를 지키고'에 쓰인 통사 구조가 다음 행에도 반복되어 쓰인 표현은 <보기>의 둘째 조건에 제시된 대구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비유와 대구의 표현이 쓰였으나, 우유 팩 재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층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③ 우유 팩 재활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첫째 조건에 어긋나고, 비유만 쓰이고 대구가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둘째 조건에 어긋난다. ④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둘째 조건 중에서도 비유의 표현 방법만 활용되었다. ⑤ 우유 팩 재활용의 효과가 점층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둘째 조건 가운데 비유의 표현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의 앞뒤 문장은 둘 다 여름철 감기의 예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문장은 '나열' 또는 '추가'의 관계로 이어지므로, '또한'이라는 접속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를 각각 나타내는 문장 사이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며, ㉡에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여름철 감기'라는 화제를 다루는 문단에서 '감기'에 해당하는 고유어가 무엇인지 진술한 문장은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되어-'와 '-지는'의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쓰였으므로, '노출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열이나 기침을 할 때에는'에서 '기침을 하다'는 호응이 되지만, '열'은 '하다'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이 나거나'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소량(少量)'의 '소(少)'는 '조금씩'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조금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어휘·어법 (반의어의 유형)

정답해설 : ‘가다’와 ‘오다’는 이동 방향이라는 의미 차원에서 상대적 관계를 가지므로, <보기>에서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향 반의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반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달라야 한다고 했으므로, 공통 의미 요소만 갖고 있으면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의 ‘처녀’와 ‘총각’은 ‘성별’의 의미 요소가 다르지만, ‘손녀’와 ‘할아버지’는 ‘성별’과 ‘연령(세대)’의 의미 요소가 다르다. 단 둘 이상의 의미 요소가 다르므로 반의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선배’가 아닌 사람에는 ‘동기생’도 있고 ‘후배’도 있으므로, ‘선배’와 ‘후배’를 모순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에서 ‘길다’와 ‘짧다’는 그 사이에 중간 등급이 있는 반의 관계라고 하였으므로, ‘길지 않다’를 ‘짧다’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어휘·어법 (‘들’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의 ‘-들’은 셀 수 있는 명사 ‘아이’에 붙어 ‘아이’에 복수의 뜻을 더하고 있다. ㉡이 들어 있는 문장의 생략된 주어는 ‘어머니’이고, ‘어머니’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므로, ㉢의 ‘-들’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들’은 ‘부사어(어서)’에 붙어 ‘어서 오세요’의 주어가 손님 1과 2의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의 ‘들’은 ‘부사어(밖에서)’에 붙어 ‘밖에서 마시다’의 주어가 손님 1과 2의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의 ‘나와서들’에서는 ‘들’에 ‘연결어미(-아서)’가 결합되어, 나와서 인사하는 주체가 영희와 철수,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의 ‘들’은 ‘부사어(많이)’에 붙어, ‘많이 크다’의 주체가 영희와 철수,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13-15] 인문, ‘밀이 제안한 일치법과 차이법’

지문해설 : 이 글은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존 스투어트 밀이 제안했던 ‘일치법’과 ‘차이법’을 설명하고 있다. 일치법은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결과가 발생한 여러 경우들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한편 차이법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여, 선행하는 요소들 중에서 유일한 차이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일치법과 차이법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선행하는 요소들이 더 이상 없는지, 드러나지 않은 요소는 없는지, 누락시킨 요소들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우연히 선후 관계로 일어난 현상과, 하나의 원인이 야기한 두 가지 현상을 인과 관계와 구별해야 한다.

[주제]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1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일치법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여러 경우들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⑤를 보면 20명의 아기들이 ‘신장 결석’이라는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신장 결석에 걸린 20명의 아기들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인 ‘A사의 분유’를 찾아 이것을 ‘신장 결석’의 원인으로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일치법의 사례로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일치법으로 ‘두꺼비의 울음’이 ‘장대비’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대비’가 내리는 여러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두꺼비의 울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경우만 제시되어 있어 ‘두꺼비의 울음’이 여러 상황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② 일치법으로 ‘열’이 ‘붉은 반점’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붉은 반점’이 나는 여러 경우에 공통적으로 ‘열’이라는 요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경우만 제시되어 있어 ‘열’이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③ 일치법으로 ‘커피’가 ‘불면’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면’이 되는 여러 상황에 ‘커피’라는 요소가 공통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면’하는 날 저녁에만 커피를 마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커피’는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과의 차이가 되고 있다. ④ 일치법으로 ‘컴퓨터 게임 시간의 증가’가 ‘학력 하락’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력 하락’이 되는 여러 경우에 공통적으로 ‘컴퓨터 게임 시간의 증가’라는 요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컴퓨터 게임 시간의 증가’가 ‘학력 하락’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인지 판단할 수 없다.

14. 추론적 사고(정보 도식화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차이법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여, 선행하는 요소들 중에서 유일한 차이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차이법을 도식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 즉 ‘X’와 ‘-X’가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유일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X’와 ‘-X’의 사례가 있으면서, 두 사례의 유일한 차이(a)가 있는 ①이 차이법을 적절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결과가 나타난 사례(X)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X)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두 사례의 선행된 요소의 차이는 ‘a, c, d, e, f’가 되어 a가 유일한 차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 ③ 결과가 나타난 사례(X)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X)가 모두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는 선행하는 요소들의 유일한 차이가 아니라 공통된 요소이다. ④ 결과가 나타난 첫 번째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 요소의 차이는 a, b, e 세 개나 된다. 또한 결과가 나타난 두 번째 사

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 요소의 차이는 a가 아니다. ⑤ 결과가 나타난 첫 번째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 요소의 차이는 a가 아니라 c이다. 또한 결과가 나타난 두 번째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 요소의 차이는 a와 f 두 개나 된다.

15. 비판적 사고(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문제에서 ‘㉠에 유의하여 [가]의 판단을 검토할 때’라고 했으므로, ‘선행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밝혀진 요소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요소는 없는지, 누락된 요소 또는 인식하지 못해 누락시킨 요소는 없는지’를 고려해서 [가]의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함께 먹은 음식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와 같은 진술은 ㉠과 관련이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들의 건강 상태’는 ‘선행하는 요소’ 가운데 검토해야 할 항목이라 할 수 있다. ③ ‘잊어버리고 기록하지 않은 음식’은 ‘인식하지 못해 누락시킨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돼지고기를 담은 그릇’은 ‘밝혀진 요소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요소’에 해당한다. ⑤ ‘다른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지만 그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학생’은 ‘누락시킨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한 내용이다.

[16~18] 사회, ‘혁신의 공간적 확산’

지문해설 : 이 글은 혁신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혁신의 확산은 시공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기, 확산기, 심화·포화기의 3단계로 공간 확산 과정을 거친다. 혁신의 공간적 확산은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염 확산은 인접 효과에 의해 나타나고 계층 확산은 계층 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아울러 혁신의 수용자 수는 초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증가한 후 결국 포화 상태에 이르는 양상을 보인다.

[주제] 혁신 확산의 단계와 특성

16. 추론적 사고(글의 세부 내용 추리)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혁신의 수용자 수는 초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포화 상태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보인다. 따라서 수용자 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혁신 수용자는 혁신을 수용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 수용자가 혁신을 수용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계층 효과에 따른 계층 확산으로 인해 규모가 큰 도시에서 규모가 작은 도시로 혁신이 전파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규모가 혁신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것을 보고 수용하는 ‘다수의 후기 수용자’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꺼려서 한참 지나서야 한참 지나서야 혁신을 수용하는 ‘소수의 지각자’는 소극적인 수용자들이라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심화·포화기에는 최초 발생원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므로 심화·포화기에는 수용률은 거리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7.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사례에 적용)

정답해설 : 새로운 여행 상품의 예약이 폭주한 이유는 여행사의 ‘인터넷 광고’보다 ‘텔레비전 광고’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광고’와 ‘텔레비전 광고’ 두 가지는 모두 대중 매체로 인한 것이므로 ㉠의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은 ‘미용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미용사들의 지역 모임’이, ②는 ‘경제 뉴스’보다 ‘직장 동료들’이, ③은 ‘신문 광고’보다 ‘직거래 구매자들의 입소문’이, ⑤는 ‘라디오 광고’보다 ‘손님들의 호평’이 확산에 더 큰 영향을 준 요인이므로 ㉠의 ‘대중 매체’보다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확산에 더 큰 영향을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8. 비판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타당성 판단)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계층 확산은 도시 규모가 클수록 혁신 확산이 잘 이루어지는 계층 효과에 의해 나타나며, 규모가 큰 도시로부터 그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로 혁신이 전파되는 양상을 띤다. 그러므로 거대 도시에서 유행하는 최신 패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도시로 전파된 것은 계층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ㄴ) 또한 1문단에서 혁신의 공간 확산은 발생기, 확산기, 심화·포화기를 거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화기를 대도시의 부유층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발생기로, 어디서나 전화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심화·포화기로 ‘전화기’의 확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ㄷ) 따라서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사례는 ㄴ, ㄷ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1문단에서 혁신의 확산은 특정 지역이나 사회 집단의 문화나 기술, 아이디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지역 또는 사회 집단으로 전파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술관에서 매년 같은 내용의 기획 전시를 하는 것은 이러한 시공간적인 전파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혁신 확산의 예로 볼 수 없다.(ㄱ) 3문단에서 혁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혁신 수용자는 소수의 혁신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트북 컴퓨터가 처음 시장에 나오자마자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전기 수용자가 아니라 소수의 혁신자라고 해야 한다.(ㄹ)

[19-24] 시가 복합

(가) 김동명, ‘파초’

작품해설 : 원산지인 ‘남국’을 떠나 추운 곳에서 가련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파초에

화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여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견디어 내려는 태도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파초와 화자는 ‘조국’을 떠나 ‘겨울’을 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화자가 파초를 바라보는 시선은 연민, 위안, 동류의식과 연대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파초를 부르는 호칭이 ‘너’에서 ‘우리’로 바뀌고 있다는 점, 화자가 파초를 향해 하는 행위의 변화 등에서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의 창작 연대를 감안할 때, ‘겨울’은 일제 치하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견디어 나가려는 태도

(나) 김광균, ‘수철리’

작품해설 :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은 화자가 느끼는 감회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무덤 옆 밤나무의 여윈 가지, 노을에 젖은 비석,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 등의 이미지를 통해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배경으로 깔린 ‘노을’과 ‘황혼’은 이러한 비애의 분위기와 조응하고 있다. 여윈 ‘흰나비’는 ‘무형한 공중에 체온이 꺼져 버린’ 누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화자는 누이의 영혼이 ‘갈 길을 못 찾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제는 누이가 다시 ‘함박꽃’처럼 눈을 뜰 수 없다는 인식으로 비애와 서러움에 젖고 있다.

[주제]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느낀 감회

(다) 윤선도, ‘견희요’

작가인 고산 윤선도가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연시조이다. 제1수에서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강직한 성품이 드러나고, 제2수에서는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하소연이, 제3수에서는 임금을 향한 변함 없는 충성심이, 제4수에서는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리고 제5수에서는 충(忠)과 효(孝)를 동일시하는 마음이 표출되어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 없는 충성심

19. 비판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아 누이동생을 추억한다. 그러나 누이동생은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흙 속에 묻혀 있으며, 나즉-히 불려도 ‘함박꽃처럼’ 다시 눈을 뜰 수 없다. 삶과 죽음이라는 절대적 갈림길에서 화자는 서러움에 젖어 있는 것이다. (다)에서 북방에 유배중인 화자는 ‘아버이’를 몹시 그리워하지만 ‘길고 긴’ 뉘, ‘멀고 먼’ 물로 표상되는 아버이와의 거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안타까운 그리움을 ‘울고 가는 외기러기’의 형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어 내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

으며, (나)에는 죽은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느끼는 감회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반대되는 이상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찾기도 어렵다. ② (가)에서 파초를 통해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는 않고 있으며, (다)시는 자연의 섭리와는 관련이 없다. ④ (나)에서는 대립적 가치를 찾기 어려우며, (가)와 (다)에서는 대립적 가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그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된다기보다는 화자의 마음이 정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⑤ (가)~(다) 모두 시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20. 추론적 사고(화자의 태도 추리)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조국을 떠나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와 ‘꿈’에 젖어 있는 파초에서 연민과 동류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샘물을 길어 발등에 부어주기도 하고, 밤에는 머리맡에 있게 한다. 이러한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화자는 파초에게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말한다. 이는 ‘겨울밤’으로 상징되는 현실 상황을 함께 견디려는 태도를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정적 현실 상황 변화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의 ‘비인 묘지’에는 물소리와 바람 소리가 있을 뿐, 그 묘지 위에 별들이 무엇을 속삭였는지 모른다.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을 뜰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알기에 ‘서러운 생각’에 사무치고 있다. 누이동생의 죽음이라는 현실 상황은 변화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화적’은 ‘상대를 용서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의 뜻을 가진 말이다. (가)에서 상대를 용서하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나)에 ‘독단적’인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② ‘단정적’은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의 뜻을 가진 말이다. (가)에서 화자가 대상(파초)를 향해 보이는 태도는 연민, 동질감, 일체감, 유대 등이므로 이러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나)에 나타나는 공허감, 적막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분명하지는 않다. ③ (가)에서 대상과의 관계 단절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나)에서는 화자가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관계 형성’을 열망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나)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절대적 거리감에서 화자의 비관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역시 분명하지는 않다. ‘낙천적’은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의 의미로, (가)에서 낙천적 태도를 읽을 수는 없다.

21.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소낙비’는 여인으로 의인화된 ‘파초’의 정열을 나타내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으며, ‘샘물’을 ‘발등에 붓는다’는 화자가 파초에 대해 갖는 연민을 드러내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B]에서 ‘울어 예는 시내’는 ‘임 향한 내 뜻’과 정서를 구체화하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B]를 문답 형식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대상인 ‘시내’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 의지의 투영으로 보아야 한다. ③ ④ ⑤ 대구, 반어적 표현, 어조 변화는 두 부분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2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에서 화자가 파초의 발등에 물을 부어주거나, 자신의 머리맡에 있게 하는 등의 행위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파초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초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연민과 동류의식이다. 파초는 화자에게 모성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돌봐주어야 대상이자 연민의 대상, 자신과 동일시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에서 ‘머리맡에 있게 한다’는 구절은, ‘조국을 떠났다’, ‘밤이 차다’로 보아 파초를 돌보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는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즐거 너를 위해 종이 되’고 싶다는 구절에서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화자는 ‘파초’를 위해 샘물을 길어 발등에 붓고, 차가운 밤에는 머리맡에 있게 하며, 즐겨 종이 되고자 한다. 이는 화자가 파초에서 느끼는 연민과 동류의식, 일체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감정과 의식은 마지막 연의 ‘우리’라는 표현으로 집약된다. 그러기에 화자는 ‘차가운 겨울밤’으로 상징되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우리의 겨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3.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동생의 가슴 우’에 내리는 ‘비’, 쌓이는 ‘눈’과 ‘이마 우에서’ 속삭이는 별은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와 함께 죽음의 적막함과 공허감을 상기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지를 찾기는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환-하고’, ‘아득-한’ 등의 ‘-’는 그것이 없을 때보다 시어가 가지는 느낌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② 누이동생 무덤 옆의 ‘밤나무’는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젓는다. 이러한 밤나무의 형상은 무덤 주변의 적막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③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에 이어진 ‘어느 무형한 공중으로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라는 구절로 보아 ‘흰나비’는 ‘누이동생’을 연상시키는 소재라 할 수 있다. ④ 화자는 누이의 무덤 옆에서 누이를 떠올리고 있다.

24. 창의적 사고(부분과 전체의 유기적 구조 및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2수로 보아, 망령된 ‘내 일’은 ‘임 위한 탓’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기에 종장에서 보듯이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3수의 ‘내 뜻’은 ‘임 향한’ 것이기에, ‘내 일’을 ‘내 뜻’에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내 일’을 두고 ‘아무가’ 임에게 이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제3수의 ‘추성’은, 제4수의 ‘길고 긴’ 뉘, ‘떨

고 먼' 물로 인해 화자가 그리워하는 '아버이'가 계시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공간임이 드러난다. ④ 제4수의 '뜻'의 대상은 '아버이'이다. 제5수에서 화자는 '임금을 잊으면 귀 불효인가 여기노라'하여 '효'의 대상을 임금으로 확대하고 있다.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임금에 대한 '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제1수와 관련하여 보면, 임금을 향해 '내 몸의 해울 일'만을 닦고 닦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5-28] 현대소설 - 오영수, '화산댁이'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52년에 발표된 소설로 전통적인 가족애가 근대화로 붕괴되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점을 시골에 사는 어머니(화산댁이)와 도시에 사는 아들과의 갈등과 소재의 대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메산골에 사는 화산댁이는 버리고 멀리 도시에서 도방을 하는 작은아들을 찾아온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화산댁이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아들은 화산댁이에게 고무신을 주고는 신고 온 짚신을 갖다버린다. 저녁을 먹을 때는 화산댁이가 밥이 적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밥을 퍼주지만 아들은 역정을 내며 화를 낸다. 그리고 화산댁이가 아들이 좋아하는 꿀밤떡을 어렵게 갖고 왔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너덧 살 된 손녀는 한 입 씹고는 뱉어버린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화산댁이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일찍 자라고 한다. 잠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치다꺼리다가 참아왔던 뒤를 보기 위해 집밖으로 나온다. 그러나 뒷간을 찾지 못한 화산댁이는 새벽에 치울 심산으로 할 수 없이 담 밑에다 뒤를 본다. 그런데 아침에 뒤를 갖다버린 쓰레기통에서 화산댁은 꿀밤떡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본다. 화산댁은 결국 아들집을 떠나 자신이 살던 시골로 되돌아온다.

[주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붕괴되어가는 가족애

25. 사실적 사고(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화산댁이는 아들을 위해 귀한 꿀밤떡을 해왔지만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일찍 자라고 한다. 이런 아들에 대한 화산댁이의 심정은 '자꾸만 쓸쓸했다. 뒷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이러한 심정은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눕는다.'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화산댁이는 수더분한 색시에게 장가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하는 아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화산댁이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아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아들은 손 끝에 짚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로 보아, 화산댁이가 고무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② 지문에는 꿀밤떡을 내뱉는 손녀에 대한 화산댁이의 반응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화산댁이의 '저거 조면(자기네들끼리 좋으면) 그만이지'로 보

아, 화산택이가 며느리를 나무라고자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⑤ ‘화산택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로 보아, 화산택이가 시골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서 날이 빨리 새기를 바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6. 추리적 사고(장면이 갖는 기능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A]는 화산택이가 큰아들 내외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을 상상한 것으로, 이곳에서 화산택이는 큰아들 내외와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고 있다. 화산택이가 이런 상황을 상상한 것은 작은아들의 집에서는 그런 가족애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산택이는 큰아들 내외와 살고 있는 상황과 작은아들 내외와 함께 있는 현재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를 통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없다. ② [A]는 화산택이가 자신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일들을 상상한 것으로, 배경이 환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도 허구성이 강조된 것이 아니다. ③ [A]는 화산택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내적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④ [A]는 화산택이의 상상으로 사건이 병치된 것은 아니다.

27. 추론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서술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제는 서술자가 서술할 때 서술자의 시각에서 서술하는지, 아니면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지를 구별하라는 것이다. ㉞은 적산집에는 뒷간이 밖에 없다는 사실을 서술한 것으로 서술자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㉟은 화산택이의 심정을 서술한 것으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② ㉠은 화산택이가 이야기 소리를 들었다는 서술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④ ㉡은 화산택이의 심정을 서술한 것으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⑤ ㉢은 화산택이가 아침에 뒷간을 찾아보아도 못 찾았다는 서술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28. 비판적 사고(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해설 :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소재들이 ‘시골(자연)과 도시(문명)’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영위되는 삶의 양식의 대비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수채’는 집안에서 버린 물이 집 밖으로 나가도록 만든 시설로, 도시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시골의 뒷간과 대비되는 사물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짚세기’는 화산택이가 시골에서 신던 것이고, ‘고무신’은 도시에서 작은아들이 준 것이다. ② ‘초가집’은 화산택이의 시골집이고, ‘적산집’은 작은아들의 도시 집이다. ③ ‘토벽’은 화산택이의 초가집 벽이고, ‘횃가루 벽’은 작은아들의

도시 집 벽이다. ④ ‘갈자리 방’은 화산택이의 시골집 방이고, ‘다다미방’은 작은아들의 도시 집 방이다.

[29-32] 기술, ‘진공관과 트랜지스터’

지문해설 : 2극 진공관과 3극 진공관의 구조 및 원리를 설명한 후, 진공관의 문제점을 극복한 트랜지스터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극 진공관은 유리관, 필라멘트, 금속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속판에 (+)전압 또는 (-)전압을 걸어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한다. 3극 진공관은 2극 진공관과 달리 그리드라는 전극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드는 전류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진공관은 부피가 크고, 유리관이 깨지기 쉬우며, 예열이 필요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트랜지스터이다. 트랜지스터는 잉여전자를 이용하는 n형 반도체와 정공을 이용하는 p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 진공관과 트랜지스터의 구조 및 원리

2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 해설 : 트랜지스터의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pnp 혹은 npn 접합 소자로 불리는 트랜지스터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pnp나 npn 구조로 3개를 접합해 만든 것이다. 여기서 가운데 위치한 n형이나 p형 반도체는 진공관의 그리드처럼 증폭 기능을 담당한다. 즉 pnp 접합 소자에서는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를 사용해 전류를 증폭한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2문단에서 진공관의 개발이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의 출현 및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 ③ 플레밍은 에디슨이 우연히 진공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한 것을 토대로 2극 진공관을 발명하였다. 3극 진공관은 2극 진공관이 발명된 이후에 개발된 것이다. ④ 4문단에서 pn 접합 소자가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진공관 내부의 필라멘트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된다고 하고 있다.

30. 추론적 이해(시각 자료를 통한 정보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잉여 전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n형 반도체에 해당하고, (나)는 정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p형 반도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 (나), (가)를 차례로 접합하면 npn 접합 소자가 된다. npn 접합 소자는 가운데 위치한 반도체가 증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잉여전자는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순수한 규소는 원자의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인 최외각 전자가 4개이며 최외각 전자들은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 ③ (가)는 최외각 전자

가 5개인 비소를 규소에 소량 첨가해 만든 n형 반도체이다. 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한 후 n형에 (-)전압을, p형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른다.

3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해설 : 진공관은 부피가 컸으며, 유리관은 깨지기 쉬웠고, 필라멘트는 예열이 필요하고 끊어지기도 쉬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n형과 p형 반도체를 접합해 만든 트랜지스터이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를 적용한 보청기’도 기존의 ‘진공관을 사용한 보청기’에 비해 부피가 작아졌으며, 유리관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예열도 필요 없어졌다. 내부를 진공으로 만드는 것은 ‘진공관을 사용한 보청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 진공관을 사용하면 진공관이 유리였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반도체는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예열이 필요 없다. ② 반도체는 진공관에 비해 부피가 작은 장점이 있다. ③ 트랜지스터의 가운데 위치한 반도체가 진공관의 그리드와 같은 역할을 해 트랜지스터는 증폭 기능을 한다. ⑤ 규소나 게르마늄에 불순물을 첨가해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32. 어휘·어법(어휘의 의미 이해)

정답 해설 : ㉠의 ‘토대’는 ‘어떤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밑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토대’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기초, 기틀, 바탕, 발판’ 등은 적절하나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33-36] 예술, ‘연주 개념의 역사적 변천’

지문 해설 : 시대에 따라 변화된 연주의 의미에 대해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18세기에는 당시 유행하던 영향미학에 따라 음악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으며, 그에 따라 연주란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악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19세기에 들어 바뀌었다. 형식에 의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연주자는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에 의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연주가 해석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에 들어 변화했다. 음악의 전문화 현상에 영향을 받아 연주자들의 독자성이 강조되면서 연주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주제] 시대에 따라 변화된 연주의 의미

33. 비판적 사고(내용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 해설 : 이 글은 연주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연주라는 중심 개념의 변천을 역사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연주의 의미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기존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시대에 따른 연주의 의미 변화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어 시대에 따른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대비되는 견해를 절충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연주의 효용성을 예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연주의 의미가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뿐,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34. 추론적 사고(정보의 추리)

정답 해설 : ㉠은 ‘18세기의 연주’를 의미한다. 18세기에는 음악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 감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연주는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작곡자가 의도한 ‘내용’인 객관적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연주자가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작품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② 작곡자와 연주자가 뚜렷이 분리된 것도 20세에 들어서 이루어진 일이다. ③ 작품의 형식에 의한 아름다움의 의미들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시기는 19세기이다. ④ 형식을 강조한 아름다움은 19세기 음악의 특징이다.

3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해설 : 20세기에는 연주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작품의 해석이 중요해졌다. 그에 따라 작곡자의 작품은 연주자에 의해 재창조되었다. 연주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작품이 본래의 악곡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맥적으로 ㉠은 바로 연주자의 개성에 따른 주관적 해석에 의해 작품이 새롭게 지니게 된 의미를 뜻한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예는 ⑤이다. ⑤에서는 연주자가 자신의 개성에 따라 베토벤의 <월광>의 빠르기와 셈여림에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을 중시했던 것은 18세기의 경향이다. ② 작품이 지닌 형식의 아름다움이 강조된 것은 19세기 음악의 특징이다. 또한 곡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연주자의 주관적 해석과는 관련이 없는 감상이다. ③ 작품의 주제 선율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작품이 본래 지닌 내용이 충실하게 관객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은 작품이 본래 지닌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 작품의 효용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36. 어휘·어법(사전적 의미의 이해)

정답 해설 : ‘향유’는 ‘누리어 가짐’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인데, ‘혼자서 독차지하여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혼자서 독차지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은 ‘독점’이다.

정답 ④

[37-39] 드라마 극본 - 김영현, 「대장금」

작품해설 : 이 글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임금의 여주치의로 활약했던 의녀 대장금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대장금’의 극본이다. 수라간에서 요리를 하던 대장금은 궁궐에서 쫓겨났다가 의녀가 되어 돌아와 임금과 인연을 맺게 되고 ‘대장금’이라는 칭호도 받게 된다. 장금의 부모가 만나는 내용에서부터 드라마가 시작되어 장금이의 탄생, 수난, 업적 등으로 그 내용이 전개된다.

37.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S# 29~30’에서 최 상궁이 보쌈을 당해 끌려 온 박 나인의 죄를 추궁하고 있고, 이 때 기미 상궁과 나인들 예닐곱명, 최 나인 등이 최 상궁을 보좌하고 있다. ‘S# 50’에서의 한 나인의 발언으로 보아 박 나인은 ‘남자와 통정’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최 상궁의 수하인 한 나인은 박 나인의 목숨을 염려하며 애태우고 있고, 천수는 천수대로 박 나인으로 하여금 토약질을 하게 하여 목숨을 살리려 애쓰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박 나인을 중심으로 할 때, 최 상궁과 박 나인은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있고, 박 나인과 한 나인, 그리고 천수는 우호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최 상궁, 박 나인, 한 나인, 천수 등의 대사에서는 주로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S# 48’과 ‘S# 50’에 회상 장면이 나온다. ③, ⑤ 지문에 제시된 장면들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그런데 ‘S# 29’, ‘S# 30’은 죄인을 엄하게 추궁하는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이고, ‘S# 47’은 사약을 받은 박 나인이 토약질을 하는 장면이며, ‘S# 48~51’ 장면은 매우 침통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즈넉한(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나 갈등 해결과 거리가 멀다.

38. 소재의 가능 파악

‘S# 50’에서 한 나인은 ‘네가 남자와 통정했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여 박 나인의 결백을 믿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그것은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앞부분의 ‘나도 일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라는 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증거물에 근거한 생각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S# 48’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았느냐, 명이야…….’, ‘S# 49’의 ‘혹, 죽었거든 나를 용서치 말며 혹, 살았거든 내 말을 들어다오.’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② ‘S# 50’의 한 나인의 ‘목소리’를 참조하면 박 나인이 최 상궁에게 추궁당하는 죄

목은 ‘남자와 통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S# 48’의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독할 수 있다는 네 말이 떠올랐다.’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다.

⑤ ‘S# 30’에서 몹시 불안한 몸짓으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한 나인의 태도로 미루어 알 수 있는데, ‘S# 48’의 내용으로 보아 그 ‘무언가’는 박 나인이 받아먹은 부자탕을 ‘해독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9.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보기>에서, ‘인물의 권위나 위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는’ 촬영 기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S# 30’은 ‘최고 상궁’이 바닥에 꿇려져 있는 박 나인을 내려다보며 추상같이 죄를 추궁하는 장면이므로 박 나인의 시각에 맞추어 ‘최고 상궁’의 모습을 올려 찍으면 그 위세가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 ㉡, ㉢, ㉣의 인물들은 그 권위나 위세를 내세울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다.

[40-43]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심청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이다. 판소리계 소설이란 몇 개의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판소리가 만들어지고, 이 판소리 대본을 소설로 정착시킨 형태의 소설을 말한다. 이 작품도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人身供犧) 설화, 효녀 지은 설화 등을 근원설화로 하여 만들어진 판소리 ‘심청가’가 소설로 정착된 것이다.

제시된 부분은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든 후 수궁에 머무는 장면이다. 구체적으로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수궁 사람들에 의해 심청이 정중하게 대접받는 장면 - 인당수에 뛰어들기 전 심청을 돌보아주었던 장 승상 댁 부인이 심청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배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 - 어머니인 옥진 부인이 수궁으로 찾아와 모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 도화동 사람들이 심청을 불쌍히 여겨 비석을 세우는 장면 등이 제시되고 있다.

[주제] 부모에 대한 효도

40.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제시된 장면에서 대표적인 초월적 인물은 옥황상제와 천상의 광한전에 사는 옥진 부인이다. 옥황상제는 심청의 어머니인 옥진 부인이 수궁으로 와 심청을 만나는 것을 허락한다. 옥진 부인이 심청과 이별하면서 ‘그러나 오늘날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너의 부친을 다시 만날 줄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와 ‘후에 다시 만나 길 날이 있으리라’라고 하여 심청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대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나 내용이 없으며, 더욱이 이 부

분은 현실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다. ③ 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장면은 간결한 문체가 아니다. 또 각각 다른 네 개의 사건이 나타날 뿐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주는 요소는 없다. ④ 장 승상 댁 부인의 배위에서의 제사 장면이나 도화동 사람들이 심청을 위한 비석을 세우는 장면 등에서 긴박한 분위기를 확인하기 어렵다. ⑤ 어머니인 옥진 부인과의 대화 장면은 있으나 독백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심청이나 옥진 부인, 장 승상 댁 부인 등의 내면 갈등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41.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해설 : ㉠은 장 승상 댁 부인이 심청을 위해 제사를 지낸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는 장 승상 댁 부인의 정성에 대한 하늘의 감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장 승상 댁 부인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죽자에 물이 흐르고 검게 변하면 심청이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면 누군가에 의해 살아났는가며 의혹을 품는 것으로 보아 심청의 생사 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소재이다. ② 강가에 나가 배를 타고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심청의 혼백이 와서 흠향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아 장 승상 댁 부인에게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④ 제시문의 첫 부분에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사해 용왕들이 극진히 심청을 대접하는 것, 또, 얼굴도 모르고 있었던 어머니를 만나고 또 그럼으로써 아버지를 다시 만날 것을 알게 되는 것 보아 수궁은 심청의 효성(아버지를 위해 제물로 인당수에 뛰어듦)이 보상 받는 공간이다. ⑤ 옥진 부인이 이승에서 끼었던 옥지환을 심청이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딸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4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판각(板刻), 쉽게 말해 책을 찍은 곳이 서울이면 ‘경판본(京板本)’, 완산, 즉 지금의 전주이면 완판본(完板本)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안성에서 찍은 안성본(安城本)이 있다. <보기>는 경판본에는 없는 대목이 갖는 효과나 의미를 언급하고 있고, 답지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감상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옥진 부인은 남편과 이승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심청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예고 등을 말하고 있지 남편인 심 봉사의 어리석은 행위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광한전의 옥진 부인은 용왕이 겁을 내고 수궁이 긴장할 정도로 지위나 지체가 높은 인물이다. 심청을 이러한 인물의 딸로 설정함으로써 심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② 장 승상 댁 부인의 제문(祭文)에 ‘어찌 아니 슬플쏘냐.’나, 기러기와 어선들의 행위 묘사 부분 등에서 슬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③ ‘봄풀에 해마다 한이 가없네.’라는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신이 이승에서 사용했던 ‘옥지환’과 매듭 등을 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에

혈연의 친밀감이 드러난다.

43.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활용)

정답해설 : ㉠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지금까지 살아 온 15년 내내 한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각골통한(刻骨痛恨)이 ㉠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한자 성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을 뜻한다. ③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한다. ④ ‘진퇴양난(進退兩難)’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뜻한다. ⑤ ‘천우신조(天佑神助)’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44-46] 언어, 한국어 경어법

지문해설 : 한국어에는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경어법 면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표현들이 많다. 이 글은 명제적 의미는 유사하나 경어법 면에서 다른 ‘감사하다’와 ‘고맙다’, 비슷한 의미 기능으로 쓰이지만 어휘적 의미의 차이로 경어법이 다른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예로 들어 경어법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거리의 요인을 분석한 글이다.

44. 정보의 개괄적 확인

이 글에서는 한국어 높임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대화 참가자들 간의 ‘서열’, ‘친분’,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등을 들었다. 성별에 따라 높임 표현의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은 글 속에 나와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연세’, ‘생신’, ‘진지’가 ‘나이’, ‘생일’, ‘밥’보다 높임 표현으로 쓰이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친분이 높임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의미가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고 하였다. ⑤ 글 전반을 통해 한국어의 높임법은 대화 상대가 누구인가, 또는 상황의 격식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사례의 적절성 판단

㉠은 고유어 ‘나이’보다 한자어 ‘연세(年歲)’가 더 높은 말임을 보여 주는 사례로, ‘이-치아(齒牙)’가 동일한 유형이다. ㉡은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둘 다 한자어인데 후자인 ‘생신’이 높임의 정도가 더 큰 말로 통용되는데, ‘사망(死亡)-별세(別世)’의 경우가 동일한 유형이다. ㉢은 ‘밥’과 ‘진지’ 둘 다 고유어인데 후자인 ‘진지’

가 높임의 정도가 더 큰 말로 통용되는데, ‘자다-주무시다’의 경우가 동일한 유형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의 ‘말’과 ‘말씀’은 둘 다 고유어인데 후자가 높임의 정도가 더 큰 경우이다. ③ ㉡의 ‘따님’은 한자어가 아니다. ④ ㉢의 ‘어머니’는 한자어가 아니다. ㉣의 ‘서점’은 ‘책방’보다 높임의 정도가 크지 않다. ⑤ ㉤의 ‘내의’가 ‘속옷’보다 높임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의 ‘빈곤하다’ 역시 ‘가난하다’보다 높임의 정도가 큰 표현이 아니다.

46.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일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서열상 상위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위자에게 사과나 부탁을 할 때 쓰는 말이다. ①의 경우에도 화자인 ‘시장’ 입장에서 볼 때 ‘과장’은 하위자에 해당하므로 ‘미안하다’는 말을 쓸 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비록 상위자이지만 대화 내용으로 보아 친한 사이로 보이므로 ‘미안하다’의 쓰임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③ 회의석상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평소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사석에서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고 한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④ 하위자인 부장은 상위자인 사장에게 ‘죄송하다’를, 상위자인 사장은 하위자인 부장에게 ‘미안하다’를 썼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죄송하다’는 하오체 이하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므로 가까운 친구에게 사과하는 말로는 부적절하다.

[47~50] 과학, ‘운동할 때 작용하는 운동생리학적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운동생리학적 원리를 풀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운동 신경과 이에 지배되는 근섬유들을 운동 단위라고 하는데, 운동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섬유는 지근섬유와 속근섬유로 나뉜다. 지근섬유로 구성된 운동 단위는 속근섬유로 구성된 운동 단위에 비해 근섬유가 적다. 지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축력과 느린 수축 속도, 높은 피로 저항력을 띠고, a형과 b형으로 나뉘는 속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축력과 빠른 수축 속도, 낮은 피로 저항력을 지닌다. 따라서 지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에, 속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폭발적인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에 적합하다. 또한 운동 강도가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갈수록 지근섬유, a형 속근섬유, b형 속근섬유가 차례로 추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제] 지근섬유와 속근섬유의 특성으로 알아 본 운동생리학적 원리

47. 사실적 사고(글의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지근섬유는 하나의 운동신경에 10~180개 정도가 연결되고, 속근섬유는 300~800개 정도가 연결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운동 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 수는 속근섬유가 지근섬유보다 많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하나의 운동 신경과 이에 지배되는 근섬유들을 운동 단위라고 부른다고 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속근섬유는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적어 흰색을 띤다고 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다리 근육을 포함한 골격근은 수많은 근섬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근섬유들은 운동 신경의 자극에 의해 수축된다고 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하나의 운동 신경에 연결되는 근섬유가 많을수록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한다고 하고 있다.

48. 비판적 사고(정보를 활용한 시각 자료의 분석적 이해)

정답해설 : ‘크기의 원리’에 따르면,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운동을 할 때 운동 단위는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원된다. 이 원리에 따라 운동 강도가 저장도에서 고강도로 높아질수록 작은 크기의 운동 단위를 가지는 지근섬유에, 추가적으로 a형 속근섬유, b형 속근섬유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를 그래프로 잘 표현한 것은 ‘운동 강도’가 커질수록 ‘근섬유 사용 비율’이 지근섬유에 속근섬유가 계속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는 ③번이다.

정답 ③

49.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운동선수 A, B, C의 장딴지 근육의 운동 단위 수는 같다고 하였으므로, 운동 단위를 100이라고 가정하면 세 선수의 지근섬유와 속근섬유의 비는 80:20, 50:50, 20:80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에 따르면, 지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축력과 느린 수축 속도, 높은 피로 저항력을 띠고, a형과 b형으로 나뉘는 속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축력과 빠른 수축 속도, 낮은 피로 저항력을 띤다. 따라서 속근섬유의 비율이 C에 비해 낮은 B는 C에 비하여 장딴지 근육의 수축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는 B보다 지근섬유의 비율이 높으므로 B보다 장딴지 근육의 피로 저항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C는 A보다 속근섬유 비율이 높으므로 근육의 수축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에 따르면, 속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이 100m 달리기와 같은 단거리 운동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속근섬유 비율이 가장 높은 C가 100m 달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에 따르면, 지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지구력이 강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운동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지근섬유 비율이 가장 높은 A가 마라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50. 어휘·어법(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노력이나 부담 따위가 적게’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④번이다. 이때 ‘가벼운 운동’과 ‘가벼운 활동’ 등은 노력이나 부담이 적은 운동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무게가 일반적이거나 기준이 되는 대상의 것보다 적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② ‘주머니가 가볍다’는 ‘가지고 있는 돈이 적다’는 뜻의 관용적 표현이다. ③ ‘생각이나 언어, 행동이 침착하지 못하거나 진득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⑤ 주로 ‘가볍게’의 꼴로 쓰여 ‘정도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 | | | | | | | | | |
|-------|-------|-------|-------|-------|-------|-------|-------|-------|-------|
| 01. ⑤ | 02. ③ | 03. ① | 04. ② | 05. ④ | 06. ② | 07. ① | 08. ② | 09. ⑤ | 10. ③ |
| 11. ① | 12. ⑤ | 13. ① | 14. ③ | 15. ④ | 16. ⑤ | 17. ① | 18. ② | 19. ① | 20. ④ |
| 21. ③ | 22. ④ | 23. ③ | 24. ③ | 25. ② | 26. ④ | 27. ① | 28. ① | 29. ④ | 30. ⑤ |
| 31. ⑤ | 32. ④ | 33. ⑤ | 34. ④ | 35. ⑤ | 36. ⑤ | 37. ③ | 38. ② | 39. ④ | 40. ③ |
| 41. ③ | 42. ③ | 43. ② | 44. ④ | 45. ③ | 46. ① | 47. ③ | 48. ② | 49. ① | 50. ② |

[1-5] 듣기

1.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에는 논밭이 워낙 적어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고을 관아에서는 양식을 나누어 주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원님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양식을 그냥 줄 수 없네. 저 황무지를 밭으로 일구는 사람에게만 양식을 품삯으로 주겠네.”

일이 시작되었지만, 황무지를 밭으로 일구는 일은 고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품삯으로 받는 양식도 그리 많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하나, 둘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전들은 양식을 그냥 나눠 주자고도 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내게도 생각이 있다네.” 하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황무지는 밭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마지막까지 남아 일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간 품삯을 좀 박하게 주었지? 남은 품삯은 지금 주겠네. 바로 저 밭 일세. 저 밭은 이제 자네들 것이네.” 하며 그 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굶주리는 사람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양식을 생산할 농토가 없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양식을 나누어주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농토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의 도움(양식)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농토)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⑤가 이 이야기의 교훈으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② 원님이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을 시켜 밭이 일구어지자 이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행동은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준 것이다. 원님이 밭을 일구기 전까지의 정책, 즉 양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일을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 ③ 원님이 아무에게나 밭을 나누어주지 않고 황무지를 개간한 백성들에게만 나누어주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답지이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2. 이번에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 :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교사 : 그래 은영아. 뭔데?

학생 : 자연 현상은 물리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사 :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저기 국기 게양대를 한번 볼래? 깃발이 펄럭이지? 저 깃발은 바람이 부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야. 이때 바람은 원인이 되고 깃발의 움직임은 결과가 되지. 이렇게 외부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물리적 인과 관계라고 하는 거야.

학생 : 아, 그렇군요. 그럼, 사람의 행동도 물리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나요?

교사 : 사람의 행동은 물리적 인과 관계보다는 목적론적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때가 많아.

학생 : 목적론적 관계는 또 뭔데요?

교사 : 음, 예를 들어 볼까? 은영이 너,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던데, 왜지?

학생 : 앞으로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서요.

교사 : 그렇구나.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때 역사학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은영이 네가 세운 목적이고, 그 목적은 바로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행동의 이유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이 목적론적 관계야. 너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스스로 세운 목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겠니? 그럼 이제, 깃발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 현상과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겠지?

학생 : 예, 선생님. 깃발은 바람이라는 외부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지만, 사람의 경우는 (.....)

2.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교사와 학생의 대화에서 교사는 외부의 물리적 원인(바람)에 의해서 어떤 결과(깃발의 펄럭임)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물리적 인과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목적(역사학자가 되고 싶다)이 행동(열심히 공부한다)의 이유가 되는 것을 목적론적 관계라고 설명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물리적 인과 관계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남에 비해, 목적론적 관계에서는 목적에 따라 행동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자연 현상과 인간의 행동이 다른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생(은영)은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물리적 인과 관계를 요약하고 있으므로 이어지는 내용은 목적론적 관계에 대한 요약이어야 한다. 목적론적 관계를 요약할 때에는 '선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③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① 외부적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 인과 관계를 요약하는데 더 어울린다. ② 인간은 물리적 인과 관계가 아니라 목적론적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④ 목적론적 관계는 목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⑤ 교사는 목적의 자발적 변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3.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부터 과학 전시실에 있는 ‘에코스피어’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이 우주에 진출하면 외부와 격리된 우주 기지 내부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그때 필요한 식량과 산소 등을 지구에서 계속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항공 우주국의 과학자들은 우주 기지 내에서 식량과 산소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족적 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생태계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스스로 유지되는 환경 모형을 만들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국의 한 부부가 유리공처럼 생긴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과학 전시실에 있는 ‘에코스피어’입니다. 이 밀폐된 유리공 속에는 ‘바다’에 해당하는 물과 ‘땅’에 해당하는 자갈과 모래, 그리고 ‘생물’에 해당하는 바닷말, 작은 새우, 미생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에 해당하는 공기도 있습니다. 이 유리공의 외부에서 빛의 양과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면 바닷말이 자라면서 산소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새우는 이 바닷말과 산소로 살아가고, 새우의 배설물은 자갈과 모래 속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다시 바닷말의 양분이 됩니다.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 ‘에코스피어’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양이 적절하지 않거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 생태 순환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에코스피어’의 생태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합니다.

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지구에서 우주 기지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모형이 아니라 우주 기지 내에서 식량과 산소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족적 시스템에 대한 환경 모형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과학자들이 우주 기지 내에서 자족적 환경 모형을 만들어 연구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국의 한 부부가 만든 상품이 에코스피어이다. ④ 에코스피어는 밀폐된 유리공인데 이 속에는 ‘바다’에 해당하는 물, ‘땅’에 해당하는 자갈과 모래, ‘생물’에 해당하는 바닷말, 작은 새우, 미생물, ‘대기’에 해당하는 공기가 들어있다. ⑤ 에코스피어의 생태계는 빛의 양이 적절하지 않거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 생태 순환의 균형이 깨져 그 속의 생태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4~5] 이번에는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 여: 여기는 김준근 풍속화전이 열리고 있는 한국미술관입니다. 오늘은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신 한국미술관 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김준근은 어떤 화가입니까?
- 남: 네, 김준근은 개화기에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궁중 화가는 아니었고요, 평민 출신 화가로 추측됩니다. 이 화가의 특이한 점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작품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확인된 작품만 해도 1,200점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전시되는 그림들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 여: 아, 예. 국내의 한 대학에 새로 기증된 그림 140여 점도 미국에서 온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김준근의 그림이 해외로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 남: 개화기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 선교사나 외교관들은 조선의 풍속을 자신들의 나라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김준근이 그린 풍속화가 외국인들의 요구에 맞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귀국할 때, 김준근의 그림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져가게 된 것이고요.
- 여: 그런 이유라면 사진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열린 비숍 여사의 사진전에서 개화기 조선의 풍속을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이면 충분했을 텐데, 왜 굳이 그림이었을까요?
- 남: 사진보다는 김준근의 그림이 외국인들이 원하는 바를 더 잘 충족해 주었을 겁니다. 방아로 곡식을 찧고 있는 장면을 그린 이 포스터를 보세요. 만약 외국인들이 이 방아를 사진으로만 보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을 통해 방아가 무엇을 하는 도구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림이 사진보다 조선인의 모습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지요.
- 여: 예, 정말 그렇겠네요. 사극을 제작할 때, 당시 사회상을 재현하기 위해 풍속화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김준근의 그림도 그런가요?
- 남: 그렇습니다. 사실 김준근의 그림을 처음으로 주목했던 국내 학자들은 민속학자들이었어요. 개화기 조선인들의 관혼상제나 세시풍속 등을 그의 그림 속에서 찾아냈던 것이지요.
- 여: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이 포스터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4.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국내에서 김준근의 그림에 주목했던 학자들은 민속학자들이다. 개화기 조선인들의 관혼상제나 세시풍속을 그림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관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장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국미술관’에서 김준근 풍속화전을 연 이유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김준근은 민속학자가 아니며, 김준근의 그림에 관심을 보인 학자들이 민속학자이다. ③ 김준근은 궁중 화가는 아니고 평민 출신 화가로 추측된다. ④ 김준근은 풍속화가이며 국내보다 해외에 작품이 더 많이 남아 있다. ⑤ 풍속화가 사진보다 더 선명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시대를 고발한 그림이 아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김준근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학에 기증한 김준근의 그림 140여 점도 미국에서 온 것으로 들었다.’, 개화기 조선의 찍은 사진을 보았고, 풍속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사극을 제작할 때 풍속화를 참고한다고 들었다.’ 등 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⑤ 여자가 말한 내용이 개인적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술관장의 설명에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6-12] 쓰기, 어휘 · 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동차의 각 요소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유추해 내는 문제이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는 액셀과 브레이크에서는 동아리의 활동의 일처리 속도를 적절하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②에서는 필요한 경우 동아리 대표가 주위의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추하고 있는데, ‘브레이크와 액셀’을 외부의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거나 늦춘다는 기능에서 외부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추해 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동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엔진의 주된 기능에서, 동아리 대표가 동아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유추해낼 수 있다. ③ 계획한 경로에 따라 주행 방향을 조정하는 핸들의 주된 기능에서,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에 맞추어 활동 방향을 조정하는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④ 지속적인 회전으로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바퀴의 주된 기능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동아리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⑤ 야간 주행을 위한 시야 확보를 해 주는 전조등의 주된 기능에서, 동아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7.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내용과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시구를 창작하는 문제이다. 글쓴이가 자신도 모르게 시구를 떠올리게 한 것은 도보 여행에서 발견한 ‘그 모습’이며, ‘그 모습’은 가을 바람에 잔잔한 물결을 이루고 있는 모습과 바람에 흔들리는 친구처럼 반가운 코스모스의 모습이다. ①은 ‘노란 벼’와 ‘미소 짓는 코스모스’를 언급하여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첫째와 둘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미소 짓는 코스모스’와 ‘정겨운 그(코스모스)의 마음’으로 볼 때, 의인법이 활용되었으며, ‘나도 몰래 끌렸네 정겨운 그의 마음에’는 ‘정겨운 그의 마음에 나도 몰래 끌렸네’를 도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되고 계절감도 드러나며 도치법도 사용(반가움~미소)되었다. 하지만 ‘반가움’은 글쓴이가 풍경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며 의인법은 쓰이지 않았다. ③ ‘붉은 꽃들의 향연’은 벼와 코스모스의 ‘그 모습’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며, 명사구로 종결되는 시행들은 도치법의 표현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에게 더 넓어지라고 하네 바람은’은 ‘바람은 나에게 더 넓어지라고 하네’를 도치한 시구라고 할 수 있으며, 바람이 나에게 말을 한다는 발상은 의인법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구를 떠올리게 한 벼와 코스모스의 풍경과는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반가운 친구와 함께 걷는’은 일기의 앞부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며, ‘반가운 친구’를 의인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떠한) 길에서 (무엇을) 보았네’의 문장 구조로 이루어진 시행에서는 도치법이 쓰이지 않았다.

8.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에서 맥락에 따라 숫자가 되기도 하고 한글이 되기도 하고, 알파벳이나 도형이 되기도 하는 것은 ‘우리는’이 아니라 “○”는’이다. 필요한 문장 성분 즉 주어에 해당하는 성분을 갖추고 있는 문장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 성분 ‘우리가’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한 ㉡의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되어-’와 ‘-지’의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쓰였으므로, ‘이해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맥락의 발견을 통해서 글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글에서 ‘예상 독자의 파악이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정확한 대상에 대한 이해’는 ‘대상’이 정확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정확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이해’로 ‘정확한’의 성분을 옮겨서 수식 관계와 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맥락을 통한 읽기가 즐거우므로 맥락 읽기에 대해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는 의미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접속 표현을 ‘그러나’에서 ‘그래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9. 비판적 사고 (내용 생성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의 내용은 인터넷이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비중이 높다는 내용과 인터넷 홍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가)-2는 33.3%가 인터넷에서 여행 정보를 얻는다는 내용이고, (다)는 극단 자체의 해외 홍보나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므로, (가)-2와 (다)를 ㉠과 연결한 ⑤가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공연 상품의 경제적 효과'와 '외국인의 공연 관람 실태'를 고려한 내용인데, (가)-1은 외국인 방문 기간의 활동 내용에 관한 자료이고, (다)는 극단 자체의 한계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② ㉠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가)-2는 여행 정보를 얻은 곳에 관한 자료이고 (나)는 성공적인 공연 사례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③ ㉠은 '대사가 많은 공연'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내용인데, (다)의 자료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요소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제작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가)-1은 외국인의 방문 활동, (가)-2는 외국인 정보 획득 경로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10.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상품화 과정에서의 세금 감면'은 세금을 매기는 주체인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내용의 논리적 전개를 고려하여 항목을 옮겨야 한다면, '공연 관계자 차원'의 개선 방안이 아닌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의 아래에 옮겨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전용 상설 공연장의 확보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을 참고한다면, '전용 상설 공연장 부족'이라는 항목을 '문제점 분석'의 아래에 둘 수 있다. ② '공연의 불거리 부족'은 그 내용으로 볼 때 '단조로운 공연 내용'이라는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공연의 '상품화'라는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연 내용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⑤ 정부의 인터넷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홍보에 관한 여론 조사 실시'라는 내용보다는 '인터넷 홍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라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1. 어휘·어법 (완곡어법의 표현)

정답해설 :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완곡어법이라고 하는데, <보기>에서는 문장의 형태뿐 아니라 어휘 사용을 통해서도 완곡어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①의 경우 '이 편지 부쳐 주세요'라는 기존의 표현에 '좀'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이 편지 좀 부쳐 주세요'라는 완곡한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늘'은 일시적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강화된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③ '영'은 '없다'를 강조하는 표현이며,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④ '죽'은 '들이켜라'의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완곡어법을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⑤ '더'는 비교 표현으로 쓰였고, 완곡어법의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12. 어휘·어법 (파생어 형성 과정의 이해)

정답해설 : ㉔의 ‘읽다’와 ‘읽히다’는 둘 다 동사이다. ‘읽다’가 ‘누가 무엇을 읽다’의 능동문에 쓰이고, ‘읽히다’가 ‘무엇이 누구에게 읽히다’의 피동문에 쓰임으로써 문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㉔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품사가 달라 지지는 않으므로 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㉔과 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㉔에는 ‘읽다’와 ‘읽히다’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땀’과 ‘땀’에서 파생된 ‘땀쟁이’는 둘 다 명사이므로 ㉑에 해당한다. ㉒ ‘파랗다’와 ‘파랗다’에서 파생된 ‘새파랗다’는 둘 다 형용사이므로 ㉑에 해당한다. ㉓ 동사 ‘지우다’에서 파생된 ‘지우개’는 명사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㉕ ‘열다’가 쓰이는 문장(‘누가 무엇을 열다’)과 ‘열리다’가 쓰이는 문장(무엇이 누구에 의해 열리다)은 그 구조가 다르므로 ㉔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13-16] 현대 소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지문해설 : 이 작품은 1959년 발표된 소설로, 전쟁이 한 마을 공동체와 개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근찬의 다른 작품이 그렇듯이 이 작품에서도 전쟁을 다루되 전쟁의 실상이나 전개 그 자체를 보여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공동체와 개인이 겪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은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고 주인공 배(裴)삼바우는 나룻배로 손님들을 태워 나르는 사람이다. 전쟁의 광풍은 이렇게 외진 곳의 청년들까지 전쟁터로 끌고 가는데, 배삼바우의 아들 용팔이, 양생원의 외동아들 천달이, 모량댁의 아들 두칠이가 그들이다. 모량댁의 아들 두칠이가 가장 먼저 흉측한 얼굴로 부상을 입고 돌아오고, 외동아들 천달이는 전사 통지와 함께 유골함에 담겨 돌아온다. 남은 것은 삼바우의 아들 용팔이인데,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배삼바우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나룻배의 사공으로서 배삼바우가 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저항은 ‘양복 입은’ 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나룻배에 태워 나르기를 거부하는 일뿐이다. 나룻배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든 것이었지, 자식들 데려가라고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 행위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전쟁의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 수는 없었던 배삼바우의 유일한 몸부림이다. 제시된 지문은 동네에 양생원의 외동아들 두칠이가 전사해서 유골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주제] 전쟁의 부당한 폭력성에 대한 고발

1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이 작품은 뱃사공 배삼바우와 우체부의 대화, 대열이와 그 가족의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 동네 청년의 죽음을 대하는 두칠이의 독백 등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답 ㉑**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② ‘마을’에서 일어난 일과 인물들의 대화를 서술하고 있으나, 사건의 객관적 전개와 별도로 일어나는 서술자나 작중 인물의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 기법은 쓰이지 않았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과 교차되어 서술되지는 않고 있다. ④ 배삼바우의 심리를 알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루 언급하는 서술자는 교체되지 않고 있고,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건이 도입되고 있지도 않다. ⑤ 작중 인물 가운데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은 없다.

14. 추론적 사고(소재, 배경의 기능)

정답해설 : 낮의 마을은 ‘난데없는 곡성’에 발각 뒤집혔고,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송송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자식을 잃은 양 생원 맥의 슬픔은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밤’을 불길한 일이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암시하는 복선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집배원의 ‘빨간 자전거’는 ‘천달’의 전사 소식을 전해 주고 있으므로 마을 밖의 소식을 전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순녀의 피나는 울음소리’는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천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의 좌절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읍내’는 ‘천달’의 유골을 담은 ‘상자’를 갖고 오는 곳이므로, 천달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공간이다. ⑤ 무섭게 저물어 가는 ‘별건’ 황혼은 천달의 유골 상자를 안고 돌아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마을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 비판적 사고(독자 반응의 적절성)

정답해설 : [A]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대열이’는 엄마와 할아버지에게 읍내에 가는 이유를 묻는 대화이다. 가족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순진한 인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어른들에게 사정을 묻고,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 그런 사정을 차마 말하지 못하는 대화는 작중 상황이 갖는 비극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말이 없는 어른들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로 비판의 대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② 어른들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어린이에게 전쟁의 잔혹함을 알려줄 수 없어서이지 권위적인 성격 때문인 것은 아니다. ③ 어른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으므로, 어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아이의 모습을 작중의 슬픔을 심화하는 기능을 하며, 작중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16.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언급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상처’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인물,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은, ‘두철이’를 가리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킨다. ‘두칠’이는 흉측한 얼굴을 하고 동네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알곳은 웃음’을 짓고, ‘얼굴을 실룩’거린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공동체에 동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 ⑤는 적절한 감상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군수의 편지’는 ‘천달’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이고, ‘유골 상자’는 천달의 죽음을 구체화한 사물이므로 전쟁의 비극성과 관련된다. ② 하나만 남은 두칠의 눈은 전쟁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런 사실은 전쟁의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할 수 있다. ③ ‘보통이지’라는 말은 전쟁에서 그런 죽음이 보통이라는 말이므로, 천달의 유골을 보면서 두칠에게 전쟁의 상처가 되살아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④ ‘나루터가 들끓’었다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천달’의 죽음에 슬퍼하는 행위를 보여 주었다는 뜻이므로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 감상은 적절하다.

[17-20] 인문, ‘진리 판단에 대한 여러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진리나 참에 대한 판단을 다루는 여러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대응설은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과 일치할 때 그 주장이 진리라고 말한다. 정합설에서는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 실용설에서는 결과의 유용성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처럼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이론에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런 이론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동원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에서 바라보는 진리 판단 기준

17. 사실적 사고(내용 전개방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이 글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세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 등의 세 이론의 핵심 개념을 설명한 후에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대응설의 경우 네모난 책상에 대한 판단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합설은 뉴턴의 역학에 기준을 둔 판단을, 실용설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의 창의력 향상이라는 판단을 사례로 들어 진리 판단에 대한 각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기존의 여러 이론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며 세 이론과 다른 새로운 이론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③ 구체적 현상이 지닌 원인을 분석하는 글이 아니라, 여러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④ 여러 이론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천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다양한 이론이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각각의 핵심 개념을 설명할 뿐 변증법적 절충은 아니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18. 논리적 사고(숨겨진 전제의 파악)

정답해설 : 대응설에서는 사실과 판단의 일치 여부가 진리의 기준이 된다. 이때 대응설은 어떤 판단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느냐 않느냐를 인간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의 다음 문장이 이를 보충해주는 문장으로, 인간은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외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각을 바탕으로 다른 판단과의 일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의 전체 문장은 인간의 사실 판단 능력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인간은 감각을 통해 외적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지식이거나 판단이 항상 참이면 진리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이론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 된다. ㉢ 전체를 알면 부분을 알 수 있기에,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과는 무관한 진술이다. ㉣ 인간들 각자가 서로 다른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진술로, 이에 따르면 인간 각자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상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역시 ㉠과는 무관한 진술이다. ㉤ 감각적 지각 능력을 통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어떤 판단 내용이 일치하느냐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대응설이다. 진리 판단 기준에 대한 것이지, 대상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19.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는 ‘화석이 유기체에서 기원했다.’라는 판단에 대한 스테노의 의견이다. 스테노는 관찰을 통해 상어의 이빨과 설석 화석의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그러한 판단 내용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기에, 대응설에 근거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는 당시 지질학자들의 판단을 묻고 있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새로운 판단)에 대해 지질학자들은 통설(기존의 이론 체계)을 근거로 틀렸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이론 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시하는 정합설의 관점이다. **정답 ㉠**

20. 비판적 사고(정보에 대한 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실용설은 어떤 판단의 진위를 반별하기 위해서 실제 행동을 통한 결과의 유용성에 주목한다. 그런데 ㉣의 답지는 실용설을 비판하면서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존재의 실체 확인과 관련하여 진술하고 있다. 감각으로 확인 불가능한 존재의 진리 판단 여부에 대한 것은 감각과 관찰, 사실과의 일치를 중시한 대응설과 관련된 진술이다. 즉, ㉣는 대응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실용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대응설은 경험을 통한 사실의 확인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학이나 논리학에서의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명제의 참/거짓 판별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 정합설은 기존의 이론 체계가 서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에 적절한 문제 제기이다. ㉢ 기존의 지식 체계를 중시한 정합설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지식 체계의 진리 여부 판단에 대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 실제 행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동 결과의 유용성으로 판단하는 실용설의 경우, 유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양하고 주관적일 수 있기에 진리 자체도 상대적이 될 문제가 존재한다.

[21-23] 과학, ‘데카르트 좌표계의 수학적 의의’

지문해설 : 이 글은 데카르트가 제안한 좌표가 수학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형을 다루는 수학은 기하학이었다. 고대 그리스 이래 기하학은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 방법으로 도형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데카르트 좌표계를 이용하면 직선, 원, 타원 등 모든 기하학적 형태를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로부터 기하학과 대수학이 연결되어 근대적인 수학 발전의 토대가 된 해석 기하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주제] 데카르트 좌표계가 수학에 미친 영향

21.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고대 그리스 이래로 기하학은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 방법으로 도형을 다루는 것은 까다로웠지만, 데카르트가 좌표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좌표 개념은 데카르트가 생각해 낸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좌표 개념을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진술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 각각에서 파리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알면 파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평면 위의 도형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x, y)는 원의 방정식 $x^2 + y^2 = 5^2$ 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데카르트의 발견은 좌표를 이용하여 모든 기하학적 형태를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어떤 물체가 움직인 경로’는 기하학적 형태의 일종이고, ‘좌표’는 수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2. 추론적 사고(주장의 근거 파악)

정답해설 : ㉠은 데카르트가 수학 분야에서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는 주장이므로, 근거는 수학 분야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문단을 보면 기존의 기하학은 증명을 통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형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좌표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수학 분야에 업적을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남긴 것은 기하학적 문제를 대수학적 방법으로 풀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③ 고대 그리스 이래로 사용해 왔던 방법이다.

23. 창의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사무실의 호수를 사무실의 8개 꼭짓점 중 원점에서 가장 먼 꼭짓점의 좌표를 세 자리의 수로 만들어 정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무실의 호수가 단순히 원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 축의 좌표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점으로부터 사무실까지의 거리에 따라 사무실의 호수가 정해진다고 진술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데카르트 좌표계는 직교하는 직선들이 만드는 좌표계인데, 이를 3차원으로 확장하려면 두 평면에 수직으로 원점을 지나도록 또 하나의 축을 세우면 된다. 즉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을 만들면 된다. 그런데 건물이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에 좌표를 만든 것과 같다. ② 사무실 호수를 정할 때 백의 자릿수를 사무실 층으로 설정한다고 하였다. ④ 사무실의 호수는 세 자리인데, 백의 자릿수는 해당 층으로, 십의 자릿수는 북쪽 좌표로, 일의 자릿수는 서쪽 좌표로 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A 사무실은 5층에, 북쪽 좌표는 3, 서쪽 좌표는 3이므로 좌표는 (5, 3, 3)이 된다. ⑤ 두 사무실의 벽면이 맞닿아 있다는 것은 세 개의 좌표 중 두 개는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벽면이 맞닿아 있는 두 사무실은 호수를 구성하는 세 개의 수 중에서 두 개가 같다.

[24-27] 예술, '영화적 관습의 유동성'

지문해설 : 이 글은 관객과 감독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인 '영화적 관습'에 관하여 설명한 글이다.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으며, 우리는 영화가 현실의 복잡성을 똑같이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화 역시 굳이 그러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렇게 관객과 감독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를 '영화적 관습'이라 하는데, 이는 영화사 초기에 확립되어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관객은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영화적 관습을 익히고, 감독은 그것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친숙함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누벨바그 감독들은 고전적인 영화 관습을 파괴하면서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하여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였고 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관습 비틀기가 수시로 일어난다. 이렇듯 파괴된 관습이 반복된다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로 보아 영화적 관습은 고정된 규범일 수 없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영화적 관습의 특성

24.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영화적 관습 비틀기가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이루어진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으나, 영화적 관습은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고정된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은 추리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영화적 관습은 영화사 초기부터 확립되어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는다. ②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영화의 재현 방식에 반응해서 영화 속 내용을 현실처럼 보는 데에 동의한다. ④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관객은 영화적 관습을 익힌다. ⑤ 파괴된 영화적 관습이 반복되다 보면, 즉 새로운 재현 방식이 시도되고 그것이 수용되다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화적 관습은 변화하게 된다.

25.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정답해설 : ㉠은 예컨대 악당의 죽음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악당을 다시 살려 내어 갈등을 또 한 번 증폭하는 식으로 관객의 기대 심리를 역이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③ ㉡은 자기만족적이고 독창적인 미학적 성취를 위해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며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였다는 것, 관객에게 오락적 쾌감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④ ㉢과 ㉣ 모두 관습적인 재현 방식에 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에 비해 그것이 부분적으로 행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⑤ ㉢과 ㉣ 모두 전통적인 영화적 관습에 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6.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영화에서는 극적인 전개를 위해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거나 연인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절한 음악이 삽입되기도 한다. 그러나 ㉡에서 제시된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그 다음에 입구가 닫히는 장면이 이어진다는 것으로 볼 때, 작중 현실에 존재하는 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이 차에 탄 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목적지에 내리는 것과 같은 우연적 사건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는다. ②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③ 우리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유발하는 현장감과 정서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⑤ 우리는 이야기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영화상의 생략을 기꺼이 수용한다.

27. 어휘(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의’(異議)라는 말은 다른 의견이나 논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의를 달다/이의를 제기하다/이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십시오./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다음 안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등과 같이 사용된다.

정답 ①

[28-30] 언어, '중간 언어와 언어 습득'

지문해설 : 이 글은 언어 습득 과정에서 중간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L2(L1을 습득한 후 배우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처음 습득한 언어)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중간 언어라고 하는데, 이 중간 언어의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며,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L1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L2를 배우는 학습자 간에 불완전하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중간 언어가 같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습득한 L2 규칙을 활용해서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L2 학습자가 생성하기 마련인 오류는 많은 경우 L1의 부정적인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L1이나 L2의 어느 규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중간 언어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그리고 L2 학습자의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L2의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아의 언어는 두 언어 이상이 혼종된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간 언어와 다르며, 성인의 언어로까지 발달한다. 반면에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L2가 모국어인 화자의 언어로까지 발달할 수 없으며 발달 정도가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주제] 중간 언어의 존재가 언어 습득에서 시사하는 바

28.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중간 언어는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중간 언어는 L2의 습득 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간 언어는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③ 랑그란 동일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 규칙의 총체이다. 한 언어 내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한다. ④ 하나의 동일한 랑그를 가진 L2 학습자 집단을 상징할 수 없는 반면, 한 언어 내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한다. 따라서 중간 언어 간의 이질성은 한 언어 내의 방언 간의 이질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⑤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L2가 모국어인 화자의 언어로까지는 발달할 수 없다.

29.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에서 L2 학습 기간과 오류 양상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우리는 L2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와 L2의 습득 정도를 알 수 있다. ②⑤ L2 습득 과정에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서 나타나는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L2의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오류는 L2 습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30. 추리적 사고(다른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L2를 목표로 발달해 가고, ㉡는 성인의 언어로까지 발달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 ㉡는 발달의 목표가 되는 언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로, L1과 L2가 혼종된 언어이고, ㉡는 여러 언어의 특성이 혼합되었다는 점에서 혼종된 언어에 해당한다. ② ㉡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의 수가 늘어나고 문법도 정교해지는 변화를 보였는데, ㉠ 역시 그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지만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③ ㉡는 초기에 어순이 불안정하고 어휘의 수가 적으며 문법도 단순하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 역시 성인의 언어에 비해 단순하다. ④ ㉡는 이주민들의 언어라는 점에서 L1을 습득한 후에 배운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L1을 습득한 후에 배운 언어라고 말할 수 없다.

[31-34] 현대시

(가) 박남수, 「새 1」

지문해설 : 이 시는 번호가 부여된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에서는 ‘노래’라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의 노래와 ‘사랑’이라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의 사랑을 언급하며 ‘새’의 순수성을 언급한다. 화자는 이러한 새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에서도 ‘새’가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어서 3에서는 이러한 ‘새’를 잡기 위해 ‘포수’는 총을 쏘지만 결국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를 잡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결국 이 작품은 새의 순수하고 천진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뒤, 그것은 파괴적이고 불순한 인간 문명으로는 얻을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이면에는 순수한 가치에 대한 옹호와 추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시를 인식의 주체(포수, 인간)가 대상(새, 자연)의 본질을 인식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본질 인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순수한 가치의 옹호와 추구 / 본질의 순수성과 그것에 도달하기의 어려움 /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비정함

(나)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지문해설 :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표준어 ‘그릇’을 어머니는 ‘그룩’이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삶에 대한 경건성과 시인으로서의 자세를 성찰하고 있는 시이다. 연 구분 없이 총 20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의미상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3행에서는 ‘그릇’을 ‘그룩’이라 부르는 어머니를 언급하고, 이어서 4~8행에서는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어머니의 ‘그룩’이라는 말 속에는 편안함(‘편안한 수평’)과 따뜻함(‘체온처럼 따뜻했다’)이 담겨있다고 한다. 9~16행에서 ‘그릇’과 ‘그룩’은 차이가 있는데, ‘그릇’은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전에서 찾은 것이지만, ‘그룩’은 어머니가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라고 말한다. 17~20행에서는 어머니처럼 정성과 사랑을 쏟지 않은 채 시를 쓰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결국 시인인 화자는 어머니의 언어인 ‘그룩’과 같이 삶이 녹아있고, 따뜻한 사랑이 담긴 언어로 살아있는 시를 쓰고 싶다는 성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제] 삶에 대한 정성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긴 시를 써야 한다는 자기 반성.

(다)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지문해설 : 시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시이다. 연 구분 없이 총 15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행은 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노래(운율)와 이야기(가사)가 결합된 것이 시라는 것이다. 또, 여기서 ‘심장’은 감성(感性)과, ‘뇌수’는 이성(理性)과 관련된 시어이다. 즉 시인은 감성과 이성이 조화된 시를 좋은 시로 생각하고 있다. 2~7행은 처용설화를 통해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를 말한다. ‘노래’는 귀신을 감복시키지만,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진다는 것이다. 8~11행에서 화자는 현대를 악보(‘노래’)가 사라진 시대로, ‘노래’를 ‘은밀히’ 말 속에 끼워 넣는 현실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12~15행에서는 ‘뇌수’(이성)와 ‘심장’(감성)이 긴밀히 조화를 이루는 시를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주제]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에 대한 지향

31.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는 ‘새’와 ‘포수’, ‘한 덩이 낱’과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를 대비시켜 인간의 비정성, 비순순성 : 새의 순수성, 혹은 인식에 대한 노력 : 인식의 실패를 노래하고 있다. (나)는 어머니의 ‘그룩’과 나의 ‘그릇’을 대비하며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도 ‘심장’(감성)과 ‘뇌수’(이성)을 대비시켜 시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대비’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 모두 시간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나 시행이 없다. ② (가)에는 ‘~ 줄도 모르면서’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만, (나)와 (다)에는 동일한 구절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 (나), (다) 모두 역설적이라고 볼 만한 표현이 없다. ④ (가), (나), (다) 모두 ‘-다’ 형태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영탄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32. 추론적 사고(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의 ㉞는 의미상 (나)의 ‘그릇’에 대응한다. 즉, (나)의 ‘그릇’이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국어사전에 올라있는 객관적이고 삶의 체취가 묻어 있지 않은 말인 것처럼, <보기>의 ㉠도 단지 천자문에 올라있는 글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은 ㉡이다. 또한 (다)의 ㉢도 ‘목청’(감정)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문맥상 ㉡와 가깝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단순한 배경이나 공간으로서의 ‘하늘’이다. ㉡은 문맥적 의미상 ㉡과 대조된다. ㉢은 ‘목청’이 제거된 ‘이야기’와 결합하는 ‘새로운 노래’이므로 단순한 글자로서의 ‘천(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33.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가)는 ‘새’와 ‘포수’를 대비하여 자연의 순수를 파괴하는 문명의 폭력성, 혹은 본질을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등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삶에 대한 정성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지 않은 채 시를 쓰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가 지향하는 상황이 ‘자연’이나 ‘대상의 본질’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환상 세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더욱이 (나)에는 환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새’가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고 한 이면에는 이와 대비되는 ‘포수’(인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 의식은 ‘포수’가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라는 표현에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② 어머니가 ‘그릇’을 ‘그룩’이라고 부르는 일상의 사건에서 발상을 얻고 있다. ③ (나)는 연 구분을 하지 않은 20행 짜리 단연시인데 반해 (가)는 숫자를 이용하여 뚜렷이 연 구분을 하고 있다. ④ (가)는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반면, (나)는 어머니와 대비되는 ‘나’가 뚜렷이 드러난다.

34.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다) 시의 흐름으로 보아 [D]의 ‘심장의 박동’은 ‘감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D]는 말에 감성을 불어넣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그릇’이 사전에 등재된 ‘죽은 단어’라면, ‘그룩’은 ‘어머니’의 삶에서 창조된 ‘살아있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그룩’이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 ‘그릇’은 ‘나’가 국어사전에서 ‘발견’한 것이라면, ‘그룩’은 ‘어머니’가 삶을 통해 ‘만드신’ 말이다. 즉 ‘그룩’이 더 창조적이다. ③ [C]를 시(이야기)와 음악(노래)가 분리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⑤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는 감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처의 원인이 ‘노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E]는 ‘뇌수’와 ‘심장’, ‘이야기’와 ‘노래’, ‘감성’과 ‘이성’이 긴밀히 결합된 시를 써야한다는 내용이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35-37] 사회, '가격 결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지문해설 : 이 글은 재화의 가격 결정과 관련한 여러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일반 재화의 경우,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자원의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배분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재화가 아닌, 공익 서비스의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게 되면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공익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평균 비용 수준의 가격 결정이 필요하지만, 두 방법 모두 문제를 지니고 있다. 가격 결정과 관련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동원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공익 서비스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그 방법이 지닌 문제점 또한 설명하고 있다.

[주제] 일반 재화와 공익 서비스 가격 결정의 차이

35.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는 공익 서비스와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 평균 비용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해당 사업자의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 그렇지만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⑤의 답지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진술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고 되어 있다. ② 1문단에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다. ③ 2문단 처음 부분을 보면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나와 있다. 즉,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부분은 두 재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다. ④ 4문단에 공익 서비스 기업의 손해를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소개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다.

36. 추론적 사고(시각 자료의 분석적 이해)

정답해설 : ㉠는 한계 비용 수준의 가격, ㉡는 평균 비용 수준의 가격 결정이다. 한계 비용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사회 전체 차원의 만족도가 커지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지문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와 달리 평균 비용 수준의 가격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한계 비용 수준의 가격 결정은 수돗물과 같은 공익 서비스의 경우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가 손실을 본다고 되어 있다. ② [A]를 보면 톤당 한계 비용이 1달러라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적절하다. ③ 4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면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진다고 되어 있다. ④ [A]를 보면 평균 비용은 계속 줄어드는 것이므로 한계 비용과의 격차가 줄어들음을 추리할 수 있다.

37. 어휘 어법(문맥에 적절한 한자어의 파악)

정답해설 : ‘추정하다’는 ‘추측하여 관정함’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문맥을 살펴보면 ‘공익 서비스의 경우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따져서 생각하면’의 의미이므로 효율성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의 의미를 지닌 ‘고려하다’ 정도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투입’은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를 필요한 곳에 넣음.’의 의미이다. ② ‘초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함.’의 의미이다. ④ ‘지급’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의 의미이다. ⑤ ‘감소’는 ‘양이나 수치가 줄. 또는 양이나 수치를 줄임.’의 의미이다.

[38-42] 갈래 복합

(가) 이용휴, ‘수려기’

작품해설 : ‘따르며 살리라’라는 의미인 ‘수려’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로,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가를 설명한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먼저 사람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 평생을 살 수 없음을 지적하며, 무엇인가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다. 다만 ‘따름’의 기준이 시대나 국가, 각자의 천성과 사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이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유추의 사용이나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글로, 글쓴이의 가치관이 명료하게 전달되고 있다.

[주제]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

(나) 작자 미상, ‘텐동어미화전기’

작품해설 :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장편 가사로, ‘화전기’의 일반적 구성처럼 놀이를 가는 흥겨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놀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중간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화전가와 달리 청춘과부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자 화자가 텐동어미로 바뀌면서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청춘과부에게 들려주어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지문은 텐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며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권유하는 내용이다. 괴롭고 어려운 삶의 애환을 달관과 긍정으로 극복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 텐동어미의 기구한 인생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

(다) 이황, ‘도산십이곡’

작품해설 : 작가가 만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안동에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연시조로 학문에 열중하면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나는 감흥과 수양의 경지를 읊은 것이다. 모두 12곡으로 이루어졌으며, 작자 자신이 전6곡(前六曲)을 언지(言志), 후6곡(後六曲)을 언학(言學)이라 하였다. 언지(言志)는 도산 서원 주변의 자연 경관을 접하는 감흥을 노래한 것이고, 언학(言學)은 학문 수양에 정진하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보잘 것 없는 인간이 끊임 없는 수양을 통해 자연의 영원성을 닮아갈 수 있다는 발상은 작가의 도학자적인 면모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자연에서 사는 삶의 기쁨과 부단한 학문 수양의 의지

38. 비판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를, (나)에서는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며 살아가는 자세를, (다)에서는 자연 친화와 학문 수양을 추구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즉, 세 작품은 모두 화자의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은 부단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낸 (다)에만 나타난다. ③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는 (가)~(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④ (다)는 자연애와 학문 수양을 아우르는 화자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가)~(다) 어디에서도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가)~(다)는 모두 현실을 기반으로 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심리를 찾을 수 없다.

39. 비판적 사고(작품의 서술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4]에서 두 번에 걸쳐 글쓴이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한 것은 아니다. [4]에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이치를 따라야 하는 것과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법칙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③ 우 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른 사례를 제시하여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⑤ 이 글에서는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 관습을 따르지 않고 살 수 없는 것,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등 따름의 여러 측면을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40. 추론적 사고(시적 대상의 이해)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텐동어미는 수심에 차 앉아서 슬피 우는 청춘과부에게 깨달음을 주어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화전놀이를 즐기게 만들고 있다. 이는 청춘과부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므로, 텐동어미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텐동어미가 계획성 있는 삶을 추구하거나 중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자로 부쳐 두고 /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를 볼 때 텐동어미와 일행들은 이미 화전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④ 청춘과부가 자연의 변화에 관심이 없고 무감각해졌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청춘과부는 텐동어미의 충고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인식을 바꾸는 것이지, 가난이 내적 성숙의 계기가 된다고 믿게 된 것은 아니다.

41.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의 초장에서는 영원히 푸르름을 간직하는 ‘청산’을 예찬했고, 중장에서는 이와 대구를 이루어 밤낮으로 쉼 새 없이 흐르는 ‘유수’의 영원성을 예찬했다. 그리고 종장에서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물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빗대어 끊임없이 학문을 수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라는 구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는 전반적으로 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② [A]는 인물의 독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화는 찾을 수 없다. ④ [B]에 ‘그치지 아니한고’라는 의문형 어구가 나타나지만 반복은 아니며, 화자도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A]와 [B]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42.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㉞은 텐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을 따져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라고 충고하는 말로,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여기서의 ‘바람’은 풀을 흔들리게 하는 자연 현상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과는 관련이 없다. ②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별은 다양한 시대나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④ ‘사람 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텐동어미는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사람 눈’은 성숙한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⑤ (다)의 화자는 천석고황(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성벽)에 빠진 채 자연 속에 묻혀 달관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43-46] 고전 소설

서유영, '육미당기'

작품해설 :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리 작자가 알려져 있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에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 널리 읽혔던 인기 소설이다. 치밀한 구성과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 소설은 신라 태자 김소선의 일대기를 다룬 것으로, 김소선이 중국에서 용맹을 떨친 후 일본 원정을 하여 항복을 받아 낸다는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전반부는 구약(救藥) 모티프와 형제간의 갈등, 선과 악의 갈등이 주축을 이루고, 후반부에서는 남녀 결연과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문의 내용은 세력가인 배연령의 아들 배득량이 백 소저와 혼인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백 소부(백문현)가 곤경에 처하는 부분이다.

[주제] 신라 태자 김 소선의 영웅적 일생

43. 비판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배득량이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하나 소저의 아버지인 백 소부가 이를 반대하자, 이에 양심을 품은 배연령이 간계를 부려 백 소부는 애주 참군으로 강등되어 압송당하게 된다. 즉 백 소저 개인의 혼사 문제가 백씨 가문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딸(백 소저)의 결혼에 백 소부가 관여하고, 아들(배득량)의 간청에 배연령이 억지로 혼인을 이루려 애쓰는 것으로 볼 때 배우자의 선택에 부모가 개입하고 있다. ③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닌 권세가 강하고 약함에 따라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④ 대신들 간에 다툼은 나타나지 않으며, 백 소부에 대한 처리로 볼 때 천자의 권위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⑤ 간신 배연령이 황보박을 부추켜 백 소부를 무고하는 상황은 나타나나, 간신들이 오랑캐와 결탁하여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랑캐와 결탁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백 소부를 무고한 말일 뿐이다.

44.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해설 : ㉠은 김소선의 시에 대한 화답으로 백 소저가 지은 것으로, 두 남녀 사이의 혼약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백 소부가 김소선에게 시를 주며 맹약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은 혼약이 이루어졌음을 당부하는 것이지, 김소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다.

정답 ④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① 서로의 마음을 담은 시를 주고받아 혼약을 맺은 것이므로, 김소선과 백 소저의 관계는 긴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두 번째 수의 내용을 통해 백 소저가 강직하고 지조 있는 성품임을 알 수 있다. ③ ‘시의 격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 가히 소선의 시와 더불어 백중(伯仲)이 될 만하다. 만일 남자였다면 마땅히 장원 급제하리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백 소부가 ‘시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복선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배연령의 참소로 백 소부가 고난을 겪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4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석 시량은 ‘아름다운 옥을 구덩이에 버리고 상서로운 난새를 까막까치의 짝으로 삼음과 같으니’라는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옥’과 ‘상서로운 난새’는 백 소저를 빗댄 것이고, ‘까막까치’는 눈먼 김소선을 빗댄 것으로, 백 소부의 성품을 미화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석 시량은 ‘아름답고 어진 생질녀’라고 하며 백 소저의 용모와 인품을 치켜세우고 있다. ② 석 시량은 ‘눈 먼 폐인’이나 ‘까막까치’ 등의 표현을 통해 김소선을 깎아 내리고 있다. ④ 석 시량은 ‘지금 배 승상은 가장 천자의 총애를 입어 위세와 복록을 이루어 그 권세가 두려울 만하거늘’이라고 말하며 배연령의 위세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그 호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지라.’라고 말하며 그에 편승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바라건대 다시 깊이 헤아려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6.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적용)

정답해설 : 배연령이 공부 좌시랑 황보박을 사주하여 백 소부(백문현)가 오랑캐와 결탁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무고하자 천자는 크게 노하여 백 소부를 장차 죽이려 했으므로, 백 소부가 ‘백척간두(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좌고우면’은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이다. 황보박은 배연령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 배연령과 천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다. ③ ‘막역지우’는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 의하면 백 소부와 배연령은 친한 친구가 아니라 적대 관계가 된 것이다. ④ ‘절치부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청혼을 거절당한 배연령이 분노하여 백 소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배득량이 아버지인 배연령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행동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동병상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은 백 소저이다.

[47-50] 기술, '디지털 피아노 작동 원리와 소리의 저장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원리와 건반의 소리가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피아노는 건반의 움직임에 따라 내장된 컴퓨터가 해당 건반의 소리를 재생하는 악기이다. 건반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각 건반마다 설치된 3개의 센서로 감지한다. 이 중에서 한 개는 건반의 눌림을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내장 컴퓨터의 CPU는 이를 통해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온다. 나머지 두 개의 센서는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CPU는 이를 통해 음의 크기를 조절한다. 한편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각 건반의 소리는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된다. 샘플링이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매 구간마다 파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샘플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양자화란 샘플링을 통해 얻은 측정값을 양자화 표를 이용해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건반의 소리는 이런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통해 변환된 부호의 형태로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것이다.

[주제]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원리와 건반의 소리가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는 과정

47.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각 건반에는 3개의 센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작동하는 센서는 건반의 눌림 동작을 감지하고, 나머지 두 개의 센서는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그런데 각 센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한다. 즉 건반의 눌림 동작과 세기는 동시에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감지는 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각 건반의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되어 내장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각 건반마다 설치된 3개의 센서가 감지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샘플링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양자화 표는 일반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 변화 폭을 일정한 수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 이진수로 표현되는 부호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할당한 표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진술은 결국 양자화 구간을 이진수로 표현된 부호로 일대일 대응시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양자화 구간마다 할당된 이진수 부호는 같을 수 없다.

48. 추론적 사고(도식화를 통한 원리의 이해)

정답해설 : 각 건반에는 3개의 센서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 건반의 눌림 동작과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그러면 내장 컴퓨터의 CPU는 감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오고 소리의 크기를 조절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한다. 따라서 ㉞가 ‘샘플링된 소리의 측정값’이라고 한 ㉡는 적절하지 않다. ‘샘플링된 소리의 측정값’은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과정이 아니라, 건반의 소리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할 때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리 파동의 모양을 수치화한 것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각 건반에 있는 3개의 센서는 건반의 눌림 동작과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이때 건반을 누르는 세기는 건반이 움직이는 속도를 이용하여 감지한다. ㉢ 건반의 센서로부터 건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CPU는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온다. ㉣ 건반의 센서로부터 건반을 누르는 세기가 감지되면 CPU는 음의 크기가 적절하도록 소리 데이터를 처리하여 DAC로 보낸다. ㉤ DAC는 CPU가 보낸 소리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다.

49. 추론적 사고(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매 구간마다 파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을 샘플링이라 한다. 이때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가 짧아질수록 생성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진다. 즉 데이터의 개수는 소리 파동의 모양과는 관련이 없고 샘플링 주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

[오답피하기] ㉡ 5문단의 ‘자릿수가 늘어나면 양자화 구간의 간격이 좁아져 소리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문단의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부호에 사용되는 이진수의 자릿수에 의해 결정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문단의 ‘양자화는 샘플링을 통해 얻어진 측정값을 양자화 표를 이용해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문단의 ‘이때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음질이 좋아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 어휘 · 어법(어휘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를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이고, ㉢은 ㉣라는 집합에서 하나의 개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날개’는 ‘비행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이고, ‘복숭아’는 ‘과일’이라는 집합에서 하나의 개체에 해당한다.

정답 ㉡

[오답피하기] ㉠ A와 B 어느 것도 적절하지 않다. ㉢ A가 적절하지 않다. ㉣ B가 적절하지 않다. ㉤ A가 적절하지 않다.

01. ③ 02. ④ 03. ① 04. ④ 05. ① 06. ③ 07. ⑤ 08. ④ 09. ③ 10. ①
 11. ④ 12. ② 13. ⑤ 14. ② 15. ② 16. ⑤ 17. ④ 18. ⑤ 19. ① 20. ④
 21. ③ 22. ⑤ 23. ③ 24. ② 25. ③ 26. ⑤ 27. ② 28. ① 29. ② 30. ①
 31. ⑤ 32. ③ 33. ④ 34. ⑤ 35. ③ 36. ⑤ 37. ③ 38. ② 39. ④ 40. ②
 41. ② 42. ① 43. ③ 44. ④ 45. ④ 46. ① 47. ⑤ 48. ① 49. ⑤ 50. ①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가곡 「보리밭」을 듣고 계신데요, 오늘의 주제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선사시대부터 재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도 보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보리 씨앗을 비둘기 목에 달아 주몽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모작으로 보리를 경작해서 효과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리가 주식이 아니다 보니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보리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보리는 쌀에 비해 칼슘, 철, 인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섬유소도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보리는 새삼 환영받는 곡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보리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공 식품의 재료에서 동물용 사료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보리밭을 조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보리는 참 쓸모가 많은 작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사실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대본에 의하면, 예전에는 지금보다 보리를 많이 재배했었다. 그것은 보리를 경작하면 이모작으로 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씹는 느낌과 맛이 좋아 보리를 주요 곡물로 많이 재배했다는 설명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삼국유사에 보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② 예전에는 이모작으로 보리를 경작해서 효과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④ 보리는 쌀에 비해 칼슘, 철, 인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섬유소도 몇 배나 더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리가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보리는 가공 식품의 재료에서 동물용 사료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보리밭을 조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도 있다. 이를 통해 보리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2. 다음은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선 시대의 모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볼까요? 드라마 촬영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앞쪽에 두 사람이 있군요.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오른쪽에, 윗부분이 잘린 원뿔 모양의 모자가 보이나요? 전모라고 합니다. 부녀자들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쓰던 외출용 모자인데, 대나무로 샷샷 모양의 테두리를 만들고 여기에 종이를 발랐습니다. 무늬가 화려하죠?

맨 왼쪽 남자가 쓴 것은 패랭이입니다. 정수리 모양이 둥근 패랭이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만들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썼는데 보부상들은 목화송이를 큼직하게 엮어서 쓰기도 했죠.

화면 중앙에 나란히 서 있는 세 남자를 볼까요? 이 사람들이 쓴 모자는 모두 양반들이 주로 쓰던 것입니다. 그중, 가운데 사람이 쓴 모자는 유건이라고 하는데요, 검은색 베나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유건은 주로 유생들이 성균관 같은 학교나 집 안에서 썼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쓴 것은 탕건입니다.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마치 계단처럼 턱이 진 형태죠? 탕건은 유건과 달리 말의 갈기나 꼬리털인 말총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 중 오른쪽 남자가 쓰고 있는 모자는 갓입니다. 갓은 머리를 덮는 부분과 둥근 형태의 차양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나무와 말총을 주재료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탕건만을 쓰고, 외출할 때는 갓을 썼지요.

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남성들이 쓰며, 양반들이 쓰는 것으로 말총을 재료로 삼아 만드는 모자에는 탕건과 갓이 있다. 그런데 탕건은 집에서 쓰는 것이고 갓은 외출할 때 쓰는 것이다. 따라서 ‘외출할 때 쓰나요?’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아니요’에 해당하는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탕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갓은 남성 양반이 쓰는 모자 중 말총으로 만든 것이나 외출할 때 쓰는 것이다. ② 유건은 남성 양반이 쓰는 모자 중 검은색 베나 모시로 만든 것이다. ③ 전모는 부녀자들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쓰던 외출용 모자이다. ⑤ 신분이 낮은 남자들이 쓴 모자이며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서 만들었다.

3. 다음은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 이 시간에는 과학 기술 평론가 박 선생님을 모시고 적정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 : 네, 안녕하십니까?

여 : 먼저,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남 : 네, 적정 기술은 첨단 기술로부터 소외된 다수를 위한 기술입니다. 주로 가난한 나라나 저소득층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그 지역의 환경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과 문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 : 예를 하나 들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남 : 큐드럼(Q-Drum)이라는 물통이 있습니다. 식수를 얻기 위해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아프리카의 시골 주민들을 위해 개발한 것이죠. 지름이 50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드럼통을 떠올려 보세요.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사이를 관통하여 줄이 걸려 있습니다. 물통을 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는 대신 줄을 이용해 굴리면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도 손쉽게 운반할 수 있죠.

여 : 기술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소박하군요.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남 : 네, 지세이버(G-saver)라는 것도 있습니다. 몽골은 겨울철 기온이 낮아 난방이 중요한데요, 지세이버는 기존 난로 위에 부착하는 소형 기기로 열을 오래 지속시켜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설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연료 소모량을 40% 정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 : 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적정 기술은 _____.

3. 추론적 사고(이어질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남자의 두 번째 말에서 적정기술이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며, 첨단 기술로부터 소외된 다수를 위한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정 기술이 지역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첨단 기술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이므로 첨단 과학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적정 기술은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④ 적정 기술은 가난한 나라나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한 기술이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적정 기술은 전 세계인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도록 돕는 기술이다.

[4~5] 다음은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 오늘 신문 봤어? '리더는 성과로 말한다'라는 특집 기사가 났더라. 역시 뛰어난 리더가 되려면 성과가 중요한 것 같아.

남 : 당연히 성과도 중요하지. 하지만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

여 : 그게 무슨 말이야?

남 : 너도 알다시피, 연극 경연 대회에서 우리 동아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연습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단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결국 그만둔 단원도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있었잖아. 우리 동아리 회장이 진정으로 뛰어난 리더였다면, 단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들었을 거야.

여 : 글썄……. 나는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덕분에 역대 어느 회장도 이룩하지 못한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우리 모두 기뻐했잖아. 그런데 합창반을 봐. 단원들 의견을 일일이 듣다가 의견 일치할 보지 못해서 지역 대회에 나가지도 못했어. 이런 합창반 반장을 뛰어난 리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남 : 그것은 합창반 반장이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해. 그리고 구성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고.

여 : 단원들이 연습 과정에서 불만이 생긴다면, 나중에 적절하게 보상하면 되잖아!

남 : 아니지, 그러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 심지어는 부당한 요구조차 정당화될 수 있어.

여 : 너의 말은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남 : 그뿐 아니라 뛰어난 리더는 리더 자신보다도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리더라야, 헌신하고 봉사하는 리더도 될 수 있거든.

4. 사실적 사고(입장의 파악)

정답해설 : 남자는 뛰어난 리더의 조건으로,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구성원을 존중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하며, 자신보다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함으로써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면 된다는 내용은 여학생의 견해이며, 남학생은 그렇게 하면 부당한 요구조차 정당화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남학생은 구성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연극 경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단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며 결국 그만둔 단원도 있다는 실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학생도 주장을 제시하는 데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합창반의 실제 사례를 들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객관적인 자료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③ 여학생이 신문의 특집 기사를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전문가의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남학생과 여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학생 모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말하기 방식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여학생은 남학생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진술이 모호하지도 않다. ⑤ 남학생은 여학생의 주장에 반박을 하며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학생은 마지막에 남학생의 견해를 정리해서 묻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학생의 견해를 수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것은 아니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지역 봉사 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과학 교실에서 학습 도우미로 활동했던 것을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도 봉사 활동으로 인한 부수 효과이지 이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과학자가 되어 이웃과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이 가장 첫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슈바이처 박사를 들면서 지식이나 능력을 남과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초등학교 과학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이 친형처럼 잘 따라 주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는 내용과 입원 중에 같은 병동에서 새 친구들을 여럿 사귀었다는 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신에게 붙임성이 좋다고 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고 1 때 많이 아파서 한 달 동안이나 입원했지만 이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았다는 점, 이 시간을 의미 있는 삶과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겼다는 내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7. 창의적 사고 (개요 수정 및 보완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3-나. 불신 풍조의 확산으로 사회적 소통 단절’은 상위 항목인 ‘거짓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회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거짓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하위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가.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 심리’는 ‘[1회] 거짓말의 심리적 동기’의 하위 항목에 해당한다. ‘사실 은폐와 위증’은 거짓말을 하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1. 우리 사회의 거짓말 양상’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다. ② ‘1-라. 근절되지 않는 주변국의 한국사 왜곡’은 우리 사회의 거짓말이 아니므로, ‘거짓말이 넘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살피는 기획 의도와 맞지 않는다. ③ [2회]의 작성 계획을 보면, 사례를 제시한 후 원인을 밝혀야 한다.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 ‘1-나’를 보면 루머와 흑색 선전이 있다. 이처럼 루머와 흑색 선전이 만연하는 것은 ‘신뢰성 없는 정보가 쉽게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에 ‘신뢰성 없는 정보가 쉽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게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3-가.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부족'은 거짓말이 성행하게 되는 원인에 해당하므로 '2'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8. 비판적 사고(글감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헌책 교환 행사가 정착되었을 때 지역 주민의 새 책 구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글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글감에는 주민들이 헌책을 쉽게 버리게 되는 이유, 헌책 활용 사례, 헌책 활용을 통해 부수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 등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주제는 '우리 지역의 헌책 교환하기 행사를 활성화하자'이다. 이 주제로 지역 관청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예상 독자로 삼아 글을 써야 한다. 지역 주민이 많이 봐야 글감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관청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지역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지역 주민들이 헌책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③ 글감에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헌책 베풀시장이 지역 명물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유럽에 각양각색의 헌책 마을이 곳곳에 있으며, 문화적 명소가 된 곳도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문화적 위상 제고를 기대 효과로 제시할 수 있다.

9. 비판적 사고 (고쳐 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은 '꽃살문에서 꽃문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이다. 꽃살문의 꽃문양이 지닌 의미는 네 번째 단락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네 번째 단락에서 꽃살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꽃살문을 부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조건에 의하면 글의 서두에서 내소사의 역사를 소개해야 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도록 첫째 문단에 '내소사의 창건과 변모 과정'을 추가해야 한다. ② 둘째 문단은 꽃살문을 부분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셋째 문단은 꽃살문을 전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조건에는 꽃살문 묘사를 전체에서 부분으로 하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맞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은 모란의 꽃말인데, 이는 꽃살문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는 문단의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⑤ 사진을 꽃살문이 잘 드러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심 소재의 사진을 첨부한다는 <보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다.

10. 비판적 사고(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A]에 들어가는 내용은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상이어야 하며 관용 표현과 의인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①이다. ①에서는 내소사의 꽃살문이 마음속에 품은 뜻을 내게 말해 주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의인법에 활용된 예이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관용 표현도 사용하여 감상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내소사 꽃살문의 꽃문양들이 화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었다는 것은 의인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화려한 외모’라는 내용은 앞서 제시된 글로부터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글쓴이는 꽃살문의 특징으로 소박하고 단아함을 제시하고 있다. ③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감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인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④ 내소사의 꽃살문이 현대인들을 엄숙하게 꾸짖고 있었다고 하여 의인법을 활용하였으나 관용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였으나 의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11. 어휘·어법 (언어의 특징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무거운 침묵’의 특징으로 고정된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고정된 형식이라는 것은 ‘무거운’과 ‘침묵’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다른 말로 대체가 안 되며 앞뒤 순서를 바꾸면 부자연스럽거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는 예는 ④의 ‘뜨거운 눈물’과 ‘새파란 젊음이’이다. ‘뜨거운’ 대신에 ‘차가운’을 쓰면 ‘차가운 눈물’이 되는데 이는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 ‘차가운 목소리’는 사용하지만 ‘차가운 눈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물’도 다른 말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 ‘새파란’도 ‘파란’ 등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젊음이’도 ‘어린이’ 등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따라서 ‘뜨거운 눈물’과 ‘새파란 젊음이’가 ‘무거운 침묵’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말들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꽃다운 나이’에서 ‘나이’는 ‘외모’ 등으로 대체된다. ‘높다란 나무’에서 ‘나무’도 ‘건물’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진정한 친구’에서 ‘진정한’은 ‘착한’ 등으로 대체된다. ‘친구’도 ‘우정’ 등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씻누런 들판’에서 ‘씻누런’도 ‘파란’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③ ‘차가운 공기’에서 ‘차가운’ 대신에 ‘뜨거운’을 쓸 수도 있고 ‘공기’ 대신에 ‘물’을 쓸 수도 있다. ‘막다른 골목’의 ‘막다른’도 ‘예쁜’ 등으로 대체된다. ⑤ ‘팽팽한 대결’에서 ‘대결’은 ‘싸움’, ‘관계’ 등으로 대체된다. ‘가벼운 발걸음’에서도 ‘가벼운’은 ‘무거운’으로 ‘발걸음’은 ‘목소리’ 등으로 대체된다.

12. 어휘·어법 (연결어미의 쓰임 이해)

정답해설 : ㄱ을 보면 ‘-(으)면서’는 평서문과 어울리고 있으며, ㄴ을 보면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등과 어울리고 있다. 따라서 ‘-(으)면서’가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ㄱ의 ‘쳤으면서’와 ㄴ의 ‘나섰자’에는 공통적으로 ‘-었-’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가 사용되면 ‘-(으)면서’나 ‘-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 ③ ㄴ은 ‘동수가’와 ‘비가’로 앞뒤 부분의 주어가 달라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런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데 ㄷ을 보면 앞뒤 부분의 주어가 같아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④ ㄹ을 보면 ‘-(으)면서’는 ‘상냥하다’는 형용사와 어울리고 있다. 이 경우 상냥하면서 동시에 차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상냥하고 차분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 ⑤ ㅂ의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는 ‘-(으)면서’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3-16] 현대소설 - 이태준, ‘돌다리’

작품해설 : 물질적 가치관에 젖어 농토를 팔아 병원을 확장하려 하는 아들과 땅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통해 땅의 본래적 가치보다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한 작품이다.

[주제] : 금전적 가치를 숭상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 비판

13. 사실적 사고(사건의 발생순서 파악)

정답해설 : 사건의 발생순서는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하다 → 아버지가 다시 개울가로 나가다 → 장정들이 다릿돌을 놓다 →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이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이 작품에 나타나는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향을 찾아가는 창섭의 심리와 처지(땅을 팔자고 할 수밖에 없는 창섭의 처지)를 서술함. 2. 고향집에 도착한 창섭이 어머니와 대화하고, 이를 보고 개울에서 집으로 들어오시는 아버지. 3. 창섭이 아버지에게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함. 4. 아버지가 창섭의 이야기를 다 듣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그리고 장정들이 다릿돌을 놓고 있는 현장을 가보기 위해 다시 개울로 나감. 5.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창섭에게 땅을 팔 수 없는 이유와 땅에 대한 신념을 밝힘.

14.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

정답해설 : 서두 부분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을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와, 지문 끝 부분의 아버지의 발화를 통해 ‘완고한 아버지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아버지)와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을 뿐 ‘해소하는 인물’로는 볼 수 없다. ③ [A] 부분의 ‘지금 시국이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을 통해 창섭이 ‘세계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들은 것일 뿐 그러한 세계를 ‘고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 갈등을 조정하는 아버지의 역할도 이 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서울루! 제발 아이들하구 한데서 살아봤음 원이 없겠다.’는, 손자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내는 것일 뿐 어머니가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5.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와 장면의 서사 기능 파악)

정답해설 : [A]는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며 아버지를 설득하는 창섭의 발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는 병원 확장 계획과 땅을 팔아 부모님을 모시려는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아버지 소유의 땅을 팔아 자신의 병원을 확장하려는 계획 자체가 창섭이 이해관계에 얽매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은 적절하지 않다.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로 든 것일 뿐이므로 이를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창섭이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사려는 건물이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므로 이를 창섭의 ‘배려심 많음’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창섭의 말투가 드러나려면 장면을 직접 제시하는 대화가 더 적절한데 [A]는 창섭이 한 말을 작가가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고, 창섭의 말투가 아니라 창섭이 한 말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말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6. 추론적 사고(공간의 서사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창섭은 땅을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어머니는 서울로 가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인물이므로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의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창섭은 땅을 매매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땅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② ‘넌 그 다리서 고기를 잡던 생각두 안 나니?’,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를 통해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추억과 애환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 보군 한다. ④ ‘장소애의 의미’란 땅이 ‘천지만물의 근거’, ‘조상들과 그 땅의 인연’이라는 아버지의 발화를 말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7-20] 인문,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고”에서 주장한 ‘그림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그는 이 이론을 통해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 말하고, 언어에서의 명제와 세계에서의 사태가 각각 대응한다고 말한다. 이때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닌,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다. 따라서 명제 역시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며,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은 실제 일어난 것의 여부에 달려 있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다. 결국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은 의미 없는 명제라고 말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형이상학적 철학에 대해 비판한다.

[주제] 그림 이론을 통한 비트겐슈타인의 기존 철학에 대한 비판

17.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을 통해 세계와 언어의 관계를 규명한다. 세계에 속하는 사태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 명제라는 것이다. 이때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랬을 경우에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④의 경우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 모두를 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한 것이지 모두가 참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마지막을 보면,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는 진술이 있다. ②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가 논리실증주의와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1문단에 진술되어 있으며, 2문단을 보면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한 것이 ‘그림 이론’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명제와 대응하는 세계의 요소가 ‘사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다. ⑤ 4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등과 관련된 논의는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18.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없는 명제’는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을 가리킨다. ⑤의 명제는 경험적 세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바람직한 삶’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언급한 것으로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경험적 세계에 대한 언급으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② 과학의 법칙으로 경험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태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③ 실존했던 인물의 탄생 시기와 지역을 언급한 것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다. ④ ‘우리 반 학생’이라는 실재하는 대상에 대해 ‘헌혈’이라는 구체적 사태를 언급한 것이다.

19. 사실적 사고(의미 관계의 파악)

정답해설 : ㉠과 ㉡은 그림 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때 ‘모형’은 ‘언어’로, 실제 사건은 ‘세계’로 바꿀 수가 있다. 또한 언어는 ‘명제’로 구체화되며, 세계는 ‘사태’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의 연결도 ㉠과 ㉡의 관계에 해당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의 ‘논리적 그림’은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러한 명제 중에서 ‘의미 있는 명제’와 ‘의미 없는 명제’를 비트겐슈타인은 구분한 것이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따라서 ㄷ의 관계는 상하의 논리 관계에 속한 것으로, ㉠과 ㉡관계와는 다르다. ㄷ의 형이상학적 주체는 경험할 수 없는,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기에 경험적 세계와는 대립된 것이다.

20. 비판적 사고(핵심 논리에 따른 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는 비트겐슈타인의 말로, 그는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그 내용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문을 보면, 그는 의미 있는 명제는 실재하는, 경험 가능한 사태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 내용을 연결시키면, 결국 “논리 철학 논고”는 경험 가능한 사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의 책은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를 넘어서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비트겐슈타인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는 언어에 대한 분석이므로, “논리 철학 논고”가 이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 ②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를 다룬 이 책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은 아니다. 또한 만약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언급이라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일어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사태이다. 이때의 사태를 언급한 명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④의 답지는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라고 진술하고 있어 앞뒤의 진술 내용이 모순이 된다. ⑤ ㉠은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21-24] 기술 ‘이어폰으로 소리의 공간감을 구현하는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이어폰으로 스테레오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만든 기술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청각 체계는 두 귀 사이 그리고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단서를 이용해 음원의 위치를 지각한다. 우선, 음원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가 나타나서 수평 방향을 가늠하게 된다. 또 고주파음의 경우 장애물 역할을 하는 머리로 인해 ‘소리 그늘’ 현상이 나타나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 데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머리 측면과 귓바퀴의 굴곡으로 인해 소리의 간섭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차이도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이어폰에서는 스테레오 음악을 구현해 내고 있다.

[주제] 이어폰으로 공간감을 구현하는 원리

2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둘째 문단 참조. “음원의 위치는 소리가 오는 수평·수직 방향과 음원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지각”하는데, 이 음원의 위치를 지각하는 “정확도는 음원의 위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와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음원의 위치를 지각하는 것은 방향과 거리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람의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음원의 종류를 알아내는 기관이다.(2문단) ② 사람의 청각체계는 두 귀 사이, 그리고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의 상호 작용 등의 단서들을 이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알아낸다.(2문단) ④ ‘소리 그늘’, 즉 음원의 반대쪽 귀에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은 머리 때문에 반대쪽 귀에 소리가 잘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4문단) ⑤ 머리 측면과 귓바퀴의 굴곡에 의해 소리가 반사되면 간섭 작용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주파수 분포의 변형이 생겨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진다.(5문단)

22.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소리 그늘’ 현상은 주로 고주파의 대역에서 일어난다. 저주파의 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리 그늘’ 현상은 주로 고주파 음원의 수평 방향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되며 저주파 음원에서는 ‘소리 그늘’을 활용하기가 어렵다.(4문단)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두 귀에 소리가 도달하는 순서와 시간을 감지하면,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낼 수 있다. 음원까지의 거리가 아니다.(3문단) ② 음원의 공간감은 음원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문단의 질문에 이어진 둘째 문단이 음원의 위치를 지각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소리의 크기는 공간감을 느끼게 하지만, 주파수 분포는 공간감과 무관하다. “사람의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음원의 종류를 알아내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 ③ 음원의 수평 방향은 두 귀에 도착하는 순서, 시간 차이 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리가 울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소리가 좌우로 시차를 두고 들리게 되기 때문에 음원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반사된 소리들은 상호 작용에 의해 ‘간섭’까지 이루어져 주파수 분포의 변형이 나타난다.(5문단) ④ 귓바퀴의 굴곡은 음원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 ‘소리 그늘 현상’등을 활용하여도 음원의 수평 방향은 지각할 수 있다.

23. 추론적 사고(원리의 적용)

정답해설 : 같은 소리가 두 귀에 들리는 시간 차이는 음원의 수평 방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은 ‘발 바로 아래에서 나는 소리’는 귀의 수직 방향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시간차를 이용한 소리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리의 크기는 거리와 관계가 깊다.(2문단) ㉡는 멀어지는 소리이므로 크기와 관련이 깊다. ② 머리 위의 수직 방향에서 나는 소리는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000Hz 이상의 소리를 고음이라고 하고, 그 이하를 저음이라고 한다. 오른쪽인 수평 방향을 감지하게 하도록 시차를 두고 있다. ⑤ ㉢ 유리잔 깨지는 소리는 ‘소리 그늘’ 효과가 생기는 고주파 음원이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24. 어휘 어법(문맥에 맞는 적절한 한자어의 파악)

정답해설 : ‘치중(置重)하다’는 ‘어떤 것에 특히 중점을 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은 중점을 두어 강조한 것이 아니고 위치가 한 쪽으로 쏠린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인 현상이지 어떤 강조된 의미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음악을 듣는 것이므로 ‘청취(聽取)’라고 바꾸어도 무방하다. ③ ‘파악(把握)하다’는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알아내다’라는 뜻이다. ④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발생하다’를 써도 된다. ⑤ 소리의 크기와 관련된 어휘이므로 소리의 크기나 양이 감소하다로 바꾸어 써도 된다.

[25-28] 고전소설 - 박지원, ‘호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당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이면을 폭로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위선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학자와 열녀로 이름이 있는 이들이 보이는 가식적인 행태를 통해 인간 사회가 지닌 문제점과 지배층의 위선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데, 범이라는 존재를 내세움으로써 작가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는 특징을 지닌다.

[주제] : 선비의 위선적 의식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에 대한 비판

25. 추론적 사고(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다)는 북곽 선생을 여우가 둔갑한 존재로 여기고 그 북곽 선생(여우)를 잡아 죽이려는 장면인데 이로 인해 (라)에서 다섯 아들이 북곽 선생을 붙잡으려고 방을 급습하고 간신히 도망치는 북곽 선생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③의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와 (나)에는 모두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와 (다)는 모두 대화 중심으로 장면이 전개되고 있다. ④ (라)와 (마) 모두 갈등이 나타나 있을 뿐 ‘갈등 해결’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마)와 (가)는 구조면에서 유사한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26. 비판적 사고(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뿐만 아니라 이 글 전체에는 북곽 선생의 ‘성찰’은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의 ㉠(밤)과 ②의 ㉡(방)은 북곽 선생과 동리자가 명성과는 달리 욕망을 드러내는 시간이므로 두 인물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 ‘북곽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시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구덩이)는 옷을 더럽힌다는 의미와 북곽 선생이 불순하게 되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아침)은 농부에게 허위적 모습을 보이는 북곽 선생의 태도를 드러내고 이는 사람들이나 호랑이에게 보이는 위선적 태도와 동일선상에 있는 모습이므로 ‘재확인하는 시간’이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27. 추론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는 위선적이고 허위적인 복곽 선생이 그려져 있을 뿐, 부를 이용하여 벼슬을 얻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여우가 사람 시늉을 한다는 것은 복곽 선생이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그림자를 감추다’는 것은 허위적 모습과 아부하는 태도(치부)를 감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애교를 부린다는 것을 복곽 선생이 호랑이에게 비굴하게 구는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여우는 복곽 선생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를 잡아 죽이자는 말은 복곽 선생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한다는 것으로 복곽 선생이 봉변을 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8. 사실적 사고(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정답해설 : 자화자찬은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 자랑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라)~(바)에는 그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감언이설’은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인데 이는 (마)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임기응변’은 ‘그때그때 처한 형편에 맞추어 일을 알맞게 처리함’을 뜻하는 말인데 이러한 태도는 (라), (마), (바)에 두루 나타나 있다. ④ ‘대경실색’은 ‘크게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함’을 뜻하는 말인데 이러한 태도는 다섯 아들이 덮치는 장면과 호랑이를 만나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전전긍긍은 ‘매우 두려워 조심함’을 뜻하는 말인데, 이러한 태도는 (마)와 (바)에서 호랑이를 대하는 복곽 선생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29-30] 사회,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

지문해설 : 이 글은 경제학에서의 ‘외부성’을 설명한 후, 이러한 외부성이 사회 전체로 보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개별 경제 주체는 이기적 경제 활동을 추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말하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 역시도 비용이 드는 것이기에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비효율성과 이의 해결 방안

29.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외부성은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인데, 두 경우 모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이익을 준다고 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둘째 문장을 보면,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 이는 개별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③ 4문단 첫 문장에서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해결 방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④ 2문단 처음을 보면, 사회 전체로 보아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효율성이 충족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에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며, 비효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을 보면,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부성'이라고 볼 수 없다.

30.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의 사례는 외부성으로 인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즉, 공장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해진다. 이 경우, 생산량을 이윤 극대화하는 양보다 줄이게 되면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크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답 ①

[31-36] 시가복합

(가) 박재구, 「구두 한 켄레의 시」

작품해설 : 이 시는 고향에 다녀온 화자가 자신의 낡은 구두와 관련하여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미 다녀온 고향의 풍경을 나타내면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 들린다.',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저문 고향의 강물소리를 들려준다.'와 같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고향의 풍경을 바로 눈앞에서 펼쳐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작품에 드러난 계절적 배경은 '겨울 보리', '살얼음', '영하속' 등으로 보아 아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문턱이다. 낡은 구두를 신고 고향을 다녀온 뒤에 화자는 고향의 모습을 구두에 묻혀 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향에서 묻혀온 고향의 모습을 출렁거리는 강물소리로 떠올리고 있다. 즉 시각과 청각 등 다양한 감각 외에 구두에 강물소리가 묻어 있다는 등 공감각적인 표현까지 사용되어 한층 다양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물의 '출렁출렁' 소리가 신발의 '덜그럭덜그럭' 소리로 이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참신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인상적인 표현으로 평가된다.

[주제] 고향을 다녀온 뒤에 떠올리는 고향의 이미지

(나) 김동환, 「산 넘어 남촌에는」

작품해설 : 이 시는 봄이 오는 '남촌'을 배경으로 하여,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을 부드럽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때 '산 넘어 남촌'은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를 상징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전개되는데, 첫 번째 부분인 1, 2 연에서는 남촌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풍요로움과 흥겨움, 그리고 화자의 상상 속에 아름답게 존재하는 남촌의 자연에서 느끼는 다정함과 평화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3연에 이르러서는 남촌에 있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하며 화자의 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운 생각에 재에 오르니’라는 구절은 바로 남촌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시행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남촌에 대한 매우 친밀한 느낌을 품고 있는 것은 그 곳이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 남촌에 임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따뜻한 내용들을 7.5조 3음보의 운율에 담아 노래함으로써 민요풍의 느낌을 준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봄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표현되는 것도 특징이다.

[주제] 이상 세계에 대한 그리움

(다) 이광명, 「북찬가(北竄歌)」

작품해설 :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절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지은이 이광명은 10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독자로 자랐다. 영조가 즉위한 후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극심할 때에 이광명의 백부인 이진유도 그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결국 당쟁에서 패한 백부 이진유가 의금부에서 죽게 되자 집안이 급격히 기울고 많은 종형제들의 벼슬자리가 모두 끊기는 비운을 맛보게 되었다. 이런 당쟁의 살벌한 현장을 지켜본 이광명은 벼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서울을 떠나 강화도에 내려와 살았다. 그러나 을해사옥의 여파로 백부 이진유에게 역률이 추가로 시행되는 불행이 생기고, 이 여파로 이광명 또한 사촌 형제들과 더불어 유배를 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광명은 함경도 갑산으로 유배를 갔으며, 그곳에서 멀리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작품을 지었다.

[주제] 유배지에서 보내는 애절한 사모곡

31. 사실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이 문제는 세 개 작품에 대한 각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작품에 드러나는 속성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제 유형이다. (가)에서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보는 내용의 작품인데, 구두라는 중심 소재부터 고향의 풍경을 떠올릴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제재들까지 대부분 친숙한 사물들이 활용되고 있다. (나)도 한가로운 시골의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진달래, 보리, 실개천 등 여러 제재들을 활용하고 있고, (다) 또한 달이라는 전통적이고 친숙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 작품은 모두 친숙한 사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친숙한 사물들을 활용하여 (가)에서는 고향을, (나)에서는 남촌을, (다)에서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세 작품의 공통점은 친숙한 사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다)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② 대조적인 소재를 연속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③ 세 작품 모두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긴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④ 일상생활의 제재들이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세 작품 모두 이에 대한 관찰을 통해 교훈을 얻어내는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32.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고향에 다녀온 뒤 고향의 찰랑거리는 ‘강물 소리’를 떠올리고 있다. 이 ‘강물 소리’는 현재 화자가 있는 곳과 화자의 고향을 심리적으로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화자는 고향에 대한 애뜻한 정서를 강물 소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강물 소리’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노래’는 화자가 듣고 있는 것으로, 들릴 듯 말 듯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랑의 노래를 의미한다. 이는 남촌에 있는 입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이’라는 표현이 ‘조용히, 편안히’라는 의미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입과 남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겨울 보리를 의미하지만, (나)에서는 오월의 보리를 의미한다. ② (가)의 꿈은 화자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다)의 꿈은 잠자면서 꾸는 것으로 어머니를 만나 뵙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④ (다)의 추풍은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으로 동경하는 세계와의 매개와는 관련이 없다. ⑤ (나)의 구름은 화자의 시야를 가리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고, (다)의 ‘구름’은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33. 사실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는 남촌이라는 이상 세계를 설정하고 그곳에 대한 그리움을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다. (나)의 1연과 2연에서는 새로운 소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유사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3연에 이르러서야 다소 어조가 달라지고 부분이 나올 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찰랑찰랑’으로 표현되던 강물의 이미지가 ‘덜그럭덜그럭’이라는 구두의 이미지로 이어지면서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③ (가)는 하나의 연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고향을 떠난 현실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⑤ (나)는 1연과 2연에서 대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제재 및 시어의 선택을 통해 작품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34.창의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하이데거의 철학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준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보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항 유형이다.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것이 지닌 표면적인 의미 외에 사물 속에 내재하는 의미까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를 감상할 때, 고향을 다녀온 화자가 자신의 낡은 구두를 보면서 새삼 고향에 대한 여러 상념들을 떠올리는 것은 고향에 대해 무심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고향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낡은 구두에는 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는 ⑤에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의 분위기로 볼 때, 봄을 맞는 기쁨보다는 지난 일, 두고 온 곳에 대한 애틀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② 구두와 자신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부분으로, 구두를 통한 새로운 인식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구두를 구체적인 사물로 인식하여 도구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구두가 자신의 삶과 유사하게 그려지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판적 견해가 드러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고향의 익숙한 모습을 제시하면서 구두가 초면이라는 의미는 이 구두가 이토록 낡을 때까지 고향에 들른 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고향에 매우 오랜만에 왔다는 것을 뜻한다.

35.사실적 사고(작품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나)는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으로, 반복과 대구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1연과 2연은 매우 유사한 형식을 지니고 있어 운율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연에 이르러서는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강한 형식적인 요소가 다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품 감상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고 단조로운 느낌을 약화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그러므로 ③에서 각 연의 세 번째 연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내용은 <3>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적절한 서술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 <2>, <3>의 구성이 모두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은 2행씩 배열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② 똑 같은 구절로 시작되는 형식은 작품에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고, 작품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느낌을 준다. ④ 1연과 2연은 대구의 사용과 반복적인 형식 등이 매우 유사하지만, 3연에서는 앞부분에서 강조된 특징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변화된 형태를 드러낸다. ⑤ <1>과 <2>의 각 2연은 두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행의 문장 구조가 같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36.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다)는 멀리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절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마음은 늘 어머니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꿈속에서는 늘 어머니 계신 곳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뵙고 있지만, 화자의 현실은 지극한 그리움만 안고 있을 뿐이다. 이 때, 흐르는 ‘내’와 창가에서 노닐고 있는 ‘새’는 어머니에게 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와 ‘새’는 화자의 지극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함축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해’는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산’은 어머니와 자신 사이의 장애이다. ② ‘해’는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③ ‘달’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④ ‘산’은 어머니와 자신 사이의 장애이고, ‘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37-39] 희곡 - 함세덕, ‘산허구리’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36년에 “조선문학”에 발표한 함세덕의 처녀작으로,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산허구리’는 ‘복조’의 죽음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사실적이면서도 서정적으로 그려 내어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쪽 다리를 바다에 빼앗기고 두 아들, 사위마저 바다에 빼앗긴 채 폐인이 된 ‘노어부’, 노어부의 아내로 큰 아들과 사위를 잃은 슬픔을 미처 추스르기도 전에 둘째 아들 복조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실성해가는 ‘처’, 노어부 부부의 큰딸로 남편을 바다에 빼앗기고 도적질로 연명하는 ‘분 어미’, 그리고 형제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둘째 딸 복실이와 셋째 아들 석이 등 복조의 죽음을 계기로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를 통해 펼쳐지는 내용의 비극성은 완결된 비극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산허구리’는 1930년대 극 장르의 확립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한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자식을 잃은 절절한 슬픔에 정신줄이 오락가락 하는 처의 행동과 가족 전체를 내리누르고 있는 비극적 삶으로 인한 무거운 분위기 등은 이 극이 관객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작품으로 기억되는 데 일조를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완결된 비극적 구조의 형식적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극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소극적 현실 인식으로 일관하여 작가 의식의 허약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주제] 어촌 마을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

3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각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제 유형이다. 희곡에서는 대화와 동작을 통해 작품의 내용이 전개되므로, 내용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파악은 물론 인물들이 각각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윤 첩지’는 덩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연배의 동질감을 보여주면서 자식을 잃은 노어부의 슬픔에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노어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격한 감정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애쓰게 살아왔지만 고생만 평생 했고 남는 것이 없다는 한탄을 담은 노어부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 노어부가 윤 첩지에게 동의를 구할 때 윤 첩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노어부의 말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다. 말이 없는 행동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데, 윤 첩지의 행동은 동의, 공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복조’와 ‘복실’은 친형제이다. 석이가 복실에게 누나라고 하고, 죽은 복조를 보고 작은 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② ‘석이’는 복조의 죽음에 대해 큰 슬픔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런 단계를 지나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④ ‘분 어미’의 친정이 어디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복실’은 어린 시절을 행복하기만 했다고 여기고 있지 않다. 이는 ‘연기 한 번 무력무력 피어오른 적도 없었지.’라는 말로 드러나는데, 매우 궁핍하게 살아왔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8. 추론적 사고(특정 제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복조의 시체를 찾아 동네 사람들이 이를 복조의 집으로 옮겨 온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복조의 송장을 운반해올 때 물이 똑똑 떨어진다는 것은 복조의 송장을 물가에서 찾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복조의 송장이 쇠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 범바위 틈에 끼어 있었다는 동리 사람의 말은 이런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정보가 상반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동리 사람들이 물이 똑똑 떨어지는 복조의 송장을 들고 오는 것은, 복조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시각적 효과로 드러낸다. ③ 무대 밖으로 나간 처의 소리가 계속 들리게 설정함으로써 처가 계속 웃고, 울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④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어머니의 동작을 전달해주는 내용이므로, 관객들이 이전에 일어났던 처의 행동과 관련하여 전달 내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⑤ 먼동이 튼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 날이 밝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39.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의 흐름 속에서 <보기>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하려는 문제 유형이다. 팽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소재이다. 일단 비극적 현실 앞에서 표출되는 노어부의 분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노어부와 처의 불안정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처와 노어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표면적으로 드러내게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괘이’가 ‘처’가 내면 심경을 직접 토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괘이는 노어부가 가지고 무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노어부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② 괘이는 죽은 복조와 관련이 있으므로 노어부가 괘이를 가지고 들어오자 처는 아들 생각으로 그것을 빼앗게 된다. 이는 처가 노어부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③ 처는 괘이를 잡아 뺏고 노어부는 그것을 다시 뺏으려다가 멈추고 하는 행동을 통해, 처와 노어부의 충돌의 매개가 되고 있다. ⑤ 괘이에 대한 집착은 죽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관객들은 처의 행동을 통해 아들을 잃은 처의 허망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처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연민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된다.

[40-42] 언어 ‘한글의 표음성’

지문해설 : 이 글은 중국의 운서가 택한 ‘반절법’이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 대응이 아니어서 중국의 한자음을 학습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한 반면 『사성통해』와 같은 조선의 운서에서 한글은 일종의 발음 기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표음 문자인 한글의 유용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의 표음성을 ‘발음 기호’와 혼동하면 안 된다. 한글은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현 환경이 다른 음성이어도 국어 화자들에게는 동일한 말소리로 인식되는 경우, 이를 표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음소적 차원의 표기를 따른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한글은 표음성의 원리를 위해 ‘정확한 발음을 적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표기법을 택하고 있다.

[주제] 표음문자인 한글의 음소적 특성

40.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사성통해』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반절법으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한 것은 중국의 운서이다.(2문단)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였다. 이를 반절법이라고 불렀다.(1문단) ③ 『사성통해』

조선 시대 역관들은 중국의 운서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성통해』를 이용하여 학습했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중국의 한자음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④ 사성 통해에서 ‘東’의 발음을 한글 [동]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한글을 발음 기호처럼 활용한 것이다.(2문단) ⑤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것은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다. 한글이 그런 이상적인 발음기호가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3문단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41.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정답해설 : 중국의 운서는 두 개의 한자를 이용해 한자음을 표현한다.(1문단) 그러므로 두 개의 발음이 나는 한자는 4개의 한자를 이용하면 표현할 수 있고 3개의 발음이 나는 경우에는 6개의 한자를 이용하면 표현이 가능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반절법’은 한자를 초성과 중·종성으로 이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하면 초성과 중·종성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알고자 하는 한자의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③ ‘東’(동)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다른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東’이 다른 한자들의 발음 표시에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한자가 발음 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東’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德’과 ‘紅’ 대신에 다른 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다는 말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1문단) 일관성이 없어서 학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⑤ 한 글자의 발음을 알기 위해 하나의 발음 기호를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음을 조합해야 하므로 학습하는 데 불편했을 것이다.

42. 추리적 사고(원리의 적용)

정답해설 : [고궁이 크다]에서 같은 음으로 표시된 ‘고’의 ‘ㄱ’과 ‘궁’의 ‘ㄱ’이 B에서는 무성음 [k]와 유성음[g]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한글은 음소적인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4문단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한글은 무성음 [k]와 유성음[g]의 다른 소리를 같은 음자인 ‘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음성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고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다고 한다. ③ “출현 환경이 다른 어두의 [p]와 모음 사이의 [b]”에서 출현 환경은 어두와 모음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무성음 [k]는 어두에서 소리나고 유성음[g]는 모음 사이에서 소리가 나고 있으므로 출현 환경이 다르다. ④ ‘고궁이 크다’에서 ‘궁’의 ‘ㅇ’은 [ŋ]으로 ‘이’의 ‘ㅇ’은 무음 ‘∅’로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았다. ⑤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한 것이 아니라 발음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음성적 차원의 표기이다. 반면 A는 음소적 차원의 표기이므로 B가 표음성이 낮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3-46] 예술, ‘바로크 시대 음악, 정서론과 음형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서양 음악 중, 바로크 음악의 과제와 그 해결을 모색하는 흐름을 소개하는 글이다.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한 기악은 바로크 시대에 들어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성악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서론에서는 한 곡에 하나의 지배적인 정서가 실려야 청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락의 고저, 휴지, 단절 등의 연주 방식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마테존은 음조와 특정 정서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연결하고,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하여 가락, 리듬,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후 한슬리크는 음들의 순수한 결합을 통해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제] 바로크 음악의 과제와 해결을 위한 노력

43. 사실적 사고(내용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바로크 시대 음악의 전개를 서술하고 있다.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한 기악이 바로크 시대에 들어와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시대적 배경으로 보여준 후, 당시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기악이 어떻게 일정한 의미를 담아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즉, 당시의 음악적 과제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악가들의 노력을 살피고 있다. 정서론과 음형론이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을 통해 기악이 의미를 담아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부어마이스터나 마테존, 한슬리크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음악 이론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통념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② 비유적인 예가 아니라, 실제의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④ 정서론과 음형론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론의 다양한 분화 과정은 아니다. 특히 정서론의 경우에는 다양성을 찾기 어렵다. ⑤ 문답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4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을 보면, 마테존은 성악곡인 아리아를 분석하면서, 마치 기악곡인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형식에 주목하여 논의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④에서는 ‘가사의 의미와 악곡의 전개 방식들의 관계’라고 서술되어 있어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 처음에 악기의 발달, 다양한 장르 형성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 처음에서 정서론과 음형론이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기악 음악에 적용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③ 3문단 마지막에서 부어마이스터는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쉬거나 음들이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사로 표현되는 언어와 음악의 기법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5문단 마지막에서 한슬리크는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는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기법과 가사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지문에서 진술된 내용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된다. ④의 온침표는 ‘아무 말 없네’라는 가사의 뒤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를 부어마이스터의 견해와 연결하면 가사의 뜻에 맞춰 ‘아무 말 없음’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말의 장단’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마테존에 따르면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하는 것이다. ②
 음들이 딱딱 끊어지는 스타카토는 가사의 뜻에 맞춰 ‘떨어지는 눈물’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열리는 신의 하늘’이라는 가사에 맞춰 음을 점점 올라가게 하
 고 있다. ⑤ 다장조로의 조바뀜은 ‘환희’라는 가사 내용에 맞추어 기쁨의 정서와 관련
 된 음조로 변화시킨 것이다.

46. 어휘(문맥에 적합한 어휘의 파악)

정답해설 : 연주 방식과 관련된 어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손가락으로 가야금을 연주
 하는 것은 ‘현악기의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다’의 의미를 지닌 ‘뜯기’가 적절하며, 채
 로 장구를 연주하는 것은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다’의 의미를 지
 닌 ‘치기’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치기’는 A가 아닌 B에 적절하다. ‘켜기’는 ‘현악기의 줄을 활 따위로
 문질러 소리를 내다’의 의미이다. B는 장구이기에 현악기가 아니어서 적절하지 않으
 며, A의 경우에도 활 등의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타기’는
 ‘악기의 줄을 통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의 의미로, A에 들어갈 수 있다. ‘통
 기기’는 ‘기타, 하프 따위의 현을 당겼다 놓아 소리가 나게 하다’의 의미여서 B에 적
 절하지 않다. ④ ‘켜기’는 A에 사용할 수 없으며, ‘두드리다’는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의 의미로, B에 사용할 수 있다. ⑤ ‘통기기’는 A에 사용할 수 있으나
 ‘타기’는 B에 사용할 수 없다.

[47-50] 과학 ‘불확정성의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물체를 보는 일은 ‘대상에 부딪쳐 나오는 광양자를 지각하는 것’인데, 이는 작은 교란
 이어서 ‘책을 읽거나 야구공에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과 같은 일’에서는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그러나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고도의 측정 기술
 로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이다.

‘전자’와 같은 소립자를 ‘보기’ 위해서는 전자에 빛을 쏘아 충돌시킨 후 튕겨 나오
 는 광양자를 관측해야한다. 그런데, 광양자의 충돌로도 전자는 교란이 일어나 정확한
 운동량을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운동량이 가장 작은 빛인 긴 파장의 빛을 전자에
 충돌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자의 위치 측정이 부정확해진다. 반대로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 짧은 파장의 빛을 쏘면 광양자의 충돌로 인해 전자는 속도
 가 크게 변하게 되어 전자의 운동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소립자의
 세계에서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확
 정성의 원리이다.

[주제]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47.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광양자의 운동량이 크면 안 된다. 운동량이 큰 빛, 즉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하면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되므로 운동량을 측정한 값이 부정확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단에 정리된 내용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 시킨다고 했다.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라도 전자는 운동량이 변하게 된다. ② 물리학자들은 측정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측정에 교란이 되는 요소를 극복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2문단) ③ 4문단을 보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속도가 높아질수록 운동량이 커진다. 즉 속도에 운동량은 비례한다. ④ ‘야구공에 플래시를 터뜨리면 야구공에 광양자가 충돌하지만 그 때의 교란은 미미한 것이다.’라는 2문단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48.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물리학자들은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면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측정 오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자를 보는 것’은 소립자를 측정하는 것이기에 대상을 교란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시켜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전자의 충돌 위치 측정’을 부정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전자를 ‘보기’ 위해서는 빛을 쏘아 전자와 충돌 시킨 후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관측해야 한다. ③ 대상이 작긴 하지만, 광양자를 이용하면 감지할 수 있다. 즉 측정할 수 있다. ④ 전자는 책과 달리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또한 대상이 전달하는 의미의 해석 여부는 불확정성의 원리와 관계가 없다. ⑤ 책을 보는 경우와 전자를 보는 것은 모두 대상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이루어진다.

49. 추론적 사고(과학적 원리의 적용)

정답해설 :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한다는 것은 5문단을 보면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킨다는 뜻이다. 이는 전자의 운동량에는 영향을 덜 미치지만 전자의 위치 측정을 부정확하게 만든다.(5문단) 그러므로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에 나타난 전자의 위치 측정은 더 부정확하게 된다. 측정 오차 범위가 커지게 된다는 뜻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전자에 일정한 빛을 쏘고 후에 측정한 값이다. 그러므로 광양자에 의한 교란이 일어난 후의 값이다. ②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된다. 운동량이 주어졌으므로 질량을 알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는 일정한 파장의 빛을 쏘아서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있다. 오차 범위를 ㉠보다 줄일 수

| |
|--|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
|--|

없다고 했으므로 ㉞는 최소 오차인 셈이다. ㉜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운동량 측정이 부정확하게 되므로,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없다.

50. 어휘(사전적 의미)

정답해설 : ‘측정’은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재거나.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여 잴다는 의미이다. ㉠의 ‘잡다’는 ‘어떤 수나 가치 따위를 기준으로 세우다.’의 뜻으로 쓰였다. **정답①**

[오답피하기] ㉡ ‘(수확량을) 대강 어림잡아 헤아려보니’의 의미, 양을 측정한다는 뜻이다. ㉢ ‘(바지 길이를) 자 따위의 계기를 이용하여 그 정도를 알아보다’, 즉 길이를 측정한다는 뜻이다. ㉣ ‘가늠하다’는 ‘어림잡아 헤아리다’의 뜻이므로 여기서는 ‘넓이를 어림잡아 측정해 본다’는 의미로 쓰였다. ㉤ ‘대강 짐작으로 헤아려 보다’의 뜻으로 ‘건물의 높이를 대강 짐작해서 측정해 보았다’는 의미이다.